

# 경제적모순들의체계혹은빈곤의철학

## 제 2 권

피에르조제프프루동

1846 년

요컨대이러한것이신용의최초의발현이다. 혹은그학파가말하듯이신용의명제다.

화폐는그것이다른상품들위로아무리높이있어도곧바로교환의수단으로서는무게, 부피, 마모, 변질, 회소성, 운송의곤란함등상당한불편함을지닌것으로 나타나며, 돈을그자체로본다면, 주권자의서명이있고언제나그리고어떤종류의산물에대해서도수용될수있는이담보의도움으로누구나모든가능한재화들을조달할확신을가지게되니, 그소재와가치에서신용의완벽한담보가된다고하더라도가치들의대표물이자유통수단으로서바로이돈은단점들을가지며아쉬움을남긴다는것, 한마디로신용의불완전한증표라는것이된다.

상업적재능이그모든노력을기울이는것을우리가보게될것인데, 이는척도재의이고유한폐단을바로잡으려는것이다.

두번째항, 신용기관들의정반대계열은먼저계열의역, 어떤의미에서는부정이다. 그것은유통은행과할인은행그리고은행권, (불환) 지폐 papiers-monnaie, 태환지폐 monnaie de papier, 국정지폐 assignat 등과관련된 모든것을포괄한다. 다음은이발생의메커니즘이다.

내가이형이상학적공식들을끊임없이환기하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란다. 나는벌써앞의모든국면들을이공식들로가져갔으며, 그공식들안에도또한신용의다양한형태들을넣었다. 이에대해성찰한다면, 첫눈에아주흥해 보이고우리의문학적관습에아주생소한이장치가결국우리에게역사의열쇠를주어, 의식과확실성을가지고우리조직의본능적이고굴곡이심한사업을추진할수단을유일하게제공하는사회의대수학, 지적인수단이라는것을이해할것으로나는희망한다. 게다가우리민족은벌써민족을위협하는, 그리고 16 년전부터민족에게받아들이게만들려고애를쓰고있지만아주심하게도성공하지못한정치적추락을피하려면그타락한문학의비루함, 썩어빠진논단과상업언론의수다를포기할때다.

은행권은그배후에담보물, 즉그것이대표하는척도재를가지고있어서아직은결코허구가아니다. 이는아주간단히하나의추상이다. 즉그것을실현하고구체화하는, 그리고그존재가은행권의보증을이루는사실이나물질에서떨어진하나의진실이다. 이나라에서은행권은화폐의행복하고편리한대용물이지만, 화폐를증식시키는것은아니다. 그런데, 그러한것은환어음과예금인정을조합시켜은행권이이제부터취득할능력이다.

환어음이지불시에화폐처럼받아들여지니, 다르게말하면그것이모든종류의산물과교환될수있으니, 그것은또한돈과도교환될수있다. 이로부터유통은행, 즉상업어음을수수료의이득을보면서할인해주는할인자의직업이나온다.

자신의어음으로돈을만든상인은그러므로이런조작없이는그에게잡자는자본으로, 따라서비생산적자본으로남아있을자본을처분가능한것으로보유하는입장에놓인다. 환어음총액을가지고그는새로운가치물을생산하고, 서비스를확대하고, 임금을지불하고, 상품들을결제한다. 생산에서의신속성, 산물의증대, 자본의증식, 이런것들이할인의결과물들이다.

# 차례

제 9 장제 6 기 — 무역균형	4
I. 자유무역의필요성	4
II. 보호의필요성	12
III. 무역수지균형이론	49
제 10 장제 7 기 — 신용	60
I. 신용관념의원천과계통 — 이관념에관한모순적편견들	63
II. 신용기관들의발달	72
III. 신용의거짓말과모순. 그파괴적효과, 그것이가지는빈곤화능력	91
제 11 장제 8 기 — 소유권	116
I. 소유권은경제적계열바깥에서는해명이불가능하다. 상식의조직에관해, 혹은확실성의문제	116
II. 소유권확립의원인들	136
III. 소유권은어떻게타락하는가	154
IV. 소유권에의한신가설증명	173
제 12 장제 9 기 — 공동체	187
나의벗공산주의자빌가르델에게	188
I. 공동체는정치경제학에서생긴다	190
II. 고유한것과공동인것의정의	191
III. 공산주의문제의입장	195
IV. 공동체는그목적을시작으로간주한다	197
V. 공산주의는공동체의형상이고원형인가족과양립불가능하다	200
VI. 공동체는분배의법없이불가능하며, 분배에의해멸망한다	205
VII. 공동체는조직의법칙없이불가능하며, 조직에의해멸망한다	207
VIII. 공동체는정의없이불가능하며, 정의에의해멸망한다	211
IX. 절충적이고, 똑똑하지않고분간이안되는공동체	214
X. 공동체는빈곤의종교다	220

는환어음에주어지는보증을세배로해줄것이다. 그리고이런식으로무한히계속되어그증권의보증성, 그리고따라서그건고성, 그상업적가치는계속상승해그만기에도달해서지불하도록제시되기까지한다. 그러므로환어음은화폐의진정한대체물이며, 그약속이배서의경로에의거해점진적보증을획득하는만큼더욱확실한대체물이어서어떤경우에는제 1 품질의상업어음이돈보다선호되기도한다.

예금은행과함께사람들은또하나의추상으로올라갔다. 이는계산화폐와통용화폐의구분이다.

돈은모든물질및상품처럼마모, 변질, 절도그리고사기에종속된다. 다른한편, 화폐의다양성은그유통의장애물이며, 결과적으로근경의새로운원인이다. 공공예금을창조해어려움들을사라지게했다. 그예금에서는모든종류의화폐가그본원적가치대로, 그리고당좌계정에서의수수료를공제하고서받아들여지고예금의총액까지주조화폐로상환가능한물표로대체되었다. 1609 년세워진암스테르담은행은예금은행의모델로인용된다.

이처럼돈은본원적가치가없는지폐로대체되어부스르기위마모에도, 수수료에도구애받지않고, 한마디로결손을겪지않고, 그리고가장큰용이성을가지고서유통될수있었다.

그러나이처럼척도재의길을평탄하게해준것은별것아니었다. 이를계속으로부터나오게할수단을발견하는것이필요했다. 이를마련하는데사람들은소홀하지않았다.

돈은특별한상품으로서그가치가가장공신력있고, 가장잘평가된산물이다. 따라서교환의매개이고, 모든가치평가의원형이다. 그렇다고는해도이탁월한특권들에도불구하고돈은부가아니다. 돈만으로는우리의행복을위해서아무것도할수없다. 그것은말하자면부를구성해야할요소들의지도자, 분위기메이커일뿐이다.

자본가는그의재산이돈으로이루어진자이므로자신의기금을투자하고, 이를교환하고, 이를가능한만큼많이생산적으로, 돈을생산하는것으로, 즉모든종류의물건을생산하는것으로만들필요가있다. 그리고자신의금화를떨어버릴이필요를그는절실히느끼는데, 가진것이땅, 집, 기계등으로되어있는자본가가자신의사업을위해금화를장만할필요를느끼는것과마찬가지로절실히느낀다.

그러므로이두자본가들이자신들의자본에생산을시키려면, 그들이자본을연합할필요가있다. 그러나연합은그사람에게는필요한것만큼혐오스럽다. 그리고산업인도, 돈을가진자도서로친하게지내기를구하면서도연합을이루는데는동의하지않을것이다. 하나의수단이그들의혐오감을강압하지않고도그들의욕망을만족시키도록등장한다. 이는척도재의보유자가산업인에게자신의기금을대여하되담보로이산업인의동산및부동산자본, 그리고이에더해이익이나이자를받는것이다.

신용은세계열의기관들로발달한다. 앞의두계열은서로상반되고, 세번째계열은그들을긴밀한결합으로요약한다.

첫번째계열은환어음, 저축금고를관련시킬필요가있는예금은행을포함하며, 끝으로담보나저당을기초로한대출을포함하는데, 공영전당포가한예를제공한다.

이연속되는조작들을통해, 사람들은돈에게우선은길을쉽게해주고, 거리를단축시키고, 그리고는돈자체를집안에덜들어박혀있게, 생성되는것을덜겁내게해서모든사람들에게더접근가능하게만들기를원했다. 더명확한용어로는돈을더저렴한값에가지기위해한편으로는환어음으로운송을절약하고, 또한편으로는예금은행을통해재료의마모와환전을절약하는데신경을썼다. 끝으로돈에담보와저당의보증을제공해안전보장으로써척도재를끌어들였다.

환어음을통해서, 내가보유하는돈혹은내가파리에있는동안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내게지불되어야하는돈이마치내가그것을쥐듯이내쳐분에맡겨진다. 그리고역으로내가파리에서보유하고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지불해야하는금액이상트페테르부르크에존재한다.

이조합은무역의어쩔수없는결과다. 이것은결과가원인을따르듯이생산과교역을따라서진행한다. 그리고나는역사에서환어음발명의일자를찾아야일자를대략 12 세기나 13 세기로고정하는경제학자들의집착을납득하지못한다. 환어음은그것의작성이아무리아만적이고번칙적이라해도, 두나라가서로관계를맺고서일정금액이차입자의단순한인정이나대여자의권유로한나라에서다른나라에지불될수있는날부터존재한다. 이처럼오지에씨와함께토비<sup>4</sup>에대한지불의무증서, 그의친척가바엘이서명하고그것을소지한, 발행인은전혀모르는토비에게바로그가바엘이결제한지불의무증서를환어음으로보는것을아무것도막지못한다. 전설에따르면아시아에서기원전 5~6 세기에생겨난듯한이사실은이시기에환및할인업무들이라게스와니네베사이에서조직되지않았음을보여준다. 하지만, 그원리는그때부터알려졌고그결과는쉽게끌어낼수있었다. 이는당장우리의논제에충분한것이다.

모든사람은환의장점을안다. 그리고환이얼마만큼의척도재를대신하는지를안다. 마르세유의한상인이리옹의한상인에게 1000 프랑을지불할의무가있고, 리옹의상인은보르도의한상인에게 1000 프랑을지불할의무가있다. 리옹의상인이자신의채권을상환받고동시에빚을갚으려면그는보르도의자기특파원에게마르세유의상인에대한환어음을발급해서보낸다. 이환어음은결과적으로마르세유사람과리옹사람의이중보증아래 1000 프랑을대표한다. 같은조작이동일한환어음으로보르도의상인과툴루즈의다른상인간에반복될수있을것이다. 이

<sup>4</sup> 성서의외경 『토비트서』 의주인공토비트의아들이다. 토비트가가바엘에게는 10 달란트를맡기면서증서를만들어두조각으로찢어가바엘과각자보관했는데, 토비는그증서를아버지에게서받아온을돌려받으려고가바엘을찾아간다.-역자주

<b>제 13 장제 10 기 — 인구</b>	<b>226</b>
I . 생식과노동에의한사회의파괴 . . . . .	226
II . 빈곤은정치경제학의소행이다 . . . . .	236
III . 인구균형의원리 . . . . .	254

<b>제 14 장요약과결론</b>	<b>285</b>
--------------------	------------

# 제 9 장 제 6 기 — 무역균형

## 1. 자유무역의 필요성

자신의 규제 조치들의 효과성에 속고 자신의 내부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보상을 찾기에 절망한 사회는 외부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보장책들을 찾기에 나선다. 이런 것이 사회적 진화에서 대외 무역의 국면을 가져오는 변증법적 운동으로서, 이 국면은 곧바로 절대적 자유와 금지라는 모순되는 두 이론으로 정식화되며, 무역균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공식으로 해소된다. 우리는 이 관점들 각각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대외 무역이 판로를, 따라서 노동을 증대하고, 따라서 또한 임금을 증대해 인민에게 아주 험악하게 자신을 위해 구상된 조세의 보충수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더 합당한 것은 좀처럼 없다. 노동이 독점으로부터 세금으로, 그리고 권리 청구의 명목으로 획득할 수 없었던 것을 다른 데서 무역으로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인민에게서 인민으로 조직된 생산물의 교환은 빈곤을 완화해 줄 것이다.

그러나 독점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감당하지 않는 부담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듯이 노동 자체의 이름과 이익으로 교역의 자유에 반대하고, 민족 시장의 특권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사회는 한편으로 조세, 공안 기구, 그리고 무역 자유로써 독점을 길들이려는 경향을 띤다. 다른 한편으로 독점은 사회적 경향에 반발하고, 거의 언제나 납부액의 비례성, 임금의 자유 토론, 관세로써 이를 무효화하는 데 도달한다.

모든 경제 문제 중에 보호 원칙의 문제보다 더 열띤 논쟁이 벌어졌던 것은 없었다. 어떤 것도 언제나 배타적인 경제학파의 정신을 더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다. 이 학파는 이 점에 관해 자신의 보수적 습성을 벗고 갑자기 표변해 무역 균형에 결연히 반대 선언을 했던 것이다. 다른 데서는 어디서나 경제학자들이 모든 독점과 재산권의 잠들지 않는 수호자로서 수세를 취해 신출내기들의 주장을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멀리하는데 급급한 반면, 금지 문제에서는 그들 자신이 공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독점이 자신들에게 처음 나타난 듯이 독점에 고향을 쳤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 지방 이익, 보수적 원칙들, 주권자의 정척, 모두 말해서 상식에 정면 공격을 했다. 그들의 파문과 그들이 했다는 증명에도 불구하고 금지 체제는 오늘날 영불 英佛 친선의 선동은 아랑곳없이 콜베르와 필리프 2 세의 미움을 받는 시대에 그랬던 것만큼 활기차다. 이런 점에서 한 세기 전 사람들이 경제학파라고 명명했던 것 같은 종파의 웅변이 하는 말

점차 일련의 기념물들에 힘입어 하나의 순전한 추상인 신용을 실현해 가는 것을 특히 여기서 보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인간이 노동 분업, 위계, 경쟁, 독점, 조세, 무역의 자유 등 추상적 관념들이 모든 모순을 실재들로 전환시키는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말이다. 진정한 역사 철학은 경제적 국면들의 발달에 있다고 마침내 확신하는 것, 그리고 가치의 구성이 문명의 회전축이고 인류의 문제로서 결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은 신용이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하면서이다. 우리는 사회가, 오지에서의 행복한 표현에 따르자면, 우주가 태양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금화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신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국면들과 같기 때문이다. “같은 작가의 언어를 빌리자면 이는 인간의 지의적 자嫡子가 아니다. 이는 인간 사회 안의 하나의 필요, 급양의 필요와 마찬가지로 절박한 필요이다. 이는 여전히 선천적인, 섭리적 혹은 숙명적으로 지적인 힘이며, 미래의 사물들 혹은 어두운 혁명들을 자신의 일로 삼는다. … 권력들과 왕들은 움직이고, 돈은 그것들을 끌고 간다. 섭리가 하는 행위를 풍자함 없이 이런 말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거리낌 없이 말하자. 역사 철학은 결코 보쉬에의 계승자들이 수많은 예들을 제공한 이 반쯤 시적인 환상들에 있지 않다고. 그것은 사회 경제학의 모호한 길들 안에 있다. 일하는 것과 먹는 것, 이는 예술가인 작가들에게는 실례가 되겠지만 사람의 유일한 뚜렷한 목적이다. 그 나머지는 직업을 찾는 사람들 혹은 빵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오고 갑일 뿐이다. 이 겸허한 강령을 충족하기 위해 속세의 평민은 모든 철학자들, 학자들, 시인들이 걸작을 만드는데 쏟은 천재성보다 더 많은 천재성을 쏟았다.

우리가 아직 그러한 예를 인용한 적 없고, 이 사상의 변신들에 별로 익숙하지 못한 독자를 엄습할 이상한 것인 신용은 그가 가장 앞선 표현을 입고 벌써 종합적인 공식으로 제시된다. 이는 그것이 아직 이 울배반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것, 경제적 진화의 순서에서 일곱 번째의 이 울배반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치에슈코프 스키 씨가 한 저작물, 내가 응용형 이상학의 애호자들에게 읽기를 아무리 추천해도 지나치지 않은 저작물에서 입증한 것처럼 신용은 입장, 반대 입장, 그리고 구성으로 연이어 발달하면서, 따라서 긍정적이고 완전한 관념을 낳으면서 그 최고의 시기에 도달한다. 그러나 우리가 때가 되면 증명할 것처럼, 정기적으로 형성된 이 종합은 말하자면 부차적인 차원의 것일 뿐이다. 이는 아직은 모순이다. 이처럼 관념들은 물체들처럼 무한히 구성되고 분해되며, 그러면서도 과학은 어느 것이 물체인지 아니면 단순 관념인지를 결코 말할 수가 없다. 관념들과 물체들은 모두가 동일한 단순성을 띠며, 우리에게 그들의 비교 혹은 다른 물체, 다른 관념들과의 관계에 놓임에 따라서만 복잡해 보인다.

그러한 것이 신용이다. 그것이 탄생 시에 단순하게 보이던 것에서 상반된 것을 제시하면서 돌로 나뉘는, 그 다음에는 상반된 것과 결합하면서 복잡해지고, 이 결합 후에는 그 최초의 발생 순간처럼 단순하고, 기초적이고, 모순적이고, 무력한 것으로 다시 나타나는 관념이다. 그 증거들에도 도달할 때다.

진해감에따라국가에서차입의기술이완성되어가는것을보게된다. 신용을제공하는기술은아직도나타나야할참이다. 흔히당감을받기위해국가는자신의대차대조표를내놓을필요에처했다. 프랑스에서만, 그리고 287년이흐르는동안오지에 (Augier) 씨는국가에의해행해진파산이총아홉번을발견했다. 그역사가는이렇게덧붙였다. “우리의모든왕들아래서, 그리고로마가톨릭동맹의시대의영구적인당감, 아니면 1351년왕인장 (Jean) 에의해이당감수단이발명되면서부터즉위때마다의간헐적인비슷한당감의크고작은수단들을고려함없이.”

실제로그렇지않을수있었나? 그리고신용과국가의이들의어쩔수없는적대성을고려하기위해그리많은이성이필요한가? 국가는누가뭐래도, 무슨짓을해도, 시민들의보편성과같은것이아니고결코같지않을것이다. 따라서국가의재산은더이상개별재산들의총합과일치할수없을것이며, 같은이유에서국가의의무는각각의납세자에게공통이고연대적인것이될수없을것이다. 얼마동안여론을혼란시키고, 국정지폐에돈의신용과동등한신용을주고, 교묘한수단과은폐의힘으로이정부의거짓말을지탱하는일에끝장을보기바란다. 여전히당나귀에사자가족을씌우기만할것이며, 더적은당혹감속에서당신은가면무도회가그뒤에혼란과큰공포만남기고사라지는것을보게될것이다. 인류보다두세기를앞서간에언적사색에서국가의일은신용을제공하는것이지신용을받아들이는것이아니라고적었을때, 로 (Law) 가본것은노동자들의실질적연합이었다. 이는모든적대관계의화해의결과인경제적연대, 산업적인거대한통일로국가를대체해소비자에게처럼생산자에게신용과만족을유일하게제공할수있는이경제적연대였다. 애매한문장에속아서가면을사람으로간주하고국가를사회로간주한로는모순적가설을실현하는일에착수했다. 그는틀림없이실패하지않을수없었다. 그리고재간있는투기자가곧자신의경험의종말로도달한것은이엄청난파국속에서프랑스에는행복이었다. 우리는이거대한기만에관해재론할기회가있을것이다. 거기만의발명자는우리가척도재의유통, 혹은같은것으로서신용의발달을가져온다고상상하게해준수단이되는다양한허구들에관해말할때의첫번째열간이었다.

## II. 신용기관들의발달

신용은정치경제학전체에서가장어려운부분이지만동시대가장신기하고가장극적인부분이다. 또한그주제로간행된저작들의수가많고그중어떤것들은높은위상<sup>3</sup>을지님에도불구하고나는이엄청난문제가아직그모든크기에서, 따라서그모든단순성에서파악되지않았다고감히말한다. 영원한논리의수단인사람이

<sup>3</sup> 나는다른것들중에서도총체와독창성을위해오지에씨의간결하고사물들로가득한저작 『공공신용의역사』 (Paris, Guillaumin, 1842) 를인용할것이고, 철학적정신을위해서는치에슈코프스키씨의저작 『신용과유통에관해 Du Crédit et de la Circulation』 (Paris, Treuttel et Wurtz, 1859) 를인용할것이다.

마다내세우는것의반대를증명하며, 공산주의자들의선전과같은불신으로받아들여진다고말할수있다.

그러므로나는이저서에서채택한진행방식에맞게우선은금지체제의당파들에반대해무역자유가필연일뿐아니라경제적필연에속한다는것을증명해야하고, 둘째로는반反보호주의경제학자들에게반대해그들이독점의파괴로간주하는바로이자유가오히려모든독점들의수립에주어진마지막순간이고, 중상주의적봉건성의공고화이며, 모든빈곤과같이모든폭정들의연대성이라는점을증명해야한다. 나는이이율배반에대한이론적해법, 모든세기에서알려진무역수지균형이라는이름의해법으로끝을맺을것이다.

무역의절대적자유를편들어내세우는논리들은알려져있다. 나는그것들을그모든논조에서받아들인다. 그러므로그것들을몇쪽에걸쳐환기하는것으로충분할것이다. 경제학자들스스로말하게하자.

“세관들이알려져있지않다고가정해보라. 어떤일이일어났을까?”

“우선, 피비린내나는무한한전쟁이적어질것이다. 사기와필수의위법행위가존재하지않을것이고이들을처벌하기위해만든형법들도없을것이다. 상공업대결상대로서의이해관계에서나오는민족적대결관계는미지의일일것이다. 정치적국경선만있을것이다. 생산물들은영토에서영토로질곡없이유통하며, 생산자들의최대이익을가져다줄것이다. 교역은광범위하게정착되었을것이다. 총색, 궁핍은예외적사실일것이다. 판로는가장넓은의미에서존재하고, 각생산자는전세계를시장으로삼을것이다. ...”

나는여기서환상으로전락한이묘사를축약한다. 그저자픽스씨는다른점에서보면그환상에속지않았다. 인류의행복은세관원들같이별것아닌것에집착하지않았다. 그리고세관이결코존재하지않았다면, 노동분업, 기계, 경쟁, 독점, 그리고공안기구만으로도어디서나억압과절망을창조하기에충분했을것이다.

이어지는말은어떠한비난을받을내용도아니다.

“이시기에각정부의한시민이다음과같은말을들어왔다고가정하자.”

“나는내동포들의변명을앞당기고증진할수단을찾았다. 그리고나는내구상의결과들의탁월성을확신하므로내정부는이를즉각아주엄격하게적용할것이다. 장래에당신들은우리제품들중어느것들은더이상가지지않을것이고, 우리도당신들의제품중에어떤것들이상은가지지않을것이다. 우리국경선은상품들에전쟁을벌일군대, 어떤상품들은완전히배척하고다른상품들은무서운액수를받고받아들일, 감히들어오고나갈모든것에지불을시키고, 행렬, 수송차량, 짐꾸러미, 상자, 그리고작은갑까지찾아가고, 상인을몇날몇시간동안국경선에서멈추어있게하며, 웃옷과살가죽사이에들어와서도나가서도안되는무언가를찾아내기위해때로는그의웃옷을벗길군대로돌려싸일것이다.”

“장총과칼로무장한이군대에는앞의것보다더무서운, 펜으로무장한다른군대가찍을이론다. 그군대는항시규제를하거나규제를시킬것이다. 온갖명령, 통지문, 안내문으로상인을계속골탕먹일것이다. 파수를서면서도그상인은자기상

품을물수와벌금에서구할수있다고항상확신하지는못할것이다. 그리고두군대중어느쪽과분쟁을하지않으려면개별적용이그에게필요할것이다. 그리고이모두를당신은지구반대편에서처럼당신의나라에서도발견할것이다. 그리고당신은멀리갈수록장애물과위험을많이만날것이다. 그러나이런조합을통해당신은당신의동포들에게판매하는데확신을품으며, 이들에게는외부에서구매하는것이금지된다. 당신은경쟁을하지않으려고작은독점, 엄청난시장을포기하는거래를할것이며, 국내소비의주인이될것이다. 소비자에대해말하자면, 관심을기울여보면된다. 그는더비싸게지불할것이고, 향유는더적게할것이다. 이는그가공적인것, 즉정부가새롭고효과적인방식으로보호하려고하는공업과상업에행하는희생이다.”

나는모든지성들을만족시키기위해서이부정적인, 그리고아마너무시적인논지를아주길게보고했다. 공중앞에서자유는노예상태의빈곤의그림보다자신을더잘방어하지못한다. 그럼에도이논지자체는아무것도증명하지못하고, 아무것도설명하지못한다. 자유무역의필요성을이론적으로증명하는일만남는다.

무역자유는각각의사회를그민족적단위에서그리고인류전체의일부를이루는것으로고려하든, 그안에서자유로운개인들의군집, 자신들의인신에대해서처럼재화에대해서도주인인자들의군집만을보든, 경제발전, 그리고인류의행복창조에필요하다.

그리고우선여러민족들은서로에대해거대한개체들과같이서들사이에서지구의활용이나누어졌다. 이진실은세상만큼이나오래된것이다. 땅을아들들에게나누어준노아의전설은다른의미를가지는것이아니다. 땅이수만구획으로나누어져서그각각에서밖으로나가지도않고이웃과소통하지도않으면서하나의작은사회가살아가는것이가능했는가? 그러한가설의절대불가능성을확신하려면부자만이아니라소박한장인의소비에쓰이는물건들의다양성에주목하고이다양성이고립에서얻어질수있었는지를자문해보기만하면된다. 근본으로곧장가보자. 인류는진보적이다. 이야말로인류의독특한모습이고, 인류의본질적특성이다. 그러므로독방체제는인류에게적용불가능했으며, 국제무역은우리의완성가능성의제 1 조건이며필요불가결조건이었다.

그러므로단순노동자처럼, 각민족은교환을필요로한다. 인류가부, 지성, 그리고존엄에서상승하는것은바로교환에의해서일뿐이다. 우리가동일한사회의여러구성원간의가치의형성에대해말한모든것이마찬가지로사회들서로간에대해서도참이다. 그리고각정체政體가그품안에서발달하는이율배반들의점진적해결을통해그정상적형성에도달하는것처럼, 인류가자신의단일한형성을향해행진하는것또한민족들간의유사한방정식을통해서다. 그러므로민족과민족간의무역은어느사회도인류에서파문당하지않도록, 집단적인모든활동들과전문성들의툭니바퀴를도와주고, 모든종족이하나의가족이상을이루지않고지구가하나의작업장이상을이루지않는, 경제학자들이예견한시대를가속화하도록가능한한자유로워야한다.

작업장, 따라서특권화된작업장, 즉자유로운산업의멸망을, 때로는국가에의한신용의조직, 즉민간자본의철폐, 저축의불임성을창조하기를원할자들이다.

그러한고려사항들에구애받지않는이들에대해말하자면, 내가여기서그들에게그들이신용에손을대기전에풀어야할모순들의아주긴계열을환기시켜줄필요없이, 자본에전쟁을걸고투자를금지하면그들이가치물의발굴과연대가아니라유동자본의철폐, 교환의폐지, 노동의금지에빠르게도달하리라는것에그들이주목하게하는데에당분간한정할것이다. 자본의생산성이작동하는방식에불과한돈의상거래는필연적으로가장자유로우며가장파악이불가능하다고말하고싶고, 독재에가장저항적이고, 공동체에가장반발하고, 따라서중앙집중과독점을받아들일가능성이가장없다. 국가는은행에규칙들을부과할수있다. 어떤경우에서는특수한법률들로써그행위를제약하거나쉽게해줄수있다. 국가는자체적으로, 자기자신의계정으로도, 공공의계정으로도은행가들을대체하고그들의산업을독차지할수없을것이다.

국가를정말로신용의군주이고처분자로만든다는관념은실행불가능하며, 그것의터무니없음을 입증해주는얼마나많은고려사항들을내가침묵하고지나치는가! 그러므로두번째가설, 경쟁의가설, 혹은더제대로말해국가의협조가설에집착할수밖에없다. 특히신용의여전히모호한몇가지부분들, 이는국가의창도성을요구하며민간자본들이아직은싹티우지못했고달성하지도못했던부분들에관해서는그러하다.

국가에의한신용이라고요란하게공고된이조직, 그리고사물의힘에의해국가에서나오는모든것처럼어떤입법적조작으로, 그리고마찬가지로공안부처로전락하는조직과우리가말하는것은거리가멀다는데에동의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위태로움을초래하고국가에선천적인불신을공유하지않으려면중앙은행이행정집단에들어갔을때에도그작동의독립성전체, 그은행의이익과국가의이익의완전한분리를보전해야했으므로그러한은행은언제나왕국의금융제 1 가일뿐이기때문이다. 이는국가에의한신용의조직이결코아닐것이다. 거듭말하건대국가는노동도, 신용도, 아무것도조직한다는것이불가능하다.

그러므로국가는그태생적빈곤과함께, 그본질인비생산성과함께, 빚을지는습성과함께, 즉창의적능력에가장반대되는모든특질들, 국가를신용의군주가아니라불신의전형으로만드는특질들과함께남으며, 영원히남아야한다. 모든시기에모든민족들에게서국가가끊임없이자신의품에서신용이샘솟게하는것이아니라자신의차입을조직하는일에매달려있는것을보게된다. 스파르타는보물을가지지않아서차입기금을조성하기위해단식을단행했다. 아테네는미네르바에게서황금망토와보석을빌렸다. 수용, 갈취, 거짓화폐가폭군들의통상적수단이였다. 아시아의도시들은금융의모든비밀에익숙했는데, 덜야만적인방식으로나아갔다. 그도시들은우리가하는것처럼차입했으며, 조세로빚을갚았다.<sup>2</sup> 역사도전

<sup>2</sup> 오지에, 『공공신용의역사 Histoire du Crédit public』

간다. 어떻게, 어떤마법적인힘에의해, 어떤들어보지못한변형에의해국가는갑자기그중한핀도소유하지않는자본의처분자가될것인가? 어떻게비생산적인존재자체인국가, 따라서저축이본질상불쾌한것이되는국가가국립은행, 보편적출자자가될것인가?

그러므로재산의관점에서처럼생산의관점에서도국가가목소리를향하여이를공언하고그조항들을명령하는것이허락되는날까지조심스럽게그중재자가되는, 그리고자신에게유리하도록활용하는암묵적연대의가설로되돌아갈필요가있다. 왜냐하면이거대한기계작동하는것을보기전에는민간자본의도움으로형성되는, 그리고그경영이단지공무원들에게위탁되는은행업이단지문제라고생각할수없기때문이다. 그러한사업은, 그것이상업에자본을더싼값에장만해줄때에도모든유사한사업들과어떤점에서다를것인가? 이는국가를위한새로운재원을, 국가가거기에자기것은아무것도넣지않으면서창출하는일일것이다. 권력의손아귀에상당한액수를놔두는위험이아니라면나는진보가거기서얻을것, 사회가거기서얻을것을보지못한다. 국가에의한신용의조직은사물의토대로더가야한다. 그리고사람들은내가조사를추진해가는것을허락해줄것이다.

그렇고말고, 국가는가장큰, 가장불멸의수입을올리니, 조세를가지니자본을소유한다고들말한다. 국가가이조세를몇상탑추가로올려야했다면, 그래서이를신용의가장방대한작동들을결합하고실행하고보증하는데사용할수없는가? 심지어조세증가에의존하지않더라도국가가민족의제한된, 혹은무제한의보증아래서, 민족대표자들의투표에힘입어농공은행의완전한체제를창설하지못하게막는것이무엇인가?

그러나둘중하나다. 신용을일반이익을핑계로국가의이익이되게독점의대상으로삼겠다는것이거나, 아니면국립은행이오늘날의프랑스은행과같이그나라모든은행가들과공동으로기능하는것을인정하는것이다.

전자의경우에상황은개선되기는커녕악화될것이며, 사회는즉각적인해체를향해진행할것이다. 국가의손아귀에신용을독점하는것은어디서나민간자본의가장정당한권리인이자를맡을권리를부인해민간자본을폐지하는불가피한효과를가질것이기때문이다. 국가가출자자이고농공산업의유일한할인자로선언된다면, 자신들의자본에의지해살아가고이후로는소득을먹는대신원금을축내지않을수없게되는수천자본가들과관리생활자들을국가가대체한다. 나아가자본을쓸모없게만들어서국가가그것의형성을못게한다. 경제적진화의제 2 기저쪽으로퇴보하는것이다. 정부, 입법부, 민족에게그런일을추진할테면해보라고과감하게도전할수있다. 이쪽편에서는사회가어떠한능력으로도뒤집을수없을금속벽으로인해멈춘다.

내가거기서말하는것은결정적이며, 미지근한사회주의자들의모든기대를뒤엎는다. 이들은공산주의까지가는일없이끊임없는독단으로써가난한계급들의이익이되도록때로는보조금, 즉부자들의행복에대한사실상의참여, 때로는국가

자유무역의필요성에대한그에못지않게결론적인증명은개인적자유에서, 그리고사회가독점체들로구성되는사회의체제에서도출된다. 우리가제 1 권의강의<sup>1</sup>에서보여준것처럼이체제자체는우리의본성과우리노동자들의조건이필연이다.

개인전유와시민적평등의원리에따르면, 법은생산자와생산자의어떠한연대도인정하지않고기업가의임금노동자에대한연대도인정하지않아서, 어떠한사업가도자신의개별독점의이익에서다독점체들의중속이나제약을주장할권리가없다. 그결과는사회각구성원이자신의뜻대로자기소비에필요한물건들을공급받고자신의산물을그가발견하는구매자에게, 그런값에판매할무제한의권리를가진다는것이다. 그러므로모든시민은자기정부에이렇게말할근거를지닌다. 소금, 철, 담배, 육류, 설탕을내가당신에게제한하는값에내게양도하든지, 내가조달하는것을그냥놔두라. 내가왜당신이그것들에납부하도록강제하는웃돈으로써나를떨어뜨릴산업들, 내게서도독점하는사업가들을지탱해주지않으면안되는가? 각자는자신의독점안에, 각자는자신의독점을위해, 그리고무역자유는모든사람을위해!

그러므로민주적체제에서는영주권과왕권에원천을두는제도인세관은역겹고모순적이다. 자유, 평등, 재산권이단어들이고헌장은쓸모없는종이장이다. 아니면세관이인권과시민권의영원한유리이다. 또한영국의선동의소음에서프랑스의민주적신문들은일반적으로폐지론적원칙의입장을취했다. 자유! 이이름으로민주주의는흔리는붉은깃발앞에선황소처럼격분한다.

그러나무역자유이전형적인경제적이성집단적부의증가, 그리고각개인을위한행복의증대로부터민족과민족간의교역이라는사실에서만도출되는이성이다.

집단적노동자가자신의생산물을교역하는것이이득이된다는것을사회가의문시할수는없다. 이교역을통해소비는더다양해져서결과적으로더낫기때문이다. 다른한편, 노동의헌법과정치적협정에따를때독립적이고비연대적인시민들이모두개인적으로외국산업의공급물에서이득을볼권리를지니며, 거기서그것들각각의독점에대비한보장책을구할권리가있다는것은더구나논란의여지가없다. 그러나그때까지사람들은가치들의‘교환’밖에감지하지못하며, ‘증대’가있다는것을알지못한다. 이를발견하려면, 다른측면에서사물을바라볼필요가있다.

교환을이렇게정의할수있다. 산물들의생산에분업의법칙을적용하는것. 노동분업이가치물들의생산과배종의거대영역인것처럼, 교환에의한소비의분화는바로이가치물들의가장정력적인흡수수단이다. 한마디로, 산물들의다양성에따라, 그리고교환에따라소비를나누는것은소비할역량을증대하는것이다. 노동을그파편적작업들로나누면서그생산적역량을증대하는것과마찬가지다. 서로

<sup>1</sup> 제 6 장 | 을말하는것으로보인다.-역자주

모르는두사회, 매년각각 2 억프랑의가치물을소비하는두사회를가정하자. 우리가가정하는이두사회가산물들처럼서로다르고, 자신들의부를교환하게되면, 일정시간이지난후에소비의총액은, 인구가변함이없을때더이상 2 억프랑이아니고 2 억 5000 만프랑일것이다. 한마디로, 두나라의주민들은일단관계를맺고나서는자신들의산물의대체에지나지않을단순한교환에한정되지않을것이다. 다양성이이쪽과저쪽에토산물을포기하는일없이외국산물을향유하게초대할것이다. 이는이쪽과저쪽에동시에노동과행복을증대해줄것이다.

이와같이민족들의조화와진보에필요하고독점의성실성과정치적권리들의통합성에필요한무역자유는또한개인들과국가에는부와행복증대의원인이다. 이일반적고려는자유무역을편들어언급하는것이가능한모든공정적이유들, 내가일찍이받아들이며, 이에대해그장점을강변하는것이쓸데없다고보며, 게다가내가아는아무도그명백성에대해논란하지않는이유들을담고있다.

요컨대, 국제무역이론은개인들간경쟁이론의연장일뿐이다. 경쟁이산물들의저렴한가격만이아니라저렴한가격에서진보의자연스러운보장책인 것처럼, 노동의증대, 그리고노동이창출하는행복의증대와는독립적으로국제무역은각민족의그자신의독점들에대항한자연스러운보장책이다. 이는능숙한정부의손에서모든규제법률과상한보다더강력하고등산업공안의수단이될수있는보장책이다.

무수한사실들, 기괴하거나우스운도발들이다음으로이이론을정당화해준다. 보호책이독점에소비자를무방비상태로넘겨줌에따라, 극히이상한무질서, 극히맹렬한위기들이사회를뒤 흔들고, 노동과자본을위협에처하게하는것을보게된다.

“석탄, 철, 양모, 짐승들의인위적이고가격은어떤이들의이익을위해공동체사회에징수하는조세일뿐이다. 어떤노력을하든, 문제는언제나약속은항상하지만이런방식으로는될수가없으므로결코있을수없는개선조치들을염두에둘때민족이그런부담들을언제까지스스로에게부과할것인가하는점이다”하고블랑키씨는말한다.

“금수禁輸체제는나머지유럽에서처럼영국의방식에따라조직된우리의어떤산업들에자본의이익을위해인위적이고위험한추진력을거의배타적으로가하는경향을떨뿐이다. 그것은생산을과장하며, 동시에언제나보복이따르는외제수입에부과하는질곡을위해소비를제한한다. 그것은대외경쟁의도전을국내경쟁의광포한투쟁으로대체한다. 민족들간노동분업의행복한효과를파괴한다. 그들간의오랜적대성을유지한다. ... 노동과자본을너무자주갈라놓는깊은분열을조장하고, 일꾼들을갑작스럽게격하시켜극빈층을낳는다.”(「주르날데체코노미스트」, 1842년 2월)

블랑키씨가가치적한보호체제의이모든효과는진실이고, 무역자유에가해지는질곡에불리한이야기가된다. 유감스럽게도우리는곧그효과들이자유자제로부터그에못지않은강도로생겨나는것을보게될것이다. 그래서악을치료하기위해

국가를그독재공산주의적성향에도불구하고신용의창조자이자분배자로만들자는제안은그러므로큰중요성을띠며, 우리의모든주의를끌만하다. 우리가도달해있는지점에서경제문제들은더이상한계를가지지않으므로이제안에걸맞은규모에서가아니라세부내용을오직보충해줄수있는깊이와일반성을가지고서취급하기위해이제안을두기간으로나눌것이다. 하나는신용에관해서국가의모든과거를포괄하는신용이론이포괄하는것, 따라서국가에의해서든자유로운자본에의해서든신용조직에서기대할수있는것을확정하는것을목표로삼게될기간이다. 이는두번째와세번째절의소재일것이다.

경제학자들이최근시대에산업과관련해서는국가에그런능력이있음을부인한후에신용에관해서국가에게이인정해주었던조직능력을평가하기위해선행하는것들을호출하는것으로충분했다면, 우리는논리대신에우리의적대자들에게더욱감응을줄수있는경험을들이미는것밖에할수없는데, 그부분은우리의적대자들에게반대하는것으로는너무아름다울것이다.

그들에게우리는이렇게말할것이다. 국가는재산도자본도가지지않으며, 한마디로국가가그신용증서의기초로삼을것을가지지않는다는것이경험에서증명된다고. 국가가동산가치물과부동산가치물로소유하는모든것은오래전부터투자되어있다. 국가가자기자산외에진채무로서민족이국가대신그이자를지불하는것은프랑스에서 40 억프랑을넘는다. 그러므로국가가신용의조직자, 은행의기업가가된다면이는그자신의재원을가지고서는안되고피통치자들의재산으로될수있다. 이로부터국가에의한신용의조직체제에서는허구적혹은암묵적인일정한연대성에의거해, 시민들에게속하는것은국가에속한다. 그러나그역은아니다. 그리고루이 15 세의점점자가이군주에게그의왕국을가리키면서“폐하, 이모두가폐하의것입니다”라고말한것은옳았다고결론을내릴필요가있다.

시민들의재물에대한국가의이상급소유권리는공적신용의진정한기초다. 왜현장은이에대해말하지않는가? 왜입법, 언어, 관습은오히려그에상반되는가? 왜공공재산과개인재산의연대성이론을슬쩍도입하기를구하면서국가의모든종주권밖의시민들에게그들의재산을보장해주는가? 그리고이연대성이권력의우위와창도성의체제에서존재하지않고, 존재할수없다면, 이것이허구일뿐이라면국가의보증은무엇이되는가? 그리고국가에의해주어지는신용은무엇인가?

거의진부한단순성과공격할수없는실재성을가진이고려사항은신용문제전체를지배한다. 내가이따금새로운집요함을가지고이문제로되돌아오는데사람들은놀라지않을것이다.

국가에재산이없는것만이아니다. 국가에생산은더구나존재하지않는다. 국가는비생산적인자들의카스트다. 국정지폐에가치와확실성을줄수있는이익이예상되는어떤산업도국가에의해영위되지않는다. 이제부터는국가가생산하는모든것은공익사업에서든, 가정이나개인소비품에서든그값어치의세배의비용이든다는것이보편적으로인정된다. 한마디로국가는비생산적공안기관으로서, 그리고국가의일로삼은집단적사업부분에대한생산자로서오직보조금으로살아

그러나국제무역에서귀금속들이그우세성을상실한것이사실이라면, 이는말하자면국제무역에서도모든가치물이같은정도의확정성에도달했고, 돈과마찬가지로수용이가능하다는것, 다른말로하면교환법칙이발견되고노동이민족들간에조직된다는것이다. 이법칙을정식화할때, 이조직을설명할때, 신용을말하고노동자계급을위해새로운사슬을버리는대신, 국제적균형의원리의응용에따라교역하지않으므로파멸하는이모든산업인들에게, 일이부족하므로굶어죽는이일꾼들에게그들의산물이어떻게, 그들의수공업이어떻게이것이은행권이나돈일때처럼자신들의소비를위해처분할수있는가치물인지를가르쳐주기바란다. 뭐라고! 경제학자들에따르면민족들의상업을지배하는원리는사적산업에는작용할수없을것이다. 어째서그런가? 왜? 신의이름으로그이유, 증거를대라!

신용의관념자체의모순, 신용을조직하는기획의모순, 신용이론과자유무역이론간의모순. 이는우리가경제학자들을비난해야할모든것인가?

신용을조직한다는생각에경제학자들은또다른생각, 그에못지않게비논리적인생각을더한다. 이는국가를신용의조직자이자군주로만든다는생각이다. 저명한로 (Law) 는국가작업장의창설과산업의공화제화를준비하면서이렇게말했다. 국가의일은신용을제공하는것이지이를받아들이는것이아니다. 이는금융적봉건제에격분하는모든이들, 정부의절대권력으로이를대체하기를원하는모든이들을기쁘게하기위한훌륭한격언이다. 그러나두부류의사람들에게반대방향으로해석되는애매한격언이다. 한부류는세무와예산담당공무원들이다. 이들에게는민민의돈을국가의금고에가져오는모든수단은선이다. 그들만이거기서퍼내어쓸수있기때문이다. 다른한부류는내가거의정부수용收用이라고하는것을주창하는당파다. 이들에게는공동체만이득이될수있다.

그러나과학은기분 좋게해주는것에관심이없고, 가능한것을구한다. 그리고우리의반은행적열정, 우리의절대주의적이고공산주의적인성향은과학의눈에는사물의내밀한이성을이길수없다. 그런데국가로부터모든신용을, 그리고따라서모든보증을도출하려는관념은다음의문제에서드러날수있다.

국가, 비생산적기관이고, 재산도자본도없는인격으로서저당물로그예산만을내놓고, 언제나차입자이고, 언제나파산자이고, 언제나빚을잔뜩지고, 자신과함께모든사람을, 따라서자신의전주錢主들을개입시키지않고는투자할수없으며, 그바깥에서모든신용기관들이자생적으로발달한, 그국가는자신의자원, 보증, 자신의창도성, 자신이부과하는연대성에의해보편적출자자, 신용의창조자가될수있는가? 그리고그럴수있을때사회는이를허용할것인가?

이문제가긍정적으로풀린다면, 사회가자유무역을통해프롤레타리아트를해방시킨다는유토피아를포기하고자신에게로돌아가자본을그것을생산하는노동으로되돌림으로써생산과소비간의균형을재확립하기를구할때, 신용에의해발현된사회의서원을충족할수단을국가가보유하는결과가될것이다. 국가는신용을형성하면가치물구성의등가물을획득한셈이될것이다. 경제문제는풀릴것이고노동은해방되고, 빈곤은격퇴될것이다.

블랑키씨와함께병원病源을절대적으로퇴치해야한다는결론을내려야한다면, 국가, 재산권, 산업, 정치경제학에한꺼번에반대하는결론을내릴필요가있을것이다. 그러나우리는아직까지이울배반에도달하지않았다. 인용문을계속따라가보자.

“특권, 독점, 보호는불행한일꾼에게는예외가되지만, 잇따라검쳐져서모든노동의목표인생산물의분배에서기괴한현상을불러왔다. 어디에서도자유는작용역량에관한바람직한수준을지나친적이없다. 질곡들은사기를낳았다. 도둑질, 거짓말, 폭력은그일의보조수단들이다. 탐욕은오늘날부끄러움도없이모두의회생으로축적할수단을권리로주장한다. 투쟁은어디에나있고, 조화는어디에도없다.”

“그러나우리자신이달려가는곳은그렇게재앙적인결과다. 인민이아직아무것도아닌나라에서는사람들은착취의이런확고부동함을이해하지못한다. 그러나인민이전부가되는나라에서왜인민의목소리가들리지않는채로있는가? 경제적으로에서인민의이름이왜결코발설되지않는가? 이성이세상을다스려야한다고사람들이외친다. 그러므로프랑스민족이오늘날거의완전히채식식단을대할처지로전락한것은이성의이름으로된것인가? 프랑스민족이이성의기적들중에서입을웃도, 웃웃도, 신발도교환수단도없는채로있는것, 갑자기이미지의위생에서밀을대체하는것, 끝으로노동이오늘날영국에서처럼소비에대한생산의초과분을점점덜남기는것은이성의이름으로된것인가? 임금에비한산물의가격을결코격정하지않으면서때로는이사람들에게, 때로는저사람들에게먹잇감처럼시장을넘겨주는것은이성인가!”

“18년전부터프랑스민족은육류를먹지못하고있다. 매일각개인에게해당하는몫은급감한다. 그리고권리청구를할때마다 55 프랑의가격이생산자에게필요하다고우리에게차감계말한다! 필요하다고! 먹을것을못먹는것이어떤이들의재산에필요하다고!”[뒤사르 (H. Dussard), 「주르날데제코노미스트」, 1842년 4월]

확실히그그림은윤색된것은아니다. 그리고경제학자들이자신들의유토피아에대한관심을몰두해있을때이들에게진실을말하게, 사회적빈곤에관해온전한진실을말하게하려는것이다. 그러나그토록비난받는보호의원칙이정치경제학의구성원칙으로서길위의어디서나마주치는독점말고다른것이아니라면, 이원칙이재산권자체, 이독점의종교인재산권이라면, 나는경제학자들의위선에대해서는아니어도이들의비일관성에대해분노할권리가없는가? 독점이그토록역겨운것이라면왜그발판을공격하지않는가? 왜한손으로는향을바치고, 다른손으로는그것에칼을빼어드는가? 왜이런꿈수를쓰는가? 토지든, 산업자본이든, 제조공정이든모든배타적활용, 모든전유는독점에이른다. 이독점은왜그것의경쟁상대인해외독점이자신에게경쟁을걸어가기위해등장하는날부터만역겨운것이되는가? 왜토착민이외국인에게행사하는독점보다동포가동포에게행사하는독점이덜존경스러운가? 프랑스에서정부는왜루아르의석탄담합을감히직접공격

하지 않으면서, 자국민에맞서신성동맹의무장을촉구하는가? 내부의적에맞서 왜외부의적이런개입이있는가? 영국전체는오늘날교역의자유를위해일어섰다. 이나라의산업독점자들이토지독점자들에게반대해러시아인, 이집트인, 미국인들에게제한호소를말할것이다. 공격하는것이정말로독점이라면, 왜이런반역이필요한가? 영국의수백만명의맨손은수천명귀족에맞서기에충분하지않은가?

자유무역연맹 Ligue 의가장영향력있는구성원중한분인시니어 (Senior)<sup>2</sup> 씨는이렇게외쳤다. “일꾼들에게전적으로진실성을지닌말로서정부가제조업과상업에제공할방향에서선제조치를취했으며, 이런괴상한형령을어떤사람들의(실질적혹은가상적) 이익을위해활용했다고말할때, 양허한모든독점중에서가장악착같이수호하는독점이생존수단의독점이라는것을그들이발견할때, 자신들에게가장뻔뻔한박탈을가하고, 지배하는계급에게가장크고가장직접적인이익을주는것이바로그독점임을그들이알때, 우리는그들이이해악을섭리에따른재난으로견딜것인지아니면불의의슬픈결과로바라볼것인지를정부에묻는다. 이성이가장그들을후자의판단으로유도한다면, 그들의분노는어떤형태를취할것인가? 그들은복종할것인가, 아니면자신들의역량속에서이오랜침체의재분배를추구할것인가? 그리고그들의힘은무서운것이되기에충분히큰가?”

“이모든질문에대답하기는쉽다. 영국인구는도시들에도모여살고정치토론에익숙해진수백만개인으로이루어진다. 그들은우두머리를두고있고, 고유한언론을가진다. 그들은조합이라고칭하는단체들로조직되어그각각이공직자, 집행권, 심의권을가진다. 그들은각사회의필요를위한기금, 그리고결합된모든사회들의일반적필요를위한기금을가진다. 그들은오랜관습덕에담합을금지하는법들을피하고, 국가의권위에맞서싸우고도전하는데익숙하다. 그러한인구는번영시에도무섭다. 불행시에는심지어그불행을정부탓으로돌릴수없을때에도천배는더무서울것이다. 그러나이빈곤을입법의탓으로돌릴수있다면, 노동자들이실수때문이나나라도독질과압제때문에지배계급을고발할수있다면, 그들이지주의지대에, 농장주의이득, 혹은캐나다삼림업자의이득에서자신들이희생되는것을본다면그들의분노의효과에는어떤한계가정될수있는가? 우리의부, 우리의정치적보장혹은우리의헌법마저그러한갈등에서벗어날것이라고우리는확신하는가?”

이장광설에서폐지론자들위로공장다시떨어지지않는것은한마디도없다.

누가일꾼들에게세관을폐지함으로써그들을구원하기를원하는것처럼들러대는독점이이폐지로부터새로운기운을받아야했다고말할때, 사람들이실토하려고하는것과는아주다르게뿌리깊은독점이시장의배타적제공만이아니라특히토양과기계류의배타적활동에, 자본의확산되는전유專有에, 산물의매점買占에, 교역의자의성에도있다고말할때, 그들이이차취득거래의투기에희생되었고, 손발이뭉여자본의지대에넘겨졌으며그로부터파편적노동의파괴적효과, 기

울이잡힌다면결과적으로호혜성, 연대, 연합이존재하게된다. 이경우에신용은무익한공식, 무의미한말에불과하다. 노동이조직된다면 — 내가말해온모든것은노동의조직이다 — 신용은더이상재료에주어진첫번째밀그림에서부터소비자에의한산물의파괴까지를포괄하는유통자체말고다른것이아니다. 나는공동적사상의영감을받아가치의정상적측정을향해행진하고일체의그질곡으로부터벗어나는유통을말하는것이다.

판로의보충혹은예상으로서신용의이론은그러므로모순적이다. 현재다른관점에서이이론을고찰해보자.

신용은돈을성인반열에올리는 것이고, 임의의모든상품에대한돈의왕권을선언하는것이다. 따라서신용은반反금수론체제의가장명백한부인이고무역수지균형에대한경제학자들측의의심의여지없는정당화론이다. 그러므로경제학자들은일단자신들의관념을일반화하기를배우고, 어느민족이구매하는상품들은돈으로지불할지아니면그자신의산물들로지불할지가그민족에게상관없다면어떻게그민족에게돈이필요한지, 노동하는민족이기진맥진하는것은어떻게그리될수있는지, 어떻게그민족에게서소비하지않는유일한산물, 즉돈에대한수요가언제나있는지, 어음, 은행권, 지폐같이돈의부족을보충해주기위해이날까지상당된모든교묘한것들이어떻게이필요를나타내고더감지될수있게하기만하는지를우리에게말해주기바란다. 참으로, 반금수론적열광주의는오늘날경제학자종파를가리키는것으로서돈의상업을퍼뜨리고신용기관들을배증하는데헌신하는이례적인노력과는별개로더는이해가되지않는다.

다시한번문노니신용이란무엇인가? 이론은이렇게대답한다. 투하된가치를빼내서전에그랬던불활성상태로부터바로이가치를유통가능하게만들수있도록하는것이다. 더간단한언어로말해보자. 신용은자본가가교환이어려운가치물들의보관을대가로가장교환이잘되는, 따라서모든것들중가장귀중한상품, 돈을선불하는것이다. 치에슈코프스키 (Cieszkowski) 씨에따를때모든교환가능한가치물을미결상태로불잡아두는돈, 그것없이는가치물들자체가금지를당하는돈, 다른모든산물을측정하고지배하고주변화하는돈, 자신의빛을소멸시키고채무에서벗어나게해주는유일한수단인돈, 개인들에게처럼민족들에게행복과독립을보장해주는돈, 끝으로권력일뿐아니라자유, 평등, 소유권, 모든것이기도한돈을선불하는것이다.

이야말로인류가만장일치의찬성으로이해한것, 경제학자들이누구보다더잘알지만가장정력적으로공언된자신들의원칙과모순되게원지모를자유주의의환상을지탱하기위해우스운맹렬함으로끊임없이맞서싸우는것이다. 신용은노동자의손에그를죽일수단, 돈을건네주면서노동을구원하기위해발명되었다. 그리고여기서출발해서산업민족들간에는돈의장점은아무것도아니라고, 그민족들에게는계정을상품으로청산하든, 현금으로청산하든중요하지않다고, 그민족들이고려해야할것은자가격뿐이라고주장한다.

<sup>2</sup> 나소윌리엄시니어 (Nassau William Senior, 1790~1864), 영국의경제학자·역사학자

다. 노동도인구도충분히조직화된다. 생산은그것이무엇이든부족함이없을것이다. 그리고정부는이소란에어리둥절해져서그느리고바보같은몸짓으로저당법개혁을위해정부위원회를임명하면서여태껏있었던가장무서운신용기계의기초를놓는것을의무로삼았다.

그러므로언제나동일한후렴구다. 돈! 돈! 노동자에게필요한것은돈이다. 돈이없으면노동자는절망에빠진다. 빵이없는일곱아이의아버지가그런것처럼말이다.

그러나노동이조직되면, 그것은어떻게신용을필요로하는가? 그리고신용의찬양자들이주장하는것처럼그조직에없는것이신용자체라면어떻게노동의조직이완벽하다고말할수있는가?

왜냐하면결국우리의질투심있는독점, 비연대적생산, 그리고요행에좌우되는상업의체제에서소비자에게한산물에서다른산물로가는데운반수단으로소용되는것이돈, 오직돈인것처럼, 신용은돈의이속성을크게적용해생산자에게그가산물들을팔기를기다리면서그의산물들을실현하는데소용된다. 돈은판로, 부, 행복의실제적실현이다. 그것의신용은예상된신용이다. 그러나이경우와저경우에우두머리가언제나판로이듯, 생산에서소비로가기를원할경우에우선지나갈필요가있는것이판로이듯, 신용의조직은국내에서판로의조직과대등하며, 결과적으로경제발전의질서에서자유무역혹은해외판로의이론이곧바로따른다는것이결과로나온다.

그리고신용이소비보다는생산을유리하게해준다고말하는것은아무것도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해서는난점을후퇴시키기만할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경제학의여섯번째마당인판로를넘어서거슬러올라가면그총체가생산, 즉공안, 독점, 경쟁등을표현하는모든다른범주들을연속적으로만나게된다. 그래서결국신용이판로를예상하고판로의결과인모든것을예상한다고단순히말하는대신, 신용이피신용자에게서독점, 경쟁, 자본, 기계, 노동분업, 가치물의중요성에힘입어그의적수들을이길그런능력을가정한다고여전히말해야할것이다. 이는논지를약화시키기는커녕강화하는것이다.

그러므로소비의필요에대한, 따라서소비가능산물에주어야할규모에대한정확한지식없이, 임금의기준없이, 가치물들의비교방법없이, 자본의권리들의제한없이, 시장의치안없이 — 이모든것이당신의이론들에는혐오스러운것들이다 — 당신은진지하게신용, 즉판로, 판매, 분배, 한마디로행복을조직하기를어떻게배려할수있는가? 나는이문제를신용의조직자들이어떻게풀어가는지지켜보겠다. 당신이복권福券을조직하겠다고말한다면, 좋다. 하지만신용을조직하겠다고, 당신이, 신용을정당화해줄수있는어떤조건도수용하지않는당신이! 나는당신에게할테면해보라고도전한다.

그리고모순을막거나완화하기위해당신이이모든문제들이해소되었다고주장한다면, 내가말하건대판로가어디서나대체로생산자에게열린다면, 상품의판매보장된다면, 이득이확실하다면, 임금과가치라는아주가변적인이것들이규

계류의압박, 경쟁의재앙적인요동, 그리고조세의이사악한조류가생겨나는것을그들에게보여줄때, 그다음으로보호관세의폐지가어떻게특권의망을확장하고, 박탈을배가하고, 프롤레타리아트에맞서모든나라의독점들을결탁시키기만했는지그들에게보여줄때, 선거로선출된, 그리고왕조의부르주아지가자유를구실로이거짓과약탈의체제를유지하고공고히하고준비하는데에극히큰노력을했다고, 이체제를지키기위해교수자리가만들어지고, 보수가제안되고지급되고, 궤변론자들이고용되고, 신문들이매수되고, 정의가부패하고, 종교가동원된다고, 계획도위선도폭력도자본의폭정에빠짐이없었다고그들에게이야기할때, 결국그들이분노에휩싸이지않을것이라고, 일단복수의주인들이되고서그들이사면을하면서안식할것이라고생각하는가?

시니어씨는덧붙였다. “우리는이렇게경보를발하는것을유감으로여긴다. 우리는그럴필요성에탄식하고, 우리가하는역할은결코우리의마음에맞지않는다. 그러나우리는우리가가정한위험들이우리를위협한다고굳게믿으며, 우리의의무는공중에서우리신념의기초를알리는것이다.”

그리고나역시경보를울리는것을유감으로여긴다. 그리고내가행하는고발자의이직무는내성정에맞는가장고트머리의것이다. 그러나진실이말해지고, 정의가행해질필요가있다. 그리고부르주아지가자신을위협하는모든악들을당할만했다고내가믿는다면, 내의무는부르주아지의죄책의증거를확립하는것이다.

그리고정말로, 경제학자들이독점을세관원의복색복장에서만보고거부하는 반면, 내가그가장일반적인형태로추적하는이독점은무엇인가? 이는자본도재산도보유하지않는사람에게는노동과운동의금지, 공기와빛과생존수단의금지다. 이는절대적박탈, 영구적죽음이다. 옷도신발도셔츠도빵도고기도없는프랑스다. 포도주도철도설탕도연료도없는것이다. 꿈임없이근근으로낙담하고, 형언할수없는빈곤의공포에넘겨진잉글랜드다. 빈곤해지고, 퇴화되고야만과야생으로돌아간종족들이다. 그러한것들이, 무손특권이건그특권에의해얼머맞고비상을억압당할때자유가표현되는무서운표정들이다. 베르길리우스가지옥에둔대리석왕좌위에결박당한이위대한죄인의음성을듣는듯하다.

불행한테세우스가앉아있으니영원히거기앉아서  
큰목소리로그림자들을뚫고선포하네.  
정의를배우고, 신들을모욕하지않기를배우라.

Sedet, aeternumque sedebit  
Infelix Theseus, et magna testatur voce per umbras,  
Discite justitiam moniti, et non temnere divos!

오늘날세상에서가장상거래를많이하는, 정치경제학이보호하고, 성별하고, 신앙고백하는모든종류의독점에가장많이집어삼켜진민족이보호에반대해온통그리고한사람처럼등고일어났다. 정부는온인민의갈채를받으며관세폐지를명했다. 프랑스는경제적선전에넘어가서영국의방향을따르고유럽전체를따르는쪽으로이끌리기일보직전이다. 이위대한혁신의결과들을연구하는것이할일이

다. 그기원은우리가보기에는불신을일으키지않기에는결코충분히순수하지못하고, 그원리는충분히심오하지못하다.

## II. 보호의필요성

내가자유무역이론에맞서아주새로운이성들, 내가홀로그리고처음으로알아챈사실들밖에내세울것이없다면, 내가이이론에서숫어나게할모순은내고집의위안거리일뿐이며, 역설을이용해나를두드러지게내세우려는도가지나친질투심일뿐이라고생각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이편견은내이야기가신뢰를아주잃게하기에충분할것이다.

하지만나는보편적전통, 극히향상적이고극히진실한신념을수호하려는것이다. 나로서는경제학자들자신에대한의문, 그들이보고하는사실들에대한반감을지닌다. 내가설명하고, 또나를정당화해주는것은이반감, 이의문, 이전통이다.

자유를이야기하면서내가방금이야기한픽스씨는조심성과신중함그리고절제로가득찬작가이고세 (Say) 학파의가장머리가꽤경제학자들중간사람으로서그자신다음의말로자신의먼저번명제에반대되는것을내놓았다.

“어떠한차별도인정하지않는진보경제학자들은심오한신념이일으키는민첩함과모든기력을다해진행하기를원한다. 그들은세관, 독점그리고이것들을지탱하는인원을한방에쳐부수기를원한다. 그러한개혁의결과들은어떤것일까?”

“외제직물, 가공된철과금속들을관세없이들어오게하면소비자들은적어도일정시간동안은형편이좋을것이며, 어떤산업들은거기서큰이윤을보게될것이다. 그러나이런순간적이고예기치못한변화는엄청난재앙을그산업에유발할것이확실하다. 엄청난자본비생산적으로될것이다. 수십만일꾼이갑자기일자리와빵이없는처지가될것이다. 영국과벨기에는예를들어서프랑스의소비절반을힘안들이고조달할수있을것이다. 이는그만큼국내제조업을축소시킬것이지만, 또한생산을계속할입장에있는제련소주인들에게상당한피해도일으킬것이다. 직물산업에대해서도같은결과를보게될것이다. 영국, 벨기에, 독일은자신들의제품으로프랑스를범람시킬것이다. 그리고이런이례적인수입에직면한우리공장들대부분은지체없이폐멸할것이다. 어떤나라도그러한경험을감히하지못했다. 단하나의산업분야에서도하지못했다. 아담스미스의이론을추종했고아직도극히열렬히추종하는국가공무원들은이런성격의사업앞에서후퇴했다. 그리고나로서는그사업이위험과위험으로가득한것을발견한다고실토했다.”

이이야기들은충분히정력적이고충분히명확하지않은가? 그저자물적인사실앞에멈추지않고이론적으로자기공포감의동기를도출하지않은것이유감스럽다. 그의비판은내비판이획득하지못할권위를누릴것이다. 그리고아마도무역

의최고조건인이체제를금속가치의더넓은확산으로보충하는것이다. 이새로운관념의촉진자들은서로이렇게말했다. 돈이곧부라고. 그러므로우리가모든사람들에게돈을, 많은돈을마련해줄수있다면모든사람은부자가될것이다. 그리고땅의모든표면에서신용기관들이발달한것은이상난논법에따른것이다.

그런데, 신용의궁극적목표가논리적이고자명한, 그리고결실이많은관념을제시하고한마디로진보적조직법칙에순응하는만큼, 유일하게구해지고유일하게원해지는그직접적목적은환상으로가득하고그것이가진현상태에대한지향때문에위험으로가득하다는것이명확하다. 왜냐하면돈은다른상품들과마찬가지로비례성의법칙에종속되어, 돈의양이증가하는동시에다른산물들이비례적으로증가하지않는다면돈은그가치를상실할것이고, 결국사회적부에아무것도더해지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반대로척도재와함께생산이어서나증가하고인가가같은보조를따르면생산자들각자의상황에는아직아무것도달라지지않는다. 그리고두경우에요구되는해결책은한음절도전진하지않는다. 그러므로선형적으로신용의조직이그것이제안된조건들에서사회적문제의해결책을포함한다는것은참이아니다.

신용의계통과존재이유를이야기한후에우리는그출현에관해서, 즉과학의범주들안에서신용에할당되어야할서열에관해서해명해야한다. 우리가정치경제학이별로깊이가없고앞뒤가맞지않는다는점을특히여기서지적해야한다.

신용은판로이론의결과인동시에모순이다. 그최종결론은우리가보았듯이산업의절대적자유다.

나는우선신용이판로이론의결과이며, 그런것으로서이미모순적임을말한다.

사회의환상적인동시에실질적인이역사에관해도달한지점에서우리는모든조직절차들과균형수단들이하나씩무너지고끊임없이예전보다더긴급하고더살인적인것으로서가치의이율배반을재현하는것을보아왔다. 그진화의제 6 기에도달해서사회적화신은자신을밀어붙이는확장운동에복종대외무역에서판로, 즉자신에게결여된평형추를구한다. 현재우리는사회적화신이그기대에서환멸을겪고나서어떤대가를치르더라도필요한이평형추, 이판로, 이교환의보장을내부의국내상업에서구하는모습을보게될것이다. 사회는신용에의해서, 말하자면자기자신의세계에들여박힌다. 사회는생산과소비가자신에게적합하고동일한것들이어서, 무한정의분출을통해서가 아니라자기자신안에서그균형을발견해야한다는점을이해한것같다.

모든사람들이오늘날노동을위해신용기관들을요구한다. 이는블랑키씨, 볼로프스키씨, 슈발리에씨등경제적가르침의수장들의인기있는논제다. 이는드라마르틴씨, 수많은보수주의자와민주주의자들, 사회주의를배척하고그와함께노동의조직이라는괴물을배척하면서도진보를표방하는거의모든이들의견해다. 신용! 신용! 광대한사상을지닌이개혁자들, 긴안목을지닌이들이외친다. 신용은우리가필요로하는모든것이라고. 노동에대해말하자면, 이는인구와마찬가지

금과 은, 즉 가치로 형성된 첫 상품인 이것들은 그러므로 다른 가치들의 척도이며, 보편적 교환수단으로 취해져서 모든 상업, 모든 소비, 모든 생산이 이에 의존한다. 금과 은은 사회성과정의 성격들을 가장 높은 정도로 획득했다는 바로 그 이유로 권력, 왕권, 그리고 거의 신성과 동의어가 되었다. 금과 은은 상업적 생명, 지성, 덕성을 대표한다. 동전으로 가득 찬 상자는 성스러운 방주, 마술하리로서 거기서 퍼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건강, 부, 즐거움 그리고 영광을 준다. 노동의 모든 산물이 화폐와 같은 교환 가능한 가치를 가졌다면 모든 노동자는 화폐 보유자와 같은 장점들을 누릴 것이다. 각자는 생산 능력 안에 고갈되지 않는 부의 원천을 보유할 것이다. 그러나 돈의 종교는 폐지될 수 없다. 아니, 더 제대로 말하면 가치들의 일반적 형성은 이성과 인간적 정의의 노력으로써만 가능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돈의 보유는 부의 보장된 신호이며, 돈의 결여는 빈곤의 거의 확실한 신호다. 그러므로 돈이 사회의 인지 印紙를 붙인 유일한 가치물이고, 상업에서 시세를 가지는 유일한 화폐 주조 용 금속 상품이므로 돈은 일반적이 성으로서 인류의 이상이다. 상상력은 금속에 의해 발현된 집단적 사유 患惟의 효과인 것을 소급해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그 진정한 원천에서 찾는 대신에, 즉 모든 가치물의 사회화에서, 새로운 화폐적 형상들의 끊임 없는 창출에서 찾는 대신에, 돈, 돈을, 언제나 돈을 획득하는데 오로지 몰두했다.

목표를 직접 겨냥하는 대신, 계열의 첫 번째 항에도 달한 것, 각 산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대신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제조 방식의 완성을 통해, 그 다음으로는 그 발행의 용이성을 이용해, 그리고 끝으로 허구들을 이용해 금속 화폐를 배증하는 데만 신경을 쓴 것은 근본적으로 생존수단의 수요, 교환과 판로의 수요 말고 다른 것이 아닌 척도재의 이보편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명백히 이는 부의 원리에 관해, 화폐의 성격에 관해, 노동의 목표와 교환의 조건에 관해 오해하는 것이었다. 사회에서 벌써 번질하기 시작한 왕정 체제를 그 가치물들에서 재형성해서 문명에서 퇴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신용 기관들을 낳은 모 관념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모든 기관들을, 심지어 구상에서부터 적대성을 띠게 만드는 그 오류를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는 근본적 편견이다.

그러나 우리가 몇 번 이를 말할 기회를 가졌듯이, 인류는 불완전한 관념에 복종하는 때에도 그 시각에서 틀리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는 후퇴를 통해 부의 조직으로 진행해 가면서 그 진화적 존재의 조건에 관해서 인류에게 행하도록 주어진 것 만큼 잘, 그만큼 유용하게, 그만큼 들림 없이 작업해 온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퇴행적 신용 조직은 예전의 모든 경제적 발현물들과 같이 산업에 새로운 도약을 하게 해 줌과 동시에 정말로 빈곤의 심각화를 확정해 주었다. 그러나 결국 사회 문제는 새로운 날에 생성되었고, 오늘날 더 잘 알려진 이 울배반은 다음번의 온전한 해결에 대한 희망을 남긴다.

이처럼 신용의 최종 목표, 그러나 현재까지 감지되지 않은 목표는 돈의 도움으로, 그리고 돈의 원형에 따라 아직 진자 운동을 하는 모든 가치물들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것의 직접적이고 공언된 목표는 사회 내 질서의, 그리고 노동자들 중에서의 행복

균형의 문제는 세의 제자이자 친구인 한 1 급 경제학자에 의해 해결되어 여론에 기준을 제공했고, 민족들 간에 진정한 연합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픽스씨는 경제 이론에 몰두하고, 그 확실성과 과신해서 그 모순에 대한 예감을 넘어서 가지 못했다. 사람들이 말해 온 경악스러운 프로그램 후에 픽스씨가 이 이상한 생각으로 끝을 맺을 용기를 지녔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는 이론의 탁월성, 그리고 그것의 응용 가능성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는다!

나로서는 이를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오래 살수록 사람들의 여론을 더 깊이 있게 만듦, 그럴수록 나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순결에 영감을 받은 예언자의 종족으로서 우리를 살리는 신의 넉넉함에 대해 말하는 예언자들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아슬프도다! 우리 안에는 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짐승도 있어서, 그 광포한 또는 어리석은 암시들이 우리 이성을 끊임 없이 흔들고, 우리의 열심을 해매게 한다. 그러므로 인류의 운명의 신은 내게 신을 가상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가설을 보완하기 위해 사람 안에는 동물의 왕국 전체가 살아 숨 쉰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유신론은 그 보조 명제로서 윤회 설을 지닌다.

뭐라고! 항상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에 의해, 인간 기력의 자연 발생적 결과로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에 해는 박되는 이론이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들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했지만, 이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리쳐 버린 이 이론을 사람들은 의심할 바 없다고, 탁월하다고 선언한다. 그 추종자들이 프랑스에, 영국에, 벨기에에, 독일에, 유럽 전체에 그리고 세계의 5 개 대륙에 적용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이론이여기 있다. 엄청난 재앙을 야기하지 않고서, 엄청난 자본을 비생산적으로 만들지 않고서, 수십만 일꾼에게서 빵과 일 자리를 빼앗지 않고서, 한 나라의 제조업 절반을 죽이지 않고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적용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말하건대,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18 세기, 17 세기, 예전의 모든 세기들에서처럼 19 세기에도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어지는 여러 세기에도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언제나 지구상의 각 지점에서, 민족적, 개인적 활동들의 효과에 의해, 독점들의 형성에 의해, 그리고 다양한 풍토에 의해 이익의 엇갈림과 경쟁 관계가 생겨날 것이며, 따라서 죽거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결탁과 배제가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학파의 명예를 위해 그에 못지 않게 이 이론을 적용할 가능성도 꾸준히 강변한다!

인내하라! 그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교역 자유로부터 야기된 악은 일시적일 것 인 반면, 그로부터 나올 선은 영구적이고 헤아릴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후세를 향한 이 행복의 약속은 아무 것도 그 실현을 보장하지 못하고, 실현이 되더라도 문의여지 없이 다른 재앙들에 의해 상쇄될 것인데, 이 약속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제조업자에게 100 킬로그램당 359 프랑 50 샴틸을 지불하는 레일을 영국이 우리에게 100 킬로그램당 150 프랑에 제공할 것이고, 국가는 이 시세에서 2 억 프랑을 벌었으리라는 것, 외국 가족들을 우리 시장에 받아들여 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육류 소비를 인당 25 퍼센트 줄였으며 공중의 건강이 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외제비단의 도입은 바지 한 벌당 평균 1 프랑의 가격 인하를 가

저와서납세자들의주머니에 3000 만프랑을남겨주리라는것, 설탕에대한관세는실제로탈세자들에게만이익을준다는것, 주민들이서로창문으로마주보는두나라가관리장성에의해서보다서로더갈라지는형편에처하는것이터무니없다는것을아는것이내게무슨의미가있는가? 내가말하노니, 금수정책으로인한빈곤의광경에마음이동한후에비보호가유발할헤아릴수없는해악에대하고려때문에내열정이다시식게되는마당에이모든비난이내게무슨의미가있는가? 우리가영국의철을취하면, 이로써 2 억프랑을벌것이다. 하지만우리의공장들은무너질것이고, 우리의제철산업은해체되고, 5 만명의노동자는일자리도뺏고없는처지가된다! 이익은어디있는가? 이희생을치른후에우리가영구적으로낮은가격에철을가지게되리라는것이라고들말한다. 나는이런말을듣는다.

우리의자손들이우리덕에이그늘을얻을것이다.

하지만나는좀더일하고죽지않기를선호한다. 내자식들을위한배려는, 그들이조상들중에쿠르티우스<sup>3</sup>를꿈는즐거움을가지도록내가구렁텅이에몸을던지는데까지갈수는없다. 아아! 내일장이변했다면, 내가내자유와생존을위태롭게하지않으면서이유익한제안들을받아들일수있었다면, 적어도내가후손들에게약속된이득에확신을가졌다면, 내가저항했다고사람들이믿겠는가?

시의적절한질문, 즉곧알게되겠지만영구적인질문이모든논쟁을지배하며, 보호의추종자들과자유무역의추종자들을갈라놓는다. 유토피아를만드는자들을아주경멸하는경제학자들은여기서유토피아를만드는이들처럼움직인다. 그들은자신들도실도하는불확실하고즉각 — 이는사회에는‘영구적으로’를의미한다 — 실현이불가능한행복의가능성과의교환으로위대한희생, 엄청난파괴, 들어보지못한빈곤을요구한다. 그리고그들은자신들의계산을사람들이신뢰하지않는데분노한다. 그렇다면그들은왜더이상난관을결연하게공략하지않는가? 왜그들은 (노동분업, 기계, 경쟁과조세에대해서도했던것처럼, 그래서아주성공적이었던것처럼) 특정한독점들의폐지에서나올해악에대해상쇄물은아니라해도적어도진통제를발견하려고시도하지않는가? 자! 여러분, 문제로들어가라. 왜냐하면지금까지당신들은통보의물결에매달렸기때문이다. 자유무역이론이여러정부와민족들의협오에도불구하고, 폐단의보편성과영구성에도불구하고어떻게적용가능한지, 즉이롭고합리적인지를보여달라. 당신들의의견으로는이론이당신들이방금말한이엄청난재앙을일으키지않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독점의명예를지우지않고, 자유, 평등, 민족들의개성을위태롭게하지않고어디서나실현되려면무엇이필요할것인가? 민족들간의새로운법은어떤것일까? 자본가와노동자간에어떤관계들을창조할까? 정부는노동에어떤개입을할까? 이모든연구들은당신들소관이다. 이모든설명에대해당신들은우리에게빛을지는

<sup>3</sup> 고대로마의전설적영웅마르쿠스쿠르티우스 (Marcus Curtius). 전설에따르면땅에균열이생겼을때, 전쟁이들어로마의가장소중한보물이그안에던져지지않으면그들이달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 쿠르티우스가로마의용감한시민만큼소중한보물은없다고하면서그틈으로뛰어들자그틈이닫혔다.

## 1. 신용관념의원천과계통 — 이관념에관한모순적편견들

신용의출발점은화폐다.

제 2 장에서행복한상황들의총체에의해어떻게금과은의가치가처음으로형성되었는지, 어떻게화폐는모호하고진자운동을하는모든가치들, 즉사회적으로형성된것도아니고공식적으로확립된것도아닌가치들의전형이된것인지를보았다. 이기회에모든산물들의가치가일단정해지고, 고도로교환가능하고수용가능하게되면서, 한마디로모든지불시에화폐처럼되면서사회가어떻게이사실만으로상업적관점에서이룰수있는경제발전의가장높은정도에이르는지가입증되었다. 사회경제학은이때더이상오늘처럼교환과관련해서단순한형성의상태에있지않을것이다. 그것은완성의상태에있을것이다. 생산은확정적으로조직되지않을것이다. 그러나벌써교환과유통은그렇게될것이다. 그리고일꾼은부를정복해차지하고자신의행복을보장하는데때로는원가를줄이기도하면서, 때로는노동을분업화하고, 더 나은절차들을발견하고, 새로운소비품목을발명하고, 그적수들을억누르고, 그들의공격을버텨내고하면서생산하는것으로, 끊임없이생산하는것으로충분할것이다.

바로그장에서우리는화폐와관련한사회주의의몰이해를지적했다. 그리고우리는이발명품을그원리로소급하면서우리가귀금속들중에억눌러야했던것은관습이아니라특권이라는것을보여주었다.

실제로모든가능한사회에서, 심지어공산주의사회에서생산자도소비자도그의권리를유린하지않으려면, 그리고재분배를불공정하게하지않으려면교환의척도가필요하다. 그런데가치들이일반적으로임의의연합방식에의해형성되기까지, 물론모든산물들가운데그가치가가장공신력있고가장잘규정되고가장덜변질되는것으로여겨질, 그리고이런장점에보존과운반이크게용이하다는장점을결합할어떤산물이전형적으로, 즉다른모든가치물의유통수단이자본보기로취해지는것이필요하다. 그러므로정말로특권을지닌이산물이모든야심가들의목표물, 노동자의시각에서의낙원, 독점의수호신이되는것, 모든금지령에도불구하고이귀중한부적이질투심 많은권력의눈에띄지않으면서손에서손으로유통되는것, 귀금속들의대부분이척도재로소용되어어떻게해서그진정한용도에서벗어나화폐의형태에서잠자는자본, 소비바깥의부가되는것, 이런교환수단의자격에서금이이번에는투기물로취해지고, 엄청난상업에기초로소용되는것, 끝으로여론의보호를받고, 공중의호의에감싸여권력을정복하고, 동시에공동체를끝장내는것이불가피하다! 이무서운잠재능력을파괴할수단은그러므로그기관을, 내가거의그보관인이라고한것을파괴하는것이아니다. 이는그원리를일반화하는것이다. 이모든명제는기하학의정리들처럼이제부터는잘입증되고, 엄밀하게서로연관되어있다.

알려지지 않은 예민함으로 활기를 띠었다. 가벼운 떨림, 이는 놀람에서도 두려움에서도 온 것이 아닌데 우리의 사지를 타고 흘렀다. 어떤 액체가 우리를 감싼 것같이, 생명의 원소가 각자에서부터 다른 이들을 향해 비추어져서 우리의 존재를 공동의 끈으로 엮어 매는 것같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이 서로 간에, 혼동 없이 하나의 거대한 영혼, 조화롭고 동감하는 영혼을 이룬 듯이 여겨졌다. 저위의 번개처럼 하나의 우월한 이성인 우리의 지성을 비추었다. 우리생각들의 의식에는 우리안에서 타인들의 생각에 대한 통찰이 결합되었다. 그리고 이 긴밀한 교류로부터 우리가 가슴속에는 의견 일치와 즐거운 감정이 태어났으며, 그렇다고는 해도 이 감정은 그 표현과 동기에서 다채로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결합되고 더 분리 불가능하며 그렇기는 하지만 더 자유롭다고 느꼈다. 순수하지 않은 어떤 사상도, 충직하고 관대하지 않은 어떤 감정도 우리안에서 일깨워지지 않았다. 한 순간의 이황홀경속에서, 여러 성격들을 지워버림 없이 이들을 사랑으로써 이상理想에까지 고양시키어 절대적 일치안에서, 우리는 사회가 그럴 수 있는 것, 사회가 그래야 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불멸의 삶인 신비가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매일, 말도 필요 없고 어떤 신도도 보낼 필요 없이, 내면에서 명령에도 복종에도 닮은 어떤 것도 겪지 않고 우리는 마치 우리 모두가 운동의 원소들이면서 기관들인 듯이 경이로운 총체를 이루어 일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우리가 접점 우리의 거친 인성으로, 이어둠의 생활로 옮겨져서 그안에서는 모든 사상이 노력이고, 모든 자유가 분리이고, 모든 사랑이 관능주의이고, 모든 사회가 무지한 접촉인 그런 때가 되자 우리는 생명과 지성이 우월한 유출에 의해 우리의 품으로부터 벗어나고 믿었다.

인간의 삶은 모순으로 짠 것이다. 이 모순들 각각은 그 자체가 사회적 체제의 기념물이고 공공질서와 가족들의 행복의 요소다. 이 기념물, 요소는 극단적인 것들의 신비적 연합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 발전의 총체에서, 그리고 그 이율배반들의 완전한 비움 후에 고려될 때 여전히 하나의 이율배반을 제시하는데, 이는 지상의 아무 것에도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아서 이승에서 해결책 없이 남는 것이다. 이는 사회안의 질서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결코 쓰라림과 권태를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할 이유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우리가 언제나 추구할 형벌에서 해진, 그러나 자연과 정신의 벗어날 수 없는 적대가 우리의 입지바깥에 두는 이상이다.

저편의 세계에 인간의 삶의 계속이 있는지, 혹은 지구의 방정식이 무無로의 회귀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실현되는지, 이는 내가 모르는 것이다. 오늘날 아무 것도 내게 이것도 저 것도 단언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는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도달하도록 들어진 것보다 더 멀리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공식, 인류의 모든 앞선 입장들을 포괄해야 할 공식은 여전히 새롭고 형언할 수 없는 조화의 첫 번째 향이라는 것이다.

신용의 예는 우리가 우리 운명의 문제는 끝없는 이 재현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밑바닥에 들어가기 전, 신용에 관해 일반적으로 유보된 편견들에 관해 몇 마디를 하고 신용의 목적과 기원을 잘 이해하기를 시도해보자.

것이다. 아마도 당신들의 이론의 경향상 당신들 자신이 의심할 나위 없이 사회주의자들의 새로운 종파다. 비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공중은 당신들의 보수적의도를 너무 확신하며, 사회주의자들에 관해 말하자면, 그들은 당신들에게 이런 시비를 걸기에는 당신들이 자신들의 대열에 있는 것을 보며 너무 행복해한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가? 경제학자들만큼의 결백성을 지닌 추론자들을 성나게 하는 것은 별로 나쁘지 못하다. 대부분에게는 생소한 일이겠지만 그들에게 차라리 그들이 모순을 일으킬 때마다 다 좋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자유무역이론이 구체적으로 자유로운 독점의 이론이기 때문에 비로소 장점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자.

무역의 자유가 통신과 교역에 대한 일체의 질곡을 제거해 바로 이에 따라 그 장場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자본의 영역을 확장하고, 경쟁을 일반화하고, 각 민족의 빈곤을, 그리고 금융 귀족 집단을 사해 동포적인 사안으로 만들어, 그 광범위한 향미 이후로는 연속성의 단절도 해소도 없이 그 연대적 그물안에서 인류 전체를 포괄하게 하는 것이 자명하고 대낮처럼 명확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결국 노동자들이 타키투스가 말하는 게르만인들처럼, 유목생활을 하는 타타르인, 목자인 아랍인, 그리고 반야만상태의 모든 민족처럼 각자 자기 몫의 땅을 밟아서 스스로 자신들의 소비물품 모두를 생산해야 하고 그들 서로 간의 교환을 통해 전혀 소통하지 않는다면, 부자도 빈자도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익을 보지 않겠지만, 또한 아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들이 이번에는, 그 구성요소들인 가족들처럼 모두 자체적으로 자신들을 위해 생산해 어떠한 무역관계도 유지하지 않는다면, 사치와 빈곤은 우리가 여기서 경제적인 연이이라고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교환의 이동수단을 타고 한 민족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옮겨갈 수 없으리라는 것이 여전히 상식적이다. 부그리고 재산의 불평등을 한꺼번에 창조하는 것이 무역이다. 풍요와 빈곤은 무역으로 계속 진행해간다. 그러므로 무역이 중단되는 곳에서는 동시에 경제활동도 중단되며, 부동성과 일반적 범용함이 지배한다. 이 모두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통속적인 상식이고, 결정적인 명증성을 띠어서 경제학자들에게는 인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의 특성은 결코 상반물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그의 운명은 언제나 상식의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무역의 필연성을 증명했다. 우리는 자유가 어떻게 더욱 폭을 넓힐수록 상업 민족들에게 억압과 강도의 새로운 원인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론을 보완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우리 신념에 응한다면 우리는 도버해협 저편의 우리 이웃들이 아주 요란하게 시도한 개혁의 의미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체의 경제적 신비화 중 가장 큰 신비화를 밟아 버리게 될 것이다.

보호체제에 맞서 조직된 십자군원정에서는 자피에르의 역할을 한 세 (Say) 의 주된 논리는 이런 삼단 논법에 있다.

“대전제. 산물들은 산물들에 의해서만 지불되며, 상품들은 상품들로만 구매된다.”

“소전제. 금, 은, 백금, 그리고 모든 금속 가치물은 노동의 산물이고, 기름, 철, 비단, 천, 실, 수정 등과 같은 상품들이다.”

“결론. 그러므로 모든 상품 수입은 등가의 수출로 청산되어 대가로 제공되는 상품의 일부가 척도 재로 구성되는 지에 따라 어떤 점에서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터무니없다. 정반대로, 금과 은은 그 유일한 서비스가 다른 것들에 유통과 교환 수단으로서 쓰이는 것으로 귀결되는 상품이라서 어느 구석에든 이익이 존재할 경우 그 이익은 산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산물을 타민족으로부터 들여오는 민족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듯 관세로써 노동 조건을 평준화하려 하기보다는 가장 절대적인 자유로써 이를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세는 그의 유명한 원리, 산물은 산물로만 지불된다는 원리의 보조정리로서 다음 명제들을 제시한다.

1. 한민족은 수입한 산물의 총계가 수출한 산물의 총계를 초과하는 만큼 이익을 본다.

2. 이민족의 상인들은 그들이 받는 대가물의 가치가 그들이 바깥으로 수출한 상품들의 가치를 초과하는 만큼 더 이익을 본다.

중상주의 체계의 당파의 논리와 역인이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결정적이고, 보호주의 체계의 파괴적 효과가 이 논리를 도와 주어 독립성과 진보를 자부하는 모든 위정자들, 어떤 가치라도 있는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를 채택했다. 반대되는 견해를 옹호하는 자들에게는 더는 대꾸하지 않으며, 이들을 웃음거리로 돌린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산물이 산물로 지불된다는 것을 잊는다. ... 영국인들은 물론 우리에게 싸값으로 산물을 수출 수 있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그 산물들을 공짜로 주는 데 동의할지 알지 못한다. 교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 프랑스가 신의 없는 이웃에게 승리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강제한다면, 영국이 매년 우리 생각에 너무 비싸게 지불하도록 하는 것을 공물을 바치기 위해 무료로 보내준다면, 보호주의자들은 일관성이 있으려면 반역이라 외쳐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공언하는 바는 우리에게 너무 강한 추론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적들은 두 날을 가진 무기를 다룬다. 1815년처럼 영국이 우리를 덮치면, 그들은 파멸을 외친다. 우리가 그렇게 가설을 세우듯이 영국이 우리에게 주면, 그들은 더 세계 외친다.” (「주르날 데 제코노미스트」, 1842년 8월)

그리고 같은 잡지의 1844년 11월호, 1845년 4월호, 6월호, 7월호에서 대단한 재능을 가진, 최고로 너그러운 박애에 가득찬, 놀랍게 여겨지겠지만 최고로 평등주의적인 관념에 이끌린 경제학자가, 수용할 수 없는 한 논제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유명세가 생긴 것이라면 내가 더 찬양할 사람으로서, 모든 경제학자 공중의 갈채를 받으며 다음을 증명하기를 떠맡았다.

노동 조건을 평준화하는 것은 교환을 그 근원에서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  
한 나라의 노동이 더 유리한 고장의 경쟁에 압살될 수 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는 것.

보호 관세가 생산 조건을 균등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꼭 맞는 말이라는 것.

이다. 사회주의자들이여,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유토피아다! 경험의 햇불을 들고 결연한 발걸음으로 행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시, 전진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운데 얼마만큼은 이가 사라졌는데, 아무도 이들의 운명에는 물출리지 않았다! 우리가 길을 터주는 세대들은 흔적만 남은 우리의 무덤위를 즐겁게 지나간다. 현재는 우리를 파문하고, 미래는 우리에게 대한 기억을 지니지 않으며, 우리의 존재는 이중허무속에 잠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과학은 우리의 영웅적 회의주의의 과실을 딸 것이며, 후세는 우리가 있었다는 것도 모른 채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행복을 누릴 것이다. 전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신념이고, 우리의 열광이다. 우리는 한 사람씩 쓰러질 것이다. 마지막 사람까지 새로운 자의 삽이 노병의 시체를 훑어 도로 덮을 것이다. 우리의 종말은 짐승들의 종말과 같을 것이다. 우리는 순교에도 불구하고 사제가 장송곡, 〈하느님이 성자들의 뼈를 지키신다!〉를 부르러 갈 사람들 중에 결코 들지 않는다. 우리를 따르는 인류와 분리되어 우리 자신이 인류 전체가 되자. 우리의 힘의 원리는 이 지고의 이기주의에 있다. 학자들이 우리를 멸시할 때 면하라 고 해라. 그들의 관념은 그들의 용기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책을 읽어서 그들의 평가가 없이도 관참은 법을 배웠다. 그러나 어떠한 모순에도 놀라지 않는 시인에게, 노래하는 자, 늙은 음유시인, 문명으로부터 배척당한 자들에게,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의 추억에 관해 명상하러 올 자에게 평안이 있기를! 시인이여, 벌써 망각이 둘러싸는 자들, 그러나 지옥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당신에게 인사한다! 귀를 기울이라.

날이 새기 두 시간 전이었다. 밤은 추웠다. 바람이 히스가 무성한 땅을 가로질러 휘파람 소리를 냈다. 우리는 산마루의 말안장처럼 들어간 부분을 벗어나 침묵가운데 식생과 생물이 눈에 띄지 않게 숨내쉬는 황량한 곳을 가로질러 갔다. 갑자기 우리는 자기 생각을 회상시키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그늘진 목소리를 들었다.

노동분업은 노동자들의 저열화를 일으켰다. 이것이 내 기계와 작업장안의 노동을 요약한 이유다.

기계는 노예들, 그리고 임금수령자들의 작업장만을 낳았다. 이것이 내가 경쟁을 일으킨 이유다.

경쟁은 독점을 낳았다. 이는 내가 국가를 형성하고자 본에 압류를 가한 이유다.

국가는 프롤레타리아에게 새로운 노예제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한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노동자들은 서로 손을 내민다.

그리고 모든 부분으로부터 피착취자들에게 맞서 담합하는 것이 착취자들인 것은 다음과 같다. 토지는 곧 노예들의 병사 兵舍에 불과할 것이다. 나는 노동이 자본에 의해 출자되고, 각 노동자는 기업가가 되고 특권을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새로운 모순을 의미할 수 있었던 것을 염려해 우리는 이 말들에서 멈추었다. 낮은 목소리가 우리의 흉곽에서 다시 울렸다. 그렇지만 우리의 귀는 마치 어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발언한 것 같아 들렸다. 우리의 눈은 맹수의 눈처럼 밤중에 번뜩이는 특성을 내보이며 우리의 모든 감각은 열정과

## 제 10 장 제 7 기 — 신용

우리의 동시대인 한 사람에게, 아무도 감히 그의 지성과 성실성을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심지어 그의 모순들에 대해 그를 비난하는 것 — 이는 전혀 대응도 아니었다 —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극히 상반되는 관념들을, 극히 어울리지 않는 경향들을 하나씩 표현하는 일이 주어졌다. 이 사람은 드라마르틴 (de Lamartine) 씨다.

그리스도교인이면서 철학자, 왕당파이면서 민주주의자, 귀족이면서 민중, 보수주의자이면서 혁명가, 예감과 후회의 사도 드라마르틴 씨는 19 세기의 살아 있는 표현이고, 모든 극단들 사이에 걸려 있는 이 사회의 인격화다. 획득하기 쉬운 것 한 가지가 그에게 결여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모순들에 대한 의식이다. 그의 별이 모든 적대관계를 표현하도록, 그리고 그의 문이 여지없이 또한 보편적 화해의 사도가 되도록 점지했다면, 드라마르틴 씨는 우선 우리에게 아주 큰 광채를 가지고 서나타난 것인, 거룩한 전통들과 고귀한 기억들의 시인인 채로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르틴 씨는 그가 고발자이면서 동시에 기관기도한 이 율배반의 이 광대한 체제를 자기 조국에 설명할 책무를 진다. 드라마르틴 씨는 그가 취한 입장 때문에, 내가 말하건대 그의 비밀관성의 부담 아래서 죽을, 혹은 그의 모든 가설들을 조사 시킬 형벌에 처해졌으며, 그는 그가 대표하는 상반된 견해들보다 더 높은데 그 원천이 있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아가야 노래의 신부 新婦』<sup>1</sup> 처럼 그는 자신의 천재성의 성숙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는 자신의 역할의 모든 위대함을 의식하고 그들만이 그 비밀을 보유하므로 그의 비켜남에 갈채를 보낼 수 있는 오직 그자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웅변가, 정직한 사람, 위대한 시인인 그가 우리 진영으로 오면 좋으련만.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 줄 것이며, 우리는 그에게 그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줄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Si ignoras te, egredere, et pasce hoedos tuos juxta tabernacula pastorum!)”

사회주의자들! 미래를 상실한 계몽자들, 암흑의 나라를 탐구하는데 헌신한 개혁자들, 그 오해받은 저작이 아주 드문 동감을 일깨우고 다중에게 불길한 징조같이 보이는 우리.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신심들, 법칙들, 신들을 다시 건네 주지만 우리는 자신은 우리의 과업이 완수되는 동안 신앙도, 희망도, 사랑도 보전하는 일이 없는 것

자유는 이 조건들이 그럴 수 있는 만큼 이 조건들을 평준화한다는 것.  
교역에서 가장 많이 이익을 보는 것은 가장 불리한 나라들이라는 것.  
자유무역연맹과 로버트 필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주는 예외의 해인 류에 대해 공헌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모든 이들은 시시포스를 따르는 이들이라는 것.

확실히 란드 Landes 의 바스티아 씨는 대담함과 그의 논변의 침착함으로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자유무역에 관한 관념이 아직 유동적인 이들을 고정시킨 것을 자부할 수 있다. 나로 말하자면, 바스티아 씨의 『경제적 역설 Sophismes économiques』 보다 더 교묘하고, 더 간결하고, 더 양심적이고, 더 솔직한 진리의 분위기가 나는 역설은 어디에서도 만나본 적 없다고 공언하는 바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만약 우리 시대의 경제학자들이 즉흥성을 덜게 발하고, 논리성을 좀더 계발했다면, 피레네의 코브던 Cobden des Pyrénées 의 논리의 해악을 더 쉽게 간파했으리라고, 산업국 프랑스를 장벽 일체를 폐지해 영국을 따르도록 이끌기 보다는 ‘조심하자!’ 고 적었을 것이라고 감히 말한다.

산물은 산물로만 구매된다! 이야말로 물물운장한, 논박 불가능한 원리로서 이 때문에 나는 세에게 동상이 세워지기를 바랄 것이다. 나는 이 원리의 진리성을 가치 이론을 제시해 입증했다. 나는 이에 더해 이 원리가 재산의 평등의 기초라는 것, 그리고 생산과 교환에서 균형의 기초라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삼단 논법의 두 번째 항으로서 화폐로 조주된 금과 은이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품이라고 덧붙일 때, 이는 잠재적으로만 참인 사실을 언명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일반화를 하는 것이며, 정치 경제학 자체가 화폐에 대해 제공하는 기초관념들 때문에 이는 부정된다.

돈은 교환 수단으로 쓰이는 상품, 즉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으뜸 상품, 특출한 상품으로서 언제나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 모든 다른 상품을 능가하며, 모든 지출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따라서 모든 가치물, 모든 산물, 모든 가능한 자본을 대표하는 것이 된 상품이다. 실제로, 상품을 가진 자는 그렇다고 아직 부를 가진 것은 아니다. 교환 조건, 까다로운 조건, 잘 알듯이 수천의 기복과 수천의 우연에 종속된 조건을 충족하는 일이 남아 있다. 그러나 화폐를 가진 자는 부를 가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관념화되면서도 가장 실질적인 가치를 보유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가진다. 그는 이유 일한 상품을 통해서 원할 때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 그리고 가장 좋은 기회에 다른 모든 상품을 취득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는 돈에 의해 시장의 주인이 된다. 상업에서 돈의 소유자는 옴브레 게임에서 으뜸패를 뽑은 자와 같다. 모든 카드는 서로 간에 위치가치와 상대가치를 가진다고 물론 주장할 수 있다. 심지어 게임은 모든 카드의 서로에 대한 교환에 따르지 않고는 행해질 수 없다고도 덧붙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으뜸패가 다른 색상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으뜸패들 중에 처음 것들이 다른 것들을 없애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sup>1</sup> 아우구스탱 나달 (Augustin nadal) 의 1738 년 작품·역자주

모든가치물이돈으로정해지고구성된다면, 각상품이직접그리고손실없이다른상품과의교환에서받아들여진다면, 국제무역에서수입이수출을초과하는지아닌지를아는것은완전히상관없을것이다. 이질문자체는한쪽가치물들의총계가다른쪽가치물들의총계를초과하면모를까더는의미가없을것이다. 그럴경우에는마치프랑스가 20 프랑동전을 1 파운드스털링과, 혹은 40 퀴트의쇠고기를 30 퀴트의쇠고기와교환하는것과같은것이다. 첫째거래에서는프랑스는 20% 이익을보았을것이고, 둘째거래에서는 25% 손해를보았을것이다. 이런의미에서세가한민족이수입하는상품들의가치가수출하는상품들의가치를초과하는만큼이익을본다고말한것은옳았을것이다. 그러나그런것은무역의실제조건에서는결코들어맞지않는다. 수입과수출의차액은오직척도재의일정량이고에대해잔금으로주어져야하는상품들로만해된다. 그런데이차액은결코상관없지않다.

이는중상주의체제의당파들이완벽히이해한것이다. 이들은돈의특권의당파라고다른것이아니다. 그들은금속만부로간주한다고들귀에뿔이박히게반복한다. 순전히중상모략이다. 중상주의자들은우리와의마찬가지로금과은이부가아니고, 교환의전능한수단, 결과적으로행복을이루는모든가치물들의대표, 행복을주는부적이라는점을안다. 그리고제유법에따라여러민족들이다른어떤산물보다모든부를응축하고실현하는종류의산물을부라고불렀을때, 논리는그민족들에결여되지않은것처럼그들에게도결여되지않았다.

경제학자들은게다가돈의보유에붙는이득을오해하지않았다. 그러나그들의모든글을통해알수있는것처럼, 그들이금과은상품의이본의를이론적으로전혀고려할줄몰랐으므로, 그들이거기서대중적인편견밖에보지못했으므로, 끝으로그들의눈에는화폐로주조된소재가통상적상품일뿐이어서휴대가더간편하고, 더희소하고, 덜변질된다는것때문에만교환수단으로서취해지는것이므로경제학자들은자신들의이론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자신들의화폐에대함무지때문에, 상업에서의그진정한역할을오해하도록유도되었다. 그리고세관을반대하는그들의전쟁은근본적으로돈을반대하는전쟁일뿐이다.

나는가치를다룬장에서, 돈의특권은돈이애초부터그리고아직도생산자들의손안에서유통하는유일한정해진가치물이라는데서생긴다는것을보여주었다. 나는남김없이다루어진이문제를여기서재론하는것이무익하다고믿는다. 하지만, 척도재를보유하는자, 돈을빌려주거나파는직업을행하는자는왜이것만으로모든생산자들에대해주목되는우월성을취득하는지, 끝으로은행은왜상업의여왕인것처럼공업의여왕인지를말해진것에따라이해하기는쉽다. 그리고이는특별히다음장에서고찰할대상일것이다.

이런고려사항들은정치경제학의가장기초적이고가장부인할수없는기정사실들에기초를두어, 일단세의삼단논법에도입되면서그의자유무역과판로이론전체가그의제자들에게경솔하게수용되어그들이맹비난하는것자체, 소비자들의약탈, 독점의무한한확장으로만나타난다.

수행한다는것. 문명을살리고, 자유를확정하고, 진보를다스리고, 수많은진자운동과파국들중에우리를확실한노력으로평등과질서를향해옮겨주는것이이공식이라는것.

노동자들과자본가들이잔혹한투쟁에서기진맥진해도소용없다. 파편적분업, 기계, 경쟁그리고독점이프롤레타리아트를괴멸시켜도소용이없다. 여러정부들의악행과조세의허위, 특권층의음모, 신용의기만, 지주들의횡포와공산주의의환상이여러민족들에게예중, 부패그리고절망을배증해도소용없다. 인류의수레는굴러간다. 그속명적길위에서멈추지도후퇴하지도않는다. 그리고여러담합들, 기근, 파산은지구상의합쳐진표면위의알프스와안데스산맥의꼭대기들보다그엄청난수레바퀴로가는길에서덜나타난다. 신은저울을손에들고서평온하고장엄한태도로나아간다. 그리고길의모래는보이지않는미동만을그두고원에새긴다.

은모두비슷한크기, 색깔, 형상, 재료의금속조각들로수를놓은것과같으며, 예술가의일체의환상에양분으로제공될수있다.

그러므로내가결국오직내약함을증언해주는지적이고집을왜부릴것이며, 내지성의모호한기초위에흩어진빛나는점들을태양들처럼키워서내판단을그르치게하는장점만을가진상상력의얼간이로왜자진해서남을것인가? 내가과학이라고부르는것은내게는장난감들의군집이고, 어린애같은행동들의진지한조합으로서내정신안에서지나가고끊임없이다시지나가는것에불과하다. 사회와자연에관한이위대한법칙들은우주를흔들기위한신의손을지탱하는지렛대들인것으로내게보이는데, 이는내가유념하지않는다른무한한사실들처럼단순한사실들이고실재들의바다속에서얕어버린사실들이며, 원자들보다내주의를더도덜도끝만한것이다. 그광채와신속함이나를짓누르는이현상들의연속, 차례차례내뉘어내어고나를겁에질리게하는이인류의희비극은오직홀로비극을복잡하게하고, 시간을늘릴능력을가지는내생각의바깥에서는아무것도아니다.

그러나관찰의토대위에인류가사회와자연을그려보는수단이되는이경이로운저작들을세우는것이인간이성의본령이라면, 인간이성은진리를창조하지않고, 존재의무한한형태들안에서자기마음에가장잘드는형태를선택하기만한다. 따라서인간이성의작업이가능하려면, 인간이성측에서비교와분석의시작이있으려면진리, 온전한숙명전체가주어지는것이필요하다. 그러므로무언가가도래한다고, 무언가가생겨난다고말하는것은정확하지않다. 우주에서처럼문명에서도모든것은태곳적부터움직인다. 이처럼균형법칙은이웃하는두들판의지주들사이의관계가확립되는순간부터발현된다. 제한, 금지그리고후한인간의희상을가로질러우리가그법칙을발견할출몰했다면이는그의잘못이아니다.

사회경제학전체가이와같다. 어디서나종합의관념은그적대적요소들과동시에가능하다. 그리고우리가인류의진보를끊임없는탈바꿈으로상상하는반면, 이진보는실제로는하나의관념의다른관념에대한점진적우세, 마치우리를감추는베일들이알아채지못하게벗겨지는듯이여겨지는우세를점하고점진적으로단계를밟는것에불과하다.

이런고찰들로부터다음과같이결론을내릴필요가있으며, 이는이절의요약이면서더고차적인해결책의고지일것이다.

노동에의한사회의조직공식은이기주의에의해발견되고종오에의해지탱되고, 거지된철학에의해욕을먹으며민족들간에노동과행복의조건들을균등화하는이균형법칙처럼단순하고그처럼원시적이며그처럼쉽게이해되고적용될수있는것이아야한다는것.

과학의과거와미래를한꺼번에포괄하는이지고의공식은사회적이익들과개인적자유를똑같이만족시켜주고, 경쟁과연대, 노동과독점을, 한마디로모든경제적모순들을조화시켜야한다는것.

이공식은인류의비인격적이성안에존재하며, 오늘날에도그리고여러사회들의시초에서부터인류의이성을구성하는부정적관념들각각처럼움직이고기능을

우선이반대명제의이론적예증을추적하자. 그다음에는응용과사실들로가게될것이다.

세는민족들사이에서돈은개인들사이에서와같은효과를가지지않는다고주장한다. 나는세가오직돈의진짜본성을몰랐기때문에내놓은이명제를적극부정한다. 돈의효과는, 비록민족들사이에서는덜명백한방식으로그리고특히덜직접적인방식으로생겨남에도불구하고단순개인들사이에서와정확히같다.

모든종류의상품을끊임없이사들이고, 교환으로돈밖에내놓지않는어느민족의경우를가정하자. 나는앞에서인용한경제학자가, 영국이만일우리에게산물을공짜로내준다면보호주의자들은일관성을유지하기위한반역이라고외쳐야할것이라고말할권리를가진것처럼, 이런극단적가정을할권리를가진다. 나는동일한절차를활용하며, 반대체제의불가능성을부각하기위해서모든것을사들이고아무것도팔지않는한민족을가정하는것으로시작한다. 경제학이론들에도불구하고모든사람은그의미를안다.

어떤일이일어날것인가?

귀금속으로이루어지는이민족의자본부분이유출됐다면, 판매하는민족은구매하는민족에게저당물을매개로다시이를돌려보낼것이다. 말하자면, 이민족은세습재산이결여된로마의프레타리아처럼살기위해자신을팔것이다.

이에뭐라고대답하는가?

모든사람이두려워한다는바로그사실의거해대답한다. 돈이한편으로희소해지고, 다른한편으로풍부해져서금속자본이판매하는민족들로부터구매하는민족에게로재유입되리라는것, 이민족은돈의낮은가격으로이익을볼수있으리라라는것, 그리고이인상과인하의변갈아름이균형을다시가져오리라는것이다.

그러나이설명은가소롭다. 돈은신의이름으로공짜로주어질것인가? 모든질문이거기있다. 빌린금액의이자가아무리약하고아무리가변적이라도, 이자가웬만큼된다는조건에서는이는언제나구입만하고판매는결코하지않으면서자기자신의상인에게서끊임없이돈을끌생각을하는민족이천천히든급속히든, 연속적이건간헐적이건퇴화함을기록할것이다.

이제바로우리는어떤나라가저당에중속될때무엇이되는지를살펴볼것이다.

이처럼세가아주현명하게도과도한수입에서두려워해야할유일한것으로지적인민족자본의포기, 이포기는불가피하다. 그것은참으로자본의물적이전에의해서가아니라자산소득의이전에의해, 그리고 — 정확히같은것인 — 소유권의상실에의해실행된다.

그러나경제학자들은우리가방금가정한, 그리고그들에게너무명백하게잘못이돌아가는극단적인경우를인정하지않는다. 그들은어느민족도오로지돈만가지고거래하지않는다는것, 그러므로저당물이아니라실물에관해추론하는데한정할필요가있다는것을고찰한다. 자기들의적을반박하기위해그원리들을마지막결과까지밀고가는것이좋다고본후에그들은사람들이자신들과마찬가지로이를활용하는것을견디지않을것이다. 이는사람들이이원리들을끝까지밀고가려

고시도한이래로그들이더이상자신들의원리를믿지않는다는나름의자백을내포하는것이다. 그러므로경제학자들과함께실재의터위에서자. 그리고적어도그들의이론이, 중용에의해이를취할때참인지를알아보자.

그런데나는동일한포기의움직임이, 그강도는덜할지라도그취득물전체에대해돈으로지불하는대신수입국이그중일부를자기자신의산물로변제할경우에발현될것이라고주장한다. 수학적명증성을뒀한명제를모호하게하는것이어떻게가능한가? 프랑스가매년영국산물 1 억프랑어치를수입하고영국으로 9000 만프랑어치의자국산물을재발송한다면, 9000 만프랑어치의프랑스상품이 9000 만프랑어치의영국상품을충당하는데쓰이고, 그나머지영국상품은다른나라들에대해발행된환어음으로변제가이루어질경우를제외하면돈으로변제될것이다. 환어음은저당물에서나온다. 이는그러므로프랑스가자신의자본 1000 만프랑어치를매각하는것, 그리고아주낮은가격에그렇게하는것과같을것이다. 왜냐하면, 차입이일어날경우에는얼마되지않는돈이큰저당물을대가로주어지리라는것이명확하기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의또하나의오류다.

돈을다른상품들과까닭없이동일시한후에보호의반대자들은돈에대한인상과인하의효과를다른종류의산물들에대한인상과인하의효과들과동일시하며그에못지않게심각한혼동을범한다. 그들의자유무역이론이주요기초로삼는것이이혼동이므로논의를명확히하기위해우리가원리들로서슬러올라가는것이필요하다.

우리가제 2 장에서말한것인데, 돈은가변적이지만구성된가치다. 다른산물들, 적어도엄청난다수는그가치가가변적일뿐아니라자의에내맡겨진다. 이는돈이한장소에서그양이달라질수있어서같은액수를가지고서다른상품을때로는더많이, 때로는더적게획득할것임을뜻한다. 그러나그질서에는변함이없는데, 나는독자에게이런형이상학적용어를사용하는것에대해용서를구한다. 즉화폐상품의비례성의변이에도불구하고이상품은모든지불에서받아들여지는유일한상품임에는조금도달라지는것이없고, 모든다른상품들의중주宗主이며, 그가치가말하자면일시적인, 그러나실질적인특권에의해사회적으로, 정규적으로그진자운동중에정해지는상품, 결과적으로그우세성이불가항력적으로확립되는상품이라는것이다.

밀가격이갑자기오르고일정시간이레적인가격을유지한다고, 그러는동안돈은그가치의 3 분의 1 또는 4 분의 1 로낮아진다고가정해보라. 그러면결과적으로밀은돈의자리를차지할것이며, 밀이돈의값을매길것이며, 세금, 상업, 채권, 국채이자를납부하고모든거래를청산하는데사용될수있을것인가? 단연코아니다. 급진적개혁으로산업조직에서생산된모든가치물이화폐로조성되고정해지기전까지 (이조성이확정적일수있다면), 돈은그왕권을유지한다. 그리고부를축적하는것이권력을축적하는것이라고말할수있는것은돈에대해서뿐이다.

나는영국에서노동이 60 의지출에 100 을생산한다고가정한다. 러시아에서는 80 에대해 100 을생산한다. 우선두산출량을더하고 (100+100=200), 다음으로지출액을더하고 (60+80=140), 그다음으로이두액수중에작은것을큰것에서빼고 (200-140=60), 그차액을 2 로나누면, 그몫 30 은무역수지균형에의해두생산자가연합한후각생산자가얻을순이익을가리킬것이다.

우선은계산을들여다보자. 그계산에서 100, 200, 60, 80, 140, 2, 30 이라는숫자들은일정한도출에따라서로를남는것같다. 그러나이발생은오로지우리의지적시각의효과다. 이숫자들은실질적으로바라보는방식에따라필연적으로간단하기도하고복잡하기도한각계기, 각비율이다른계기, 비율들과동시대의것이고아주필연적으로그것들과조율이되는한계열의항들일뿐이다.

이제는사실들로서가보자. 러시아에서도영국에서도사회경제학이토지의지대, 개간비용, 교역, 수지균형등으로칭하는것은숫자 100, 200 등으로표현되는추상적관계들의경제적실현이다. 감히말하자면, 이는자연이우리를위해이숫자들각각에위치시킨, 그리고노동과무역을통해우리가도출하려고, 운명의항아리에서뿜으려고노력하는도전들이고경품들이다. 그리고이숫자들모두의관계가필연적방정식을가리키는것처럼지구상에서그들의공존이라는사실, 그리고동시에그들의토양의다양한품질, 그들의도구들의성능이큰가작은가하는것만으로도영국인들과러시아인들은연합을이룬다고말할수있다. 민족들의연합은정신의법칙의구체적표현이며, 이는필연적사실이다.

그러나이법칙을완성하기위해서, 이사실을냉기위해서문명은극단적으로완만하게진행하며, 엄청나게긴길을지나간다. 우리가이절의서두에다양한토질을나타낸 100, 80, 70, 60, 50 이라는숫자들이연산을할방정식, 내가뭐라하는가? 연산이벌써된방정식, 그러나우리에게암묵적으로전제된방정식만을정신에제시하고모두가이방정식의결과인숫자 72 로해소되는반면, 사회는우선은이다섯가지토질의독점을받아들이면서다섯범주의특권들을창설하는것으로서작한다. 이것들이평등이찾아오기까지서로간에도동자들위해형성되며노동자들의희생으로살아가는귀족계층을이룬다. 곧이독점들은그들의질투심정은불평등에의해보호와자유투쟁을불러오며, 이로부터결국통일과균형이생겨나야한다. 인류는그최면술사의명령에저항하는몽유병자처럼의식없이천천히, 격정하고당황하면서영원한이성의명령을완수한다. 그리고인류에의한이신적정의의마지못한실현은우리가우리안에있는진보라고부르는것이다.

이처럼, 인간안의과학은참된것에대한내적관조다. 참된것은하나의메커니즘의도움으로만우리의지성을사로잡는데, 우화에서도덕성이형상화되고극화된것을보는것처럼이메커니즘이그것을확장하고치장하고주조하고, 그것에몸과얼굴을부여하는것같다. 나는심지어우화에서변장한진리와논리의웃을입은진리사이에서본질적차이가없다고까지감히말할것이다. 근본적으로시가詩歌와과학은같은기질을가지며종교와철학은다르지않다. 그리고우리의모든체계들

변증법적절차들에서그런것을본다고우리에게여겨지는것처럼관념들이자체적으로구성되고분해되고일반화되고단순화된다고상상한다면이상한환상속에있는것이다. 절대이성안에서우리의비교능력덕분에, 그리고우리오성의필요를위해우리가분류하고차별화하는이모든관념들은똑같이단순하고일반적이다. 감히말하자면, 그관념들은존엄성과잠재성에서동등하다. 그것들은모두가지고의자아에의해 (지고의자아가추론을하는지?) 그의추론의전제나결과로, 회전축이나반경으로간주될수있을것이다.

사실, 우리는우리관념들의일종의발판을닫고서만과학에도달한다. 그러나진리그자체는이런변증법적형상들과는독립적이며, 우리정신의조합들에서자유롭다. 운동, 인력, 원자들의연합의법칙들이, 우리의이론들이그법칙들을표현하는수단이되는계수체계와독립적인것과마찬가지다. 그렇다고해서우리의과학이거짓이라거나의심스러운것은아니다. 단지진리그자체는우리의과학보다무한히더참되다. 예를들어모든가능한계수체계에서참인원자비율들같이우리의눈을벗어나는무한개의관점들에서참인것이다.

확실성에관한연구들에서인간인자의본질적으로주관적인이특성, 궤변론자들이그렇게믿었던것처럼의문을정당화하지않는특성은, 조만간그역할이일꾼의자발성에는아무것도남겨놓지않을기계처럼사상가를무더기게할일종의기계체계에매이지않으려면특히눈에서놓치지않는것이중요하다. 우리는잠시무역수지균형의예로써우리의인식의주관성이라는사실을확인하는데국할것이다. 나중에가서우리는새로운지평, 새로운세계를이무한논리에서발견하고자할것이다.

사회경제학에서아주흔한경우에의해, 무역수지균형의이론은말하자면가감승제의보통의어떤산술적조작의특정한응용에불과하다. 그런데합, 차, 곱, 몫의이네표현중어느것이가장간단하거나가장일반적이나고내가묻는다면, 인수로취해진숫자 3 과숫자 4, 혹은그곱인숫자 12 중어느것이가장오래된것이나고묻는다면, 나는곱셈을하면서말하는것이아니고숫자들이거기서서로만난다는오로지그것에의해이곱셈도포함하는영원한산술을하면서말하는것이다. 뺄셈에서나머지, 나눗셈에서몫이이를형성하는데소용된숫자들보다더복잡한비율을가리키는지아니면덜복잡한비율을가리키는지를묻는다면, 내가의미없는질문을던지는것처럼여겨진다는것이참이아닌가?

그러나그러한질문들이영똥하다면, 이산술적비율들을형이상학적또는상업적언어로번역하면그것들의각자의질을변경한다고믿는것도똑같이영똥하다. 사람들사이에공평하게자연의공짜선물을‘배분’한다는것은‘교환’하거나‘생산’한다는관념과마찬가지로무한이성에서는기초적인관념이다. 그렇기는하지만, 우리가그에대한우리의논리를믿는다면, 이관념들중첫째것은나머지들을따라오며, 우리가첫째것을실현하기에도달하는것은심지어이들의성찰된조성에의해서일뿐이다.

그러므로경제학자들이이모든개념들을혼동해, 돈이한나라안에서희소하다면가격인상에의해호출을받아서돈이그나라로들어간다고말할경우에, 나는이것이바로이나라가중속되는증거라고, 그나라의자본의포기는이것으로 이루어진다고대답한다.

그리고우월한수출에의해한지점에축적된금속자본이어쩔수없이그나라를 빠져나가타당지점으로되돌아가그곳들에서사용처를찾는다고그들이덧붙여말할때, 나는이회귀가바로수입하는민족들의쇠퇴의신호이고, 그들이끌어들인금용왕권의기별이라고대답한다.

게다가, 상업에의한민족들의중속이라는아주중요한현상은, 경제학자들이사실의표면에만멈추었고법칙들과원인들을조사하지않았다는바로그것만으로경제학자들에게간과되었다. 사태의물적측면에대해서라면그들은이를감지했다. 그들은그의미와논리적결과에대해서만오해했다. 이점에관해, 다른모든점들에서처럼그들을압도하는모든증거들이수집되어있음을여전히그들의글에서발견하게된다.

내가 1845 년 7 월 29 일자 「데바 Débats」 지에서읽은것은 1844 년프랑스의수출가액이수입가액보다 4000 만프랑적었으며, 1843 년에는이차이가 1 억 6000 만프랑이었다는것이다. 다른해들은이야기하지말자. 나는중상주의체계에불시의반격을가할기회를놓치지않은그기사의저자에게프랑스가지불한거스름돈으로쓰인이현금 2 억프랑이어떻게되었는지를질문한다. 우리나라안에서자본의가격인상은그자본이되돌아오게했을것이다. 세에따르면바로이것이그가대답해야하는말이다. 실제로자본은되돌아온듯하다. 정치및산업의모든언론은, 이투기분야만여기서인용하기로한다면, 우리의철도에투자된자본의 3분의 1 이스위스자본, 영국자본, 독일자본이었다는것, 이철도의행적자본회의들은부분적으로외국인들로구성되고외국인들이주재했다는것, 그리고여러노선들, 그중에서도가장생산적인노선인북부노선이외국인들에게주어졌다는것을우리에게가르쳐주었다. 이는명확한가? 비슷한사실들이영토의모든지점에서일어난다. 알자스의거의모든담보채무가바젤자본가들에게이익이되게기채되었고, 이를매개로반출된민족자본이외국검인이찍혀돌아와서옛날그주인들이던자들을노예화한다.

그러므로금속자본들은되돌아왔는데, 공짜로되돌아온것이아니다. 사람들은이를시인한다. 그런데그자본들이돌아와서무엇과교환되는가, 즉대여되는가? 상품들과교환되는가? 아니다. 우리의수입이언제나수출보다큰상황에서이수출을그나마유지하려면우리는계속수입을억제하지않을수없으니말이다. 그러므로돈은소득이아무리적어도외국인들에게는자신들의자본의이용도가필요치않은우리의상품을구입하는것보다나으니이자소득으로, 돈으로교환된다. 우리의상품은그들이결국에는우리의돈과같이가지게될것이다. 그러므로우리는우리의상속재산을매각하며우리나라에서외국인의임차인이된다. 그후에우리가수입을많이할수록더부자가된다는것을어떻게이해하는가?

어려움의매듭은여기에있으며, 독자는이를힘들이지않고이해할것이다. 또한그러한논쟁에서사실들이가질수있는매력에도불구하고사실들은분석에발걸음을양보해야한다. 그러므로내가잠시동안순수이론에머무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란다.

바스티아씨는자유무역의아킬레우스로서, 갑작스러운출현으로동료들을눈부시게한사람이다. 그는교역에서돈의주권적역할을오해하고모든경제학자들과마찬가지로화폐의규칙적으로진자운동하는가치와상품들의자의적경락운동을혼동해세를따라서아마도상업란이생소한사람을혼동시킬수있을게변의미로에뛰어들었지만, 그미로는가치와교환의참된이론의햇불로아주쉽게빠져나올수있는것이어서공경제학설들의비참함을알리는것이다.

바스티아씨는말한다. “A 와 B 두나라가있다. A 는 B 에대해온갖장점을보유한다. 당신은이로부터노동이 A 에집중되고 B 는아무일도못하는무능에서한다고결론을내린다.”

누가집중과무능에대해말하는가? 그문제에솔직하게들어가자. 두나라가그고유능력대로비슷한, 혹은적어도같은종류의물품을생산하지만, 한나라가더풍부하게그리고낮은가격에만들고, 다른한나라는적은수를비싸게만든다고가설로두자. 가설에따르면이두나라는서로아무런관계도갖지않았다. 그러므로그때까지한나라에노동이집중되고다른나라에무능함이있다고말할여지는없다. 그들의인구와산업이그들각각의능력에비례함은명확하다. 그런데이두나라가상업으로관계를맺게될때어떤일이벌어질지를아는것이중요하다. 그런것이가설이다. 당신은이를받아들이는지를말하라.

“A 는구매하는것보다훨씬많이판매한다. B 는판매하는것보다훨씬많이구매한다. 나는논박할수도있을것이지만, 당신의터전위에선다.”

논박하라, 부디! 절대양보말라. 이거짓된관대함은비열하고의심을남긴다.

“그가설에서노동수요가 A 나라에서아주많아지고곧값이오를것이다. 철, 석탄, 토지, 식품, 자본수요가 A 에서아주많아지고, 곧그것들의값이오를것이다.”

“이시기동안노동, 철, 석탄, 토지, 식품, 자본모두가 B 나라에서아주방치되며, 곧모두값이낮아진다.”

“A 는언제나판매하고 B 는꿈임없이구매해, 척도재는 B 에서 A 로넘어간다. A 에는그것이풍부하고, B 에는희소하다.”

이것이바로핵심이다. 이제 B 가 A 의저가격을어쩔수없이이용할수밖에없어자국의모든돈을지출했으니어떤일이일어날것인가?

“그러나척도재의풍부함, 이는말하자면, 다른모든물건을사려면척도재가많이필요하다는말이다. 그러므로 A 에서는아주활발할수요에서오는실질적인상에귀금속의과잉비율로인한명목적고가더해진다.”

“척도재의희소성, 이는물건을살때마다척도재가별로필요치않다는말이다. 그러므로 B 에서는명목적저가격이실질적저가격과결합한다.”

치들의비례성문제는민족들간의평등문제와도같다. 그문제는조사와사후적계수가아니라노동으로풀수있다. 게다가이행기몇년동안세관선의유지가유익하다고판단된다면, 관세를정하는것은무역정보담당이할일것이다. 관세의징수에관해서는나는행정의경험을기꺼이참조할것이다. 그런상제한사항은내구상에들어가지않는다. 내가국제무역의종합적법칙을입증해보이고, 독자가절대적금수의위험에대해서그리고한계없는자유 의거짓말에대해서한꺼번에경계하도록그적용의최종적양태를지적하는것으로충분하다.

무역수지균형의형이상학적성격에관해몇마디더이야기하고끝맺는다.

무역수지균형의원리가우리가가치를다루면서정한명종의조건들을충족하기위해서는그것은무역의자유와노동의보호를한꺼번에조화시켜야했다. 그런데이는차별관세의확정을통해일어나는일이다. 한편으로그역사적원천이조세의원천만큼별로명예롭지못한이관세는사람들이남용적통행로로간주하는경향을 띠는것으로, 실제로자유에평등의조건을부과하면서자유를인정하고확정하기만한다. 다른한편이관세의징수는, 언제나정확히정해진다고가정하면, 노동을충분히보호한다. 노동에대해대등한힘들간의경쟁을불러일으켜그로부터그것이내놓을수있는것을요구하고, 그것이내놓을수있는것만을요구하기만하는까닭이다.

그러나이조화, 이균형은또한아주새로운속성들을얻으며, 그종합적본성덕에온전한자유도절대적금지도일으킬수없던효과를불러온다. 다시말해이는자유와금수를결합한장점들이상을제공하는동시에그폐단들을멀리한다. 균형없는자유는물론저가격을가져왔지만미약한이득만을제공한모든개발사업들을불모로만들었다. 이는언제나빈곤화였다. 절대적배제에까지밀어붙여진보호는독립을보장했지만고가격을유지하는것이였다. 같은노동의양으로산물들의한종류만을획득하는것이고가격인것이다. 무역의상호성에의거해인간들의번덕과는독립된물적실제적연대가창조된다. 노동하는인민들은그들이거주하는어느지대에서나모두가똑같이자연의재화들을향유한다. 각민민의힘은배가되고그행복도동시에배가되는듯하다. 노동수단의연합은비용을모두에게배분함으로써독점에서는접근불가능한토지들을생산적으로만들수단을제공해, 더많은산물이사회에획득된다. 끝으로무역수지균형은민족들간에곧게지켜져서결코보호와자유방임처럼예속과특권으로타락할수없다. 그리고이는무역수지균형의진리성과유익한영향을증명하기를다한다.

그러므로무역수지균형은명종의모든조건을채운다. 그것은우월한관념안에자유와보호의상반된관념들을포괄한다. 이들에생소한속성들을누리며, 이들이가지는폐단의어느것도제시하지않는다. 의심할것없이이종합을적용하기위해현재사용중인방법은결함이있으며, 그원천에서부터야만적이고세무적인냄새가난다. 그원리가참되다는데는변함이없다. 그리고이를오해하는것은자기나라에대해음모를꾸미는것이다.

이제더고차적인고려사항으로올라가보자.

그러한것이진정여러정부들과귀족들의비밀스러운생각인지내게묻지말라.<sup>10</sup> 이는상황에속하며, 숙명적이다. 세관은오로지경제학자들에게해민족적독점체들에게주어진보호로간주되고, 균형법칙의아직은불완전한표현으로는결코간주되지않아서, 이제부터는세계를담는데더이상충분하지않다. 독점체에는더큰보호가필요하다. 어디서나동일한독점의이익이이를요구하며, 온갖방법으로장벽들의파괴를촉발한다. 로버트필의개혁으로, 관세동맹의끊임없는확장으로, 벨기에와프랑스간의단자연기된관세동맹으로세관의울타리들은거대한두세구획으로정리될것이며, 완전한자유, 더긴밀한단합의필요는지체없이느껴질것이다. 땅위의모든경찰, 모든부르주아지, 모든왕조들이서로협력하는것은노동계급의무지에도불구하고, 이들이처해있는버림받은상태와분산성에도불구하고이들을억제하는데는지나친것이아니다. 끝으로위계의원리에따라수많은직업과특권들로분산된중간계급의공모, 가장똑똑한, 담합을위해지휘자, 심장, 사무원, 감독이된일꾼들의기용, 언론의변질, 다른한편으로분열과빈곤. 수많은원인들이결합해비생산적계층을난공불락으로만들어퇴폐의기나긴시기가인류에게시작될것이다.

두번째로, 당신들이이를생각하지못했는가, 프롤레타리아들이여?

게다가이제부터민족들의균형을차별관세, 다르게말해서무역수지균형이라는더잘이해되고더정확한실무에기초시키려고하는것은쓸데없는수고일것이다. 왜냐하면두가지중하나가일어날것이기때문이다.

문명이봉건제와농노제의세번째시기를통과해야한다면, 세관제도는다경제학자들이아주우습게도그렇게상상했듯이독점을섬기기는커녕독점체들의담합에대한장애물, 그들의발달과존재에대한장애물이다. 이제도가폐지되는것이필요하고, 폐지될것이다. 이폐지의조건들을조정하고독점자들의이익을조화시키는것만이문제다. 그런데독점자들은이런종류의타협에서깨지며, 프롤레타리아의노동은거기서퇴직수당으로소용된다.

반대로사회주의가과학의성년복을입고그유포피아를포기하고, 자신의우상들을불태우고노동앞에서자신의철학적고집을낮추면서, 자유무역의문제에관해이순간까지로버트필에게명예를돌리며심벌즈를흔드는것밖에모르는사회주의가이성과경험을통해사회질서를형성하는데진지하게유념한다면, 노동조건들의평준화는국경선에서상품들이통관할때더이상작동할필요가없다. 그것은모든생산자들사이에서작업장들속에서스스로완성된다. 공장들의연대라는사실덕분에민족들간의연대가존재한다. 회사와회사간에성립하는균형은사실상온세계에존재한다. 세관은쓸모없고밀수는불가능하다. 여기서균형의문제혹은가

<sup>10</sup> 벨기에조약에관해국회에서한장관연설은그런것이아직은우리나라에서체제의생각이아님을증명해준다. 상무부장관귀냉그리덴(Cunin-Gridaine)씨는관세폐지론의유혹에저항해우선모든재야언론에서, 그리고일부여당언론에서호의적으로받아들여졌으며, 아마도 10 월 29 일내각에감사해야할가장큰도움을프랑스에주었다. 이영예로운협상가가프랑스에마련해주는유예로이익을보는프랑스가결국민족들간의자유와평등의진정한원리들에관해깨달을수있기를바란다!

바스티아씨의결론에도달하기전에잠시멈추어서자. 문체의명확함에도불구하고이작가는번번이그를설명해줄논평자를필요로할것이다. 실질적인만큼명목적인저가격은 B 국에서 A 와의관계에따라생겨나는것인데, 이는 A 의생산적우월성의직접적효과이면서그원인보다결코더위력있게될수없는효과다. 다시말해, 각각고려된두나라에서교환가능한가치들의진자운동이어떠하든, 임금, 석탄, 철등이 B 에서인하되는동안 A 에서인상된다면, B 에서지배하는이른바저가격은 A 에서발현되는고가격이라는것에결코경쟁이되지못한다는것이명백하다. 앞의것은뒤의것의결과인데다 A 의산업인들은언제나시장의주인임에변함없으니말이다.

실제로임금, 즉임의의모든산물은결코 A 에서는그나라를위해산물을수출하는기업가들의수요, B 의시장상태에따라조절되는수요를강제할수없다. 다른한편, B 에서생겨나는가격인하는이나나라의사업가들에게 A 의경쟁자들에대한투쟁의수단이결코될수없다. 이가격인하는수입의결과이지, 그토지의천연자원의결과가아닌것이다. 이런점에서수입국의사정은, 추가아래에도달해서움직이려면외적인힘이추를다시올려주기를기다리는시계와같다. 바스티아씨는돈을다른종류의상품들과동일시해서지속적운동을발견했다고믿었다. 그리고이항등식은참이아니므로그는관성만을만났을뿐이다.

우리의저자는계속해서말한다. “이런상황에서산업은 A 를포기하고 B 에정착하게될온갖동기, 내가이렇게말할수있다면, 네제공을한동기를가질것이다. 아니면, 진실에다시들어가기위해산업은이순간을기다리지않았을것이라고, 자연은급격한이동을싫어한다고, 원래부터자유체제에서산업은점진적으로공급과수요의법칙에따라, 즉정의와유용성의법칙에따라 A 와 B 사이에나누어분포했을것이라말하자.”

이결론은반박의여지가없을것이며, 우리가 A 의명목적고가격과 B 의실질적저가격사이에슬쩍집어넣은고찰이아니었다. 바스티아씨는 B 의시장가격표를 A 의시장가격표에종속되게만드는인과관계를못보고는귀금속이 A 에서 B 로, B 에게서 A 로, 마치수평을이론물이균형을재확인하고빈곳을메워주는것외의목적없이, 다른결과없이거니는것같이움직인다고상상했다. 그가말하지않은것이더명확하고참된것이었다. B 의일꾼이자기임금이감축되고임금이 A 의상품수입때문에줄어드는것을볼때, 그는자기나라를떠나스스로 A 로일하러갈것이며, 이는아일랜드인들이영국으로간것과도같다. 그들이 A 의일꾼들에게가할경쟁의해점차자신들의조국을멸망시키는데기여할것이며, 동시에그들은이민간나라안에서일반적빈곤을증가시킬것이다. 그러면거대한재산과거대한빈곤이어디서나다시득세해균형이확립될것이다. ... 말로써실행된이상한매혹의힘이다! 바스티아씨는스스로 B 나라의쇠퇴를막확인했다. 그리고인상과인하, 상쇄, 균형, 수평, 정의, 대수代數로시달린정신은검은것을희다고보고,

아리만 (Ahriman)<sup>4</sup>의 소위所爲를 오르마즈드 (Ormazd)<sup>5</sup>의 소위로 간주하고, 이 명백한 쇠퇴중에서 회복만을 감지한다!

A 의 산업인들이 B 와의 무역으로 부유해져서 자신들의 자본으로 더는 무엇을 할지 모르게 될 때, 그들이 그 자본을 B 로 가져갈 것이라고 당신은 말한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집, 토지, 목재, 하천, 목초지를 구입하러 B 로 가리라는 뜻이다. 거기서 그들이 영지를 만들고, 소작인과 농노를 선택할 것이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권위인 돈에 힘입어 영주와 군주가 될 것임을 뜻한다. 민족의 부는 조국을 떠났다가 이 위대한 봉신들과 함께 외국인 지배와 극빈층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게다가 이 혁명이 완만하게 행해지든 급작스럽게 행해지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바스티아 씨가 아주 잘 말하듯이 급작스러운 이행은 자연이 힘으로 하는 것이다. 상업적 정복의 척도는 침략하는 민족들과 침략을 받는 민족들에서 나타나는 원가의 차이이다. 또한 새로운 귀족 계층이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든, 아니면 그들이 동포와 외국인 사이의 중개인으로 일하는 가운데 대금업과 은행에 의해 부유해진 토착민으로 이루어지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말하는 혁명은 본질상 외국인들의 이민 유입에도, 토양의 반출에도 관련되지 않는다. 대외 무역의 작용 아래 인민이 두 계급으로 분단되는 것, 옛날에는 자유로운 나라, 그 주민들이 종속화의 다른 원인들이 아니면 평등한 상태로 있을 수 있던 나라 안에서 중상주의적 봉건제의 고양, 이것이 바로 이 혁명의 본질이고, 불리한 조건에서 행해진 자유 무역의 불가피한 결실이다.

그러니 뭐라고! 우리는 프랑스로 양이해협을 건너 템스강에서 소멸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의 정부, 우리의 법, 우리의 관심에서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와 교역을 하는 모든 민족들에게서 내보내진 이 주민 집단이 우리의 3500 만 주민이 사는 장소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당시에 따르면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전리품은 담보 채권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민족을 귀족들과 농조들로나눌 것이며, 우리는 잃는 것이 없을 것이다! 자유 무역의 효과는 기계, 경쟁, 독점과 조세의 작용을 강화하고 증진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정복된 노동자 대중에 외국 침입 덕분에 자본의 자비에 맡겨질 때, 그들은 침묵을 지켜야 할 것이다. 빛을 진 나라가 스스로를 팔고, 조국에 매춘행위를 시키는 것 말고 더는 수단 없이 질 때, 그 나라는 경제학자들의 탁월한 천재성 앞에서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우발적으로 과장하는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포르투갈, 자신의 왕, 자신의 신앙, 자신의 헌법, 자신의 언어를 가진 나라가 매수엔조약과 자유 무역에 의해 영국의 소유물이 된 것을 모르는가? 영국식 경제주의는 우리에게 벌써 역사의 감

<sup>4</sup> 조로아스터교의 악신. 페르시아어로 아히리만이라고도 한다. 조로아스터교의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절대악이자 근본적인 어둠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앙그라 마이뉴와는 분리된 존재였으나 후에 앙그라 마이뉴에 신격이 합치되었고, 선과 진리의 근원인 아후라 마즈다와 반대되는 신으로서 앙그라 마이뉴와 동일 개념이 되었다. -편집자주

<sup>5</sup> 조로아스터교의 최고 신으로 아후라 마즈다라고도 한다.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과 인간을 창조했다고 알려졌다. -편집자주

pondération 은 과학이 고제 3 항의 정확한 규정이며, 진실의 이해로서 그 반대의 것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자체를 위해서 그러하다는 것만 주목하게 하는데 그칠 것이다.

오늘날 여전히 경제학자들을 눈멀게 하는 것은 이 중용, 절충 및 고조주의의 이질 못된 철학이다. 그들은 보호가 일시적 전복, 비정상적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정부에 그 필수밖에 없게 하며,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실질적이고 파괴될 수 없는 원인의 결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생산 수산의 불평등에, 그리고 다량 상품들에 대한 화폐의 우위에 있는 이 원인은 옛사람들에 의해 감지되었다. 역사는 이 원인이 일으킨 여러 혁명과 파국들로만 가득하다.

현대에, 그리고 중세에 홀란드인들의 재산, 한자와 룬바르디아 도시들, 피렌체, 제노바, 그리고 베네치아의 번영은 그들이 세계의 모든 지점에서 도모한 무역에 의해 그들의 이익이 되도록 실현된 엄청난 차액이 아니라면 어디서 왔는가? 균형의 법칙은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그들의 항상적인 염려의 대상, 그들의 근면과 노력의 목표는 언제나 법적 틀을 위배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공화국들은 이들의 천과 양념에 대한 교환으로 과금 말고는 그들에게 줄 것이 없는 여러 민족들과의 관계에 의해 부유해지지 않았는가? 거기 회에 그들의 고객층을 이룬 민족들은 망하지 않았는가? 귀족층이 빈한한 상태로 전락하고 봉건제가 끝난 것은 이 시기부터가 아닌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보자. 카르타고와 티로스의 풍요로움에 대한 기초를 놓은 것이 무역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무역, 이는 곧 상사 商社들과 교역의 체계로서, 그 계정들은 언제나 혐오 대상인 이 투기자들에게 유리하게야 만인들의 무지와 순진함을 틈타 빼앗은 다량의 금속으로 수지를 맞추었다. 한 순간 중상주의 귀족정이 지중해 모든 연안에서 발달해 세계의 제국을 장악하기 일보직전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 역사가 가장 엄숙한 이 순간은 스키피오에서 시작해 루터와 레오 10 세에 와서야 끝나는 이 기나긴 퇴보의 출발점이었다. 때는 오지 않았다. 귀족층, 토지 봉건제는 당시에 로마인들로 대표되어 산업에 대한 최초의 전투에 승리했고, 프랑스 혁명에서야 치명타를 입은 것 같다.

현재는 금융 세습 귀족들의 차례다. 마치 다가올 자신들의 패배를 예감한 듯, 그들은 서로 인정하고 서로 단합하고자 자신들의 질과 비중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서열을 만들며, 노동자의 전리품에서 각자의 몫을 정하고 그 유일한 목표가 프롤레타리아트의 확정적 복속인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만 몰두했다. 이 신성 동맹에서 여러 정부들은 서로 연대 관계가 되고 해소되지 않는 친선으로 연역서 독점의 위성체들에 불과하다. 절대 군주와 입헌 군주, 대공, 백작, 러시아 귀족, 그리고 변방 총독들, 대지주, 대산업인, 대자본가, 행정부, 법원, 교회의 공무원들, 한마디로 일하는 대신 세비, 연금, 주식 투기, 공안과 광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공동 이익으로 단합을 이루고 이미 지평선에 이르러 대는 혁명의 폭풍에 의해 곧 결집한 이들은 필연적으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이광대한 음모에 가담해 있다.

당신들은 이를 생각했는가, 프롤레타리아들이여?

것이가능하다면실질적연합, 민족들의물적연합 association in re 을표현하는일일것이며, 세의경제원리의엄격한집행일, 그런차별관세말이다.

그리고우리사회주의자들은, 너무오랫동안우리의망상에지배받아왔지만우리의논리에의해결국보호주의원리, 연대의원리를일반화해그원리를국가들로부터시민들에게로내려가게한다면, 사뭇투명한방식으로노동의이윤배반들을풀고우리가우리의관념의원조말고다른원조없이, 법칙의권능말고다른권능없이, 숫자말고다른강제와영속의수단없이영원히자본을노동에복속시킨다면, 우리는우리시대의문제, 옳건그르건인민에의해, 그리고몸을움츠리는경제학자들에게노동의조직이라고불리는이문제의해결을이상하게도전진시킨것이아닐까?

경제학자들은세관에서이유없는금지만을보며, 보호에서특권만을보며, 차별관세에서무제한의자유를향한첫걸음만을본다고고집을부린다. 모두는예외없이절대적금수로부터보증부자유로진보해서행복한결과를얻게되었으므로새로운진보에의해모든관세가제거되고, 무역, 즉독점이그모든질곡에서구원을받을때는이결과가증가하기만할것이라고상상한다. 우리의모든국회의원들, 기자들, 장관들조차이런한심한환상을공유한다. 그들은하나의부정에서다른부정으로의논리적운동, 자발적고립으로부터자기 자신의포기로의이행을진보라고본다. 그들은실명失明으로부터시각까지의거리만큼멀리떨어진것이중용으로부터종합까지의거리라는것을모르면서도진보가두모순항의결과라는것을이해하지못한다. 그들은길에서멈추어서고중용으로취급받는것을두려워한다.

이와관련해서나는내가차별관세또는무역수지균형이라부르는것, 자유와독점의종합적표현인것이어떤점에서중용의조직과다른지를설명해야한다.

장벽의철폐후에프랑스의수출이일반의기대, 그리고모든개연성에상반되게그수입과똑같다고가정하자. 경제학자들에따르면무역수지균형의추종자들은만족해야할것이다. 그들은아무불평거리도더이상없을것이다. 나는이것이중용일것이며, 결과적으로우리는아직셈이끝나려면멀었으리라말한다. 왜냐하면, 이미말해진것에따르면, 우리가우리의상품들로, 우리나라의화폐로우리나라의시세대로결제하는외국상품들이외국에서우리상품들보다더비싸지않은것을우리에게보장해주는것은아무것도없기때문이다. 그럴경우에우리는언제나손해를보고노동할것이다. 또한수출의수치가수입의수치보다못미쳐서정부가균형의재확립필요성을확실히이런목적으로우리의시장에서외국의특정상품들을배제하고그상품들이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것을장려한다고가정하자. 이는여전히중용에속할것이며, 이에따라, 잘못된계산일것인데, 노동조건을평준화하는대신에완전히임의적인수치들간의균형만을확립하는것이기때문이다. 내가알기로균형보다더중용을앳은것은없지만, 근본적으로는그보다더큰것도없다. 그리고여기서미묘한사항들을길게파고들어길 잃지않도록나는딱한번, 중용이양극단의부정이지만, 긍정도없고, 아무런지식도없고, 제 3 항, 참된항에대한어떠한규정도없는부정인반면, 종합적지식, 관념들의참된중용

각을상실하게했을것이다. 그리고민족적노동의수호자의상상적양식을빌려서보르도사람이옛날엘레오노르드귀엔 (Éléonore de Guyenne) 밑에서했던것처럼프랑스를영국인에게새로이개방하기를원하는것이사실일까? 우리나라안에어떤모가존재해서마치텍사스의상인들이최근자신들의나라를미국에판것처럼우리를유럽의은행귀족집단에팔려는것이진실일까?

다음은가장공신력있는, 그리고보호주의적편견의혐의가가장적은우리신문들중하나에서발췌한것이다. “텍사스문제는근본적으로문제다. 텍사스는재력이없는나라로서는엄청나게큰빚을졌다. 그나라의채권자들은거의모두그나라의영향력있는시민들이었다. 그리고이들의주목적은그들의채권을상환받는것이었고, 누구에게상환받느냐는별로중요하지않았다. 그들은다른팔것이없어서나라의독립을흥정했다. 그들에게는미국이멕시코보다훨씬더빚을갚아줄상태에있는것으로보였다. 그리고그들이당장텍사스의채무를떠안는데동의했다면, 합병은오래전부터기정사실이었을것이다.”(「콩스티튀시오넬 Constitutionnel」, 1845년 8월 2일)

이것이바로기조씨가막기를원했던것이고, 반대세력이텍사스와관련해서그의교섭에대한보고를그에게요구해왔을때그가법정에서설명할수없었던것이다. 이재상이그의운변재능에결맞은운장한이제를발전시키는데착수했다라면, 그의다수의장사꾼들에게얼마나공포를일으켰겠는가? 상업적영향력은민족들에게는빠대만양상하게남게하는죽음이다!

내가여기서그에게아주큰감사를표명하고싶은것인데, 바스티아씨는지극히순수한사회주의에세뇌되었다. 그는무엇보다도그의나라를사랑한다. 그는평등의교리를소리높여선포한다. 그가아주큰헌신성을가지고자유무역의대의를신봉했다면, 그가자유무역연맹관념의선교사가되었다면, 이는그가많은다른이들처럼자유라는이위대한날말에끌린것이다. 이날말은그자체로모호하고불확정적인자생성만을표현하는것으로서진리와정의영원한적인모든열광주의에경이롭게부합하는것이다. 물론자유는민족들에게도개인들에게도평등을내포한다. 그러나이는자유가정의되면서, 자유가법으로부터그형태와권능을부여받으면서그런것일뿐, 자유가아만인들에게서그렇게존재하는것같이모든확정성을결여한채방치된상태로있는한에서는절대그렇지않다. 이런의미에서자유는경제학자들의경쟁처럼모순적원리, 불길한애매함일뿐이다. 우리는그새로운증거를취할것이다.

바스티아씨는이렇게고찰한다. “결국우리가교역에서지불하는것은자연의선물이아니라인간의노동이다. 우리집에서일꾼한사람을부른다. 그는톱을들고도착한다. 나는그의일당으로 2 프랑을지불한다. 그는나에게판자 25 개를만들어준다. 그톱이발명되지않았더라면, 아마도판자하나도만들지못했을것이고, 나는그에게더적은일당을주었을것이다. 톱에의해생성된숱모는그러므로나에게는자연의무료선물이다. 아니, 이는내가모든형제들과함께조상들의지능으로부터공동으로받은유산의한몫이다. ... 그러므로보수는생산자가시장에내놓는

쓸모와비례하지않고그의노동과비례한다. … 그러므로결국자유무역은그목적  
이모든민족에게자연의무료효용을누리게만드는것이어서어느민족에게도손해  
를결코끼칠수없다.”

나는로시, 슈발리에, 블랑키, 뒤누아에, 픽스제씨諸氏와그밖의순수한경제  
학전통의수호자들이바스티아씨의이학설, 일체의독점을일거에물리치고무로  
돌리고노동을가치의유일하고최고인심판자로만드는이학설에대해생각한것을  
모른다. 잘생각해보라. 바스티아씨의명제를공격할사람은내가아니다. 내눈으  
로볼때그명제는평등자체의뭇부린문장이며, 결과적으로경제학자들이이해하  
는의미에서자유무역의정죄가거기에있는것이다.

내가지불해야하는것은자연의무료효용이아니라노동이다! 이런것이사회경  
제의법칙, 아직잘안알려진법칙이, 오늘날까지도노동분업, 기계, 경쟁등이런  
여러종류의신비들로감싸인채로있어, 그것들의대립에따라조금씩발견되도록  
한다. 바스티아씨는스미스의참된제자로서마땅히그래야하는것, 결과적으로그  
렇게되는것을우수하게인식하고나타냈다. 즉, 그는그렇게있는것을완전히잇었  
다. 노동의법칙, 교환에서의평등이진실로실행되려면, 경제적모순들이모두풀  
릴필요가있다. 우리를사로잡는문제와관련해서이는, 연합 association 의바  
깁에서무역자유는언제나힘의횡포에불과하다는뜻이다.

이처럼바스티아씨는몹의사용이어떻게모두에게무료선물이되었는지를아  
주잘설명한다. 그러나오늘날우리의독점적법률들을가지고서몹이알려져있지  
않다면, 발명가는즉시특허를받아서그장비의이득을있는대로취할것이확실하  
다. 그런데이런것이바로토지, 기계, 자본, 그리고모든작업도구들의조건이다.  
그리고바스티아씨는경쟁을독점에대립시키고열대지방들을온대지방들에대립  
시키면서우리에게다음과같이말할때, 완전히잘못된가정에서출발한다. 아니,  
그는부당하게미래를기대한다. “행복한기적에의거해모든경작가능한땅들의비  
옥도가상승한다면, 이현상의이득을취할것은결코농업인이아니라소비자다. 왜  
냐하면그것은풍부함, 저가격으로풀릴것이기때문이다. 밀 10 리터마다들어가  
는노동은더적을것이며, 농업인은이를다른모든산물에포함된더적은노동하고  
만교환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더나아가서

“A 는자연의혜택을받은나라이고, B 는자연의푸대접을받은나라다. 나는교  
역이두나라모두에이롭지만특히 B 나라에이롭다고말한다. 왜냐하면교역은쓸  
모를쓸모로교환하는것이아니라가치물인가치물로교환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 A 는같은가치에더많은쓸모를내놓는다. 산물의쓸모는자연이거기에만  
들어준것, 노동이거기에만들어준것을포괄하는반면, 가치는노동이거기에놓은  
것에만상응하는것이다. 그러므로 B 는자신에게아주유리하게거래를한다. A 의  
생산자에게단지그의노동만값아주어그는거래를넘어서주는것보다더많은자연  
적쓸모를받는다.”

비옥도가같지않은두나라 A, B 가있다. A 에서는일꾼 2 만명이밀 100 만말  
을생산한다. B 에서는그절반밖에생산하지않는다. 그러므로밀은 B 에서는 A  
에서보다두배가더비싸다. 실제로는일어나지않는일이지만이론에서는아주잘  
수용되는일을가정해보자. 근본적으로가장다양한무역은다양한형태에서유사  
한가치물의교역말고다른것이아니니말이다. 말하자면, B 나라의생산자들이그  
들의밀을 A 나라의밀과교환하기를요구한다고가정하자. 밀한말이밀한말의대  
가로주어진다면, 하루치노동의대가로주어질것이이틀치노동일것임이명확하  
다. 소비면에서그효과는전무할것이다. 결과적으로어느쪽에도실질적손해는없  
을것이다. 그러나두수량에내포된가치가그로부터다른쓸모의형태로, 혹은화폐  
의형태로도출될수있게하라. B 에서생산된모든가치물이그곡물의가치에비례  
하므로, 다른편 B 가내놓는국정화폐가 B 에제시될때는어떠한지불에서도 B  
는이를거절할수없으므로우선은산물들의유사성때문에실재가없는비교에불과  
했던교역, 이교역이효력이있게된다. 그리고 B 는 A 와의무역에내놓는모든가  
치물대에대정말로 50% 를잃는다. 교역이라고하는, 말하자면아주형이상학적  
이고아주대수학적인이조치는사회경제학에서하나의관념이름, 형체, 그리고물  
질의모든속성을취하는조직이다. 이는무로부터의창조다.

그결과들은무한히달라질수있다. A 의생산자들이 B 의시장으로와서 B 의  
생산자들에게경쟁을결능력을획득한다고가정하자. 그들이판매할밀한말마다  
50% 의이득, 즉 B 의연간산물의절반을그들에게가져다주어서, A 나라가우선  
은유통하는가치물들을정복하고그다음은그도움으로투자된가치물, 그리고끝  
으로그속적의토지자본을정복하는데 20~30 년이면충분할것이다.

그런데, 이야말로여러민족들의상식이원하지않던일이다. 이민족들은실무  
적으로그들중가장불리한민족들이가장유리한민족들에게이들의지대초과분에  
대해해명을요구할권리가없다는것을인정해왔다. 이완화된태도에는이순간  
에도출하는것이쓸데없는이유들, 게다가각자가생각을해본다면발견하게될이  
유들이있었다. 그러나무역이문제가되었던경우에각자는자신의원가와자신의적  
수의원가를계산하는일에착수했다. 그리고모든민족이특혜관세를제정해서, 그  
것없이교역을하는데동의해서도안되고동의할수도없게된것은이계산에따른  
것이다. 이야말로진정한원리이며, 세관의철학이다. 그리고이야말로경제학자  
들이원하지않는것이다.

나는통속적으로무역수지균형이라고불리는이균형법칙의필요성을길게증  
명함으로써독자들을오욕하지않을것이다. 이모든것은어린이라도낮을불힐만  
큼간단하고, 진부한것이다. 경제학자들에관해말한다면, 나는그들이장황한설  
명이필요없을정도로충분히계산이빠르다고가정한다.

지금관세가끊임없이절대적금수에서완전한면세까지각나라의필요, 여러정  
부들의현명함, 독점체들의영향, 여러이익들의대립, 민족들의불신에따라진자  
운동을하면서, 그럼에도한균형점을향해, 그리고기술적용어를사용하자면차별  
관세를향해수렴한다는것이진실이야인가? 그것을엄밀하고충실하게획득하는

이러한것이아마도가장철학적이지는않지만소작료확정의점진적진행과정을설명하는가장간편한이론이다.

이점에동의하고나서, 모든사회주의학파의작가들과함께토지의소유권이집단적인것이되어각농업인은그의땅의비옥도에따라서가아니라, 바스티아씨가아주잘말하듯이그의산물에들어간노동의양에따라서보수를받는다고가정하자. 이가설에서 1 급토지가아르팡당 100 프랑의총가액을낸다면, 이는

- 1 급토지 100 프랑
- 2 급토지 80 프랑
- 3 급토지 70 프랑
- 4 급토지 60 프랑
- 5 급토지 50 프랑

총계 60 프랑  
개발비용을아르팡당 50 프랑이라고가정하면, 5 아르팡에대해서는 250 프랑

개발전체에대한순생산은 110 프랑

그리고공동소유자인개발자각사람에대해서는 22 프랑

각중토지의개발비용들이다를경우에경작의모든다양한형태들에대해서처럼같은기준이적용된다. 나아가연합의체제에서는생산물과서비스의이연대성덕분에개별산물비용을충당하지못하는토지들에경작을확장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이는독점에서는불가능한일이다.

이모두가사회주의자의꿈일뿐임을나는잘안다. 소유주의일상관행에의해반박되는유토피아다. 그리고이성이관습에대해무능력하므로노동에따른분배가장기적으로사람들사이에확립될지도걱정이다.

그러나소유권과정치경제학이민간산업의열정과같은열정을가지고배척하는것을, 모든민족은그들의영토에서난산물을서로교역하는것에관한경우에는이를바라는것으로의견일치를이루었다. 그경우에그들은서로를독립적인주권자로, 리카도의가설에따라불균등한품질의토지를개발하지만, 서로간에서사회주의자들의가설에따라지구의개발이용을위해하나의거대한회사를이루어그각구성원이토지전체에대해분리되지않은소유권을가지는개체들로간주했다.

그리고다음은그들이추론한것이다.

산물들은산물들로만구매된다. 즉, 산물은그쓸모에비례하지않고, 이쓸모에들어간노동에비례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불균등한토질때문에 A 나라가 50 의노동에 100 의산물을내는반면에 B 나라는 80 만을내놓는다면, A 는 자신의모든수확물에서 10% 를 B 에게채워주어야한다.

이할당은정말로교역의순간에만, 또는말하듯이, 수입에서만요청된다. 그러나원리는존속하며, 이를부각시키기위해서는두민족간에교역이되는다양한가치물들을단일한표현으로가져가기만하면된다. 밀을예로들어보자.

그렇다. 다시한번, 당신에게나는목청껏외칠것이다. 가치를만드는것은노동이지, 당신이방금말했듯이, 그리고당신을이해하지도못하면서당신에게갈채를보내는당신의동료들모두가가르치듯이공급과수요가아니라고. 서로지불되고교환되는것은노동이지, 토양의무료효용이아니다. 그리고당신은당신의선의와당신관념의비일관성을이보다더잘입증해주는어떤것도말할수없을것이다. 그러한조건에서교역의가장절대적인자유는언제나이익이되며, 결코해롭게될수없다. 그러나독점, 산업의여러특권, 자본가의선취권, 소유의주인된권리, 이런것들을당신은폐지했는가? 당신은단지그것들을폐지할수단만을가지는가? 당신은그것들의폐지의가능성, 필요성도믿는가? 나는당신에게의사를표명하라고촉구한다. 왜냐하면여러민족들의안녕과자유가걸린문제이기때문이다. 그러한문제에서애매한말은반역이된다. 민족영토의특권, 그리고개별소유권이당신에의해전제될것인한에서당신입으로말하는교역의법칙은거짓말일것이다. 모든나라의생산자들간에동의가이루어진연합과연대, 즉자연의산물들의공유, 그리고노동의산물들에만대한교역이없는한, 대외무역은중족들간에노동분업, 임금제도, 경쟁, 그리고모든경제적개체들이개인들간에작동시키는노예화와중속의현상을재생하기만할것이다. 당신의자유무역은, 내가힘차게가해지는약탈이라고말하는것을당신이좋아하지않는다면, 속임수일것이다.

자연은혜택을본민족들을일반적연합으로가져가기위해침입과정복에족쇄를채우는자연적장애물로써이민족들을분리했다. 그리고당신은보증을취하지않고이장애물들을치운다! 당신은자연의예방조치를쓸모없는것으로판단한다! 당신은자기나라에속하기를원치않는소비자의이기심을충족해주려고한민족의독립을건다! 내부의독점에대해당신은외부의독점만대립시킬수있다. 여전히독점인것이다! 그래서당신의모순의약순환에서멤도는것이다! 당신은우리에게노동이노동을교환할것이라고약속한다. 그리고교환에서는독점과교환되는것이독점이라는것, 그리고노동의적인브렌누스 (Brennus) 가슬그머니저울에칼을올려놓았다는것이드러난다!

진실과실재의, 법과사실의혼동, 전통과진보의적대가최선의정신들을끊임없는당혹함에내던지는그당혹감은바스티아씨에게서가장통속적인실제의사물들에대한분별력까지빼앗은듯하다. 다음은그가자신의논제를증명하려고보고하는사실이다.

한제조업자가맹체스터의상공회의소에서이렇게말했다. “옛날에우리는직물을수출했습니다. 그리고이수출은실수출에자리를내주었습니다. 실은천의원재료입니다. 그다음에는실의생산장비인기계수출에자리를내주었습니다. 나중에는우리가기계를제작하는데들어가는자본의수출에, 끝으로우리가진자본의원천인우리일꾼들과산업의재능을가진이들의수출에자리를내주었습니다. 이모든노동요소들은차례로작동시키기에가장유리하다고보이는곳, 생존이더저렴하고, 생활이더쉬운곳에서작동해왔습니다. 그리고오늘날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작센, 스위스, 이탈리아에서엄청난제조업들이영국자본을가지고창설

되어, 영국일꾼들을 고용하고 영국엔지니어들에 의해 경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말로 자유무역의 경이로운 정당화 이유가 아닌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작센, 이탈리아는 세관의 보호를 받고 보유금속의 수량이 이미 해그 구매에 제한을 받아 영국의 산물을 할인혜택 아래서만 받아들였고, 지불할 수 있던 것만을 취했다. 영국자본들은 족쇄가 채워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나라를 빠져나가 이 접근 불가능한 나라들에 귀화해서 오스트리아 자본, 프로이센 자본, 작센 자본이 되어 해외이주주로서 그 운명의 불의를 교정해 간다. 과거에 이자본들을 멀리했던, 그리고 지금은 그들을 보호하는 바로 그 세관들의 보호 아래, 자본보유자들이 노동에 별로 소질이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노동의 도움을 받아 그 자본들은 시장을 장악하고, 모국에 경쟁을 걸고, 연이어서 그 모든 산물을 우선은 직물을, 그다음은 실을, 그리고 나서 기계, 그리고 나서는 특히 위험한 것, 고리대를 격퇴한다. 그리고 노동조건의 이평준화 작업에서, 각민족이 그 이웃의 산물을 교환의 평등조건 아래서만 받아들일 필요성, 이웃의 자본을 대여가 아닌 투자의 명목에서만 받아들일 필요성을 소리 높여 알리는 이 사실에서 무역자유를 편드는 논리를 발견한다! 내가 아무 것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바스티아씨가 연합과 임금제도, 대금업과 합자회사가 같이 극히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새삼 혼동하든지 하는 것이다.

무역수지균형이론에서, 다른 모든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들을 길 잃게 한 모순은 그때문에 바스티아의 정신을 타격했다. 한때 그는 그 현상의 두 측면을 파악하는 듯했다. 유감스럽게도 논리는 프랑스에서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서 원리들의 대립이 그로 하여금 종합해 결론을 짓도록 했지만, 그는 하나가 거짓으로 입증된다면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수학에서만 참이 되는 수학자의 공리와 관계를 맺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소비하기 위해 생산한다. 그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다. ...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그 이익이 이중적임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판매자로서 우리는 고가격, 그리고 결과적으로 희소성에 이익을 가진다. 구매자로서는 저가격, 혹은 같은 것인, 물건의 풍부함에 이익을 가진다.”

거기까지는 관찰과 추론 상충을 데었다. 그러나 난점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이기도 했다. 바스티아씨의 통찰력에 설치된 올무는 기만적인 이대립 아래 숨겨져 있었다. 실제로 나는 생산자이나 소비자나 내 이웃간에,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어느 편을 들지 말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인격화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동시에 소비자들도 기도한 한 민족의 생산자들과 또한 그 생산자들도 기도한 바로 이 민족의 소비자들간에 어느 편을 들까? 논리가 없을 때는 상식이 이 범주들 중 이것 또는 저 것을 선호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해준다. 이 범주들은 카스트가 아니라 상관적 기능들을 지칭해 똑같이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이라는 이 불화의 과학은

### III. 무역수지균형이론

무역자유 문제는 오늘날 아주 중요해져서 그로부터 결과로 나오는, 인류에게 선과 악이 되는 두 계열의 결과들을 해설한 후에나 그 해법을 알리기를 그만 둘 수 없다. 이처럼 내 증명을 보완해서 희망컨대 내가 차후의 일체의 토론을 독자의 밝은 눈으로 볼 때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들었기를 바란다.

옛사람들은 자유무역의 참된 원칙들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현대인들이 이론에 대해 자만을 드러내는 것만큼 이론에 별호기심이 없어서 내가 알기로 이런 점에서 자신들의 관념을 결코 요약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바로 전통적 진리가 모호하게 되는데는 경제학자들이 그 문제를 독차지하게 된 것으로 충분했다. 무역수지균형이 한 세기의 파문 破門 후에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역사와 만민법의 이름으로 모든 기정사실의 옹호자들이 아주 자유롭게 유포피아주의 자라는 칭호를 붙여 주는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해 증명되고 옹호되는 것을 본다면 가슴이 아플 것이다. 이 증명은 내가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신경 쓸 것인데, 이는 내적 철학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사색에 내가 내놓을 마지막 논지일 것이다.

무역수지균형의 원리는 다음의 둘로부터 종합적으로 나오는 결과다. 1. 세의 공식, 산물들은 산물들로만 구매된다는 공식에서 나오는데, 바스티아씨는 이 공식에 대해 보수는 생산자가 시장에 가져다 놓는 쓸모에 비례하지 않고 이 쓸모에 내포된 노동에 비례한다는 논평을 했으며, 이는 평을 한 첫 번째 영예는 아담스미스에 게 돌아간다. 2. 리카도의 지대이론에서 나온다.

독자는 첫 번째 항목에 대해 충분히 고화되었다. 그래서 나는 둘째 항목으로 넘어간다.

우리는 리카도가 지대의 원천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안다.

리카도의 이론은 철학적 관련 사항에서는 아쉬운 지점을 남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뒤에 가서 제 11 장에서 보여 줄 것처럼 소작료 불균등의 원인에 관해 덜 정확한 것도 아니다. 리카도가 말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1 급 토지에, 같은 지출로 더 큰 수확량을 내는 토지에 우선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이 토지의 산물이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불충분해지면서 2 급의 토지 개간에 착수하며, 이런 식으로 3 급, 4 급, 5 급 그리고 6 급의 토지들까지 계속해 가지만 여전히 토지의 산물이 적어도 경작비용에 상당한다는 조건에서 그렇게 한다.

동시에 토지 독점은 확립되기 시작해서, 모든 지주는 그가 토지의 개발을 맡긴 대리인에게 토지의 경작이 생산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에서 경작 노동자의 임금을 뺀 것, 즉 개발비용을 뺀 것만큼을 소작료로 요구했다. 그래서 리카도에 따르면, 본래적의 미의 지대는 가장 비옥한 토지 산물이 열등한 품질의 토지들에 대해 가지는 초과분이다. 그 결과 소작료는 더 낮은 품질의 토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비용을 충당해 주지 않는 토지에 도달할 때까지 옮겨가지 않을 수 없을 때만 열등한 토지들에 적용되는 결과가 된다.

프롤레타리아는 새로이 세계에 대해 견지되는 산업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모호한 평등의 기대를 벗어날 것이다.

관세폐지연맹이 실도하든 부인하든, 연맹은 무역자유를 통해 여러 민족들의 예속화로 나아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웅변자들의 박애주의를 자랑할 때 신실한 영국이 그 경전들과 선교사들을 가지고 서도처에서 약탈과 강도짓을 시작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해야 했다. 경제학자들은 대영제국의 반역금수선동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긴 침묵에 놀랐다. 그리고 나역시 그에 놀랐지만, 아주 다른 동기 때문에 놀랐다. 우리 이웃들의 입장에서 이 체제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완전한 적용에 불과한 것을 사람들이 무역수지 균형 체제의 엄숙한 포기로 간주한다는 것, 이 거대한 영국인의 희극을 사람들이 유럽의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희극에서는 이론가라고 하는 자들이 도버해협이 쪽편의 바보들이 저쪽편의 친구들로서 우리에게 희생자 역할을 맡도록 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수입하는 민족들, 착취당하는 민족들. 대영제국의 위정자들이 경이롭게 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산물을 무력으로 세계에 강요할 수가 없어서 세계의 다섯 대륙에서 자유무역의 광산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로버트 필은 연단에서 이렇게 실도했다. “우리가 국물법을 개혁하는 것은 더 낮은 가격에 생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프랑스 의회에서 인용된 발언은 갑자기 우리들 사이에서 관세폐지론에 관한 열심을 잠재웠다. 로버트 필의 개혁이 충분히 보호주의적인 특성을 보존하며 해외 시장에서 자신의 패권의 기초를 놓기 위해 사용하기 원하는 또 하나의 무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거의 모든 프랑스 언론<sup>9</sup>의 고백에서 확인된 채로 있었다.

자유무역, 즉 자유독점은 자본과 산업의 거대 봉건 신하들의 신성동맹이며, 지구상의 각 지점에서 노동분업, 기계, 경쟁, 독점 및 경찰에 의해 시작된 과업을 완수해 소산업을 짓밟고, 프롤레타리아트를 최종적으로 복속시켜야 하는 괴물 박격포 mortar monstre 다. 이는 시초에는 문명의 자생적 산물이던, 그러나 문명이 자신의 법칙들에 대한 의식을 획득하자 곧 소멸해야 할 약탈과 빈곤의 체제를 지구의 모든 표면에서 중앙 집중화하는 것이다. 이는 소유권이 그 힘과 그 영광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굶주리는 것, 수많은 무고한 피조물들이 정맥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억압을 겪고, 수많은 딸들과 부인들이 매춘부가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팔리고, 수많은 성품들이 시드는 것은 이 체제의 완성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이미 로에서 출구를 알고, 이 고역의 끝을 안다면! 하지만 아니다. 언제나! 결코! 저주받은 자의 시계처럼, 경제적 묵시록의 되풀이다. 오! 저주받은 이들이 지옥을 볼 태울 수 있다면!

<sup>9</sup> 부처部處에 맞서 싸우려고 한 신문들, 「주르날 데 데바 le Journal des Débats」, 「시에클 le Siècle」, 「쿠리에 프랑세 le Courrier français」는 바로 저명한 경제학자들에게 경제면을 맡긴 신문들이다. 부처의 현명함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그 신문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남겨두었다. 민주적 신문들로 말하면, 그 신문들이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일어난 일을 전혀 말하지 않았음을 보고해야 하는 것은 괴롭다. 그들은 카르파티아에 영하하러 갔던 것인가보다!

이런 총체로 써서 물을 볼 줄 모른다. 정치경제학에서는 사회안에서 이익과 권리상대립하는 개인들밖에 없다. 불행히도 바스티아씨는 감히 선택을 했고, 길을 잃었다.

“두 이익이 서로 모순되니, 그중 하나는 필연적으로 사회이익 일반과 일치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이에 상반되어야 한다. …” 그리고 바스티아씨는 소비자의 이익이 생산자의 이익보다 일반적으로 더 사회적이므로 정부들은 이런 측면에서 보호 조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현학적으로 증명한다. 나는 이 질문을 자격 있는 독자들에게 제기하노니, 지금 경제학자들에게 걸여된 것이라고는 추론할 줄 아는 것임이 입증되었는가?

당신 스스로 이것을 말했다. 소비자의 이익은 생산자의 이익과 사회안에서 동일하다고,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의 문제에서 개인에 대해서 처럼 사회에 대해서 추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두 이익을 어떻게 서로 분리할 수 있겠나? 당신은 한 소비자가 그의 산물 말고 다른 물건을 가지고서 구매한다고 상상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한 민족이 그 민족의 돈을 가지고 구매하든 그의 산물을 가지고 구매하든 상관없다고 어떻게 주장하는가? 이 체제의 결과가 생산업은 소비, 즉 파멸이니 말이다. 소비자, 사회는 구입하는 것의 저가격으로부터 그 사회가 자신의 구매를 동등한 가치를 체화한 일정한 산물로서 충당하는 만큼만 이익을 본다. 이것을 당신은 어찌 잊는가?

나는 당신이 매달리는 것을 안다. 당신은 당신이 생산이라고 부르는 개별적 이익을, 당신이 소비라고 칭하는 사회적 이익에 대치시킨다. 그리고 당신이 최대 다수의 이익을 최소 수의 이익보다 선호하므로, 당신은 생산을 소비에 제물로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의 의도는 훌륭하다. 나는 이를 법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당신은 구슬을 틀렸다고, 검은 구슬이라 말하기 원했을 때 흰 구슬 쪽에 투표했다고, 당신에게 사회는 이기주의로 파악되었고, 거꾸로 이기주의는 사회로 파악되었다고 덧붙인다.

자유무역에 열린 어떤 나라에서 수입과 수출의 차이가 단 한 품목에서 나온다고 가정하자. 그 품목의 생산은 보호가 되어 있었다면 그 민족을 이루는 3000 만명 중에 2 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자. 당신의 체제에서 이 2 만명의 생산자들의 개별 이익은 3000 만명 소비자들의 이익을 이길 수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 그리고 외국 상품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내 견해로는, 반대로 외국 상품은 토산품으로 변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척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단체 이익의 관점에서 가 아니라 사회 자체의 이익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나는 그 이유를 말했으며, 이를 두 마디 말로 환기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화폐가치는 뭐라고 해도 다른 가치와 같은 가치가 아니라 는 것, 그리고 한 민족은 그 금속자본을 가지고서, 가장 이상화되고 가장 굳건한 그 가치물을 가지고서 그 실체, 그 생명 그리고 그 자유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바늘에 찔린 상처 때문에 피를 계속 흘리는 한 사람은 물론 한 시간 내에 죽지 않을 것이고, 보름 안에 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의 유출이 목을 통해 생겨나든, 작은 엄지를 통해 일어나든 중요치 않을 것이다. 이처럼 독점적 이기주의에 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그의 재물들, 그의 노동과 근로의 결실에 대한 완전한 처분권을 보장하는 소유법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연대해 있다. 정의의 관계이면서도 경제의 관계인 이 관계는 당신을 어떻게 벗어났는가? 당신은 당신의 글 속에서 튀어오른 이 울배반을 어떻게 감지하지 못했는가?

학파적 편견들의 한심한 효과! 바스티아씨는 사회의 거대한 지평 아래 자신이 위치한다고 믿으면서, 이기심이라는 좁은 관점에서 자유무역의 문제를 판단하면서 그 본질상 (나는 세관의 변칙성과 성가심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다) 토산품의 등가의 양도에 해외산품의 변제를 보장해주는 이론, 그것 없이는 외산품의 구매가 어떤 가격에서 이루어지든 사실상은 빈곤화일 뿐인 이론을 부족이론 *théorie de la disette* 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는 외부에서 오는 모든 상품들이 척도재로만 변제될 경우라도 그의 면제를 요구하는 이론을 풍요이론 *théorie de la l'abondance* 이라 칭한다. 결국 금리 생활자들에게만 이익이 되고, 나태함을 강화하는 결과가 될 뿐인 이런 종류의 자유가 마치 고역 없는 소비, 방만한 향락, 자본의 파괴가 아니라는 듯이 말이다. 이 길로 일단 들어서면, 끝까지 이 길을 통해야 했다. 그리고 고역제의 당파에 적용된 단지 저자에게 우스꽝스러운 시시포스주의 *sisyphisme* 라는 바로크적 초침은 이기나 긴 육설을 끝내려고 나왔다.

자유로운 독점 이론, 이는 일종의 풍요이론이다. 아, 정말. 철학자들도 사제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적 몰상식과 맹신을 재보기에는 경제학자들로 충분할 것이다.

모든 관세를 동시에 폐지하라 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그리고 관세 인하가 일반적인 일경우 모든 산업이 이익을 볼 것이다. 부분적 고통은 없을 것이다. 민족의 노동은 증가할 것이며, 당신은 외국인을 뒤쫓을 수 있을 것이다. 불량키씨가 화려한 논변으로 에밀 드 자라르탱씨는, 노동의 민족성 원칙을 수호하고자 한 우리나라 기자들 중 유일 한 사람을 침묵시킨 것은 이런 유아적 이성 을 가지고 한 것이다.

물론, 한 나라의 모든 산업인들이 원재료를 더 저렴한 가격에 조달할 수 있더라도, 그들 각각의 조건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떤 점에서 난점을 건드리는가? 각 민족 안에서 민간 산업들의 균형이 아니라 민족들의 균형이 문제다. 그런데 나는 위에서 행한 고찰을 다시 논한다. 이 일반적인 하, 이들 노동과 동등한 가치로 과거에 우리에게 사흘이 걸린 것을 가지는 이 이익은 우리가 무엇의 덕을 보는 것일까? 우리 자신의 노력 덕분일까, 아니면 수입 덕분일까? 그 대답은 의심스럽지 않다. 이는 수입 덕분 일 것이다. 그런데, 염가의 원재료가 외부에서 온다면, 원재료의 운송 비용으로 증가한 우리의 노동을 외국의 산물에 더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찌 외국인과 경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가격 인하가 우리를 그에 맞서 싸우는 상태로, 즉 그의 산물을 우리의 산물로 지불하는 상태로 둔다는 것이 모순을 내포한다면, 우리는 그의 발송품을 어떤 상품으로 변제할 것인가? 물론 우리의 돈으로 변제한다. 그렇다면, 돈이 다른 상품처럼 하나의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아니면 모든 상품이 돈과 동가가 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라. 당신은 말썽꾼이고 경솔한 자일 뿐이다.

1845 년 「정치경제학 연감 *L'annuaire de l'Économie politique*」 은 1845 년 「경제평론 *Revue économique*」 의 불길한 예견을 확증했다. 거기서 이런 구절을 읽게 된다.

“중국과의 조약은 아직 영국인들에게 그로부터 기대하는 혜택을 남지 않았다. 영국인들은 수년 전부터 천하의 제국에 해로운 엄청난 무역수지에 따라 척도재가 그 나라에서 아주 희소해져서 이 나라와의 모든 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것을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시작한다.”<sup>7</sup>

그리고 결론적으로 픽스씨는 다른 날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다. “중국의 운명은 인도의 운명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국이 이 방대한 지역에서 가지는 소유물의 원천은 다양한 인민들에 대한 예속화와 착취를 명령한 역겹고 악명 높은 이 정책에 관련된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경제학자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들은 금수론자들, 그리고 신의 없는 알비온 *Albion*<sup>8</sup>의 상품들을 불신하는 이들을 황송하게도 놀려대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어느 프랑스인이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 아주 온전한 진리를 말하려고, 혹은 심지어 발견하려고 하는 지를 모르겠다는 동발씨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으므로, 조금 한 마음으로 경제학자들이 대답하기를 기다린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적이기 는 하지만, 내가 옳건 그르건 그들의 이론이 지니는 신용을 파멸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고 사람들이 보기는 하지만, 나는 그 과학을 분열시키는 — 심지어 ‘그 과학을 영예롭게 하는’ 이라고 말하자 — 위대한 여러 학파들 중 하나가 우리의 자존심 강한 나라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적수인 나라의 비밀 요원으로 행세하는 것으로 쾌활한 마음에서 그리고 거짓관대함의 움직임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 과학에는 재앙이라고 간주한다.

모든 사람은 무역의 자유를 위한 영국의 선동이 우선은 단지 곡물의 독점에 반대해 이끌어낸 것임을 안다. 산업이 감축의 모든 수단을 다 동내고 나서, 과거에는 노동자의 급여에 잔돈으로 쓰이던 구빈세가 폐지되고 나서, 제조업자들은 곡물 관세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필수품 가격을 낮추려고 했다. 그들의 생각은 처음에는 더 멀리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입장에서, 즉 영국 산업 전체의 입장에서 더 이상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농업의 도전을 아주 잘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지주들이 그들에게 제기한 항의에 따라서였을 뿐이다. 제조업자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부분적 개혁이 아니라 일반적 개혁으로 밀고 나가자.’ 이는 이론 동시 에 논리적 일 것이다. 이는 최상으로 여겨질 것이다. 일 순간 자리를 빼앗긴 재산가들은 다른 사항들에 관해 스스로 개혁할 것이고, 영국의

<sup>7</sup> 이기사는 「주르날 데 제코노미스트」에서 그 후로 더 진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에 기초해 반박되어 왔다. 내 의견으로는 그 사실이 영국 정책의 필연적 결과인 만큼 더욱의 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필연성 앞 에 장유식 한 기자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의 철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sup>8</sup> 영국을 지칭하는 옛 명칭-역자주

가지로제한된산업적특수성의비정상상태에도 불구하고그악은상업적으로말해 서존재하지않을것이다. 하지만누가영국의상황에대한허위를, 거짓말을못보는 가? 영국노동자들이일하는것은다른민족들의산물을소비하기위해서가아니다. 그수출은항상상승하는척도재의반입으로영국에유리하게변제되는것이절대로 필요하다. 영국은아무에게서도실도, 직물도, 석탄도, 철도, 기계도, 철물도, 모 직물도기다리지않는다. 나는심지어곡물도, 맥주도, 육류도기다리지않는다고 말할것인데, 영국이겪는결핍은귀족계층의독점의결과로서실질적이라기보다는인위적인것이다. 곡물법개혁후에영국의수입收入은한편으로줄어들것이지 만다른한편으로곧바로늘어날것이다. 그렇지않다면영국에서벌어지는현상은 이해불가능하고, 터무니없을것이다. 영국이외부에서끌어들이는소비품목, 차, 설탕, 커피, 포도주, 담배를보자면, 영국이대가로내놓을수있는제조물품의양에 비하면별것아니다. 형성된조건에서영국이살수있으려면, 영국과거래하는민족 들은면, 모, 마, 아마, 비단을방적하지도직물을짜지도않겠다고약속하는것, 그 민족들이영국에게철물의특권과더불어해양의독점을양보하는것, 결국그민족 들이현대의개혁자들중가장유명하고미친사람푸리에가조언하듯이영국인들의 위원회를수용하는것, 영국인들이지구의배달부가되는것이필요하다. 이모든것 은가능한가? 그리고이모두가불가능하다면, 영국인들과의교역의호혜성은무 역의절대적자유체제속에서어떻게참일수있을까? 끝으로다른민족들을희생시 키지않고영국의상황은어떻게유지될수있는것인가?

영국인들이중국에들어간 이래로 그들은중국인들에게비금지의원칙을실행 하게한다. 옛날에척도재의반출은천하제국에서엄격히금지되었다. 지금은금 화, 은화가자유롭게나간다. 「주르날데제코노미스트」(1844년 1, 2월)는 이주제에관해이렇게 의견을표명했다. “영국은중국으로부터원하던것을얻었으 며, 북경에대사를두는값비싼명예를포기한다. 그리고그영향력을두려워할수있 을모든정치적인물으리렇게불평의소리도나오지못하게하면서멀리한다. 다 른한편, 영국은여러조약들에추가조항을넣는데동의했는데, 이는원래영국이자 국의것으로배타적으로유보했던모든이점을모든국가에게부여하는조항이다. 이런외면적양보덕분에영국은중국에서유럽의외교관들과상인들, 심지어는아 메리카의외교관과상인들의존재를쓸데없게만들었다. 그러나영국은중국시장 의혜택을차지하는거의유일한나라가되는데지장이없도록일을처리했다. 왜냐 하면관세를조절하고무역에개방된다섯항구들에서관세의적용을주관할것이영 국이기때문이다. 이관세들이특히영국이경쟁을두려워하지않는품목들에대해 서완화된것은말할필요도없다.”

그럼좋다! 경제학자들은이런신의없는충직성에대해뭐라말하는가? 영국이 자유무역을이론을가지고서요구하는것, 이는교역자들이아니라오로지구매자들 이라는것이충분히확인되었는가?

곡물을먼세로하자고영국의자유무역연맹원들이농부들에게외친다. 그러면 서비스가격이어디서나낮아져서영국밀의생산이덜비싸질것이며, 소작인, 지주 그리고일용노동자는이익을볼것이라고한다. 하지만다시한번말하노니, 이는영 구운동기관보다조금도덜하지않으며, 이를입증해보일가치가있다. 영국에서서 비스의가격인하가아메리카와확해산밀수입때문이라면, 영국밀의생산은어떻 게러시아나아메리카밀의생산에맞서싸울수있을까? 결과가원인을어떻게이길 수있을까? 외국산밀의가격은수요에비례해상승하지않을까? 경쟁에비례해감 소하지않을까? 그것은시장의모든진자운동을따르지않을까? 영국에서밀의생 산비용이아메리카밀의수입이라는사실때문에 10 리터당 3 프랑이감축된다면 아메리카가떠받치는영국생산은아메리카에그가격을처음보다 3 프랑더낮추게 강제할것이다. 하지만영국은결코이런수단으로이득을되찾을수없을것이다. 내 가무슨말을하는가? 영국에서모든가격이인하된다면, 영국상품들의가격인하 는자신들의곡물의우수성을점점더확신할미국인들에게이익을줄것이다. 다시 한번말하노니, 그반대를증명해보라. 아니면당신의말을주워둬라.

블랑키씨는말한다. 우리나라에철, 석탄, 직물, 우리노동의모든원재료를도 입하자. 그러면우리산업들각각에는사탕무설탕이보호관세를벗어난후에그생 산에일어난일이닥칠것이다. 우리나라의산업들은능력이증강될것이다. 블랑키 씨의단언에는불행한일이지만, 사탕무설탕제조자들은이렇게주장했다. 그들이 제조에서획득한진보는해외경쟁덕분이아니라자신들의노력덕분, 자신들의지 능덕분이라고, 이진보는한마디로그들자신의기금에서취했지, 외국인의원조에 서취한것이아니라고말이다. 블랑키씨의체제에서보호는가장절제된것이라도 한나라의산업에해가되어야한다. 정반대로보호덕분에이산업은(이산업을보장 해주는것은이산업자신이다) 번영한다. 이처럼몇년안에아마산업이프랑스에서 9 만방추에서 15 만방추로상승한것을보아왔다. 그리고상무부에따르면, 6 만 방추가이순간에주문되어있다. 달리어떻게그럴까? 프랑스의설탕산업을앤틸 리스의설탕산업과연합시키지않고, 어떻게해외산업의저가가격이우리산업의전 진을도와줄수있을까? 한사탕무설탕제조업자는그반대를내게말할것이며, 나 는이를믿지않을것이다. 블랑키씨는해외경쟁이자극제로작용해우리산업을더 창의적으로만들것이라고, 따라서우리의제조업을더성과높게만들것이라고단 지이해했는가? 이경우에해외산물의도입은정부의손사이에있는상업적인공안 수단일뿐이다. 그렇게실토하라. 그러면그대의大義는이해가된다. 더이상논쟁 거리는없다.

이번에내가무역의절대적자유를가지고서는민족들간의균형이파괴되고, 균 형이없이는진정한부는없으니그러한자유는민족적이고개인적인독점의유지와 함께부의원인이아닐뿐만아니라가격상승과부족의원인이라는것을증명했다면, 경제학자들은내게이런새로운세심한측면을제기한명예를돌려줄것인가?

프랑스는자신의포도주에대해어떠한경쟁도두려워하지않는다. 온세상이프 랑스포도주를요구한다. 이런관계속에서보르도사람들, 상파뉴사람들, 부르고

뉴사람들은무역의자유로이익을볼수밖에없다. 나는심지어우리의포도주산업이나라인구의 5 분의 1 을차지해장벽의완전철폐가우리에게는이득의거대한모습으로등장한다는데도동의한다. 그러므로포도원주인들은만족할것이다. 자유무역은그들의포도주가가격을낮추는효과를가지지않을것이다. 정반대로이는그값을올리는일일것이다. 그러나경작자들과산업인들은이가격인상에대해무슨생각을할것인가? 인당소비는이미파리에서는 95 리터에지나지않는데, 60 리터로내려갈것이다. 포도주를커피마시듯이작은커피잔과작은유리컵으로마실것이다. 이는프랑스인들에게는끔찍할것이다. 우리포도주는우리와의같은도양에서성장하는바로그때문에다른사람들보다우리에게더필요하다. 해외판로는이포도주를우리에게서빼앗아갈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우리에게제공하는보상은무엇인가? 확실히이는영국과벨기에의포도주는아니다. 더실질적이지만그에못지않게인민에게접근가능한포르투갈, 헝가리, 알리칸테나마데이라산포도주도아니고, 홀란드의맥주도아니고, 알프스오두막의요구르트도아니다. 우리는무얼마실것인가? 우리는철, 석탄, 철물류, 천, 수정, 육류를더저렴한값에가지게될것이라고경제학자들이말한다. 이는말하자면한편으로, 우리가포도주를더는가지지못할것이고, 다른한편으로입증된것처럼우리가외국인의산물에경쟁할수있는것은외국인의산물로써가아니니일자리를더는가지지못하리라것이다.

상호적으로영국의일꾼들은자신들을위해빵, 포도주, 그리고다른식품들의가격을낮추어갈것이지만, 동시에영국이생산하는석탄, 철그리고모든물건들의가격은상승할것이다. 그리고해외경쟁에직면해자신들의일자리보전하기위해그들이언제나새로운임금삭감을겪어야할것이므로그들에게는프랑스의일꾼들에게닥친것과같은일이닥칠것이다. 그들은자신들의산물도우리의산물도구매할수없을것이다. 그러나자유에서누가이익을보았을것인가? 독점자들, 오직독점자들, 금리생활자들, 자본의성장으로먹고사는모든이들, 한마디로빈자들을만드는모든자로서이들의카스트는제 1 급품질의토지가소작인에게남겨주는초과분, 가장풍부한광산이광업인에게남겨주는초과분, 가장생산적인개발이산업인에게남겨주는초과분을삼키기에충분히수가많아서노동이더열등한토지에, 그리고더열등한개발사업에도달하는것을자신의소득을포기하지않고는허락할수가없다. 서로맞물린이독점체들의체제를무역의자유라고부르는데, 이안에서생산수단의보유자는일꾼들에게이렇게말하는듯하다. 그대는그대의노동으로내게초과분을남겨줄수있을한에서노동할것이다. 그대는그이상멀리가지않을것이다. 자연은각지대의거주자가우선은그의자연산물로생존하기를원했으며그러고나서는그가잉여의도움으로자기나라가산출하지않는물건들을획득하기를원했다. 반대로독점의구도속에서는노동자는세계적인한량의농노에불과하다. 폴란드의농민은영국의주인을위해파종한다. 포르투갈인, 프랑스인은세상의모든한량을위해서포도주를생산한다. 감히말하자면, 소비는조국에서추

“그들은지주를향해서말하는가? 그럴때그들은스미스는놔두고리카도를취한다. 그들은무역자유가영국의밀가격을외국시장들의가장낮은가격수준으로 낮추는것이아니라반대로외국의밀이영국밀과같은수준이되게상승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임을증명하려고애쓴다. ... 그리고섬나라인대영제국의위치는언제나지주들에게엄청난특권, 독점을보장해줄것이다.”

“소작인들을설득하기위해서는이렇게말한다. 관세폐지동맹은그들에맞서서싸움을거는것이아니다. 왜냐하면독점으로이익을보는것은그들이아니기때문이다. 굶주린자들에게조세를징수하는것은지주다. 밀에대한관세를폐지하는날, 의회는소작료에서비례적인감축을명령할것이다. ... 다른한편, 역학力學은우리가그중인이되는진보보다더경이로운진보를할시점에있다. 머지않아들판의노동은생명이없는원동기들에의해수행될것이다. 모든경우에물품가격의감축은임금도낮출수있게해줄것이다. 그리고모든산물은소작인들에게로되돌아올것이다. ...”[비달 (Vidal), 「독립평론」, 1846 년 1 월 25 일]

하지만담화들이하는것이무엇이며, 말들이무슨의미를가지는가? 판단할필요가있는것은사실들이다. 적힌사실보다사실이더정확하다 (potius quod gestum, quam quod scriptum). 영국인민은그영토에서나는천연산물에제조산물의비례적인양이더해지고거기에자국산물과의교환으로외부에서공급된산물의새로운비례분부터가아니라철물류와직물의배타적판매에의한세계의착취덕분에, 자국의고객층의돈말고다른돈을되돌려주는일없이, 생존의발판위에놓였다. 영국에서자본주의외임금제도를과도하게발달시켜영국을파멸시킨것은이런비정상적착취다. 그리고그러한것이영국이관세를방패로삼아자국의똥리지않는자본의감웃을입고세계에감염시키려노력하는해악이다.

레옹포세씨가인용한영국의한노동자는연회에서이렇게말했다. “작년 (1844) 에우리는 6 억 3000 만프랑가치에해당하는실과직물을수출했다. 이것이바로우리나라번영의주된원천이되는것이다. 그러나외국시장들이우리에게달하면서임금하락이생겨난다. ... 방적공들중에만명이내수를위해서일하는반면다섯명이외국인을위해일한다. 그리고직조공들은외부시장으로가는천을여섯필짜는반면내수용으로는단한필만짜다.”

이것이바로하나의예로정식화된것으로서대영제국의경제다. 영국의인구가 2200 만명이라고가정하자. 영국의직조공을고용하는데는외국인 1 억 3200 만명이필요하고, 그방적공에게일을주는데는외국인 1 억 1000 만명이필요하며, 영국의모든산업들에대해이와같은비율이된다. 이는더이상교역이아니라극단적인노예살이이면서극단적인독재다. 관세폐지동맹원들의모든장광설은비례의법칙, 단일사회에대해서만이아니라인류전체에대해서도참인법칙, 정치경제학의지고의법칙의이명백한위배에부딪쳐부서진다.

의문의여지없이영국노동자들의산물이오로지외부에서들여온물품으로변제되고그들에의해소비된다면, 교역이영국상인들과다른민족들사이에서만이 아니라그들과그들의임금수령자들사이에서도노동의법칙에순응한다면, 마친

장에서 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 단한 사람의 생각이 이와 같이 모든 정부들의 생각이 되었다는 것, 영국을 그 산업에서만 아니라 그 금수적인 장치들에서도 모방하면서 그들은 어디서나 국내 제조업자들에게 자국 시장을 남겨준다는 것, 그래서 영국은 나폴레옹이 갇힌 한이보편적 봉쇄로 인하여 그때보다 심각하게 위협을 당해 판로를 잃게 될 각오를 하고, 이제 장벽의 철폐를 소리 높여 요구하고, 절대적 무역 자유를 위한 과잉한 회담들을 소집하고, 이전술적 변화에 따라 관세 폐지 운동에 속적 관계인 민족들을 끌어들이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허스키슨 (Huskisson) 씨는 자치공동체회의 chambre des communes 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호 체제는 영국에게는 시효가 끝난 발명품이다.” 동발씨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다. 그 특허장은 공유 재산으로 들어왔다. 그 이유 때문에 영국은 이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영국이 그것에 어느 때보다 더 집착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준다고 덧붙여 말한다.

관세 폐지 동맹자들 측에서 우리 경제학자들을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것은 이들이 모든 외국산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폐지를 요구하고 그 반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반대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방문권 le droit de visite 을 상기시킨다. 그 반대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프랑스인, 독일인, 포르투갈인, 에스파냐인, 벨기에인과 러시아인은 어떻게 이런 무사무욕의 증거에 저항할 수 있는가?

관세 폐지 동맹의 변호자인 바스티아씨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그러한 끈질긴 노력, 그러한 진실한 열정, 그러한 생명력, 그러한 행동, 그러한 동기가 단 하나의 목적, 이웃인민들을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는 목적만을 가진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겠는가? 나는 관세 폐지 동맹의 웅변가들의 담화를 300 편도 더 읽어 보았다. 나는 이 강력한 협회에서 발간한 엄청난 수의 신문과 팸플릿을 읽어 보았는데, 그러한 정을 정당화해 줄 한 마디 말도, 무역 자유를 위해서는 영국인민에게 세계를 착취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한 마디 말도 보지 못했다.”

바스티아씨가 잘못 읽었거나 이해를 못한 듯하다. 왜냐하면 관세 폐지 동맹의 발행물에서 관세 폐지 동맹원들의 수사 修辭에 관해 바스티아씨가 못지않게 유식한 경제학자가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 신문들, 이 팸플릿들은 미묘한 사항들과 궤변으로 오염되어 있다. 그것들은 많은 경우 같은 사람이 쓴 글인데 도서로 뻔뻔스럽게 모순을 이룬다.”

“관세 폐지 동맹원들은 인민을 향해 말할 때는 애덤스 미스를 근거로 삼아 말한다. 밀의 자유로운 수입은 빵값을 낮출 것이며, 동시에 제조된 산물들의 상당한 수요에 따라서 노동 임금도 높일 것이다.”

“자본가들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생필품 가격이 하락은 임금을 낮추고, 판로의 크기에 비례해 우리의 이익을 상승시킬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게다가 임금 수령자들이 요구가 많은 이들로부터 난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계와 증기력의 도움으로 그들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방된다. 노동 자체는 금리의 제한을 받아 협소하고 노예적인 특기로 전락해 더 이상 조국이 없다.

이처럼 교환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구매하는 민족들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우리는 또한 그것이 판매하는 민족들도 파멸시킨다는 것을 발견한다. 균형이 일단 깨지고 나면 전복이 모든 부분에서 느껴진다. 빈곤은 그것을 초래한 자에게 반발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정복을 하는 군대는 결국 승리 중에 소멸하듯이, 무역에서 가장 강한 인민은 결국 가장 심하게 착취를 당하고 만다. 이상한 반전이다! 세는 우리에게 자유 교역에서 일체의 이득은 가장 많은 것을 받는 자에게 속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실, 이득을 가장 적은 손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세는 완전히 옳았다. 소비하지 않고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이 고통을 덜 겪는 것이다. 모든 것을 상실한 후에 모든 것을 재탈환할 노동이 남는 만큼 더욱더 그렇다.

영국은 오래 전부터 바스티아씨가 지목한 그 A 나라다. 그 나라만으로도 세계에 다수의 물건을, 그것도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조달할 능력이 있는 나라다. 여러 민족들의 불신을 도처에서 감싸는 관세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자기 우수성의 결실을 거두었다. 여러 왕국들을 고갈 시켰고 땅의 금을 자기에게 끌어왔다. 그러나 동시에 빈곤이 지구상의 모든 지점들로부터 영국을 찾아왔다. 못들어 보던 재산의 창출, 모든 소지주들의 갈취, 민족의 3분의 2를 빈곤한 카스트로 전환시킨 것, 이야말로 산업적 정복이 영국에 가져다 준 것이다. 터무니없는 이론으로 여러 정신들에 변화를 주고, 악의 원인을 옹호하려고 노력해도 소용 없었다. 강력한 음모가 자유주의의 탈을 쓰고 경합하는 민족들을 파멸적인 혼돈으로 끌어들이려 해도 소용 없었다. 사실이 여러 사회에 교훈을 주도록 남아 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에 대한 일체의 침해가 희생자와 동시에 강도에게도 타격을 준다고 확신하는 데는 이 사실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더 말할 것인가? 자유 독점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원칙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데 대한 만족도가 지지 않으며, 그들의 이론은 그 자체의 부정에 다르다.

곡물에 대한 조세에 있어서 영국이 우리의 대혁명의 길에 들어가서 모든 영지의 매각을 명하고, 오늘날 눈에 안 띄는 소수의 손에 집중된 토지가 영국 농업 인구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400만 ~ 500만 주민들 사이에 나누어진다고 가정해 보자. 확실히 이 절차는 이미 몇몇 경제학자들이 예견한 일로 서한 동안 영국을 그 끔찍한 빈곤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데 최상일 것이며, 강제 노동 수용소에 대한 행복 한 보완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혁명적 조치가 시행되어 영국 시장이 계속 과거처럼 외부로부터 곡물 및 다른 농산물에 열려 있게 된다면, 새로운 지주들은 자신들의 땅 위에서 살며 거기서 빵, 보리, 육류, 낙농품, 달걀과 채소를 얻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생산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같은 성질의 물품 생산보다 비싸게 먹히니 교역을 할 수가 없거나 손해를 보면서 교역을 하게 되어, 내가 말하노니 이 지주들은 옛날 우리 농민들처럼 아무 것도 구매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하도록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장벽들은 폐지될 것이다. 그러나 농촌 인구는 욕심을 억제해 마

치장벽들이 폐지되지 않은 듯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보호체제의 제 1 원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많은 통찰이 필요하지 않다.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수치와 웅변으로 써이 원인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생각하는지 말할 수 있을까?

화폐의 본질이 오택되어, 인상과 인하가 돈에 미치는 효과와 상품들에 미치는 효과와 아무런 분별도 없이 비견되고 독점이 산물들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도외시되고, 이기주의가 어디서나 사회적이익을 대체하고, 한량들의 연대가 노동자들의 연대의 폐허 위에 세워지고, 원칙 안에 모순이 있고, 무엇보다도 민족성이 특권의 제단 위에서 희생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자유무역이론에 관해 저항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부각시킨 것이다.

내가 아주 귀한 경제학자들에게 이 유토피아에 대한 반응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나 자신이 극히 이상한 환각에 빠진 것이든지, 아니면 불편부당한 독자가 지금 아주 한 줄을 느낀 것이 분명해서 적들의 논리가 그에게 아주 역겹게, 철학도 진정한 과학도 결여된 것으로 여겨져서 내가 겨우 그 이름들과 본문들을 인용하기를 감행하는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내 비평이 증거의 힘으로 결국 불손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공개적 토론으로, 어엿한 자존심을 자극하기보다는 나는 천 번이라도 그들을 회한의 정적 속에 방치해 두기를 택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게다가 의견은 별로 명쾌하지 못하고 이름들의 권위는 우리가운데 아주 강력해서 내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다. 행이라고 보든바, 그의 도는 탁월하지만 그 수단들은 모순적이고 불길하다고 내가 주장한 학파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치열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를 용서할 것이다.

마티외 드 돔발 (Mathieu de Dombasles) 씨는 우리의 최상급 농부들 중 한 사람으로서 보호체제의 철학적 이유를 아주 잘 간파했다. 그리고 그는 독창성과 재치로 가득 찬 양식 良識을 가지고 서장 바티스트 세의 이론에 맞서 싸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상품들이 원시 사회에서처럼 단순히 교환된다면 세씨는 완전히 옳을 것이다. 그러나 상품들은 쌍방에서 판매되고 구매되어 왔다. 잔돈으로 쓰이는 금과 은이 있었고, 화폐가 차액을 변제했다. 그러면 저 가격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우리의 구매에 대해 농산물이나 공산물이 아니라 귀금속으로 지불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차 우리의 토지 재산을 매각하며, 정말로 외국의 속국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지불할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과 은은 재매입하거나 담보를 잡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번째 입장은 상업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두 번째 입장이 남으며 이는 본래적으로 말해서 노예 신분이다.

뒤누아예 씨가 도덕 및 정치 과학 아카데미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부개일어난 것은 정치 경제학 자체의 관념에서 끌어낸 이 반증 불가능한 연역에 반대해서다.

그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다. “돔발 씨는 지성이 가장 강하고 가장 건전한 분들에게 속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순수한 성품을 가진 분들 중 한 분으로서 다르구 (d'Argout) 씨와 마찬가지로 보호체제의 추종자다. 그러나 무오류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재능을 타고난 이들이 오택을 받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

초 1 킬로그램에 마찬가지 액수 등을 징수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을 아주 웃겼다. 모든 것이 남세 물품이라고, 건강한 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치료 수단까지도 관세를 납부한다고 그는 썼다. ... 블랑키 씨는 우리가 먹는 육류에까지,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에까지, 우리를 감싸는 직물류에까지 무엇을 더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왜 무언가가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물건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므로 과장하고 말장난을 하는 대신, 끝으로 어떻게 국가가 조세 없이 유지될 것인지, 어떻게 인민이 노동 없이 생존할 것인지를 말하라!

바닷가에서 이용되는 철물과 철판의 경우에, 샤를 뒤팡 씨가 보조금 체제를 농상업 일반 협의회에서 강조한 것에 대해 「주르날 데 제코노미스트」 지는 1846년 1월호에서 이렇게 성찰했다. “샤를 뒤팡 씨는 항해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프랑스에 충분히 많은 공장이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거기 있지 않다. 이 공장들은 벨기에나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저가 가격에 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려고 하는가?”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한 민족이 노동해서 생존하느냐 아니면 돈을 빌려서 죽느냐 하는 것이 상관 없는 일인가? 프랑스가 외국인에게서 낮은 가격에 취할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기를 포기해야 한다면, 우월한 산업들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외면하는 고객층을 다시 우리에게로 불러오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은 아주 오택을 받는다. 끝까지 추진된 금 지원 칙은 뒤사르 (Dussard) 씨가 말했듯이 외국 산품을 심지어 무조건 거부하는 데까지 간다. 하지만 반금 지원 칙은 다른 한편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서도 민족의 노동을 그치게 하는 데까지 간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그 대안을 넘어 오르는 대신에 그 대안을 수용하고 선택한다! 얼마나 가엾은 과학인가!

경제학자들의 아우성을 가장 많이 일으킨 정책적 조치는 영국에 맞서 나폴레옹이 착수한 대륙 봉쇄였다. 이전 쟁기 계 안에 있던 거대하면서 사소한 것은 치워 버리자. 이 기계는 의문의 여지 없이 방진 方陣 수비와 같은 정확성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지만, 그 원리에서는 완벽하게 설계된 것이다. 이는 내 생각으로는 나폴레옹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증거들 중 하나다. “그 행동은 내게 유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고 그는 세인트 헬레나에서 말했다. 그만큼 그는 자기 영광의 이 불멸의 명목에 가치를 부여했으며, 그만큼 그는 워털루에서 패전하면서도 적의 가슴을 단칼에 찔러 죽였다는 생각으로 유배지에서 위안을 삼기를 좋아했다.

「주르날 데 제코노미스트」 (1844년 10월) 는 나폴레옹을 정당화해주는 모든 이유들을 모은 후에, 그 행동이 나폴레옹에게 해가 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단을 발견했다. 그 잡지가 제시한 동기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나는 아무 것도 변경하지 않고 과장하지도 않는다.

대륙 봉쇄는 유럽이 그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것, 그 황제의 통치 시기에서부터 대륙의 산업적 움직임이 비롯된다는 것, 이 새로운 사태 전개에 따라 프랑스, 에스파냐, 독일, 러시아가 영국의 물품 조달 없이 지내기를 배웠다는 것, 나폴레옹이 상상한 배제 체제에 맞서 봉기한 후에 그 나라는 저마다 자신의 입

구매하고 결코 판매하지 않는 것이 망하는 가장 손쉬운 길이라면 많이 구매하고 적게 판매하는 것은 덜 급속하지만 마찬가지로 확실한 멸망의 인자임을 모호하게 감지했다. 그들의 배타적 체제, 혹은 더 제대로 말해 노동에 대한 강제 권체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에 나는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다른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에 관해 블랑키씨가 가진 그 모든 창의적 지략에 호소한다.

두 가지가 에스파냐 왕들에게 결여되었다. 금을 맡은 민족에게 일을 시키는 비밀, 이는 금을 만드는 비밀보다 아마 더 알 수 없는 비밀이다. 그리고 종교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나라에서의 종교적 관용의 정신이다. 풍요로운 가톨릭 국가 에스파냐는 그 나라의 종교와 예배 행위 때문에 미리 저주를 받았다. 카를 5 세와 펠리페 2 세가 세운 장벽들은 백성들의 게으름으로 뒤집어져서 외국국의 침입에 약한 저항만을 했으며, 두 세기가 못되어 영웅들의 인민이라 사리요 (Lazarillo)<sup>6</sup>의 인민으로 변해 있었다.

블랑키씨는 에스파냐가 교역 때문이 아니라 그 무행동 때문에, 장벽들의 폐지 때문이 아니라 장벽들을 세움에 도 불구하고 가난해진다고 말할 것인가? 블랑키씨는 아주 훌륭하고 아주 열띤 웅변으로 별일도 아닌 것들을 부각시킬 줄 아는 자로서 이런 반론을 제기할 능력이 있다. 장벽을 세우는 것을 예방하는 일은 내 의무다.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은 제대로 말해서 파괴라는 점, 따라서 비생산적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것은 파괴라는 점, 이런 목적으로 자신의 상속지를 걸고 돈을 빌리는 것은 파괴라는 점, 손해를 보고 일하는 것은 파괴라는 점,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것은 파괴라는 점에 사람들은 동의한다. 그러나 내놓을 수 있는 상품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손해를 보면서 일하는 것이고, 자신의 상속 재산을 먹어버리는 것이며, 자신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재산이 밀수입으로 달아나든, 정식 계약으로 달아나든 무슨 상관인가? 세관이든, 장벽들이든 무슨 상관인가? 문제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해주는 상품, 노동과 교역을 통해서만 되돌아 오게 할 수 있는 상품을 양도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매각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에스파냐가 카를 5 세와 펠리페 2 세 치세에 자신의 금을 외국 산물과의 교역에서 내주는 데 국한한 경우 행한 일을, 우리가 2 억 프랑의 외국 상품을 1 억 6000 만 프랑의 국내 상품 더하기 4000 만 프랑의 우리 화폐와 교환할 경우에 우리 자신이 행하는 일과 동일시할 권리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원리들에 관해 너무 다급한 처지에 있을 때, 세세한 사항들에 몰두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에 관해서 툭말장난을 하고, 인용문들로 우리를 현혹한다. 그들은 세관의 남용, 그 번거로움, 그 기분상함을 고발한다. 그들은 언제나 독점의 더 큰 자유로 결론을 맺기 위해 독점과 분리 불가능한 악을 부각시킨다. 블랑키씨는 한 저명한 기자에게 무궁무진한 재치로 대답해, 세관이 거머리 한 마리에 5 상팀을 징수하고, 독사 한 마리에 15 상팀, 기나나무 1 파운드에 25 상팀, 감

<sup>6</sup> 1554년에 출간된 소설 『라사리요 데 토르메스의 삶, 그의 행운과 불운』의 주인공으로, 생존을 위해 비루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역자주

별로 의원답지 못한 이런 암시는 왜 하는가? 판로 이론은 일체의 이성이 바보가 되고 싶지 않으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는 것을 그리도 확신하는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이 이론의 확실성은 도덕 및 정치 과학 아카데미에서 확보되며, 아카데미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 당신은 왜 이런 말을 덧붙이지 않는가? 아카데미 밖에는 음모꾼, 말쑥꾼, 혐오스럽고 뒤누아예씨에게 회초리를 맞을, 그리고 레이보씨가 쓸 전기의 주인공이 될 공산주의자들 밖에 없다고.

이에 대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공산주의적 유토피아의 침입에 대한 산업적 자유의 수호자인 도덕 및 정치 과학 아카데미에, 어떻게 다르구씨와 동발씨가 바로 공동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역 자유에 반대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 질문할 것이다. 장벽을 낮추는 것은 노동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적어도 개발자들의 공동체다. 이는 벌써 평등의 시작이다. 그런데 다르구씨와 동발씨는 한 목소리로 자급자족 *chacun chez soi, chacun pour soi* 을 외친다. 우리는 근심이 충분히 많으며, 아무와도 약탈의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동발씨는 이런 고찰도 한다. “이익들의 분화로 부터 다양한 민족들 간에 실질적인 사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연이은 사회들의 단순한 군집밖에 없고, 그것밖에 있을 수 없다. ... 민족들의 특수 이익 바깥에 인류의 일반 이익이란 무엇인가?”

명시적인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인민들 간 공동체는 불가능하므로 인민들 간 관계는 불가능하다고 동발씨는 말한다. 그러면 다르구씨, 동발씨가 본능적으로 그런 것처럼 원리상 공동체의 적인 도덕 및 정치 과학 아카데미는 어떻게 자유 무역의 문제에서 공동체의 편을 들었는가?

뒤누아예씨는 말한다. “그 저명한 농학자는 그 체계를 사실로 바라보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이를 이론 상으로 수호하기에 착수했다.”

이론과 실천, 실천과 이론. 이야말로 뒤누아예씨가 하는 모든 추론의 중심 사항들이다. 이는 그의 구세주 *deus ex machina* 다. 날마다 경제 원리들은 사실에 입각해 반박된다. 실천. 원리들 덕분에 정사실은 파멸적이다. 이론. 실천에 의거해 이론을 끊임없이 변명하고, 이론에 의거해 실천을 변명하면서 결국에는 상식을 무죄로 선언하고, 심판관은 언제나 스스로 옳다고 확신한다.

그러면 어떤 이론에서 뒤누아예씨는 금수 문제에 관해 지주의 실천을 저버리고 공동체의 편임을 선언하도록 유도되었는가?

그는 말한다. “사실상, 무역 관계들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시대부터 어디서나 외국 상품의 금지로 시작했다.”

우선 이 사실을 기록하자. 그리고 사실과 대립되는 이론을 옹호 하면서 자신의 공산주의적 정당화를 유토피아로 시작한다는 것에 주목하자. 뭐라고! 도덕 및 정치 과학 아카데미는 연합에 관련된 논문 공모전에 관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응모 경쟁자들이 역사를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평했으며, 이 보고서의 30 분의 1 에 해당 하는 저자인 뒤누아예씨는 역사에 반대되는 원리를 옹호하는데 일생을 바친다! 그러므로 아카데미 회원이 되면서 부터 역사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

“해외경쟁을 물리치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허락되는 일도 없었어 보였다. 인구의 탐욕적 본능, 정부의 세무 이익, 민족적 민첩성, 두려움, 증오, 질투, 복수와 보복에 대한 애호, 모든 종류의 악감정들이 이 수단으로 물고간 것 같다. 가장 악한 대의들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를 발견하는데 언제나 능숙한 인간 정신의 자연적 명민함이 이 수단의 사용에 결국 색칠을 할 줄 알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발씨처럼 취급된 인류다. 동발씨는 스스로 보호주의자라고 선언한다. 이 사람은 아카데미의 견책을 받을 만한 타락한 천재다. 인류는 자유무역을 관해 뒤누아에씨와 다르게 생각했다. 악당, 해적, 위조자의 종족으로서 간접세와 세관의 모든 해악을 입을 만한 종족이 인류다.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바라며 말하건대, 뒤누아에씨는 우리의 악의에너 수많은 위력을 부여하며, 동시에 우리의 정신에너 수많은 명예를 돌린다. 나는 우리의 기구들 중 어느 하나도 악한 생각을 타고났다고 믿지 않으며, 절대적 오류를 타고났다고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명민함의 절정은 사회적 결의에 대한 핑계를 사후적으로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기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보편적 찬성이 각 인민의 들레에 보장의 원을 그린 것은 잘못된 일인가? 뒤누아에씨가 그의 용어로 그 문제를 이렇게 제시했다면, 물론 그는 더 신중하게 답변했을 것이다.

“그 체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 이는 논박 불가능하다. 나아가 일이 더 규칙적이고 더 합당 한 흐름을 취했다 라면 그랬을 것 보다 확실히 무한히 덜한 진보이고, 특히 덜 행복하게 지도된 진보나 그것이 일정한 진보를, 심지어 상당한 진보를 막지 않았다는 것, 이는 더구나 논박될 수 없다.”

그를 아주 나쁜 패거리에 넣어서 유감이지만, 뒤누아에씨는 꼭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처럼 사교한다. 물론 문명은 전진했다고, 물론 종교와 재산권은 나쁜 존재 이유가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하지만 왕도, 사제도 없고, 가족의 기초 재산권도 없다면, 타락과 육체에 맞서 싸울 필요성에 대한 무서운 교리가 없다면 우리의 진보는 얼마나 더 빨랐을까! ... 부질없는 후회다. 금지 조치들은 그들 시대에 재산권, 왕정 그리고 종교와 같이 국가들의 치안의 필요 불가결한 구성 부분이며, 그 국가들의 번영의 조건 중 하나다. 그러므로 문제는 금지 조치들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들의 운명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가장 통속적인 이 비판의 원리를 오히려 한다면 도덕 및 정치, 역사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뒤누아에씨는 그 다음으로 보호 체제에서 창조된 이익들의 갈라짐을 고발한다. 이는 사물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익들의 갈라짐은 보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 조건의 불평등과 독점 에서 유래한다. 그것은 세관 설치의 원인이 지 결과 가 아니다. 인민들이 서로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유념하기 전에는 폴란드의 밀 평야 처럼, 보르도 그리고 부르그뉴의 포도밭 처럼 영국에 석탄과 철분을 함유한 침전물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일정한 관련 속에서, 그리고 일정한 시기에 자극제로 작용한 다른 특권들의 예대로 금지 조치들은 장려책일 수 있었다고, 그것들은 자본가들의 망설임을 극복하

세관은 민족과 민족 사이에 무역이 확립되는 곳 어디 서나 존재한다. 야만 민족들도 문명인들과 마찬가지로 세관을 실행한다. 세관은 역사에서 산업과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노동 분업, 기계, 독점, 경쟁, 조세, 신용 등과 같은 명목으로 사회의 구성원들 중 하나다. 나는 그것이 언제나 지속되어야 한다고, 적어도 그것의 현재 형태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생겨나게 한 원인이 언제나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거기에는 사회가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리고 이해결의 밖에는 여러 사회들에게만 과상호적 빈곤만이 있게 되는 이 율 배반이 있다고 단언한다. 정부는 명령을 내려 그 관세선들을 폐지할 수 있다. 이 폐지는 원리 상으로 무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그 기관 器官 들 일 뿐인 속명에 무의미가 있는가? 노동과 자본의 적대가 그것으로 누그러질 것인가? 그리고 세습 귀족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쟁이 일반화 될 것이므로, 풍요와 빈곤의 전파가 더 이상 장애물을 만나지 않을 것이므로, 신하 신분의 사슬이 그물처럼 세상에, 그리고 단일한 후원 아래 군집한 모든 민족들에 던져질 것이므로 산업적 연합의 문제가 풀렸고 사회적 균형의 법칙이 발견 되었다고 감히 말할 것인가?

몇 가지 를 더 고찰하고, 벌써 너무 길어진 이 단락을 끝 맺겠다.

우리의 모든 경제 학자들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교역의 절대 자유의 가장 열렬한 촉진자 인 블랑키씨는 그의 책 『정치 경제 학사 Historie de l'économie politique』에서, 에스파냐의 왕들 인 카를 5 세와 펠리페 2 세가 정책의 기준으로서 무역 균형의 체제와 그 필수 불가결한 보조물 인 세관을 처음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후세의 저주를 받게 했다. 확실히 비행 非行 으로 카를 5 세와 펠리페 2 세가 티베리우스와 도미티아누스 보다 나빴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에스파냐 전체와 유럽 전체를 공범으로 두었다고 시인 할 필요가 있다. 후세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범죄를 경감 해야 하는 상황 인 것이다. 이 군주들이 그들 세기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배타적 민족 성 체제에서 그렇게 크게 잘못 했는가? 블랑키씨가 우리에게 대답 할 것이다.

그는 어떻게 에스파냐가 신 세계의 발견 이 그 나라에 가져다 준 엄청난 부덕분에 옛 산업에서 휴식을 취 하면서 우선은 무어인 들을 추방 하고, 다음으로 유대인 들을 추방 하고, 마지막으로 그 음란 함과 게으름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멸망 했고, 모든 민족들 중 에서 가장 궁핍 한 민족 이 되 었는 지를 보여 주기 위해 한 장 章 을 할애 한다. 언제나 구매 를 하고, 결코 판매 를 하지 않아서 에스파냐 는 그 운명을 피 할 수 없었다. 블랑키씨는 이를 말 하고 이를 증명 한다. 이는 그의 저작 에서 아름다운 부분 들 중 하나다. 카를 5 세와 펠리페 2 세가 어떤 수단 으로 에스파냐 에 일 하도록 강제 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에스파냐의 진정한 수호신, 조국의 아버지 들 이 되었 으리 라는 것은 진실 이 아닌 가? 유감 스럽 게 도 카를 5 세와 펠리페 2 세 는 사회 주의자 도 경제 학자 도 아니 었다. 그들은 20 개의 조직 및 개혁 체 계 를 결 고 가 용 한 것 으로 가 지 고 있 지 않 았 으며, 자본 이 에스파냐 에서 빠져 나 가는 것 이 그리 되 도 돌아 오 게 하는 것 의 4 승 을 한 것 만큼 더 옳 다 고 믿 지 않 도록 했다. 그 시대 의 모든 사람 들 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척 도 재 가 빠져 나 가는 것 이 민족 의 부 가 흘 러 나 가는 것 과 대 등 하 다 는 것, 언제나

대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그들 고객층이 프랑스 사회의 보호 아래서 획득된 것처럼 그의 개인적 소비도 그들의 판로일부를 이룬다. 그리고 이 연대성은 회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하기를 그치기 위해서는 정부를 제거하고, 행정, 군대, 법무 그리고 모든 그 부속물들을 제거하고 산업인들을 그들의 자연상태에 다시 처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민족 자본을 지탱 불가능한 무역에서 상실하고 싶지 않다면, 외국인에 맞서 집단을 이루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담의 공동체이며, 프랑스 사회의 경제적 조건이다. 나는 새로이 시민적 연대성의 이원리에 누구든 반대론을 펴보라고 도전한다.

그러므로 국내 세관들이 프랑스에서 폐지되었을 때, 민족적 독점체들의 중앙 집중의 주된 결과들 중 하나였던, 그리고 86 개도 départements 사이에서 무역 자유의 이득을 크게 감소시키는 빈곤의 증대는 논외로 하고, 바로 이 도들 사이에는 조세의 비례적 배분과 부담의 공동체가 있었다. 그래서 부유한 지방들은 더 납부하고, 가난한 지방들은 덜 납부해 지방들 간에 일정한 상쇄가 행해진 것이다. 여느 때 처럼 부의 증대와 빈곤의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모든 것이 호혜적이었다.

지구상의 민족들 간에는, 그 민족들이 여러 정부들로 나누어지고 비연대적인 동안에는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물론 군주들에게 전쟁을 걸고, 왕조들을 전복하고, 여러 정부들을 도시 집행관의 기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들의 구분을 보편적 왕정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도를 지니지 않는다. 그들은 인민들을 연합시키는 비밀, 즉 경제적 모순들을 해결하고자 본을 노동에 종속시키는 비밀을 훔쳐서 모른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을 결합할 것이 아니라면 무역의 자유는 민족들에 대한, 노동 계급에 대한 모욕에 불과하다. 누군가가 내게 설득력 있는 이유를 들어 이 문제에서 나머지 모든 문제에서 처럼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호가 필요성에 의해 명령되고, 전쟁 상태에 의해, 즉 여러 독점들의 보편적인 정예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을 본 후에 세관의 문제를 토론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 이 문제가 여전히 정치 경제학과 법에 기초를 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발견한다. 세관의 존재는 민족 독립에, 그리고 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에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의 징수, 그리고 시민적 연대성의 원리에 긴밀히 연결된다.

그러므로 나는 어째서 보호를 요구하는 산업인들을 단지 이기주의와 독점으로 고발할 것인가?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자들은 그럼 그렇게 순수한가? 어떤 이들이 그 나라를 착취하고 약탈하는 동안에 나는 나라를 팔아먹는 것만 생각하는 자들을 구원자로 간주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내 입장에서 친영파 관세 폐지론자들을 반역행위로 고발할 이유는 조금도 없을까? 이와 관련해서 나는 동발씨의 명예로운 한마디를 환기할 것인데, 이는 내게 가슴 위의 남영이와 같이 남아 있었으며 나는 그 신비를 결코 간파하지 못했다. 그는 슬픔을 품고 이렇게 적었다. “나는 어느 프랑스인이 이 주제에 관련된 질문 몇 가지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는지, 혹은 아예 온전한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

고 이들이 유익하지만 운에 맡기는 사업들에 뛰어 드는 것을 도왔다 고 가정해도 된다.”

금지 조치들처럼 산업에 대한 자극제로 작용한, 그렇지만 금지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이론이 정죄하는 이 다른 특권들이 무엇인지를 질문해도 되는가? 어디서나 원래 우리는 독점을 만나게 된다고 러시아는 우리에게 말한다. 물건들의 자연 가격을 변화시키는 것, 그럼에도 무언의 합의에 의해 해공고화되고 일반화되면서 재산권이 된 것은 이 독점이다. 그런데 재산권이 그 정당한 이유를 가졌다는 것은 논박 불가능하다. 나아가 그것이 일정한 진보를 막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자극제로 작용했다는 것은 더구나 논박을 당할 수 없다. 그러나 재산권이 일정 지점까지는 사실로 설명이 가능하면서 원리가 자질대적 원칙으로 단언되는 것, 이야말로 내가 비밀 관세를 범하지 않으려면 금지 조치의 모든 적에게 금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뒤누아예씨는 공산주의자다.

뒤누아예씨는 다음으로 그의 적들의 대열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려고 한다.

“최근 기회에 민족적 사업의 이름으로, 그리고 민족적 사업의 이익을 위해 벨기에와의 무역 연맹에 격렬히 반대해 싸우는 일정 수의 산업들이 수많은 다른 이들에 의해 논박되고, 고발되고, 봉변을 당했다.”

거기에 무슨 놀랄 것이 있는가? 이는 자유와 보호의 이율배반이 비극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각당파가 불관용과 자기 이익에서 나온 악의를 가지고 등장해 전투, 고통, 상해와 추문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한 북새통 속에서 경제학자들의 역할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에게 어떻게 자신들이 일간이었고 모순의 희생자였는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독점에 대항한 독점, 도둑들에 대항한 도둑들! 과학이 하는 평화의 말을 사람들이 듣기를 거절한다면, 과학은 물러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학자들은 일꾼의 권리가 문제일 때는 내부 독점의 옹호자로서, 한량 소비가 문제일 때는 해외 독점의 변론자로서 이익들의 투쟁 이론을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 이성을 말하는 대신에 그들은 불을 지폈고 금수론자들의 저주를 끌어들이고 그들을 더 완고하게 만드는 데만 성공했을 뿐이다. 그들의 행실은 이 상황에서 진정한 학자의 자격이 없었으며, 그들이 비난을 기고한 신문들은 그들의 믿을 수 없는 맹목성의 증거로 남을 것이다.

뒤누아예씨는 말한다. “정부가 민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 외국인들에게 해적대적임을 드러낸다.”

이는 인도주의적 국수주의다. 이는 마치 유명한 격언, ‘저마다 자기 집에서, 저마다 자기를 위해’가 전쟁선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의 견이 부분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사회의 일들에서 어떻게 역이는지를 보라! 우리 경제학자들이 영국의 자유, 우리의 발에 채워진 사슬을 벗기면서 우리의 팔을 자르는 이 자유를 품에 안는 것은 그 재상이 영국의 연합을 품에 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수호하는 그 순간이다. ... 사적이익도 민족적이익도 욕하지 말자. 특히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 말자. 나는 뒤누아예씨가 이에 충격을 받지 않은 것에 놀랐는데, 동발씨는 각별히 실천적인 이성을 가지고, 간단한 양식 良識이 민족들에게 일

찌감치자들이 소비하는 물건을 외국인에게서 구매하기보다 생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외국상품들의 초과분의 거절은 아주 간단히 자신의 소득과 더불어 자신의 기금을 먹여치우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혼란이 초래된 환상,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한다는 환상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는, 상업적 봉건제의 이감염에 대한 유일한 보장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상업적 봉건제는 영국에서 태어난 후에 콜레라처럼 유럽에 침투하려는 위협을 가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이론은 구별도 유보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에는 토지와 노동수단의 독점과 더불어 시장의 공유, 즉 귀족 집단의 결탁, 노동자들의 일반적 예측, 빈곤의 보편성이 필요하다.

뒤누아에씨는 보호가 인민들 간 경쟁의 행복한 효과를 멈추며, 이로써 산업의 일반적 진보에 장애물을 놓는다고 불평한다.

나는 벌써 이와 관련하여, 금수의 문제가 상업적 공급 안의 문제이며, 언제 금수를 확대해야 하는지, 언제 이를 제한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라고 대답했다. 게다가 금수 체제가 인민들 간에 경쟁을 제거해 문명으로 부터 그 행복한 효과를 빼앗는다면, 이는 동시에 문명을 그 파괴적 효과로부터 보전해 준다는 것이 명확하다. 상책이 있다.

끝으로 뒤누아에씨는 보호주의의 요새에 자신의 논리의 해자를 두른 후에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한다. 다음은 우선 그가 그의 적들의 이유를 어떻게 고려하는가 하는 것이다.

“같은 나라의 내부에서 모든 광산들은 똑같이 이용이 하게 개발될 수 없다. 모든 경작자들은 똑같이 비옥한 토양을 경작하지 못한다. 모든 공장이 똑같이 좋은 위치를 잡은 것이 아니다. 모든 공장이 무료의 자연 동력을, 혹은 같은 출력의 동력을 활용하지 않는다. 모든 공장이 똑같이 똑똑하고 잘 훈련된 인구를 고용하지 않는다. 조건들이 극히 동일한 곳에서 새로운 양식, 새로운 절차, 완벽화 그 어느 것이든 수많은 원인이 유발적으로 조건들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아주 좋다. 음, 그렇다면! 이론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의 상쇄의 체계는 무엇인가? 이 다양한 생산수단의 소유가 벌써 독점이니 이론은 이 모든 독점들에 대해 창조된 불평등을 평준화하는데 어떻게 착수할 것인가? 당신의 동료 바스티아씨의 표현에 따라 교역을 하러 오는 이 모든 생산자들 간에 그들 각자에 의해 그의 산물이 넘어진 노동은 어떻게 지불을 받는 유일한 물건일 것인가? 어느 날 파리에서 오렌지를 생산하는 자가 어떻게 같은 때에 포르투갈에서 오렌지 상자를 생산하는 자만큼 부유할 것인가?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대중의 양식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금수 체제의 정당화 논리는 아니라 해도 그것의 원리이고, 구실이다.

이론들의 공허함! 뒤누아에씨는 물러선다. 힘껏 어려움을 이겨내는 대신 그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려 한다. 그리고 그의 이성 은 경제학자들이 상상한 가장 강력한 것임을 우리는 당연히 시인할 필요가 있다. 세관이 모든 나라들의 내

부에서, 프랑스, 독일, 아메리카 등에서 폐지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상태가 좋았다. 모든 인민들 간에,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을 것인가?

아! 당신은 왜냐고 묻는다! 즉, 당신은 그만큼 기정사실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 당신이 그 완성을 촉발하는 사실들의 의미에 견찰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이론은 모호한 유비의에 준한다! 당신은 일어난 일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당신은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자의 확신을 가지고서 말한다. 당신은 왜 내부처럼 외부에서도 세관을 폐지하지 않을지를 묻는다! 나는 당신의 질문에 세마디 말로 대답하려고 한다. 인민들 간에는 독점들의 공동체도, 부담의 공동체도 없다는 것, 각 나라는 그 품 안에서 독점과 조세들에 의해 발달한 빈곤을, 외국인의 독점과 조세 조치에 의거해 더 악화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가진다는 것이다.

나는 민족들 간에 그들 각각의 영토에 대한 독점에서 오는 불평등에 관해 충분히 말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조세의 관점에서 자유무역의 문제를 고려하는데 국한할 것이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생겨나는 모든 유익한 서비스는 이 산물이 공적 부담들 중에 지원하는 비례적 몫을 나타내는 일정 조세의 부담을 지고서 소비에도 달한다. 이처럼 생테텐에서 스트라스부르로 보내진 석탄 1 톤은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30 프랑의 비용이 든다. 이 30 프랑 중에서 4 프랑은 수운세라 불리는 직접세를 나타내며, 이는 생테텐에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데 석탄 산물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4 프랑의 금액은 석탄 1 톤이 지불하는 모든 부담을 나타내지 않으며, 내가 석탄의 간접세라고 부를 것으로서 또한 계산에 넣는 것이 타당 다른 비용들도 있다. 실제로 26 프랑은 스트라스부르에 제공된 석탄의 총가액의 필수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광산을 개발하는 자본가에게 전액이 지불되는 이자에서부터 배를 목적지까지 이끄는 역마 담당자와 수운업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임금들은 또 분해되어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노동의 가격인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에서 각 노동자의 납부 몫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분해를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추진하면 아마도 발견하게 될 것은 30 프랑에 팔리는 1 톤의 석탄이 그 상업적 가치의 약 3분의 1, 즉 10 프랑의 세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그나라가 생산자들에게 이례적인 비용을 부담시킨 후에 그들의 산물을 그나라에 아무 지불도 하지 않은 외국 생산자들의 산물보다 우선 구입하는 것이 정당한가? 나는 아니라고 답할 테면 해보라고 누구에게든 도전한다.

프로이센의 석탄을 25 프랑에 가질 수 있을 스트라스부르의 소비자가 30 프랑을 지불하는 프랑스에서 조달할 의무를 지거나 프로이센의 석탄을 획득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정당한가?

이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다. 스트라스부르의 소비자는 프랑스에 속하는가? 그는 프랑스인 자격에 부속하는 권리를 누리는가? 그 자신은 프랑스를 위해서 그리고 프랑스의 보호 밑에서 생산하는가? ... 그러므로 그는 그의 모든 동포들과 연

다는것, 모든남용적이고무질서한소비는고통과후회를초래한다는것을이해하는사람, 소유권이이사람손에서저사람손으로넘어가면서소유권자가자신에게불충하면곧바로그를죽이는식으로, 소유권자를배려하지않으면서자신의법칙을완수한다는것을아는사람, 이사람은자기를소비자로만생각하고정의만을열망한다면, 소유권을바라지도않고아쉬워하지도않는것이라고나는말한다.

로마사회를망치고이탈리아에서는사람이없어지게한것은야만인들보다도지대의잘못된사용탓이훨씬더크다. 중세에귀족층의소유상실을가져온것은이남용이며, 신용이그다음으로그수단이었다. 매일수많은파멸을일으키고끊임없이이사람에서저사람에게소유권을이전하는것역시소유권의똑같은우둔함이다. 이와같이그진화의첫순간부터지대의이론은피할수없는수학적확실성을얻는다. 그법칙은강압적이어서이를인식할줄모르는이에게는불행이돌아간다! 상속물로서의지대는이성과권리에근거를둔다. 그것은파괴하는데신경쓸필요가있는특권이결코아니다. 그것은보편적으로만드는것이중요한기능이다. 사람들이지대에대해비난하는소비의남용에그것은수단일뿐인데, 이소비의남용을지대의탓으로돌릴수는없다. 그것은사람의자유지에서나오며, 도덕가의꾸짖음을받게된다. 사회경제학은결코이를다루지않는다. 여기서무질서는사람을고발한다. 제도는나무랄데없다.

우리는문제의두번째면을다룬다.

지대가소유권의보수라면, 이는경작에대한부당징수다. 왜냐하면노동없이보수를주는것이어서생산, 분배및교환에관한사회경제학의모든원리를위반하기때문이다. 지대의기원은소유권의기원처럼말하자면경제외적이다. 그것은심리적, 도덕적고려사항들에자리잡으며, 이런고려사항들은부의생산에는아주멀찍이만관계있고심지어부의이론을뒤엎기까지한다. 이는소유권자에게이롭게다른세계로놓인다리이며, 소작인은이다리위로그를따라가는것이금지된다. 소유권자는반신半神이다. 소작인은언제나사람일뿐이다.

진정한남용, 소유권에내재하는모순이있는것은우리가뒤에가서입증할것처럼거기, 이논리적대립안이다. 그러나우리가배운것처럼이모순은다음의화해의예고다. 그리고이는우리가역사의한두시기앞을내다보면서, 그리고지대의궁극적목적지를직접인식시키면서증명하려고하는것이다.

교환가치가쓸모있는가치와역방향인것처럼, 영속적소득에대해서사회가소유권자에게행한경매낙찰에서주인의이익은차지인의이익과반대방향이니, 소유권자에게지불할지대는일련의진자운동에의해확정되며이모두는균형공식으로해소되어야한다. 그러므로그제도의상위관점에서차지인이소유권자에게값아야할것은무엇인가? 지대의몹은얼마여야하는가? 왜냐하면, 지대의문제는언제나새로운형태를뎛가치의문제일뿐임이벌써명백하기때문이다.

리카도의이론은이문제에대답을한다.

사회가시작할때, 땅의새로운존재인사람이그의앞에엄청나게큰숲밖에다하지못했고, 땅이광활했고, 산업이태어나기시작하던때, 지대는영광이었을수

그러나산업가의예를따라서, 그기술이라고는금화를중이돈으로교환하고중이돈을금화로교환하는것뿐인행가는자기자신이보증을서서자기자신의집을근거로중이돈을제공할수있다. 즉명목적인것이든그것을제시하는보유자에게상환가능한것이든물표를제공할수있다. 실제로은행가는그상업기금이 100 만프랑수준이어서 100 만프랑을 40 일이라는평균만기의어음과교환한후에 3 주가지나고나면금고에 1 상팀도없게, 따라서새로운할인을하기가물질적으로불가능하게될수있다. 그런데이은행가가척도재로복귀시킬확신을가지는증서이상을현금대신에보유하지않으므로그는이복귀를근거로환어음을발급할수있다. 즉사람들이통속적으로은행권이라고부르는것을창조할수있다. 이은행권은상거래자에게진짜화폐처럼수용될것이며, 그렇기는해도모든환어음처럼상환의약속이될뿐일것이다.

이처럼은행권은여전히신용의처음시대에창조된, 그러나말하자면제공을한환어음이다. 이는환어음들로인수된가치들에대해서명이된환어음이다. 바로거기서허구가시작된다. 게다가이조작보다더논리적인것도없다. 쉽게알수있듯이 이는예치와할인의조합된두원리로부터결과로나온다. 그렇기는하지만, 그가장정당한결과들안에서추구된은행권은기괴한남용, 신용자체의뒤집힘을가져온다.

실제로, 그리고이론만을참조할때, 모든상업어음은은행가가직업상에측해야하는그런우연한사태들을제외하고는요구불이거나만기형으로상환되어야하니, 은행가가그증서들의현금복귀와자신의은행권이제시되는것을일치시키는배려를한다는조건, 몰릴경우에는일반적상황에대해유예를규정하는배려를한다는조건에서는, 자신에대해서사람들이할인할가치물을가져오는만큼의환어음을발행하고은행권을발행하는것을아무것도막지않는다는것은명확하다. 수학적으로이이론은흡잡을데없다. 은행업자들의환어음은, 내가감히이런인쇄업자의용어를사용한다면, 그가할인한어음의이면인쇄 retirement 일뿐이니말이다. 그래서우리는이극단적결과에도달하며, 은행의상거래는무일푼으로행해질수있다. 이를위해서는시스템디씨가섬세하게언급한것처럼상인이은행가에게신용을요구하는대신에은행가자신에게신용을주는것으로충분하다. 더있다. 은행이돈대신에할인하러오는상인들에게자신의돈주머니에대해발급된환어음을건네주게하는원리는곧장화폐의부정, 상거래로부터의화폐의축출을가져온다. 그후로는한기업의이익이어떨것인지상상해보라. 주권자로부터주어지는특권에힘입어한제국의모든상거래를포괄할수있고, 극히작은금조각도보유하지않으면서금의위력을중화시키고, 모든가치물들의환업무를수행하며, 수십억프랑의자본에서순이익을끌어낼수있는기업의이익말이다!

우리생각에따르면, 그러한것이저명한로가그의왕립은행아이디어에까지도달한추론의계열이었다. 이는처음에는금고에아무것도가지지않고오로지(관념에실체를부여하기위해) 미시시피강의거대한개발에만의존해상업어음전체를할인했던것같고, 그은행이현금에대한교환으로내놓을유가증권들을통해서만

큰이나척도재를점점대체해나온그은행의은행권유통을통해서국가의금고들안에있는왕국의금속으로된모든부를끌어들였던것같다. 로는그의관념들의논리에이끌려서, 그리고국가의상위보장에의한자기체계의도덕성을확신해서, 실질적담보를제공하지않고도신용을줄능력이그에게는일상적인명상의주제였는데, 자신의어리석은관념을진지하게받아들였는가, 아니면그를대담한사기꾼으로만보아서는안되는가? 이야말로놀라운모험의단순한해설을하면서내가감히판단하지않을것이다. 확실한것은오늘날경제학자들이정치경제학의철학을이해하지못하는것처럼로도, 그시대의누구도신용이론을철저히보유하지못했다는것이다. 그리고무언가가로에게핑계가될수있다면, 이는선의善意다. 경제학자들이거기서아무것도보지못하면서자유무역, 무한경쟁, 누진적이고공정한조세, 신용조직등그들의유평피아를, 즉독점의긍정에의한독점의부정을추구하는경탄할만한경솔함이다.

로의체계에관해서는어떠하든지간에, 신용이론에서돈의사용이돈의불사용을가져온다는것이과학에알려진것임은변함없다. 그리고한유명한경제학자데이비드리카도가화폐가완전히폐지된다른유통및할인체계를만든것도한이이론을응용한것이다. 그러므로이와같이우리는출발점에서예금은행, 즉상인에게현금을배송하기위해은행이그가보유한현금을요구하는것으로시작하는체계를가진다. 이는돈을전혀보유하지않는자누구에게나신용의무효를함의하는것이다. 터무니없다. 이론의다른편에서우리는유통은행, 즉돈을만들기위해서는그가치가전무한정사각형종이만있으면충분하다는결론을내는체계를가진다. 터무니없다.

이터무니없음은화폐의원리로, 가치들의구성이론으로거슬러올라가유통은행의원리를모든종류의산물에적용해일반화한다면더욱부각된다. 실제로은행가가환어음을자신에대해발행하고그런식으로허구적인, 그러나실질적인것으로받아들여지는가치를상거래에넣는것처럼, 모든산업기업가, 모든상인은공모자의도움으로그가결코하지않은인도분에대해, 그가보유하지도않은산물에대해환어음을발행할수있다. 그래서이메커니즘을가지고서은행권들은상업수요에따라증식해국가는산물을가지지도못하고 1 상팀의가치도보유하지못한채수천억의거래의움직임에도달할것이다. 할인은행의원리의이적용은상업에서는빈번한데, 거기서는이를유통이라는단어로지칭한다. 이는부적절한용어이지만, 허구를가지고돈을만들면서최후의수단에호소하는사람의입장을특정짓는데사용하기로사람들이동의한용어다. 공화정에서국정화폐의반복된발행은다른것이아니었다.

그런데이메커니즘의모순을이해했다기보다는어렵뜻이느끼고약한세기가지난후부터도수많은다른정치경제학의폐단처럼이를극단적인것들간의타협 말고다른방법으로는여전히치유할줄을몰랐다.

수를받는인부는지대 10 만파운드를받는부유한소유권자의마차가지나가는것을보면서, 그런사람은자기보다백배나행복하다고생각하지않을수없다. 지대는노동없이살아가고모든향락거리를조달할수단이라고만본다. 그리고자신의모든소득을지출하는것을일종의사회적의무로삼는명사들의도덕성을칭찬한다. 이로부터인민의한사람에게는부도덕할뿐아니라부당한질투와중요의근원, 타락과낙담의적극적원인이생긴다.

그러나사물을높은데서, 그리고그확고부동한진실에서바라보는자에게는, 지대수령자는조직되어가는사회에서사회적경제의수호자, 지대에의해형성된자본의관리인일뿐이다. 모든노동이초과분, 일부는생산자의행복을증진하는데로향하고일부는생산적기금을개량하는데로향할초과분을남겨야한다는이론에따르면, 자본은자연이우리에게준소유지를노동을통해확장한것이라고정의할수있다. 개발이용이가능한토지는좁은한계안에포함된다. 지구전체는벌써우리가왜인지모르지않지만그안에감혀있는우리처럼여겨진다. 일정량의보급품과물자가우리에게주어지며, 이를통해우리는좁은거주지를꾸미고, 확장하고, 덩치고, 청소한다. 모든자본형성은그러므로우리에게는터전의정복과등가다. 그런데소유권자는탐험대장으로서모험에서이익을보는첫번째사람이다. 결과적으로, 그리고보유자들의단견, 느슨함혹은방탕함에의해생겨나는자본의엄청난손실에도불구하고, 그런일들이일어나는것은이래서다. 지대의대다수는새로운개발이용에쓰인다. 프랑스는운하와철도에 20 억프랑을지출하려고한다. 이는마치그영토에도도반쪽을더하는것과도같다. 어디서이런경이로운확장이나오는가? 집단적저축, 지대에서나온다.

그소득이수령권자에의해비생산적으로소비되는, 그러나다수의평균적재산들앞에서미미해지는거대한재산들의몇가지예를인용하는것은아무쓸모도없다. 그추문이노동을격분체하고빈곤층을웅성거리게하지만그에대한차별은기대되는경우가드문이에들은이론을확인해준다. 그임무를오해하면서단지자기재산의관리에한몫하는일없이이를파괴하는것만을위해사는소유권자는자신의태만을머지않아참회한다. 저축을전혀하지않으므로곧는차입을하고, 빚을지고, 소유권을잃고, 때가오면빈곤에빠진다. 모욕당한섭리는결국잔인한방식으로보복한다. 나는재산들이생겨나기도하고없어지기도하는것을보았다. 그리고나는언제나소유권을취득하는것만큼이나거의마찬가지로어려운것이그것을보전하는노고라는것, 이보전은절제와절약을내포한다는것, 결국소유권자, 선량한관리자, 현명한회계의운명은, 소득이동등하다면동일한선견지명과질서의정신을가질노동자의운명보다결코위에있지않다는것을관찰했다. 지대의전액소비와소유권의보전은서로배타적인것들이다. 보전을하려면소유권자는저축하고자본화하고확장하지않을수없다. 즉, 노동에더많은공간과자유를제공하지않을수없다. 달리말하면, 그가노동으로부터산물로받은것을자본으로돌려주지않을수없다. 입법자의예상으로는소유권자는동정을받을만하지도질투를받을만하지도않다. 자신을쓸모있게만들줄아는사람, 노동이우리행복의필수적부분을이론

그러면 우선, 지대란 무엇인가?

지대는 이자와 가장 많이 닮았다. 그럼에도 그것은 이자가 노동에서 탄생하고저 축에 의해 축적된 자본에만 붙는 반면에 지대는 노동의 보편적 소재, 모든 가치의 원초적 기저인 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본의 고유성은 이득을 보면서 그것을 재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당이자만 내놓는 것이다. 일체의 이론적 증명 밖에서 이자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이를 충분히 증명해준다. 이와 같이 자본이 희소할 때는, 담보가 가치가 없고 보증도 없을 때는, 이자는 영속적이고 때로는 이례적인 율로 올라간다. 자본이 풍부해짐에 따라 이자는 감소한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사라질 수 없으므로, 돈의 대여가 모든 위험은 자본가의 것이 고 이득은 차입자의 것이 단 순 교환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일 정 율에도 달한 이자는 감소하기를 중단하고 변형된다. 영속적인 소득으로부터 그것은 웃돈을 가지고서 연불에 의한 상환이 된다. 이때 이자는 이론이 그에 배정하는 역할에다 시들어간다.

그러므로 자본 혹은 대여된 물건이 소진되거나 밭, 포도주, 돈 등에서 그런 것처럼 사용에 의해 사라지면, 이자는 마지막 연불금과 함께 소멸할 것이다. 반대로 자본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자는 영속할 것이다.

지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자본, 즉 토지에 대해 지불되는 이자다. 그리고 이 자본이 소재와 관련해서 어떠한 중대도 될 수 없고 단지 그 이용과 관련해서 무한한 개선만 가능하므로 대여 mutuum 의 이자 혹은 이득은 자본의 풍부성에 의해 끊임없이 감소하는 경향을 띠는 반면, 지대는 토지 이용의 개선을 가져오는 산업의 완성에 의해 언제나 증가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따라서 결국, 이자는 자본의 중요도에 비례하는 반면, 토지와 관련해서는 소유권은 지대에 의해 평가된다.

본질상 그러한 것이 지대다. 그 도달점과 동기에서 이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제도의 출발점에서 지대는 소유권의 보수다. 이는 소유권자의 새로운 권리가 그에게 부여하는 관리 역할에 대해 소유권자에게 지불되는 수당이다. 나는 사회가 특권 보유자의 조건을 노동과 신용의 이익상 변화시킬 필요성에 관해 본질의 제 1 번에서 말한 것을 재론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경제적 진화의 제 7 기에 허구가 실재를 사라지게 했고, 인간 활동이 허공중에 소실될 위험을 가해 사람을 자연에 더 강력하게 붙잡아 두는 것이 필요해졌다는 것을 환기하는 것으로 그친다. 그런데 지대는 이 새로운 계약의 대가였다. 그것이 없다면 소유권은 명목적 자격, 순전한 명예상의 구분일 뿐일 것이다. 그런데 명예를 가져오는 최고의 이성인 이련 분야의 자존심을 결코 구사하지 않는다. 말이 아니라 실물로서 지불하고 약속을 이행한다. 운명의 예상에서 소유권자는 사회 유기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이행한다. 이는 그가 자기 소유권을 값있게 하도록 호출해내는 자들, 나태하고 질투심 많은 임금 노동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될 자들이 그 주위로 끌려가고 모이고 고품을 맡기는 행동 중심이다.

게다가 기쁘나 뻘지만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은, 노동 계급이 누리는 행복에 비해 연금 생활자들의 행복과 안락에 대한 크나큰 환상이 일반적으로 포여진다. 하루에 30

두 조작 방식<sup>5</sup>이 검해졌으며, 모든 능숙한 솜씨는 중용의 입장을 유지하는데 있다. 이처럼, 은행이 예금은 행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유통 및 할인은 행으로서 기 능하면서 설명 없이 그 금속 가치 물이 상으로 4 분의 1 에서 3 분의 1 까지 은행 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양해되는데, 경제 학자들은 이 율 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거기서 일상 관행은 멈추고 정치 경제 학은 더 멀리 나가 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용의 세 번째 조합, 즉 돈을 매개로 구성되지 않은 가치들의 유통을 마련할 세 번째 양식을 시도 할 일 이 남았다. 왜냐하면, 앞의 두 양식 간의 상반성, 경제 학적 혼합 물이 풀지 못하는 상반성이 존재 하니, 이는 다른 두 항을 조화 시켜 이 것 들을 보완 하고 완성 하는 세 번째 항 이 자리 잡 아야 한다는 신 호 다. 그러한 것은 치 에 슈 코 프 스 키 씨 가 시도 한 작업 이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용의 수단들로서 다음의 것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서로 분리된 것이라고 말한다.

- ① 화폐, 완벽한 담보이지만 신용의 불완전한 신호.
  - ② 은행권, 불완전하거나 오히려 무효인 담보이지만 신용의 완벽한 신호.
- 그 안에서 유통의 매체가 한꺼번에 그리고 동일한 정도로 통과 같은 완벽한 담보, 은행권과 같은 완벽한 신호, 게다가 이익의 법칙에 따라 토지와 자본처럼 생산적이고 따라서 실업을 할 가능성이 없는 조합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조합이 존재한다고 치에 슈코프스키씨는 대답한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아름다운 철학적인 언어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경험으로 이를 입증해 보인다. 이는 그것을 경제 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 줄 두 특질이다. 치에 슈코프스키씨의 관념들에 대한 마찬가지로 신속한 설명에서 나는 이 작가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의 관념들을 그의 관념들에 몇 차례 더 해 그의 체계에 대한 일별을 제공하고 자 할 것이다.

한번 더 원리들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화폐는 모든 상품들 중에 그 가치가 아무리 변적이라도 결국에는 구성되고 평가되는 유일한 상품이다. 귀금속들이 모든 산물에 대한 공통의 평가자 로 이용 되는 것은 귀금속들의 이 특권에 속하는 것이다.

신용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가치들의 구성에도 달하는 것이다. 즉, 그 가치들을 화폐화된 금과 은처럼 모든 지불 시에 수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분배의 문제를 푸는 것, 노동의 범위에 평등을 기초 시키는 것, 그리고 같은 발걸음으로 인류를 개인적 자유와 가능한 연합의 최고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화신이 이 결과에도 달하기 위해서 동화 assimilation 을 통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즉 이어지는 추상들과 허구들을 수단으로 모든 생산된 가치를 돈의 예에 따라 유통 가능하게 만드는 경향을 띠지만 그럼에도 사전적 평가의 조건은 없다. 그 밖에 가치의 물리적으로 손을 바꾸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유통을 위해서는 재산권의 이전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처럼 은행권은 은행에 쌓인 부

<sup>5</sup> 위에서 말한, 예금은 행과 유통은 행의 조작 방식을 말한다.-역자주

의일부분을표현하는한편그보유자에게는이은행권에적당한금액의실제적보유와 동가다. 마찬가지로이처럼판매되는상품의규정되고수용되는가격은환어음의 형태에서화폐가될수있다.

그러므로판매되고양도된가치물을대표하는돈만이아니라, 돈을대표하는은행권만이아니라, 끝으로환어음과기한이정해지고인수를거부할수있는다른채권들만이아니라, 판매되지않은가치물들, 이가치물들의생산에소용되는노동수단들, 토지, 노동자체도유통의이득에어떻게참여하게할지, 어떻게신용에도움 이되게할지를질문하게된다.

그리고다음은치에슈코프스키씨가대답하는것이다.

소득에서만금자본에서도한민족의동산으로이루어진부와부동산으로이루어진부를평가한후, 재산권들을보유자의보장을위해나누어떨어지는부분(물건가치의절반, 3분의1, 혹은4분의1)을공제한다음, 교환가능하고, 조세납부와모든성격의지불에서수용가능한은행권으로만든다면, 이새로운유통매개에서다음을가지게될것이다.

① 완벽한담보, 이담보는은행의지금地金과금궤들처럼존재하는, 실질적이고더이상허구적이아닌자본일것이기때문이다.

② 완벽한신호, 휴대성이뛰어나고, 본원적가치가무일것이기때문이다.

③ 생산적화폐, 생산전체에서자본들의소유권일것이기때문이다.

게다가이은행권들은화폐의사용을폐지하지않을것이다. 이는화폐의사용을 단지줄이고이를부차적역할로제한할것이다. 이는은행권과불환지폐의허구를 그치게하지않을것이지만, 화폐와신용증서는말하자면새로운유가증권창조에 표준으로소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유가증권들은그구성원리들에관해 유기적조합의저높이에서그것들을지배할것이며, 그것들을정당한한계안에잡아둘것이다.

저자는그다음으로이방대한가치물의발권의출발점이되는중앙기관의조직에관해, 부차적은행들의위계에관해, 취해야할예방조치, 따라야할 진행경로, 뒷받침이되는예들에관해길고상세한내용에들어간다. 그는자신의기획에서이를 4분의3은이해하고, 자기멋대로손질해엄청난유명세를타고그저자를망각하게하는어떤허깨비위정자에게동의하는것말고는빠뜨린것이없다.

끝으로이재미난저작에관해모든것을말하자면, 저자의친구이자동포인콩세르바투아르데자르메티에의비교입법교수가토지신용의조직기획을퍼낸출처가바로거기다. 이는높은위상의기획으로, 가장저명하고이문제에서가장유자격한사람들의가입을받은기획이다.

그러므로그와같은것이모든가능한신용기관들의정상적이고완벽한발달이다. 생산된, 그리고생산가능한모든가치물, 투자된모든자본과토지를포괄하는이이론을넘어서는것은아무것도없으니말이다.

첫번째진화: 환어음, 담보부대출, 예금은행.

두번째진화: 유통및할인은행, 신용증서, 불환지폐, 국정지폐.

반혁명적인방향으로추론하는것이다. 이는마치프랑스가불행한아일랜드에대한동정심때문에감자만먹고물만마시도록처분하는것과같다.

“가족을상속에까지이끌라. 곧당신은사회적이익과가족적이익사이에서연이따이는것을볼것이다.”

하지만다시한번말하건대, 이적대관계는어디서오는가? 상속그자체에서인가, 아니면유산의불평등에서인가? 당신은말한다. 상속이있으면유산은오랫동안모든사람에게실재할수없다. 더구나실재가될수없다. 누가당신에게그렇게말했는가? 상속이소유권, 독점, 경쟁처럼아주오랫동안노동에반대하는자본을섬긴후, 자본을반대하는노동에의해방향전환이될수없을것인지당신은어찌아가는가? 하지만당신은경제적모순들을별로잘분별하지못해서, 그모순들과하나씩 싸워서그것들이오늘날내놓는결과들과반대의결과들을낳게만든다는생각은당신에게틀리지않을것이다. 그러기는커녕당신이가진데올로기라고는그모순들을지워버리는경향을떨뿐이다. 사회과학에서사회의원리들을지우고문명에서문명화하는기관들을제거하는것, 그런것이당신의철학이다! 또한민주주의자들은그것을별로자세히들여다보지않을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당신이그들에게 할양보로뵈을것이다. 애국적인론은당신의옹변을축하할것이며, 모든것은가능한민주주의들중가장현명한민주주의에서최선으로갈것이다.

완화된사회주의자들은승계권을공격한다. 그것을평등의보전수단으로삼을 줄모르기때문이다. 푸리에주의자들과생시몽주의자들은가족을공격한다. 그들의체계가사적산업, 내적인삶, 그리고자유교환과양립가능하기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소유권을공격한다. 소유권이어떻게서비스의상호성에의해남용되기를그만둘것인지를모르기때문이다! 무지의고백! 이는개혁종파를자처하는 모든종파의논지로서, 그자체안에그논지의반증을담고있으며그것만으로도우리를인도주의적설교에싫증내게하기에충분하다.

(3) 신용이보증되고, 가족이형성되고, 승계권이모두에게주어지고그래서각자가자기차례에가장이될수있도록, 그리고아무도유산을빼앗기지않도록소유권을분배하는일이남았다. 그러나땅을어떻게분배할까? 어떻게몫을정할까? 유산의평등을어떻게유지할까? 땅은수많은세습재산들에충분할것인가? 아니면그것은경작자에게만남겨지고산업인, 비생산활동자, 상인들은소유권에서배제될것인가? 이전, 보상, 청산은어떻게행해질것인가? 노동은어떻게조정될것인가? 결실등의분배는어떻게? 경제문제들은모두소유권에서재현되는것을우리는안다.

그리고사회는그수효, 깊이, 난점, 엄청난상세내용으로아주질리기만드는이모든질문들에게대 rente 라는단한마디로대답한다.

독자의정신에어떤의문도남기지않도록나는제 1 권에서조세에대한것처럼지대에대해진행해갈것이다. 나는지대의구성에포함된유기적관념이이어지는세계기에따라발달하며그중마지막계기는필연적으로다른두계기와연결되어수평화작업으로해소되는것을보여줄것이다.

은 모든 것을 쓸모있을 때에 생각하기에는 너무 염려를 많이 한다. 게다가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국가라고 부르는 당신은 누구인가? 누가 당신을 보았으며, 당신은 어디 머무는가? 당신의 보장 수단들은 어떤 것들인가? 아야! 당신은 당신의 사제들의 신을 닮았으며, 사람들이 당신에게 땅을 준다는 조건에서 하늘에 약속을 한다. 그러므로 끝으로 지혜와 최고의 능력을 가진 당신을 한번 보여달라!

상속의 폐지는 공화주의적인 모든 백일몽처럼 어디서나 사람의 자유 행동을 권력의 술선적 강제력으로, 실질적 존재를 이성적 존재로, 생명과 자유를 그 슬픈 영향력이 거의 모든 사회적 재앙들의 원인이었던 괴물로 대체하는 것이 허황된 이데올로기에서 나온다.

블랑씨는 계속해서 말한다. “방계 계승의 남용은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이 계승은 폐지될 것이며, 이를 구성하는 가치들은 공유 재산으로 선언될 것이다.”

그러나 방계 계승을 폐지하려면, 소유권을 폐지하는 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나는 당신에게, 이것 없이 방계 계승에 손을 대려면 대보라고도 전한다. 당신은 신탁 유증, 원금회수 포기 조건, 환매, 기부를 옹호할 것인가? 뭐라고! 나는 내 재산을 모든 사람에게, 즉 국가에 남겨 줄 능력을 가질 것이며, 그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없을 것이다! 나에게는 노동하고, 저축하고, 자본을 형성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모든 이에 대해 배타적으로 이를 향유하는 것이 허락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를 처분하고 내게 없는 자연적 가족 신에 입양 가족을 구성해 내 행복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할 때, 나는 아무 주인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자인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일 것인가? 당신은 공산주의자인가? 과감히 말해 보라. 우물쭈물 하지 말라. 당신의 신성, 공화국, 정부 등 당신의 시적인 산문에서의 갈고리와 고바보들을 위한 미끼일 뿐인 위대한 말들의 허구로 우리를 더는 피곤하게 하지 말라.

“오늘 날 자기 자녀들에게 남겨 줄 것을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자, 그가 가난한 자는 가족은 가지는가? 그가 가족을 가진다면, 그가 가족은 우리가 처할 불순한 환경에서 일정한 점까지는 상속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그가 가족을 가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제도들을 정당화하라. 그리고 서둘러라 ... 가족은 특권일 수 없을 것이다. ...”

미사여구로다! 상속은 부자의 가족에서 처럼 가난한 자의 가족에서도 존재한다. 이 신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프롤레타리아는 결정적으로 우리의 대혁명에서 전취戰取了하며, 이를 귀족 계층의 약탈에 대한 남을 수 없는 장벽으로 대치했다. 그와 같이 옛날 로마의 평민은 오랫동안 귀족들에게 만남겨졌던 혼인권 jus connubii, 가족권을 획득해 세습 귀족의 전횡에서 해방되었다. 가난한 자에게 부족한 것은 더 이상 상속이 아니라 유산이다. 상속을 폐지하는 대신 차라리 상속자 부재 déshérence 를 근절하는 데 신경 쓰라. 왜냐하면 “가족은 특권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권이 보통 권리가 아니라 보편 권리인 것, 상속이, 따라서 유산이 그것에 필요한 것은 이때문이다. 상속이 아직 모든 사람에게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상속을 금지하는 것은 물질주의적이고

세 번째 진화: 이자를 낳는 은행권으로 대표되는 모든 자본의 구출.

치에슈코프스키씨의 체계는 앞의 두 개의 필연적 결과인데 그것은 실현될 것인가? 사회를 사로잡는 경제적 동만 참조하자면, 이를 믿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든 관념들은 저당의 개혁에, 그리고 토지 신용의 조직에 속하는데, 다소 비판받는 형태에서 이 체계의 적용을 강제로 끌어 들인다. 치에슈코프스키씨는 진정한 예술가에게 기획의 이상을 그려 주었다. 그는 사회의 모든 궁극적 개혁들이 종속하는 경제 법칙을 묘사한다. 그 이후로 응용의 다채로운 형태들과 세부 사항의 변경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관념은 이론가로서의 자격에서, 그리고 심지어 실현의 경우에는 예언자로서의 자격에서 그의 것이다. 치에슈코프스키씨는 한마디로 사회 조직의 가장 진기한 국면들 중 하나를 이야기했다. 여기서 역사 안에 공백이 존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공백은 과학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는 감각보다 더 정신에 의해서 살아간다. 실행에서 교차를 행하는 것이 사회에 때로 허락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이제 신용의 아주 자생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기도 한 이 경이로운 운동을 성찰해 보자. 그리고 이 섭리적 필연성의 증거를 부각시키려 노력해 보자.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발걸음마다 마주치는 이 두 항, 사람이 그 비자발적 중개자인 것으로 보이는 이 두 항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노니 오지에 씨를 아주 크게 놀라게 하고 인간의 무오류성의 가장 덜 애매한 증거인 이 필연성의 두 항인 것이다.

화폐가 없는 것이 가능했는가? 인간 노동의 모든 산물 간에 다른 것들보다 더 상업적인 가치를 지닌 어떤 산물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를 묻는 각과 같은 질문이다. 금과 은 대신에 사회가 공통의 평가 척도로서 밀, 철, 비단 혹은 가치가 더 큰, 가변성을 지닌, 그리고 유통이 더 어려운 다른 모든 상품을 채택했다면 진보가 다소 늦어졌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나가면서 관찰하기로 하자.

화폐는 일단 발명이 되고 나서 일 반적 탐욕의 대상물,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가장 필요한 물건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척도재의 더 많은 양을 제작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대신에 이를 미루기만 하니, 돈의 척도로서 모든 자본과 산물을 평가한 후에 이것들을 추려내어 돈처럼 유통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용감하게 말하자. 이 모든 것은 불가피했다. 이 모든 것은 운명의 책에 적힌 것처럼 인간의 뇌에 적혔다. 이 순간부터 인류가 따라가는 길은 참된 길이었으며, 인류가 한 작업은 정당화되었다. 한 순간 사회주의가 교회의 입에서 표출되어 경제적 정신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자를 받는 대출을 금지해 사회의 진행을 멈추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이는 섭리 자체에 의한 섭리의 부정과 같았다. 이 교도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보편적이 성에 맞선, 기독교적이 된 보편적 양심의 항의와 같았다. 언제나 로마가 톨릭주의의 기초였던 사회주의는 그때부터 인류가 완벽한 신용 조직을 가지고 서도 총만 한 경쟁을 하면서 전진하지 못한 것처럼 전진하지 못하리라 는 것, 빈곤과 풍요만 각자 나름대로 전진하리라 는 것을 예감했다. 그래서 더 완전한, 덜 이기적인, 그리고 특히 덜 할상적인 법칙을 주장했다. 불행히도 로마와 공의

회들이 인기라는 잘못된 정신에 떠밀려 자본을 엄벌하고 이자를 금지했던 시대에 자유가 정복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 정복이 재산권에 의해, 그리고 따라서 이자에 의해 서만 성취될 수 있었으므로 교회는 자신의 버락을 거두고 그 파문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세기의 질병은 금에 대한 목마름, 즉 신용의 필요다. 이에 무슨 놀라운 것이 있는가? 위선적 도덕, 허기진 문학, 그리고 퇴보적 민주주의가 은행의 지배와 금송아지 숭배에 격렬히 항의해도, 이 똑똑하지 못한 저주들은 관념의 승리의 행진을 비난하는 것뿐이다. 시나이 이래로 금송아지는 인류가 숭배하는 신, 강한 신, 불굴의 신으로서, 모세처럼 산 위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잊는 사색가들 사이에서만 불신자들을 발견한다. 이스라엘은 금더미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아, 너를 종살이에서 구해 낸 하느님이시다’ 하고 외쳤을 때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도 자기 백성이 여전히 금보다 우월한 능력을 인정하기를 원해서, 야훼처럼 그들에게 자유와 부의 창조적 인침, 한마디로 노동을 보여주었을 때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현자가 말하듯,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씨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맡음을 위한 때가 있고 야훼를 위한 때가 있다. 자본을 위한 때가 있고 평등을 위한 때가 있다. 경제적 황폐에서 황금 송배는 노동 송배에 선행해야 했다. 또한 오지에 씨가 아주 쉽게 언급한 것처럼, 신용의 모든 진보는 독재에 대해 거둔 승리다. 마치 자본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자유고도 출된 것처럼 말이다.

환어음, 예금은행, 화폐들의 환전, 이자부대출, 공적차관, 당좌계정, 허구적 척도재, 복리, 그리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부채상각절차는 태고적부터 알려진 듯하다. 배서에 의한 환어음의 전달 가능성, 영속적 공공부채의 창출, 신용의 고압 조합들은 더 근대적인 발명품인 것 같다.<sup>6</sup> 철화폐에서부터 국정지폐, 그리고 정기수령금수령권까지 신용이 표현되는 이 모든 절차는 엄청나게 큰 기계, 그 작동이 세상처럼 오래 단단한 마디, 피누스 foenus, 이자로 정의될 수 있는 기계의 부속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상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없는 것은, 이자부대출의 발명이 자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자체에, 그리고 노예 노동에 속한다는 것이다.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시대에 이자부대출이 검과 광패보다 무서운 공격 및 방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억압받는 기술자들이다. 어디서나 여러 민족을 상대로 내리치기도 하고 낫게도 하며, 잃기도 하고 되살리기도 하는 그 신

<sup>6</sup> 이 모든 것들에 흠미로운 세 부내용을 제공하는 오지에씨는 그가 원이 모두 페니키아라는 것, 그것들이 여러 세기 동안 안전 후에 중세 말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갑자기 재등장시킨 것이 유대 전통이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실토하건대 필연적 관념들의 민족들 간 전수라는 가설들을 별로 즐기지 않는다. 이 필연적 관념들은 이것들을 대표하는 대상물이 생성되자마자 곧 성찰에 의해 포착되는 것이다. 언어, 종교, 산업처럼 신용의 조합들도 그렇다. 민족마다 이웃의 도움 없이 그 자신의 필요의 본성과 정도에 따라 자신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것들을 발달시킨다. 사회의 본질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어느 민족이 건장자권도, 발명의 우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실질이든 허구든, 가족이든 비단이든 조개껍질이든, 철이든 뭐든 화폐들이 금화와 은행권에 대해 가지는 관계는 남근상, 개, 양파 송배가 주피터와 야훼의 숭배에 대해 가지는 것과 같은 관계다. 이는 종교 형태들처럼 여러 민족들의 자생성에서 나오는 선천적인 모든 신용 형태들로서 종교 형태들과 같이 더 지적인 개념과 더 높은 수준의 관념 앞에서 희미해질 것이다.

다. 민주주의자들, 신적인 일들의 위대한 이야기꾼들, 레퀴엠의 위대한 애호가들은 인간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동거와 발생처럼 자연적이지 아닌지 생각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자연은 그들에게는 물질이다. 그들의 말을 믿는다면 인류는 그 성향의 자생성에 복종해 자연으로부터 빚나갔다. 인류를 그리로 다시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자연적 사실로써? 아니다. 민주주의자들은 그렇게 일관적이지 되는데 집착하지 않는다. 협정으로써! 왜냐하면, 민주주의자들이 상속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재산 상속 불능 *aminmorte* 체제보다 더 협정에 따른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가족 문제와 상속 문제를 절대적으로 연결된 문제로 간주하게 한 원인들을 잘 고려할 수 있는가? 현 사회 질서에서 상속은 가족과 분리 불가능함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맞서 싸우는 이 사회 질서의 폐단 안에 있다. 왜냐하면 한 젊은이가 가족을 떠나 세상에 들어간다고 할 경우, 그가 재산 없이, 그리고 그의 재능 말고 다른 추천 사항 없이 세상에 나선다면 온갖 위험들이 그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발걸음마다 그는 장애물을 발견할 것이다. 그의 인생은 영속적이고 무서운 투쟁 중에 소진될 것이다. 그 투쟁에서 그는 아마도 승리할 것이지만 패배할 큰 위험을 무릅쓴다. 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예견해야 할 일이다.”

좋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를 대비해 주기를 그만둔다면, 누가 그를 위해 이를 대비해 줄 것인가? 민주주의자들은 말한다. 이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불멸하는, 전능의, 온전히 선한, 온전히 현명해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이 존재다. 이는 국가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라. 사회를 섬기거나서는 모든 개인이 거기서 자기 능력의 자유로운 사용처, 그리고 집단적 노동의 참여에 들어갈 수단을 발견할 것을 확신하게 하라. 아버지의 선견지명은 이 경우에서 사회적 선견지명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이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아이에게는 가족의 보호가 있어야 하고, 성인에게는 사회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 ...을 바꾸라. ...하도록 하라. 사회의 선견지명으로 아버지의 선견지명을 대체하라! 내가 당신 글을 읽지 않았다면 당신의 공적을 기대했을 것이다. 당신이 아직 개인들의 노동을 국가의 노동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큰 유감이다! 국가가 개인들 대신에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이들을 부양하고, 필요한 것을 마련해 줄 수 없다면 얼마나 큰 재앙인가!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자유노동 그리고 남녀한 쌍의 출산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그리고 상속은 관습적인 일 아닌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오는 이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내가 유언장을 쓸 때는, 단지 내 상속인으로 세운 자들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 나를 위해서도 쓰는 것이다. 내 마지막 의사의 행위는 내가 살기를 중단한 후에도 내 재물을 계속 유할 형태이며, 내가 떠나는 사회 안에 남아 있는 방식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내 존재의 연장이다. 나를 내 자녀들과 결합해 주는 것, 우리들 간에 애착, 공통의 의무를 가져오는 것은 연대의 끈이다. 당신은 내게 당신의 선견지명을 자랑하면서 그대가 나에게 내 재물을 요구한다. 나는 간부층보다는 나 자신을 더 믿는다. 당신

내가무엇을말하는가? 심지어는방계혈족도없다. 시민적우애라는최상의비유에도불구하고은세상사람들이내형제라면내게는더이상형제가없는것이명확하니말이다. 이럴경우에는사람이주위동료들로부터고립된다면자기의쓸쓸한개체성의무게를느낄것이며, 사회가가족들의해체와작업장들의혼동에의해인대와내장을빼앗겨말린미라와비슷하게되어가루로화할것이다.

그러나사회주의는용기를가진다. 그런별것아닌것에놀라지않는다. 순수사회주의가조국없고가족없는인류를원하는것처럼반사회주의자로서상속없는가족을원하는루이블랑씨는『노동의조직』에서이렇게적었다.

“가족은신에게서나오고, 상속은사람들에게서나온다!”

이는물론가족이더낫고상속은더나쁘다는것을입증하는것이아니다. 그러나모든사람들은블랑씨의문체를안다. 신성神性을편드는그의끊임없는주장은히브리어에서고운밀가루빵을신들의빵이라고말하듯이시적인최상급일뿐이다. 이는게다가블랑씨가명확히이해하도록제시하는바다.

“가족은신과같이거룩하고불멸이다. 상속은변화해가는사회, 그리고죽는사람들과동일한비탈길을따라갈운명이다.”

비교, 대조법, 4 구별렬문, 문체의우아함등내가블랑씨에대해분노하는바인상식에정반대인관념말고는부족한것이없다. 상속이필요한것은사람들이죽기때문이고, 사회가변형되기때문이다. 여러세대들을끊임없이힐쓰는운동에그세대들을지탱하는불멸성의원리를대립시킬필요가있는것은, 가족이결코멸망해서안되기때문이다. 가족이끊임없이죽음에의해분할된다면, 매일아침가족이재형성되어야한다면아무것도아버지를자녀에게다시연결해주지않을것이니가족은무엇이되겠는가? 상속에서당신을경악시키는것은나는안다. 당신에따르면상속은불평등을유지하는데에만소용이있다. 그러나불평등은상속에서나오지않는다. 그것은경제적갈등에서나온다. 그것은경제적갈등에서나온다. 상속은사물을발견하는바대로취한다. 평등을창조하라. 그러면상속은당신에게평등을가져다줄것이다.

생시몽주의는상속과가족의연결성을알았다. 이틀다를금했다. 사회주의라고도공산주의라고도감히공언하지않는선진민주주의는상속을가족으로부터, 수단을목적으로부터분리하고, 자신이비웃는정부의절충론과마찬가지로유리한절충론에뛰어들면서천재성을입증했다고믿었다. 블랑씨가그토록아름다운발견에대해스대는것은신기하다.

“사람들은생시몽주의자들에게말했다. ‘상속이없으면가족도없다.’ 그들은대답했다. ‘그래, 좋다. 가족과상속을파괴하자.’ 생시몽주의자들과그들의적들은똑같이반대방향으로틀렸다. 진리는, 가족이어떠한가설에서든파괴될수없는자연적사실인반면상속은사회의진보가사라지게만들수있는사회적협정이라는것이다.”

가족과가족을보호하는상속에서연합에대한장애물을보고, 상속처럼자생적이고보편적인사회적협정이자연적사실이아니라고상상하는자들은모두가틀렸

들린검을겨누기를기다리며대금업으로부터착취당하는것은특권카스트들, 귀족층, 왕실, 성직자계층이다.

“십자군원정의결과로자본, 토지, 그리고노역에업매인사람에게닥친부동성이지체없이사라졌다. 최초의자유로운금화는빌릴수있었던최초의금화였다. 그러나최초의청산금이최소였다면, 생산은이를복리複리로만들었고, 운동이시작되었다. 부를획득하는데노동과지력밖에가진것없는계급은동업조합체제에서무서운단체를결성했다. … 상인들은연맹을결성했다. 그들의군집, 그들의조합들이도시가되었다. 도시들은증가했고반란이유력한세력에따라본다. 그리고독립은언제나처럼봉기의결실이였다. … 해양도시들은국경을열었다. … 연합체는영국, 인도,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덴마크에지점을두었다. 함부르크, 브레멘, 뤼베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은한자(hanssen, 연합) 도시라는이름으로유명했다. 양허를취득하기위해연맹은군주들에게돈을빌려주었고, 그렇게시민권과특권을취득했다. … 그리고불평이제기되면, 연합은자신이발생시킨노는일꾼들의투덜댐, 자신이굶긴민중의빈곤이군주들에게자비를구하도록, 그들나라에서이외국인주인들에게새로운특권, 즉새로운억압수단을제공하면서다시불러들이도록강제할때까지모든상거래를중단시켰고, 항구들을폐쇄했다. 이런상황에서한자연맹앞에서왕들은떨었다. … 끝으로비밀협회들, 돈의프리메이슨회, 연맹의지회에입회하려먼거쳐야하는입회식, 고문拷問, 레반트지역의제노바와베네치아의상사商社들이그랬던것처럼도시들의품안에건설된진정한요새들이있었다.”(오지에, 『공공신용의역사』)

두어마디말로해서, 도시들이공권력을창조했다. 그리고이힘에정기적으로급료를주기위해서도시들은부담금을스스로부과했다. 이는공적수입의기원이였다. 왕들은이혁신을모방하기를서둘렀다. 그리고그들이언제나차입을했으므로공적수입에이어서차입의연속에의해공공부채가지체없이형성되었다. 이처럼우리는신용이노동과농노제의품에서태어나고발달하는것을본다. 그다음으로그것은자유에의해성장하며, 때가되면정복자와군주가된다. 이때국가는우선은자신의비생산적소비를증가시켜점점멸망하기위해, 나중에는자신의소유를증식하기위해, 그리고끝으로새로운봉건제에집착하기위해이를채택한다.

오지에씨는계속해서이렇게말한다. “곧이어왕들은자치공동체들의예를따라돈을가지고전쟁에착수했다. 루이 11 세는돈에대해건전하게생각한최초의왕이다. 그는세르다뉴와루시용백작령을저당잡고아라곤의장(Jean)에게금화30 만냥을대여했다. 그는또한영국의헨리 6 세에게금화 2 만냥을대여하고, 담보로칼레 Calais 시를받았다. … 이처럼황폐화시키는전쟁에뒤들이는것은자본의전쟁이었다.”

“1509 년에루이 12 세는막시밀리아노에게속한베로나의주둔군비용을지불하는책임을맡았다. 그는이금액, 그리고막시밀리아노가아직도그에게서빌릴수있을금액들에대한담보로베로나의두성채와발레지오광장을그에게넘겨야한다고요구했다. … 그런데, 선한왕루이가그도시가그에게속해야한다는조건에

서주둔군비용을지불한다면, 우리는막시밀리아노황제가이차입에서얻는것이 자기사람들을빌려주는것이아니라면무엇인지묻는다.”

그시대의역사가들이돈없는막시밀리아노라고별명을붙인바로그막시밀리아노는브뤼주에서, 이빛진군주가백성들에게끊임없이부과한조세에의해것이겨진플랑드르의정부를포기하게될때까지이도시의부르주아들에의해약국에서활동안간혀있었다. 끝으로우리는교황레오 10 세와그의예를따른성직자집단 전체가교회들의패물, 성기聖器, 성인들의유골을그것도유대인들에게저당잡히는것을보았다. 이는옛날에페리클레스가라케데모니아사람들과전쟁하던때에미네르바에게서황금망토와보석들을빌리는것을본것과도같다.

1789 년의혁명은무엇이었나? 자본의회수다. 귀족층과성직자계층의특권들은사회적자본의대부분을양도불가능하고분리불가능한것으로만들었다. 그리고한꺼번에그청산과유통화를명한명령은진정한농지법이였다. 게다가혁명의목표, 실질적이고실토편목표는이것말고다른것이아니었고다른것일수도없었다. 뒤를이어서생겨난이모든공화주의적이고제국주의적인소문, 이에대해서는하나의기억밖에남은것이없는데이를잘증명해주었다. 그리고그러한것은여전히우리가눈으로볼때정치경제학으로대표되는자본과사회주의로대표되는노동간에벌어진투쟁의쟁점일것이다. 나는단지오늘날정반대의모든외관에도불구하고노동이옛날보다사뭇더나은부분을가진다는점을고찰할것이다. 하지만그이유를말할순간은아직오지않았다.

제 3 신분이다른신분들에대해가한대금업에의해일반적해방에주어진강력한충동과별개로, 신대륙발견으로유럽에던져진금속의영향, 유통은행, 그리고합자회사의영향을잊지말자. 학문, 예술, 산업의진보등부르주아들의고유의업적을더해보라. 그러면당신은 1789 년에시에예스 (Sieyès) 가세상에대고제 3 신분이전부이고성직자계층과귀족층은아무것도아니라고확언하게되면서, 귀족들의우두머리이자교회의장자인전제군주가어떻게한평민의이선언에법의힘을부여하는것이필요했는지를이해하게될것이다.

그에대해의문을품는것은더이상허용되지않는다. 신용, 즉노동과진자운동하는가치들을일종의생산적통화로만들고결과적으로가장절대적인자유가마련해줄수없는이판로를국내에열어주는조합들의총체인신용은노동해방, 집단적부의증대, 개인적행복의가장능동적인원리들중하나다.

그리고인류의천재성이창조한생산, 교환, 분배, 실질적연대의여러수단들을성찰해볼때, 모든것이잘되어간다고, 사회는프롤레타리아를위해충분한일을했다고, 가난한이들이존재한다면그잘못은그들탓일뿐이라고아는이들의낙관주의에덜놀라게된다. 그리고우리는사회주의의불평이조금의근거라도갖는지를스스로의문시하기시작한다.

독자들께서는이요점정리에서잠시나를따라와주기바란다.

개인적자유는보장된다. 노동자는주인이그의저축을나무라하는것을더는두려워하지않는다. 각자는자신의노동과자신의근로의산물을자유로이처분한다. 정

로부터, 모든인간제도들중가장놀라운것으로부터곧바로상상할수없는기적에의해소유권, 공동의상속지를개인주권들로나누는일이생겨난다.

살림, 이야말로그러므로모든여성에게는경제질서에서재화들중가장바람직한것이다. 소유권, 작업장, 자영노동, 이야말로여성과함께모든남성이가장많이바라는것이다. 사랑과결혼, 노동과살림, 소유권과가정생활, 독자끼서잘알수있게여기서이말을감히보충해주면좋겠다. 이모든말들은등가이고, 이모든관념은서로에게호소하며철학자에게는하나의체계전체를게시해주는것처럼미래의가족을이룰사람들을위해행복의장기적전망을창조해준다.

이모두에관한인류는만장일치를이룬다. 그렇지만사회주의는예외다. 사회주의만이이관념들의물결중에서인류의만장일치에항거한다. 사회주의는살림이너무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이를폐지하기를원한다. 가족이조국에손해를끼치므로이를폐지하기를원한다. 소유권이국가에손해를끼치므로이를폐지하기를원한다. 사회주의는여성의역할을변화시키기를원한다. 사회가여성에게확립해준여왕으로부터코티토여신의무녀를만들고자한다. 나는이와관련해서사회주의자들의관념에대한직접토론에들어가지않을것이다. 사회주의는연합에관해서처럼결혼에관해서아무런관념도가지지않는다. 그리고그의모든비판은아주공공연한무지의실토, 권위도위상도없는논거제시의종류로끝난다.

실제로사회주의자들이알려진수단들의도움으로각살림에안락함과심지어사치를제공하는것이가능하다고믿는다면살림에반대해들고일어나지않으리라는것, 그들이시민적감정과가정적애착을일치시킬수있다면가족을정죄하지않으리라는것, 그들이아무것도아닌것인고동의부만이아니라완전히다른것인보편적부를일구는비밀을지닌다면그들은시민들이공동생활과마찬가지로개별생활도하도록나눌것이고살림에관한논쟁으로공중을피곤하게하지않으리라는것은명백하지않은가? 사회주의자들의실토로부터결혼, 가족, 소유권은행복에강력하게기여하는것이다. 그들이해야할유일한비난은그들이이것들을어떻게공공선과일치시킬지를모른다는것이다. 나는묻는다. 이것이바로진지한논거제시인가하고. 마치그들이개별적무지로부터인간제도들의궁극적발전에만대하는결론을내릴수있는것처럼! 마치입법자의목적각자에게결혼, 가족, 소유권을 실현해주는것이아니고폐지하는것도아닌것처럼말이다!

내의견을너무확장하지않기위해나는그문제를그주요측면들중하나인상속 측면에서다루는것으로만족할것이다. 우리는그다음으로시인이말하는것처럼일반화할것이다. 하나로부터모두를배워라 (Ab uno disce omnes).

상속은살림의희망이다. 가족의버팀벽이고소유권의마지막이다. 상속이없다면소유권은말뿐이다. 여성의역할은수수께끼가된다. 공동의작업장에서남성일꾼들과여성일꾼들이무슨소용인가? 플라톤이본성을교정해그의공화국에서사라지게하려고했던양성의이구별은왜있는가? 경제적이원성의형상인간 존재의이이중성, 살림과가족밖에서는진정한중복인이것을어떻게해명할것인가? ... 상속없이남편도부인도더이상없을뿐아니라조상들도자손들도없다.

조하고 실패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덕을 지탱하고, 투기 거래가 야기하는 끊임없는 해체에 제동을 거는 것은 여전히 소유권이다. 상인, 산업가, 자본가 자신은 언제나 소유권을 염두에 둔다. 모두가 경쟁과 독점의 피로에서 쉬기를 열망하는 것은 소유권 안에서다.

(2) 그러나 소유권의 심오한 의미가 발견되는 것은 특히 가족 안에서다. 가족과 소유권은 서로에게 기대며 그들을 하나로 묶는 관계에 의해서만 양측 다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면서 병진한다.

소유권과 함께 가족의 역할이 시작된다. 살림은 사람들이 이를 우스운 것으로만 들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아주 이상적인 것인데, 이 살림이 여성의 왕국이고, 가족의 기념비다. 살림을 제거해 보라. 부부 사이의 끌림의 중심인이 가정의 돌을 빼내 보라. 남녀 쌍둥이만 남고 가족은 더 이상 없다. 대도시에서 노동계급이 점점 주거의 불안정, 살림의 쓸모없음, 소유권의 결여로 내연관계와 방탕한 생활로 추락하는 것을 보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으며,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해도 소용 없다. 아무것도 없이 약혼하는 것보다 약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래서 노동계급은 야비함에서 할 운명이다. 이는 중세에 영주의 초야권이 표현한 것이고, 로마인들이 프롤레타리아의 결혼을 금지한 일이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주위 사회와 관련해 살림살이는 소유권의 기초이자 요새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살림은 처녀가 꿈꾸는 첫 번째 것이다. 그토록 끌림에 대해 말하면서 살림을 폐지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여성의 본능의 이런 타락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나로서는 생각하면 할수록 가족과 살림 밖에서는 여성의 운명을 더욱 고려할 수가 없다. 유녀 遊女나 살림살이 하는 여자나 (여종 말고 살림을 하는 여자 말이다). 나는 그 중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양자택일이 무슨 그렇게 굴욕적인 면을 가지는가? 살림의 운영, 소비와 저축에 관련된 모든 것의 책임을 진 여성의 역할이 남성의 역할, 작업장의 지휘, 즉 생산과 교환의 다스림을 고유한 기능으로 삼는 그 역할보다 열등한가?

남자와 여자는 노동의 두 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필요하다. 결혼은 그해소 불가능한 이원론에서 경제적이 원론, 주지하듯이 소비와 생산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들로 표현되는 이원론의 화신이다. 양성의 적성들, 한쪽은 노동, 다른 쪽은 지출인 적성들이 규율되어 온 것은 이런 관점에서다. 그리고 양쪽 중 한 쪽이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결합에 화 있을진저! 부부가 서로에게 약속한 행복은 비애와 고통으로 변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를 탓해야 할 것이다!

여자들만 존재한다면, 그들은 멧비둘기들 무리처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남자들만 있다면, 그들은 독점 위로 솟아 오르고 투기 거래를 포기할 아무런 이유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 모두가 주인이든 고용자이든 노름탁자에 앉았거나 명예를 메고 역눌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이로부터 살림과 소유권의 필요성이 나온다. 양성이 결합하도록 하라. 이 신비로운 결합으

의는 모두에게 동일하다. 헌법이 재산권 체제에서 논란이 될 수 없는 보수 保守와 질서의 동기에서 납입금을 선거권의 조건으로 했다면, 이 조건이 물리적인 데 위치하고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위치하지 않으며, 게다가 모든 사람은 운명의 부름을 받은 것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여전히 선거법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평등법이며 따라서 흠잡을 데 없고 인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된 인민을 초월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국가 자체는 단순 일꾼, 프롤레타리아에게, 부르주아, 예전에는 그와 같은 프롤레타리아이자 단순 노동자였지만 지금은 안락함과 존엄한 자리에도 달한 그의 예를 따르도록 초청한다. 국가는 노동자에게 저축 금고, 그 후에는 퇴직 금고, 더 나중에는 합자회사, 연합등을 제공한다. 프롤레타리아는 그의 손에 놓인 수단들을 활용할 줄 안다면 언제가는 자신의 자본으로써 그가 비난하는 자본가의 위력을 상쇄하고 자신의 노동으로써 극히 방대한 산업들과 겨루며, 끝으로 여러 세기 전부터 아주 확실한 방식으로 권력의 축소를 출발시킨 부의이주권에 참여하기를 정당하게 희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불편과 불만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수단들이 결여된 것보다는 이상한 기호 嗜好, 무질서와 무규율의 관습, 그 계급이 감염된, 그리고 그 계급에게 모든 연합과 조화의 관념을 배척하게 한 이기주의, 그 계급을 가득 채운 터무니없는 학설이 아닐까?

나는 프롤레타리아를 그 태생에서부터 파악한다. 왜냐하면 사회가 그에게 골몰하는 것은 이 순간부터, 요람에서부터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유아기에 필요한 돌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회는 그에게 우선탁아소를 열어준다. 당분간 탁아소를 빈자를 위한 신용기관과 동일시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 바란다. 이 처럼 먹먹이 아이는 벌써 은행의 채무자다. 왜냐하면 사회의 이 섭리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그의 어머니보다 그이기 때문이다.

탁아소를 나오면 그는 어린이집에 받아들여진다. 나중에 그는 모든 인간 지식의 요소들을, 심지어 그리기와 음악의 요소들을 그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들에서 받아들일 것이다.

수습의 날이 찾아온다. 이는 가까이 서서 들여다보면 노동자 생애의 모든 기간 중 가장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 모든 비애는 그 나이의 즐거움과 순진함, 그의 어머니의 꺼안음, 그의 아버지의 조언, 막 시작되는 인생 전체의 엄청난 희망이 뒷받침되는 그 아이에게는 가볍게 여겨지리라!

18세가 되면, 그는 노동자이고, 자유롭다. 그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 벌써 그는 사랑을 하고, 몇 년 안에 결혼할 것이다.

초등학교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습과 약간의 강의의 도움을 받은 지식, 그리고 팔다리만을 가지고 있는 이 스무살 노동자가, 내가 말하건대 좋은 영감에 순종해 자신의 노년을 위한 연금, 그가 죽게 될 경우 아내와 자녀들이 살아갈 재원을 마련하려고 신경을 쓴다고 가정하자.

우선 그에게 저축 금고가 열려 있다. 월 5 프랑이면, 예금은 연말에 60 프랑이 될 것이다. 20년이 지나 그 노동자가 한창 일할 나이가 되고 이성의 힘이 가장 강할 때,

그의저축총액은 1200 프랑으로올라갈것이고, 이자가더해지면대략 2000 프랑의가용자본, 즉 4% 의이자에 80 프랑의소득을이룰것이다.

이제바로이노동자가마흔살이되어선견지명이가장의첫째의무인때가되어, 이 80 프랑의소득을소비하는대신에생명보험금고에넣는다고가정하자. 3% 의보험료율에이는 2666 프랑의금액이되며, 자신이죽을경우그의처와자녀들에게이금액을보장해주는것이다. 그리고이는그가저축금고에보유하는 2000 프랑과더하면별써이선견지명을가지고현명한아버지가 41 세에죽는경우에 3666 프랑의보장된자본을이룰것이다. 반대로이사람이과거처럼계속해서매월 5 프랑에그가인출하고투자한앞의금액의이자를더한만큼저축금고에넣고 20 년을더산다고하자. 60 세에그는거의 7000 프랑의자본, 장성한자녀들을대하게될것이며, 더일하고싶지않다면, 궁핍을모르는노년을맞을것이다.

이제더큰규모에서이흥미로운가설을발전시키자.

우리의대도시들파리, 리옹, 루앙, 낭트중한곳에서노동자 1000 명이저축과보험의장점으로부터이익을볼결심을하고그들간에공제회를만든다고가정하자. 그주목적은질병과실업의경우에각자에게생계유지와함께예금의지속을보장하는방식으로서로돕는것이다. 우선합쳐진그들의예금에서나오는자본으로이노동자들은그들간에생명보험회사를아주잘이룰수있을것이며, 이회사는그들에게이런종류의회사들의모든장점을제공하면서동시에운영이익을남겨줄것이다. 말하자면그들은다른식으로발견할수없는훨씬저렴한가격에스스로보험을할수있으리라는것, 아니면같은보험료로더큰액을보장하리라는것이다.

이와같이노동자는 40 년간의눈에띄지않는절약으로 4000 프랑을모음과동시에또한자기가족에게그의저축에서나오는이자와함께또다른 3000 프랑을보장해줄수있을것이다. 즉모두해서 7000 프랑으로서그가 60 세, 아직건강하고노동할수있는나이에죽게될경우에그는이를자기처에게남겨줄것이다. 7000 프랑, 이는수많은처녀들의지참금이다.

이에는우리에게신용의허구들의가장행복한용도들중하나를보여준다. 실제로보장된총액은계약지속기간중임의의순간에이를고려할경우대부분실현불가능한허구적자본일뿐임이명확하다. 그러나사회에허구적인이자본은그렇다고해서피보험자각자에게조금도덜실재인것은아니니, 각피보험자의사망시에최소의부분만큼씩상속으로밖에상환가능하지않은것이다. 생명보험은환어음과은행권의유비물로서지금地金에근거를두는대신회수回收에근거를둔다.

끝으로이렇게조직된노동자들의공제회가 20~30 년동안유지되고, 갱신되고, 발달한다고가정하자. 이공제회가갑자기힘을모아수백만프랑을처분할수있는순간이올것이다. 부지런하고정신이말짱한사람들, 인내와절약으로 30 년동안단련된사람들이그런힘을가지고서무엇을도모하지못할것인가! 그리고그러한경영이 3 세대나 4 세대동안유지되고새로운종교처럼어디에나전파된다면세계를개혁하고틀림없이평등을가져올것임이명백하지않은가?

후의차이를파괴하려고애쓴다. 공산주의자들이나경제학자들이나모두민족도조국도더이상원하지않는다. 이처럼배타적인두중파는그들의적대와중요에도불구하고근본에서는언제나일치한다. 의견상의적대는희극일뿐이다.

그러므로나는사회가소유권자에게독점권을영속적으로보장해줌으로써동시에프롤레타리아의안전보장에노력한다고말한다. 자본을소유자의실체자체로만들어서, 사회는그와함께, 그리고그를위해노동하는모든이들을그가더이상동료로간주하지않고자녀로간주할것을기약한다. 자녀들말이다! 이는통속언어로주인이그의명령을받는자들에게부여하는이름이다. 원시언어들에서는그것은각민족의공동명칭이었다. 이스라엘의자녀들, 미스라임의자녀들, 아수르의자녀들이곧그런것이다. 소유권자는선량한가장으로서이와같이모두의재물을관리하는위치에있었다. 사적이익은사회적이익과혼동되었다. 모든것을말하자면사회는소유권을반포해가부장제를조직하고기품있게만들었다고믿었다. 세습이되고서야이는매각하고교환할능력에의해변경되어안정성의새로운보장이되었다. 소유권의최고표현인그러한세습군주제는선거의투쟁을배제해내부적으로내전을막았고외부적으로그민족을인격화했다.

개인의측면에서는개선은덜눈에띄었다.

소유권에의해사람은확정적으로그의소유지를소유하고, 그땅의주인임을선언한다. 의식의확실성, 심오한사향들에관한이론에서보았듯이자아가도약해세상을포괄한다. 그리고사람과자연의이일치에서, 이런종류의자기자신의양도에서그의인격은약해지기는커녕기력을배가한다. 아무도소유권자보다더성격이강인하고더예지력이있지않다. 영혼의배출로정의할수있는, 소유에의해중대하며, 흘러나올수록더욱넘치는사랑처럼소유권은인간존재에게보탬이되며, 그를힘과존엄성에서높여준다. 부자, 귀족, 거물, 소유권자, 주인님혹은마님 sire, 이모든이름은동의어다. 사랑에서처럼소유권에서도소유하기와소유되기, 능동과피동은언제나같은것을표현할뿐이다. 하나는다른하나없이가능하지않으며, 사람이그때까지는일방적의무에묶여있었으나이제그가자연과더불어체결해온쌍무적계약에매혹되어그자신의모든것, 그리고그자신의값어치를느끼고존재의충만을즐기는것은오직이호혜성에의해서다. 그리고그러한것이사람의가슴안에서소유권이수행하는혁명이며, 그의애착을물질화하기는커녕그것을영화靈化하는혁명이다. 그가순소유권을용익권과, 특출한초월적권한을단순소유와구분하기를배우는것은이때다. 그리고독점에도달할수없던이구별은인류의해방을향한, 그리고영혼과신체를한꺼번에억압하는빈약한재물의공동체보다는의지들의결합이고, 원리들의일치인연합을향한한걸음을더내딛는것이다.

소유권의실험은행해졌다. 소유권을부정하려면역사전체를거짓이라고반박할필요가있을것이다. 우리는신용에대해말하면서, 프랑스혁명은농지법을위한봉기였을뿐이라고말했다. 그런데근본적으로농지법은소유권의수여가아니고무엇인가? 자격없고무능하게된두카스트대신그자리에인민을소유권자로만들어서민족은엄청난재원을마련했는데, 이는그민족에게차레로승리의지출을보

하고, 소유권이신용으로부터탄생한다. 이는담보가차입의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담보가차입에따라나오는것과마찬가지다. 이는오지에씨가자기책의유감스럽게도너무짧은결론에서다음과같이의견을표명할때내게말하고자했던것으로보이는것이다.

“자유소유권없이담보는없다. 소유권없이실물신용은반드시없다. … 신용의작동가운데살아가는여러민족들은그들의담보, 신용의기초를이루는소득의종류의형성에서다양한시련을겪는다. …”

실제로특권을지닌자가차입을하는과정에서그의사업체를담보로삼게되기전까지는, 그를자기명령아래일하는노동자들의고용주, 동업자들과자기자신의이름으로그들의이익을위해서, 그리고자신의재산을위해서활동하는회사의경영자로만볼수있다. 독점권은자본이자이익에대한특권과함께그의인격에수여된다. 그러나영속성과이전가능성의보장은없으며, 사업에언제나적극적으로, 그리고몸소참여한다는조건에서수여된다. 그에게물건에대한권리는완벽하게존재하지않는다. 사업주는적어도양심상유죄가되지않고는일정한공동체적특성을여전히띠는소재를위험에처하게하고침해할수없을것이다. 이는그가여전히사업상의특권만을누리며결코소유권을지니지않기때문이다. 끝으로독점자는일종의수입자였다. 신용의필요성이그를왕으로만든다.

실제로특권보유자가생산수단에담보를설정함으로써작은공화국의반장, 전권공사의자격으로서만행동하는것이가능했는가? 확실히그렇지않다. 차입자에게부과되는그러한조건은그를그의하급자에게종속시키는것이니그의이익의축소였을것이다. 그것은사회계약의해소, 둘째국면으로의퇴보였던것이다.

그러므로사회가신용에의해어쩔수없이독점자에게그의독점권을담보로차입할권리를그의노동하는동료들에대하고려없이인정해주는것만으로도그를소유권자로만들었다. 신용이상업의전제이고, 독점이경쟁의전제인것처럼소유권은신용의전제다. 실무에서는이모든것들은불가분이고동시적이다. 그러나이론에서는그것들은구별이되고계기繼起하는것이다. 그리고분업이거의언제나, 그리고거의필연적으로기계의사용을가정하는것처럼독점이거의언제나, 그리고거의필연적으로소유권을수반함에도 불구하고, 기계가노동분업이아니듯이소유권은독점이아니다.

개인에게처럼사회에도이새로운장치로부터심각한결과가초래될수밖에없었다.

우선, 불안정한자격을영구적권리로바꾸어서사회는그근면성에대한다든지하고정신적인집착에, 행복에대한더심오하고사려깊은애착에, 다라서이익에대한다더적은악착스러움, 더심오한인도적감정, 상속지에대한승배형태인고향땅의시가詩歌등, 미미한노동자들에게확장되어모든세대를집결시키고조국을이루는것들에소유권자측에서부터의존해야했으며, 실제로의존했다. 조국은소유권에그기원을둔다. 이처럼뒤이어출현한공산주의자들은소유권을파괴함으로써온힘을다해경제학자들이자유무역으로써그렇게하는것과같이종족들, 언어, 기

이런종류의가정들을무한히변형하고조합할수있으며, 언제나도달하게될결론은, 프롤레타리아가변함없이가난하다면이는그가부유해지려는수고를하고싶지않은것이라는것이다.

하지만맘소사! 이결론은, 우리가미쳤다면이는우리가현명하지않은것이라고말하는것과맞먹는다. 그리고우리가고통을겪는다면이는우리가건강이좋지않은것이라고말하는것과맞먹는다. 의문의여지없이우리의공법, 우리의민법과상법, 우리의경제학, 우리의신용기관들은프롤레타리아트가빈곤에서벗어나고이역겨운자본에대한중살이에서, 정신착란의제 1 원인인, 물질의이악명능은명에서해방되는데필요한것을백만번포함한다. 그러나이해방의법칙을파악하려면, 초월적개념의도움으로대금업의원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 그리고우리가도달한한계에서, 신용의이경이로운국면에서우리는그어느때보다대금업에처박혀있다. 조금있으면우리는프롤레타리아의잘못, 자본가의잘못, 그리고섭리의잘못을고려할것이다.

이순간까지신용의형태들이었던것, 그형태들이될수있는것을말한후그것들모두에공동인공식에대해말할것이우리에게남는다. 이공식은신용의절차가정의에대해서가지는관계를정치경제학에대해서가진다. 나는회계를이런말로지칭하고자한다.

신용은회계의아버지다. 회계는채권자없이채무자가있을수없고그역도성립한다는원리에그모든비밀이있는과학이다. 이는산물들은산물들에의해획득된다는경구의번역이며, 정치경제학의근본적적대성을새로운표현으로다시가져오는것이다.

로마인들의회계에관한다음의상세내용을흥미없이읽지못할것이다.

“고대로마인들은각자장부를가지고있어서거기에채무와채권, 일종의당좌거래들을기록하는데, 거기에그들은또한관계를가지는사람들의이름밑에각자의부채 acceptum 와자산 expensum 을기입했다. 우리에게서분개장이법에규정된형태로빨간줄로그어진것없이기록될경우에그렇듯이이장부들은정의를입증했다. 그것들중하나는이서장 (移書帳, nomen transcriptum), 이서기록부라고불렸고, 이는원장元帳이다. 이원장에항목들을올리기전에로마인들은우리처럼일계장에이를적어놓는다. 일계장은키케로의『프로로시오 pro Roscio』에서감독 controle 을말하는것으로서아드베르사리아 adversaria 라는이름으로지칭된다. 이서장으로의이기移記는적어도매월행해지며, 한편에는지불한것 expensum 을옳겨적고또한편에는받은것 acceptum 을옳겨적는다. 끝으로이장부들은실질적으로부채 doit 와자산 avoir 에의거해작성되어라티오네스 rationes 라고불렸다. 당사자들간에행해진모든것을설명 raison 해야했기때문이다. 그러한것이가계부 livre de raison 혹은원장이라는명칭의기원일것이다. 그리고또레시오르클로팽클로팡 les sieurs Clopin-Clopant, 아르파공에콩파니 Harpagon et compagnie 같은상호 raison sociale 라는말의기원도된다. 일정금액의채무를지고싶으면, 빚을생하는자가자신의장부에

그가채권자로삼을의향을가진자에게서받은자산을기재했다. 빛을준사람쪽에서는자기장부에그의채무자로삼고자한자에게준자산을기입했다. 이는결과적으로상업전문용어에서우리가대변과차변이라고부르는것이였다. 장부들의일치에서계약이나왔다.”(오지에, 『공공신용의역사』)

이평행관계에 주목하자. 차변에 기록하다 débiter, 채무자노릇하다 faire débiteur, 빛지다 devoir, 채무자다 être débiteur. 대변에 기록하다 créditer, 채권자노릇하다 faire créancier, 신용하다 (croire, 이말은프랑스어에서는라틴어 credere 의어의를상실했다), 신뢰하다, 완전한지불때까지항유와소유를시키다, 한마디로채권자다. 우리가주인과종의관계를아주강렬하게 표현하는섭기다 servir 와보존하다 servare, ‘노예다’혹은‘노예노릇하다’의상관성을특기한것은이런것이다. 매일사회적건축물이솟아오르는기반이되는관념들의대립은나중에서제도들의계승에의해이것이사실로정식화되어야했던것처럼처음부터정식화되였다.

대변, 차변, 구매와판매등우리가신용에배정한공극적목적, 생산과교환간의균형을수립하는목적은아주잘표현하는대립외에복식부기라불리는부기는우리에게또다른대립을드러내준다. 이는사람과사물의대립이다.

상인은그와거래관계를맺는사람들각각에대해대차貸借를이용해계정하나씩을개설한후에도또한그가받을수있고인계할수있는가치물의본성별로역시대차들이용해도하나씩의계정을개설하며, 그는이를네다섯개의큰범주로분류한다. 금전출납계정, 환계정, 일반상품계정, 잡계정인데, 이것들은정산이나재고조사시에손익계정이라는단일계정으로해소된다. 손익은상인에게는경제학자들이총생산과순생산이라고부르는것을표현하는것이다.

창세전부터준비되어우리의지성과활동이생겨나려고함에따라우리의지성을육체가두고우리의활동을꼼짝못하게위협하는요새, 보루, 성채들의엄청난포위를말하지않을것인가? 자유가어느쪽을향하든지그것은곧이경제적수명들중어느것에의해예측하지도못한중에붙잡힌다. 구제수단의외양을떠면서자유를그졸라램에서벗어나지도, 그것들의굴레바깥을의식하지도못하게하는가운데속박하고예속화하는수명들말이다. 상업, 농업, 이해하는기술로서의계산술이발명되기전에언어는모든정치및경제제도에앞서자생적으로생성되어결과적으로차후의편견들의영향에서벗어난것으로서, 언어가벌써노동, 대여, 교환, 신용, 채무, 내건과네건, 가치, 그리고균형의모든관념들을표현했다. 경제학이존재했다. 그리고칸트는극히투박한경험주의에만믿음을두는것으로거드름을피우는경제학자들과는반대로, 그가경제학에몰두했다면틀림없이정치경제학을순수과학의반열에올렸을것이다. 즉원리들의구성에따라서, 그리고사실과는독립적으로선형적으로가능한과학말이다.

내가다루는것과같은주제에서는모든것은새롭고뜻밖일수밖에없었다. 나는오랫동안아담스미스에서부터슈발리에씨에이르기까지정치경제학의교육에쓰이는저작들에서왜어디서도상업부기에대한언급이되고있지않은지를탐색했다.

새로운희생자들을만들어내서이들이노름에서잃은소득을노동에다시요구하지않을수없게되고, 이로인해자본의실물성을지탱하지않을수없게되는일이일어나지않는것이가능하다면, 파산이따금이지옥과같은난장판을중단시키려찾아오지않는것이가능하다면, 허구가자신의증서를배증하는동안담보의가치는항상낮아져서실물적부는무가될것이며, 등가된부는무한히증가할것이다.

그러나사회는퇴보할수없다. 그러므로멸망하지않으려거든독점을구해낼필요가있다. 이상적향락에빠질채비가된인간개체성을구할필요가있다. 한마디로독점을공고화하고확립할필요가있다. 독점은말하자면독신이였다. “나는그가결혼하기를원한다”고사회가말한다. 그는토지의신하, 자본의착취자였다. 나는그가토지와자본의주인이고신랑이되기를원한다. 독점은개인에머물렀다. 이제부터는그는온족속에빠어갈것이다. 그에의해인류는영웅들과거물들만지냈다. 장래에는왕조들을지닐것이다. 독점이가족으로받아들여진다면사람은자기도지에, 자기산업에, 마치자기아내와자녀에집착하듯집착할것이며, 사람과자연은영원한애착으로결합될것이다.

신용이사회에만들어준조건은실제로상상할수있는가장역겨운것, 사람이가장많이남용하는동시에가장적게소유할수있는조건이였다. 그런데섭리의견해에서는, 인류와지구의운명에서사람이자신의작업도구, 일반적으로토지로대표되는도구에대한보전과애착의정신으로생기를띠는것이좋았다. 왜냐하면사람에게중요한것은단지토지를착취하기만하는것이아니라그것을경작하고, 꾸미고, 사랑하는것이다. 그런데고갈시키고더럽히는허구에대해강화시키고고결하게하는실물을대립시켜, 독점을소유권으로, 내연관계를결혼으로, 그녀를그대의것으로선언하는것 propriamque dicabo 으로바꾸지않고달리어떻게이목적달성할것인가?

그러므로독점에서준비되는혁명은특히나토지의독점을염두에둔다. 왜냐하면, 모든소유권들이구성되는것은토지독점의예에따른것이고, 토지소유권의모델을따른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전유는조건부이고, 잠정적이고, 종신인것에서영구적이고, 이전가능하고, 절대적인것으로될것이다. 그리고소유권의불가침성을더잘수호하기위해재물들은미래에는동산과부동산으로구별될것이다. 그리고그이전, 양도, 서로간의수탈을규율하기위해법률들이만들어질것이다.

요컨대소유지에의한, 즉사람의토지에대한극히긴밀한결합에의한담보의형성, 독점의영속성과이전가능성에의한가족의형성, 끝으로재산들간의평등원칙으로서지대의형성, 이런것들이집단적이성에서소유권성립을결정한동기들이다.

(1) 신용은실물보증을요구한다. 모든경제학자들은이점에서의견이일치한다. 이로부터신용을조직하기위해서는담보를형성할필요가나온다.

그러나실물보증은동시에인적보증이아니라면무효다. 나는이를충분히설명했다고생각한다. 이로부터또한신용을발달시키려면독점을소유권으로전환할필요성이나온다. 경제적전환의순서에서소유권은신용의사전조건임에도불구

람으로남았다. 그가자신의개발이용을배가하고, 그의공장들을확장하고, 땅에 땅을더해도소용이없었다. 그는언제나주인이라기보다관리인이었다. 그는사물에 결코자신의특성을새겨넣지않았다. 그는사물을 결코자신의형상대로만들지않았다. 그는그것들을 그것들자체로 좋아하지않았다. 오직그것들이그에게주어야했던가치로만 좋아했다. 한마디로 그는독점을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수단으로 서원한 것이다.

신용기관들이 발달한 후에는 독점의 조건은 훨씬 더 나빠다.

연합시키는 것이 중요했던 생산자들은 연합을 이루는데 완전히 무능하게 되었다. 그들은 노동의 취미와 정성을 상실했다. 이는 노름꾼들이다. 경쟁의 열광에 그들은 룰렛의 열정을 결합한다. 은행 지배는 그들의 특성과 관념을 바꾸었다. 옛날에 그들은 서로 간에 주인과 임금 수령자로, 봉신과 봉건군주로 살았다. 지금 그들은 차입자와 대금업자, 따는 자와 잃는 자로서만 자신을 안다. 노동은 신용의 입김에서 사라졌다. 실질 가치는 허구적 가치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생산은 투기 앞에서 자취를 감춘다. 토지, 자본, 재능, 노동 자체는, 일정 부분 아직 도 노동과 만나지만, 판돈으로 소용된다. 특권들, 독점들, 공무들, 산업에 대해 사람들은 더는 염려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를 노동에 요구하지 않고, 주사위를 던지는 것에서 그것을 기다린다. 신용이 고정된 기초를 필요로 한다고 이론은 말했다. 그리고 신용이 모든 것을 뒤 흔든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담보에 만등을 기대한다고 이론은 덧붙였다. 그리고 이 담보물들을 운용한다. 그것은 보증수단들을 찾는다. 그리고 실물에서 밖으로 보증수단을 보고 싶지 않은 이론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없다면 담보는 절대로 효력이 없고 무효일 것이니 신용의 담보는 언제나 사람이므로, 사람이 실물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보증수단과 함께 담보는 사라지고 신용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자랑해도 소용 없던 그것인 채로 남게 된다.

신용은 한마디로 자본을 배내지 않을 수 없어 결국 사람 자체를 사회와 자연으로 부터 빼냈다. 이 보편적 이상주의에서 사람은 더 이상 흠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보이지 않는 권능에 의해 공중에 떠 있다. 땅은 주민들로 덮여 있다. 어떤 이들은 풍요 속 에 헤엄치고, 다른 이들은 빈곤으로 끔찍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땅은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는다. 땅을 경멸하는 주인들과 땅을 증오하는 봉신들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땅을 경작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표, 그들이 결코 보지 못할 표, 땅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심하지도 않으면서 아마도 땅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지나 갈 표를 지닌 자들을 위해 경작하기 때문이다. 토지의 보유자, 즉 지대 수령권리증을 지닌 소유자는 고물상과 닮았다. 그는 자기 서류가방에 소작지, 목초지, 풍부한 수확, 탁월한 포도밭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 무슨 상관인가! 그는 모든 것을 10 상팀을 더 받으면 내놓을 채비가 되어 있다. 아침에 그의 재물들을 인수한 것처럼 저녁이면 그것들을 애착도 후회도 없이 내놓을 것이다.

이처럼 자본의 생산성이라는 허구에 의해 신용은 부활하는 허구에도 달했다. 토지는 더 이상 인류의 작업장이 아니다. 그것은 은행이다. 그리고 은행이 끊임 없이

그리고 나는 부기, 혹은 좀 더 겸손히 말해 장부의 작성이 바로 정치경제학이라서 이른바 경제학이라는 잡동사니의 저자들, 실제로는 장부작성에 관한 다 소간 분별력 있는 논평자들에게 불과한 자들이 이를 알아채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결국 발견했다. 또한 나의 놀람은 처음에는 극단적이었지만,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부채와 자산에 대해, 한마디로 장부의 작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해 계산에 아주 어두운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때 일거에 중단되었다. 독자 여러분을 심판관으로 삼는 바다.

정치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사회의 여러 계층들의 과학 (이 단어에 동의하자), 부의 생산, 분배, 소비의 일반적 법칙들의 과학이다. 이는 밀을 생산하는 기술도 아니고, 포도주를 만들고, 석탄을 추출하고 철을 제조하는 등의 기술도 아니다. 이는 기술과 직업의 백과사전이 아니다. 이는 한번 더 말할 건 대부가 사회 안에서 창출되고 증대하고 교환되고 소비되는 일반적 차들에 대한 지식이다.

가능한 모든 산업들에 공통인 일반적 차들에 개인들의 행복, 민족들의 진보, 재산들의 균형, 대내외적 평화가 의존한다.

그런데 산업 시설마다, 상사 대리점마다 생산에, 상품 발송과 입고에 종사하는 일꾼들과 별개로,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 노동자들과 별개로 상급 고용자, 감히 말할 자면 일반법의 대표자, 경제사상의 기관, 생산, 유통, 소비의 일반적 절차의 관점에서 그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유의하는 책임자가 있다. 이 고용자는 회계원이다. 제대로 이해된 노동분업의 효과를 감정하고 기계가 어떤 절약을 해 줄지, 기업이 그 지출을 충당할지 못할지, 판매가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최선의 판로는 무엇인지, 즉 어떤 고객이 소비수준이 높은지, 어떤 다른 고객들을 불신해야 하는지, 어떤 곳에서 고객이 생겨나게 할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오직 그 사람이다. 경쟁의 조작들을 따르기에, 독점의 결과들을 예상하기에, 등락을 미리 알아차리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다. 끝으로 상업적이고 급속으로 된 가치물들의 운동과 자본의 유통에 관해 현지의 사정과 외부의 사정을 환어음, 수수료 계정을 통해 아는 것은 그 사람이다. 회계원은 결국 진정한 경제학자로서 거짓 문필가일당이 그도 모르는 새에 그의 이름을 훔쳤고, 그들 자신도 정치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그토록 시끄럽게 떠든 것이 장부작성에 관한 책적은 수다일 뿐이었다고는 조금도의 심해본 적이 없다.

상업 부기는 형이상학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응용 중 하나다. 그 대상물과 분야에서 그것이 아무리 제한되었더라도 과학이라는 이호칭을 쓰는 것이 합당하기에 이는 과학이며, 그 정확성과 확실성에서 결코 산수와 대수에 양보하지 않는 과학이다.

나는 누가 한 수학자에게 이런 문제를 제안했다고 가정한다.

모든 상인이 그의 조작들에 대해 보존해야 할 수기 표시들로 어떤 판매, 구매, 어떤 수입, 지출, 어떤 이윤, 손실, 어떤 협상, 거래, 척도 재의 이동이나 자본의 이전도 그 부정적 문서상으로 당장 드러나지 않게 숨겨지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증감될 수 없는 그런 기록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법 앞에서, 그리고 제 3자와 대면

해서만약제 3 자와법이엄격한태도를취하고자할경우에그상인의책임이완전히 보장되도록하는것.

이수학자는다움을받을곳이수치들밖에없다면확실히아주당황할것이다. 그런데그런것은바로상법제 8 조, 제 9 조가문문제다.

“제 8 조, 모든상인은분개장을가지고서매일그의채권과채무, 상업상의조작, 증권매매, 인수혹은배서, 일반적으로어떤명목에서든그가접수하고지불하는모든것을제시하고매월그회사의지출에쓰인금액을밝힐의무가있다. 이모두는상업에서통용되지만<sup>7</sup> 필수불가결하지는않은다른장부들과는별개다.”

“그는그가접수한전달문서들을철해놓고그가발송하는문서들을장부에복제해놓을의무를진다.”

“제 9 조, 그는매년사서증서로그의동산및부동산증권, 채권, 채무에대한재고를조사하고매년이용도로마련된특별장부에그목록을복제해놓을의무를진다.”

음, 그건그렇다고해두고! 이두조문은정치경제학의모든프로그램을포함하지않는가? 그리고사람들이수단으로만간주하는한에서는훌륭하지만거기서정의와사회의원리를보기를원한다면험오스러운이일상관행과과학으로정립한후에, 그들이스스로모방하는, 그리고그들의주인인이상인들에게경제학자의자격으로충고하는것은우습지않는가?

그렇다면상법전이열줄로모든상인에게지시한것말고경제학자는무엇을더야는가?

상법전은상품가격에관해서도임금률에관해서도아무런속단을하지않았다. 이조항을상인의자에맡겨놓는다. 그에게단지얼마가되었든그가지불한금액을계정에올리도록명령한다. 그래서가치는그자체가공동의척도로측정가능하며전적으로공급과수요에의존하는것이라고, 까다롭고신실한논평자들인경제학자들이우리에게말하는것아닌가?

상법전은상업회사들장후에서민법전 1832 조이하의학설을전개하며이렇게말한다. “회사는두명이상사람들이그로부터낭수있을이익을목적으로무언가를공유하기로합의하는계약이다.” 그러므로상법전은노동만으로는, 그리고노동자체로는회사의대상물, 상업의재료가될수없다고가정한다. 자본은생산적이고사회질서는독점에기초를둔다고경제학자들이가르치는것은이런것이아닌가?

이런평행선을더멀리밀고나가는것은쓸데없는일이다. 공공신용과조세의문제들은여전히국가에적용된상업부기의문제들이다. 경제학자들이이를이해하는방식을볼때정치경제학의한장으로삼을만한것이없었다. 만약정치경제학이여전히상업의철학, 장부작성의철학이라면! 하지만전혀그렇지않다. 정치경제

<sup>7</sup> 이런장부들은구매및판매장부, 대차장부, 금전출납부, 재고장부, 만기증권기록부, 문서사본철등이있다.

차후의모든진화는한편기능들의균형을가져오고, 다른한편언제나산업과행복을발달시키는경향을띤다. 반대로섭리적노력이어떻게언제나빈곤과부, 무능과과학의동등하고대립하는진보에도달하는지를우리는보아왔다. 제 2 기에는자본과임금제도, 이기적이고해로운분배가나타난다. 제 3 기에는악이상업전쟁에의해심각해진다. 제 4 기에는악이독점에의해일반화된다. 제 5 기에는것이국가의성별聖別을받는다. 국제무역과신용은그들의차레에서적대관계에서로운도약을일으킨다. 나중에자본의생산성이라는허구가여론의위력에의해거의실재가되어새로운위험이사회를위협한다. 이는자본의범람에의한노동자체의부정인것이다. 이론적으로소유권이탄생하는것은이순간, 이극단적상황으로부터다. 그런것이우리가잘알아야할이행이다.

현재까지경제적진보의궁극적목적을사상捨象하고이를단지그자체로고려하자면, 사회가행하는모든것은독점을위해서, 그리고독점을반대해서반값아가며행한다. 독점은그둘레로다양한경제적요소들이움직이고순환하는회전축이었다. 그렇기는하지만그존재의필연성에도불구하고, 그것이자신의발달을위해행한무수한노력에도불구하고, 독점을공언하는보편적동의권위에도불구하고독점은아직임시적일뿐이다. 칸트가말하듯이그것은권리보유자가그것을활용하고수호할줄아는만큼만지속할것으로여겨진다. 그것이때로는종신의, 그러나판매가능하지않은직업들에서처럼죽음에의해정당한권리를갖고서중단되기도하고, 때로는특허증에서처럼제한된시간으로축소되기도하고, 때로는비행사非行使에의해상실되기도하는데, 이는아직도아랍인들에게서통용되는연별소유와같은시효의이론들을일으킨것이다. 다른때에는독점은군사적대위에서건축할허가등에서와같이주권자의의지로취소할수있다. 이처럼독점은실질이없는형태일뿐이다. 독점은사람에게매달리며, 물질을취하지않는다. 이는물론생산하고판매할배타적특권이며, 아직은노동수단들의양도, 토지의양도가아니다. 독점은이윤의고려로만사람의관심을끄는일종의임대료다. 독점자는어떠한산업에도, 어떠한노동수단에도, 어떠한거주지에도집착하지않는다. 그는세계주의자이며, 만능이다. 그가돈을버는조건에서는그에게중요한것은별로없다. 그의영혼은지평선의어느점에도, 물질의어느입자에도얽매이지않는다. 그에게재산의수단으로서독점을부여한사회가그를위해이독점을생의필연으로만들지않는한그의존재는모호한상태로있다.

그런데, 독점은그자체로아주불안정하고, 모든침입에, 경쟁의모든모욕에노출되고, 국가에의해고통을받고, 신용에의해압박을받고독점자의가슴에조금도걸리지않아서끊임없이투기의작용아래비인격화하는경향을띤다. 그래서인류는끊임없이자본의일반적철수에의한금융폭풍우에넘겨져서노동자체로부터벗어나고, 그행진에서퇴보하기가쉽다.

실제로독점은신용의성립이전, 은행의지배이전에무엇이었나? 이득의특권이었고, 주권이아니었다. 수단에대한특권이라기보다산물에대한특권이었다. 독점자는그가거주하는땅, 그러나그가실질적으로소유하지않는땅에는낯선사

호아래서무한히증대할수있다는것이다. 이는개인이홀로자기소유권을지키는  
곳인자연상태에서는일어날수없는일이다.

어쨌든, 칸트의원칙으로부터적어도자연상태에서취득은각가족에대해그  
가족이킬수있는모든것으로, 그가족이경작할수있는것으로확장한다고, 혹은  
가족수에따라경작가능한표면을나누부분과동등하다고하는것이어나온다. 취  
득분이이몫을넘어선다면곧바로그가족이수호자를보유하는것보다더많은적들  
을만나니말이다. 그런데자연상태에서이처럼제한된이취득은아직은임시적일  
뿐이므로, 국가는그임시성을중단시켜그들의취득을결정적으로만들어취득자  
들의상호적대성을근절하기를원했다. 그러므로평등은소유권의형성에서비밀  
의생각, 입법자의주요목표였다. 이체계에서유일하게합당한것, 유일하게받아  
들일수있는것은내소유권의보장책이내이웃의소유권이라는것이다. 나는더이  
상대여자와함께'나는소유하므로소유한다 (possideo quia possideo)'고말  
하지않으며, 철학자와함께'나는당신이소유하므로소유한다 (possideo quia  
possides)'고말한다.

우리는그에따라서소유권에의한평등이신용, 독점, 경쟁, 혹은다른모든경  
제적범주에의한평등과똑같이괴상하다는것, 그리고이점에서섭리의화신은소  
유권으로부터가장귀중한, 그리고가장예기치않던결실들을따내면서도그렇다  
고해서그의희망에서덜속은것은아니며, 불가능한것에집착했다는것을보게될  
것이다. 소유권은경제적진화에서그에앞서는모든계기들보다더많은진리도, 적  
은진리도포함하지않는다. 그것들처럼소유권은같은비율로행복의발전과빈곤  
의증대에기여한다. 소유권은질서의형태가아니며, 질서와더불어변화하고사라  
져야한다. 철학자들의확실성에관한체계들은그들의통찰에대한논리를풍성하  
게한후에반란을일으키고상식의결론들속에서사라진다.

그러나끝으로소유권의성립을주관한생각은훌륭했다. 그러므로우리는이성  
립을정당화하는것, 소유권이부를섬기는것, 소유권을가져온적극적이고결정  
적인이유들이무엇인지를탐구해야한다.

우선경제적운동의일반적특성을환기해보자.

제 1 기는산업들을분리해땅위에노동을시작하고, 자연의박대를그치고사  
람을그의원래의빈곤에서빼내고, 그의움직이지않는능력을적극적이고활동하  
는능력으로전화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이런능력들은그에게그만한행복의수  
단이였다. 우주의창조에서처럼무한의힘이나누어졌다. 이처럼사회를창조하기  
위해섭리의화신이노동을나누었다. 이분업에따라평등이복수성내의동일성으  
로서가아니라다양성내의동가성으로서발현하기시작한다. 사회적유기체가원  
리로구성되고, 씨앗이생기를주는충동을받았고, 집단으로서사람이존재하게된  
다.

그러나노동분업은일반화된기능들과분할된기능들을전제로한다. 이로부터  
노동자들간에조건불평등이어나온다. 어떤이들은낮아지고다른이들은높아진  
다. 그리고제 1 기부터산업적적대관계가원시적공동체를대체한다.

학은그것만으로도 1000 권의실체를담고있는상법전제 8 조, 제 9 조에대한거  
창한주석일뿐이다.

그러므로나는다음과같이간추려서말할것이다.

상법전은모든채권자는채무자를전제로하며그역도성립한다는형이상학적  
원리를응용하고모든상인에게그의채권과채무, 그리고그의영업을매일기록할  
의무를과하면서신용의진정한기초를놓았고미래의평등의저항할수없는수단을  
창조했다고.

그러나부기는그자체로결코가치들의척도를내포하지않는다는것, 그것은부  
채와자산의항들로표현되는양들의크기와는상관없는채로있다는것, 그것이아  
주빈번히활용하는산술처럼냉정한것은상인의풍요와마찬가지로멸망, 주  
인의정의와마찬가지로일꾼의횡령을확증할용의가있다는것에서, 입법자가재  
산의불안정의법칙을만들고자했다는결론이어나오지는않는다. 그리고경제학자  
들은단지편견만이아닌것을판단으로받아들이면서, 일상관행이전혀알수없는  
것, 더잘공부했다면결국거짓이라고공언했을것을일상관행에말하게하면서철  
학자의사명을저버린동시에비평가로서의자격도상실했다.

상업장부들은상인이비용을들여서점포에보관할의무를진청렴한증인들이  
다. 그가사기꾼이면그를고발하고, 지불불능의경우에그가정직한사람이면그를  
정당화해줄용의가있는납세독촉인들의회사처럼말이다. 경제학자들은아주피  
동적인이역할, 대수적인증인의이초연함에서교환에는법칙이없다는결론을내  
렸다. 반대로참된철학자라면, 교환의법칙자체가발견된다면그와같은수단들을  
가지고평등이구원된다고결론을내릴것이다.

상업부기는온세계를포괄해야하며, 사회의원장元帳은개인들이존재하는  
수만큼, 가치를가진것으로생겨나는다양한품목들의수만큼많은개별계정들을  
가져야한다.

이공정한시대가올때정치와대의체제, 절충적인경제와공동체적사회주의는  
경멸을받을만큼받게될것이다. 그리고왕정, 민주주의, 귀족정, 신정등이모든참  
주정의동어는새로운젊은층에게는형식적특질들, 갈고리모양의원자들, 문장  
紋章과학, 신학자들의방언처럼이상한것들로여겨질것이다.

### III. 신용의거짓말과모순. 그파괴적효과, 그것이가 지는빈곤화능력

섭리는사람을신용이라는경이로운길로인도해사회의품안에공공의전파와  
지속을위한일반적보험기관을만드는것을목적으로삼은듯하다.

지금까지우리는정치경제학이진화할때마다주인과임금생활자사이를, 자본  
가와노동자사이를구분하는홈이더깊이파이는것을보아왔다. 기계들과경쟁, 독

점, 국가조직, 조세면제와 마찬가지로 금수등 인간재능이 노동계급의 위안을 위해 상상한 모든 것은 끊임없이 특권의 이익으로, 그리고 노동의 점점 더 짓누르는 억압으로 전환되었다. 지금 세워진 업적을 공고화하고 적의 기습에 맞서 위치를 요새화하고 빼앗긴 자의 공격에 맞서 소유자를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보험에 그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여전히 약탈당한 자의 일일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노동자에 의해, 그리고 모든 것은 노동자에 맞서 (Tout par le travailleur, et tout contre le travailleur).

일꾼들, 노동자들, 경작자들,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다정함이 넘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저축금과 들을 세운 것은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노년의 위안을 위해서입니다. 오세요. 당신들이 절약을 가져오세요. 우리는 이를 잘 지키고 확실하게 지켜드릴 겁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이자를 드릴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지대 수령자들일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채무자들일 것입니다. 농부들이여! 당신들은 고리채를 쓰고 있으며, 당신들이 결코 갚지 못하므로 당신들은 수탈을 당합니다. 우리의 저당 은행으로 오세요. 우리는 법률 행위로 당신들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결코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이자로 36년, 45년, 50년 후에 당신은 해방될 겁니다. 제조업자들, 상인들, 산업인들이여! 당신들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공장, 도구, 집, 고객, 재능, 성실성이 이미 들어있는 광석임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래를 씻고 그것이 숨기는 귀금속을 빼낼 것입니다. 그리고 채취가 행해졌을 때 우리는 약간의 할인을 거처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줄 겁니다. 가부장들이여! 당신은 당신이 죽고 난 다음 당신 딸들에게 줄 저축금, 부인에게 줄 정기수령금, 어린 자녀들에게 줄 유산을 보장받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당신들에게, 당신이 등록된 날로부터 우리가 당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당신의 나이에 비례한 이자만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노동할 것이고, 걱정없이 살 겁니다. 그리고 금이 넘쳐날 겁니다. 당신은 부자일 것이고, 부자이면서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노동, 판로, 정기수입, 세비, 상속재산, 이윤을 어디서나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 발판을 뒤엎고, 신용의 신화를 무로 돌린다.

신용은 본질상, 지향상 복권처럼 언제나 주는 것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며, 그러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용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대중에 대한 약탈이었다. 그리고 은폐수단이 무엇이든, 자본에 의한 노동의 일반적인 약탈이었다.

그리고 우선 신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될 때는 거짓말을 한다. 한편으로 손님 끌기를 잘하고, 수다스러운 경제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직한 사람이고, 명예감에 취해 있고, 자기 말에 진실하고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만이 신용을 누리기를 갈망할 수 있다. 신용과 신뢰는 동의어다. 그런데 성실성이 존경받는 곳, 그리고 검증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신뢰가 존속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풍부한 재원을 갖추고 훌륭한 정신으로 관리되는 신용기관들이 관대하게 제공하는 것에 누가

권에 필요했으며, 모든 소유권은 원시적 공동체를 내포한다. 이인정없이 소유권은 단순한 점유로 남고 아마도 처음 온 자에게는 박을 당하는 채로 있을 것이다.

칸트<sup>5</sup>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 사물에 대한 권리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원시적인 혹은 차후의) 공유공동체에 있는 물건의 사적 사용의 권리다. 왜냐하면 이 공동소유는 내가 다른 모든 소유자에게 그 물건의 사적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소유의 가상이 없이는, 실제로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지 상상하기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개인적 혹은 일방적 심판은 타인에게 그 물건의 사용을 스스로 금하게 의무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공동소유로 결합된 심판들에 의해서만 의무화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마치 사물이나에 대한 의무를 진 듯이 사물에게 있는 권리를 상정할 필요에 처할 것이고 그로부터 결국 이 사물의 모든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도출될 것이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상상이다.”

이와 같이 칸트에 따르면 소유권, 즉 점유의 합법성은 본래 공동소유를 내포하는 국가의 동의에서 나온다. 그렇지 않을 수 없다고 칸트는 말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감히 대립시킬 때마다 국가는 그 소유권자에게 협약을 환기시켜 언제나 이런 최후 통첩으로 분쟁을 끝낼 수 있다. 내 주권을 인정하고 공익이 주장하는 바에 굴종하든지, 아니면 나는 당신의 소유권이 법의 보호 아래 위치하기를 중단했다고 선언하고 그것에서 내 보호를 철회한다.

이로부터 입법자의 정신에서 소유권이라는 제도는 신용, 상업, 독점제도와 마찬가지로 균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나 나온다. 이는 우선 소유권을 조직의 요소들 중에 배치하고, 그것을 가치들의 구성의 일반적인 수단들 중 하나로 지적하는 것이다. “어느 사물에 대한 권리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공유공동체에 있는 물건의 사적 사용의 권리다”라고 칸트가 말했다. 그러므로 이원리 덕분에 소유권을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모두의 권리의 수호자인 공동체에 이를 호소할 수 있고 호소해야 한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섭리의 시각에서는 조건들은 균등해야 하는 것이 된다.

이 리드 (Reid) 와 똑같이 칸트도 다음의 구절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표현한 것이다. “지금 하나의 기금을 소유할 능력은 어디까지 확장하는지를 묻는다. 그것을 자신의 잠재성에 지닐 능력만큼 멀리까지, 즉 그것을 전유할 수 있는 자가 그것을 수호할 수 있는 만큼 멀리까지다. 마치 그 기금이, 당신이 나를 지킬 수 없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명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이 구절이 소유권에 선행하는 소유에 대해 이해되어야 할 말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 취득은 사회 안에서만 결정적이라고 칸트가 덧붙였기 때문이다. 자연상태에서는 그것은 임시일뿐이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칸트의 생각에서 취득은 일단 사회적 동의를 의해 결정적이 된 후 사회적 보

<sup>5</sup> 『법형이상학원리 Principes métaphysiques du droit』, 티소 (Tissot) 번역.

## II. 소유권확립의원인들

소유권은경제적모순들의연쇄에서여덟번째서열을차지한다. 이점은우리가 처음으로확인할것이다.

소유권의기원은선점에도, 노동에도관계될수없다는것이증명된다. 이견해들중첫번째것은현상이현상의설명으로주어지는악순환일뿐이다. 두번째것은본질적으로소유권에파괴적이다. 노동을지고의조건으로한다면, 소유권이확립되는것은완전히불가능하다. 소유권을집단적원망願望의행위로거슬러올라가게하는이론에관해말하자면, 이는이원망의동기들에관해침묵한다는결함을가진다. 그런데정작알아야할것은이런동기들이다.

이이론들이별개로볼때여전히모순에밖에도달하지않지만, 그럼에도그것들 각각이일말의진리를포함한다는것은확실하다. 그리고그것들을고립시키는대신에이론전체를함께, 종합적으로연구한다면거기서참된이론, 말하자면소유권의존재이유를발견하게될것이라고도추측할수있다.

그렇다. 그러므로소유권은참여와공동체의모든관념을배제하는주권적, 실질적점유에서시작한다. 아니, 발현한다. 그렇다. 또한이점유는그합법적이고공신력있는형태에서도노동말고다른것이아니다. 이것없이어떻게사회가소유권을양도하고존경하게만드는데동의했겠는가? 그렇다. 끝으로사회는소유권을원했으며, 세상의모든입법은오직소유권을위해서만행해졌다.

소유권은점유에의해, 즉노동에의해확립되었다. 소유권의보전을위해서가 아니라노동자들의교육을위해이를자주환기할필요가있다. 노동은잠재성으로소유권을포함했고, 그법칙들의진화를통해소유권을발생시켜야했다. 노동이산업들의분리, 다음은노동자들의위계, 다음은경쟁, 독점, 공안등을낳은것처럼말이다. 이모든이율배반은노동의이어지는지위들과같은명목에서노동에의해그영원한길위에심어진핏말들로서, 그종합적결합으로써사람들의진정한권리를정식화할운명을던진다. 그러나사실은권리가아니다. 소유권은점유와노동의자연적산물로서예상과침해의원리였다. 그러므로그것은사회에서인정되고합법화될필요가있었다. 노동에의한점유와법적강제라는이두요소는법학자들이그들의주석에서까담없이분리한것으로서, 소유권을구성하기위해결합되었다. 그런데이양도의섭리적동기들, 이것이경제체제에서어떤역할을하는지를아는것이우리에게는중요하다. 그런것이이절의목표일것이다.

우선소유권을확립하기위해사회적동기가필요했음을증명하자.

소유권이국가에의해인정되고합법화되지않는한, 그것은사회외적인것으로남는다. 그것은아버지의인정, 호적부등록, 그리고세례식에의해서만가족, 도시, 그리고교회의구성원이된다고여겨지는어린이와같은위치에있다. 이런형식들이없으면어린이는동물들의증식과같다. 이는쓸모없는구성원, 비열하고예속된, 고려를받지않는영혼이다. 이는사생아다. 이처럼사회적인정은소유

충격을받지않을까? 이신용기관들의임무는실제로노동수단, 크건작건간에기업들의필수생존수단, 산업의힘줄, 다른말로자본을, 그것들을스스로값있게활용하려고하지않거나그렇게할줄을모르는혹은그렇게할수없는소유자들의손으로부터그것들을활용하기에더적합하거나더활용할의향을지닌, 그리고확실한다른손들로넘기는것이다. 그러므로잘조직된신용이있는곳에서성을노동사랑과합치고산업적적성을성실성에합치는사람은, 시간이흐름에따라안락을정복하고, 시간이흐름에따라옛시인이중용이라고칭찬, 영국인들이독립이라는이름으로지칭하는이입장을취할수단이그에게결여되지않았으리라고확신한다. 일단그곳에도달한후사람들은, 몇몇예외는있어도, 통상적인시대에는자발적으로멈추어서서저너머를추구하지않고그들의천막을친다. 그러나예외들자체에대해서는그예외들이이점에서우월한경우에, 우월한본성들에대해신용을가지고서사회적지위의가장높은수준인이산업상의가장높은위치로상승하기가그들에게쉬우며, 거기서부터온몸으로국가의가장저명한작업들로 옮겨간다. 우리의자유주의사회에서수많은눈부신예들을우리가발견하는것처럼말이다. 여러분, 15년전부터두명의상인, 상업의길을따라서상승한두사람이국가의존엄한자리들중최고의자리에, 각료협의회의장의자리에오른것을여러분은보았다!”(슈발리에, <정치경제학강의>, 1845년개회연설)

이제철학자이며서엄격한경제학자인이의말에귀를 기울이고, 강의를잘음미해보자.

“신용은결코미래에대한예상, 자본을창출하는모양을떠서움기기만하는이재학理財學의기만이아니다. 신용은안정적이고저당잡힌자본을유동자본이나저당을벗어난자본으로탈바꿈시키는것이다. 그러므로신용이 기대되는것에기대는것이아니라실물에기대는것이필요하다. 그것은가설이아니라담보를요구한다. … Ex nihilo nihil fit, 무에서는아무것도없다. 그러므로당신이창조하기를원하면, 당신의재료를내놓아보라, 그리고창조의수단으로서창조되어야할것을내놓지말라. 왜냐하면, 이는악순환일뿐이기때문이다. … 신용을침식하는내밀한약, 이는수단대신목표물을할인한다는것이다.”(치에슈코프스키, 『신용과유통에관해』)

표현으로는경탄할만하지만, 논리로는절망적이다! 이와같이신용은선하고건전한경제에서는결코누구에게도주어지지않고담보에만주어진다. 신용은저당잡힌자본을유동자본으로탈바꿈하는것이라고아주옹장하게정의되지만임의의자본을돈으로교환하되취소할수있는교환을하는것, 환대권부매각을하는것이다. 그러므로명칭의원래에도불구하고신용은불신이다. 아무것도보유하지않는사람은결코신용을취득하지못할것이니말이다. 정반대로살기위해쓰이도록강요를받아야자신의노동을 8 일, 15 일, 혹은 30 일동안의신용으로영원히기업가에게제공할것은그사람이다!

그리고사람들은신용이마치담보가가능한자본을소유하는자들에게만접근가능한상품의유통말고다른것이아니라는듯이우리에게신용을조직하라고말한

다! 그러므로 신용의 담보를 조직하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없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이다. 신용의 담보, 알겠는가? 즉 토지, 산업 및 노동의 소유다. 신용은 실물에는 결코 결합되지 않을 것이다. 물물에 대한 신뢰는 한정이 없다. 사람에 대한 신뢰, 인간들에 대한 신용은 어디에서나 결합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노니 창조해야 할 것은 특히 신용의 담보, 개인들에 대한 신뢰의 동기들이다. 노동을 개화하기 전에 노동에 신용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객차의 그림자 안에 승객들의 그림자를 운송하기 위해 철도의 그림자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본질적 조건에 따라 신용은 노동자에게 접근 불가능하며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그의 운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깨어 있는 용이 지키는 헤르페리데스의 황금 사과로, 자신의 방패에 메두사의 머리를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람만 그것을 따낼 수 있다. 신용은 가난한 자들, 일용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신용은 그들에게는 신화다. 왜냐하면 신용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에만 기댈 수 있고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은 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적이며 인적이지 않다. 이 규준이 뒤집히고 반대로 취해질 수 으려 면 자본에 대한 노동의 반발에 의해 전유된 모든 부가 집단적 부로 주장되고 사회에서 간자본들이 사회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이 율 배반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럴 때 신용은 진보의 부차적 기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보편적 연합에서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신용이 거짓말을 하니 이는 신용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이 두 관념의 관계는 비생산성과 빈곤의 관계처럼 필연적이다. 실제로 신용은 돈의 왕권과 자본의 생산성 — 신용이라는 명칭으로 노동자의 예측화를 완성하기 위해 화합하고 단합해 가는 두 허구 — 에 관한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이다.

원리로 돌아가 길게 읊어 하지 말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지배권과 종속이 있는 것처럼, 다른 말로 자본이 사회 안에 불가피한 봉건제를 시작하는 것처럼, 돈과 다른 상품들 사이에는 역시 지배권과 하급지위가 있다. 물건들의 위계는 인간들의 위계를 재생산한다. 리카도의 체계 혹은 치에슈코프스키의 체계에 따라 모든 교환이 은행권 혹은 담보해제가 가능한 자본의 소유권을 매개로 행해질 때 에라도 금속화폐는 여전히 깊은 한가함과 왕의 무사태평 중에 신용을 지배하는 숨겨진 신일 것이다. 유통하는 가치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되는 것은 그것의 형상을 따라서이니 말이다. 화폐는 언제나 그것들에 척도로서 사용되니 말이다. 그 검인이 말하자면 어음 위에 찍힐 것이니 말이다. 어음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리고 자발적으로 돈으로 상환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만 여론에 대한 신인도를 취득하고 상거래에서 신용을 취득할 것이니 말이다. 끝으로 허구의 이 일반성에도 불구하고 가치물들의 실제적 구성은 예전보다 더 앞선 것이 아닐 것이니 말이다.

실제로 국가의 재산에 대해, 그리고 나라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담보 설정된 수십억 프랑의 정기수령금수령권을 발매하는 이 중앙은행에 의해 무엇이 연결될 것인가? 엄청난 토지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 돈으로 평가된 토지 자본과 노동 수단

자들의 고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고용은 줄어들고 있는 노동자들을 유류로서 거기에 들어 가게 해서 노동자들의 대가족을 완성하기만 하면 되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충분한 이해에도 달하기 위해, 사회 질서에 대한 관념을 취득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된다. (1) 소유권이 그 부분을 이루는 모순들의 계열을 확정한다. (2) 일반적 방정식을 이용해 계열의 실증적 공식 제시한다.

우리의 희망 사항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이 과업의 첫 번째 부분을 완수할 것이다. 소유권은 가치의 진자 운동을 확정하는 일반적 사실들 중 하나다. 그것은 노동 분업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끝나서 모든 가치들의 구성으로 해소되는 자생적 제도들의 긴 계열의 구성 부분이다. 벌써 우리도 경제적 모순들의 체계에서, 뒤집어 본 용단처럼 우리 미래 조직의 뒤집어 본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작품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문제의 두 번째 부분을 풀기 위해 우리는 말하자면 바로 잡기를 실행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리상, 모든 단독의 존재, 즉 분리되지 않거나 공모자가 없는 존재는 그 자체로 분별 불가능하다. 이는 정신과 물질과 같이, 모든 발현되지 않은, 혹은 같은 말이지만 계열별로나 누어지지 않은 본질들과 같이, 오성에 접근 불가능한 것, 정신에게는 감정, 신비로 해소되는 것이다. 벌써 논리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강제하는 무한의 존재는 관찰이 그 존재를 확인해 준 후에도 여전히 사람에게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할 것이다. 그의 안에 있는 아무 것도, 그의 밖에 있는 아무 것도, 그가 그 근원이 자버팀 목이 되지만 그것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영원도, 편재 遍在도, 전능도, 무한의 과학도, 창조도, 진보하는 인류도, 집중과 고독에 종지부를 찍지 못해서, 그러한 존재는 영원히 미지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성 이 점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라고는 부정, 혹은 같은 말이지만 신앙이다.

그러므로 삼단 논법, 귀납법, 이율 배반, 계열은 지성의 완벽한 무기를 이룬다. 다른 어떤 변증법적 수단도 그 이상으로 발견될 것이 없다는 것은 알기가 쉽다.

삼단 논법은, 말하자면 관념을 위에서 아래로 전개한다.

귀납법은 이를 아래에서 위로 재현한다.

이율 배반은 이를 정면으로 그리고 측면으로 파악한다.

계열은 이를 추적하고 견고성과 깊이에서 이를 꿰뚫는다.

앞의 장場은 다른 차원들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 이제부터 우리는 논리가 만들어졌고 상식이 조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의 조직은 상식의 조직의 불가피한 계係이므로 사회가 곧 그 확실하고 확정적인 구성에도 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순간부터소유권은알려지기시작했다. 소유권의내적본성은베일이벗겨졌고그것의미래는예측되었다. 그럼에도비판은그과업의반을충족하지못했다고 말할수있었다. 소유권을확정적으로구성하기위해서, 그로부터그배제특성을 빼내기위해서, 그리고그것에종합적형태를부여하기위해서그자체를분석한것으로충분하지않았고, 소유권은그것의한특정한계기일뿐인관념들의질서, 그것을둘러싸고그바깥에서는소유권을이해하기도, 영향을끼치기도불가능한계열을재발견할필요가있었다. 이조건없이소유권은현상을유지하면서사실로서공격불가능하고, 관념으로서분별불가능한채로남는다. 그리고이현상태에반대해착수된모든개혁은사회와관련해서아마도부모살해가아니라면회피일수밖에 없었다.

실제로우리가글을쓰는순간에소유권은여전히우리의과학에서는우리의경제적관습에대해서와마찬가지로법적성격을뒀다고, 소유권밖에서는최근시기에사회주의에서시도한노력에도불구하고아무것도알지못하고아무것도상상하지못한다는것, 법률학에서도상공업에서도쟁점을발견하지못한다는것, 소유권이파괴되고서사회는끝없는조직해체로떨어진다는것, 소유권을그이울배반적인본성에서알기를배운후우리는소유권이그확정적공식을어떻게실현할것인지, 현실서로부터어떻게세상에서아무것도우리에게그관념도알려주지않는 새로운질서가나올것인지를더잘알지못한다는것, 내가말하노니사람들은이모든것을생각하고서오로지이울배반의장점에의거해어떻게우리의경험과이성을한꺼번에고갈시키는현제도로부터우리가마찬가지로관념들과사실들을결여하는사회적형태를정하는것에도달할지를질문한다는것을감히성찰해보기바란다.

이를인식할필요가있다. 이울배반은그자체로소유권인것을입증하면서그결론을말했다. 그것은그것을넘어서나갈수없다. 또하나의논리적건축물이필요하며, 소유권이여러항목들중하나일뿐인진행대열을발견하고그바깥에서는소유권이고립된사실, 고독한관념으로만나타나서언제나상상이불가능하고척박한채로있는, 그러나그안에서는소유권이자기자리를다시잡아서그에따라그것의진정한형태가조화롭고참된전체의필수부분이되고, 그부정적특질들을상실해평등, 상호성, 책임, 질서의긍정적속성들을다시띠게될계열을구성할필요가있다.

이처럼우리가화폐라는, 우리에게고립되고경제학자들의책들에서보조역할자도없는것로나타나는이사실, 이런이유로현재까지설명이불가능한것으로남은이사실의역할과철학적인미를우리가발견하기를원했을때, 우리는화폐가그로부터떨어진하나의고리라고가정한연쇄를연구했고, 이단순한가설에의거해우리는어려움없이화폐가우리의산물들중첫번째것으로서그가치는사회적으로구성되었으며, 이런이유로모든다른산물에전형으로소용된다는것을발견했다. 또한이처럼우리가조세라는또하나의고립된사실, 정치경제학에서아주많은아우성의대상인이것의본성을알고그에대해하나의이론을만들필요가있을때, 우리는비생산적노동자들, 즉그보수가결코교환에의해생겨나지않고다른노동

이유동화되고전달가능해지고한마디로유통에던져넣어지면서도금화한냥도격식도필요없을것이다. 오늘날프랑스에서이야기되는유통의규모인 40 억프랑 대신에이유통은급속히 200 억이나 300 억프랑에도달할것이다. 그리고원리들의명례를위해덧붙일필요가있는것은, 담보물의다양함으로이엄청난유통의재료는감가지않으리라것이다. 사람들은모든상품을금과같은명목으로지불시에받아들여지는것으로만들가치구성의허깨비를보게될것이다. 그러나화폐화된자본들이상거래에들어가려면그명목가치의사전적인, 보장된감을겪어야할것이니사람들은이구성의실질을보지못할것이다.

그러므로신용은모든사회적가치들의비례성을확정하면서그가치들을그자연적이고정당한율로형성한다는정치경제학의목표를완수하지못하는것이증명된것으로내게여겨진다. 정반대로신용은동산과부동산의가치물들을담보해제하면서척도재에대하고것들의종속성을선언하기만한다. 그것은거침없는유통을창출하는대신척도재의왕권과다른재화들의종속성을확인하며모든가치물들에대하고것들을유통가능하게만들목적으로그것들에게격계하는공제로써통행료를책정한다. 한마디로신용은그것을둘러싼여러모호한것들의문제를치우기만하고해결하는것은아니다.

이는게다가치에슈코프스키씨가실토하는것이다.

그는이렇게말한다. “신용과유통의개발이용, 이는민족의가장관념화되고가장일반화된가치물들의개발이용이다. 이는말하자면산업이다. 하지만어떤특정총가치와직접적가치에대해서가아니라모든가치의일반적요체에대해서, 모든실제적부의승화된산물에대해서작동하는산업이다. 그산물의추출후에그정화의잔여물이찌꺼기이상으로내놓는것은거의아무것도없다.”

그러므로다음과같은것이바로신용의조작이다. 그것은광석안의금부스러기처럼불완전하게교환가능한가치물들(노동수단들과산물들)을단일한전형(돈)에가져가서부를일반화하고정화하는것으로(6 의값이나가는것을 4 로평가함으로써) 시작한다. 그리고나서중앙기관에, 신비가완수되는돈의궁전에이모든일반화되고정화된가치물들을수렴시킨다.

마지막으로그조작을모든면에서고찰하면서검토해보자.

우선신용은그자체가담보로잡힌자본들처럼다양한형태를화폐에주면서금속가치물어떠한감가도가지않는다. 금과은은그가격과잠재성을보존한다. 신용증서는아무리그것들과동행해도, 심지어어떤의미에서는이자를받으니그보다더우월해도그것들의소유권을빼앗지않는다. 정반대로담보로잡힌자본을그것들처럼유통가능하게만들어서서로간의비율을표시하기만한다. 증대된것은금속의양을두배로하거나감자기 10 억프랑의국정지폐를발생할때그렇게되는것처럼화폐상품이아니다. 운동에놓이는것은사회적부의무한한다양성과그것의무수한형태와함께사회적부자체다. 이는정치경제학의궁극적목표인가치의이절대적형성을향한새로운발걸음, 결국거대한발걸음이다. 실제로이형성을확정적으로만들려면신용에서위계를평등으로대체하고, 모든가치물들을유통가

능한것으로만들기만하면된다. 공제화할인의이득속에서만이아니라액면가대로말이다. 이것이화폐의본질적특성이다.

그런데신용이신용이기를중단하지않고, 즉상호성, 연대그리고연합으로탈바꿈하지않고, 한마디로이자의예속을사라지게하지않고는뛰어넘을수없는것은, 그너머로노동자와자본가가평등해지고비슷해지는이간격이다.

이자, 대금업, 고위성적록취득권, 십일조혹은내가예전에그렇게불렀듯이 횡재권은자본의필수적특성, 그것의특권의표현, 따라서신용의필수불가결조건이다. 이이자는토지및동산자본들의담보해제에의해, 그리고정기수령금수령권의창조에의해중단되는가? 그러기는커녕더큰규모에서더큰일반성, 규칙성, 확고함을가지고작용한다. 그러므로사회적구성에서아직아무것도달라지지않았다. 그리고사회적구성의기초인적대는활동과에너지의가중만이었다.

그런데이메커니즘은무엇으로이루어지며, 이자의속성은무엇인가?

이는사회안에서순생산이총생산을넘어존재하기를바라는것, 허구적자본, 명목적부, 수입이선행하지않는지출, 있을수없는자산을끊임없이창조하는것이다. 이는한마디로불가능을가정하는것, 그리고결과적으로생산하는자들과허구에따라서신용을받는자들의손에서, 생산하지않고같은허구에따라서신용을주는자들의손으로끊임없이부를흘러들어가게하는것이다. 이는세번, 네번모순된것이다.

그러므로금속가치물, 유일하게구성된가치물이고, 모든교환에서수용가능한가치물인금속가치물을가용한것으로처분하는자본가는내가말하건대노동자를돕고, 상업과생산을촉진하고공적재산에그가할만큼기여하기를원해서그의고객들의재산권을담보로잡고, 그들에게돈이든자신에대한한어음이든교부한다. 이는그의이득을두배로높여주는것이다. 이모든것을이자를통해서하는데, 이는끊임없이대출된것과동일한척도재를은행에돌아오게하는것이다. 그렇다고해서이자지불의무가없어지는것도아니다. 그리고대금업에의해되돌아오는대출된금액이계속해서다시대출되는것처럼, 토지, 가옥, 그리고모든민족적동산은은행가들의이익을위해담보로잡히고저당잡히는일이곧일어난다. 이양도운동은아주속도가빨라져서이를천체운동에만비교할수있다. 프라이스 (Price) 박사는기원원년부터 1772 년까지복리로투자된 10% 부가세는지구크기의별 1 억 5000 만개가보유할수있을만큼보다많은금을산출할것이라고계산했다.

돈은언제나대출되자마자재포착되고따라서언제나더욱간곡하게요청되는것인데부족해지는가? 은행가는자신의신용표인지폐를발행하는데이는작은사고들과어떤계산착오에도불구하고척도재와마찬가지로그에게지체없이돌아오며, 언제나증가된수요를가지고서돌아온다.

담보로지원을받는은행지폐는이제그만하면충분하지않은가? 정기수령금수령권을창조한다. 자본에서남는것전부를유통에넣는다. 부채상각의새로운조합들을발명한다. 대출의가격, 계약비용을낮춘다. 기한을연장한다. ... 그러나결국자본이무료로대출되는것은불가능하므로, 자본이교부된대로돌아올수는

신비주의자들, 이성을공포스럽게여기는이사람들, 사실이언제나그사실이 존재하는것만으로충분히설명되고정당화한다는이사람들의횡설수설에대해서는무엇이라말하는가? 그들은말한다. 소유권은사회적자생적창조물, 섭리의법칙, 그효과라고. 섭리앞에서우리는신에게서나오는모든것앞에서처럼우리아신을낮추는것밖에할일이없다. 아! 인류가자생적으로원한것, 높은이의허락을 받아서성취하는것보다더존경할만하고, 더공신력있고, 더필요하고, 더거룩한것을발견할수있을까?

이처럼종교는그나름대로소유권을성화聖化해간다. 이조집에서이원리의 견고성이약하다는것을판단할수있다. 그러나사회, 다르게말하면섭리는공공선의관점에서만소유권에찬성할수있었다. 섭리에대해표해야할존경심을결여하지않으면서그때그배제행위들이어디서나오는지를묻는것이허락되는가? ... 공공선이절대로소유권들의평등을요구하지않는다해도, 적어도그것은소유권자쪽의일정한책임을내포한다. 그리고가난한자기적선을요구할때십일조를달라고하는것이주권자다. 그러므로소유권자가그누구라도결고려하지않고인정하지않는주인이면서아무리별것아닌것에대해서도이를나누어가지는것은어디서연유하는가?

이모든관점에서소유권은분별불가능하다. 그리고소유권을공격한자들은그들의비판이조금도효과가없으리라는것을계산했을수있듯이사람들이그들에게 응답하지않으리라는것도미리확신할수있었다. 소유권은사실로존재한다. 그러나이성은소유권을정죄한다. 여기서실재와관념을어떻게화해시키는가? 사실안에이성을어떻게통하게할까? 이아말로우리가할일로남는것이고아무도아직 명확하게이해하지못한듯한것이다. 그렇기는하지만, 소유권이그렇게초라한수단에의해호호될것인한에서소유권은위험에처할것이다. 그리고새롭고더위력 있는사실이소유권에대립되지않을것인한에서, 소유권에대한공격은미미한항의일뿐일것이고, 거지들을불러모으고소유권자들을성나게하는데만좋은것이다.

끝으로새로운논리의도움으로진행해나가면서다음과같이말하는비판이나왔다.

소유권은사실상으로, 권리상으로, 본질적으로모순이다. 그리고소유권이무언가인것은바로이이유때문이다. 실제로,

소유권은점유권이며, 동시에배제의권리다.

소유권은노동의대가이고, 노동의부정이다.

소유권은사회의자생적산물이고, 사회의해체다.

소유권은정의의기관이고, 도둑질이다.

이모든것에서어느날변형된소유권이적극적인, 완전한, 사회적이고참된관념일것임이결과로나온다. 옛소유권을폐지할소유권은모두에게똑같이실질적이고이롭게될것이다. 그리고이를증명하는것은, 다시한번말하지만소유권이모순이라는것이다.

는 모든 것은 충분한 존재를 누리지 못하며 분별 가능성과 지속성의 모든 조건들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에 의한,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한 존재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내적 관계들에 외적 관계들을 합칠 필요가 있다.

소유권은 무엇인가? 소유권은 어디서 오는가? 소유권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야말로 철학의 흥미를 가장 높이는 정도로 끄는 문제다. 탁월하게 논리적인 문제, 사람과 사회와 세계가 그 해결에 의존하는 문제다. 왜냐하면 소유권 문제, 이는 다른 형태에서 확실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유권은 사람이고 소유권은 신이고 소유권은 모든 것이다.

그런데 아무서운 문제에 법률가들은 그들의 선함을 증명하려 하며 대답한다는 것이다. 소유권은 사용하고 남용할 권리, 점유와 전유에 의해 발현되는 의지의 행위에서 결과로 나오는 권리다. 법률가들이 우리에게 절대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전유가 사람의 운명의 성취에, 그리고 그의 근면의 행사에 필요함을 인정한다면, 그로부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유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서 보유는 동등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언제 나 변화하고 이동 가능하며 증가와 감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유자들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는 소유권의 부정 자체다. 선형적 추론자들인 법학자들의 체계에서 소유권은 자기 자신과 합치하기 위해서 자유처럼 상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취득, 즉 전유권의 모든 궁극적 행사는 동시에 취득자 쪽에서는 자연권의 향유로 드러날 것이며, 그의 동료들에 대해서는 명령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모순적이고 불가능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공리주의적 귀납에 근거해 그들의 순서가 되어나서서 우리에게 말한다. 소유권의 기원은 노동이라고. 소유권은 노동하면서 살 권리, 자신의 저축, 자본, 지력과 근면의 결실을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처분할 권리다. 그들의 체계가 더 굳건한 것이 아니다. 노동, 실질적이고 생산성 있는 점유가 소유권의 원리라면 노동하지 않는 자의 소유권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임대료를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노동에 의한 이 소유권의 형성으로부터 노동 없는 보유권을 어떻게 도출하는가? 30년 간 견지된 노동으로부터 영구적 소유권이 온다고 어떻게 납득하는가? 노동이 소유의 원천이라면, 이는 말하자면 소유권이 노동의 보수라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 교환이 소유권에 아주 괴한 불평등을 가져오는 산물들의 공통 척도는 무엇인가? 소유권은 실질적 점유의 지속 시간, 노동의 지속 시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그렇다면 소유권은 인적이며, 양도 불가능하고, 이전(상속) 가능하기를 그친다. 이는 더 이상 소유권이 아니다. 법률가들의 이론이 순수한 자라면 법률가들<sup>4</sup>의 이론이 순수 일상 관행이라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가? 게다가 그 이론은 그 결과들에 따라 아주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서 한히 드러나자 거의 곧바로 버려졌다. 그중에서도 라인강 저편의 법률가들은 거의 모두가 선점 先占의 체계로 돌아왔다. 변증법의 나라에서 거의 믿기지 않는 일이다.

<sup>4</sup> 문맥상 '경제학자들'의 잘못으로 보인다. -역자주

없으므로, 끝으로 자본의 이자는 아무리 작을 지라도 자본 자체는 이득을 보면서 무한정으로 재생산할 순간부터 언제나 노동이 생산자에게 남기는 초과분을 초과하므로, 한민족 안에서 노동이 말하자면 계속해서 자본의 이익에 종속될 필연성, 계속해서 또한 파산과 빈곤이 균형을 재확립할 필연성이 있다.

프라이스박사와 그의 제자 피트(Pitt)는 복리를 기초로 계산하던 때에 그들이 신용의 모순을 수학적으로 입증해 온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형태들의 다양성, 조합들의 미묘함, 운송의 용이성, 상황에 부여된 관대함, 이 모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균형은 신용을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하는 조건에서만, 즉 자본가와 노동자를 같은 정도로 채권자들과 채무자들로 만든다는 조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는 독점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돈이라는 낯은 우상이 은퇴하게 될 이 보편적인 자본의 담보해제, 이 정기 수령금 수령권의 지배가 가장 속히 올지 어다. 그리고 우리는 시인들이 신의 연인이자 자연의 여왕으로 묘사하는 인류가 유녀 遊女 처럼 눈에 불을 켜고 목을 헐떡이며 노름 탁자 앞에 앉아 노름을 위해 생산하고, 여전히 노름을 위해 구매, 판매, 투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노동수단들은 노름에 거는 판돈이면서 동시에 노름의 도구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시장들은 증권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고, 도로들은 위험한 장소로 전환될 것이다. 항해는 해적질 일 것이다. 모든 예술과 모든 과학은 가짜 열쇠, 도둑질을 위해 장만하는 꿀, 집게, 톱의 제조 공장 같을 것이다. 그리고 섬뜩한 자살사건들, 잔혹한 복수극, 해체, 약탈, 무정부 상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피로에 지쳤지만 만족하지 않은 사회는 지옥 같은 원무 圓舞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오지에씨는 아무서운 미래의 모습에 관해 이렇게 소리친다. “관습 이후 안무춤을 끌고 와서 인간 가족의 군집이 공평을 비웃는 법의 지배를 받고 모든 시대에 정직한 사람들이 정착시키고자 추구한 정의에 맞서 우선적으로 결탁한 도둑들이나 체계적인 파산자들의 본거지가 될지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끝으로, 과거에도 유례 없는 도덕 관념이 아메리카의 여러 주들에서 48 시간 동안 본 것, 한꺼번에 100개 은행의 도산, 정부의 도산, 그리고 이어서 그 광경에는 없던 것, 하루 안에 모든 시민의 도산을 영구적으로 재현하고 실현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도형 徒刑을 위한 꿈 같은 요정이야겠거리, 새로운 장르의 농지법 종류다!”

어떻게 이를 더 의심하는가? 독점 체제에서 신용의 조직은 사회의 미래를 운에 맡기는 것이다. 이는 민족들의 돈을 몽땅 거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잃고 끊임없이 파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사회 안에서 총생산과 순생산의 차이가 빈곤의 유일한 진정한 원인이므로 과학의 요란함과 장식의 변화 때문에 은폐되어 감지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는 반면, 산업 역학의 진보, 경쟁의 투쟁들, 거대 회사들의 형성, 의회의 선동, 교육, 조세, 식민지 개척, 대외 정책의 문제들이 공공의 관심을 흡수하고 그 거대한 이익으로부터 관심을 흩어 놓는 반면, 신용은 가치 물들의 일반화에 힘입어, 그것들의 담보해제와 단일 창고에 들어 있는 그것들의 풍부함에 힘입어 빈곤의 체제를 폭로하고 우리에게 우리 사회 질서의 수학적 불가능성을 입증할 준비를 한다.

정치경제학은 가치들의 형성의 방향으로 사회의 움직임을 인도하면서 사회에 관해 영구 운동의 문제, 기계공들과 경제학자들이 한 마음으로 해결의 조건을 보유했으므로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선언하는 문제를 풀기를 갈망한다. 운동은 영구적일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에서 그렇다. 이는 자생적이라는 것, 그 기계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 힘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주에는 운동의 영구성이 있다. 거기서 운동은 물질 내적인 힘, 인력인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명은 동물 안에서 영구적이다. 유기체에 내적이고 유기체를 창조하고 일정한 정도로 요소들을 지배하는 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으로써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것조차 증대시키는 것이 생명의 본성인 것처럼, 생명이 분자적 인력에 짓눌리고, 자생성이다른 자생성에 짓눌릴 때가 온다. 그러나 생명은 인력과 똑같이 영구적이다.

그러한 것이 또한 사회에 활기를 주고 사회를 발달시키는 힘, 자생적이고 불멸인 힘, 말하자면 우리의 모순들은 그 흔들림 일뿐인 힘이다. 신용의 가설에서 사람은 특권에서, 오직 특권에서만, 그리고 언제나 특권에서, 즉 소외에서 생산력, 노동에 내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사회의 내장 안에 거주하는 힘이 나오게 한다. 신용이 그것의 모든 조항들을 가지고서 숙명적으로 부동성과 죽음에도 달하는 것이 놀라운가? 신용에 의거해 노동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권, 그 특권은 노동자가 생산을 하면서 특권의 이익이 되도록 례명하지는 않으면서 빼앗기는 시간만큼만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복리이론에 따라 노동에 대출된 자본은 14년마다 두 번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신용의 완전한 조직에서 노동은 14년마다 그 가운데 시킨 자본을 상실한다는 결과가 된다. 그 결과는 자본에 대해서 균형이 파산으로밖에 확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 발전의 법칙은 신용의 법칙과 전혀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진행하게 만드는 원리와 합치하려 면 소유하는 자들의 소유를 박탈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리라는 것이다. 우리의 앞선 모순들이 풀리지 않는 한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상상 가능한 모든 공식들으로써 신용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에 기대야 한다는 것, 신용은 가설이 아니라 담보를 요한다는 것을 말하고 반복할 지어다. 이 모든 이론은 특권의 일상 관행에 자리를 차지하는 누구에게나 난공불락의 이론이지만, 결국에는 자본들을 사회에서 총체로 고려할 때 자기 자신 말고 다른 담보를 가지지 않으며, 서로 간에 신용을 줄 경우에는 자신들의 실물 말고 다른 담보를 가지지 않으며, 서로 간에 신용을 줄 경우에는 자신들의 실물 말고 다른 실물에 기댈 수 없으니 이 이론은 근본적으로 무능하고 허위를 확신하는 입장이 된다. 로(Law) 가 신용의 이 모든 모순을 일거에 뛰어넘어 신화 위에 그 기초를 두게 하려고 (물론 원가를 통해 상상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했을 때, 그리고 이론은 참으로 신용이 물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했을 때, 우리 세기의 이론가들보다 더 많은 솔직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회에서 이자의 진행은 숙명적으로 차입자의 지불 불능을 가져와서, 물질적인 것으로 시작하는 신용이 결국 완전히 인적인 것이 되는 것, 에스파냐에 있는 성들에 기대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때부터 채무

턴과 허설 같은 이들의 더 심오한 과학이 하늘에서 그 별들을 조율해주는 관계들을 발견하기까지 그랬을 것이다.

이율배반에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은 과학은 사람과 자연의 이해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마지막 변증법적 수단이 필요해진다. 그런데 이 수단은 진행, 분류, 그리고 계열의 법칙이 아니면 무엇일 수 있는가? 그 일반성에 삼단 논법, 귀납법, 이율배반 자체를 포괄하고 음악에서 성악이 화음에 대해 가지는 관계를 이율배반에 대해 가지는 법칙 말이다.

이 법칙은 신이 동물들과 식물들을 종류에 따라 창조하는 창세기의 제 1 장을 다 시 읽을 때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시대에 알려진 법칙으로서 특히 현대의 박물관 자들에 의해 조명되었다. 이 법칙은 수학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 철학자들은 예술가들처럼 이를 미(美)와 진(眞)의 순수 본질인 것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누구도 그 이론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목표를 위해서 다른 저작을 참조하게 하는 나를 양해해 줄 것이다. 그 저작에서는 의문의 여지 없이 내가 적성보다 선한의 지를 더 많이 증명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sup>3</sup>

자연적 군집들에 의한 관념들의 진행, 계열, 연합, 이런 것은 상식의 조직에서 철학의 마지막 발걸음이다. 다른 모든 변증법적 수단들은 그것으로 환원된다. 삼단 논법과 귀납법은 고등 계열에서 떨어져 나오고 다양한 미로 고려된 파편들일 뿐이다. 이율배반은 중간 지점들과 내부적 운동에 대해서는 사소한, 작은 세계의 양극의 이론과 같다. 그 계열은 관념들의 모든 가능한 분류 형태를 포괄한다. 그것은 일체이며 다양성이고, 자연의 참된 표현이고 따라서 이성 의 지고의 형태다. 하나의 계열에 관련지어 질 수 있는, 혹은 계열로 분산될 수 있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정신에 분별 가능하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립된 것으로 나타나는 모든 피조물, 모든 현상, 모든 원리는 우리에게 분별 불가능한 것으로 남는다. 감각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그것의 선행자들, 결과들, 그리고 보조정리들, 즉 계열, 가족을 재발견하기까지는 이를 배척하고 이를 부정한다.

이 모든 것을 더 감각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본장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 소유권에 그것을 응용하자.

이 절의 개요에서, 소유권은 경제적 계열의 바깥에서는 분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소유권이 정신적, 형이상학적 혹은 심리학적 어떤 선험에 의해서도 (삼단 논법의 공식), 입법적 혹은 역사적인 아포스테리오리 à posteriori 에 의해서도 (귀납의 공식), 내가 소유권에 관한 논문에서 한 것처럼 그 모순적 본성의 해설에 의해서조차도 (이율배반의 공식) 충분한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비적인, 유사한 혹은 들어맞는 발현물들의 어떤 질서에서 소유권이 정리되는 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그 계열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립되는 모든 것, 그 자체로, 그 자체에 의해, 그리고 그 자체를 위해서만 자신을 언명하

<sup>3</sup> 『인류에서 질서의 창조 Cr ation de l'ordre dans l'humanit 』, 1 vol. in-12, Paris, Pr v t, rue Bourbon-Villeneuve, 65; Guillaumin, rue Richelieu, 14.

이순간에필요해지는것은삼단논법과귀납법의, 따라서개별적인것과함께일반적인것의속성들을결합해서, 이성과경험을동시에다루면서한마디로우주를구성하고무로부터모든존재를나오게하는이원론을모방해언제나틀림없이적극적진리를유도할새로운수단이다.

그러한것이이울배반이다.

하나의관념, 하나의사실이모순적관계를제시하고상반되는두계열로그결과들을전개한다는것만으로도기다릴새롭고종합적인관념의추출이었다. 그러한것이삼단논법과귀납법의대립과조합으로부터형성되는새로운기관器官들의보편적인, 따라서무한히달라지는원리이며, 이기관은누가뭐라하든지고대인들이단지얼핏짐작하기만한것이고칸트는그계시자였고, 그의계승자들중제가장심오한사람인헤겔에의해아주큰위력과터뜨림으로가동되었던것이다.

이울배반은자기가어디서오는지, 어디로가는지, 그리고자기가다니고가는것이무엇인지를안다. 그것이내놓는결론은사전의명증조건도, 궁극적명증조건도없이도참이며, 그자체로참이고, 그자체에의해참이며, 그자체를위해참이다.

이울배반은필연성의순수표현이고, 존재들의내적법칙, 정신의기복起伏운동의, 따라서정신의진보의원리이고개인안에서처럼사회안에서생명의필요불가결조건이다. 우리는이책의흐름에서이경이로운수단의메커니즘을충분히알렸다. 아직말하지않고남아있는것은우리가다들부분들에서연이어서자리를잡을것이다.

그러나이울배반이속일수도없고거짓말할수도없다고해도그것은진리전체가아니며, 이수단에한정될때, 상식의조직은이울배반에의해정해지는개별관념들의배열을상상의자의에맡긴다는점에서, 그것이결코자유도, 종도, 진행도, 진화도, 끝으로체계, 즉바로과학을구성하는것도설명하지않을것이라는점에서불완전할것이다. 이울배반은여러개의돌들을자를것이지만, 이돌들은홀어진상태로있을것이다. 결코건축물은없을것이다.

그래서지극히피상적인관찰만으로도인체의기관들의짜를지은분포를보여주기에충분하다. 하지만상반되는것들의거대한법칙의진정한화신인이이분법밖에모르는자는아주복잡하지만단일한우리조직에대해하는것과는거리가멀것이다. 또한가지에가있다. 선분은자기자신에대립하는한점의운동에의해이루어진다. 평면은선분의유사한운동에서태어나며, 입체는평면의비슷한운동에서태어난다. 수학은이이원론적통찰로가득하다. 그렇다고해서이원론은, 사용되는것이그뿐이라면수학을이해하는데조금도덜척박하지않다. 이원론에의거해선분의관념으로부터삼각형의관념을도출하려 시도해보라. 양, 질등상반된개념들로부터일곱빛깔의광선, 일곱음색의음계의관념을추출하려 시도해보라. ... 이처럼관념들은그들의모순적관계들에따라개별적으로정해진후에여전히그것들을군집화하고, 모양을만들고, 체계화하는법칙을필요로한다. 이법칙이없다면그관념들은최초의천문학자들의변덕이환상적인별자리들로결합할수있었지만그렇다고해서서로덜생소한것은아닌별들처럼, 고립된채로남아있을것이다. 뉴

자가다른어떤사람인것보다국가의공직자인것이더났다. 도덕적담보의문제에서국가의공직자가가장확실하다. 그리고이채무자가전능하니, 결과적으로다른어떤채무자와는반대로신용을받는대신신용을주는것이그다.

가능하다면, 이사람이당시에아무도그비밀을알지못한이모든모순들의와중에어떤정신적고통에서로잡혀야했는지를상상해보라. 결국에그가미라보가말한것처럼이모든조합들이붕괴에, 무서운파산에도달하는것을보았을때나중에어떤현기증에쓰러져야했는지상상해보라. 우리에게는로라고하는이우수한지능을가진사람, 불가능한건축물인사회의영구운동을신용으로써추구한대담한모험가이자, 경이로운정확성을가지고추론하면서그논리자체로인해여전히모순으로, 무로인도된그가어떤자였는지를이해하는데는역사상유례없는 50년 이상의철학적발전이우리에게필요했다. 이사람이그를이해한다고믿은자들에게경탄을받고, 그를이해하지못한자들에게는욕설을들어야할사람인지판단해보라! 로는물론현자의돌로서왕국에서왕국으로퍼뜨린이무서운이울배반에대한모호한감을지녔다. 왜냐하면우리는그가미시시피에대한그의주식가치에관해환상을품었다고인정할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그에게는이론이논박한의심을고려하는것이불가능했다. 그리고사태들에의해압박을받고통속적인일상관행에서결코멀어지지않았다고확신한그는형이상학적경험을위해제국을붕괴시키고나중에모두의저주를집어지고물러날것을무릅쓰고미지의것에손을댈결심을했다. 내가이사람에게서가장경탄하는점, 로를내눈으로볼때정말역사적인물, 이상적인물로만들어주는점은, 그가그러한경험은그것을겪는고통의값어치가있다고믿었고주저하지않았다는점이다. 결국로는결코사회자본을훼손하지않았으며, 이를옳기만했다. 노동은안녕의맛으로변함이없었다. 인민은그실험을하는데서아무위험도무릅쓰지않았다. 탐욕적이고, 한가하고, 타락한귀족계층에대해본다면, 로의염려를받을만한그런자격이그들에게는없었다. 그런점에서사기꾼들과얼간이들의제거만이있을것이었다.

로의관념들은아무에게도, 심지어저자에게도이해되지못했다. 그리고그후로이에대해말해오고아직도말하는역사가들과똑같이경제학자들도그신비를더잘 꿰뚫은것으로보이지않는다. 그러므로경험이재현될필요가있다. 그리고그시도가지극히일반적이라도, 어떠한행운도그것을피해가지않도록모든것은오늘날경이로운총체를이루어채비를갖춘다. 치에슈코프스키와볼로프스키씨는주된탐험대상들이다. 담보물법을개정하고토지신용을조직할책임을맡은위원회를구성하는위원들이탐험대를이룬다. 오지에씨는대재앙에대해미리우연예레미아다. 정치경제학, 금융, 강의와사법司法의거봉들이공적회의에힘입어과학과이해관계의이름으로발언하면서그들의관념을국가의거대권력자들에게채택되도록하고, 입법자에게강의를한후에민주주의, 귀족정그리고왕정을담은우리의낡은짐꾸러미에은행주의 bancocratie, 파산의통치를더했을때누가감히불평할것인가?

신용은조세와마찬가지로위선자이고, 독점과마찬가지로약탈자이고, 기계들과마찬가지로노무자다. 미묘하고완만한감염처럼그것은인민대중에예전 재앙들의더집중화되고더국지화된효과를퍼뜨리고확장하고분산시킨다. 그러나그것이신앙심, 노동, 진보, 연합, 박애등어떤가면을쓰고있든지신용은도둑이고살인자이며, 산업적봉건제의근원이고수단이고목적이다. 히브리사람들의입법자가그의인민에게다른민족들에게는신용을주더라도그들로부터결코신용을받지말라고권고했을때, 이런조건에서그들에게지배와제국을약속했을때그는이모든깊은내용들을헤아린것이다.

그러하여많은민족이너희에게돈을꾸겠지만,  
너희가남에게서돈을꾸는일은없을것이다.

많은민족이너희의다스림을받겠지만,  
너희가남의다스림을받지는않을것이다.

— 신명기 15 장 6 절

야훼에게는흔히불충성하고맘몬에게는언제나신실한유대인들이이계명은 결코어긴적이없다. 그리고오늘날모세의약속이성취되었는지볼수가있다.

신용은직접적으로생산자만을타격해작동하는것이아니라간접적방식으로 소비자에게정률세로부과되는식으로작동한다. 이야말로신용의작용이보통사람에게는지각불가능한것으로남고여론을일으키지않는이유다. 생산이라는분화된이익은여기서모든조세문제에서와마찬가지로소비라는집단적이익을이긴다. 힘은집중됨으로써증강한다고말하는것처럼 — 합쳐진힘이더크다 (vis unita major) — 나누어진힘은덜해본다고말할수있다. 그리고신용의마력과 지속은이원리위에서확립되었다. 모든사람은돈을따면노름에서벗어나겠노라고다짐하고자신에게부담을지우는이익을공중에게전가해신용을요구하는데의견합치를이룬다. 아무도파괴적효과를쫓아버리는데신경쓰지않는다. 이런복권에서운세는은행가가언제나따도록조합된다는것, 결국항상적으로은행에결합하고마는몇몇행복한이들을제외하고는생산물의부가세가보편적이고상호적이라서각생산자는그가자기자신의신용의무게를, 나쁜양심의짐을혼자서지는경우나마찬가지로짊어진다는것을사람들은성찰하지않는다.

그러나신용의보편성때문에, 그조합들의다양함때문에각자는출자자이면서 출자를받은자가되고, 신용을주기도하고받기도하며앞의경우에는수당을받고 뒤의경우에는이를지불하는식이되어이런진정한유통에의해조건들이평등화되고, 그것이사람들간에가능한만큼상호적으로보장되는것이가능하지않을까하고말한다.

나는이반론이아무리유치해도신용의악순환, 이평등주의적유통이라고하는 것의수확적불가능성을밝히드러내기위해이를보고한다. 게다가한사람이상의 금융가, 한사람이상의신용조직자가이유평피아에속아넘어갔다. 그러므로독자들이공통으로이유평피아를들고나오는것은내가그것에대답하는것이그러하듯이이용서받을만하다.

모든것의첫째는삼단논법이다.

삼단논법은그본성과기질면에서유심론적이다. 그것은정신의긍정이물질의 긍정을지배하고, 자아의도취가비아를무시하게하고말하자면경험을향한일체의 접근을거부하는철학적탐구의계기에속한다. 이는신학의인기있는논거, 선형의기관, 권위의공식이다.

삼단논법은본질상가설적이다. 일반명제와보조명제혹은한개별적경우가주어졌을때, 삼단논법은엄밀한방식으로결과를도출하는것을가르치지않지만이결과 의외인적진리성을보장하지는않는다. 그자체로전제들의진리성을보장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므로삼단논법은하나의명제를다른명제와엮는, 그러나그진리성을증명하지는못하는수단으로서의쓸모밖에내놓지못한다. 그것은계산과마찬가지로올바르게, 그리고정확하게묻는것에대답한다. 그것은결코문제를제기하는법을가르쳐주지않는다. 삼단논법의규칙을내놓은아리스토텔레스는이수단을맹신하는바보가아니었으며, 그메커니즘을분석한것처럼그결점을지적했다.

이처럼삼단논법은변함없이선형에의거해, 하나의편견에의거해진행해나가면서어디서오는지를모른다. 관찰과는별로친하지않아서자신의원리를설명하기보다는제시한다. 한마디로과학을발견하기보다는창조하는경향을띤다.

변증법의둘째도구는귀납이다.

귀납법은삼단논법의역또는부정이다. 비아의전적인긍정인유물론이유심론의역또는부정인것과같다. 모든사람이베이컨이권장하고추천한이추론형태를안다. 그에따르면이는과학을갱신할것이였다. 그것은일반에서개별로내려가는삼단논법과반대로개별에서일반으로거슬러올라가는것이다. 그런데개별적인것이그무한히다양한측면들에따라무수히많은범주들로분류될수있고, 귀납의원리는전에확인해두지않은것은아무것도가상하지않는것이므로, 그것이어디서오는지를모르는삼단논법과는반대로귀납법은자신이어디로가는지를결코모른다. 그것은땅에남아있고, 상승하지도, 끝에도달하지도못한다. 그러므로삼단논법처럼귀납법도이미알려진진리를증명하는데서만위력을가진다. 그것은발견하는데서는힘이없다. 오늘날프랑스에서사람들은관찰들이풍부하게, 그리고놀라운급속함으로축적되는바로그순간에철학정신이라고명명하는것의부재, 즉고등변증법수단들의결여가과학을정태적으로불잡아놓는다는것을알아차린다. 또한베이컨이래로성취된진보들은사람들이아주여러번반복했듯이귀납법덕분이결코아니라고대철학이우리에게물려준, 그리고관찰들이확인, 변경혹은 파괴하기만한소수의일반적편견들에대해유지된관찰덕분이라고하는말이참이다. 우리가우리의술책을다써먹은것같은현재에귀납법은멈추어서고과학은더이상진행하지않는다.

두마디말로한다면귀납법은모든것을경험론에주고, 삼단논법은모든것을선형에주어서, 지식은두개의무사이에서진자운동을한다. 사실들이증대되는동안 철학은길을잃고, 경험은너무나흔히상실된채로있다.

그러나이야말로 인도주의적철학을떨게만드는것이다. 그철학에는그모든범  
 신문적환상처럼절대성이아주잘못입혀졌다. 사람이신이면서절대라는것을발  
 견했다고믿어아주큰기쁨을느꼈다. 아주기진맥진하고수많은체계들을크게열  
 망한다. 그래서신에맞서, 사람에맞서그자신의학설들로부터결론을끌어낼용기  
 를가지지못한다. 이최면술걸린철학은중간항들이필연적으로극단들을전제로  
 한다고, 마지막것은첫번째것을부르고, 유한은무한을, 종은유를부른다고, 이무  
 한, 그것을분할하는유한만큼실재적인이것, 자신의품에서유출하는점진적창조  
 의대조에의해이번에는종이되는이지고의유, 이신, 끝으로인간의적대자인신은  
 절대일수없다는것, 이는바로그것을가능하게하는것이라는것, 가능하다면, 그  
 것이어떤사실에상응하는지를찾을필요가있다는것, 그리고사람안에그것을풀  
 어낸다는핑계로이를부정하는것은우리의전투적본성을무시하고, 사람의위에,  
 아래에, 그들레에이해할수없는공허를창조하는것이라서, 철학은사람을없애지  
 않으려면, 그의우상이멸망하는것을보지않으려면이공허를채우지않으면안된  
 다는것을감히실도하지않는다.

나로서는이를말하는것이유감이다. 왜냐하면나는그러한공언이나를사회주  
 의의가장지적인분파로부터갈라놓는다고느끼며, 내가생각하면할수록우리인  
 류에대한이신격화가담하는것은내게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는근본적으  
 로새로운무신론자들에게서종교적공포의마지막메아리일뿐이고, 인도주의라  
 는이름으로신비주의를소생시키고성화聖化해과학에편견을, 도덕에관습을, 사  
 회경제에공동체를, 즉무기력과빈곤을, 논리에절대를, 부조리를다시가져가는  
 것이다. 내가말하노니이새로운종교를받아들이는것은내게는불가능하다. 사람  
 들은내가그신이라고말하면서그것에관심을갖게하려고헛되이애를쓴다. 그리  
 고여전히무한하지만절대적이지는않은존재, 그안에자유와지성, 자아와비아가  
 특수한형태, 상상할수없지만필연적인형태로존재하는존재, 이스라엘이야훼에  
 맞서싸운것처럼죽을때까지싸우는것이내운명인존재의가설을그렇듯하게받아  
 들일필요가내게있는것은, 내가논리와경험의이름으로이종교를그것의모든선  
 행자들과마찬가지로버리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II

그과학의주체와객체는발견되었다. 사고와존재의진리는공신력있게확인되  
 었다. 그방법을발견하는일이남아있다.

철학은앞의대상과정당성에관한다소비난을받는그연구에서끊임없이다시  
 찾아오는, 더가까이서연구되면상식의탐구의자연적수단들임이곧바로인정  
 되는일정한변증법적형태들을자신이알지못하는사이에따른다는것을지체없  
 이알아차렸다. 과학및예술의역사는이생각하는기계들의발명, 우리의모든지  
 식의진정한수단들, 여기서는그주요한것들만알리는데그철것인과학적수단들  
 scientiarum organa 의발명보다더재미나는어떤것도제공하지않는다.

우리가신용이라명명하는, 그리고사람들이우리에게그것에서아주멋들어진  
 기적을기다리게하는사회적이윤배반들의현시기에아직아무것도조직되지않았  
 음을상기하자. 노동은파편화된분업에넘겨져있다. 작업장은장인제도와임금제  
 도에넘겨져있고, 시장은경쟁과독점에넘겨져있다. 사회는세무적, 의회적위선  
 에넘겨져있다. 이런상황에서사람들이가정하는그런균형이확립될수있으려면  
 큰자본들이미약한임금노동자들에게속하는것이, 2 급자본은상급일꾼들에게  
 속하는것이, 그리고가장미미한자본, 따라서가장적은정기수령금은노동자들중  
 가장높은보수를누리는자들에게속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그러나이모두는모  
 순적이고,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다. 가장많이버는자들은필연적으로가장큰저  
 축을할자들, 사람들이창설하겠다고주장하는보편적합자회사에서가장많은주  
 식을가질자들이다. 그럴때각각의임금노동자가바뀌하나에달라붙어하루 1 프  
 랑 25 상탕을버는불행한자에서부터공직자명부에서 1200 만프랑을받는국가  
 원수까지국가의채권자명부에, 정기수령금의큰장부에실리는것이무슨상관인  
 가? 임금의부조리에당신은소득의부조리를더하는것뿐일것이다. 이는블랑키  
 씨의참여기획에서와같을것인데, 거기서참여하는조합원들은봉급외에이득의  
 명목으로하루 18 상탕의몹을받을수있다. 그러므로우리가먼저행한일반적이고  
 찰로되돌아갈필요가있다. 신용이진정한균형수단이될수있으려면균형이작업  
 장에서, 시장에서, 국가에서사전에확립될필요가있다. 한마디로노동이조직될  
 필요가있다. 그런데이조직은존재하지않으며, 더구나사람들은이를배척한다.  
 그러므로신용에서기대할것이없다.

이모순을한히밝히기위해신용의몇가지개별적인경우들을, 그중에서도특히  
 이익보다는자선에서태어난경우들을조사해보자. 왜냐하면우리가이를언급할  
 기회를가지겠지만자선은신용의가족에속하고, 이는신용의형태들중하나이며,  
 신비적자생성에서나와이성의이끌림을받으면서부터그것은신용의모든법칙에  
 종속하기때문이다.

나는탁아소에서부터시작한다.

정말로내가신성한이재단들을욕할생각은조금도없다. 파리가가가장저명  
 한시민들중한사람인미라보씨의개명하고적극적인열정에감사해야할, 아기에  
 수의가호아래위치한재단들이다. 빈곤의근원은전적으로사회적이다. 이는모든  
 사람의범죄다. 그러나자선사업들은인적인이고무료다. 그리고빈곤계급의  
 신체적, 정신적해방을마련하는일에일생을바치는수많은선한사람들의미덕을  
 무시한다면나는용서받을수없을것이다.

그러므로아무것도봐주지말아야하는이책에서내가어쩔수없이하게되는분  
 석에대해나를용서해주고, 내이성의불굴성에의거해내가슴의지독함을판단하  
 지말기바란다. 내가감히말하노니, 내감정은언제나친구들과적들이자신들이그  
 러하기를바랄수있었던그런감정이었다. 내글로말한다면, 아주어두워보여도결  
 국사람으로존재하는것, 그리고사람에게서나오는모든것에대한내동정심의표  
 현일뿐이다.

다음은탁아소선전을위해공중에보급된네쪽짜리작은인쇄물에서읽을수있는내용이다.

엄마가가정바깥에서노동을하고또행실이훌륭한두살미만가난한아이들의탁아소

“탁아소는아침다섯시반에열고저녁여덟시반에닫습니다. 엄마는그날필요한속옷과함께아기를데려옵니다. 식사시간에는아기에게젖을먹이려고저녁에는아기를찾아갑니다. 젖뎀아기는어린이집의어린이처럼작은바구니를가집니다. 가난한여성들중에선발된보모가아이들을돌봅니다. 의사가매일탁아소를방문합니다. 엄마는아기가가는날마다 20 상탸를보모에게보냅니다. 탁아소에맡길아가기들인엄마는두아기에대해 30 상탸만받습니다.”

감독과소장인부인들, 그리고의사와운영위원들의이름이뒤에이어진다.

나는태생, 교육, 그리고재산으로가장두드러진, 더 나은사회가그들에게그수녀들의협력자와동료가되게해주기를기다리며예수그리스도안에서그자매들을돕는그런구제수녀가되는여성들의자선이, 내마음을깨우고감동시킴을실로한다. 그리고이귀한부인들이그많은사랑으로써완수하는의무, 아무도그들에게부과하지않은의무들에대해말하자면풍자나멸시의냄새가나는단한마디말이라도내뎀에서튀어나온다면나는내가싫을것이다. 오, 거룩하고용감한여성들이여! 당신들의가슴은시대를앞섰소! 그리고당신들의노력에대한쓸데없는공론에책임이있는것은한심한실천가, 거짓철학자, 거짓학자들인우리들이요. 당신들은언젠가당신들의보상을받을수있을것이오! 하지만당신들은지옥에서불러일으켜진변증법이내게곧당신들에관해말하도록강제할것을영원히무시할수있을것이오!

어째서엄마들이집밖에나가생계를벌어야만하는두살미만의가난한아이들을위해행해지는자선사업에서, ‘행실이훌륭하다’는이런우울한제한이있단말인가! 의문의여지없이노동을권장하고, 절약을돕고좋은행실을보상하고그러면서무질서를촉진하는일이없기를바란것이다. 하지만그러면누가배제를달할것인가? 엄마일까아니면아기일까? 게다가이엄마의비행은그가난한아가방치와가난보다도치료받을필요가더큰재앙아닌가?

하지만, 아, 슬프도다! 자선은그것이우발적으로움직이고해악보다선을결국더적게만들고싶지않다면, 신용처럼그수혜자를선택해야한다. 자선은때로는어린이집과탁아소처럼무를수있는조건으로, 때로는병원처럼회수가안되는조건으로하는일종의배치와같지않은가? 하지만모든경우에그것이향하는사람들이이를값어치있게할줄을더잘알고, 스스로든그자손들에의해서든언젠가자신들의의무를인정할용의를가지게되는만큼더욱효과적인것이되는배치다. 자선, 가슴은이성이우리에게말하는만큼구제불능인자들에대한온기가없다. 신용이파멸한상인을위한자본을가지지않는것과도같다. 또한사람들이자선에관해쓴모든책은, 자선은무엇보다앞서똑똑하게보여야한다는, 말하자면, 순전한손실

끝으로신에관련해서. 이는우리의영혼과자연의법칙, 혹은이두관념을하나의관념에포함시킨다면창조의법칙으로서, 존재에서의식으로, 자생성에서반사으로, 본능에서분석으로, 무오류성에서오류로, 유類에서종種으로, 영원에서시간으로, 무한에서유한으로, 이상에서실재로가는등의진행에따라배열되는것이니, 논리적필연성에서결과적으로모두가불변적으로그러나다른비율로자아와비아로구성되는존재들의연쇄는정반대의두항사이에포함된다. 하나의항은범인凡人이창조자혹은신이라고명명하는것으로서무한, 자생성, 영원, 무오류성등의모든특성을결합하는것이고, 다른하나사람으로서진화적, 반사적, 잠정적, 교란과오류에종속된존재라는반대되는모든특성들을끌어모으고, 그선견지명은주된속성을이룬다. 절대과학, 즉가장높은제공을한본능이신성의본질적속성인것처럼말이다. 그러나사람은우리에게이성과경험을통해한꺼번에알려진다. 신은반대로우리에게여전히이성의공준으로서만계시된다. 한마디로사람은있고, 신은가능하다.

그러한것이철학의작업들에관해서상식의두번째판단이다. 철학자체에의해제공된재료들에서동기들을퍼온판단, 최종판단으로서이성은경험없이는아무것도할수없음을, 그리고신에관해서우리에게는사실의증거, 실험적증명말고아무것도더부족하지않음을철학이인정한날, 그리고철학이망토로얼굴을가리면서세상에작별을고하고철학에대해끝났다 (consummatum est) 고공언된날에명확히형성된판단이다.

세상어디서나이원론이터져나오는것을우리가보는데, 이원론을부정하는것이가능한가? 아니다.

존재들의진행을부정하는것이가능한가? 역시안된다.

그런데, 이진행의법칙이알려지고, 마지막항이주어졌을때, 첫번째항이존재하는것, 그리고이첫번째항이마지막항의대척점인것은이성적필연이다. 이와같이무한의존재, 우리가그안에서살고움직이고존재하는 (in quo vivimus, movemur et sumus) 위대한전체, 지고의유類, 인간이끊임없이그로부터빠져나오려는경향을띠고자신의적대자로서대립하는그유, 이영원한본질은끝으로철학자들의절대가야닐것이다. 그반대자인사람처럼, 그것은자아와비아, 주체와객체, 영혼과몸, 정신과물질의구분에따라서만, 즉역시유적인두측면에서정반대의대립으로의구분에따라서만존재할것이다. 게다가신의속성들, 능력들, 발현들은논리가속명적으로신을믿게유도하는것처럼, 그리고무한자에게적절한것처럼사람의속성들, 능력들그리고결정들의역이다. 이제부터는그가설의진리성에는그것의실현, 즉사실적증거말고부족한것이없다. 그러나이모든연역은그자체로회피불가능하다. 그리고논거들에의해그것이거짓으로입증되었다면, 원초적이원론은사라졌을것이고, 사람은더이상사람이아닐것이고, 이성은더이상성이아닐것이고, 피론주의는지혜가될것이고, 부조리가진리일것이다.

창조하는것말이다! 그이전에다른어느누구도그렇게깊이존재의내적법칙들을 꿰뚫지못했다. 누구도이성의신비들을그렇게활기뻐빛으로밝히지못했다. 과학 전체가아니고논리전체도아니라면적어도과학과논리의열쇠인공식을내놓는데 그는성공한다. 그러나이논리자체를그작자가경험을끊임없이가까이해서만, 그리고경험에서그의재료를빌려와서만건설할수있었다는것, 그의모든공식들은 관찰을따라지만결코관찰에선행하지않았음을사람들은아주빠르게눈치챘다. 그리고사고와존재의동일성체계후에철학에서더이상아무기다릴것이없었으므로, 원은달렸으므로, 경험없는과학은불가능하다는것, 자아와비아가상관적이 고서로에게필요하고상대방없이는의식이불가능하므로그것들은동일하다는것, 그들의파악불가능한절대안으로의환원과마찬가지로그들의동일성은우리지성의관점, 이성의가정假定으로서특정한경우들에서는추론에של모있지만조금도 실재성은없다는것, 끝으로반대되는것들의이론은우리의의견을통제하고우리의 오류를발견하고진리의본질적특성을확정하는데는비할데없는잠재력을지니 지만자연의유일한형태가아니고, 경험의유일한계시, 따라서정신의유일한법칙 이아니라는것이영원히입증되었다.

그러므로우리는데카르트의‘나는생각한다 cogito’에서떠나여러체계들의 끊이지않는계열을따라헤겔의‘나는생각한다’로다음과같이되돌아왔다. 철학적 혁명이완수되었다. 새로운움직임이시작될것이다. 그결론들을취해서판결을내 리는것은상식이할일이다.

그런데상식은무엇이라말하는가?

앞에관련해서. 존재는우리가첫째로자아의의식, 둘째로비아의계시라부르 는, 해소될수없이연결된두계기에서만자신에게계시가되니, 앞에서궁극적으로 완수된단계마다이두결합된계기를내포하니, 이이원론이끊임이없고환원불가 능하니, 그것밖에에서는주체도객체도존재하지않으니, 하나의실재는본질상다 른하나의현존에연결되니, 그것들을환원하는것만큼그것들을고립시키는것도 터무니없으니, 두경우에이는진리를완전히부정하고과학을제거하는것이니, 우 리는우선과학의특성이불가항력적으로이성과경험의합치라는것이라고결론을 지을것이다.

확실성에관련해서. 압의원천적이원성에도불구하고객체의확실성은근본적 으로같으니, 주체의확실성은반회회의주의적인피론추종자들에게서의심박에 놓였으니, 이점에서판단된사물의힘이있으니, 경험은비아의음미인만큼자아의 확정이니, 이는이성의만족을위해충분하다. 우리가우리의존재를확신하는것처럼우리는물체들의존재에대해확신을갖는것말고무엇을더바랄수있는가? 그리고주체와객체가동일한지아니면단지딱맞아들어가는지, 과학에서우리의관념 을자연에빌려주는것이우리인지, 아니면우리에게자기의관념을주는것이자연 인지를탐구하는것이무슨소용인가? 이런구분을통해여전히자아와비아가고립 적으로존재할수있다고가정하면서말이다. 이는사실이아니며, 혹시그것들이분 해될수있다면, 이는모순을내포하는것이다.

로행해지지않으려면, 그리고또한비생산적소비와파괴로타락하지않으려면담 보없이제공되어서는안된다는이격률로가득하다.

이처럼자선은신용의이미지이면서신용처럼거짓말쟁이이고노랑이다! 도덕 가들이외경상으로아주대립되지만완벽하게동일한이들, 자선과대금업의유사 성으로부터옛날의신학을결코피해가지못한이숙명적인결론을도출할줄몰랐다는것은이상하다. 이는자선이진정으로초인적미덕, 반사회적, 파괴적, 무정부적 원리, 인간에게적이되는미덕이라는것이다. 우리가말하건대, 아직도세상에서 사랑희생의전능에의한갱생을설파하는미슐레 (Michelet) 같은저명한작가들이있다는것은이상하다.

뭐라고! 당신은이성을활용하지않고는, 즉당신의자선과희생을단순한교환 적정의, 신용의조직으로변환하지않고는헌신의사업도실현할줄모르고자선을 행할줄도모른다. 그리고우리가당신에게바로이신용을조직하고, 노동을조직하 고, 정의를창조하고, 자선을똑똑하게만들것이아니라분별있게만들라고말할 때, 당신은때로는중상주의를, 때로는유토피아를외친다! 당신은우리가냉담하 다고비난하며이기주의에희생제물을드린다고꾸짖는다. 우리가당신과함께사 랑과신앙에불을지피는대신모든것을계산에종속시키고자하기때문이다! 당 신은위선적인자선을산술보다선호한다. 그런데위선적인자선도곧바보짓이되지 않으려면산술없이필수없다! 하지만자선, 희생, 포기가당신이불평등을사랑 하고당신의겸손한행색밑에까다로운고집을숨기고있고당신이재산소유자라는 것때문에만당신에의해옹호된다는것을누가모르겠는가? 글썄! 당신의자선, 이 제이를정당화해보라. 그것을옹호해보라.

탁아소에서는벌써엄마의좋은행실을담보로요구하는것으로는결코충분하 지않다. 이가난하고아기들을책임진엄마에게납부금을부과하는것이필요하다. “엄마는보모에게아가기가날마다 20 상팀을낸다. 그리고엄마가두아이를말 기면 30 상팀을낸다.”이제계산해보자. 말기는데 30 상팀, 속옷과세탁에 10 상팀, 엄마가탁아소에까지가야하는모든이동을위한신발에 10 상팀, 모두해서 50 상팀을 90 상팀이나 1 프랑의하루일당에대해탁아소가징수한다. 여기에이 엄마가살림을태만하고, 남편을위해서도자신을위해서도아무것도안한다는 것을더해보라. 그러면당신은가난한여성들에게탁아소의이득은 0 이라는것을 알게될것이다.

그렇지않을수있는가? 없다. 보육, 세탁, 아기에게주어지는그밖의돌봄이무 료라면, 엄마는젖을주기만하면된다면, 탁아소는곧상당한조세, 진정한구빈세 의구실이자대상이될것이며, 이렇게해서합법적, 비합법적모성과인구의증가에 장려책이주어질것이니말이다. 현대사회들의이스핑크스에말이다. 그러므로자 선은여기서두가지를해야한다. 그리고그두가지는양립할수없는것들이다. 가난 한이들의아기를돌보는일, 그리고가난한이들에게아기를만들게장려하지않는 일. 이는바로멜서스의문제다. 생존수단이인구를증가시키는데일없이생존수단을

끊임없이증가시키는것이다. 자선의사도들이여! 당신들은경제학자들처럼터무니없다.

그리고이대조에주목하라. 행실이좋고일을해서그아기가탁아소에받아들여진엄마는사람들에게적선을받는모양새인데, 그녀가보모들에게 20 수 (1 프랑)의일당을줄때는그자신이이로써그들에게더큰선을행하는것이다. 나는이따금신문을읽다가가난한이들을위해뵙는복권에대한보도를본다. 그복권기사들은일반적으로자선을행하는부인들의손에서나온미담들로구성된다. 말하자면, 상류사회의기독교인이자비로운부인이부자의임무는빈자를향해재산의손실을보전해주는것이라고이해하고, 빈자들의근로와약탈의결실인 1 만파운드의연금을누리면서빈자들에게마땅히돌려주어야할금액의약 5 퍼센트에서 10 퍼센트를돌려주고<sup>8</sup> 의무이상의선행으로희생의공로를줄긴다는것이다. 당신의자선은위선과대금업일뿐임이명확한가? 아! 각자자기일이나신경쓰라. 가난한이들을위한당신의성금모금자들은당신이인민을유인해서그들의상속재산을집어삼키는데동원하는유녀들이다. 귀부인들은스스로를위해일하고가난한이들도자신들을위해일하기를바라며, 정의는헌신보다세상의행복을위해더값어치있지않은지일단알기를바란다!

누가우리를자선에서구할것인가? 프롤레타리아의순진함을끊임없이남용하는이신비화에서, 노동과자유에맞선영구적인이음모에서말이다.

나는어린이집, 공중휴게소, 무료 (수습과정처럼무료!) 학교들을지나서공영전당포 mont-de-piété 에도달한다. 여기서나는이슬모있는재단을생각한사람들에대한깊은존경에서새로이향의해야할것이다. 그러나사람들이나를체계적인인간혐오자라고비난하지않도록, 그리고내가고발하는것이관념들, 이론들그리고이관념들과이론들에서태어난제도들이라는것이잘입증되도록공영전당포에관해가장유리한가설, 즉인민의돈, 저축금고에예치된돈은오직인민에게신용대출하도록공영전당포에받아들여진다는가설에서출발할것이다.

그러므로나는공영전당포에투자한자본의이자 100 프랑에 3 프랑 50 샹팀으로저축금고의예금자에게지불되는이자와같다고가정한다.

그래서 3 프랑 50 샹팀

사무실, 사무원, 점포등비용 100 프랑에 0.5 프랑 50 샹팀

바깥으로내보내진물건가액 33%— 예치된총량중 10 분의 1 만이방치되고그기관에의해서든예치자자신에의해서든인가받은상인에게실제가격보다 16% 낮게판매된다고가정하면, 10 개의예치물에배분되는이손실은 1 프랑 60 샹팀

총계 5 프랑 60 샹팀

<sup>8</sup> 1846 년 3 월 8 일의보도에따르면, 아기 191 명이탁아소에받아들여졌다. 이에보모 14 명을더하면 205 개가정이구제를받는것이다. 구제받는가정마다자선기관에, 창설자들이지불한보조납부금에엄마가지불해야하는 20 샹팀의일일탁아비용에월 3 프랑 50 샹팀의비용이들게했다. 탁아소에참여하는자선가수를 100 명이라고하면그들각자의희생은 7 프랑 17.5 샹팀이다.

동일하다. 어떠한사고도실재의도움없이발현하지않으며, 역으로어떤실재도지성으로궤멸어지는것으로만나타난다. 이야말로경험과이상의경이로운이합치, 당신에게정신을자연의변형형태로간주하고그다음에는자연을정신의변형형태로차레로간주하게하는이합치가나오는근원이다. 자아와비아, 인류와자연은똑같이남아있고실재한다. 인류와자연은절대안에서공시적共時的이다. 그것들을구분하는유일한것은, 인류안에서절대가의식을가지고전개되는반면자연에서그것은의식없이전개된다는것이다. 이처럼사고와물질은분리불가능하고환원불가능하다. 그것들은존재들에따라불균등한비율로발현하며절대의구성원소들각각이피조물들에서순차적으로열등성으로, 혹은우세성으로자신을드러낸다. 이는무한의진화이며, 형태들, 본질들, 의지들, 잠재능력, 덕성등을끊임없이뱉아내는것이다.

어느순간이체계는유권자들의지지를빼앗아가는것으로보였다. 자아와비아의절대안에서의융합, 창조를구성하는사고와존재의이구분과동시에분리불가능성, 정신의끊임없는뱉아냄, 그리고끝없는규모에서의존재들의발전이모든사람의뉘를빼앗았다. 이열광은번개처럼지나갔다. 한새로운변종론자가갑자기일어나이렇게말했다. 이체계는한가지필요로한다. 이는증거다. 자아와비아는절대안에서혼동된다. 이절대는무엇인가? 그본성은무엇인가? 그것이발현하지않고절대의자격에서그것이발현하는것조차불가능하니우리는그존재에대해어떤증거를가질수있는가? ... 사람들은이렇게덧붙인다. 사고와존재는절대안에서동일한것들로서분리불가능하고상동相同임에도불구하고창조안에서환원불가능하다. 무엇에서이틀어는가? 우리에게유일하게실재인것은법칙임이인식되니, 법칙들의동일성은본질들의동일성, 실재들의동일성을내포하지않는가? 신비적이고투시불가능한절대에의존하는것이무슨소용이며, 신이라는이높은괴물을재생산하는것이그것들의법칙의시인된동일성에의해완전히화해된두향을화해시키는데무슨소용이있는가? ... 자연과인류는절대의발전이다. 절대는왜발달하는가? 어떤원리에힘입어서, 그리고어떤법칙에따라서? 이발달의과학은어디있는가? 당신의존재론, 당신의논리는무엇인가? 그리고같은법칙들이물질과사고를다스린다면, 다른하나를알기위해하나를연구하는것으로충분하다. 과학은당신이뭐라고말하든당신자신의말에따르면선험적으로가능하다. 그러므로당신은왜과학을부정하며우리에게그자체로는과학이아니어서아무것도설명해주지않는경험만을우리에게내놓는가?

그는이렇게덧붙인다. 자! 나는절대에의지하지않고, 사고와존재의동일성에집착하면서구별되는것으로받아들여질수없는것, 정신과물질, 즉관념의두 측면을당신이구분하므로당신의눈을벗어나고당신이발견할수없던이발달의과학을건설할책임을맡는다.

그리고이철학의거인이이원론자체에의거해영원한이원론을뒤집는것에착수하는것을우리는본다. 모순위에동일성을세우는것, 무에서존재를끌어내는것, 그의유일한논리의도움으로자연과사람을설명하고예언하고, 무엇인가하면

래하는이신은무엇인가? 사고에재료를제공하는일도없이사고를촉발하는것말고다른기능을가지지않은이객관성은무엇인가? 자아, 자연, 신이사람들이그렇게되는것으로보이는것처럼존재한다면그들은직접적이고상호적인관계를맺고있으며이경우에우리는그것들을알수있다. 이관계들은무엇인가? 반대로이관계들이전무하다면, 혹은사람들이여전히그렇게주장하듯이이것들이순전히주관적이라면사람들은어떻게비아의실재성, 그리고신의존재를감히단언하는가?

자아는본질상능동적이다. 그러므로그것은어떠한자극도필요하지않다. 그것은과학의원리들을보유하고이를알고행하며, 창조적잠재력을누리며, 그것안에서당신이경험이라고부르는것은진정한분출이다. 새로운관념에대해경험하고, 자신의경험의대상자체를창조하고, 이와같이자기자신의사고에적합한가치를산출하는일꾼처럼우주안에서자아는비아의창조자다. 따라서그는자신안에강제이행수단을지니며, 자연의증거도, 신성의개입도필요하지않는다. 자연은결코괴물이아니다. 일꾼을발현시키는작품이니말이다. 자아와마찬가지로실재하는비아는자아의산물이고표현이다. 그리고신은자아와비아를동일한현상성안에결합하는추상적관계에불과하다. 모든것은서로맞물리고서로연관되고서로를설명한다. 경험, 이는기록된과학, 주체에서발현된, 그리고주체에의해재발견된사고다.

처음으로철학은체계를수립해왔다. 이순간까지철학은하나의모순에서다른모순으로부정과배제를통해진행하며, 즉흥의할수없는것을제거하며진자운동만을했다. 기껏해야그것은그여러명제들을동시에, 그러나그것들을포획할도능력도없이연명하기를시도했다. 이난관이극복되었다. 새로운탐구의시기가시작되었다.

어떤사람이대답한다. 우리가이해해온결론에아무할말이없을것이며, 그결론이요약하는체계는사람이무언가를안다는것, 그리고이것은언제나의문시되는것인데그사람에게는경험에앞서단하나의관념이존재한다는것, 이것이입증된다면난공불락일것이다. 그때는사람이배우는것은그가연역하기만한다는것임을사람들은의식할것이다. 그는그가증험하는것을재발견하는것이다. 그러나자아가스스로는아무관념도가지지않는다는것은참이아니다. 그가과학을선험적으로창조할수있다는것은참이아니다. 그리고나는의견을먼저말하는자에게그의건축물의초석을놓을테면놓아보라고도전한다.

그는영감을얻은목소리로이렇게덧붙였다. 다음은이성과경험이내게가르쳐준것이라고. 자아와비아를결합하는관계는결코사람들이말하듯이친자관계도인과관계도아니다. 이는공존관계다. 자아와비아는서로대면해동등하고분리불가능하지만, 상급의원리, 둘다를놓는주체-객체, 한마디로절대안으로가야니면환원불가능하게존재한다. 이절대는자아와비아의창조자인신혹은니케아신경이말하는것처럼유형무형有形無形한모든것의창조자인신이다. 이신, 이절대는그본질안에서사람과자연, 사고와연장을포괄한다. 왜냐하면, 그홀로존재의충만을지니며, 그는만유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이성의법칙들과자연의형태들은

도덕성:

신용이론을가지고서 100 프랑에 3 프랑 50 상팀으로대출하는노동자는 5 프랑 60 상팀에차입한다. 차액은 2 프랑 10 상팀이며, 그만큼을그는이자에서손해본다. 12% 에대출하는공영전당포도있다. 그수익금이성스러운사업에, 병원등의유지에쓰인다는구실에서다. 이는정확히한사람에게서피를 20 온스뺏고, 설탕물한잔을보상으로제공하는것과마찬가지다. 인민이전당포에누더기옷을가져오지않게하려면공영전당포의이자높아지는것이좋다고말하는데까지나갔다. 또하나의위선적인영터리다. 그러면왜공영전당포를아주없애지않는가? 왜이거룩한기관들의문제“여기서는신의사랑과인류의선을위해살인합니다”라고써붙이지않는가?

그러나오늘날가장많은투표자를모으고, 내가가장하지않고말하건대모든관계에서투표자들의지지를받을자격이있는기관은저축금고다. 정부가쓸모있는일을했다고실토하는것을너무힘들어하는우울한정신이사람들은이주제에대해가장어리석은반론을내놓았다. 그들은저축이탐욕을가져온다고, 아내가남편모르게절약을하는데서발견할수있는손쉬움탓에가정의평화를교란한다고말한다. 그들은먹고살것도벌지못하는자에게어떻게저축하는것이가능하냐고물었다. 그리고어떤이성적모습을결여하지않으려고그원리자체를공격하지않으며그저자율의나쁜양심을보여주는데만소용이된천가지허튼소리가있었다.

“1843 년 12 월 31 일에공탁소가왕국의주요제조업도시들의저축금고에서불해야할잔고액수는다음과같았다.”

생캉탱	
	1,255,000(프랑)
스당	
	800,000
트루아	
	105

1,881,000

루비에

680,000

님

1,675,000

생태티엔

2,606,000

리브드제

130,000

랭스

1,813,000

106

의해서 행해졌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세상의 존재에 대해, 그 법칙의 항상성에 대해, 그 현상들의 실재성에 대해 확신하지 않으면 계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며 계시를 어떻게 믿는가?

그러므로 신비주의는 주체와 객체의 필연성을 인식한 후 그것들을 하나씩 그 기원에 의거해 설명하기를 구한다는 중요한 면을 지닌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에 따라 때나와 마찬가지로 지적이고, 비아와 마찬가지로 실재적인 제 3 항인 신일이 기원을 사람들은 정의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다. 정반대로 그것을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 지성에 접근 불가능하게, 따라서 비진실로 만든다. 신비주의는 신비화다.

논쟁이 거기 있었다. 유신론자들과 불신자들, 유심론자들과 유물론자들, 회의론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의견일치에도 달할 수 없어 세상은 믿기밖에 할 줄 모른다. 심각한 분위기와 겸허한 정신으로 아무런 과장 없이 과거의 누구보다 가장 능청맞고 가장 교묘한 어느 철학자가 말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아와 비아의 실재성을,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추론이나 경험의 경로를 따라서는, 자신의 밖에 있는, 그렇지만 그가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확신하기가 자아에게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물체들은 존재한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에게서 얽이 형성되는 방식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이 물체들, 이 비아를 우리는 그 자체로는 알지 못하며, 경험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우리의 밑바탕에서 나온다. 이는 우리 정신의 고유한 열매로서 그것의 외적 지각에 의해 일으켜져서 사물들에 그 고유의 법칙, 그 범주들을 적용하며, 그리고는 그것이 자연에 부여하는 이 형태가 자연의 형태라고 상상한다. 그렇다. 역시 우리는 신의 존재, 주권적 본질을 믿어야 한다. 이는 도덕에 대한 강제 이행 수단으로, 우리의 생애는 보완물로 소용된다. 그러나 지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역시 우리 이성의 공준, 우리의 무지의 필요를 위해 상상된 아주 주관적인 가설에 불과하며, 우리의 변증법의 필요성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이 가설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말들에 대해 긴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형벌에 처해진 입장에서 그것을 믿기를 포기했다. 다른 이들은 이성보다 높은, 믿음의 동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믿음을 위해 그 생성 밖에는 가지지 않는 믿음, 그 대상이 단순한 이성의 형식으로 환원되는 믿음을 거부했다. 앞의 사람들은 비판 철학자의 비밀관성을 공개적으로 고발했다. 거의 모든 이들이 누구는 유심론에, 누구는 유물론에, 누구는 신비주의에 빠졌으며, 각자가 가장 마음에 드는 체계를 위해 이 철학자의 고백을 이용했다. 끝으로 어떤 사람이 고결한 가슴으로 감동한 영혼을 가지고 소음을 잠재우고 자신에게 주의를 끌기에도 달했다.

그는 신랄하게 이렇게 고찰했다. 우리의 판단의 열쇠를 발견했노라 주장하고 순수 이성을 자처하는 이 철학은 절대로 통일성을 결여하며 그 비밀관성에 의해서만 빛을 낸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아무것으로도 증명 안 되지만 바로 대 단 원을 위해

123

상식은대답한다. 그러나만일사탄이갈라져서서로싸우면그나라가어떻게유지되겠느냐 (si satanas in seipsum divisus est, quomodo stabit)?<sup>2</sup> 유물론적가설은이중의불가능성을제기한다. 자아가비아의조직의결과와다르지않다면, 사람이자연의정점, 주인이라면, 그것이그가장높은제공을한자연자체라면서어떻게자연을반박하고, 괴롭히고, 개조할능력을가지는가? 자연의자기자신에대한이반응, 산업, 과학, 예술등자연바깥의모든세상을넘는, 그리고그유일한목적이자연을정복하는것인반응을어떻게설명하는가? 끝으로, 유물론자들이오직신앙만을두는우리의감각의증거에따를때물질법칙바깥에서생성되는것에어떻게물질적변경을가할것인가?

다른한편, 사람이조직된물질일뿐이라면그의사고는자연의반사다. 그렇다면물질은, 자연은어떻게그렇게자신을잘모르는가? 종교, 철학, 의심은어디서나오는가? 뭐라고! 물질이전부이고, 정신은아무것도아니다. 그리고이물질이그최고의발현에, 그지상췌소의진화에도달했을때, 그것이사람이되었을때, 결국그것은자신을더이상모른다. 그것은자신에대한기억을상실한다. 그것은방향하고마치물질이, 경험자체가아닌듯이경험의도움으로만행진한다! 그러면자기자신을잇는이자연은, 그존재의충만에도달하면서부터자신을알기를배울필요가있는, 자신을모르기위해서만지적으로되는, 그리고이성을획득하는바로그순간에그의무오류성을상실하는이자연은무엇인가?

유심론은사실들을부정하면서그자신의무능아래굴복한다. 사실들은그들의증거로유물론을짓뭉갠다. 이체계들이스스로를확립하려고노력할수록그들의모순을드러낸다.

그때독실한분위기와명상에잠긴표정으로신비주의자들이왔다. 정신과물질, 사고와연장은별개로존재한다고그들은말했다. 그러나우리는우리자신을통하지않고는이를알지못한다. 계시로써그것들의실재성을우리에게증언해주는것은신이다. 그리고모든것들이신에게서창조되었고모든것이신안에존재하는것처럼, 우리의지성이그것들을볼수있는것도우리의지성이유래하는무한의정신인신안에서다. 이처럼자아에서부터비아로의이행이설명되어정신과물질의관계들은분별가능해진다.

처음으로신에대한질문이나왔다. 청중들의주의는배가되었다.

의문의여지없이정신은정신하고만소통의관계를가질수있어서, 정신인신안에서그의작품들인물질사물들을우리에게보여주는데능숙하다. 유감스럽게도이체계는악순환과선결문제요구의오류에의존한다. 한편, 신을믿기전에우리는우리자신을믿을필요가있다. 그런데우리는우리의자아를느끼지못하며, 외적반응이우리에게느끼게하는만큼밖에는, 즉우리가비아非我를인정하는만큼밖에는우리의존재를확신하지못한다. 이것이바로문제다. 계시에관해말한다면, 계시는그추종자들에따를때기적에의해서, 그수단들이자연에서취해지는신호에

릴

4,412,000

뮐루즈

1,081,000

리옹

7,589,000

루앙

6,158,000

아미앵

4,784,000

아브빌

107

<sup>2</sup> 『루가의복음서』 11 장 18 절-편집자주

1,386,000

리모주

467,000

15 개도시

36,217,000.∴

∴ (역자주) 합계는 36,717,000 프랑이되어야 맞는다.

내가 이상세내용을 빌려온 출처인 픽스씨는 이렇게 덧붙인다. “이야말로 그 모든 갈래를 가진 우리의 주요 산업들을 대표하는 영토 전체에서 선택된 지점들이다. 이 여러 저축금고들의 보조를 참조할 때 모든 범주의 일꾼들이 예금에 참여한 것을 보게 된다. 이는 어떠한 노동계급도 특별히 빈곤을 겪고 절약을 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저축금고들의 보고가 포함하는 상세내용은 이 단언을 충분히 확인해준다. 예금자들 중에는 극히 다양한 직종의 일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의 모든 구분 nuances 들이 제시된다. 이는 남자들, 모든 연령의 여자들, 미성년들, 독신자들, 약혼한 개인들 등이다.”

이 결과들을 대면한 픽스씨는 이렇게 질문한다.

“이는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제도들과 우리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증언해 주지 않는가?”

그리고 그는 선의에서 이렇게 대답한다.

“이 사실들은 그것이 아무리 위안이 되더라도 노동계급의 상황이 만족스럽다는, 노동자들의 조건이 행복하다는, 어떠한 개선도 실현할 것이 없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과 거리가 멀다. 그런 언명들은 물러갈 지어다! 이 세상에는 한없는 자선, 모든 우수한 정신을 가진 자들의 명상, 그리고 이 두 가지 노력에서 나오게 될 실천적 수단들이 치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빈곤이 있다. 고통에서 달리는 것은 너무나도 실질적일 따름이다. 결코 이를 사라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

하지만 끝으로 픽스씨가 방금 주장한 것처럼 정치경제학이 부의 진보를 실현하는데 효과적이라면, 그것이 그 가지금 단언하는 것처럼 빈곤을 사라지게 하는데 무

은 무언가를 이성애 더하는가? 아니면 이성이 그 자신에 발현된 것일 뿐인가? 끝으로, 이 비아의 실재성 혹은 비실재성을 입증할 어떤 수단이었는가?

상식이 단독으로는 결코 하지 않은 이 이상한 질문은 우리 속을 영예롭게 한 가장 심오한 천재들에 의해 제거되고, 웅변, 현명함과 경이롭게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것으로서 무한히 많은 체계와 추리들을 일으켰는데, 그것들에 대해 두꺼운 책을 쓴 저자들에게서는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몇 개의 선으로 치환해 이에 관한 하나의 관념을 생성할 수가 있다.

우선 어떤 이들은 비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연스러웠고 사람들은 이를 예상해야 했다. 자아에 대립하는 비아, 이는 나타나서 타인이 가진 것을 뒤 흔드는 사람과도 같다. 이 타인의 최초의 움직임은 그러한 이웃을 부정하는 것이다. 나밖에서는 물체도 자연도 출현물도 없고, 나 말고 다른 본질은 없다고 그들은 말했다. 모든 것은 정신 안에서 일어난다. 물질은 추상이다. 우리가 뭔지 모르는 경험의 담지자로서 우리가 보고 연명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이 되면서 바깥으로부터 그 본성 상 창조할 것을, 더 정확히 말한다면 되어갈 것을 받아들인다고 상상하는 우리의 순수 활동의 산물이다. 영혼에 관해서는 존재하는 것, 산출하는 것, 그리고 되어가는 것은 동의어이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삶든 간에 삶에서 연역과 습득이라는 두 양식을 구분한다고 상식은 관찰한다. 연역을 통해 정신은 실제로 배우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 같다. 수학이 그러하다. 반대로 습득을 통해서 정신은 끊임없이 그 과학적 진보에서 멈추어서, 그 원인이 충분히 비자발적이고 자아의 주권 밖에 있는 끊임없는 흥분의 도움으로만 진행한다. 그러므로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현상을 유심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 모든 과학이 자아에서만 온다면 과학은 자생적이고 그 기원부터 완전하며, 모든 개인들에게서 동등하고, 같은 개인 안에서 존재의 모든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닌가? 끝으로 오류와 진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문제를 푸는 대신에 유심론은 이를 멀리한다. 가장 잘 습득되고 가장 심할 바 없는 사실들, 즉 자아의 경험적 발견들을 무시한다. 이성애고문을 가한다.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신의 부정적 증언을 부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원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심론은 모순적이고 받아 들여질 수 없다.

그때 다른 것들이 등장했다. 이것들은 물질만이 존재한다고, 추상인 것은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자연 외에는 아무것도 참이 아니고 아무것도 실재가 아니라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세고, 무게를 달고, 측정하고, 변형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 물체와 그 무한의 변경 형태들만 존재한다. 우리 자신은 물체, 조직되고 살아있는 물체다. 우리가 영혼, 정신, 양심 혹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 유기체의 조화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존재자일 뿐이다. 물질에 내재하는 움직임을 통해 주체를 낳는 것은 물체다. 사고는 물체의 변형 형태다. 지성, 의지, 덕성, 진보는 특정 차원의 결정물들, 게다가 그 본질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속성들일 뿐이다.

이처럼 획득되고 확정된 주체의 확실성은 그러므로 인지법칙의 탐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우주와의 모든 관계의 기초인 대상의 확실성을 확정할 것으로 남아 있다. 이는 상식의 두 번째 정복, 철학 작업의 두 번째 계기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는 한에서는 감각하고, 사랑하고, 추론하고, 행동하고 결국 존재할 수 없다. 자아가 그 기능들에 약의 자극을 주는 것, 자신의 존재를 펼치는 것, 자신의 무가치함에서 어떤 식으로 벗어나는 것, 나 선후에는 대립하는 것, 즉 존재하거나 자아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미지의 존재, 한마디로 비아非我和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 후에 우리의 이성 이 그 두기 초위에서 강화되어 불가항력적으로 가정할 신, 무한의 존재, 내가 말하건 대상은 그 본질이 모두를 포괄하므로 살고자 자신을 알기 위해 자기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그의 존재는 자신 안에서 온전히 펼쳐진다. 그의 사고는 내성적이다. 그에게서 자아는 비아를 자아로서만 파악한다. 왜냐하면 둘 다 무한이며, 무한은 필연적으로 단일하며, 따라서 신에게서 시간은 영원과 동일하고 행동함은 원함과 동의어이며, 사랑은 자기 말고 다른 대상이 없고 다른 결정하는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신이란 완벽한 이기利己, 절대적 고독, 지상주의의 집중이다. 이 모든 관련에서 인간의 역의 본성인 신은 스스로에 의해, 그리고 반대 세력 없이 존재한다. 아니, 그보다 비아를 자신 바깥에서 찾는 대신 자신 안에 만든다. 그는 구별이 되지 않지만 여전히 자아다. 그의 생명은 다른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을 알고 살아가고 모든 것이 존재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그에게 해 증명된다. '나는 존재하는 자 (Ego sum qui sum)'라고 그는 말한다. 신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존재다. 이성이 이를 말하기를 꺼리더라도 이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에는 차질이 없다.

유한의 존재,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스스로에 의해 존재하는 것도, 스스로의 안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 개인에게는 그의 이성이 성찰하고 그의 생명이 깨어나고 그의 영혼이 그의 기관器官들처럼 자신의 생존 수단을 길어내는 주변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이 적어도 우리가 우리 존재의 발달을 의식하는 방식이다. 이 점은 피론 추종자들의 모순을 전혀 고집하지 않는 모든 이들이 실토하는 바다.

그러므로 이 현상의 의미를 인식하고 의식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는 독립적인 외적 실재로서 제시하는 비아의 특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회의론자들은 자아가 이성적으로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을 인정을 하고 말한다. 무슨 권리로 자아는 외적 실재, 자신이 아닌, 자신에게는 투시 불가능함이 분명한, 비아라고 칭하는 실재를 긍정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 바깥에서 보는 물체들은 정말로 우리 밖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바깥에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보는 그런 것인가? 감각이 자연의 법칙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자연에서 오는가? 아니면 자연이 그 자신의 품으로부터 투기投企하는 것을 자연의 바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사고 활동의 산물 일뿐인가? 경험

능하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그는 이 명백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픽스씨는 좀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인다. 나는 곧 그의 결론으로 간다. 이는 지상의 행복이 우리의 미래 운명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에게 수수께끼이며, 픽스씨는 이를 짐작하지 못한 것이다.

독자들이여, 나는 당신이 그보다 더 앞서 있다고 감히 기대한다.

픽스씨가 아주 현명하게 고찰했듯이 모든 범주의 일꾼들이 저축금고의 예금에 참여하며, 예금자들 중에는 모든 성성의, 모든 연령의 그리고 모든 조건의 개인들이 있다. 이는 모든 조건이 부의 수단으로서 동등하다는 것, 모든 연령, 사회 생활의 모든 순간에 사람은 생산자일 수 있고,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 장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처럼 새로 입증되는 것은, 저축금고에서 여러 기능들의 등치성과 빈곤의 비정상성이다. 그런 것이 우리의 첫째는 점이다.

그러나 산업상의 각 범주마다 노동 분업, 기계, 위계적 조직, 독점의 이득, 조세의 편파적 배분, 신용의 거짓 말은 무수한 희생자들을 내며, 다중多衆을 위해 인간 노동의 노력, 입법자의 선견지명, 그리고 정의와 공평의 모든 조항들을 쓸모없게 만든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행복 실현에 의해 생산에서 균형이 결여되면 그것은 또한 분배에서도 결여된다는 필연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운명과 미래의 운명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대립성에 대해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적어도 확실한 것은, 현재의 운명은 그 자신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불합치는 정치 경제학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축금고의 보고서들이 예금자들의 복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인정한다. 그러나 바로 이 보고서들이 동시에 비예금자들의 빈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면 정치 경제학을 편들어 주는 것으로 증명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파리에 있는 40만 명의 인부와 종들 중에 12만 4000명만 저축금고에 등록되었다. 나머지는 등록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은 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두가지에 우리가 우리에게 이를 가르쳐 줄 것이다.

파리에서 일정수의 인채공은 하루에 5 프랑에서 10 프랑을 벌고 1년 내내 노동한다. 상당수는 3 프랑에 미치지 못하고 2개월간 휴식을 누린다. 리옹에서는 어떤 비단직공들은 집에서 여러 작업을 가지고 있어서 인적 노동과 그들이 고용하는 인부들의 노동에 의해 5에서 6 프랑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다중은 평균적으로 남자 2 프랑, 여자 1 프랑을 넘지 못한다. 나는 이 두 직종에서 멈춘다. 누구든 내게 파리에서 하루에 3 프랑을 못 버는 성인의 생존이 어떨 수 있는지, 리옹에서 1 프랑에서 2 프랑의 가변적인 임금을 받는 인부의 생존이 어떨 수 있는지를 말해 주기 바란다. 이 사람들이 전혀 절약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며, 이들이 극빈자 정부에 등장하지 않는 만큼 더욱 놀라게 된다. 그러나 참으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결연하게 난관을 극복하고 나서 공식적인 자선한움을 받는 자들이나 마찬가지로 더 이상 불평할 것이 없는가?

당신은이렇게말할것이다. ‘이는활동력, 절약, 지성을두배로해야할경우다. 이는급여를가장적게받는인부들을위해바로설립된저축금고들과다르네방기관들을활용해야할경우다.’저축금고는빈자의예금은행이며모든은행들이이렇게시작한것처럼빈자들에게복리의경로를가기시작하게만든다는관념은행복한관념이었다.

이처럼저축금고는빈곤에대한공식적선언, 일종의조사일뿐이다. 그리고그것이빈곤에대한치료수단으로소용되기를사람들은바란다! 저축금고는그금고에아무것도낼것없는자들에게는냉정하며저축금고가만들어진것은바로이들을위해서다! 나는도덕가들이스스로그렇게어리석어지도록 40년간노력한후에프롤레타리아에게지성, 활동그리고모든도덕적미덕들을요구할용기를가지는것에더는놀라지않는다! 지나가기로하자.

저축금고의파괴적효과는두종류다. 사회에관련된것, 그리고개인들에관련된것이다.

사회와관련해서저축금고는자본의생산성이라는허구에기초해이허구의제양적인효과들을드러내는가장명확한증거다. 모든저축금고의예금이 10 억프랑이되는것으로드러날때, 이는 3.5% 의이율에서는예산에 3500 만프랑의조세를더하고납세자들에게이를분산하는셈이될것이다. 그런데누가이조세를납부할것인가? 민중이다. 즉대부분은가장가난한계급, 저축금고에아무것도가지지못하는계급, 그보다작은부분은이자를지불받아야할절약하는계급, 그리고최소의부분은부유한계급이다. 이처럼저축은행은약탈을출발점으로한다. 이약탈이없다면저축은행이존재하지않을것이니말이다. 그리고약탈당한자들에게이렇게말한다. 저축금고에넣으세요! 당신은왜저축금고에넣지않으세요?

국가가예금은행의전통에충실하게, 그의보호에맡겨진기금을손을대지않고이를보전한다고가정하자. 20 년이지나면, 복리때문에국가가받았을 10 억프랑이아니라 20 억프랑을상환해야할것이다. 그러므로결국국가에는아무이득도없이상환할금액의절반의불가피한파산이있을것이다. 이가설에서안전보장이파괴되어그제도는다 불가능하다.

그러나국가가그렇게불리한조건에놓일수없으리라는것은명백하다. 그러므로국가는아무것도떠맡지않으려면인민이절약한돈을공공서비스에배정해야할것이다. 이는저축금고를언제나열린차입으로전환하고계속입금과출금의운동을하도록하지만완전히상환불가능하게하는것이다. 선량한사람들은저축금고의설립에서부터여러차례에걸쳐, 정부가공황이일어나는날자신들의기금을 돌려달라고요구하러올예금자들의쇄도에대응하는것이불가능한입장에서하게 될것에대한두려움을증언했다. 한유명한팸플릿작성자는심지어이를가지고서 정부에반대하는비판문을썼다. 마치정부의목표가바로상환할수없는상태에서하는것이어서는안된다는듯이! 마치불상환이그기관의필요이면서사물의질서의가장소중한보장책중하나이기도한것이아니라는듯이! 이는 「주르날데데바」(1845년 12월 30일) 가내가생각하기에슈발리에씨가쓴기사에서아주잘이해

구는모순적이고, 그러한회의주의는반反회의적이고단지반증이될뿐이며, 우리가생각하고우리가알기를바라는것은사실이며, 우주와영원을포괄하는이사실에관해는쟁할여지가있을수없을것이며, 따라서유일하게할일로남는것은사고가어디로인도할수있는지를아는것이므로피론(Pyrrhon) 과그의종파는자아의존재에관해서자아를안심시키는부조리의철학에의해인정받을것이다. 게다가그들의견해는그본령상상식에모순이있음을확신하므로상식으로부터파문을당한다.

이전문前文이힘에넘침에도, 어떤이들은어전히항의를해야하며그개정안을마련해야한다고믿었다. 진정한회의론자는그들의의심의실재성을의심하는자들이아니다. 그러한‘회의론은웃음거리다’라고그들은주장했다. 의심의내용의실재성, 그리고더구나, 이는아주다른것인데, 이내용이실재하는지를입증할수단들의실재성을의심하는것이그들이다.

“그렇다면이는마치종교가사고의현상이고자아의사건이니당신이종교들의존재를의심하지않는다고, 다만종교들의대상의실재만, 더구나이대상을확정할가능성만의심한다고말하는것과같군요. 아니면당신은가치의진자운동이일반적사고의현상이고집단적자아의사건이니그운동에대해의심하지않으며, 다만가치들의실재성자체, 더구나그크기에대해의심한다고말하는것과같군요”하고상식이대답했다. 그러나사람에관련해서, 예를들어가치의실재가가치의법칙일뿐이고가치의법칙일수밖에없는것처럼사물의실재가사물의법칙과구분되지않는다면, 그리고당신이동의하지않을수없는것처럼사물의법칙이이법칙을확정하고창조하는자아없는아무것도아니라면, 의심의실재성과의심하는내용의실재성에대한당신의구분은그에따르는‘아포르티오리 à fortiori’와똑같이터무니없다. 우주의자아는사고에의해동일하게되고서로꼭들어맞게된다. 그러므로다시한번우리의과제는자아가자신과관련해서오류로이끌릴수있는지, 그기능들의발휘에서자아는교란에영향을받는지, 이교란의원인들은무엇인지, 우리관념들의공통적도는무엇인지, 그리고당장에는비非자아라는이개념, 자아가행동에들어가지자마자자아를포착하는것, 그리고자아가분리되는것이불가능한것의가치는무엇인지를탐구하는것이다.

이처럼상식의판단으로는, 확실성의형이상학적이론은가치의경제적이론과유사하다. 더낫게말한다면이두이론은하나의이론을이룰뿐이다. 그리고의심의실재성을인정하면서도의심의내용의실재성, 따라서이내용을확정할가능성을부정하는회의론자들은가치의진자운동을긍정하면서이진자운동을확정할가능성, 따라서가치의실재성자체를기각하는경제학자들을닮았다. 우리는경제학자들의이모순을정당히평가하지못했으며, 가치가수요와공급사이에서일련의진자운동에의해사회에서결정되는것처럼, 진리도이와똑같이우리에게서언명하는이성과확인하는경험간의일련의파동의해형성된다는것, 의심자체로부터점차로확실성이형성된다는것을곧보게될것이다.

이성과경험의합치, 상식의조직, 언제나동일한판단이최절정의사색으로올라가는일반적절차들의발견, 이런것들이인류의주요작품, 지구상에서완수되는가장광대하고가장복잡하고가장극적인돌발사건을태어나게한작품이다. 확립되는데그렇게긴시간을들이고그렇게많은잠재력을펼쳐보이는데멀리서라도따라가는과학, 종교, 사회는없다. 이위대한작업이 30 세기전부터시작되어이제겨우확정되기에이를정도다. 책 20 권으로도그역사를이야기하기에간신히충분할정도다. 나는몇쪽에그주요국면들을그려볼것이다. 이요약은소유권의출현을설명하는데필요불가결하다.

I

상식의조직은사전에다른문제, 확실성의문제해결을가정한다. 확실성은두종류의상관물, 주체의확실성, 객체의확실성으로나누어진다. 다른말로하면, 사상의법칙을추구하기전에생각이되는존재, 그리고생각하는존재의실재에대해확신해야했는데, 이것없이는아무것도아닌법칙을탐구할위험성을무릅쓰게될것이다.

이거대한논쟁의첫번째계기는그러므로자아가자신을인정하는데로나아가고, 말하자면자신을만져보고, 자기판단의출발점을찾는계이다. 그자아는‘나는누구인가?’를자문한다. 아니, 오히려‘나는어떤것인가?’‘나는내가있다는것을확신하는가?’하고자문한다. 이야말로상식이대답해야할첫번째질문이다.

그리고이는상식이주경탄을받는이판단, ‘나는생각한다. 그러므로나는존재한다 (Je pense, donc je suis)’로써실질적으로대답한질문이다.

나는생각한다. 이것으로충분하다. 나는내존재에대해확신하기위해더알려고할것이없다. 내가이점에서배울수있을것이라고는, 어떠한존재도내가그것을긍정하지않으면증명되지않는다는것, 따라서자아없이는아무것도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자아. 이는상식의출발점이며, 철학의첫번째질문에대한상식의대답이다.

이처럼상식, 아니, 생각하고말하는미지의파악불가능한본성, 결국자아는증명되지않는다. 그것은나선다. 그첫번째판단은그자신에대한신임의행위다. 사고의실재성은그에의해원초적사실 fait-principe 로, 필연으로, 끝으로공리로선언되며, 그바깥에서는추론을할여지가없다.

그러나판단력의결핍에서든, 관념의미묘함에서든어떤사상가들은상식의이언명이벌써너무대담하다고보았다. 그들은상식이그명분을만들기를바랐다. 우리가생각하고우리가있다는것을누가우리에게보장하느냐고그들은말했다. 내적감각의권위는무엇인가? 그것의모든가치가그자생성자체에서나오는언명이란무엇인가?

이와관련해서긴논쟁이시작되었다. 상식은이유명한판결로거기에종지부를찍었다. 의문자체에제기되는의문은터무니없고, 탐구의정당성을목표로삼는탐

하고공식적으로인정한것이다. 예금총액이내가 10 억프랑이되어야한다고정한최대치에일단도달했다면, 정부는그사실의거해서, 그리고양원兩院의협조없이 10 억을차입하고지출했을것이다. 민족대표자들은결코그이익을위한투표를거절하지않을것이다. 언론이투표도없고감독도없을경우에는유일하게남아있을 6000 만이나 7000 만프랑의이자를제외하고라도권력의실험실에서증발할위험을무릅쓰는이 10 억프랑을감하지못하면서, 정부가행하지못하도록기각된, 400 만명에게절약을해주지도않을정기수령금전환을위해큰소리를지르는것은한심한일이아닌가?

예금자들쪽에서저축금고는그에못지않게정력적이고그에못지않게확실한빈곤의축매제다. 왜냐하면, 저축금고가어디서도빈곤을완화하기는커녕이름배분하고, 이배분을통해빈곤을증가시키기때문이다. 이는염증을일으키는국부적질환인데, 보편적이고만성적인무기력상태로전환되는것이다. 사람들은가난한이에게이렇게말한다. 더고생해, 허리띠를줄라매, 굶어, 더가난하고, 더빈곤하고더덜벗어. 결혼하지마, 사랑하지마. 너의포기에힘입어주인이평안히잠자고, 마지막날자선시설이너를뒤희일이없도록말이야.

그러나내가긴내핍의결실을거둘것을누가내게보장하는가? 생명이연장되어감에따라생존확율은낮아진다. 그리고내게현재의재화, 물적재화의희생을요구하는것은점점낮아지는행운을쫓기위한것이다! 생명은다시시작되지않으며, 내저축은다른이력의준비가될수없을것이다. 현자, 실천적철학자는고독한탐욕의 40 년동안에쌓인 1000 개의금화보다매주의향락을선호한다. 이런체제를가지고서는자기상속인을위해서만축적하는것임을거의확신하는만큼크게더났다. 당신은이렇게말한다. 향락은덧없다고. 행복과건강을이루는이생의충만은드문간격으로만, 그리고아주짧은순간동안만느껴진다. 한마디로행복은이세상의것이아니다. 심오한도덕가들은반대로생은바로영혼과감각들이욕망과탐욕의극에달하는이급한순간들에있으며, 이존재의도취를단한번이라도, 1 분간이라도안자가산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러면무엇인가! 당신이나에게삶을사는것을금하는것은나를근근이연명하게하려는것인가? 그리고저세상의삶이없다면?

요컨대, 저축금고의의박애적이고공개적인목표는일꾼을위협하는사고들, 흉작, 질병, 실업, 임금삭감등에대비해재원을융통해주는것이다. 이런관련속에서저축금고는칭송할만한선견지명과선한감정을증명해준다. 그러나그것은일꾼의빈곤에대한진정한원인들인자본주의적압제와일반적비연대성의공개적고백이고거의탐욕스러운전횡의승인이다.

저축금고의경제적이고비밀스러운목표는유보금을수단으로해서매일같이일꾼에게타고그를절망에빠뜨리는불행울그의전생애에걸쳐분산시켜생존수단을위한소요, 결탁과파업을예방하는것이다. 이런관점에서저축금고는자연과예기치못한사태를이겨내는법을터득한다는점에서진본다. 그러나또한그것은세상에가해지는죽음이고, 노동자의미학적퇴화다. 최근시대에사람들은저축및퇴직금고를일꾼들에게의무화해이들에게임금에대한공제가이목적을위해행

지도록하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러한 법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 급작스러운 빈곤과 극단적인 빈곤을 멀리 하면서도 노동자 카스트의 열위劣位를 사회적 필연으로, 국가의 헌법으로만 들게 될 것이다.

끝으로, 저축금고의 정치적이고 왕조적인 목적은 그것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용으로써 인구를 사물의 질서에 묶어 두는 것이다. 이는 안정, 시민적 평등 그리고 산업에 대한 권력의 종속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기주의, 그리고 신용의 기만을 촉발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노동과 자연의 산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사회적인 소유를 마련해주는 대신 저축금고는 그것에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축적본능을 발달시키기만 하니 말이다.

그런데 저축금고가 불평등의 원인들을 조금도 건드리지 않는다면, 빈곤에서 강도強度를 빼고 연장延長을 더해 빈곤의 특성을 변경시키기만 한다면, 저축금고에 의해 세습 귀족층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분리가 더 심화된다면, 저축금고가 독점의 성화라 서 독점의 효과들이 이를 태어나게 한 것이고, 이것이 독점을 폐지할 것이라면, 저축금고는 노동계급의 안녕이 방주이며, 엄청난 혁신이 그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여전히 말할 수 있는가?

저축금고를 계승하는 것이 퇴직금고, 공제회, 생명보험회사, 톤틴 tontine 연금 등이다. 그 원리가 불운을 각 개인의 인생 전체에든, 일정수의 조합원에게든 분산시키는 것으로 환원되는, 그러나 해약을 그 근원에서 공략하는 일이 없고, 진정한 호혜성의 관념으로도, 심지어 단순한 복구의 관념으로도 상승하는 일이 없는 모든 조합들이다.

로드리그(O. Rodrigue) 씨의 퇴직금고에 관한 기획에 따르면, 모든 일꾼은 21세부터 45세까지 그금고에 불입을 하도록 가입될 것이다. 그리고 연금은 45세부터 65세까지 수령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연금의 최소액은 60 프랑일 것이다.

그런데 21세에 모집한 1000명의 개인 중 절반 이상은 55세가 되기 전에 죽는다. 그러므로 이는 마치 500명에게 불행한 노년을 면제해 주기 위해 섭리의 질서에서는 아무 두려워할 것 없는 나머지 500명에게 보상금을 지불시키는 것과 같다. 가난한 500명 대신 1000명을 모집할 것이다. 그러한 것이 모든 복권의 법칙이다. 드라마르틴 씨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의 돈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적선한다고 불평하고, 퇴직기금이 예산에서 취해질 것을 요구했을 때 이 모순을 느꼈던 것이다. 불행히도 그 치료법은 해약보다 더 나빴다. 구빈세였던 것이다! 인민의 안녕과 국민자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를 바라서는 안 되었다. 이를 바라지도 않았다.

생명보험은 기업가가 그에게 미리 지불되는 연금을 통해 피보험자의 사망일에 얼마의 금액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다른 종류의 착취다. 이는 원금 상환 불능 연금의 역전이다. 그러한 기업들은 특히 다수의 피보험자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오래 사는 이들이 일찍 죽는 이들에 비해 착취당하는 결과가 된다. 언제나 약의 배분은 약에 맞선 보장책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언제나 연장적 관계가 집약적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비밀의 전부다. 나는 보험

순한 외양을 가진이 공식에서 만이를 바라본다면 아주 쉬운 조건이며, 사람이 그에 순응하기 위해서 만큼 그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행해 온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비범하고 지극한 노력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과 경험의 이합치라는 것으로, 혹은 우리가 명명한 것처럼 상식의 조직이라는, 그 자체가 논리일 뿐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우선 판단이 직관적, 직접적 명증성을 가진 사물에 적용되고 그 지각이 연역도 연구도 요하지 않는 사물에 적용되는 한에서 그 판단을 상식이라고 부른다. 상식은 본능 이상이다. 본능은 그 확정에 대한 의식을 결코 가지지 않는 반면, 상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왜 원하는지를 안다. 상식은 신앙도, 재능도, 관습도 아니다. 이것들은 스스로를 판단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인지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상식은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인지하고 판단하듯 스스로를 인지하고 판단한다.

상식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등하다. 여러 관념들에 최고 정도의 명증성과 가장 완벽한 확실성이 상식으로부터 찾아온다. 철학적인 심을 일으킨 것은 상식이 아니다. 상식은 이성과 경험이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판단이면서도 변증법 없고 계산 없는 판단이다.

그러나 상식은 그것이 직접적 명증성을 가진 사물에만 가해 진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일반적 관념들, 명제들의 연관에, 따라서 방법과 과학에 거리를 준다. 그래서 사람이 사색에 몰두할수록 그는 상식과, 그래서 확실성과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니상식에 의해 동등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들이 꺼리는 바 되는 과학에 의해 여전히 동등한 사람들이 될 것인가?

상식은 증대도 축소도 될 수 없다. 그 자체로 고려된 판단은 언제나 똑 같고 언제나 자신과 같고 동일하기를 그만둘 수 없다. 다시금 말하지만 상식 바깥에서 여러 역량의 동등함을 유지할 뿐 아니라 그 역량들에서 상식 이상으로 앎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어려움은 처음 보기에는 아주 끔찍하지만 가까이서 바라 보면 서부터 사라져 버린다. 판단 능력 혹은 상식을 조직한다는 것은 본디 말하면 정신이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여러 판단들의 연속에 따라 가는 데서 수단이 되는 일반적 절차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판단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본다면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명증성을 지니지만, 그 총체는 이 진행 없이는 획득하지 못할 공식, 따라서 상식의 통상적 위상을 뛰어넘는 공식을 제시한다.

이처럼 우리 지식의 전체 체계는 상식에 기초를 둔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적인 것과 직접적인 것에 한정되어 그 단순한 시선의 일반을 포괄할 수 없는 상식, 그리고 이에 도달하려면 단순한 시선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상식 위로 무한히 상승한다. 단한 걸음에는 발고량의 폭박에 넘어가지 못하고 같은 움직임 일정한 수 반복해 지구를 순회하는 사람처럼 말이다.<sup>1</sup>

<sup>1</sup> 변증법은 본래 정신이 하나의 관념으로부터 다른 관념으로 상위의 관념을 통해서 가는 행진, 하나의 계열이다.

# 제 11 장 제 8 기 — 소유권

## 1. 소유권은경제적계열바깥에서는해명이불가능하다. 상식의조직에관해, 혹은확실성의문제

소유권문제는인간운명의문제다음으로이성이다루려고나설수있는가장큰 문제이고, 이성이해결에도달할마지막문제다. 실제로신학적문제, 종교의수수께끼는해결된다. 앞의가치와정당성을대상으로하는철학적인문제는풀린다. 사회문제가남는다. 이는앞의두문제와하나를이룰뿐이며, 그해결은모든사람의견해로는본질상소유권과관련이있다.

나는이장에서소유권그자체의이론, 즉그것의기원, 정신, 지향, 다른경제적범주들과의관계에서의소유권이론을설명할것이다. 소유권의자기표방을확인하는것, 즉모순들의온전한해결후에마땅히그려야하는것으로서의, 그리고매일그렇게되어가는것으로서의소유권을확정하는일은내가말한것처럼사회구성원의마지막국면이고새로운작업의대상으로, 그작업은그설계를열핏보여주고기초들을놓는것을목적으로한다.

소유권자체의이론을잘이해하려면, 사물을위에서파악하고, 철학과정치경제학의본질적동일성을새로운측면에서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문명이산업의관점에서산물들의가치를구성하고노동을조직하는것을목적으로삼고, 사회는이구성과이조직 말고다른것이아닌것처럼, 철학의대상은앞의가치를확정하고상식을조직화하면서판단에기초를놓는것이다. 그리고사람들이논리라고부르는것은이확정과이조직 말고다른것이아니다.

논리, 사회, 말하자면언제나이성인이런것들은그러므로우리인간속속의운명으로서그발생적기능들인활동과지성에서고려된것이다. 이처럼인류는그계속적발현에의해살아있는논리인것이다. 경제적사실마다정신의법칙의표현이라고, 오성안에는앞서서경험에있지않았던것이없는것처럼, 사회적실천에는이성의추상에서유래하지않는것은아무것도없다고이저서의서두에서우리에게말하게한것이이것이다.

사회는그러므로논리와마찬가지로이성과경험의합치를가장중요한법칙으로삼는다. 이성과경험을합치시키고, 이론과실천의통일로나가는것, 이것이야말로경제학자도철학자도똑같이마음먹는것이다. 이야말로행동하고생각하는모든사람에게부과되는제 1 계명이자최후의계명이다. 의문의여지없이아주단

자들측의파산위험, 지급을받기위해벌여야하는소송, 어떠한불운에의해서든보험료납입을계속하지못할형편에처하게될경우에다년간의희생을감내한것을상실할가능성은제쳐놓는다.

그러니필연적으로소수인특정개인들이구제와선견지명의기관들에서끌어내는완전히인적인이득이무엇이든, 빈곤에대처하는이기관들의무능은수학적으로증명된다. 모든기관들은도박과같은방식으로작동하면서그기관들이몇몇사람에게마련해주는이득을대중에게집어지게만든다. 그래서이성이가르쳐주는것처럼, 그리고약의보편성이요구하는것처럼, 구제회사들은실은구제를필요로하는모든이들을구제해야하지만아무도구제하지않을것이고, 와해될것이다. 평등과함께상부상조도사라질것이다. 또한공회제들이일정한안락수준에있는일꾼들을대상으로하는만큼만유지된다는것, 그것들이가장많은도움을받을자들, 가난한이들을거기받아들이자고말할때부터쓰러지거나아예불가능하게된다는것은경험적사실이아닌가?

저축금고, 상부상조, 생명보험은이미일정한수준의안락을누리면서거기에보장을더하기를바라는이들에게는훌륭한것들이지만가난한계급에게는완전히결과가없는것, 그렇지않으면아예접근불가능한것으로남아있다. 안전보장은다른모든상품처럼값이나가는상품이다. 그리고이상품가격이구매자의빈곤에따라서가아니라그것이보장해주는금액의크기에따라서낮아지므로, 보험은부자들에게는새로운특권으로, 그리고가난한이에게는잔인한풍자로해소된다.

이검토를다른작동영역에서취한예, 신용이일으키기를지향하는, 그리고국가의개입에의해서든독점의작용에의해서든실현하기가절대로불가능한것을더잘부각시킬한예로끝내도록하자.

나는제 6 장에서자본의수익, 다른말로이자부대출의기원과이론을설명했다. 나는이이론이어떻게개인들간의거래문제에관한한에서는, 그리고관심이단지약소한배당만큼증가한자본을재형성하는데한정되는한에서는참이지만이자의지속성을가지고사회에적용될때는완전히거짓이되는지를말했다. 그이유는그렇게되면순생산이총생산을넘는것으로계산되기때문이라고나는덧붙였다. 이는사회에서는모순되고불가능한것이다.

그런데신용은사회에총생산에대한순생산의초과, 그리고이자의지속성원리를사회에적용해조건들을평등화하려는시도 말고다른것이아니다.

국가가가운건설에착수한다고가정하자. 그건설은착공후 3000 만프랑이들것이다. 정부가이 3000 만프랑을예산에서취한후운하에소요된금액의이자를물리는방식으로항해세의세율을정한다면이는마치납세자들에게운하에대해두번지불하게하는것과같을것이다. 운하의이용은유지비용을제외하고는무료여야한다. 그러한것이국가지출의경제적원칙이다.

실제로는일이그런식으로일어나지않는다. 우선국가가필요한자본을보유하는일이드물다. 그리고그자본을국가가단번에조세로마련하는것이, 특히공익목적에위한지출이야주높은비율로증가한이래로불가능하므로이자본을차입으로

구하는것이더편리하고덜번거롭다는사실을발견했다. 차입을하면납세자들은 3000 만프랑을내놓는데신그이자만지불할것이고, 이자는크기가작아서예산상으로로는사라지는것으로보일것이다. 그러나차입은독점법의조항들로, 그리고대금업의법원리에따라조성될것이므로, 한마디로자본은대출자에게이득과함께상환되어야할것이므로차입은영구정기수령금으로전환되어, 말하자면운하는영구적으로지불을받고영구적으로납부대상이되거나아니면이자만단지 40, 50년혹은 99년동안만개발이용에대한배당금과함께지불되어, 말하자면정해진기간동안운하의가격이두번, 세번, 혹은네번납부되거나할것이다. 통상적으로대출자들은미리배당금을챙기며, 검사장때문에이자를미리빼고대출하는대금업자처럼 80, 70 혹은 60 만을내놓으면서국가가 100 의상환의무를지게한다.

이에따라서차입을하는국가는채무를상환하려면납세에손을대거나새로운차입을하지않을수없는데, 납세를활용하기는불가능하고, 새로운차입은앞선차입과같은방식으로행해지고부본밖에수령되지않은것을전체로삼아야해서채무를증가시키기만할것이다. 오늘날모든사람이이를알며, 특히대출자들은그러하다. 그러므로끊임없이빚을지는국가는, 그렇다고해서어디서언제나차입할데를발견하게되는가? 이는바로국가가채무를짐에따라더나은조건을내세우지않을수없다는데서온다. 그래서국가에관해서어떤의미에서는상환가능성이낮아짐에따라신용이늘어난다는것이맞는일이다. 다음은이현상에대한설명이다.

1815년에프랑스의채무가 10 억프랑이어서국가가그차입을 90% 에이행한다고가정한다. 1830년에는채무가 20 억프랑으로올라서, 국가는또한대출자를찾을수있었지만 80% 조건의대출자를찾을수있었다고가정한다. 이체제에서국채가민족산출총량을흡수할경우에만국가의신용에끝이었다. 그러나그럴때국가는파산에의해허구가된차입에서해방되어모든사람은지불을받게되고국가의신용은옛날보다더좋아진다. 영국에서공공채무의이자 7 억을넘는데 이는대략수입의 6 분의 1 이된다. 1789년에서 1815년의사태와같은일련의사태들이영국의채무를두배로만들면, 영국의가정마다매년국채를위해 4 개월치의노동을지불해야할것이다. 이는의문의여지없이불가능한일이지만, 영국에닥칠수있는가장행복한일이다.

한때는사람들이부채상각으로국가를해방시킬수단을발견했다고생각했다. 이발명품에관해서는모든것이말해졌으며, 나는여기서기억을위해서만언급한다. 부채상각은숨바꼭질이다. 거기서국가는그신용과신용상실에한꺼번에투기해, 국채들이액면가아래로떨어질때는발행한국채를낮은가격에마련한자본을통해서환매한다. 그래서이부채상각조작으로한편으로국가는하락세일때투기하는데, 따라서자기자신의신용을상실하는데에관심을둔다. 다른한편국가는새로운차입을마련하고신용을높이기위해상승세일때투기할필요, 따라서상환불가능한상태에서할필요가있다. 사람들이옛날에아주크게찬양했던이유치한행동은천가지다른것들중에위정자의심각한업무를알리는데도움이될수있다.

그런데국가에일어나는일은사회에도마찬가지로일어난다. 사회는신용에의해두카스트로나누어진다. 끊임없이신용을주는카스트와신용을받는카스트다. 그러나국가에서는그작동이단일하고중앙집중화된 반면, 사회에서는신용은수백만차입자들과자본가들사이에무한히나누어진다. 게다가그결과는언제나동일하다. 3 세기동안에국가의사기파산이아홉건, 센 Seine 상업재판소에매달등록된파산건수가 100 건이다. 이공신력있는수치를보면신용이인민들의경제에하는작용을알수있다.

끊임없는파산, 간헐적인사기파산, 그래서이런것이야말로사회에대해서, 그리고국가에대해서신용의결론이다. 다른쟁점을결코찾지말라. 금융과학은부채상각금을상상하면서당신에게그모순을드러내주었다. 이제부터는인류의삶이경제적범주들말고다른법칙들에복종한다는것이확인된다. 예를들어인류가신용에의해살았고발전했다는것이참이라면, 국가는 30 년마다, 그리고사회는계속적으로멸망해야할것이니말이다.

그러나인류의삶은불멸이다. 그러나부와행복, 자유와지성은계속진보하는중이다. 그러나실질적신용이우리에게끊임없이죽음을선고한다면, 매번도산에이어언제나되돌아오는인적신용은우리를성공적인노력의선두에둔다. 그리고그문명의작품은언제나, 우리의공식들을믿는다면해체되기직전이고죽음의법아래에서다시이어지는데, 과학에도불구하고, 이성에도불구하고, 필연에도불구하고알수없는기적에의해계속된다.

문명의가장놀라운현상, 경험에의해가장잘증언되고이론가들에게가장적극적으로 이해되는현상은빈곤이다. 문제는이보다더주의깊게, 더애써서연구되지않았다. 항구적인빈곤은논리적, 역사적, 신체적, 정신적분석에종속되었다. 사람들은 이를자연의네번째시대로서과, 속, 종, 번종으로나누었다. 사람들은그효과, 원인, 필요, 전파, 목적지, 그정도에대해길게이야기했다. 사람들은그것의생리학과치료를행해왔다. 그에관해쓰인책들의제목만으로도한권분량을채울것이다. 사람들이그에대해말한나머지, 그존재를부정하기에이르렀다. 이긴탐구에이어 지금빈곤이정의불가능한것들, 이해되지않는것들의범주에속하는것을겨우감지하기시작하는정도다.

이처럼빈곤은깨물어볼수없으나언제나현존하는신성처럼그불신자들과신자들을가진다. 빈곤은심지어냉담자들을가지는데, 이는그것의진보에적지않게 기여하는것이다. 설령슬픔과죽음일지라도감정이나감각에의해서만알게된것을부인하도록언제나이성에의해유도되는사람의운명은이상한운명이다! 내기억이틀리지않는다면엘레아학파는운동을부정했다. 스토아학파는슬픔을부정했다. 부활과유희의추종자들은죽음을부정한다. 유심론자들은물질을부정한다. 유물론자들은신을부정한다. 회의주의자들은서로를비웃는다고자처했지만, 부정과비웃음에도불구하고, 세상은그렇다고해서공간을가로질러우장한경주를계속하기를덜한것이아니다. 슬픔과죽음은희생자들을덜만들어낸것이아니고, 신들에대한숭배는성공을덜거둔것이아니다. 박애주의자들은빈곤을비웃어보라. 우리는그재발을확신한다. 그러므로우리에게새로운재앙을끌어들이고 싶지않다면이상형문자를해독하려고노력하자.

빈곤은철학이이를나중에사회에서추방하고싶다면이성에서제거해야할마지막허깨비다. 하지만허깨비는무엇인가? 이를파악하고, 이를설명하고, 이에 대해방어하는것이어떻게가능한가? 허깨비의원인, 본질, 발달, 그사고事故들과양태들에대해어떻게말할까?

빈곤은사회의질서에서악이다. 하지만악이란무엇인가? 라므네씨는말한다. 악은한계라고. 그런데또한계란무엇인가? 객관적실물이없는정신의개념이다. 이는기하학적인점과선처럼이성적존재다. 한계는그자체가한계가없으므로, 그 정의는정의되지않은유일한것이므로아무것도아니다. 그러므로라므네씨의체계에서악은논리적존재자, 실체가없는관계다. 악의존재를단언하는것은부정의실재를, 무의실재를단언하는것이다. 그러면슬픔을어떻게설명하는가? 우리에게외치게하고눈물흘리게하는, 우리에게서싫증과증오를자극하는, 심지어우리에게죽음을주는이계속적경험을어떻게설명할까? 내가무엇이라말하는가? 악이한계말고다른것이아니라면이는존재의결정자체다. 사물은감각이가능해지고분간될수있게하는것이고, 아름다움과존재의필수전제조건이다. 이는우리감각과관념의지고의조건이며, 필연적존재다. 악은한마디로선이다. 이상한정의다!

밖에없다. 아직노동에의해모양이지어지지않은땅은쓸모있는물건이었다. 그것은교환가치가아니었다. 공유였으며, 사회의것이아니었다. 가족들의배종과농업의진보는조금씩토지의가격을느껴지게했다. 노동은도양에가치를부여하게 되었다. 이로부터지대가태어났다. 동일한용역의양으로들판이더많은결실을낼수있을수록그들판은더높이평가되었다. 또한소유권자들의경향은언제나토지의산물에서차지인의임금, 즉생산비용을뺀잔액을차지하는것이였다.

이처럼소유권은노동을따라와서노동에서산물중실질비용을초과하는모든것을빼앗는다. 소유권자가신비한의무를다하고소작인에대해공동체를대표하면서차지인은섭리의예정에서는자기가정당한임금이상으로거두는모든것을사회에보고해야할책임을진노동자에불과하며, 차지및분익소작, 가축임대차, 장기임대차등의제도는사회의이름으로소유권자와차지인사이에일어나는계약의진자운동형태들이다. 지대는모든가치물들과마찬가지로공급과수요에좌우된다. 하지만또한모든가치물과마찬가지로지대는그정확한크기를가지며이는소유권자에게는이익이고경작자에게는손해가되도록산물에서생산비용을공제한총액으로표현된다.

그러므로그본질과목적지때문에지대는분배정의의수단이며, 경제적천재가평등에도달하기위해작동시키는천가지수단중하나다. 이는소유권자와차지인에의해모순적으로, 가능한한충돌없이, 상위의이익을위해작성되는엄청난토지대장으로, 그최종결과는다지개발자들과산업인들간에도시소유를평등하게하는것이여야한다. 지대는한마디로모든노동자, 모든사람, 소유자들을토지와그결실에대해평등하게만들어야할아주요망되는농지법이다. 소작인에게서그가 자기것으로간주하지않을수없는, 그리고그가배타적으로주인이라고믿는산물초과분을빼앗으려면이런소유권의마법정도는필요했다. 지대는, 더재대로말해서소유권은, 농업의이기심을깨뜨렸으며어떠한권능도, 어떠한토지분점도생겨나게할수없을연대성을창출했다. 소유권에의해모든사람들간의평등은확정적으로가능하게된다. 지대가개인들간에만족들간의세관처럼작동해서불평등의모든원인들, 모든핑계들이사라지고, 사회는이운동에추진력을줄지렛대이상을기다리지않는다. 어떻게신화적인소유권자를진짜소유권자가계승할것인가? 어떻게소유권을파괴하면서사람들이모두소유권자가될것인가? 그런것이이제부터풀어야할문제이지만, 지대없이는풀수없는문제다.

왜냐하면사회의화신은이데올로그들이하는식으로척박한추상에의거행하지않기때문이다. 그는왕조의이익도, 국가이성도, 선거권도, 대의제이론도, 인도적, 애국적감정도걱정하지않는다. 그는언제나자신의관념들을인격화하거나실현한다. 그의체계는일련의화신化身과사실들로전개되며, 사회를구성하기위해그는언제나개인을향한다. 신용의위대한시기후에사람을땅에묶어두는것이필요했다. 사회의화신은소유권을제정한다. 그다음으로는지구의토지를측량해토지대장을만드는것이필요했다. 떠들썩하게집단적작업을공표하는데신그는개인이익들을싸우게하며, 소작인과지대수령자의전쟁으로부터사회에

는 가장 불편부당한 심판이 생겨난다. 현재, 소유권의 도덕적 효과는 획득되었고, 남은 일은 지대를 분배하는 것이다. 마을의 회를 소집하고, 당신의 웅변가들과 연설가들을 부르고, 경찰을 강화하고, 이런 독재 지구에 의해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단순한 교환의 상호성은 행의 몇몇 장치들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할 것이다. ... 가장 단순한 수단들을 큰 효과를 발휘하게. 이는 사회와 자연의 지고의 법칙이다.

소유권은 독점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독점처럼 자생적, 필연적, 보편적 사실이다. 그러나 소유권은 여론의 호의를 입는 반면 독점은 경멸의 감정으로 보인다. 우리는 새로운 예를 통해, 사회가 투쟁에 의해 성립되는 것처럼 과학은 논쟁에 의해 추진을 받아서만 진행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경쟁은 차례로 높여졌다가 조롱을 당했고, 조세는 경제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그들에게 못마땅하게 여겨졌고, 이자부대출은 정죄되었다가 이어서 찬양되었고, 무역수지 균형, 기계, 노동분업은 공중의 칭찬과 저주를 차례로 불러일으켰다. 소유권은 신성하고 독점은 낙인이 찍혔다. 우리의 편견과 비밀관성의 끝을 언제나 보게 될 것인가?

### III. 소유권은 어떻게 타락하는가

소유권에 의거한 사회는 유익하고, 칭찬할 만하고, 게다가 불가피한 사고를 실현했다. 나는 사회가 어찌할 수 없는 필연성에 복종하면서 불가능한 가설에 뛰어들었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나는 소유권의 성립을 주관한 어떠한 동기도 잊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심지어 이 순간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이동기들에 총체와 명증성을 부여했노라고 감히 말한다. 독자께서는 내가 본의 아니게 누락할 수 있었던 것을 보충해 주시기 바란다. 나는 독자의 모든 추론을 수용하고 아무런 논박을 할 생각도 없다고 미리 말씀드린다. 그러나 이어서 독자께서는 양심에 손을 얹고서, 내가 하려고 하는 역전 증명에 대답할 것을 발견하면 내게 말해 주시기 바란다.

의심의 여지 없이 집단적 이성 은 일련의 섭리적 제도들에 따라 독점을 공고화하는 것을 금하는 운명의 질서에 복종하면서 자기의 무를 다 했다. 그 행실은 나무랄데 없으며,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 인류가 가진 능력의 가장 큰 발휘는 그것에 복종할 줄 아는 것인 것처럼, 집단적 이성 에 있는 숙명적인 것을 인식할 줄 아는 것은 인류의 승리다. 그러므로 집단이 성이 소유권을 제정해 그것의 명령을 따랐다면,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다. 그의 책임은 면해진다.

그러나 이 소유권은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제약을 받아, 말하자면 양성화 陽性化한 것으로서, 그것이 지속하리라고 누가 우리에게 보장하는가? 이를 저위에서 구상했고, 거기에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거나 변경하지 못했던 것은 사회가 아니다. 사람에게 이를 수여하면서 사회는 소유권에 그 장점과 단점을 남겨두었다. 그

고 그 해석은 부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전부인 지라 정당한 권리로 그리스어로 판이라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정체, 우리가 사는 전부, 우리가 가지는 전부, 우리가 바라는 전부가 그이고, 그에 게서이고, 그로부터이고, 그에 의해서 인 것이다. 그는 사랑 많은 목자 코리돈 (Corydon) 이 증명하듯이 그의 양떼만이 아니라 양떼의 목자들에게도 사랑과 애정을 가진 선한 판, 위대한 목자다. 그가 죽었을 때 불평, 탄식, 한숨, 공포와 한탄이 하늘, 땅, 바다, 지옥할 것 없이 우주의 온 조직에 퍼져갔다. 내 이런 해석에는 시대가 들어맞는다. 왜냐하면 아주 선하고 아주 위대한 판,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로마에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 예루살렘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 찬양할 만 한 이야기, 아주 심각한 어조로 말해지고 아주 신실한 성찰로 끝나는 이 이야기가 플라투르 코스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라블레의 펜에서 나온다고 누가 믿겠는가? 그러나 타무스가 발표 한 신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것에서 영원한 적들인, 독점과 유토피아에 의해 죽음을 당한 사회의 상징을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바로 이 타무스에서 그 글들이 가장 많은 걱정의 씨를 뿌렸고 섭리를 더욱 의심하게 한 사람, 맬서스를 누가 알아 보지 못하겠는가?

그리스도가 인류의 화신이듯 고대사는 현대사의 모습이다. 사회가 타무스의 배처럼 경제적 속결에 의해야만에서 문명으로 옮겨 지면서 소유권자의 해협을 통과한 후에 공산주의의 구덩이 위를 헤매고 있다. 맬서스는 우리에게 사회가 죽어간다고, 사회가 죽었다고 외치는 조타수다. 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으므로 판신을 애도하는 영혼들은 인류의 살아있는 표현이고, 인류의 예감과 슬픔의 기관들인 우리의 모든 웅변가들과 우리의 작가들이다. 이는 라므네, 라마르틴, 미슐레 같은 사람들이다. 이는 우리의 경제학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의 신비가들, 시스몽디, 블랑키, 뷔레, 기조, 티에르, 코르므냉 (Cormenin), 바로 (O. Barot), 뷔세, 라비냥 (Ravignan) 신부와 라코르데르 (Lacordaire) 신부, 리옹 (Lyon) 및 샤프르트르 (Chartes) 예하, 쉬 (E. Sue) 등등이다.

그렇다. 정말로 사회는 그 종말에 닿았다. 위대한 신판은 죽었다. 영웅들의 그림자들이 탄식하고 지옥의 악마들이 전율하는구나. 판은 죽었다. 사회는 해체 상태로 떨어진다. 부자는 자기의 의기심안에 문을 닫아 걸고 있으며 대낮의 밝은 빛에서 자기 부패의 결실을 숨긴다. 불성실하고 나태한 종이 주인에 대해 음모를 꾸민다. 부자에게 존엄성이 더 많고, 가난한 자에게 겸손이 더 많고, 충직함은 어디에도 없다. 학자는 과학을 재산으로, 그를 인도해주는 지하 통로로 간주한다. 그는 과학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정의를 의심하는 법률가는 그 격률들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한다. 사제는 더 이상 회심을 야기하지 못하고 유혹자가 된다. 군주는 황금 열쇠를 왕홀로 삼았다. 그리고 인민은 절망한 영혼, 우울해진 지성을 가지고 명상하고 침묵한다. 판은 죽었다. 나는 당신에게 이를 타무스와 맬서스처럼 말한다. 사회는 바닥에도 달했다. 애도는 서둘러 끝내라. 그리고 우리 해부자들에게 이 시체가 인도되어 있으니 사체를 부검하자.

# 제 13 장제 10 기 — 인구

## 1. 생식과노동에의한사회의파괴

“웅변가에밀리안 (Emilian) 의아버지, 에피테르세스 (Epithersès) 는그리스에서이탈리아를향해다양한상품과여러여행객을실은배로향해가는데, 저녁나절에모레 Morée 와튀니스사이에있는에키나데스군도근처에서바람이뒀었고, 그들의배는팍소스 Paxès 근처로떠내려갔다. 그곳해변에닿아서어떤승객은잠들고어떤승객은깨어있고다른승객들은먹고마시고있었고팍소스섬에서누군가가타문 (Thamoun) 을크게부르는소리가들려왔다. 이소리가모두를놀라게했다. 바로이타무스 (Thamous) 는그들의조타수이며, 이집트사람이었다. 승객몇사람말고는그이름을아는사람은없었다. 두번째로이음성이들려왔는데이는타문을무서운음색으로부르는것이였다. 아무도대답하지않았고조용히벌벌떨고있었다. 세번째로이음성이들려왔는데, 이는전보다더무서웠다. 이에타무스가대답했다. ‘나여기있고, 그대는나에게무얼요구하오, 내가무얼해주는바라는거요?’ 그때이소리가더크게들렸다. 그에게팔로데스 Palodès 에가게되면위대한신, 판 (Pan) 이죽었다고발표하라고명령하는것이였다!”

“이말을듣고는에피테르세스는선원들과승객들이모두탄복하고놀랐다고말한다. 그들간에그음성이명한것을숨기는것이좋은지밝히는것이좋은지를의논했다는것이다. 타무스는, 그들이순조로운바람을맞는다면그에대해한마디도말하지말고향해해나가야하지만, 바람이뒀게된다면들은것을이야기하겠다는것이그의의견이라고말했다. 이제그들이팔로데스에가까이갔을때바람도없고해류도없었다. 그래서타무스는벳머리에올라해안을바라보며명령을받은대로위대한판이죽었다고말했다. 이말이끝나기무섭게깊은신음과큰탄식이한사람이아니라여러명이함께내는소리로땅에서들려왔다.”

“이소식은많은이들이현장에있었기에급속히로마에퍼졌다. 그래서당시의황제였던티베리우스는이타무스를데려오라고사람을보냈다. 그리고그가하는말을들어본후에그말을믿게되었다. 그의궁전과로마에있는학자들에게이판이누구나고물어서그는판이헤로도토스와키케로가 『신들의본성』 제 3 권에서전에적은대로메르쿠리우스와페넬로페의아들이라는것을알아냈다.”

“아무튼나는그를유다이아에서박사들과사제들, 모세율법의수도자들의질투와악행에의해치욕스럽게살해당한, 신자들의위대한구세주로해석한다. 그리

것을구성하는폐단들에대해서도, 소유권을파괴할수있는상위의힘들에대해서도대비하지않았다. 소유권자체가부패가능하다면사회는이에대해아무것도모르고이어아무것도할수없다. 이소유권이더강한원리의공격에노출되면, 사회는더구나이어아무것도할수없다. 소유권이운명의딸이니, 실제로사회는소유권의고유한폐단을어떻게치료할것인가? 그리고사회자체가소유권에의해서만존속하고, 소유권이상의것은상상하지못하는데사회가어떻게소유권을더높은관념에맞서보호할것인가?

그러므로다음은소유권이론이무엇인가하는것이다.

소유권은섭리적필연에서나온다. 집단이성은이를신에게서받아사람에게주었다. 지금소유권이그본성상부패가능하거나불가항력에의해공격가능하다면, 사회는책임이없다. 그리고누구든지이힘으로무장하고서소유권과싸우려나설자에게사회는굴복하고복종해야한다.

그러므로우선소유권이그자체로부패가능하고파괴를초래하는것인지, 둘째로, 경제적병기창고에소유권을이길수있는수단이존재하는지를아는것이중요하다.

나는이절에서첫째문제를다룰것이다. 우리는궁극적으로소유권을집어삼키겠다고위협하는적이어떤것인지를찾아볼것이다.

소유권은사용하고남용할권리, 한마디로하면독재 despotisme 다. 독재자가그것을파괴할의도를가지는것으로추정되는것이전혀아니다. 이는사용하고남용할권리라는말로이해해야할것이야니다. 파괴를위한파괴는소유권자쪽에있는것으로예단되지않는다. 언제나그가자신의재물을어떻게사용든지그에게는편의와쓸모의동기가있음이가정된다. 남용에의해입법자는소유권자가그의재물의사용에서이잘못된사용에대해결코추궁을당하지않으면서, 누구앞에서도그의오류에대해책임을지지않으면서오류를범할권리를가진다고말하고자한것이다. 소유권자는언제나그의최대이익이되게행동하는것으로여겨지며, 사회가그에게그의독점물을사용하고남용할권리를준것은이익추구에서그에게더많은자유를남겨주기위한것이다. 그러므로거기까지는소유권의권한은나무랄데없다.

그러나이권한이단지개인을존중하는것으로만양허되지않았음을환기하자. 양허의동기들에대한해설에는모두가사회적인고려사항들이존재한다. 그계약은사회와사람사이에쌍무적이다. 이는정말이고, 소유권자들로부터도실도되어서, 그들의특권이공격을받을때마다그들은사회의이름으로, 오직사회의이름으로이를수호한다.

그런데소유권의독재는사회에만족을주는가? 왜냐하면, 그렇지않다면, 호혜성이환상이라서협정은무효일것이며조만간소유권이사회는멸망할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나는질문을반복한다. 소유권의독재는사회에대한무효를이행하는가? 소유권독재는선량한가부장으로서사용하는가? 그는본질상올바르고, 사회적이고, 인간적인가? 바로이것이질문이다.

그리고나는이에대해서반증을두려워하지않고대답한다.

개인적자유의관점에서소유권의양허가필요했던것의심할바없다면, 법적인관점에서소유권의양허는양수자쪽에서는이행하거나이행하지않는것이그에게임의선택인일정한의무를내포하므로근원적으로무효다. 그런데비의무적인조건의성취에기초를둔일체의협정은의무를부여하지않는다는원칙덕분에, 우리가앞서서확정한목적에서특권보유자와국가간에체결된암묵적인소유권계약은명백히환상이다. 그것은비호혜성에의해, 쌍방중한쪽의피해에의해무효화된다. 그리고소유권문제에서의무의이행은양허자체가그것만으로철회되지못하면요구가능한것일수없으므로, 따라서정의定義에모순이있고, 협정에비일관성이있다. 계약자들은그후에그들의협약을유지하는데집착한다면, 사물의힘은그들이쓸데없는일을한다는것을그들에게증명해주는일을떠맡는다. 그럼에도그들의적대관계의숙명은그들간에불화를가져온다.

모든경제학자들이, 영토의파편화가농업생산에폐단이됨을지적한다. 이점에서사회주의자들과의견일치를이루면서그들은큰규모에서작동하고기술의위력적공정절차를적용하고물자를크게절약해서생산물을아마도두배, 네배로늘릴총체적개발을환호하며보게될것이다. 그러나소유권자는“나는금한다 veto”고말한다. 나는원치않는다는것이다. 그리고이는그의권리이므로, 세상에아무도수탈에의한것과다르게이권리를바꿀수단을알지못하고, 수탈은무無이므로, 입법자, 경제학자, 프롤레타리아는미지의일앞에서기겁하고물러서며, 멀리서약속된수확에인사하는데만족한다. 소유권자는성격상공공선을시샘한다. 그는소유권을상실하지않고는이익을청산할수없을것이다.

그러므로소유권은노동과부여장애물이되고, 사회경제에장애물이된다. 이에놀라는것은경제학자들과법조인들말고없다. 나는어떻게긴말하지않고단박에이사실을그들의정신에넣어줄수있을지를찾는다.

우리가각자하루에지출할돈이 56 상팀밖에없어서가난하다는것은참이아닌가? 그렇다. 이는슈발리에씨의대답이다.

더나은농업체계가물자비용에서 10 분의 9 를절약할것이며, 생산물을네배로해주리라는것은참이아닌가? 그렇다. 이는아서영 (Arthur Young) 씨의대답이다.

프랑스에는소유권자 600 만, 토지세납세의무자 1100 만, 그리고필지 1 억 2300 만이있다는것이참이아닌가? 그렇다. 이는뒤누아예씨의대답이다.

그러므로소유권자 600 만, 토지세납세의무자 1100 만, 그리고필지 1 억 2300 만이없어야질서가농업에서지배하고인당하루 56 상팀반대신우리가 2 프랑 25 상팀을가지게된다. 이는우리를모두부자로만들어줄것이다.

그리고이 1 억 4 천만의공공의부에대한반대세력은어째서있는가? 노동에서의협력이소유권의매력을파괴할것이므로, 소유권밖에서우리의눈은아무것도보지못했고, 우리의귀는아무것도듣지못했고, 우리의심장은아무것도이해하지못했으므로, 끝으로우리는소유권자들이므로.

에대해아무것도말하지않았다. 한편으로 『데모크라시파시피크 Démocratie pacifique』 는장벽의철폐에서팔랑스테르로의전진만을보며, 다른한편 『포필레르』 는루이필리프가코브던에게행한초청을그리스도교신자들에게이야기해주며, 우리나라의독립을위해위협이되는이사실로부터강자들과부자들이노동계급을위해무언가를할날이다가온다는결론을끌어낸다.

그러나나는모든것을이야기할수는없을것이다. 게다가내가말한것은이론을위해서는충분할것이다. 친애하는빌가르델, 사회주의의사실과행적에대해말한다면지난여러세기들에서처럼우리세기에도그대와나는이야기하기를포기한다. 그과제는내인내심을넘어설것이며, 이는너무많은빈곤, 너무많은파렴치한것들을들추어내는일일것이다. 비평가로서소유권의부정에의해사회법칙들의탐구를진행해야했던나는사회주의자의맹세자에속한다. 이런관계속에서나는내가처음에한언명들을부인할것이아무것도없다. 그리고나는다행스럽게도내선행자들에게충실하다. 실현과진보의사람으로서나는온힘을다해머릿속이탕비고무능하고부도덕하고, 바보들과사기꾼들을만들기에만적당한사회주의를거부한다. 사회주의가 20 년전부터과학을공언하면서아무런난점도해결하지못하고세상에행복과부를약속하면서도스스로는적선으로만생존하고, 아무것도생산하지않으면서엄청난자본을집어삼키는모습을보여주는것은이런식이아닌가?

나로말한다면, 공언하노니, 대낮을구하고비판에맞서싸우는대신골목길의침침함속에서숨는이런지하선전에직면해서, 이파렴치한관능주의, 이진흙탕문학, 이고삐풀린거지행세, 일부노동자들을얻기시작하는정신과가슴의이마비에직면해서사회주의적불명예에서깨끗하며, 다음과같은두마디말로과거, 현재그리고미래의모든조직유평아들에게관해내신양선언과내기준을밝힌다.

노동을조직하기위해권력과자본에호소하는자는누구든지거짓말을한것이다.

노동조직은자본과권력의권리박탈이어야하기때문이다.

들이가격을무한히절감하는이기술은공동체의체계에서는소유권의체계에서처럼부의부정자체말고다른것이아니라는것을누가모르는가?

사회가비용절감에서구하는것은불모의축적동기에의해서가아닌새로운창조를위한, 즉언제나더큰생산과소비를위한원가절약이다. 반대로소유권은그배타적이고질투하는지배를무한히확장하고자기주위에서막과공허를창조할수단밖에보지못한다. 이는순생산과총생산의구분을일으킨것으로, 전자는이익, 즉소유권적배제를표현한다. 후자는집단적행복을가리킨다. 이처럼시몽디가아주한심스러운그림을그린, 30 만 ~40 만명의주민을먹여살릴수있을로마근교농지 agro romano 소유권자들은그땅을경작하기보다는목초지로놔두는것이자기들에게더이익이됨을발견했다. 산업인들처럼그들의이익은일꾼들을두지않는데있다. 그들은‘가능한한많은것을가능한한많은수의사람들이생산하고소비하게하기’를문제로삼지않는다. 이것이정말로경제문제다. 그들은다음의반사회적격률을규칙으로삼는다. ‘가능한한큰순생산을실현한다. 즉, 그들주위에노동과임금을제거한다.’

공동체는공동체를구별해주는열광적태도로이소유권자의일상관행을자기것으로만들어정확하게소유권처럼추론한다. 비용절감의이론에서모든사람을위한노동을줄일수단만을보며, 그러한감축이한계가없을것이며, 필연적으로무위, 절대적공핍에도달할것임을감하지못한다.

합승마차는확실히완전히공산주의적취향에따른경제적인차량이다. 각가족에게말과 1 두 2 른마차를줄정도로부유한사회를가정하자. 합승마차의존재이유는무엇일것이며, 그것의경제는무엇을의미할것인가? 그것의상대적인쓸모에도 불구하고 개별마차를 대체한 합승마차는 부의 진보이기는 커녕 반대로 부의 감소를 가르쳐준다는 것이 제대로 된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공산주의가 행하는 것이다. 소유권식으로 궤변을 부려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수백만의 살림살이가, 패종시계, 금으로 된 손목시계, 옷장, 의자, 탁자, 그림, 부조, 서재, 난로, 등잔불과 촛대, 식기류와 부엌세간, 6 개월간의 내의류, 갈아입을 의복과 외투, 온갖 보석과 용구들이 무슨 소용인가? 이 소동, 이 방탕함은 무슨 소용인가? 반면에 우리가 공동체로 산다면, 우리는 만찬실에서 포부르동으로 웅장하게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치는 훌륭한 패종시계, 오페라에서처럼 빛나는 샹들리에, 500 명이 앉을 수 있는 탁자, 서른말들이 술, 그리고 의회의 장면들과 공화국의 승리의 모습들이 유화로 그려진 벽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음! 그대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는 선량한 사람들아, 보석상, 시계공, 주조공, 조각가, 고급 가구세공인, 등잔불제작자, 난로제작자, 유리세공인, 인쇄업자, 여성용 모자 제조인들이 무슨 소용인가. 당신이 부를 금한다면 노동이 무슨 소용인가? 인류가 무슨 소용인가? 아니, 공동체가 무슨 소용인가? 그대들은 공동체 없이도 충분히 험하고, 충분히 불쌍하지 않은가!

내가 공산주의에 대한 불평을 다 쏟아내려면 멀었다. 나는 여러 나라 인민의 산업적 자유를 해하려는 영국 경제학자의 음모에 이순간 공산주의가 내미는 뜻밖의 원조

소유권자가 기사다운 자유분방함으로 과학의 권유에 양보하고 노동에 그 생산물을 개량하고 늘리는 것을 허락한다고 가정하자. 그로부터 엄청난 선이 일용노동자와 시골사람들에게 생겨날 것이며, 그들의 피로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생필품 가격의 인하에 의해 두 배로 지불받는 입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자는 말한다. 아주 딱 떨어지는 이득을 포기한다면 나는 아주 바보 같을 것이다! 100 일의 노동 대신 나는 50 일만 지불할 것이다. 이익을 볼 것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나다 — 하지만 그러면 프롤레타리아는 한번 더 실직할 것이니, 이전보다 더 불행하리라는 것을 생각하라 — 그것은 내게는 관계 없다고 소유권자가 대꾸한다. 나는 내 권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남들은 할 수 있으면 재산을 사라고 해라. 아니면 그들이 수천명, 수백만명이라면 다른 데 가서 재산을 구하라고 해라!

모든 소유권자는 가슴 깊숙이 이런 살인적인 사고를 조장한다. 그리고 경쟁, 독점, 신용에 의해서처럼 침투가 항상 확장되므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땅에서 제거되는 처지에 놓인다. 소유권은 땅의 인구 축소다.

그러므로 이처럼 소유권자의 지대는 산업의 진보와 결합되어 노동자의 발밑에 독점에 의해 파인 구멍이 틀림없이 심연으로 바꾸어 놓는다. 악은 특권과 함께 심각해진다. 소유권자의 지대는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의 상속 재산이 아니다. 말하자면 경작비용이 결제된 후 남는 농산물의 이 부분으로서 토지 같은 축적된 자본을 생산에 끊임없이 제공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이 아름다운 이론에 따르면 노동에 새로운 개발 이용의 소재로서 언제나 소용될, 그리고 더 많이 노동할수록 더 확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 말이다. 지대는 소유권자에게는 그의 음탕함의 담보물, 그의 고독한 향락의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남용하는 소유권자가 자신과 도덕 앞에서는 유죄이지만 법 앞에서는 무죄임을 변함없고 정치경제학에서는 공격이 불가능한 채로 있는 것에 주목하라. 자신의 소득을 먹여치우는 것! 무엇이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더 합법적인가? 명사들의 견해에서처럼 인민의 견해도 비생산적 소비는 탁월하게 소유권자의 덕목이다. 사회의 모든 근경은 이 사라지지 않는 이기주의에서 유래한다.

토지의 개발 이용을 쉽게 하고 여러 지방이 서로 관계를 갖게 하려면 도로, 운하가 필요하다. 이미 설계도는 되어 있다. 이쪽의 가장자리, 저쪽의 길쭉한 땅, 나쁜 땅 몇 헥타르를 희생시킬 것이고 그러면 길이 열린다. 그러나 소유권자는 울리는 음성으로 외친다. 나는 원치 않는다고. 그리고 이 무서운 거부권 앞에 집정관은 옛날에 감히 강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국가가 과감히 대답했다. 나는 원한다고! 하지만 이 영웅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얼마나 주저했을 것이며, 얼마나 두려웠을 것이며, 얼마나 고뇌했을 것인가. 얼마나 조정을 했을 것이며, 어떤 과정을 거쳤겠는가! 인민은 이 권위적 조치에 비싼 값을 지불했으며, 그 축진자들이 소유권자들보다 훨씬 더 어리둥절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계산할 수 없어 보이는 선례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 이 루비콘 강을 건너 후다리는 끊어질 것이라고, 그 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소유권에 폭력을 가하는 것, 웬조 집인가! 스파르타쿠스의 그늘이 덜 무서워 보였다.

자연적으로는덜비옥한토양의깊숙한곳에서우연이, 그리고우연에서태어난과학이연료의보고를받았다. 이는자연의공짜선물로서공동의주거지토양 밑에놓여서각자는자기몫을청구할권리를지닌다. 그러나소유권자도착한다. 단지경작을위해서만그에게토지의양도가행해졌던것이다. “당신들은지나가질못할것이다.” “당신들은내소유권을범하지못할것이다!” 하고그는말한다. 이에기치못한경고에학자들사이에서큰논쟁이벌어진다. 어떤이들은광갱이경작지와같지않아서국가에속해야한다고말한다. 다른이들은소유권자가지상과지하의소유권을가진다고주장한다. “토지를보유하는자는누구나위로하늘까지, 그리고아래로지옥까지가다그것이다 (Cujus est solum, ejus est usque ad inferos)”라고주장한다. 왜냐하면소유권자가어둠의왕국에배치된새로운심술곳은문지기로서입구를막을수있다면국가의권리는허구일뿐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수탈로돌아갈필요가있을것이다. 국가는이를어디로가져갈것인가? 국가는양보한다. 뒤누아에씨의입술을빌려서트롤롱씨의뒷받침을받으며이렇게말한다. “과감하게단언하자. 옛날에광갱을왕의소유라고말한것이옳지못하고합당하지못한것처럼, 광갱을민족의소유라고말하는것은옳지못하고합당하지못하다. 광갱은본질상토지의부분을이룬다. 보통법이지상의소유권은지하의소유권을내포한다고말한것은완전한상식을가지고한말인가? 실제로그분리를어디서중단할것인가?”

뒤누아에씨는별것아닌것을가지고고뇌한다. 그러니누가때로상속에서 1층과 2층을나누는것과같이광갱을지표면과분리하는것을막는가? 이는루아르데파르트망에서석탄지대의소유권자들이아주잘행한일이다. 그곳에서지하물의소유권은거의어디서나지표면의소유권과분리되었고, 주식회사주식처럼일종의유통하는가치로변형되었던것이다. 누가또광갱을갱도가필요한새로운 땅으로간주하는것을막는가? 하지만뭐라고! 나폴레옹, 트롤롱씨, 뒤누아에씨는이렇게갈채를보낸다. 더는재론할것이없다. 원지모를사소한유보조건에서협상이벌어졌다. 소유권자들은황제의너그러움을입었다. 그들은이은혜를어떻게인식했는가?

나는벌써한번이상루아르광산의담합에관해말할기회를가졌다. 마지막으로이를재론한다. 왕국의석탄광맥으로가장풍부한곳인데파르트망에서개발이용은우선가장돈이많이들고가장터무니없는방식으로행해졌다. 광업의이익, 소비자들과소유권자들의이익은채굴이총체적으로행해질것을요구했다. “우리는원치않는다”고몇해인지모를여러해동안소유권자들이거듭말했다. 그리고그들은무서운경쟁을했으며, 광산의황폐화가그첫비용을지불했다. 그들은그런권리가있었는가? 당연히그렇다. 그들이권리에서벗어난행동을하는것에대해국가가나쁘게생각하는것을살펴보자.

결국소유권자들, 적어도그대부분은의견합치에도달했으며, 연합을이룬다. 의문의여지없이그들은이성애, 보전, 좋은질서, 사적이익만큼이나일반이익이라는동기에양보했다. 이제부터소비자들은저가로연료를얻을것이며, 광산업자

매출세의정신이다. 어디에서나우리가가까이서들여다볼때에는사회에균형으로향하는경향, 언제나공산주의적관성과소유권자의무정부성애의해반대를받고질식을당하는경향이나타난다.

유감스럽게도화폐가태국적부터아주인기있게만들어준이분배체제에공동체는카토처럼자기자신의손으로찢어지지않고서는의존할수없다. 일체의가치척도는개성의순수한표현이고전유의공식적선언이다. 화폐는공산주의의사망진단서다. ...

공동체는빈곤의종교다. 유토피아주의자들은이에동의하지않을수없다. 경제학자들은이를소리높여가르친다.

로시씨는이렇게말한다. “나는『정치경제학강의』에서노동자들의각각정이어떻게상호부조와공동지출의공평한체제로자신의조건을개선할수있는지를보여주었다. 이는바로연합과동료관계의정신에요구하는것이온당한것이다. 이한계(공핍의한계) 안에서종교적공동체들과수도원들의예는제안하기가아주좋다. 왜냐하면고립은지출할것을별로가지지않은자들, 선투자를할수없는자들, 도매로, 유익한때에공급물자를구입하고가정경제에많은배려와많은시간을쓸수없는자들에게는치명적이기때문이다. 가난한자들에게는살림살이단위들의수를늘리는것은바보짓이다. 그리고아내와자녀를가진남자들에게는적당하지않고, 가족정신을파괴하는경향을떨절대공유의삶을꿈꾸는일없이부분적공동체, 구매, 조달, 난방, 식사, 상호부조의공동체가있으며, 이는아무런불가능한것도, 부도덕한것도없고그조합에의해노동자계급들의이해력을넘어서지도않는공동체다. 그공동체들이체계를만드는사람들의공상에귀를기울이는대신그들의공정성과자연적감각만을참조한다면이사실적질서안에서이미실현된실험들을어렵지않게배가시키고확장할수있을것이다. 이는결코소음을내지않으며, 광휘를발하지않고완수되기위해사회의흐름을멈추는여호수아도필요로하지않는다. 그러나이는또한중죄재판소로도, 사랑통정신병원으로도인도하지않는길들이다. 다소간에그들의노동도, 그들의생활전체도, 사람에게서더개인적인것과가족에게서더내밀한일도공동의일로두기위해서가아니라그들의이익, 지출, 소비, 물질적이고외적인가정생활의일부를상호부조의목적에서공유로두기위한다섯, 여섯, 열가족의자발적이고일시적인조합들은노동자들에게행복의수단일뿐아니라교육과도덕성의수단일것이다.”

그대는들었는가? 공동체는일반비용절감이론의적용으로서빈곤의한계안에서만인정이가능하며, 가난한자에게만좋다. 또한거기에는노동도, 생활전체도, 가족도, 자유도, 이익도두어서는안되고단지지출의일부만두어야한다. 그러나일단저축에의해형편이나아지고나서는공동체를피하라고그는그대에게말한다. 공동체는프롤레타리아트의형태라는것이다.

그렇다. 로시씨, 당신은가난한자들에게특정한지출들을공동으로하는것을권장하면서, 비용절감의원리가절약의강력한수단이라면이는같은정도로빈곤의틀림없는수단이라는뜻으로말할때옳은말을하는것이다. 실제로이이론, 물건

다. 이는 모든 취향을 위해 필요했으며,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무것도 무릅쓰지 않았다. 신청자들은 항상 들어올 것이다. 심지어 비판을 받는 영예를 얻은 것을 자랑할 수 있었으니 그만큼 세상은 어리석다.

사치와 관련해서 금융주의적 사회주의 건괘락주의적 사회주의 건, 사회주의의 오류는 가치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나온다. 생산물의 비례성 법칙에 따르면 사치품은 생산이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부의 구성에 더 미미한 양으로 들어가는 물건들을 가리키는데 쓰이는 순전히 상대적인 표현이다. 사회경제학의 이기초적 관념에 따르면, 사치를 금지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이를 통상적이고 쉽게 만들라고 말하는 것도 터무니없다. 한편으로 가치들의 계열을 무시해 신비화에도 달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 계열을 손상시켜 이는 빈곤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니 말이다.

사치의 적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변명자들이 우애를 저버리고 가장 완고한 이기주의를 표방함으로써만 응답한 것, 이는 분배가 행해질 방식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기 것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회에서 다이아몬드의 치장, 진주 팔찌는 분할될 수 없어서 그 소유권을 위해 새로운 특권, 일종의 귀족 계층을 창조하는 물건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석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다른 천 가지 것들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사치품은 희소성을 원리로 삼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다양하다. 그러한 남용을 공동체 안에서 용인할 수단은? 그리고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이를 묻는다. 공동체의 어리석음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말이다. 하늘이 여러분에게 이 카리아인들의 체제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입장에서 벗어났겠는가? 여성들의 애교, 젊은 이들의 환심을 사려는 언동, 모든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쾌락에 대한 절제되지 않은 욕망, 이미 소유권이 있지 않다면 만족되기 위해 소유권을 필요로 하는 이 욕망을 생각해 보라. 확실히 다이아몬드가 유리알들보다 더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선한 카리아인은 이를 아무에게도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희귀하고 어려운 하찮은 것들이 자기 주장과 질투, 불화의 열망이나 무진장한 주제인가? 여러분은 그 분배를 추첨에 방지하는가? 이는 밀수를 조장하는 것이다. 자극을 받은 모든 부분의 보석상, 금은세공인, 여성용 모자 제조인, 사치품과 퇴폐적인 물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곧 반공 조합을 결성할 것이다. 안녕의 유일한 수단은 금지다. 부정한 비밀론의 부는 불길에 던져지거나 공화국의 행렬에 쓰도록 몰수될 것이다.

그렇지만 근경에서 벗어날 쉽고 단순한 한 가지 수단이 있었다. 이는 자연에 (내다 버려) 분배하는 대신 등가에 의한 분배 체제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각 노동자가 자기 산물을 양도하고 ...의 물표를, 그에게서 상품으로 받아진 가치만큼을 그가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수단에 의해 자기 소비의 유일한 심판자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출은 취향에 따라 달라져서 사치품의 분배는 저절로 아무런 질투도 일으키지 않고 행해진다. 이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값이 지불되고 누구에게도 선호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유행이 어느 물건에 달라붙으면, 곧 가격 인상이 뒤따른다. 그리고 사회가 물건에 세금을 매겨, 사치품은 경제의 원소가 된다. 포도농산물 및 공산품에 관련해 그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허가세, 직접세, 유통세와

들은 정규 노동자를 얻을 것이며, 임금 은 보장될 것이다. 공중에게서 얼마나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가 나오는가! 학계에서 얼마나 찬사가 쏟아지는가! 이 아름다운 헌신이 얼마나 꾸며지는가? 사람들은 그 모임이 사업권을 함께 묶는 것을 금하는 법의 조문과 정진에 순응하는지 알아 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모임의 장점만을 볼 것이며, 입법자가 인민의 행복 말고 다른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다는 것, 인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이어야 한다 (Salus populi suprema lex esto) 는 것을 제대로 증명할 줄 알 것이다.

기만이다! 우선 소유권자들이 담합하면서 쫓는 것은 이성이다 아니다. 그들은 힘에만 복종한다. 경쟁이 그들을 심연에 빠뜨림에 따라 승리의 편에 줄을 서서 자신들의 증대하는 무리에 힘입어 반대자들의 패주를 가속화한다. 그리고 나서 연합은 집단적 독점으로 형성된다. 상품 가격은 증대한다. 이런 것이 소비에 가해지는 것이다. 임금은 낮아진다. 이런 것이 노동에 가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중은 불평한다. 입법자는 개입하려고 한다. 하늘은 벼락을 치겠다고 위협한다. 검찰은 담합을 금하는 형법 제 419 조를 내세우지만 이는 모든 독점자가 연합을 이루는 것을 허용하며, 상품 가격에는 어떠한 조치도 규정하지 않는 조항이다. 행정부는 1810년 법에 호소한다. 이는 개발 이용을 촉진하고자 해서 사업권들을 분할하면서도 오히려 통합에 반대되기보다는 호의적인 것이다. 그리고 논문, 판결, 논증들을 가지고 서어 변변 변호사들은 담합이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다른 변호사들은 담합이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렇게 혼잣말한다. 내가 투기 거래와 경쟁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정당한가? 내게 최대의 이익이 되게 소유권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 내게 그렇게 비싸게 되 돌아오는 것이 정당한가? 요금표를 정하도록 하라! 소유권자들은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나는 국가가 아무것도 풀지 못하는 것인 권위적 조치,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인 보상금에 기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저항을 이겨내려면 이겨내 보라고 도전한다.

소유권은 소유에서만 아니라 생산에서도 비사회적이다. 노동수단의 절대적 여주인 그는 불완전하고, 사기성 있고, 역겨운 생산물만을 내놓는다. 소비자는 더 이상 대접받지 못한다. 그는 자기 돈을 도둑맞는다. 사람들은 농촌의 소유권자에게 말한다. “당신은 이 과일들을 따기까지, 이 밀을 수확하고, 이 견초를 말리기까지 며칠을 기다릴 줄 모르셨나요? 이 우유에 물을 타지 않고, 당신의 나무술통을 씻어내고, 당신의 수확물을 더 잘 돌볼 줄 모르셨나요, 덜 안 아플고 더 잘 할 줄 모르셨나요? 당신은 과부하예요. 당신의 상속 재산 일부를 내려 놓으세요.” “무슨 뜻인지 같은 소리요!” 소유권자가 빈정거리는 기분으로 대답한다. “영성하게 밭갈이를 한 20 아르팡이 같은 시간들이고 비용은 두 배로 쓴 10 아르팡보다 언제나 더 많은 수확을 낸 단 말이에요. 당신의 체제대로 하면 토지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먹여 살릴 것이요. 하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에 게 뭐 난 말이에요? 내 소득이 중요하지. 내 생산물의 품질로 말하자면 그 생산물은 언제나 먹는 이들에게는 충분히 양호할 것이요. 당신은 재주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담 선생님, 당신은 어린 아이일 뿐이요. 판

매에 내놓을만한, 그것도공정한가격에판다면소유권자인것이무슨소용이난말이오? ... 나는원치않습니다.”

“음, 그렇다면! 당신은경찰이그의무를행하도록하라고말하시겠군요! ... 경찰말이오! 당신은경찰의행동은바로악이실행되었을때시작된다는것을잇는군요. 경찰은생산을감독하는대신생산물을검사합니다.”소유권자가양심없이경작하고, 수확하고제조하도록허가한후등장해푸른과일을집어들고, 혼합된우유단지, 불순물이섞인맥주와포도주통을쏟아붓고금지된고기들을쓰레기장에내다버린다. 이모든일이경제학자들과민중의박수갈채를받는가운데행해진다. 이들은사람들이소유권을존중하기를바라지만교환이자유인것을견디지못한다. “이봐, 야만인들! 이불순한산물들의소매를유발하는것은소비자의빈곤이란말이오. 당신이소유권자가악하게행동하는것을막지못한다면, 왜당신은가난한자가열악하게살아가는것을막는것이오? 굶어죽느니보다복통을앓는편이낫지않소?”

이산업인에게가난한이의빈곤, 아이들과어린여자아이들의무경험을놓고투기행위를하는것을비열한짓이라고말해보라. 그는당신말을이해하지못할것이다. 무모한과잉생산에의해, 잘못된계산된사업에의해, 그가자기자신의재산을가지고그의일꾼들의생존을위태롭게한다고, 그의이익은관심사가아니라해당그주위에온집한수많은가족들의이익은고려되어마땅하다고, 그의자의적인선심에의해그주위에낙심, 비굴함, 증오를만들어낸다고하는것을그에게증명해주어라. 소유권자는화를낸다. 전설을흥내내어이렇게말한다. “내가주인이아닌가? 그리고내가누군가에게선하므로당신은내선량함을모두를위한권리로삼겠다는것인가? 내게복종해야하는자를내가배려하는것이필요한일인가? 이집은내집이다. 내가내사업운영을위해하는것이좋은일에대해서는나만이심판관이다. 내일꾼들이내노예들인가? 내가제시하는조건이그들맘에안들고, 더 나은조건을발견하면, 가라고하라! 나는그들을축하해줄첫번째사람일것이다. 아주훌륭한박애주의자들이여, 누가당신들이작업장을여는것을막는가? 만들어서모범을보여달라. 당신들이덕성을설교하면서영위하는이감미로운생활대신에공장을지어서일을시작해보라. 끝으로땅위에서당신들에의해연합이결성되나보자. 나로말하자면나는그런빌어먹을짓은온힘을다해거부한다. 조합원들이라니! 차라리파산하고말지, 차라리죽고말지!”

이와같이소유권은사람과사람을독점보다백배는더갈라놓는다. 입법자는현저하게사회적인관점에서소유에더강한보장책들을제공해야한다고생각했다. 그리고독점자에게는영속적으로그의약탈의매일의결과물을보장해주면서노동자한테는희망마저빼앗는입장에선다. 어떤거대한소유권자가작은소유권자를억제하기위해자기힘을남용하지않는가? 어떤존귀한몸의학자가그의영향력과그의후원자로부터이득을취하지않는가? 자문의견에서공신력을얻은어느철학자가번역, 재검토혹은논평을구실로철학에서세금을징수할수단을찾아내지않는가? 어떤장학사가알파벳입문서를팔지않는가? 정치경제학은모든주식장사

에서해석하고변경한다. 사법관들은프랑스적자유에대한그들의헌신을맹세하면서도비오 9 세의초자연적이고섭리적인선출에대해신에게감사를돌린다. 왕조적반대당과보수당파들사이에서드라마르틴씨는종교와신앙심만을호출한다. 대학은자신의신조를말하고교회보다더신실함을자처한다. 심지어붉은남자가틸리리공원에다시출현해,

땅에입맞추고나서  
예수회원의모자를놓는다  
는말까지있다.

그러므로공동체는종교다. 하지만무슨종교인가?

철학에서공산주의는생각도하지않고추론도하지않는다. 논리, 변증법, 형이상학을싫어한다. 배우지도않고민는다. 사회경제학에서공산주의는수를헤아리지도, 계산하지도않는다. 조직을할줄도, 생산할줄도, 분배할줄도모른다. 노동은공산주의에는수상쩍으며, 정의는두려움을준다. 그스스로초라하고, 모든주문사항, 모든실현, 모든법칙과양립불가능하고, 자신의관념을가장낡은전통에서빌려오고, 모호하고, 신비적이고, 규정이불가능하고, 사치를중요해절을설파하고, 자유를두려워해복종을, 선견지명이싫어서정적주의를설파해이어서나결핍이고언제나결핍이다. 공동체는느슨하고무기력하게만들며, 발명이빈약하고, 실행력이빈약하고, 불품이없어서공동체는빈곤의종교다.

내가사치라고명명해오고있는가? 정치경제학은이점에서아무런정확한것도내놓지않아서유토피아는아무것도취할것을지니지않았다. 그리고카베씨는뜻밖의상황에처했으며, 고르디우스의매듭을베는새로운알렉산드로스로서용감하게입장을취했다. 그는사치를금한다. 사치는절대안된다! 유행과모치장을타도하자! 여성들은인공깃털을지닐것이다. 다이아몬드는유리장신구로대체될것이다. 부티나는양탄자, 고급가구는말과마차처럼국가에속할것이다. 이는질투심을일으키지않을것이다. 복장은일단모두에대해주권자의자문의견에의해규제될것이다. 스무개정도의모형에맞춘웃은허리모양을내고언제나맞는크기를보전하도록고무처럼탄력적일것이다. 고집과부패를위해창조된이영똥한환상들에노동과공공재산을잃어버리는것이무엇에좋은가?

이처럼생각한것이피타고라스, 리쿠르고스, 플라톤, 제논, 디오게네스, 예수, 그리고에세네파, 영지주의자들과에비온파, 세네카, 모든교부들, 모든도덕가들, 트라피스트수도자들, 오언주의자들등이었다.

그렇지만이사치문제에대해사회주의전통은만장일치인채로있지않았다는것을말할필요가있다. 어떤이들은에피쿠로스주의자들처럼분열을일으켰다. 이들로부터생시몽주의자들, 육肉的복권의장본인들과푸리에주의자들, 사치와색욕의추종자들이모든양태, 종류와경우로 (in omni mode, genere et casu) 나왔다. 이들은전자의사람들이겸허함과중용을위해하겠다고위협하는모든것을신입자들에게부, 사치, 호화로움, 쾌락, 웅장함측면에서해주겠다고약속하는, 더낫고매력있고더이득이되는전술을발견했다. 이분리는아무런놀랄것이없

처럼과학상으로허무주의, 공유, 부동산, 밤, 침묵과동의어다. 이는실질의반대이고, 창조자, 빛의신이그위에우주를설계한컴컴한심연이다.

## X. 공동체는빈곤의종교다

이종교라는말에, 그리고각자에게그에합당한평가를해주기위해나는여기서종교적견해의문제에서는『사회적관념들의역사 Historie des idées sociales』의저자, 모델리의재건자, 캄파넬라의번역자<sup>4</sup>보다더순수하고흠잡을데없는사람을알지못한다는것, 친애하는빌가르델그대가하는것보다더많은자유와더적은선입견을가지고신에관해의견을표명하기가불가능하다는것을선언하는것을의무로간주한다. 공산주의가그대에게서는강한정신을가지는것으로인식되므로공산주의는미신에서벗어나는결과가되는가?

친애하는빌가르델, 그대는이를처음으로인정한사람인데, 공동체는진보하는중이다. 즉공동체의시대가멀어질수록공동체를상기하는유토피아주의자들은끊임없는변경사항을중요시킴으로써공동체가다시찾아오도록노력한다. 경험이소유권을정죄함에따라소유권의이론가들이그것을개선하고그것을원만한것으로만들려고노력하는것처럼말이다. 이처럼공산주의의퇴보는말하자면이론에서만지적된다. 소유권의진보는반대로이론과실천에서모두표현된다. 그러나진보가있으면서부터필연적으로변혁, 긍정적이고종합적인관념의도래, 따라서신화적관념의제거, 종교적신앙의폐지가있다. 이제일의특성상공동체안에서소유권에서처럼종교를인식하지않는것은불가능하다.

사실들이이합당한편견을뒷받침해준다.

종교성의질은안개는오늘날모든개혁주의자들의머리위에드리워진다. 이들이왕조지지자들과경제학자들처럼더잘보존하기위해서개혁을설파하든, 공산주의자들처럼모든것을되살리기위해서우선모든것을파괴하기를원하든말이다. 그대의친구카베는낙원과영원한천부天父에야유를보내면서, 그럼에도우애를천상의것이신성한것이라고부르면서종교의본질로자랑한다. 그리고우리는그에게서우애가얼마나심오한비밀인지보았다. 페르르씨는모든긍정적종교들(부정적종교란무엇인가?)을불경하다고선언하며자기의공동체를신의공화국 République de Dieu 이라칭한다. 우리는다음으로신新그리스도교인들과반反그리스도교인들을본다. 반그리스도교인들은르루씨에따르면생시몽주의자들과푸리에주의자들이다. 반공산주의적민주주의는로베스피에르의고백, 신과영혼불멸에집착한다. 중도파의선진적기관지인「나시오날」은인민의영적이익에관해설교한다. 이는그잡지가정신이지극히없다는것을보여주는문제다. 경제학자들은신앙의품안으로도피한다. 이를그들은멜서스주의이론의방향

에서자유로우며, 종교는모든성직매매에서자유로운가? 나는인쇄소장인영예를누렸으며, 12 절판다섯장짜리교리문답서 12 권을 30 수에팔았다. 그아래로그곳의주교가종교서적독점권을취해교리문답서가가격은 15 상팀에서 40 상팀으로올랐다. 주교전하는이한품목에대해매년 5 만프랑의순이익을실현한다. 어떤문제는어떤서생에게승리의기회를주기위해서만학술원에서는문공모에부처졌다. 어떤작문은훌륭한학설을공표하는, 즉어떠어떠한작자들을향해아침의예술행하는그런서생에게서나온것이라서비로소상을받았다. 작위를지닌학문이평민의학문의길을막아선다. 딱같나무가달대더러자신에게예를표하라고강요한다. 종교와도덕은석고와석탄처럼특권을이용해서로착취한다. 특권은우수상마저공략하며, 청년층의장려와학문의진보를위해마자랭극장에서수상을한자들은학술적봉건제도의표상일뿐이다.

그리고이모든권위적남용, 이독직, 이비열한짓들은불법적남용이아니라합법적사용, 소유권의아주합법적인사용에서나온다. 의문의여지없이어느상품의자유유통, 또는조달품의인수를위해필요한검사를하는공무원이이검사를위조할권리를지니지않는다. 도한그들이검사에나서는것은이런식이아닌가? 그러한행위는당국의기관원들의덕성에는역겨울것이고형법전의공소대상이될것인데, 나는그문제를다루지는않을것이다. 하지만승인하는자는그의승인이필연적으로그의수단에따른것이니그가만들줄아는것말고더잘승인할수있는것은없는데누구나수궁할것이다. 그런데감독관과검사관에게는다른이들에게서는승인할책임은맡은것을그들스스로만드는것이전혀금지되지않으므로, 더구나그들의승인을받아야할것에참여하고관심을갖는것이전혀금지되지않으므로, 그리고모든종류의서비스에서임금과이득은합법적이므로, 따라서대학과교들에게맡겨진어떤저작물을승인하거나불승인하는임무는주교들과대학사람들의이익이되도록독점을형성하는결과가된다. 그리고법률이모순을일으켜그것을막겠다고하면, 법보다위력적인사물의힘이이를끊임없이다시불러들이고, 정부대신우리는매수買收와허구이상을지니지못한다.

한가난한일꾼이자식이없고심하는아내를두고있는데, 산파가절망적으로의사의도움을요구한다. 의사는 200 프랑이필요하다고말한다. 그렇지만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갑소사! 내살림살이는 200 프랑값어치도 안되는 데”하고그일꾼이즉답한다. “그러니내아내가죽든지아기, 아내그리고나, 우리모두벌거벗고나가든지해야겠군요!”

신에게서기쁨을얻는! 이산부인과 의사는그래도훌륭한사람이고, 친절하고침울하고부드러운사람으로서여러학회와자선단체의회원이었다. 그의벽난로 위에는히포크라테스의동상이있으며, 그는아르타세르세스의선물도거절하는사람이다. 그는어린아이를슬프게할위인도못되었으며, 고양이를위해서희생을할사람이었다. 그의거절은모진마음에서나온것이아니다. 이는전술이었다. 사업에능한의사에게헌신은한철에지나지않는다. 고객층이확보되고명성이일단 쌓였으면부자손님을기다리며, 허장성세의기회가아니고귀찮은사람들을멀

<sup>4</sup> 빌가르델을말함.-역자주

리한다. 이처럼무조건환자들을치료해야할때그는어디있을것인가? 재능, 명성은귀중한소유권으로서낭비하지말고활용할필요가있는것이다.

내가인용한모습은그래도양반이다. 내가이의료문제를속속들이파헤친다면얼마나섬뜩할것인가! 그것이에외라고내게말하지말기바란다. 나는모든사람을뺀준다. 나는소유권을비판하는것이지사람들을비판하는것이아니다. 소유권은아르파공에게서도민첸시오드폴에게서도언제나잔혹하다. 그리고의료체제가조직되기까지의사도학자, 변호사, 예술가와마찬가지일것이다. 이는그자신의자격에의해, 소유권자의자격에의해타락한존재일것이다.

이는그의시대에는너무선인이었던재판관이이해하지못한것이다. 그는양심의분노에휩싸여하루는변호사협회에공적으로비난을표출하려고했다. 이번호사들이모든종류의사건을쉽게맡는것은부도덕하고수치스러운일이라는것이다. 이번이상부에서출발해언론에서주장되고논평되었다면, 아마도변호사라는직업에대한비난이되었을것이다. 그러나명예로운그단체는비난에의해망할수없었고, 소유권도비난으로죽을수없으며, 언론은자기자신의독으로죽을수가없다. 게다가사법관직은변호사협회와연대관계가아닌가? 변호사협회처럼소유권에의해, 그리고소유권을위해설립되지않았는가? 판결하는것을금지당한다면페랭당탱 (Perrin Dandin)<sup>6</sup>은무엇이되겠는가? 그리고소유권이없다면무엇에대해쟁송할것인가? 변호사들의회는그래서들쭉서졌다. 언론, 펜으로하는변호사행위가말로하는변호사행위를구원하러왔다. 소요는자기도모르게공공양심의기관이된경찰사법관이변에영예로운벌금을매기고그에의해자생적으로모습을드러낸진실을취소하기까지요란한소리를내며겨져갔다.

하루는한장관이공증제도를개혁하겠다고공표한다. “우리는누가우리를개혁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고공증인들이외친다. “우리는트집을잡는사람들이아니다. 변호사들에게말하라. 공증인은특히정직하고흡잡을데없는사람이다. 고리대금에는낯설고, 공탁금의수호자, 사망자의의지의충실한통역자, 모든계약의불편부당한심판자로서그의공부는소유권의성역이다. 그런데소유권이그에게서유린된다니! 아냐, 아냐아...” 그리고정부는그장관의몸으로실패의고배를들었다.

다른사람이머뭇거리며말한다. “나는나한테서 5 퍼센트의이자를받는채권자들을뒤엎어버리고, 4 퍼센트만을받을다른채권자들로대체하고싶다.” 금리생활자들이기겁해서절규한다. “생각해보았나? 당신이말하는이자는지대다. 이는지대로서형성된것이며, 당신이이를추소할것을제안할때에는마치당신이보상없는수탈을제안하는것과같다. 수탈하고싶으면하라. 그러나법그리고사전보상이필요하다. 그러면무엇인가! 돈이계속해서그가치를상실한다는것이주지의사실일때, 오늘의 1 만프랑의지대가등기시에는 8000 프랑의가치에지나지않

<sup>6</sup> 라블레, 라신, 라퐁텐의작품에모두등장하는인물로, 무식하고탐욕스런재판관을상징한다. -역자주

의인간은일단창조가되면영구적으로창조된것이다. ... 푸리에주의가과학을부동의것으로만들겠다고주장한것은이런식이아닌가? 카베가복장에대해행하는것을푸리에에는진보에대해행했다. 둘중어느쪽이더인류의감사를받을만한가?

더확실하게자신의목적에도달하기위해이카리아인은공공정신을규제하고새로운관념들에대해조치를취한다. 이카리아에는코뮌신문, 도신문, 나라신문이었다. 이는교회안에교리문답, 복음서, 전례서가있는것과같다. 생각할자유, 이는의회에대해제한할권리다. 다수의견해는여론으로여겨진다. 우리의의회들에서이성이중요한것처럼이성은논박되지않는다. 신문은국가의비용으로인쇄되고무료로배포되어의결건들을보도하고소수파의수를알리며, 그이유들을분석한다. 그후에도문제가말해진다. 과학과문학책들은제작되어대표단의의해출판된다. 선전은다른누구의몫도아니다. 실제로모든것이공동체에속하므로아무도자기것을가지지않으며허가되지않은책의인쇄는불가능하다. 달리워라말해야할것인가? 모든선동적관념은그러므로원천적으로봉쇄되며우리는결코언론의위반사항들을보지못한다. 이는예방경찰의이상이다. 이와같이공산주의는논리상관념들의불관용으로인도된다. 그러나자비를베풀어달라! 관념들에대한불관용은사람들에대한불관용이다. 이는배제이고, 소유권이다!

공동체, 이는소유권이다! 이는더이상이해되지않는다. 그렇지만이는부인할수없다. 한번살펴보라.

똑똑하지못하고퇴보적인모든편견들중에공산주의자들이가장많이품는편견은독재다. 산업독재, 상업독재, 사회생활과사생활에서의독재, 어디에서나독재, 이런것이시나이산위의구름처럼이카리아의유토피아위를떠돈다. 사회혁명을카베씨는제도들의발달과지성들의협력의가능한결과로생각하지않는다. 이관념은그의위대한가슴에는너무형이상학적이다. 플라톤과모든계시자들에게동의하고푸리에, 아무것도발견하게남겨두지않은사회과학의독재자인이사람에게동의하고끝으로블랑씨, 그리고인민의의사에반해인민의행복을마련해주고권력에는가능한한최대의창도력을주기를원하는 7 월의민주주의에동의하는카베씨는, 어떤인물, 영웅들, 메시아그리고이카리아인들의대표의자문, 의지, 고귀한사명에의한개혁을도래하게한다. 카베씨는대중선거에서정기적으로선출되는의회의토론에서새로운법률이태어나게하기를삼간다. 이는너무완만한수단이며, 모든것을위태롭게하리라는것이다. 그에게는한사람이필요하다. 모든개인적의지들을제거한후그는그의지들을하나의지고의개성에집중한다. 이는집단적사고를표현하는것이며아리스토텔레스의부동의원동자처럼하위의모든활동들을숫어나게한다. 이와같이관념의단순한발달에의해우리는불가항력적으로공동체의이상은절대주의라고결론을내리게된다. 그리고핑계를대기위해이절대주의가일시적일것이라고년지시말해도소용이없을것이다. 어떤것이단한순간필요하다면그것은영구히그렇게될것이니, 이행은영구적이다.

공산주의는유감스럽게도소유권자의일상관행을빌려온것으로서, 노동의실증, 삶의권태, 사고의제거, 자아의죽음, 무의단언이다. 공산주의는본성상으로

당신은내가내형제들의노동, 근면, 섬세함에신뢰를두기를바란다. 경찰을 조직하고상호적인, 게다가해롭고불가능한염탐제도를만들필요는없다. 우리각자를위해행복이오로지노동에서나와서노동의크기가행복의정확한크기가되고, 노동의산물이제 2 의의심처럼, 그리고청렴한양심처럼되어서그증언이사람의각행위를그공로와과실에따라차별하거나보상하게하라. 가치들을비교하는사다리나표를만들어서예전의진자운동과미래의진자운동을한꺼번에보여주도록해서이를통해생산자가언제나과잉생산도재앙도두려워하지않고자기의사업운영을가장이익이되는방식으로할수있도록하라. 끝으로모든가치에그것들중하나와의비교에서도출된공통의표현을제공해이것이모든거래를위한척도로쓰이게하라. 그러한조건에서노동자는자기스스로의주인이되고가장완벽한독립성을누려서또한가장완벽한보증을제공하리라하는것이온당하지않은가?

그다음으로자연의장애가촉구하는, 그리고인류의명예가명령하는모든사전대비와자산수단을취하도록하라. 이는권리가거절할것을사랑으로벌충하는것뿐일것이다. 그러면누가이를막으려고애를쓰겠는가? 그러나그러한보충은그모든도덕성, 따라서그가능성을권리의사전적인정에서꺼내낸다는것, 정의없이는, 네것과내것의정확한정의없이는자선은부당징수가되고우애는불가능하다는것을기억하도록하라.

돈의지배는정의와우애의기초인가치들의이민주주의로의이행이다. 돈, 그리고돈이내는신용기관들은산업적가치물들을척도재의존엄성을갖도록높여서범죄수치를낮추었다. 돈과신용기관들은어디서나판로를열고유통을용이하게해여행을축소했고, 안전보장과함께온정과헌신을증대했다.

왜인은사람개인을창조하는대신세상에인류한종을가져다놓았는가? 이질문은철학자가어떤견해를갖든그철학자의관심사다. 그런데공산주의는이에대답할수없다. 공산주의의관점에서는인류의창조라는것이터무니없기때문이다.

『이카리아』 의저자는로마가톨릭신앙에대한편견에서든유럽관습에대한존중에서든폐를본받아야지공화국에서일부일처제를보전했고, 다른사항들에서이예외를보상받았다. 카베씨는어디서나부동성을창조하고, 자생성과환상을내쫓는다. 여성용모자제조인의기술, 보석세공인, 장식업자의기술등은반공동체적이다. 카베씨는지도자로서복장의불변성, 가구의일률성, 동시에하는체조, 공동식사등을규정한다. 이에따르면, 이카리아에는웨이카르노인혹은카베씨와의의아내한사람, 한쌍이상존재할것인지알수가없다. 이모든사람들이다어디쓸데가있는가? 같은식으로재단이되고옷을입힌꼭두각시들의끝날줄모르는이반복이무엇에쓸데가있는가? 인쇄업자들이하는식으로여러책을찍어내지 않으며, 같은일을되풀이하면서결코동일한것을두번만들지않는자연은진보적이고앞을내다보는존재를만들기위해수천억의다양한개체들을태어나게하고, 이무한한다양성으로부터자연에게는유일한주체인사람이생겨났다. 공산주의는자연의다양함에한계를부과한다. 자연에게이렇게영원한존재가대양에게말하듯말한다. 너는여기까지올것이며, 더멀리는가지못할것이다. ... 공동체

을때, 반증불가능한결과에의해이지대는금속으로된자본이아니라부동산을대표하지않는지대를보전하기위해소득의증가를요구하는것이매일그소유권이감소하는금리생활자의일일때, 태환을말하는것은이때다. 태환, 이는파산이다! 그리고정부는한편으로모든채무자와마찬가지로상환을통해자유로워질권리가있다고확신하면서또다른한편으로는자신의채무의성격을확신하지못하고, 소유권자의소란에위험을느껴무엇을풀어야할지몰랐다.

이와같이소유권은더다수의머리들에분산되면될수록더욱비사회적이된다. 소유권을완화하고인간화해야할것으로여겨지는집단적특권이바로소유권을그흉측한모습대로보여주는것이다. 분할된소유권, 비인격적소유권은소유권들중최악의소유권이다. 용간한뒤게클랭 (du Guesclin) 이프랑스를구해냈을때의유명한침략자무리들보다전리품에더탐욕을부리고더무서운용병대부대들이프랑스를덮고있음을오늘날누가로부터알아채지못하는가!

소유권공동체를연합으로보지않도록조심하자. 개인소유권자는아직염민, 정의, 수치가통하는것으로드러날수있다. 집단소유권자는피도눈물도없고후회도없다. 이는환상적이고불굴이며, 모든걱정과사랑에서벗어난존재, 멧돌이돌면서곡식을짓이기는것처럼자기관념의원안에서움직이는존재다. 소유권이사회적이될수있는것은결코공유됨으로써가아니다. 모든사람을죽이는것으로결코격노를치료하지못한다. 소유권은무한한공동참여가아니라그원리의변혁에의해서끝날것이다. 그리고이는맹목적인만큼다루기힘든어떤사람들이인민에게설교하는민주주의, 보편적소유권의체제가사회를창조하기에무능력한이유다.

모든소유권중제가장혐오스러운것은재능을구실로한소유권이다.

예술가에게시대와사람들을비교해, 여러세기에걸친예술작품의불평등은특히사회의진자운동에서, 신념들과정신상태의변동에서나온다는것, 그사회에그예술가라는것, 그와그의동시대인사이에는필요와관념의공동체가존재해서, 그로부터그들의의무와관계의체계가생겨나서, 공적은임금처럼언제나엄밀하게규정될수있다는것, 취향의규칙, 발명, 작문, 그리고실행의법칙이발견되어예술은그예지적특성을잃고몇몇예외적본성을지닌자들의특권이기를중단할시대가오리라하는것을증명해주라. 이모든관념은예술가에게는과도하게우스운것으로여겨질것이다.

그에게이렇게말해주라. “당신은입상을만들었고내게그것을사라고제안한다. 나는물론그리고싶다. 하지만이입상이정말로입상이라면, 내가그값을내려면내가입상을본적도없고입상을만들능력도전혀없지만단하나의측면에서내가발견할수있을시詩와조형의어떤조건들을결합해야한다. 이조건들이충족되지 않으면당신이어떤어려움을이겨냈더라도, 당신의예술이내직업보다아무리우월해보여도, 당신은쓸모없는작품을만든것이다. 당신의작업은아무가치가없다. 그것은그목적달성하지못하고, 당신의무능을명백히보여주어내유감을자극하는데나소용이될뿐이다. 왜냐하면확립해야할것은나와당신의비교가결코

아니라당신의작업과당신의이상간의비교이기때문이다. 그후에당신은성공할 경우에얼마를달라고해야할지나에게물어볼것인가? 이값은필연적으로내능력에맞추어지며, 내지출을정수로나눈몫으로정해진다고당신에게대답한다. 그런데이비율은무엇인가? 바로입상이당신에게들이게했을비용의등가다.”

그런말을들은예술가가그힘과정당성을느끼는것이가능하다면, 그때에는그에게서이성이상상력을대신하는것이다. 그는더이상예술가가아니기시작할것이다.

구체적으로이런부류의사람들에게충격이되는것은감히그들의재능을값으로매긴다는것이다. 그들의말을들어보면, 무게와크기는예술의존엄성과양립불가능하다. 모든것을상품화하는이광기는퇴폐하는사회의신호로서그사회에서는더이상걸작이만들어지지않을것이다. 걸작을알아볼줄모르기때문이다. 그리고내가예술인들의정신을그들이쫓아가지못할추론과이론이아니라사실의거해계몽시키고싶은것은이에관해서다.

지난전람회예술가약 1800 명이예술품 4200 점을보냈다. 이에예술품들(입상, 그림, 초상, 부조등) 각각의상업적가치를평균 300 프랑으로계산하면누구나진가보다훨씬밑으로본것이아님을확신한다. 그러므로 126 만프랑의총가치가 1800 명예술가의산물이라고하자. 대리석, 화폭, 금박, 액자, 모델, 학습, 연습, 구상등에지출한돈이평균 100 프랑이라고가정하자. 그리고 3 개월간작업을한다고하자. 순 84 만프랑이남는다. 즉인당 90 일에대해 466 프랑 65 샴팀이다.

그러나전람회예보내지는 4200 점은그중절반에가까운작품이심사위원회에의해제거되어도, 바로그작가들의판단에그해동안의예술적생산의최상이고가장아름다운작품들이라는것, 이생산물중상당부분은초상화로이루어지며, 아주넉넉한그보수는예술작품들의시가를훨씬초과한다는것, 전시된물품의상당량이팔리지않은채로있다는것, 이전시마당바깥에서는다수의제작자들이전람회의가격표보다훨씬낮은가격에작업한다는것, 비슷한관찰내용이음악, 무용, 모든예술범주에적용된다는것을생각한다면, 예술가의평균임금은 1200 프랑에못미친다는것, 산업인구에대해서처럼예술가인구에대해서도행복수준은슈발리에씨의위압적인공식, 1 인당하루에 56 샴팀이라는것으로표현되는것을발견하게된다.

그리고빈곤이대조에의해더욱부각되고예술가의기능은아주사치에속하므로, 어떠한빈곤도예술가의빈곤만못하다는것은속담으로들어갔다. 내슬픔과같은슬픔이있는지 (Si est dolor, sicut dolor meus)!

그리고사회경제학앞에서예술작업과산업상의작업은어째서이렇게동등한가? 생산물의비례성밖에는부가없으며, 본질상평등과비율인부의최고표현인예술은바로이에의해평등과인간적우애의상징이되는것이다. 고집쟁이가반발해도처에서자기위신을내세우고특권을만들어도소용없다. 비례는휘어짐없이있다. 노동자들은서로간에연대성을유지하고있으며, 자연은그들의침해를벌할

속잡업도, 음악도담소도, 행진도부드러운말도, 경쟁관계도, 경찰도필요치않으며단지자유와지성이필요할뿐이라는것, 그것이요하는생명과정신의배출로우리의관심을끌고, 우리를기쁘게하고, 우리가열정을갖게한다는것, 그리고노동의가장큰적이오락이듯이노동의가장강한보조물은수확이라는것이다. 게으름의권장과한량생활의수립을위해서라면우리각자를위한노동의총량이줄어들이는커녕끊임없이늘어나는것이라고발표하라. 끝으로결혼에의해서처럼노동에의해서사람의개성은끊임없이그최고의기력과독립성을띠게된다고알려라. 이는공산주의의마지막개연성을제거하는것이다. 이모든진리는경제학의 A, B, C 이고, 노동의순수철학이고, 사람의자연사自然史에서가장잘 입증된부분이다.

사회주의는헌신, 우애, 공동체, 매력있는노동의그유티피아들을가지고서도, 여전히자기가파괴한다고자부하면서도끊임없이모방하는소유권자의적대관계에얼마나못미치는가!

사회주의는이를제대로파악하자면악의공동체이고, 개인의잘못들을사회에전가하는것이고, 각자의모든규정위반들간의연대성이다. 반대로소유권은그지향하는바가재화의교환적정의이며, 악이개인에게서나오는한에서악의비연대성이다. 이관점에서소유권은정의지향, 사람들이공동체에서는만나기어려운이것에의해구분된다. 활동과타성을서로연대를맺지않게하고, 개인적책임, 사회법칙의지고의강제이행수단을창조하고도덕관념의신중함, 공익에대한열정, 의무에대한복종, 서로간의존중과신뢰, 이웃에대한사심없는사랑을수립하기위해, 이모든것을보장하기위해, 돈, 불평등과정복의상징인추악한돈이공산주의적인모든준비와처방약물보다백배나효율적이고, 청렴하고확실한수단이다.

우화작가가언어에대해말하듯이연설가들은돈에대해말했다. 그들은사회의모든선과모든악을동시에돈덕분인것으로말했다. 도시들을건설하고, 전투에서이기고, 상업을행하고, 여러재능들을장려하고, 노동에급료를주고사회의여러계정들을변제하는것은돈이라고어떤이들이말했다. 우리의모든악의효모, 우리의모든배반의원리, 우리의모든비열함의비밀인것은돈, 돈에대한집착, 빌어먹을돈에대한탐욕 auri sacra fames 이라고다른이들이대꾸했다. 이찬사와비난이참이라면, 화폐의발명, 시스몽디씨에따르면가장놀라운발명이고내견해로는경제적천재가만든가장다행스러운발명이것은분석에도순을제기할것이다. 결과적으로이는기각되고더도덕적이고더참된상위개념으로대체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그렇지않다. 귀금속, 척도재, 그리고은행권은그자체로는선의원인도악의원인도아니다. 진정한원인은가치의불확실성에있다. 가치의구성은우리에게는상징적으로돈안에서질서와행복의실현인것으로보이며, 가치의불규칙적진자운동은다른산물들안에서모든약탈과빈곤의원리인것이다.

사회적으로정해진제 1 의가치물인돈은그러므로모든노동자를위해노동과임금의완벽한보증수단을탄생시킬가치들의일반적구성의날까지선의연대성과악의비연대성, 다른말로하면, 개인적책임과정의의가장완벽한기관으로드러난다.

는조건의평등을원하는가? 나는교조적사회주의를말하는것인데, 사회주의에서그대는허영심과우둔함말고다른것을마주쳤는가? 내가욕을하는것인지말해보라.

그렇지만사회주의는하나의발견을했는데, 이는사람의마음을끄는작업의발견이다.

정치경제학은세상에관찰과경험의과학으로스스로를드러내면서그첫마디로노동의신성함을선포했다. 종교들의권위에반대해정치경제학은노동이결코신의저주가아니며먹는것, 마시는것, 사랑, 놀이, 공부와마찬가지로우리에게필요한삶의조건이라고말했다. 세, 데스튀트드트라시, 조지프드로즈 (Joseph Droz), 애덤스미스등의저작은이러한관념으로차있다. 정치경제학은노동을편들고북아프리카나라들의타성과우태의신화에반대하는철학사상의향거다. 사회와사람에게필요한노동이정신과신체를강화하며도덕관념과건강의수호자이고, 부의생산자이고, 진보의원리이며인간활동의발현으로서그자체로는주관적인면에서는 à parte subjecti 아무런과로운점을가지지않으며, 때로피로와삶증을수반하게되는입장이라도이는오로지노동이적용되는사물의질에서, 물적측면에서 à parte rei, 혹은실행에서의절도의결핍에서나온다는것이거기서따라나오며, 경제학자들은이를아주잘감지했다. 파편적분업과그결과인행위의일률성은경제학자들에게해아주멸찌게지적된것으로서지겨운것이된노동의아주잘알려진예들이다. 그러므로무엇을하는것이중요했는가? 노동의소재가제공할수있는흥축한것을제거하거나뺏고신체와정신을한꺼번에만족시키는방식으로실무를지도하는것이다. 그러는대신에사회주의는사람의마음을끄는작업을발명했다.

우선, 노동은사회주의가말하는바에따르면극단적분할로더즐겁고더쉽게되어음악, 노래, 정중한대화, 낭송, 장면들의짧은지속시간, 동작의연속과시합에의해지속적인축제로탈바꿈할것이다. 그러한것은카베씨가이카리아에세운체제로서그는이점에서플라톤, 캄파넬라, 매프리, 모렐리, 푸리에등모든위대한스승들과의견이일치한다. 사회주의는자신의바보들을경이롭게도알아서이들에게온갖여흥을마련해준다. 자정에신부의창밀에서악기연주로신부의잠든감각을깨울때세레나데를부르는자들이사랑을대하는방식으로사회주의는노동을대한다. 이런다양한즐길거리에 「프라테르니테」 1845년 1월호는노동에따르는고려사항과상호감시를더한것을덧붙인다. 사회주의는노동에서완전히벗어나는것보다더 나은것을요구하지않을것이며, 사회주의가노역을단축시키고, 줄이고, 변화시키고, 양념을치고, 맛을내고끝으로견책과위반시징역의형벌로무화하는것은매력적인노역이라는이이상에도달하는데서처하는불가능성때문임이명확하다! 매력적인노동의발명자들은얼마나무서운천재들인가!

하지만, 친애하는선생님들이여, 바로여러분이모방의기질이아주강하니, 그러므로내가여러분에게말하려하는것, 세상만큼오래된것에유의하라. 노동은노동이그한형태인사랑과마찬가지로그안에매력이있다는것, 다양함도, 짧은연

책임을맡는다. 사회가사치품에자기생산물의 5 퍼센트를소비한다면, 이생산에그노동자들의 20 분의 1 을고용할것이다. 사회에서예술가들의몫은그러므로필연적으로산업인들의몫과동등할것이다. 개인적재분배는사회가단체들에게이를방치한다. 왜냐하면개인에의해모든것을실현하는사회는그의동의없이개인을위해아무것도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므로한예술가가총보수에서자기혼자만을위해 100 개의몫을챙긴다면, 그를위해매춘을하거나짚더미위에서죽는그의동료를 99 명이있다. 이계산은증권거래소의청산과마찬가지로확실하고, 확인된것이다.

그러므로예술가들은이를알도록하라. 그들이말하듯이흥정을하는것은식품상인이아니다. 물건의가격을정한것은필연자체다. 어떤시기들에서예술품값이레오 10 세, 로마황제들, 그리고페리클레스의세기들에서처럼올랐다면이는존재하기를중단한특혜적인특수원인들에관련되었다. 이탈리아예술가들에게지불해준것은그리스도교세계의금과면죄공물이었다. 황제들치세때그리스예술가들에게지불해준것은정복당한민족들의금이었다. 페리클레스치세때그들에게지불해준것은노예들의노동이었다. 평등이찾아왔다. 자유학예는노예제를다시 가져오면서그이름을포기하기를원하는가?

재능은통상적으로총애를앓은본성의특성으로, 그에게서는적성들의부조화가이상한, 괴기스러운특수성을낳는다. 손이하나도없는사람은배로글을쓴다. 이것이바로재능의이미지다. 또한우리는모두예술가로태어난다. 우리의영혼은우리의얼굴처럼언제나그이상에서다소떨어져있다. 우리의학교들은성장을인도해본성의기형들과교정하는성형기관들이다. 바로그렇기때문에교육은점점보편성, 재능과지식들의균형을지향해간다. 또한바로그렇기때문에예술가는그와호화로운공동체를이룬사회에둘러싸여서만가능하다. 예술의문제에서사회가거의모든것을한다. 예술가는그의찬양을불러일으키는불구의존재보다는애호가머리에있다.

소유권의영향아래예술가는그의이성에서타락하고, 그의도덕관념에서문란하고그의동료들에대한멸시의감정으로가득차서그멸시의선전이그를단지값이나가게, 판매가치가있게그리고존엄성은없게만들어주는데, 이런그는이기심의불순한이미지다. 그에게서아름다운도덕은진부한사안이고모양내는일이다. 의와명예의관념은그의가슴에서는뿌리를내리지못하고미끄러진다. 그리고사회의모든계급중에예술가계급이강한영혼에서도, 고귀한품성에서도, 가장빈약하다. 만약사회직업들을의지의세기, 감정의위대성, 걱정위력, 진리와정의에대한열의, 학설들의가치에대해행해진추상에힘입어문명에가한영향력에따라배열하면사제들과철학자들이제 1 순위에나타날것이다. 그다음이위정자들과장수들, 그다음이상인들, 산업인들, 경작자들이다. 끝으로학자들과예술가들이된다. 사제는그시적인언어를구사하면서자신을신의살아있는신전으로간주하는반면, 철학자는스스로에게'나의모든행위가모범이요규준으로소용될수있도록행위하라'고말하는반면, 예술가는자기작품의의미에무관심한채로있다. 그는

결코 그가 내세우고 싶은 전형 그 작품에 인격화하기를 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를 사상捨象한다. 그는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펼치면서 이를 경배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를 화폭에 담지만 성이 그나티오스처럼 그를 자기 가슴에 두지 않는다.

그 본능이 언젠가 아주 확실한 인민은 입법자들과 영웅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다. 예술가들의 이름은 별개에 치 않는다. 참 오랜 기간 그 불순한 순진함 속에서 마치 인생의 이채색 공을 자신의 악의 선동자, 자기의 억압의 공모자로 인정한 듯이 그들에게 반감과 멸시만을 느낀다. 철학자는 사치 예술에 대한 인민의 이 불신을 그의 책에 기록했다. 입법자는 사직당국에 이 예술들을 고발했다. 종교는 같은 감정에 순종해 그들을 파문으로 징벌했다. 예술, 즉 사치, 쾌락, 관능, 이는 사탄의 작품들과 화려함으로, 그리스도인을 영원한 저주에 넘겨준다. 그리고 일반적 타락이다. 큰 어떤 계급이나 마찬가지로 존경할 만하게 해준 계급의 사람들, 결국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든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마음 없이는 그리스도교의 신화가 정당화된다고 감히 말한다. 어느 때보다 더 예술은 공중의 빈곤에 대한 영구적 도발이며, 방탕함에 대한 가면이다. 소유권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최선의 것은 끊임없이 사람이 가지는 최악의 것이 된다. 최선의 것의 타락은 최악의 비극이다 (corruptio opimi pessima).

경제학자들은 끊임없이 인민에게 반복한다. “노동하라. 노동하라. 저축하라. 자본화하라. 때가 오면 소유자가 되어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일꾼들이여, 당신들은 소유권의 신입 회원들이다. 당신들 각자는 주머니에 자신을 교정할 회초리를 넣고 다니며, 이는 언젠가는 다른 이들을 교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소유권을 얻을 때까지 노동으로 일어서라. 그리고 인간의 살을 맛보았을 때에는 다른 고기는 더 이상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기나긴 절욕을 보상하게 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소유권으로의 추락! 노예 신분으로부터 폭정으로, 즉 플라톤에 따르면 여전히 노예 신분으로의 추락! 그렇기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 노예 신분의 조건은 더는 견딜 수 없다. 행진해서 임금 생활자 신분에서 해방되고 자본가가 되고 폭군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럴 필요가 있다. 프롤레타리아들이여, 알겠는가? 인류에게 소유권은 선택 사항이 결코 아니며, 운명의 절대 명령이다. 당신은 당신 주인들을 예측 화함으로써 그들이 당신에게 부과하는 종살이에서 속량된 후가 아니면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어느 여름 아름다운 일요일에 대도시 인민은 그들의 어둡고 습한 집을 떠나 들녘의 활기차고 순수한 공기를 찾아간다. 하지만 무엇인가! 더 이상 들녘이 없는데! 토지는 천 개의 뾰뾰한 조각으로 분할되고 긴 밭둑들이 가로지른다. 토지는 더 이상 없다. 밭의 모습은 도시민에게는 극장과 박물관에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새들만이 공중 높은 데서 실재하는 경치를 관조한다. 이 빗질된 땅 위의 한 오두막을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는 소유권자는 그의 들이라고 칭하는 잔디 조각을 이기주의자요 독한 자로서 즐긴다. 이 구석 밭고는 그는 가난한 자처럼 토지로부터 추방된다. 자신의 고향에 가지 못했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순결한 남편들이여, 우리가 잔인하게

야만인들의 음탕함과 위기에 빠진 문명 안에 간음 이 빈번함을 구실로 가족을 제거하고, 사랑의 불가침성을 짝짓기의 면허로 대체해 모든 것을 치료했다.

사람의 개성이 사랑과 노동 안에 이렇게 억압된 마당에, 노동의 조직과 생산물의 분배로 가는 길은 쉬워 보였다.

노동을 조직하고 분배하는 것, 그보다 더 쉬운 것이 무엇인가? 의문의 여지 없이 노동의 분업은 약할 대로 약한 정도로 여러 직업들을 집단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고 집단들 내에서는 개인들의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반공反共이다. 또 의문의 여지 없이 공동체는 그러한 분배를 피할 수 있다면 더 완벽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전유의 폐단은 생산물의 소유 포기에서 사라질 것이다. 아무도 노동수단의 보유를 배타적으로 취할 수 없고, 노동산물도, 그유통도, 그 분배도 그럴 수 없어서 공동체는 건재하며 이때부터 정부의 할 일이라고는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노동 분업의 문제는 단지 가장 많은 액수의 산물을 실현하는 데만 있지 않다. 고정치 경제학이 고찰했다. 이는 또한 노동자를 위해 신체적, 정신적 혹은 지적 손해 없이 이익을 실현하는 것에도 있다. 그런데 노동자의 지성은 노동이 더 분화될수록 그만큼 더 백치 상태로 쏠린다는 것, 그리고 거꾸로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자신의 조합 안에 끌어안고 실행의 싫증 남과 세부 사항의 주의는 다른 이들에게 넘길수록 그의 이성 은 더욱 강화되고 그의 천재성은 높아지고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러므로 파편적 분업의 필요성과 여러 능력들의 온전한 발달을 어떻게 해시킬까? 이는 각 시민에게 권리의 무인 발달이고, 모두에게 평등한 조건이지만 개성을 고양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죽음인 발달이다.

이 점에서 사회주의는 경멸받을 돌팔이만큼 초라한 논리 가라는 것이 드러났다. 파편적 분업에 사회주의는 조각들 위에 조각들을, 절편 切片에 절편을, 무미 건조한 일에 소란스러움을 가해 장면들의 절단을 추가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 모두가 일반화와 종합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구분은 특권화된 본성을 가진 자들을 위해 남겨둔다. 이들을 때로는 소유권자들과 같은 식으로 착취자들로 만들고 — “각자에게 그의 능력에 따라, 각 능력에는 그 공적에 따라” — 때로는 노예들을 만든다. “처음 온자는 마지막에 온자와 같을 것이고, 마지막에 온자는 처음 온자와 같을 것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의 분업이 재산의 진보와 평등의 수단인 동시에 지성의 진보와 평등의 수단이라는 것을 몰랐다. 아니, 그 보다는 너무 잘 알았다. 이 평등의 무적 희생은 자유로운 희생으로 대체하므로 사회주의는 온 힘을 다해 자신에게 혐오스러운 이 평등을 배척한다. 그리고 때로는 능력을 파편적 노동 위에 위치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그 밑에 내던지기도 하는 것이 때문이다. 플라톤에서처럼, 팔랑스테르에서처럼 이 카리아에서, 결국 사회주의 서적들 어디에서나 학문과 예술은 특산물과 동업 조합처럼 취급 받는다. 어디서도 이것들이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서 발달시켜야 할 능력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친애하는 빌 가르델, 그대는 사회주의를 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서 안다. 진실을 증언해 달라. 사회주의는 지력 知力의 평등을 믿는가? 헌신을 요구하는 사회주의

그리고 학생의 질료와 형상을 한꺼번에 제거해 공동체는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계열을 구성할 수 있기는 커녕 자신의 진화의 첫 향도 제기할 수 없다.

나에게 무언가와 합치되는 무언가를 달라. 그 대상이 파악되는 개념, 분석이 되고 내가가 이해할 수 있는 사실 말이다. 그러면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할 것이고, 이 개념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무에서 만상상이 되며, 무와 만화해하고, 무에 의해서만 존속하는 공동체에 대해 내가 무어라 말할 기를 바라는가?

## IX. 절충적이고, 똑똑하지 않고 분간이 안 되는 공동체

우리는 이를 처음부터 말했다. 먼저 감각에 없었던 것으로 지각되는 것은 없다 (Nihil est in intellectu, quod prius non fuerit in sensu) 는 그 학파의 원리에 맞게 소유권자의 관점에서 재발견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에는 아무 것도 없다. 사회주의는 그 자신에게 고유한 것을 아무 것도 가지지 않는다. 사회주의를 구별해 주고 형성해 주고 사회주의를 사회주의이게 하는 것, 이는 사회주의가 차용해 온 것의 자의성과 부조리다.

이처럼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는 개인적인 성과 창조성의 흡수에까지 밀어붙여진 국가의 경제관념이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국가의 본성과 방향을 이해하지도 못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 이 범주를 점령하는 공산주의는 이 관념에 대해 그 반동적인 면만을 파악했다. 경찰 조직을 산업 조직의 전형으로 간주해 그 무능력함을 드러냈다. 국가는 그 고용자들의 서비스를 주권적으로 처분하면서 그 대가 로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연금을 준다고 말해진다. 그러므로 국가는 농업과 공업을 실행할 수도 있고 모든 노동자를 부양하고 연금을 줄 수 있다. 사회주의는 정치 경제학보다 천배는 더 무식해서 국가에 노동의 다른 범주들을 다시 들어가게 하면서 이것만으로도 생산자들을 비생산자로 전환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회주의는 공공서비스가 바로 공공적이거나 국가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에 그 값어치보다 훨씬 비용이 더 든다는 것, 사회의 경향은 그 수를 끊임없이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개인의 자유를 국가에 종속시키는 커녕 개인의 자유에 종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국가이고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그 모든 흉내에서 마찬가지로 진행했다. 가족은 사회주의에서 사랑과 헌신에 근거한 공동체의 전형을 제공했다. 곧바로 사회주의는 공업과 농업처럼 가족을 국가에 옮겨 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족들의 구별은 독점들의 구별이 독점 공동체에 자리를 내준 것처럼 가족 공동체에 자리를 내주었다.

사회주의가 가족을 공유에 흡수하기 전에 가족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 결혼, 양성분의 리에 의한 사람의 자신과의 결합, 고독 속의 사회, 독백 속의 대화가 있었다. 이는 인간 개성의 절정이었다. 사회주의는 그 안에서 자신의 원리 위반만을 보았다.

유린하는 이가 없는 자연을 재발견하려면 그의 숭고한 포용을 즐기기도 더 멀리서 마음으로 갈 필요가 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했던 소유권, 이 소유권은 그러므로 우리를 죄수들로 만든다. 무슨 말인가? 그것이 우리를 서로에 대해 신화와 폭군으로 만들어 우리를 타락시킨다.

사람들은 임금 생활자 자신이 무엇인지 잘 아는가? 그것은 지휘권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자신의 편견에 집착하는 주인, 그 존엄이 특히 '이것을 내가 원하므로 나는 명령한다 (sic volo, sic jubeo)' 는 것을 내세우고 결코 자신의 말을 해명하지 않는 데 있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이다. 얼마나 자주 이를 멸시하고 비웃는가! 임금 생활자 자신분, 그것은 끊임없이 남들의 생각을 연구하면서 스스로는 아무 생각도 가지지 않는 것, 일용할 빵과 일 자리를 잃을 두려움 말고 다른 자극제를 모르는 것이다.

임금 생활자는 그의 용역을 빌리는 소유권자가 이런 연설을 하는 것을 듣는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당신과 조금도 관계 없다. 당신은 그것을 감독할 것이 전혀 없으며, 당신은 책임 지지 않는다. 일체의 관찰은 당신에게 금지된다. 당신에게는 임금 외에는 아무도 득도 기대할 것이 없다. 어떤 요행도 기대할 것이 없고, 어떤 비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기자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우리에게 당신의 기사를 내놓아라. 그리고 괜찮다면, 직분도 내놓아라. 당신이 말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고, 당신이 침묵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다. 당신이 우리의 관념, 우리의 목적과 수단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든, 언제나 우리의 의견을 돌보이게 하라. 이는 당신을 해할 수 없으며, 당신에게 금을 끼칠 수도 없다. 기자의 특성은 무기명이라는 것이다. 이는 당신의 급료 1 만 프랑과 10 건의 정기 구독의 대가다. 이는 괜찮은가?" 그러자 기자는 중상 모략하는 예수 회원 처럼 한숨을 쉬며 대답한다. "나도 살아야 해요!"

변호사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이 찬반의 건은 내 가운데 걸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나는 당신 직업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의 동료, 당신의 적수가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기면 금화 1 천 닢이, 내가 지면 500 프랑이 있다." 그러자 그 변호사는 머뭇거리는 양심에게 "나도 살 필요가 있어!" 하고 말하며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인다.

사제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300 번의 미사를 위한 돈이 여기 있소. 당신은 작고 한자의 도덕성에 전혀 신경 쓸 것 없소. 그는 타인의 재물을 손에 가득 쥐고, 사람들의 저주를 짊어지고 위선 가운데 죽어서 신을 전혀 보지 못할 개연성이 있소. 이는 당신의 일이나니오. 우리가 돈을 냅니다. 계속 말해봐요." 그러자 사제는 눈을 하늘로 향하며, "아멘, 나도 살아야죠" 하고 말한다.

공급업자에게 말한다. "우리에게는 소총 3000 정, 검 1 만 자루, 총알 1000 켄틀, 화약통 100 개가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상관할 일이나니다. 그 모든 것이 적에게 넘겨 갈 수 있다. 하지만 20 만 프랑의 이득이 있을 것이다." 공급업자는 대답한다. "좋소. 저마다 자기 본업이 있고, 모든 사람은 살아야 하지요!" 사회를 둘러보라. 그러면 보편적 절대주의를 확인하고 나서 당신은 보편적

비열함을 인정할 것이다. 이 비굴한 체제의 부도덕함이 얼마인가! 이 기계화 안에 열마나 불명예가 있는가!

사람이 무덤에다가 갈수록 그 소유권자는 화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음의 무서운 신화에서 그리스도교가 그린 것이다.

친지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그가 이익을 주고자 하는 가 정부는 그의 배려에 분노한다는 것, 교회는 충분히 부유하다는 것, 정직한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 그의 일가 친척은 가난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다는 것, 일가 친척 중에는 일으켜 세워 줄 용감한 소년들이 있고, 지참금을 줄 처녀들이 있다는 것, 그들에게 재산을 남겨 주면 그들의 감사를 받고, 여러 세대에 선행을 한다는 것, 유언장이 여러 가족의 결합과 번영에도움이 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이 늙은 색정광 또는 신자에게 지적해 주라. “나는 원치 않아!” 하고 소유권자가 건조하게 대답한다. 그리고 유언장의 추문은 재산의 부도덕성을 뛰어넘는다. 그런데, 최고 원위의 한 분지 분枝인 이 영지수여 및 전수 권리의 변경을 시도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 순간 다시 독점에 빠지게 된다. 당신은 소유권을 용익권으로, 지대를 종신연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당신은 소유권자의 독재를 국가의 절대주의로 대체하고, 그러면 그들로부터 하나가 된다. 봉건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소유권으로 돌아가서 자본의 유통을 멈추고 사회를 퇴보시키든지, 아니면 공동체로, 무無로 빠진다.

그 사람에게 소유권의 모습은 유언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상속으로 넘어간다. 죽은 자가 산 자를 붙잡는다고 법이 말한다. 이와 같이 소유권의 치명적인 영향은 유언자로부터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한가 부장이 고풍스러운 저택에 그가 키운 일곱 아들을 남긴다. 그의 재산의 전수는 어떻게 행해질 것인가? 두 체계가 등장하며, 이 둘이 차례로 시도되고, 교정되고, 변경되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한다. 무서운 수수께끼가 아직 풀려야 할 것으로 있다.

장자권 아래서는 소유권이 장자에게 돌아간다. 다른 여섯 동생들은 가재도구를 받고 아버지의 소유지에서 쫓겨난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그 땅 위에서는 이방인이고, 재산도 신용도 없다. 안락한 삶으로부터 이행 과정도 없이 빈곤 상태로 넘어간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양육자였다. 동생들은 큰 형을 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장자권에 반대하는 온갖 것이 말해졌다. 그 체계의 반대를 살펴보자.

뉘를 평등하게 나눌 때에는 모든 자녀가 상속재산을 보전하고, 가족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만 충분한 것을 일곱 명이 어떻게 소유할까? 경매가 일어나서 상속자가 죽은 소유를 잃는다. 현금을 주고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낫선 사람이다. 상속재산 대신 자녀들 각 사람은 돈을 받으며, 곧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될 확률이 99 대 1 이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에서는 가족이 있었다. 지금은 모험가들밖에 없다. 장자권은 적어도 이름의 계속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는 그 노인에게는 그의 조상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의 손으로 보전된 기념물이 그의 일족 내에 남아 있을 보장 수단이었다. 뉘의 평등은 가족이라는 신전을 파괴했

가 어디 있는 지 내게 말해 주기 바란다! 우정, 존경, 신뢰, 의무감을 갖게 하는 성심 誠心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호혜성의 확실성, 혹은 같은 것이지만 개인적이고 합법적으로 취득된 행복에 대한 인적 존엄과 독립의 감정이다. 그곳에서 종교가 개성과 소유권의 일체의 감정을 배제하는 대신 경을 썼던 수도원들의 번지르르한 언행은 그렇다면 우애에 속한 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이 형제들은 그들 스스로 가 서로를 존중하기에는 너무 별볼일 없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겸손과 자기 희생이 규칙인 종교적 공동체들의 예를 통해 사람들은 자아의 낮춤이 언제나 자선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것이 이수도 회창설자들의 커다란 오류였다. 신은 그들의 선의를 감안해 이들에게 평화를 베풀었지만 그 체계는 이제부터 심판을 받는다. 수사들의 무례함, 나태, 방탕함은 여러 세기 전부터 속담이 되었다. 종교적 공동체들, 심지어 노동을 그들 규율의 필수 부분으로 삼은 공동체들의 이 모든 해악은 정의 밖에서 우애를 찾는 이 잘못된 이론에서 나왔다.

역사의 증언에 그 이론은 그 증거를 덧붙인다. 노동자들의 사회가 정의 없이 지내 고 애정의 분출에 의해서 오로지 지탱될 수 있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할 것이며, 이것 없이는 우애는 그 순간에 멸망할 것이다. 이는 곧 개인의 무오류성과 범죄 불가능성이다. 어떤 사람이 책을 출판할 계획을 가진다. 누가 종이, 조판, 인쇄, 제본, 판매, 우송료를 선투자 할 것인가? 아무도 공동체 말고 다른 곳에는 속하지 않으며, 모든 노동 수단, 모든 원재료, 모든 생산물과 이익이 공동체에 속하니 심할 것 없이 공동체다. 그러나 공동체는 이 글을 인쇄하면서 쓸모 없는 지출에 노출된다. 누가 이를 보증할 것인가? 원고를 검사하기 위해 검열관들을 지명할 것인가? 그렇다면 언론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다. 인쇄를 투표에 부칠 것인가? 이는 투표자들이 바로 그들이 읽도록 하려고 하는 책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저자가 충분한 수익의 약속 독자를 얻기를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판매와 교환, 차변과 대변의 체계, 공동체의 부정에 들어간다.

풀수 없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모순이 많은가! 공동체가 사려 깊다면, 자신을 위해보증을 요구해야 한다. 즉 자기 바깥의 소유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해체를 공표해야 한다. 저자가 정말로 충심을 가지고 헌신적이라면 그는 혼자서 자기 저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헌신으로써 공동체와 갈라서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도 자신 바깥에도 희생할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면 이 헌신 자체에서 어떻게 행위를 만들어 낼 것인가? ‘가지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Nemo dat quod non habet).’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서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데서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 희생을 가장 할 수 있는 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는 소유권자다. 내가 그렇게 진부한 진실을 새로운 것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므로 공동체는 그 모든 경로를 거쳐 자살에도 달한다. 가족의 전형에 맞게 구성되어 가족과 함께 해체된다. 분배 없이나 같 수 없어 분배에 의해 멸망한다. 조직화하지 않을 수 없어 조직이 공동체를 죽인다. 끝으로 공동체는 희생을 전제로 한다.

항상 그렇다. 전쟁상태는 인류의 주된 상태다. 서로에게 헌신하기 전에 사람들은 서로 잡아먹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웃의 희생은 언제나 이웃에 대한 희생에 선행한다. 식인종과 우애는 경제적인 화의 두 극단이다. 각 개인이 그의 삶에서, 그리고 그의 삶의 각 순간에 인류의 이 두 면모를 재현한다는 것을 덧붙이자.

이처럼 우애는 우리 안에서 천사가 야수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이 표현되는 것으로서, 자생적 감정이라기보다는 교육과 노동의 결실로 개발된 감정이다. 그러므로 우애를 교육하는 체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수많은 우애의 흔적을 들은 후에 아직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신세에 처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공산주의자들은 우애가 오로지 설득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추론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우애를 설파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애를 설교한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형제가 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적이 될 것이라고. 당신의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우애 아니면 죽음! 이진퇴양난 앞에서 사람은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죽음을 선택했다. 이는 그의 잘못인가?

나는 내가 어떤 사물의 필연성에 대해 가지는 신념이 어떻게 사물의 동인이 될 수 있는 지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증명에 내게 자유를 원하도록만 만드는 데 소용될 수 있었다고 해도, 자유의 탁월성이 내게 증명되어서 가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조건들을 내가 결합하므로 나는 자유롭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 취득할 지식에 힘입어서 만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조화를 구성하는 경제적, 정치적, 혹은 다른 조건들 덕분에 불화에서 조화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인류는 사랑으로 전율하고 다정함에 눈물 흘렸다. 성스러운 열정이 영혼들을 사로잡았다. 이는 키피로의 반응적 효과, 결과였다. 이 정서는 지속 시간이 짧았다. 그리스도 교의 불화는 이상 숭배의 증오를 초월했다. 우애는 꿈처럼 흩어졌다. 이를 지탱할 아무 것도 예견되지 않아 참말로 우애를 먹여 살릴 양식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상황은 아직 도마찬가지다. 우애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생존을 위해 그것을 낳는 원리를 기다린다. 사회주의는 자신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우애를 설파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와 같이 우리는 허공에 집을 짓는다. 우리는 지정된 길을 따라 한 단계씩 가는 대신 공중을 가로질러 도달하기를 원하는 약속된 땅을 눈앞에 두고 비참하게 멸망한다. 우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우애의 요소들을 찾는 대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상상한다. “우애가 있으라!” 하고 말한다. ... 하지만 우애는 있을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우애의 모습들을 우애 자체로 간주해 예의, 부드러운 어조, 관대한 교육이 불러일으키는 감정들, 미래 세대에 대해 친절하고 애착을 보이는 도덕관념이 누구도 사회적 신뢰를 남용해 헌신과 우애의 법칙을 배반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확언한다. 이들은 척도 재를 지폐로 대체하고 담보물을 증표로 대체하면서 척도 재의 사용을 폐지했다고 상상하는 경제학자들을 닮았다. 그러나 지폐는 그것이 담보로 뒷받침되는 만큼만 가치를 띤다. 마찬가지로 세련됨, 예의, 헌신의 맹세는 이것들을 지탱하는 담보의 조건에서만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 이 담보

다. 성주신들은 더 이상 없다. 정주 소유권과 함께 문명인들은 유목 생활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러나 상속권이 무슨 소용이었는가?

상속권을 판매하는 대신 상속인들이 이를 분할한다고 가정하자. 토지는 쪼개지고, 잘리고, 깊이 파인다. 경계석을 세우고, 도랑을 파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소송과 증오의 씨를 뿌린다. 소유권이 조각조각으로 갈라지고 통일성이 깨진다. 어떤 부분을 바라보든지 소유권은 사회의 부정, 그 목적의 부정에 도달한다.

이와 같이 소유권은 사람과 자연의 거룩한 결합을 완성해야 했던 소유권이 혐오스러운 매매 출세에 도달할 뿐이다. 술탄은 그의 노예를 사용하고 남용한다. 토지는 그에게는 색욕의 수단이다. ... 나는 여기서 하나 이상의 비유를 찾아내며, 심오한 유비를 발견한다.

양성 관계에서 결혼을 내연 관계와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이들의 차이를 감지한다. 그 문제가 도덕관념의 방탕함과 소설들의 뻔뻔스러운 우애에 의해 모호해진 한에서 그것을 고려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자녀들인가? 비합법적 교제가 가장 다산성이 큰 합법적 결합만큼, 그리고 그것처럼 자녀를 잘 생산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지속성인가? 독신자들 다수는 30년간 한 사람의 애인을 두며, 이 애인은 처음에는 욕을 먹고 품위가 떨어지지 만 때가 되면 그의 별 볼 일 없는 애인 위에 군림하고 그를 타락시킨다. 게다가 결혼의 계속성은 물론 무적이기는 하지만 결혼이 그의 성격의 아무 것도 상실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통해 임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계속성은 의문의 여지 없이 사랑의 맹세이고, 가족의 희망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결혼에 필수는 아니다. 결혼은 언제나 혼배 성사를 훼손하지 않고 동일한 원인으로 해서 중단될 수 있다. 끝으로 그것은 결혼식, 보좌신부와 사제 앞에서 선언된 마디 말인가? 그러한 형식이 사랑, 불변성, 헌신을 위해 어떤 효능을 가질 수 있는가? 마라는 장자크처럼 숲에서, 태양 앞에서 그의 정부와 결혼했다. 그 거룩한 남자는 진심으로 혼약을 했으며, 그의 결합이 시의회가 연서 連署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존경스러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마라는 생의 가장 중요한 행위를 공화국의 개입 없이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는 루이 블랑씨의 관념들에 따라서 자연적 사실을 협약 위에 두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마라처럼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누가 못하게 막는가?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혼을 구성하는 것은 사회가 약속의 순간에 거기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부부의 동거가 지속되는 한에서 사회가 거기에 현존한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건대 사회만이 부부 각자를 위해 상대방의 서약을 받는다. 사회만이 그들에게 권리를 준다. 사회만이 이 권리를 공신력 있게 만들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계약자들에게 상호의무만 부과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회는 실제로는 스스로를 위해 규정을 한다. “우리는 서로 간에 결합되기 전에 신안에서 결합된다. 성인들의 자녀는 짐승과 야만인이 하는 식으로 결합될 수 없다” 고 토비는 사라에게 말한다. 사회의 가시적 기관인 사법당국에 의해, 그리고 사회를 대표하는 증인들 앞에서 성별된 결합에서 사랑은 자유이고 호혜적이라고 가정되며, 우연한 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세가 예상된다. 사랑의

계속성은바래며, 촉발되지만보장되지는않는다. 관능자체는허락된다. 차이라고는, 이차이가심연이지만, 내연관계에서는이기심만이결합을지배하는반면, 결혼에서는사회의개입이이기심을순화純化한다는것이다.

그리고그결과를보라. 간음을증징하고거짓선서를벌하는사회는내연녀에대한내연남의고소를받지않는다. 그러한사랑은개들의짜짓기나마찬가지로사회를고려하지않는다. 개들과음행하는자들은성밖에있으리라 (foris canes et impudici)! 사회는질색을하며그런것을외면한다. 사회는내연남의과부와고아를저버리며, 상속에서이들을결코인정하지않는다. 사회의눈에엄마는창녀이고, 그아이는개새끼다. 마치한여인에게이렇게말하는듯하다. “당신은나없이몸을말겠다. 당신은나없이도스스로를지킬수있고먹고살것을마련할수있다.”아이에게는“너의아빠는쾌락을위해너를낳았다. 너를입양하는것은내게마땅치않다.”결혼을훼손하는자는결혼의보장을권리로청구할수없다. 그러한것이사회의법, 엄격하지만정당한법으로, 이를육하는것은사회주의적위선, 순결한사랑과외설적사랑을한꺼번에원하는자들이나할일이다.

사람의극히개인적이고극히자발적인행위에대한사회적개입의이감정, 사랑을순결하게만들어이를증진하는현존하는신에대한규정할수없는이존경은부부에게는알수없는, 그리고알려지지않은애정의원천이다. 결혼에서남자는모든여자의애인인데, 이는결혼에서만그를모든여성에동감으로결합해주는진정한사랑을품기때문이다. 그러나그는자기아내밖에는모르며, 아내밖에몰라서더욱사랑하는데, 이는이육체적인배제없이결혼은사라질것이고, 사랑도이와함께사라질것이기때문이다. 플라톤적공동체는현대의개혁자들이더욱쉽게다시요구하는것인데이는사랑을주지않으며, 사랑의죽은머리 caput mortuum 만을제시한다. 이육신과영혼의공산주의에서는사랑은확정이되지않아추상과꿈의상태로있기때문이다.

결혼은사랑의참된공동체이며, 모든개인소유의전형이다. 사람들, 물건들과의모든관계에서사람은사회와만, 즉결국은자기자신과, 자기안에있는이상적이고거룩한존재와만진정으로계약을맺는다. 자아, 사회에대하이지존경, 성서에서말하듯우리의모든행위에, 우리의모든사고에현존하는신에대한이두려움을 파괴해보라. 그러면사람은자기영혼과정신, 자기능력을남용하고자연을남용해그사람이더럽혀지고오염되어, 거역할수없는타락에의해방종자, 폭군, 불쌍한자가된다.

그런데사회의신비로운개입에의해불순한사랑이순수한사랑이되고, 무질서한간음이평화롭고거룩한결혼으로변화하듯, 경제질서에서그리고사회의규정들에서소유권, 돈을받고자본을파는것은사회적이고합법적인소유의첫번째기일뿐이다. 그때까지는소유권자는누리기보다는오히려남용을한다. 그의지복쫄福은음란한공상이다. 그는조르기만하고소유하지않는다. 소유권은여전히옛날에는모욕당한노를격양시켰고프랑스혁명이폐지할수없었던영주의이역겨운권리다. 이권리의지배아래모든노동산물은더럽다. 경쟁은방탕에대한상호

## VIII. 공동체는정의없이는불가능하며, 정의에의해멸망한다

“비아는객관화되는, 자신에대립하는, 그리고자신을남으로간주하는자아다”라고어떤철학자가말했다. 주체와객체는동일하다. A 는 A 와같다.

모든철학체계에기초로소용되는이원리, 사색에서는여전히참이라고간주할수있는이원리는또한경제학의출발점이며분배적정의의제 1 공리다. 이관념질서에서 A 는 A 와같다. 즉실현된노동은생각된노동과수학적으로동등하다. 따라서일꾼의임금은그의생산물과동등하며, 소비는생산과동등하다. 이는자기자신과만교환할뿐인집단적노동자에게서, 그의동류들에게서격리되어혼자서온인류가된사람에게서그런것이나마찬가지로, 다른생산자들과교환하는개인에게도맞는말이다. 집단적노동자에게서임금은생산물과동등하다. 따라서모든생산자들의생산물은서로간에도동등하며, 그들의임금도같다. 거기에조건과재산의평등원리가있다.

이처럼평등은집단적인간에게서는전체가부분들의총합과동등하다는것말고다른것이아니다. 이는그다음으로자유를수단으로, 산업조합들과시민계급들간에성립한다. 끝으로평등은서서히, 그리고무한한진자운동에의해개인들간에성립한다. 그러나평등은각개인인인류를대표하므로, 그래서인간이인간과동등하여생산물이모든사람들간에생산물과갈게되어야하므로결국은보편적이되어야한다.

그러한것은공동체의관점이다. 공동체는수치를싫어하며, 산술은공동체에는치명적이다. 공동체는우주의법칙, ‘모든것을중량과수와크기에따라서 (Omnia in pondere, et numero, et mensura)’가또한사회의법칙이라는데동의하지않는다. 공동체는한마디로평등을수용하지않으며, 정의도결코수용하지않는다. 그러므로공동체가선호하는원리는무엇인가? 우리는그것을말했다. 카베씨에따르면우애다. 그리고내가실토할필요가있는것은, 이어리석은말의옹호자들중에는영예로운카베씨보다훨씬덜결백한사람들도있다는것이다.

이심오한이론가들이확언하는것은, 평등과정의는소유권과적대의관계일뿐이며이는사랑과현신의법칙아래사라져야한다는것이다. 이새로운나라에서주는것은받는것과동일하다. 행복은몸을아끼지않는것에있다. 이기심의경쟁을현신의경쟁이계승한다. 그러한것이사회주의의고등관념, 이를심화하는것이우리의의무가되는관념이다. 왜냐하면, 이고등관념덕분에우리는의, 불의, 권리, 의무, 준수사항, 손해등등모든하위관념들을잃기때문이다. 고등관념에서고등관념으로, 우리는더이상관념을가지지않는것으로끝낼것이다.

원시인이자신의물질적성향에내맡겨질때, 예수그리스도자신이피에르르루 (Pierre Leroux) 에따를때불완전하게밖에알지못할, 그리고공산주의자들이자신들의교리의기초로삼은동류에대한이신비로운사랑을미미하게느낀다는것은

의분업을어떻게상상할것인가? 어떻게책임없이, 그리고따라서개인적자유없이노동의능률과수익의충실성을보장할것인가? 노동은분화될것이라고, 산물만이공유일것이라고그대는말한다. 악순환이고, 선결문제요구의오류이고, 무의미한말의나열이고, 터무니없는소리다. 나는방금소비가분화되지않고서노동이분화될수없다는것, 다른말로, 분업의법칙은분배의법칙을내포한다는것, 그리고이분배는네것과내것의동의어인차변과대변에의해진행하므로공동체에대해파괴적이라고하는것을증명했다. 이처럼개인주의는공동체의품안에서, 생산물들의분배에서, 그리고노동의분업에서숙명적으로존재한다. 그것이무엇을하더라도공동체는멸망을선고받는다. 공동체는가치의문제를해결하는것을정의의손에양보하든지, 아니면우애의겉모습밑에힘의독재대신수의독재를만들든지하는선택지밖에가지지않는다.

사회주의가아벨의살해에서부터리브제의총살에까지조직의거대한문제에관해내뱌는모든말은돌팔이의웅변연습까지는아니더라도절망과무능의외침일뿐이었다. 어제도오늘도, 사회주의에서도소유권자당파에서도, 아무도사회경제의모순들을풀지못했다. 그리고조직과개혁의이모든시도들은, 친애하는빌가르델이며, 내가여기서우리가천번함께동의하는것을이야기하는것일뿐인데, 세상처럼오래된진리, 그들이그이름도발음할줄모르는진리를다가올과학의이름으로에누리하면서공중의순진한믿음을이용하는자들이다.

생산자는그의노동에서자유일까아닐까? 아주단순한이질문제사회주의는감히대답하지않는다. 사회주의는어느편에서든지진것이다. 노동의분업은풀수없는끈으로산물의수학적분배에묶여있고, 생산자의자유는소비자의독립성에묶여있다. 노동분업, 가치들의비례성, 재산의평등을없애보라. 그러면백역명의부자들과강자들을먹여살릴능력이있는지구야만인몇백만명도먹여살리는데충분하지못할것이다. 자유를없애보라. 그러면사람은자기를속인희망의사실을무덤에까지끌고가는불쌍한강제노역자일뿐이다. 생존의개인주의를없애보라. 그러면당신은인류를거대한군락으로만드는것이다.

그러나노동의분업을긍정하라. 그러면공동체는일률성과함께사라진다. 자유를긍정하라. 그러면경찰의신비는국가종교와함께무너진다. 조직을긍정하라. 그러면그불가피한결과가사람들의공동체인재물의공동체는망측한악몽에불과하다.

노동분업을가지는공동체, 자유를가지는공동체, 조직을가지는공동체는, 맵소사! 빛과성명과지성의속성들을가진혼돈이다. 그리고그대는내가왜공산주의자가아닌지묻는다! 반의어사전을부디찾아보라. 그러면내가왜공산주의자가아닌지알게될것이다.

자극이다. 재능에주어진특권은몸을파는행위의임금이다. 헛수고이겠지만국가는경찰력을이용해아버지들이그들의자녀를인정하고그들의작업의부끄러운소산에표시를할것을의무화하고싶을것이다. 그자국은지워지지않는다. 사악함에서수태된개새끼는그작자의파렴치함을공표한다. 상업은운명이정해진노예거래에불과하다. 어떤노예는부자들의쾌락용으로, 다른노예는인기있는비너스송배용으로말이다. 그리고사회는사랑에낙심한각자가, 정직한사람은그의사랑이배반당했으므로, 행운아는연애의다양함이사랑의보충물이되므로, 거기에뛰어들어등운나무에뒹구는매춘알선의광대한체제다.

남용! 사람의사악한짓! 이렇게법률가들은외친다. 우리를질투하게하고탐욕적이게하는것, 우리의걱정을뛰게하는것, 우리의악의를그궤변으로무장시키는것은소유권이아니다. 반대로소유권을더럽히고타락시키는것이우리의걱정이고우리의악이다.

나는내연관계가사람을더럽히는것이아니라, 사람이걱정과악으로내연관계를더럽히고부패시킨다고누가내게말해주는것만큼은좋아할것이다. 그러나박사님들이여, 내가규탄하는사실들이소유권의본질인가, 아닌가? 법적관점에서그사실들은일체의사법적조치를면하는은신처에놓여나무랄데없지않은가? 나는돈을위해매문賣文을하는이기자를재판관에게넘겨법정에소환하게할수있는가? 자기말중어떤것을악에게팔기도하는이변호사, 자기기도중어떤것을악에게팔기도하는사제는? 가난한자가미리요구되는보수를내놓지않는다고해서그를죽게나누는의사는? 화류계여성을위해자기자녀들을낙담케하는늙은호색한은? 나는내조상들의추억을폐하고후세를마치근친상간이나간통에서나온것처럼조상도없는자들로만들어줄것매를막을수있는가? 나는소유권자가소유하는것이상로그에게보상해주지않고, 즉사회를멸망케하지않고그가사회의필요에부응하도록강제할수있는가?

소유권은소유권자의범죄에대해무죄라고당신은말한다. 소유권은그자체로선하고쓸모있다. 그것을타락시키는것은우리의걱정과우리의악이다.

이와같이소유권을구하기위해당신은그것을도덕과구분한다. 그에이어서왜그것을사회와구분하지않는가? 이는바로경제학자들의추론이다. 로시씨는말한다. 정치경제학은그자체로선하고쓸모있다고. 하지만그것은도덕이아니라고. 그것은모든도덕성에대한사상捨象을진행한다. 도덕의상위법칙에따라그의이론을남용하지않고, 그의가르침을이용하는것은우리가할일이다. 마치이렇게말하는것과같다. 정치경제학, 사회의경제학은사회가아니다. 사회의경제학은일체의사회에대한사상을진행한다. 사회의상위법칙에따라경제학의이론을남용하지않고경제학의가르침을이용하는것은우리가할일이다! 무슨혼돈인가!

나는단지경제학자들과함께소유권은도덕도사회도아니라는것을주장하는것만이아니고또한소유권은그원리상도덕에, 사회에정반대라는것, 이는정치경제학이론이사회이익에정반대이기때문에정치경제학이반사회적인것과마찬가지라는것을주장한다.

정의에 따르면, 소유권은 사용하고 남용할 권리, 즉 사람이 자기인신과 제물에 대해 가지는 절대적이고 책임지지 않는 지배권이다. 소유권이 남용할 권리가기를 중단한다면, 소유권이기를 중단할 것이다. 나는 소유권자에게 허락된 남용행위들의 범주에서 예들을 취했다. 합법성, 나무랄데 없는 소유권에 속하지 않은 것 중 무엇이 거기서 일어나는가? 소유권자는 자기 재화를 그에게 좋아 보이는 자에게 주고, 불이 야하고 외치는 일 없이 이웃이 불타 죽게 놔두고, 공익에 반대하고, 자기 상속 재산을 낭비하고 일꾼을 착취하고 갈취하며, 불량하게 생산하고 불량하게 판매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가? 소유권자는 그의 소유권을 잘 이용하도록 현명하게 강제될 수 있는가? 그는 남용을 하는 데서 방해받을 수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소유권은 바로 그것이 남용적이므로 입법자에게 더욱 성스러운 것으로 있는 모든 것이 아닌가? 경찰이 그 사용을 결정하고, 그 남용을 처벌하는 소유권을 상상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이 내연관계에 정착성을 도입하면서 내연관계를 파괴하는 것처럼 누가 소유권에 정의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소유권을 파괴하게 될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소유권은 원리와 본질상 부도덕하다. 이 명제는 이제부터 소유권 비판에 담는다. 따라서 소유권자의 권리들을 정하면서 도덕의 권리들을 남겨 두지 않은 법전은 부도덕의 법전이다. 법률학, 권리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유권자의 항목들을 집성한 것 말고 다른 것이 아니며, 부도덕하다. 그리고 소유권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남용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정의, 이 남용에 반대하려고 하는 자들에 맞서 강한 손을 빌려 주도록 명하는 정의, 소유권의 침해 사항들을 되돌리겠다고 감히 주장할 만큼 대단한 누구든지 마음 아프게 하고, 불명예로 낙인찍는 정의, 그런 정의는 추악하다. 무가치한 침때문에 부정 父情에서 밀려난 한 아들이 그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그에게 불명예를 주는 행위를 파괴한다면, 그는 정의 앞에서 책임을 질 것이다. 고발당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창녀가 소유를 얻는 동안에 그는 감옥에 가서 소유권에 명예로운 벌금을 낼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부도덕성은 어디 있는가? 불명예는 어디 있는가? 정의 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슬을 계속 펼쳐보자. 그러면 우리는 곧 우리가 찾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남용적인 소유권, 부도덕한 소유권 일지라도 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정의는 추악할 뿐만 아니라, 형법적 강제 이행은 추악하며, 철창과 교수대는 추악하다. 그리고 이 모든 계열을 포괄하는, 이 역겨운 계통이 나오는 소유권은 추악하다.

소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무장한 판사들, 소유권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영구적 위협이 되는 열정을 가진 검사들, 나는 당신들에게 호소한다. 당신들은 그런 식으로 당신의 양심을 굴복시키고 당신의 판단력을 부패하게 하는 소유권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의심의 여지 없이 소유권보다 높은, 소유권보다 당신의 존경을 받기에 더 합당한 어떤 원리가 당신에게 소유권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는가? 소유권의 작품들이 그것을 추악하다고 공언하는 때에 당신은 어떻게 소유권이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선포하는가? 어떤 고려, 어떤 선언권이 당신에게와 닿는가?

리의 노동만큼이나 우리의 교육의 형태다.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그것이 부의 창조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창조자라고, 사회만큼이나 개인에게도 필요하다고, 후자와 관련해서 처럼 전자와 관련해서도 노동의 분업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위력과 강도를 가지고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분업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체를 촉발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잘 경영된 공동체 안에서 각 산업에 제공 할 노동의 양은 알려지며, 노동자들의 수도 알려지니, 게다가 노동은 각자로부터 임금의 조건이자 모두에 대한 보장 수단으로만 요구되니 공동체는 자연 법칙에 저항하고 그 작용을 억제하고 그 효과를 방지 할 어떤 이유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정부에 다음의 제안을 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대답 할 말이 무엇인가?

“내가 속한 집단이 제공할 서비스의 액수는 1000 이다.

연간 노동일수는 300 이다.

우리는 50 명이다.

나는 약속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 첨부하는 논문에 의거해 내 제안이 어떤 식으로든 공화국에 이로우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말하자면 나는 총 소비에서 내게 돌아오는 몫을 보증금으로 매일, 매월, 매년 정부의 형편에 따라 내게 할당 되었을 수 있는 집단적 노동의 부분에 10 분의 1 을 더한 것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며, 그 대가로 내 위험을 스스로 지면서 자유롭게 되기를, 혼자서 일하기를 요구하는 바다.”

이 시민은 노동 해방을 요구해 오며, 자유에 대한 심일 조세를 납부하겠다고 맹세하는데, 그는 혐의자로 선 언 될 것인가? 개인적 자유는 개인적 자유들의 총계로 구성되는 일반적 자유의 이름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인가? 이 금지의 동기는 무엇일까? 내 존재의 매력이고, 그것 없이 노동은 고역이고 삶은 긴 죽음이 되는 자유여! 인류가 태초부터 싸운 것은 너를 위해서다. 우리가 이 새로운, 그리고 거대한 혁명의 작업 중에 있는 것은 너의 지배를 위해서다. 그러니 너는 사회의 독재 아래서는 양심의 죽음을 일뿐 일 것인가? 그리고 너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매일 내가 너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필요할까?

노동의 자유는 그것이 전유를 내포하므로, 그리고 전유와 함께 독점, 고리대금, 소유권,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내포하므로 동의 될 수 없다고 말할까? 나는 공장, 자유가 이런 남용 행위들을 낳는다면 이는 교환 법칙의 잘못이고, 가치 구성의 잘못, 그리고 소비자들 간에 평등을, 기능들 간에 균형을 주장하는 분배 이론의 잘못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여기서 분배에 반대하는 것은 누구인가? 누가 온 힘을 다해 가치 이론과 교환 법칙을 배격하는가? 공산주의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노동의 자유에 분배의 법칙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배척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동의 공동체를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분배를 거부한다. 원형 설 수 설인가!

노동의 조직, 노동의 분업 혹은 자유, 산업들의 분리, 이 모든 용어는 동의어다. 그런데 공동체는 산업들의 분리에 의해 멸망한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필수적으로 무기체적이다. 조직 붕괴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지상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인들을 분리하지 않는 산업들의 분리, 이익들을 갈라 놓지 않는 노동

들을가지고재생하고우리의젊은민주주의의대표자인루이블랑씨가자기생각과는다르게, 그러나완전히자신도모르게는아니게이끌려간유포피아다. 단순하고항변의여지가없는것으로서이메커니즘이적어도모든사람의이해력범위안에있다는장점을가지는것을사람들이부인하지못한다. 또한저자들의글을읽을때, 그들이노동시간, 복장의선택, 그밖의환상적인세부내용에대해서밖에논쟁을기다리지않는다는것을감지하게된다. 이는체계에는아무것도달라지게하는것이없다고그들은덧붙여말한다.

그러나이체계는유포피아주의자들의말로는간단해도사람이자유로운존재이고경찰과공동체에는반항하는존재라는것, 개인적자유에폭력을가하는모든조직은개인적자유에의해멸망하리라하는것을성찰한다면갑자기풀수없는복잡함을지니게된다. 또한사회주의유포피아들에서는전유專有가항상재론되고우에에대한존중없이공동체질서를교란하는것을보게된다.

우리는카베씨가저녁에가정에서의밤참을허락하는것을보았다. 이양보에카베씨는또하나의양보를더한다. 일요일에는모든사람이자유! 각자는원하는곳에서, 자기집에서, 식당에서, 또는뜰판에서, 내키는대로 ad libitum 저녁식사를한다. 착하고응석을받아야주는엄마처럼이카리아의입법자는이따금공산주의의엄격함을양보할필요성을느꼈다. 그는시민들에게그들이단지형제들이기만한것이아니라또한사람들이침을환기시키기를원했다. 일요일에는그들에게자유를준다!

카베씨는한발더나아간다. 농업에관해서그는작은사업, 거의작은소유권이라고할것을복권시킨다. 이카리아에서농업인은공화국의차지인으로서자기오두막집과밭을가지고아내와자녀들과단독으로산다. 나는다수의공산주의자들이이체계를배척한다는것을안다. 이체계에는경제학자들도동의하지않는다. 그러나나는카베씨가이단이라면그의모든비방자들도마찬가지로이단이라고주장한다. 왜냐하면내가단지형태상의차이만이존재함을증명한다면그대는그들사이에원리상의차이가있다는것을인정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단도직입적으로, 모든조직은공산주의적조직이건다른조직이건필연적으로, 모든분배가임금의비례성과개체성을내포하는것처럼노동의자유와개성을내포한다는것을증명하자. 이는언제나공동체의불가능성에도달하는것이다.

산업조직의가장위력있는첫번째관할영역은산업들의분리, 다른말로하면노동의분업이다. 자연은기후의차이로인해이분업을예고했고선형적으로그모든결과를정했다. 인간의천재성이그나머지일을행했다. 이처럼인류는유통과교환이태어나는모체인이위대한분업의법칙을적용해서만자신의일반적필요들을충족한다. 게다가여러민족들이이원초적분업으로부터자신들의독창성과특성을받았다. 여러민족들의모습은결코사람들이생각할수있을것처럼생식에의해보전되는지일수없는모습이아니다. 이는해외이주의효과와관습의변경에의해서비로소사라질수있는자연의도장이다. 그러므로노동분업은단지생산기관으로서작용하는것이아니다. 정신과신체에핵심적영향력을행사한다. 노동분업은우

이는인간사회의장엄한질서로서당신이모르지만소유권이그흔들림없는기초가된다고가정하는질서인가? 그런소유권은당신에게질서그자체이니, 게다가소유권은그본성상남용적, 즉무질서하고반사회적임이증명되니그렇지않다.

이는당신이그법칙들을이해하지못하지만그구상을경외하는필연또는섭리인가? 분석에따르면소유권은모순적이고부패가능해그자체로써필연의부정이며섭리에대한순상이니그렇지않다.

이는높은데서인간의빈곤들을고려하고악에의거해선을마련하려고하는고급철학인가? 철학은이성과경험의합치이며, 경험의판단에서처럼이성의판단에서도소유권은유죄판결이되니그렇지않다.

이는종교일까? 아마도!

#### IV. 소유권에의한신가설증명

신이존재하지않는다면, 소유권자는일절없을것이다. 이는정치경제학의결론이다.

그리고사회과학의결론은이것이다. 소유권은지고의존재의범죄다. 사람에게는단하나의의무, 단하나의종교만있다. 이는신을부인하는것이다. 이것이크고첫째가는계명이다 (Hoc est primum et maximum mandatum).

사람들중에서소유권의성립은선택과철학의사향이결코아니었음이지명된다. 그것의기원은왕정의기원, 언어와송배행위의기원처럼완전히자생적, 신비적이어서한마디로신적이다. 소유권은종교와권위의외피아래서어디서나우리고집센종자를지배하는본능적믿음의거대한가족에속한다. 소유권은한마디로그자체가종교다. 소유권은그것의신학인정치경제학을가진다. 그것의결의론은법학이다. 그것의신화론과그것의상징은정의와계약들의외적형태들에있다. 소유권의역사적기원은모든종교의기원처럼어둠속에숨는다. 그자체에대해질문을받을때그것은그존재의사실에의거해대답한다. 그것은전설로써설명이되며, 증거들로비유를제시한다. 끝으로소유권은모든종교처럼발달의법칙에종속한다. 이처럼소유권을차례로게르만인과아랍인에서처럼사용과거주의단순한권리로, 유대인에서처럼영구적으로불가능한상속재산의소유로, 중세때처럼봉건적이고장기임대차적소유권으로, 로마인들이알고우리가오늘날안것처럼거의절대적이고소유권자의의지로유통이가능한소유권으로본다. 그러나벌써소유권은그절정에도달하고쇠퇴로접어든다. 합자회사에의해, 새로운담보법들에,

공익을위한수용에, 농업신용의혁신에, 임대차<sup>7</sup>에관한새로운이론들등에공격을받아소유권이곧그자체의그림자에불과할순간이다가온다.

이런일반적모습에서우리는소유권의종교적특성을무시할수없다.

이신비적이고진보적인특성은특히소유권이그고유한이론가들에게유발하는기이한환상, 소유권을발달시키고개혁하고개선할수록그멸망을진전시킨다는, 누구나실제로는그것을덜믿을경우에그것을더욱많이믿는다고언제나상상한다는환상, 게다가모든종교에공통인환상에서드러난다.

그래서사도들중가장철학자다운성바울로의그리스도교는벌써더이상성요한의그리스도교가아닌것이며, 토마스아퀴나스의신학은아우구스티누스와아타나시우스의신학과같지않다. 그리고보탱 (Bautin), 뷔셰 (Buche), 라코르데르 (Lacordaire) 씨의로마가톨릭은부르달루 (Bourdaluou) 와보쉬에 (Bossuet) 의로마가톨릭이결코아니다. 그들이옛관념들을질식시키는때에이를확장시킨다고상상하는현대의신비가들에게종교는거의인간적우애, 민족들의일치, 지구의경영에서의연대와조화에불과하다. 종교는무엇보다도사랑, 언제나사랑이다. 파스칼은우리시대신자들의에로틱한열망에분노했다. 신은 19세기에가장순수한사랑이다. 종교는사랑이다. 도덕은역시사랑이다. 보쉬에에게는그교리로부터자선과자선의업적들이흘러나올것이니그교리가전부였던 반면, 자선은현대인들에의해제 1 의자리에놓이며, 그교리는그자체로는사소하고그모든가치를그내용, 즉사랑, 아니, 더우아하게는도덕에서끌어오는공식으로전락한다.

그렇기때문에종교의진정한적, 모든시대에그것의열망을위해가장애쓰자들은언제나거기서철학적의미를찾고이성과신앙의일치라는이불가능한작업에헌신한최초의사람들중하나인성바울로의맹세에따라그것을이성적인것으로만들려고애를쓰면서종교를가장많은열정을가지고해석한자들이다. 내가말하건대종교의진정한적들은, 그들이종교를무덤으로밀고간다는것을알아차리지 못한채종교를그들이그원리들이라고부르는것으로가져가겠다고주장하는이준합리주의자들, 종교를죽이는문자로부터해방한다는, 즉종교의본질인상징주의로부터해방하고살리는정신에따라, 다른말로하면의심하는이성과증명하는과학에따라종교를가르친다는구실로전통을끊임없이손질하고신앙을왜곡하며성서의의미를비틀면서교리의눈에안띄는변질에의해그교리의형식적부정에도달하는준합리주의자들이다. 키케로의어원설명에의거해이거짓논리학자들이말한다. 종교는인류의연결이라고. 반면에그들은종교가사회법칙의표시, 상징이라고말해야했을것이다. 그런데이상징은매일비판의마찰에의해마모되어실증과학만이확인하고도달할수있는실재의기대만이남는다.

<sup>7</sup> 트롤롱, 『임대계약 Contract de louage』 (1 권) 을보라. 거기서그는앞선시대, 그리고같은시대의모든법학자들에게홀로맞서, 임대차에서는임차인이물체에대한권리를취득하며임대차는물적조치와인적조치를동시에일으킨다고주장하는데, 이는우리생각에는타당하다.

에의해주어진다는것을이해할것이다. 이법칙의공식을구할것이다. 그리고신학이그신화들의의미를발견하고나서그러듯이, 철학이그논리를구성하고나서그러듯이, 사회주의는가치의법칙을찾고나서스스로를알게될것이며, 존재하기를그만둘것이다. 분배의문제는현재까지어떠한사회주의작가에의해서도정면으로논의되지않았다. 그증거는모두가경제학자들처럼분배의규칙의가능성에대해부정적으로결론을내렸다는것이다. 어떤이들은“각자에게그의능력에따라, 각능력에는그공적에따라”를표어로삼았다. 그러나이들에따를때능력의척도는무엇인지도, 노동의척도가무엇인지도말하기를삼갔다. 다른이들은노동에, 그리고능력에새로운평가요소인자본, 달리말하면독점을더했다. 그리고그들은자신들의뜻밖의주장으로가장많은주목을끌어들여도불구하고자신들이문명의비열한표절자들일뿐임을한번더증명했다. 끝으로세번째견해가형성되었는데, 이는이런자의적인타협을피하기위해분배를배급으로대체하고“사회적자원의규모에서각자에게필요에따라”를명문으로삼는다. 이에의해노동, 자본그리고재능은과학에서제거된척지가된다. 동시에산업적위계와경쟁은제거된다. 그리고노동자들을생산적노동자와비생산적노동자로구분하는것은모든사람이공무원이되면서사라진다. 화폐는최종적으로금지되고, 이와함께가치를대표하는모든표시도금지된다. 신용, 유통, 무역수지균형은이보편적우애의왕국에서는의미를잃은말에불과하다! 그리고나는진정한공적을가진사람들로서이허무한단순성에사로잡힌자들을안다!

친애하는빌가르델, 그대는말했다. 공동체는사회주의의숙명적종말이라고! 그리고사회주의가아무것도아니고결코아무것도아니었으며, 영구히아무것도아닐것임은이때문이다. 왜냐하면, 공동체는본성상그리고그정신에서부정, 과거에대한, 현재와미래에대한부정이기때문이다.

## VII. 공동체는조직의법칙없이불가능하며, 조직에의해 멸망한다

공산주의의계획보다만들기더쉬운것도없다.

공화국은모든것의주인이다. 공화국이사람들을배분해개간하고, 경작하고, 창고와지하저장고와실험실을짓고, 궁전, 작업장, 학교를건축한다. 의식주에필요한모든것을제조하고교육과공연을사람들이생각하기에모두무료로, 그리고그나라의재원의범위안에서제공한다. 각사람은국가의일꾼이고국가의경리에따라노동한다. 국가는아무에게도급료를지불하지않지만가부家父가그의자녀들에대해하는것처럼모든사람을돌본다. 그러한것이거의이탁월한카베씨의유토피아와같다. 이는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인도, 라틴, 영국, 프랑스, 미국의공상가들의유토피아에약간의변경을가해갱신한것이다. 페피르씨가여러변형

자연의 모든 산물과 노동도 마찬가지로 판매가치는 0 일 것이며, 그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그것과 함께 사라질 것이며, 더 이상 정치경제학은 없을 것이라고 옳게 말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분배하지 않는다. 그들의 과학은 거기까지가 아니다. 그들은 배급한다. 그들이 폐지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새로운 범주, 즉 가치, 교환, 등치, 정의, 구매와 판매, 상거래, 유통, 신용 등등이다. 공산주의는 생존하기 위해 수많은 말, 관념, 사실들을 제거해서 공산주의의 배려로 교육받은 백성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를 더 이상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활동성도 감정도 없이 우애의 ... 바위에 나란히 붙어 있는 굴들일 것이다. 공산주의란 얼마나 지적이고 진보적인 철학인가!

그렇지만 잘 정돈된 공동체 안에서는 정확성을 가지고, 모든 종류의 산물에 대해 소비의 필요와 생산의 한계를 알아야 할 것이다. 가치들의 비례성은 소유권에 기초를 둔 사회들에 대해서만 큼 공산주의 사회들에 대해서도 부의 지고의 조건이다.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고려하기를 거절한다면, 숙명이 그를 위해 계산해 줄 것이며, 어떤 오류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각 산업 조합은 그러므로 자기 인원과 과단에 비례하는 몫을 손해와 손상을 공제하고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거꾸로 각각의 제조업과 국가 기관은 다른 생산원천들로부터 모든 종류의 공급물자를 그 필요에 비례해 계산된 것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한 것이 노동과 균형의 필요 불가결 조건이다. 이는 칸트가 말했더라면 가치의 정언명법, 절대명령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적어도 작업장, 조합, 도시들과 지방들에 대해 회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의의 순수 표현인 이회계는 왜 우리들에 대해서와 똑같이 개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인가? 왜 대국 기관에서 시작된 분배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지 않을 것인가? 노동자들은 사회보다 서로 간에 정의의 필요성을 덜 가지는가? 이 결정을 완벽히 하려면 하위 분할만 하면 되는 때에 왜 권리의 결정에서 멈추는가? 실례하지만, 이자의 정의 이유는? 그대가 감히 고백하려 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대 대신 대답할 텐데, 이는 그러한 회계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져 더 이상 공동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인 노동이 평가되고 인당 소비가 계산되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처럼 공동체는 모든 상업 회사처럼 장부를 가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동체는 조합들에게만 계좌를 개설하고 사람들에게는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다. 공동체에는 약간의 정의는 필요하지만 많은 정의는 치명적이다. 공화국은 그 재산 목록을 만들 것이다. 시민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 일 것이다! 민족과 지방들은 가치의 절대 법칙에 따라 교역을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 같은 원리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위조 화폐 제조자로 간주되고 사형을 당할 것이다. 자기 안에서 사회 정의를 인격화해 공동체를 폐지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사회주의는 계산하지 않으며, 계산을 거부한다. 정치경제학보다 더 하지도 덜 하지도 않게 사회주의는 가치의 공측 불가능성을 단언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여러 유토피아들을 거치며 추구하는 것이 교환법칙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일단 사람들이 그 본래의 잔혹성을 지켜 주기를 중단하자, 그것을 규율하라고, 그것도 도덕에 종속시키라고, 그것을 국가에 복속시키라고, 한마디로 그것을 사회화하라고 말하자 몰락해 가고 멸망한다. 내가 말한 건대 소유권은 진보적이므로, 그것의 관념이 불완전하고, 그것의 본성이 아무런 확정적인 것도 가지지 않으므로, 그 총체만이 진정한 관념을 내놓을 수 있는 계열의 주된 계기이므로, 한마디로 그것은 종교이므로 멸망한다. 사람들이 보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소유권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소유권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 전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소유로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전이나 물자체에서 찾을 필요가 있는 것, 즉 그 의미와 그 위상을 물의 기원이나 목적에서 가 정하게 하는 이 논리적인 각에 따라 소유권이 고정되는 원리나 동기들로부터 도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이 종교라면, 그리고 모든 종교처럼 그것이 진보적이라면 또한 모든 종교처럼 그 고유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지닌다. 그리스도교와 불교는 고행의 종교, 또는 인류교육의 종교들이고, 무함마드는 숙명의 종교다. 철학 자체는 이성의 종교다. 그러면 여러 종교들 중 가장 완강한 이 특정 종교, 다른 모든 종교를 타락으로 이끌, 그럼에도 제일 마지막으로 멸망할 이 종교, 그 관객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 이 종교, 소유권은 무엇인가?

소유권이 점유와 개발 이용에 의해 발현되니, 지배권과 상속에 의한 독점을 강화하고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니, 지대를 통해서 노동 없이 수확하고 담보를 통해서 보증 없이 위험을 인수하니, 사회에 복종하지 않으니, 그 규칙은 마음대로이니, 그것은 정의에 의해 멸망해야 하니 소유권은 혐의의 종교다.

종교적 우화들이 그것을 증언해 준다. 소유권자인 카인은, 창세기에 따르면, 창으로 땅을 정복하고, 경건함으로 위장하고, 소유권을 마련하고 가난한 자, 프롤레타리아, 것처럼 아담의 아들인 아벨, 그러나 낮은 카스트의 비천한 조건의 사람을 죽인다. 이어원들은 교훈적이다. 이어원들이 모든 주식자들보다 그 천진함으로 더 많은 것을 말한다.<sup>8</sup>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언어를 말했다. 언어의 일치 문제는 그 언어가 표현하는 관념들의 동일성에 의해 증명된다. 음성과 문자의 다른 형태들에 관해 논쟁하는 것은 우습다.

이처럼 우화에, 그리고 분석에 따르는 것처럼 문법에 따르면 혐의의 종교인 소유권은 동시에 종살이의 종교다. 그것이 무기를 든 손에 탈취하거나 아니면 배제와 독점을 통해 진행해 가느냐에 따라 두 종류의 예속을 낳는다. 하나는 고대의 프롤레타리아트로서 정복이라는 원시적 사실, 또는 인류 아담이 카인과 아벨로, 세습 귀족과 평민으로 폭력적으로 분단된 원시적 사실의 결과다. 또 하나는 현대의 프롤레타리아트로서 경제학자들의 노동자 계급이며, 이들은 우리가 본 것처럼 지배권, 상속 그

<sup>8</sup> Qain, 신실한 자, 창, 투창; qaneh, 라틴어 canna, 갈대, 창의 재료; qanah, 거룩한 자에 둘러싸이다. 획득하다; qiné, 담아 건 소유권처럼 질투하다. Bal, 부정의 부사. bélimah, 전혀, 전무; bala, 소진하다. 낡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habal, 사라지다; habel, 아무것도 아닌 사람, 무인 사람.

리고지대에의한독점의성별이라는중대한사실에서도모두요약되는것이며, 경제 적국면들의발달에의해초래된다.

그런데소유권, 즉그가장단순한표현으로하면힘의권리는오랫동안근원초적 조작성을간직할수없었다. 첫날부터자신의얼굴모습을구성하고, 본모습을숨기 고, 여러변장으로자신을숨기기시작했다. 원리상강도, 도둑과동의어인소유권 자라는이름은장기적으로소유권의눈에안띄는변형에의해, 그리고종교적문체 에서아주흔한미래예상들중하나에의해도둑과강도의바로정반대가되었다. 나는다른저작에서소유권의이변질을이야기했다. 나는이를약간발전시켜재현 하려고한다.

타인재물의약취掠取는입법자들이마치도둑질때로는벌하고때로는권장 하기를원한듯이그간혹성과교묘함의정도에따라세심하게구별하고분류한무수 한수단들로행해진다. 이와같이사람들은공로公路에서, 단독으로혹은무리를 이루어불법침입, 가택침입등으로살인강도를저지른다. 단순절취로, 공문서나 사문서위조로, 위조화폐제작으로그렇게하기도한다.

이런종류는힘이나공공연한사기말고다른수단없이작업하는모든도둑들을 포괄한다. 산적, 강도, 해적, 육지와바다의도적들이다. 옛영웅들은이영예로운 이름들에공지를가졌고그들의직업을돈이생기는것만큼이나고귀한일로간주했 다. 니므롯, 테세우스, 이아손과그의아르고호원정대, 입다, 다윗, 카쿠스, 로물 루스, 클로비스와그의메로빙거왕조계승자들, 로베르가스카르, 오토빌의탕크 레드, 보에몽과대부분의노르만모험가들은강도와도둑이었다. 강도질은중세귀 족들의직업전체였고, 유일한생존수단이었다. 영국이그모든식민지들을가지 는것은이들덕분이다. 야만민족들이노동을싫어한다는것을누구나안다. 그들 의눈에영예는생산하는것이아니라취하는것이다. 저주의형태로그들은서로“너 발갈수도있어!”라고말한다. 도둑의영웅적성격은아킬레스에대해말하는호라 티우스의이문구에서표현된다. “그는법률들이자신을위해만들어진것을부인하 며, 팔의힘으로모든것을요구한다 (Jura neget sibi nata, nihil non arroget armis).”그리고유대인들이다윗에게적용하고, 그리스도교인들은그리스도에 게신비적으로적용한“닥치는대로치고받아 (Manus ejus contra omnes)”라 는야곱의이유언에표현된다. 이약탈성향은모든시대에무인의직업에내재했다. 그리고나폴레옹이윌털루에서패했다면, 그의영웅들의강도질에대해징벌이내 려진것이라고말할수있다. 최근에도브로사르 (Brossard) 장군은“나는창과방 패로써금, 포도주, 그리고여자들을가진다”고말했다.

오늘날도둑은성서로무장한강자로서늑대들과하이어나들처럼쫓긴다. 경찰 은그의고귀한산업을죽였다. 법전의조항들을보면그는그의특수성과죄질에따 라징역에서부터단두대에이르기까지신체형과명예형을받는다. 볼테르가노래 한정복의권리는더이상용인되지않는다. 민족들은이점에서서로에대해극단적 인과민성을띤다. 국가의양허나협조밖에서행해지는개인적점유에관해서우리는그예를더는보지못한다.

도시들을파괴하고, 지상에서테베의금욕주의자들처럼가족들을고립시키고, 각 살림에경작하고보고해야할작은소유지를할당한다. 또다른유토피아주의자들 은인구를거대한중심지들에묶어놓기를선호하며, 거기로부터노동자들의여러 조들이영토의모든지점으로기관차를타고달려간다. 이모두는다소간이론에기 초한것이고, 다소간공산주의적이고사회적인것으로서우리의시간을잡아먹을 권리는없다. 방법, 과학은절대로공연히거기에들어가지않을것이확실하다.

1846년에비평가아이모든지저분한것을치울의무가있다고스스로믿으려면 우리가어느정도의지적인하락에도달해있을필요가있는가! 하지만, 참으라! 이 런빈곤은사회를괴롭히는해충으로서사회는논쟁의불꽃으로이로부터정화되어 야한다. 장뇌, 살사, 수은이약사의기술에힘입어공중건강의가장소중한매체들 이되어의료의천재를영구적으로영예롭게한다면, 인간오류에대한비판, 지적부 패를치료하는기술역사가치를지닐수있다. 편견이아주터무니없고, 생겨나는유토피아가아주밥맛없게하는것일지라도말이다.

## VI. 공동체는분배의법없이불가능하며, 분배에의해멸 망한다

그러므로공동체와함께가족은멸망한다. 그리고가족과함께신랑과신부, 아 버지와어머니, 아들과딸, 형제와자매라는명칭들도사라진다. 일가친척과인척 관계, 사회와하인신분, 공공생활과사생활의관념들은희미해진다. 관계들과사 실들의모든질서가사라진다. 사회주의는어떤식으로자신을표현하든지속명적 으로이단순성에도달한다! 관념들을설명하고관계들을정하고권리들, 의무상의 원칙들을정식화하는대신그것들을폐기하는이상한이론이다! 공산주의는과학 이아니다. 그것은무로돌리기다!

이카리아의유식한작가는어떤경우들에대해서자기집에서가족끼리공화국 의화물차와식품담당자들이차리는저녁식사를할허가를내준다.

나는또물어볼것이다. 왜각살림이자기음식물을공동의작업장에서완전히가 공된채로가져오는대신에조리하는것을허가하지않느냐고말이다. 공동체는익 힌고기에집착하는가날고기에집착하는가? 데운파이에집착하는가찬파이에집 착하는가? 아니면어떤절약의동기인가? 이경우에는입법자에게이렇게말할것 이다. “나를빼주세요, 그리고내식사의가치와같은가치를헌물로그리고내선택 에따라내게주세요.”거기에다시말할것이무엇일까?

그러므로우리는당좌계정들로, 산물들의분배와평가규칙의필요성으로, 말 하자면공동체의해체로돌아왔다. 왜냐하면모든당좌계정은차변과대변으로, 달 리말하면네것과내것으로균형을맞춘다. 모든분배는개인주의의동의어다. 세는 공유인채로있는자연적부는그말의경제적인민에서분배된것이아니라고, 만약

다. 공동살림여성과유녀사이의차이는표현에있을뿐이다. 고대에는이들을같은 말로지칭했다.<sup>3</sup>

이카리아에서는 (카베씨에게로돌아오는것은내게언제나새로운기쁨이다) 뜰과정원이떨린집마다한가족이산다. 갑자기규정에세가지에외로다음과같은 것들이있다. (1) 가족의분리, (2) 주거의분리, (3) 살림의분리. 이것이다가아니다. 카베씨가이카리아인들에게하도록하는네키 (푸레에는일곱끼를약속했다) 의식사중두끼는작업장에서행해진다. 이는아침과점심이다. 세번째식사는공화국식당에서공동으로행해진다. 네번째인밤참은가정에서행해진다. 왜이런구분을두는가? 왜동료들과의식사, 공민적식사, 그리고가정식사가있는가? 왜언제나공동으로, 아니면언제나따로따로먹지않는가?

그대는사적소비를찬성하기로결심하는가? 살림의매력이무엇보다아내의 재능에관계되므로, 향유하는기술은생산하는기술에결코못지않게어려우므로 탁월한가정주부들을그런사람은같은소득으로그의집에두배의행복과즐거움을 발견할것이다. 그러므로조건들은더이상동등하지않다. 이는옳을것인가? 그대가그렇다고한다면, 나는그대에게소비와생산은결국같은것인데왜그대는노동에소비와같은규칙을적용하지않느냐고묻는다. 한마디로왜각자의행복은그가 향유하는능숙함에비례하는것처럼그가생산하는부지런함에비례하지않을것인가?

하지만그렇게무모하게만들어진예외의이결과는공동체자체의폐지일것이다. 그러므로규칙을재론할필요가있다. 그리고공동생활을보전하려면사적생활을금지할것인가? ... 하지만그러면공동체는사물에서사람에게로넘어간다는것, 이수평화의체계로는모든사람이노예화되고부정해진다는것을그대에게환기시키는바다. 그리고나는그대에게반대해무서운적인자유가솟아오르는것을 본다. 무엇인가! 우리는세관, 특권, 그리고모든장벽을제거할것이며, 소유권증서를불태우고, 울타리를넘어뜨리고상속지의경계석을뽑아내고자유를방해하는모든것을파괴할것이다. 그러면우리는스무명미만의사람들이노동하고잡담하거나술마시기위해, 공화국의청사에서공화국경찰이감시하는곳말고다른곳에서모일수없을것이다. 아! 나는그대가공독재자, 관찮다면심지어가부장이되는것을보고싶다. 하지만나는그대에게그대의이론을실천할테면해보라고도전한다.

공동체혹은사회주의가카베씨의오류에책임이없다고말하는것이무슨소용인가? 그와다르게말하는자들모두가여전히그와같이추론한다는것이증명된다면? 예를들어팔랑스테르에서는소유권자들대신에합창대원들만있으니노동이공동으로개인적창도성바깥에서수행된다. 개별적인작은방을용인함에도불구하고주거는공동이고, 살림도공동이고식사도공동이다. 결혼은거짓맹세와변심의모든돌발가능성에노출되어선택사항으로남는다. 다른유토피아주의자들은

사람들은사기, 신임의오용, 복권추첨과도박으로도독질을한다.

이두번째도독질은정신의섬세함을날카롭게해주고젊은이들중에서발명의 재능을촉진하려는목적에서스파르타에서평가되었고리쿠르고스의찬성을받았다. 이는돌론, 시논, 오디세우스, 야곱에서부터도이츠<sup>9</sup>에게까지고대와현대의 유대인들, 보헤미아인들, 아랍인들, 그리고모든야만인들범주다. 야만인은부끄럼없이, 뉘우침없이흠치는데이는그가타락했기때문이나니라천진난만하기때문이다. 루이 13 세, 루이 14 세때에는도박에서속임수를써도수치를당하지않았다. 이는규칙의일부가되었으며, 정직한사람들도재산의훼손을교활한기교로써교정하는데스럼이없었다. 오늘날에도, 모든나라에걸쳐크고작은상거래에서거래를할줄아는것, 말하자면세상을속일줄아는것은농민들에게서크게고려되는종류의장점이다. 아이떨린여성의제일가는장점은, 그에게판매하는자들혹은꿈임없이임금과가격을압류하고용하는자들을털썩한다는점이다. 그리고플루이가말했듯이우리가모두교태부리는여자들의자식이아니라면, 우리모두는적어도탕녀들의자식이다. 정부가얼마나힘들게복권의폐지를체념하며받아들였는지를우리는안다. 가장비싼소유권들중하나를상실했던것이다. 몰수가우리의법에불명예를주기를중단한지아직 60 년이안되었다. 모든시대에살인하는 강도에게처음드는생각과마찬가지로처벌하는사법당국의첫번째생각은그의희생자를헐벗기는것이였다. 우리의모든조세, 우리의모든세관법은도독질을출발점으로삼는다.

야바위꾼, 사기꾼, 약장수, 신의이름으로말하거나사회를대표하는자는부적을파는자처럼특히자기손의숨씨, 자기정신의교묘함, 웅변의마력과상상의커다란다산성을활용한다. 그의재능은탐욕을제대로흥분시킬줄아는데있다. 또한입법자는재능과친절함에대한존중을보여주기를원해서완력과고의만활용해서저지르고가장무서운벌을초래하는범죄들의범주아래에명예형이아니라교정적인벌만받는경범의범죄를만들었다. 얼마나괴상한유심론인가!

사람들은고리대금으로도독질한다.

옛날에교회에서아주혐오스럽고우리시대에아직도아주가혹하게처벌받는이종류는생산의가장정력적인분야들중하나인이자부대출과결코구분되지 않으며금지되는도독질과허가된도독질간의이행들이론다. 또한고리대금업은그때매한본성때문에법률과도덕에수많은모순을일으키는데, 이는법조계, 금융계및상업계사람들이아주교묘하게활용하는모순들이다. 이처럼담보받고 10% 로대부하는고리대업자는적발되면엄청난벌금을문다. 같은이자를징수하는은행가는참으로이자명목이아니라수수료명목으로라면왕실특권에의해보호받는다. 금융에의해저질러지는모든종류의절도를열거하려면너무길것이다. 고대의모든민족들에게서한전상, 은행가, 징세청부인은별로명예롭지않은것으로여겨졌

<sup>9</sup> 시몬도이츠 (Simon Deutz, 1802~1844), 독일에서유대인으로태어나출세를위해로마가톨릭으로개종한인물.-역자주

<sup>3</sup> Zonah 는히브리, 칼데아어로서술집여주인과성매매여성을뜻한다.

음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오늘날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자금을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 어떤 경우에는 상업에, 3, 4, 5% 의 이자에 투자하는데, 즉 대부의 정당한 자격 이상으로는 행가들과 고리대업자들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징수하는 사람들로서 사회의 꽃이다. 이는 여전히 같은 체계다. 도둑질의 완화가 우리의 미덕을 이룬다.

사람들은 지대, 임대료, 집세, 임대의 형성으로도 도둑질한다.

지대는 그 원리와 목적지로 고려해보면 대모든 사람이 보증과 증신보장을 받는 토지 소유권자가 될 수 단인 농지법이다. 그 중요성으로 말하자면 이는 생산자의 임금을 초과하고 공동체에 속하는 결실의 몫을 대표한다. 조직기간 동안 이 시대는 언제나 사실에 의거해 설명되는 바와 같이 개인화에 의해 발현하는 사회의 이름으로 소유권자에게 지불된다. 그러나 소유권자는 지대를 받는 것이 상의 일을 한다. 그는 그것을 혼자 누리다. 공동체에는 전혀 내놓지 않는다. 그의 차지인과 아무 것도 나누지 않는다. 그는 집단 노동의 산물을 거기에 자기 노동을 넣지 않으면서 집어삼킨다. 그러므로 절도, 말하자면 합법적 절도, 그러나 실질적인 절도가 있는 것이다.

기업가가 일꾼에게서 그의 임금에 대해 무언가를 유보하거나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상의 이익금을 징수할 때는 언제나 상공업에 절도 행위가 있다.

나는 가치를 다루면서 모든 노동은 초과분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노동자의 소비가 언제나 같다고 가정할 때 그의 노동은 생계수단 이상으로 언제나 더 큰 자본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소유권 체제에서 본질상 집단적인 노동의 초과분은 지대처럼 온전히 소유권자에게 넘어간다. 그런데 공유물의 변장한 전유와 사기 성약취 사이에 차이는 어디 있는가?

이 약취의 결과는, 집단적 산출에서의 자기 몫을 끊임없이 기업가에게 물수당하는 노동자는 언제나 궁핍한 반면, 자본가는 언제나 이윤을 본다는 것,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 물의 상거래, 교환은 6 프랑의 가치가 나가는 것을 3 프랑에 구매하고, 3 프랑의 가치가 있는 것을 6 프랑에 판매하는 기술에 불과하다는 것, 소유권 힘의 종교인 것처럼 소유권의 존중에 해유지되는 이와 같은 상태, 이 체제를 지탱하고 격찬하는 정치경제학은 도둑질의 이론이라는 것이다. 노동은 그것이 생산하는 부에 참여한다고, 최근에도 덕 및 정치 과학 아카데미에서의 담합에 관한 연설에서 랑키씨가 말했다. 그러므로 노동이 거기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면 이는 절도 행위이며, 소유권자들은 도둑들이다. 그러므로 경제 학자들이여, 명확히 말하라!

그러므로 정의는 옛 시인들이 황금 시대라고 부른 부정적 공동체를 벗어나면 힘의 권리다. 조직에 눈 뜬 사회에서 능력들의 불평등은 가치 관념을 일깨운다. 가치는 공로와 재산 간의 비율 관념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때 제 1 의, 그리고 유일한 인정된 공로는 힘이므로 가장 공로가 커서 최선의 사람 aristos 로서 가장 큰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가장 강한 자 (aristos, 아레스 arès 의 최상급, 마르스신의 고유 이름) 다. 그리고 이 몫이 그에게 거절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는 이를 탈취한다. 이로부터 모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로채는 것까지는 한 발짝밖에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이여! 그대들의 현존은 내 계약 취이며, 그대들의 시각은 내가 밥맛을 잃게 한다.

생시몽주의자들, 푸리에주의자들, 그리고 가장 순수한 부끄러움, 섬세함, 영성을 가지고 자유로운 사랑을 허락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남창男媿들의 체제로 속히 넘어가자. 비천한 사회주의의 서글픈 환상, 망상에서 사로잡힌 탕자들의 마지막 꿈이다. 번심에 의해 격정이 치솟게 해 보라. 곧바로 육체가 정신에 폭압을 행사한다. 연인들은 서로에게 쾌락의 도구에 불과하다. 마음들의 융합에 감각의 역누를 수 없는 욕망이 뒤를 잇는다. 그리고 모든 쾌락에는 마찰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는 인기 있는 비너스에 대한 세심한 조사를 생시몽처럼 거칠 필요는 없다.

공동체가 없었지 아니면 가족이 없고 따라서 사랑이 없었지 둘 중 하나다. 그리고 돌아올 필요가 있다.

모두가 우리에게 사회들의 유기적 요소로 보여주는 가족과 함께 사람의 개성은 그 규정적 성격을 띠고, 모든 기력을 획득하고 점점이 기주의로 돈다. 이는 레굴루스 같은 자나사도를 자칭하며 자기 자녀와 아내를 공공자선기관에 방치해 행위의 권위를 떨어뜨려 어떤 광인의 고립된 예가 아니다. 시조가 되는 사람은 곧 부성자 체제의 해집종되고 사나워진다. 그는 우주의적이다.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모두 낯선 자들로, 적들로 보인다. 결혼과 부성은 이웃에 대한 애착을 사람에게서 증진해 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의 질투심, 불신, 증오를 살려 줄 뿐이다. 가부장은 독신자보다 이익에 더 약착 같고, 더 차 없고, 더 비사교적이다. 신을 사랑하는 나머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이 신자들과 비슷하다. 가부장에게는 언젠가는 그를 계승할, 그리고 그의 뒤에 일련의 세대들을 계속해 갈 자들의 어린 시절을 보호하기엔 너무 많은 소망과 이기심의 에너지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하루는 충분하지 않다. 수년간의 고된 작업과 긴 저축이 필요하다. 사람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연과 투쟁 중이며 자기 자녀의 미래를 위해 사회 전체와 투쟁 중이다. 공동체가 이적 대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그대는 말한다. 공동체가 가족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류를 파괴하거나 공동체의 해체자인 가족을 용인할 줄밖에 모른다면 어떻게 그렇게 까지 하게 될 것인가?

가족의 반공산주의적, 내가가 거의 반사회적이라고까지 말한 이 특성은 자녀들과 아내들에게서 순진 무구하게 드러난다. 나는 소유권자의 아들들이 일꾼의 아이들과 사소한 공통점을 가지기보다는 마치 일꾼을 비추어 주는 태양이 귀족들의 빛남을 손상시키는 듯이 그들 또래의 놀이를 멸시하고 재산 관리인의 운명을 감수하는 것을 보았다. 아내들로 말한다면, 이들이 자기들의 살림이라 부르는 작은 나라의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만 결혼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은 통속적인 진실이다. 아내에게서 그의 평화로운 행정이고, 의기양양한 소풍을 떠나는 출발점인 살림을 빼앗아 보라. 그 순간부터 그는 그대에게 충실할 이유를 더 이상 가지지 않으며, 그대에게 속하기를 그만둔다. 결혼은 그 외적인 속성을 상실해 여성에게 추상, 우연한 연결이 되어, 이는 아무런 실물에도 뒷받침되지 않아서 처음 싫증이나는 때에 해체 될 것이다. 공동체는 기껏해야 성매매 여성들과 수녀들에게 좋은 것이어서 가모家母에게는 불쾌하

당신이 플라톤의 원리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양성의 완전한 공동체를 찬성하는 의견을 공언한다면, 당신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인 사랑을 의무화하고 성매매를 강간으로 대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우애, 예의바름, 상호간 애정은 어디 있는가?

당신이 사람들의 동의가 없거나 즐겁지 않거나 선행해야 하리라고 유보 조건을 둔다면, 공동체는 선택 사항에 불과하다. 우리는 선호, 매수, 독점에 빠진다. 어떤 이들에게는 일부다쳐, 다른 이들에게는 무흔이행해져서 모두에게 부정 불친이 일어난다. 이는 현재 제로서 푸리에에게 다른 이름으로 규율화한 것이다. 양성의 임의 선택적 공동체를 인정하는 사회주의 종파들은 문명을 모방해 재능과 자본의 권리, 혹은 결국에 가서는 힘의 권리를 유지하는 바로 그 종파들이다. 재물의 나눔에서의 불평등, 사랑의 나눔에서의 불평등, 이것이야말로 이위 선적인 개혁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이들이 남들에게 명령하고 자기들은 즐긴다는 조건에서는 이들에게 정의, 이성, 과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은 결국 소유권의 변장한 추종자들이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설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공동체를 수용한다.

끝으로 만약 당신이 결혼의 불가침성을 주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거대한 공동체 중에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다. 국가내의 국가 imperium in imperio 인 것이다. 당신은 가족을 도입하는 것이고, 가족의 불가분리적 특성으로서 살림, 소유권, 상속 등 일련의 양립 불가능하고 모순된 것들 모두를 도입하는 것이다.

공동체는 사물에만 해당되고 사람에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대는 말한다. 이것이 바로 판판의 속임수라고 말하는 것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 사람들의 공동체 혹은 단체는 사물의 매개에 의해 생겨난다.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체는 같은 물건들의 사용에 의해 같은 물건들의 사용에 의해서 공간에 성립한다. 이처럼 내침실, 내침대, 내옷의 공동체는 내의사에 반해서 취득된 것으로 내 인격을 공유한다, 즉 성서의 언어로 그것을 더럽히고 억압한다. 나의 노동, 나의 애착, 나의 즐거움에 관계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더먼 공동체, 예를 들어 태양계 공동체, 나라나 언어 공동체 같은 공동체 안의 내 동류들과 함께 하는 만큼 더욱 순수하고 더욱 자유롭고, 더욱 침해되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이 플라톤의 방식과 같은 더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는 만큼 더욱 불경하고 덜 존엄하다. 그대는 사랑에서 상호 동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부 공동체는 이 원리 위에서 세워진다. 그런데 나의 것인 이 아내가 심지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통한다면, 그 여자가 성매매를 하는 시간에 내 잠 자리에 함께 하고 내 품에서 잠을 잔다면 그 여자가 내게 성매매를 시키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 여자는 비열한 매춘부의 냄새를 풍긴다 (Foeda lupanaris tulit ad pulvinar odorem)! 죄인의 죽음 말고 아무것도 나에게 그러한 모욕을 갖아 줄 수 없다. 그리고 공동체가 그것을 허가한다면 나는 공동체에 반기를 든다. 메스트르 백작은 말한다. 사람의 입김은 그의 동류에게, 신체와 정신에 치명적이라고. 여성들의 공동체는 전염병의 조직이다. 썩물러가라,

그러한 것이 영웅적 권리였으며, 이는 적어도 기억하기로는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에게서 그들의 공화국의 마지막 시대에까지 보전된 권리다. 플라톤은 『고르기아스』에서 그럴싸한 이유들로 힘의 권리를 주장하는 칼리클레스라는 자를 소개하며, 평등 tou isou 의 옹호자인 소크라테스는 논리보다는 웅변으로 이를 반증한다. 사람들은 위대한 폼페이우스가 곧 잘화를 내며,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이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한다. “무기를 들때 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 모습은 야심과 양심이 서로 싸우는 사람, 영웅적인 격언, 도둑의 속담으로 자기의 걱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린다.

힘의 권리에 뒤이은 것은 피의 권리였는데, 이는 앞의 것의 타락이고 정의의 새로운 발현일 뿐이었다. 이는 그 일에 뛰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너무 수해를 보는 영웅들에게 혐오를 받은 권리다. 오이디푸스와 스팅크스의 잘 알려진 고사는 승리자가 전쟁에서 처럼 패자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교묘함의 권리에 대한 언질이다. 기만적인 제안으로 적수를 속이는데서의 능숙함은 역시 그 보수를 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능수능란한 자들이 강자들을 잔혹하고 야만적이라 부르며 멸시하는 동안, 벌써 의의의 참된 감정을 드러낸, 그렇기는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에 불과한 반응에 의해 강자들은 여전히 선의와 단순성을 자랑했다.

그 시대에 말에 대한 존경과 맹세의 준수는 논리적 엄격함보다는 문자적 엄격함에 속했다. 12 동판법은 이렇게 말한다. ‘허가 말할 것처럼, 권리는 그럴 것이다 (Uti lingua nuncupasset, ita jus esto).’ 태어나는 이성은 형태보다 근본에 덜 집착한다. 그 확실성 전체를 이루는 것은 형태, 방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지략, 더 좋게 표현하자면 불성실한 말이고 대로마의 정치 거의 전체가 되었다. 다른 많은 예들 중에서도 비코는 몽테스키외의 이야기 한 예를 인용한다. 로마인들은 카르타고인들에게 그들의 재물과 도시의 보전을 의도적으로 사회, 국가를 뜻하는 civitas 라는 말을 사용해보장해주었다. 반대로 물적 도시 urbs 로 말아들은 카르타고인들은 그들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해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마인에게 공격을 받았다. 로마인들은 그 일에서 영웅적 권리를 따라 매한 말로 적들을 속인 후에 불의한 전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대 외교는 이 고대의 관습에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았다.

법률이 금하는 바와 같은 절도에서 힘과 술수는 그것들만 부족물 없이 사용된다. 허가 받은 도둑질에서는 이 힘과 술수는 무언가 쓸모로 위장되는데, 이 쓸모는 그 희생자들을 갈취하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된다.

폭력과 교활함에 대한 직접적 호소는 일찍이, 그리고 만장일치로 배척되었다. 문명을 형성하며 문명을 구분하는 것은 힘을 포기하는 데서의 이민족들의 의견일 것이다. 어느 민족도 아직 노동, 재능 그리고 소유로 위장된 도둑질에서 벗어나는데도 달하지 못했다.

힘의 권리와 술수의 권리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여러 시들에서 음유시인들이 찬미하던 것으로서 그리스 공화국들에 영감을 불어넣었고 로마 법들을 그 정신으로 채웠으며, 그것들은 이로부터 우리의 도덕관념과 우리의 법전들로 넘

어왔다. 그리스도교는 그에 아무런 변화도 가지 않았다. 종교로 자리매김한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철학을 적대하고 과학을 멸시해 종교적 본질에 속할 모든 것을 수용하는 데 소홀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성마태오와 성바울로 안에서 평등과 상식을 공언한 후 그리스도교는 점점 그 주위에 처음에는 금했던 미신을 끌어모았다. 다신론, 이원론, 삼원론, 마법, 강신술, 위계, 왕정체계, 소유권, 땅의 모든 종교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이다.

도덕과 관련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고위성직자들과 종교회들의 무지는 광장과 집정관들의 무지에 필적했다. 그리고 사회와 권리에 대한 심각한 무지는 교회를 타락시킨 것이 고영구히 그가 침묵에 불명예를 주는 것이다. 게다가 불성실이 일반적이었다. 그리스도교의 모든 종파가 그리스도의 계율을 무시했다. 모든 종파가 그 교리에서 오류를 범했으므로 도덕에서 오류를 범했다. 모든 종파가 거짓된 명제로 죄가 있으며, 사악함과 살인로가 득차 있다. 스스로를 무오류라고 하는, 그리고 고말겨진 것을 보전할 줄 몰랐던 교회들은 사회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의 개혁적이라고 하는 자매 교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 환멸을 느끼지만 관대한 인민은 유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습적 권리인 소유권은 절충론이 진리와 다른 것처럼, 가치가 가격표와 다른 것처럼 정의와 다른 것으로서 불의의 두 극단인 잔혹한 힘과 허위의 술수 사이의 일련의 진자 운동에 의해 형성되는데, 그들 사이에서 대립하는 자들이 언제나 하나의 협정을 체결한다. 그러나 정의는 타협에 따라 온다. 협정은 조만간에 실물을 표현할 것이다. 참된 권리는 끊임없이 궤변적이고 자의적인 권리로부터 벗어난다. 개혁은 지성과 힘의 투쟁에 의해 행해진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야만성의 어둠 속에 있는 이 광대한 운동, 사회가 소유와 가치의 종합적 관념으로 상승하는 날 효력을 상실하는 이 운동, 본능적으로 수행되는 이 변혁과 혁명의 총체, 그 과학적이고 최종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이것을 나는 소유권의 종교라고 부른다.

그러나 자생적이고 진보적인 소유권이 종교라면 이는 왕정체계, 교황권처럼 신권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조건과 재산의 불평등, 빈곤은 신권에 속한다. 거짓 맹세와 도둑질은 신적 제도에 속한다. 사람에게 의한 사람의 착취는 신의 천명이고 표명이다. 참된 유신론자들은 소유권자들이다. 소유권의 옹호자들은 모두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소유권에 관한 불화에 따라서 로에게 행하는 사형 및 고문형 선고는 힘의 신에게 바치는 인신희생제물이다. 반대로 소유권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바울로와 함께 소유권의 폐지를 촉발하고, 부의 생산, 소비, 분배에 관해 추론하는 자들은 아나키스트와 무신론자들이다. 평등을 향해, 과학을 향해 가시적으로 행진해 가는 사회, 그 사회는 신의 끊임없는 부정이다.

소유권에 의거한 신가설의 증명, 그리고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완성을 위한 무신론의 필요성, 이런 것은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 이상한 문제다. 약간의 말이면 충분할 것이다. 사실은 알려졌으며 우리의 증명은 행해졌다.

는 그대가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에는 너무 별볼일 없는, 비너스를 섬김에서도 그녀의 밤전쟁에서도 굶픈 (in venerem segnis nocturnaue bella) 동료라고 믿는다. 나는 이 불일치에 놀랄 권리를 가지지 않는가? 페르르씨는 결혼이라는 표제에 관해 카베씨보다 덜 공산주의자다. 카베씨는 「뤼마니테르」보다 덜 공산주의자이고, 「뤼마니테르」는 확실히 모두 중에 가장 논리적이다. 나는 누구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내가 추론에다가 사회주의자들 중에 아주 두드러진 왕성한 식욕만을 참조한다면 「뤼마니테르」와 함께 가족과 결혼을 반대한다. 내가 양성간혹 속이 사랑을 파괴함을 성찰한다면 사랑을 위해 하나의 예외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천 가지 다른 예외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야말로 내가 방향을 잃은 것이 고자의 초연에 무방비로 넘겨진 것이다. 무엇인가! 공산주의자들이 벌써 공유하는 관념으로서로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정치적 대표자들로서 온전한 공산주의자들과 극단적 공산주의자들로 나누어진다! 그들 중에 작파, 우파, 그리고 교조주의자들이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기조 (Guizot) 는 누구인가?

가장 이성적인, 가장 현실적인, 따라서 가장 덜 앞선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그대, 친애하는 빌가르델은 이중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공동체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찰하면서 결혼 문제에 관해서는 궁지에서 벗어난다고 믿는다. 그대는 카르포크라테스를 따라서, 모든 것은 공유 omnia communia 이지만 모두가 공유는 아니라고 non omnes communes 말한다.

결혼의 단조로움에 약간의 다양함으로 맛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은 그대의 위대한 계시자인 플라톤과 영지주의자들, 마니교도, 생시몽주의자들 그리고 푸리에에는 이 점에서 자아의 불가침성을 잊었다면 빈약한 추론가들이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의 재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들 중 가장 큰 재물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여성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녀에게 그 물건인 공동체를 거부할 수 있는가? 나는 그의 형제가 아닌가? 그는 나의 자매가 아닌가?

부탁하노니 하나의 해결책이 내게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결과들을 성찰해 보라. 이는 내가 그대에게 혼들리지 않는다고 확언하는 결과들이니 말이다. 어떻게 공동체가 사랑의 문제에서 적용될 것이며, 양성관계에 관해 관습법은 무엇일까? 어떤 경우에도 범죄나 경범죄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런가? 초대 그리스도교인들 중 어느 사람은 한 아픈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아 이기주의로 비난받았다. 그는 사과했고 자기 아내를 공동체가 마음대로 하도록 해서 모략하는 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런데 공동체가 남편을 강제할 수 있다면, 아내도 마찬가지로 강제할 수 있다. 선착자 先着者는 심지어, 공동체가 부재할 경우에, 이 아내에게서 형제된 의무를 요구할 수 있고, 그가 거부하면 자기 손으로 복수할 수 있다. 공산주의에도 대체 강간, 유혹, 근친상간 혹은 간음 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모두에 관해 나에게 증명, 그리고 증명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달라.

## V. 공산주의는공동체의형상이고원형인가족과양립불가능하다

우리는공동체의기원, 그것이문명에서어떻게발현되는지, 어떤문제가풀어야할것으로공동체에주어지는지, 그리고어떤변증법을공동체가활용할줄아는지를말했다. 우리는이제공동체를그업적에서, 그유토피아의설명에서나타내주려고한다.

한편으로어떤것들의공동체가물리적으로필요한것처럼다른어떤것들의공동체는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는것이증명된다.

게다가소유권의침해와원시적야만시대를지나서생존한아주소수의공산주의적제도들의유지, 이는투기가절대로쓸데없이들어가지않은특정한경제적필요성의결과이기도한것처럼특정한정신적, 정서적성향의결과였다는것이확인된다. 소유권과공동체의적대관계가정확한방식으로정해지고, 어떤사람들이통속적이고려사항들을넘어서올라가, 어떤이들은새로운제도들을부추기는정신을짓밟고, 다른이들은황금시대의기억들을짓밟으면서이런저런경향을체계적으로쳐부수고첫번째사람은공동체에서나온모든것을공동체로되돌릴필요가있다고주장하고, 두번째사람은전유될수있는모든것을계속전유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기시작하는것을보게되는것은경험과성숙한성찰의여러세기가지난후일뿐이다. 이로부터모순적인두유토피아가나오는데, 하나는항상달아나는공동체의유토피아이고또하나는끊임없이커지는소유권의유토피아다. 소유권은결코그것이이렇게되기를갈망할것으로서온전하고절대적이지못했다. 또한공동체는완전하지않았다. 그리고참된공산주의자는참된소유권자처럼이성적존재다.

확실히나는공산주의가그적용에서그원리를한계에까지밀어붙일욕구를가진다고가정할때공산주의에호의적이다. 그러나이는엄밀한이유로는충분치않다. 가능하다것이무엇인가? 의무로제시되는공동체와동시에의무로제시되는개성사이에무엇이이를결정할것인가? 내가어떤경우에서든다른것보다는어느하나의것에양보해야한다는것을누가내게증명해줄것이며, 어떻게그것을증명해줄것인가? 내가아무리공산주의자라도전유나공유가꺼려지는것들이무엇인지를인식하기위한원칙은언제나내게필요하지않은가? 그리고부터는공동체가그것을구성하고그것을결정하는원칙을필요로하니공동체는그자체로는아무것도아니며소유권도아무것도아님은참이아닌가?

사실로가보자. 나는모든것들중일반여론이공동체의암초라고간주하는데의견일치를보는것, 가족으로서시작한다.

공산주의신문 「뤼마니테르 l'Humanitaire」 는여성들의공유에명확히찬성함을공표했다. 카베씨는공동체의문제를남겨놓으면서, 이를배척하지도인정하지도않으면서임시로결혼과가족을유지한다고선언했다. 페뢰르씨는자기나름대로일부일처제를다른속셈없이찬성한다고공언하며, 친애하는빌가르델, 나

세기의주된관념, 오늘날가장통속적이고가장공신력있는관념은진보관념이다. 레싱이래로사회적신념들의기초가된진보는여러사람들의정신속에서옛날에게시가하던것과동일한역할을한다. 사람들은레싱이게시를부정한다고하겠지만실제로는이를다른말로번역하기만한것이다. 라틴어 *revelatio* 는그리스어 *apokalupsis* 와마찬가지로축어적으로펼쳐짐, 진보를뜻한다. 그러나종교적인고대는신자신이사건이전에이야기한역사안에서이펼쳐짐을보였던반면, 현대인들의철학적이성은기정사실의계기繼起에서이를본다. 예언은역사철학의반대가아니라그것의신화다.

그러므로인류의발달이라는것은, 점점더커지는의식과함께할경우에우리의가장심오하고가장포괄적인관념이다. 언어와법률들의발달, 종교와철학의발달, 경제적, 산업적발전, 힘, 술수그리고인습에의한정의발달, 학문과예술의발달인것이다. 그리고모든종교를포괄하고, 모든철학에대립하고, 한편으로게시에근거하고, 다른한편고행에근거하는그리스도교, 즉이성과경험에의한사람의교육을믿는그리스도교, 이는그전체가진보의상징화다.

진보에대한이절정의관념, 다산성이고고도로합리적인관념을대면해도하나의관념이지속하며, 다시활기를띠는것같다. 이는거대한, 수수께끼같은, 궁창의심오한존재들이망원경으로통찰이안되는것처럼우리의변증법적수단들로통찰이안되는관념으로서신관념이다.

신이란무엇인가?

신은가설상으로영원하고, 전능하고, 무오류이고, 부동이고, 자생적인존재, 한마디로모든능력, 속성, 발현형태에서무한한존재다. 신은무한한능력으로상승한지성과활동이속명자체에적합하고속명자체와동일한존재다. 최고의법, 최고의자유, 최고의필연 (*Summa lex, summa libertas, summa necessitas*) 이다. 그러므로신은본질상반진보적이고반섭리적이다. 말해진것은행해진것 *Dictum factum* 이라는것이그의표어이고그의유일무이한법이다. 그리고그에게서영원은섭리를배제하므로, 무오류성은오류의지각을배제한다. 그리고결과적으로약의지각을배제한다. 그하시는일모두거룩하다 (*sanctus in omnibus operibus suis*). 그러나신은모든방향에서의무한한품성에의해고유한정의定義를획득하며, 따라서그를자기적대자로의식하는유한하고진보적이고섭리적인존재에대한그의대립에서결과로나오는존재가능성을획득한다. 신은한마디로그개념안에아무모순적인것도가지지않아서가능하며, 우리의이성의본의가아닌이가설을입증할여지가있다.

이모든관념은그정신적, 지적구성에서고려된인간존재의분석을통해우에게제공되었다. 그관념들은반증되지않는변증법에따라우리의우발적본성과우리의지구상에서의기능의필연적가정으로서등장했다.

나중에게서, 우리가처음에는존재의단순가능성으로만상상했던것이이원본가능한이원론과존재들의진행과정이론에의해어떤개연성의크기로상승했다. 우리는이원론적실체에관해펼쳐지는, 그이성과마지막항이우리에게이미주어

진, 과학에이제부터획득되는진보적창조라는사실이, 그근원에서또다른사실, 자생성, 효과성, 확실성을무한하게가지는본질, 그모든속성이결과적으로인간의속성과는역적이될본질이라는사실을내포한다는것을확인했다.

그러므로이개연적사실, 이성이요구하고, 관찰이시사하는필요불가결의이존재, 그러나아무것도아직증명하지못하고, 모든경우에그무한성과그고독성이우리에게이해할수있다는희망을빼앗는이존재를밝히드러낼일이남는다. 증명불가능한것을증명하고, 접근불가능한것을통찰하고, 한마디로유한한인간의시아에무한을놓는일이남는다.

첫눈에보기불가해하고, 그항목들에서모순적인이문제는누가이를성찰하는수고를들인다면그안에서모든모순이사라지는다음정리定理로환원된다. 속명과진보간에등식을만들어서, 무한의존재와진보적존재, 서로에게들어맞지만일치하지는않고반대로서로역이되며서로침투하지만혼동되지는않는이두존재가서로간에표현과법칙으로소용되면서, 우리에게그것들을구성하는정신과물질이그러하듯, 그러나다른차원에서존재의불가분하고환원불가능한두측면으로순서에따라나타나게한다.

사회과학에서관념들은모두가똑같이영구적이고진화적이며, 똑같이단순하고복잡하며, 똑같이격언식이면서종속적이라는것을우리는보았으며그에대한한번이상언급하도록의했다. 초월적지성에게는경제체제에원리도, 결과도, 증명도, 연역도없다. 진리는연관조건없이하나이고동일한데, 이는그것이어디서나무한의측면에서, 그리고무한의이론들과체계들에서진리이기때문이다. 일련의명제들은단지교육적인해명에의해서발현한다. 사회는, 그뇌속에학문이살고있어서학문을그총체에서끌어안고처음도끝도없이의식하고모든부분에서동시에그리고또렷하게피악하며, 그부분들에서각각동등한명증성과우선성을발견하는학자와같다. 그러나바로이사람은학문을만들기를원하는가? 그는어쩔수없이이를말로, 명제들로, 연설로연이어서펼쳐낸다. 죽어떨수없이불가능한전체로그에게나타나는것을하나의진행과정으로제시할수밖에없다.

이처럼자유, 평등, 네것, 내것, 장점과단점, 대변과차변, 종과주인, 비율, 가치, 경쟁, 독점, 조세, 교환, 노동분업, 기계, 세관, 지대, 상속등등의관념들, 모든범주들, 모든대립물, 경제적어휘에서세상의시초부터명명된모든종합들은이성에서는동시대적이다. 그렇기는하지만우리에게접근가능한학문을구성하려면이관념들은그것들이서로를낳는것을우리에게보여주는이론, 시작, 중간, 끝을가지는이론에따라배열될필요가있다. 인간적실천에들어가서효과적인방식으로실현되려면바로이관념들은진자운동을하는일련의제도들이천건의예기치않은사건들과진모색과정을대동하는것으로등장해야한다. 한마디로학문에절대적이고초월적인진리와이론적진리가있는것처럼, 사회에는속명과섭리, 자생성과반사성이같이있어서이두권능의두번째것이상시적으로첫번째것을대체하려고노력하지만언제나실제로는같은구실밖에하지못한다.

속명은그러므로존재와관념의한형태이며, 연역, 진보는다른한형태다.

육적인표현일뿐인이우애는내가말하건대결코사회주의자들이믿듯이사회완성의원리, 사회진화의규칙이아니다. 그것은사회의목표이고열매다. 문제는정신과가슴의형제이며서어떻게우리가전쟁을벌이지않고서로잡아먹지않고살것인가를알아내는것이아니다. 이문제는문제도아닐것이다. 오히려본성상형제들이면서우리가또한어떻게감정의해형제가될것인가, 우리의이익들이우리를갈라놓는대신어떻게우리를결합시킬것인가하는문제다. 이것이야말로유토피아가근시안으로만들지않은모든사람에게단순한양식이게시해주는것이다. 왜냐하면우리가경제적모순들의그림을가지고증명해보인것처럼, 문명화시키는제도들의발달이격정들에교란을일으키고사람들에게서탐내는식욕과화를내는식욕에불을붙이고이신의천사들을사나운짐승들로만드는불가피한결과를가지니, 쾌락의운명을지닌초라한피조물들로부터맹렬한사움이일어나고무서운상처가 생겨나기때문이다. 그리고이피조물들간에평화조약의기초를놓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그러면노동은어떻게배분될까? 교환법칙은어떤것일까? 정의의강제 이행수단은무엇일까? 배타적소유는어디서시작되며, 어디서끝나는가? 공동체는어디까지확장되는가? 어떤비율로이요소는집단적유기체의부분을이루는가? 어떤형태로, 그리고어떤법칙에따라, 한마디로어떻게우리는형제가될것인가? 그러한것이공동체의사전적문제이며최종적목표이기도한것이다.

이와같이우애, 연대, 사랑, 평등등은여러이익들의화해, 즉노동의조직과교환의이론에서밖에나올수없다. 우애는모든형태의연합과정부의목표인것처럼공동체의목표이지원리가아니다. 플라톤, 카베, 그리고이사회주의의두최고권위자에이어서우리에게생산과교환의법칙들을가르치는대신우애, 연대, 사랑을가지고서유토피아를만들기시작하면서권력과돈을요구하는자들, 이모든사람들은내가말하노니결과를원인으로, 결론을원리로간주하는것이다. 그들은속담이말하는것처럼천장에서부터집짓기를시작한다. 왜냐하면, 다시한번말하건대우애로충분하다면누가사회주의자들이서로연합하는것을막는가? 이를위해장관의허가, 의회의법률이필요한가? 그러한감동적인광경이세상을감화할 것이며, 유토피아만을위태롭게할것이다. 이헌신은공산주의적용기를넘는것일까?

이야말로그들이이를고려할상황에있지못하면서우연히카베씨에게질문하게된시민들이가슴밑바닥에서느낀것이다. 그러나스승이그들에게“나의원리, 이는우애로다”하고대답한것역시아주뛰어난전술을가지고한것이였다. 왜냐하면이런뒤집음없이공산주의는더이상없을것이기때문이다. 카베씨는이결정타뒤에사람들이그에게우애의원리는무엇인지를묻지않으리라고확신했다. 이는무한히이어지는문제들에몸을던지는것일테고이를끝낼필요가있었을것이니 말이다.

공적권위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이본질적교리에모든사람이동의한다. 여론의보편성이있다. 사회주의종파들의친구들의돈주머니에대한끝날줄모르는호소는이관념에서출발한다. 그러나개혁자들이사업주들이되어권력을효과적으로사용하려면이권력에커다란창도력을주는것이좋다. 이는블랑씨의체계다. 그런데어떤조건에서권력은가장큰힘을취득하는가? 민주적으로구성된다는, 혹은공화국의권력이라는조건에서다. 이는플라톤, 루소, 『나시오날 Le National』 등의체계다. 정치개혁은사회개혁의무적예비단계다. 그러나왜입헌군주제보다, 원로원보다민주주의인가? 사람들이연대적이라이들을정치적, 법적으로평등하게해주는것이좋기때문이다. 이는내생각에세프뵈리예 (Cherbuliez) 씨가창설한연대하는사람들의연합의체계다. 사람들은무엇에서부터연대하는가? 그들의모든움직임을묶어주는공통의법칙, 인력아래서살아가는데서연대한다. 이는푸리에의체계다. 우리가최근에겨우알게된이인력은무엇인가? 이는바로우리가아주오래전부터아는사랑이고, 자비다. 이는미슬레씨의체계다. 사람들이서로사랑하고서로미워하고, 자석의양극처럼서로에게끌리고서로를배척하는것은어떻게되는것인가? 이는모든사람들이형제라는것이다. 이는카베씨의체계다.

우애, 이는그러므로가장중요한사실이고, 자연적이고우주적인, 생리적이고병리적인, 정치적이고경제적인거대한사실로서이것에원인에대한결과처럼공동체가매여있다. 말의유비類比, 이는사회주의의방법, 이론, 변증법이다. 친애하는빌가르델, 그대는열두가지중추적감정들, 그리고대조되는일련의집단들이거기에무언가를더하는지를말할수있다. 아마도이일련의공허한말들에서더많은수의중간항들을발견할수있을것이다. 확실한것은, 이것이언제나우애에도달하며우애는우리에게인종들의차이, 인류일치의원리와기초에의해명확히발현된다는것이다. ‘우애아니면죽음을!’이야말로국민공회 Convention nationale<sup>2</sup>의소유권자들이그렇게하도록내버려두었다면로베스피에르가프랑스에설명했을것이다. 이야말로이위대한사람의계승자인카베씨가운명의책에서들뜬기분으로읽었던것이다. 그대가뭐라고하든지옛날과현대의유토피아주의자들중아무도과학의비밀을더앞서간파하지못했다.

그러면제 1, 제 2, 제 3 의원인들에대한이경이로운분별지를가지고문장을구성하는비길데없는능숙함을갖추고서사회주의는어찌하여사람들을더낯게, 더행복하게만들수도없으면서세상을근심하게하는데만이르렀나? 왜냐하면결국정치경제학이그업적에따라평가될수있다면, 사회주의는오늘날그무능에따라평가될커다란위험을겪기때문이다. 그러므로우리가일상관행의비정상성에대한것처럼유토피아의불임성에대해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

인간의사회성의진보에관해성찰한누구에게든, 실질적우애, 입법자의배려와도덕가의주의를오직끝만한이가슴과이성의우애, 그리고종족적우애, 그것의

그러나숙명, 진보, 이는자연이알지못하는언어적추상들로서거기에서는모든것이실현되거나실현되지않는다. 그러므로인류안에는불가분이지만구분되는, 대립적, 적대적이지만영구적으로환원불가능한숙명적존재와진보적존재가있다.

본능적이고불수의적인자생성을떠고신체적, 사회적유기체의법칙에종속된, 완전한영구성을부여받은, 그항목들이움직이지않는, 그총체에서불가항력적인, 그리고발달과성장을통해자신을완성하고실현하는피조물들로서우리가살고성장하고죽는한, 우리가일하고교환하고, 사랑등을하는한, 우리는숙명적존재다. 그안에서우리는숨쉬고움직이고살아간다 (in quo vivimus, movemur et sumus). 우리는동물, 식물, 돌들보다덜하지도더하지도않은자격으로그의실체, 그의영혼, 그의몸, 그의형체다.

그러나우리가관찰하고성찰하고배우고이에따라서행동하는한, 우리가자연을우리에게종속시키고우리자신의주인이되는한, 우리는진보적존재이며사람들이다. 생산하는자연 natura naturans 인신은사회의기초, 영원한실체다. 그리고생산되는자연 natura naturata 인사회는자기자신으로부터영속적으로방출되는숙명적존재다. 생리학은불완전하게라도유기적생명과관계적생명의잘알려진구분에서이이원성을나타낸다. 신은사회안에존재하기만하는것이아니다. 자연전체에있다. 그러나신이진보적존재와의대립에의해지각되는것은사회안에서일뿐이다. 그진화를통해원초적범신론을중단시키는것은사회이고, 인간이다. 그리고이는사회도인간도결코연구하지않으면서생리와물질안으로뛰어들고흡수되는박물학자가점차신성의감정을상실하는이유다. 그에게는모든것이신이다. 즉신은전혀없다.

본성상다른신과인간은그러므로그관념과행위에의해, 한마디로그언어에의해구분된다.

세계는신의의식이다. 신안에있는의식적관념이나사실들은인력, 운동, 생명, 수, 크기, 일체, 대립, 진행과정, 계열, 균형이다. 이모든관념들은영구적으로, 따라서계승, 예견, 오류없이의식되고만들어지는것이다. 신의언어, 그의관념들의표상은모든존재들, 그리고그들의현상들이다.

사람에게있는의식적관념이나사실은주의, 비교, 기억, 판단, 추론, 상상, 시간, 공간, 인과관계, 아름다움, 절정, 사랑과증오, 슬픔과즐거움이다. 이관념들을사람은특정한신호들로서, 언어, 산업, 농업, 학문과예술, 종교, 철학, 법률, 정부, 전쟁, 정복, 결혼식과장례식, 혁명, 진보로써바깥에산출한다.

신의관념들은자연처럼신에게서오는, 심지어는자연의의식일뿐인사람, 신의관념들을그의모든관념의원리와재료로삼으며자신의존재안에신적실체를변환하고, 끊임없이자기것으로만드는사람에게공통이다. 그러나사람의관념들은우리의진보를이해하지못하는신, 우리상상의모든산물이고물질이자무로보이는신에게는낯설다. 그런이유로사람은신의언어를자기자신의언어처럼말하는반면, 신은인간의언어를말할줄모른다. 그리고그들간에어떠한대화도, 어떠한협

<sup>2</sup> 1792년 9월 21일부터 1795년 10월 26일까지운영된프랑스정치체제.-역자주

정도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인류 안에서 신으로부터 오는, 신에게서 멈추거나 신에게 돌아가는 모든 것은 인간에게 적대적이고 인간의 발달과 완성에 해롭다.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말하자면 사람을 자기 품으로부터 내쫓는다. 그가 무한의 권능이며 그의 본질은 진보를 영구적으로 낳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가톨릭 신학은 “영원한 아버지는 그녀가 스스로를 똑같이 낳다고 여겨던 때에 아이를 낳는다 (Pater ab aevo se videns parem sibi gignit natum)”고 말한다. 신과 인간은 그러므로 서로에게 필요하며 둘 중 하나는 다른 하나가 동시에 사라지지 않으면 부정될 수 없다. 절대적이고 부동인 법칙이 없다면 진보는 무엇일까? 숙명이 바깥으로 펼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신의 활동이 갑자기 중단된다고 가정해보자. 창조 세계는 혼돈한 존재로 들어간다. 형태 없는 물질, 관념 없는 정신, 분간이 안가는 속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신은 움직임을 중단하고,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과 사람은 그들을 연결해주는 필연에도 불구하고 환원 불가능하다. 도덕가들이 경건한 욕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라고 부른 것,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신에 대한 전쟁, 성찰의 본능에 대한 전쟁, 준비하고 선택하고 때를 기다리는 이성의 맹렬하고 치명적인 격정에 대한 전쟁일 뿐인 것이 그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다. 신과 인간의 존재는 그들의 영원한 적대 의해 증명된다. 이것이야말로 숭배 행위들의 모순, 때로는 페드르가 비너스에게 자기 가슴에서 이폴리트의 사랑을 빼내도록 강요하듯,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 유혹에 넘겨주지 않도록 신에게 간청하고 때로는 다윗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러듯이, 우리가 여전히 성령의 미사들에서 그러듯이 신에게 지혜와 지성을 요구하는 숭배 행위들의 모순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으 대부분의 내전과 종교 전쟁, 관념들에 대해 행해 진 박해, 관습에 대한 열광, 학문에 대한 증오, 진보에 대한 공포 등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악들의 제 1 원인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결코 자기 자신과 모순된 입장에 있을 수 없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신의 저항에 의해서만 교란과 찢어짐을 느낀다. 사람에게는 자연의 모든 자생성, 숙명적 존재의 교사 敎唆, 우주의 모든 신들과 악마들이 한 데 모인다. 이 권능들을 종속시키고, 이 무정부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사람은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진보적 생각밖에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야말로 절정의 비극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반전 反轉이 총체적으로 모든 존재들의 지난 이유를 이룬다. 자연과 인간의 운명은 신의 형태 변화다. 그러나 신은 무진장이며 우리의 투쟁은 영원하다.

그러나 신 비성과 종교를 공언하는 것, 신을 들추어 내거나 신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 원시적 무지를 향해 퇴보하려고 애쓰는 모든 것, 육신의 만족과 격정의 숭배를 권장하는 모든 것이 소유권의 패거리이고 평등 과정의 의적임을 드러내려고 해서 놀라지 말자.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적들, 감각, 가슴, 상상력, 고집, 게으름, 의심이 인간에 맞서 음모를 꾸미는 전투의 전야에 있다. 그 기름부은 자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은 들췌거린다 (Astiterunt reges terrae adversus Christum)! ... 소유권의 원인은 왕조들과 교황권, 우민 정치와 궤변, 비생산자들과 기생자들의 원

이기를 감행하는 자는 즉시 배교와 이단에 빠질 것이며 이는 말하자면 플라톤도 영지주의자들도, 초대교부들도, 발도파도, 모어도, 캄파넬라도, 바뵈프도, 오언도, 생시몽도, 푸리에도, 그들의 계승자 카베씨도 자기들의 원리의 도움으로 사회를 설명할 힘이 없으며, 더구나 사회에 법칙을 제시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애, 사랑, 인력 등 동등한 힘을 가진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 모든 표현들 중에 어떻게 카베씨는 첫 번째 것을 선호했는가?

이는 설명할 만한 주제다.

## IV. 공동체는 그 목적을 시작으로 간주한다

공동체가 종교와 마찬가지로 노력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어떠한 제도도 확실하고 최종적이지 못하게 하는 논쟁 정신을 틀어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카베씨에게, 그가 인민의 손에서 국가의 고삐를 받았을 때, 모든 정당이 그의 부권적 독재 아래 융합될 때, 모든 젊은이가 의심하는 자, 질문하는 자, 논쟁하는 자가 되도록 배우는 이 혐오스러운 체제인 보편 교육 체제를 무자비하게 가차 없이 뒤집어 놓으라고 권고한다.

사람들은 카베씨가 왜 낭트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사회 원리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나의 원리, 이는 인력이다”, “나의 이론, 이는 인력이다”, 아니, “나의 체계, 이는 사랑이다” 등등. 한마디로 왜 그는 우애를 선택했는지 묻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카베씨를 놀라게 하려 한다고 그가 상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절충주의를 잘못 써서 “나의 체계, 이는 사랑, 인력, 본능, 우애 등 한꺼번에 모든 것이 로다” 하고 대답하지 않도록, 나는 1844년 11월의 「포필레르」에 실린 정의가 진정 초월적인 개념에서 나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공동체적 학문을 포함할 뿐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적 학문을 포함했으며, 카베씨가 “나의 원리, 나의 체계, 나의 학문, 이는 우애”라고 말한 것은 무한히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친애하는 빌가르델, 그대가 아주 잘 알아낸 것처럼, 신화 시대부터 공동체가 점차 인간 제도들에서 사라졌다면, 이 사실로 인해 공동체는 이를 플라톤에서 연구하든, 아니면 모어에서, 바실리아드에서 혹은 이카리아에서 이를 선호하든, 스스로 성립되고 보전될 수 없는 형태이며, 그것을 살리는 무언가를, 이를테면 어떤 원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 요소, 이 활력을 주는 효모는 카베씨에 따르면 우애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낳는가? 사회주의의 심오한 과학이나 나타나는 것은 이 지점이다.

내가 다양한 개혁 추진자들에게 저마다의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수단들에 관해 질문하면, 모든 이들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대답한다. 사회를 재생하고 노동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의 과학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과

그러니우애! 이것이야말로카베씨에따르면공산주의적가르침의근본이고모양이고실체다. 왜냐하면, 이를인정하는것이옳은데, 카베씨는생시몽과푸리에처럼학파의우두머리이기때문이다. 성바울로는그의교리에대해묻는불신앙의유대인들에게대답하면서공장한폰자로이렇게말했다. “나는한가지만아노라. 이는십자가에달린예수다.”카베씨는성바울로처럼말한다. 그는신참자들에게말한다. “나는한가지만아노라. 이는우애로다.”

나는이렇게카베씨에게는닷없는질문을던진시민들이그의대답에만족했다는지모르겠다. 하지만그들의질문은적어도아주합리적이었다고나는말할수있다. 그들은틀림없이친애하는빌가르델그대에게서배운대로“개인소유는모든사회에서다소제한된용도를가지며, 사용하고심지어남용할권리는대체가능한물건혹은완전히개인적인물건에관해용인될수있다”는것을느꼈다. 그러므로그들은공유의물건을고유한, 혹은인적인물건과분리하는구분선이무엇인지, 그리고이분리를어떻게진행해야할지를아주이치에맞게물은것같다. 왜냐하면그대가어디선가말하듯이“배타적소유의권리는그한계를지니며게다가개인들의자유를방해하지않고도, 아니, 최대다수의자유를보장하기위해서는사람들이일반적으로믿는것보다더좁을수있다”면, 소유의공동체역시한계를지니며이한계는최대다수의자유를방해함이없어도, 아니, 각자의자유를보장하기위해서마찬가지로 제약받을수있기때문이다. 그러면공동체, 그리고개인소유의한계는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카베씨에게의견을구하는이들이물은것이다.

그러나이것이바로또한카베씨가자기원칙을속이지않고, 자기깃발을버리지않고대답할수없었던것이다. 왜냐하면공동체가개인소유와뒤섞이거나그것에의해침투된다면, 소유권에의해제한된다면, 공동체가기를중단하기때문이다. 그리고사람들은어떤원리에의해이혼합혹은침투가행해질것인지, 어떤이론에따라비율이나분량을정할것인지를묻는다. 또한카베씨는궁금해하는자들에게이런불수리의이유를내밀어속깊은외교관임을드러냈다. 나의원리, 나의이론, 나의체계, 나의학문, 나의방법, 나의학설등, 이는우애다. 카베씨는이것말고아무것도말할것이없다. 그리고나는그가이를어떤눈썰미의위력으로, 어떤표현상의승리로단박에발견했는지경탄한다.

그런데, 수많은것들을포함하는이우애라는말을, 플라톤과함께그에못지않게말해주는것이많은공화국으로, 아니면푸리에와함께더많은것을말해주는인력으로, 아니면미슐레씨와함께모든것을포괄하는사랑과본능으로, 아니면다른이들과함께모든것을모으는연대성으로, 아니면끝으로루이블랑씨와함께신의전능함과동의어인국가의위대한창도력으로대체하라. 그러면이모든표현들이완벽히등치라서자기에게제기된문제에「포퓰레르」저높은데서“나의학문은우애다”라고대답하면서카베씨가사회주의전체를편들어말한것을알게될것이다.

우리는실제로모든사회주의유토피아들이예외없이카베씨의아주짧고아주절대적인, 그리고아주명시적인해명, “나의학문등등, 이는우애로다”하는것으로환원되는것을증명하게될것이다. 누구든거기에단한마디의주석이라도덧붙

인이다. 어떠한위선도, 어떠한유혹도이를옹호하는데아껴지지않을것이다. 인민을끌어들이기위해그들의빈곤에대해동정하는것에서시작할것이다. 인민에게서사랑과온유함을부추길것이다. 이는용기를느슨하게하고의지를시들게할수있는모든것이다. 철학적성찰과학문위로행복한본능을높여줄것이다. 그리고는그들에게민족적영광을설교할것이다. 그들의애국심을뜨겁게데울것이다. 그들에게그민족의위인들에대해말할것이다. 그리고여전히금지된이성의송배를착취자들의송배로, 귀족들의이상송배로조금씩대체할것이다.

왜냐하면인민은자연처럼그관념들을실현하기를좋아하기때문이다. 이론적문제들보다는사람들의문제를선호한다. 인민이페르디난트에게반기를든다면이는마차니엘로에게복종하기위한것이다. 인민에게는라파예트, 미라보, 나폴레옹, 반신半神같은자들이필요하다. 장군복장을입히지않는한대신의인사도받지않을것이다. 또한이상들에대한송배가얼마나번창하는지를보라! 사회를조직하고자하면서부엌하나도만들수없었던위인들인푸리에와선한이카리아인<sup>10</sup>에대해열광하는자들을보라. 민주주의자들, 위대함과공적이법정에서승소하는데있다고보며, 전날밤필리포스로부터금을받아챙기고방패를전쟁터에던지고달아날데모스테네스라는사람의목소리를듣고카이로네이아로달려가는아테네인들처럼언제나라인강유역을달려갈준비가되어있는이들을보라.

관념들, 원리들, 기정사실의분별에는아무도관심이없다. 우리는벌써고대의지혜를너무많이가지는것같다. 그민주주의는루소의민주주의다. 왕당파와정통왕조파는루이 14 세에대해꿈꾼다. 부르주아들은루이르그로 (루이 6 세) 에까지거슬러올라간다. 사제들은그레고리우스 7 세에서아름추어선다. 사회주의자들은예수에게까지거슬러올라간다. 이는가장멀리소급될사람이다. 이런보편적최약함중에공부는파편적노동처럼사람이무더져가는방식에불과하다. 비판은무미건조한소극笑劇으로전락했다. 모든철학은유효기간이지난다.

이한에만인용하자면, 이는바로우리가몇달전에인민의벗이라는한학자가역사와진보를가르치겠다고공언하며애가조와디오니소스찬가조의문장들의홍수를헤집고서다음과같은한심한판단만을사회문제에대해표명할줄알았던때에본것이다.

“공산주의에대해말한다면하마디로죽하다. 소유권이폐지될마지막나라, 이는바로프랑스다. 이학파의어떤사람이말했듯이소유권이라도독질이라도내일소유권을포기하지않을소유권자 2500 만명이여기있다.”

이비꼬는언사의작자는미슐레 (Michelet) 씨로서그는콜레주드프랑스의교수이고도덕및정치과학아카데미의회원이다. 그가빛대어말한어떤사람은바로나다. 미슐레씨는내가화를내는일없이도나를거명할수있었다. 소유권에대한정의는나의 것이며, 내야심이라고는내가그의미와이해된바를이해했다는것을중

<sup>10</sup> 영웅탐험가카베는이카리아섬에서어떤‘선한이카리아인’이독재자를타도한후공화국이수립되어있는것을발견했다.-역자주

명하는 것이다. 소유권, 이는 도둑질이다! 천년의 세월에 이와 같은 두마디가 말해 진바 없다. 나는 지상에서 이 소유권에 대한 정의 말고 다른 재산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정의를 로스차일드의 수백만 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히 말하건대 이 정의는 루이 필리프 정부의 가장 대단한 사건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누가 미슐레씨에게 소유권의 부정이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를 함의한다고 말해주었는가? 그는 프랑스가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소유권이 폐지될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왜 소유권자 2500 만명 대신에 3400 만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제도들을 고발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고발한다는 것을 그는 어디서 알았는가? 그리고 그가 프랑스를 소유하는 2500 만명의 소유권자들이 내일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덧붙여 말할 때, 누가 그에게 이를 위해 그들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할 권리를 주는가? 미슐레씨는 다섯 행으로 다섯 배는 더 무니없이 말하는 재능을 가졌다. 그는 의문의 여지 없이 내가 옛날에 소유권을 장차 옹호할 그 누구에 대해서 건행한 예언을 실현하는데 집착했다. 그러나 역사를 40 년 간 공부한 후에 알량한 학문이랍시고 19 세기에 본능에 의한 해방을 설교하게 된 사람에게 무엇이 대담해 줄 것인가? ... 다른 사람이 미슐레씨와 논쟁할 것이다. 나는 그를 연대기로 돌려보내는 바다.

공동생활의 특수한 장점들에 관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이 점에서 일반 여론인 것처럼 보인다.

행복 수준이 평등할 때, 노동, 교환, 소비가 완전한 독립 상태에서 행해진다 면, 그 조건은 최선으로 판단된다.

노동이 공동으로 수행되고 소비가 사적 소비로 남으면, 그 조건은 벌써 덜 좋지만 아직은 참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 인부들, 하위 공무원들의 조건이다.

노동, 살림, 수입과 지출의 모든 것이 공동이 된다면, 삶은 따분하고, 지치게 하고, 역겨운 것이 된다.

그러한 것이 반공주의적 편견으로, 어떠한 교육으로도 불식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교육에 의해, 이 교육이 어떻게 원리를 변경할 수 있을 지를 발견할 수 없으면서 강화된다. 끝으로 이는 소유권자들과 똑같이 공산주의자들도 세뇌된 것으로 보이는 편견이다. 이것 없이 그들의 주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면 그들이 서로 간에 자신들의 관념을 실현하는 것을 누가 막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이성을 공산주의 원칙에 복종시키기 위해 나는 한 가지 증거만을 요구한다. 두 가정,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이 완벽한 공동체 안에서 섞여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기 바란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공산주의는 아직 세계에서 그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인류는 술취한 사람 처럼 한 편에서는 소유권, 다른 한편에서는 공동체, 이 두 심연 사이에서 주저하고 비틀거린다. 문제는 인류가 좁은 길, 머리가 현기증에서 사로잡히고 고발은 힘이 빠지는 이 길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공산주의 작가들은 그 점에 무엇이 대담하는가?

### III. 공산주의 문제의 입장

카베씨의 어떤 제자들은 사회과학의 존재 혹은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는 하루는 그들의 스승에게 편지를 써서 공동체의 교리를 과학적으로 해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이카리아』라는 소설도, 태양의 도시나 팔랑스테르도 아무 과학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카베씨는 그들에게 「포퓰레르 Populaire」 1844년 11월호에서 대답했다.

“나의 원리는 우애요.

나의 이론은 우애요.

나의 체계는 우애요.

나의 과학은 우애라.”

카베씨는 다음으로 이 신도송에 주석을 달았다. 이는 감동적이었고 송고했다.

## 제 12 장 제 9 기 — 공동체

효과인 것처럼 타락하고야 만적인 성정性情의 효과일 수 있다. 나는 이 점에서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이유들을 발견하기를 기다리며 모든 추측들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그의 교육의 시기에, 그의 공민적이고 종교적인 무이행에서, 그리고 공적기능의 행사에서 반반공산주의적인 것으로 보아 온 사람이 공업, 상업, 농업에서는 완전히 소유권자가 된다. 그는 오로지 독점적인 방식으로 생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며, 공동체와는 드문 관계밖에 유지하지 않는다. 저항할 수 없는 본능 혹은 역사의 가장 뒤로 소급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매혹적 편견의 효과로 모든 일꾼은 사업에 착수하기를 갈망하며, 모든 동료는 숙련자가 되기를 원하며, 옛날에 모든 평민이 귀족이 되기를 꿈꾸었듯이 모든 날 품팔이 농민은 날마다 이어서 일하는 것을 꿈꾼다. 그리고 나를 놀라게 하는 만큼 당신의 성급함을 흥분시킬 것으로서 아무도 분할의 단점, 살림의 부담, 소산업의 불완전성, 고립의 위험을 모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 인성은 모든 고려사항들보다 더 강하다. 이기심은 복권추첨의 위험을 공동체의 구속보다 선호하며, 정치경제학 정리들을 우습게 여긴다.

요약하자면, 공동체는 우리를 근원에서 사로잡으며, 자연의 거대한 위력들에 견주어 우리에게 속명적으로 과해진다. 그 본질로 말한다면 공동체는 정의(定義)를 싫어한다. 그것은 평등과 같은 것이 아니다. 물질과 전혀 관계없으며, 자유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연합과 구별되고 이기심을 건드린다. 산업이 막태어나기 시작하고 노동이 그 첫 밑그림을 그려낼 때, 인성은 공동체와의 투쟁에 들어가며, 공동체는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 집문턱 위에서, 그리고 부부의 침대에서까지 벌써 불완전하고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중에 우리는 공동체가 자유주의적이고 활기찬 교육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끝으로 공동체는 임금을 받는 직업들에서 급속히 쇠퇴하고 자유노동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 모두는 우리 본성의 자생성에서 만큼이나 사물의 필연에서 결과적으로 나온다.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를 인정했다.

뒤누아에씨는 무한히 옳게 이렇게 외친다. “인간사회의 정신에서 모든 개성, 모든 집단적, 중간적 존재를 제거하고 그 안에 다른 모든 존재들이 필연적으로 잠기는 거대한 일반적 존재만 존속하게 두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그래도 옹호하겠다고 주장하는 자유를 이 폭력적인 집중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심지어 이 집중과 사람들이 획득하겠다고 마음먹는 진보와 통일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사회적 혹은 민족적인 거대한 단위의 해탈성되어야 할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자. 한 거대한 민족이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로 하나이기 위해서는 민족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또한 무엇보다 앞서 민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개인들로서, 가족들로서, 연합체들로서, 주민공동체들로서, 지방들로서 적극적으로 노련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이 이 다양한 측면들에서 가치를 획득했을수록 그들은 민족의 몸으로서 더욱 가치를 가진다.”

나는 사회주의에 이 말을 심사숙고하라고 권고한다. 이 말에는 모든 유토피아주의자들의 글보다 더 많은 철학과 더 많은 진정한 사회과학이 있다.

# 나의 벗 공산주의자 빌가르델<sup>1</sup>에게

친애하는 빌가르델에게,

그대의 지난 두 출판물이나왔을 적마다 받았으며 이에 대해 그대에게 감사한다.

나는 『이익들의 일치 Accord des intérêts』를 그대의 아주 예리한 정신, 그대의 생기고가벼운 생각, 언제나 회의적이고 빈정거리는 표현을 내게 갖추게 해 줄 매력을 느끼며 읽었다. 실제로 공산주의적인 글에서 작가의 상상력과 재능이 아니라면 무엇을 찾겠는가?

『사회이념사 Histoire des idées sociales』에서 내게 충격을 준 것은 〈현대 사회주의자들보다 앞서고 뛰어난 고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라는 부제목이다. 나는 거기서 순진함보다는 악의를 훨씬 적게 발견한다는 것을 실토한다. 우리의 주의를 위하야 아름답고 온건은, 부디 진보관념에 세워진 공중에 문명이 소유권의 기초 위에서 발달함에 따라 우리들 사이에 발명이 약화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붕 위에서 그밖에 참된 것, 즉 사회주의는 플라톤과 피타고라스로부터 퇴락하고 있다는 것을 외쳐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출판물 서두에 웬 독자에 대한 예고냐는 말인가! 친애하는 빌가르델, 그대는 팔랑스테르를 들락거렸다. 그리고 그대는 별로 약지 못하다!

하지만 나는 그대가 소유권과 반대 방향으로 구상된 모든 개혁 프로젝트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유토피아라는 이름을 아주 좋아한다. 사실상, 그리고 권리상 사회주의는 이성과 사회적 실천에 영구적으로 항의하면서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자유무역에 대한 이 질곡을 경제학자들은 시간을 가지고 이겨내길 희망하며, 이는 항상 재연되는 것인데 사회주의는 이를 결코 역행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를 위해 특정된 시간은 없다. 사회주의는 영구적인 연기의 형벌에 처해졌다. 친애하는 빌가르델, 나는 그대가 이다행스러운 발견을 한 것을 축하한다.

내 생각에 그대는 또한, 그리고 무한히 옳은 말인데, 공중은 사회주의의 모든 가지들을 공동체라는 고대의 줄기에 잡아맨다고 말한다. 그대 자신이 우선 생시몽의 유토피아를 조사하고, 나중에는 푸리에의 그것을 조사한 후 이 사람들이 선의가 아니라 나중도에 멈추어 선 것을 발견하고 공산주의자가 된 것은 그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시대에 개혁자들이 무엇에 대해 항해 일어섰나? 소유권에 대한 것이다. 그런 데 소유권의 부정은 공산주의다. 가장 가난한 이카리아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앙이 귀로 들어와서 fides ex auditu 지성은 피동적인 채로 있다. 교육은 최고도의 공동 교육이다. 이때 공산주의는 침묵으로 표현된다. 상급자, 상부의 사상기관이 말하고 신참자는 듣고 복종한다. 종교 기구의 완성은 대상자에게 일률적 교리를 주입하고, 이를 언제나 같은 용어, 같은 공식으로 제시하고, 우연히 그가 거기서 어떤 근심을 드러낸 경우 오로지 부동하게 예견된 결론에도 달하도록 그의 정신을 지도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로마 가톨릭 전통의 충실한 제자들이며, 모든 공동체, 모든 종교에 필수적인 규칙의 까다로운 준수자인 예수 회원들을 사람들이 아주 어리석음에 비난한 점은 공산주의적 규율의 이 정신이다.

우리의 학교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사범학교에까지 사람들은 학생들을 혼자서 일하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킨다. 때로 모두에게 동일한 작문을 제공하는 경우 각자가 그 작문을 따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취급하기를 요구하며, 젊은이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데에 집착한다. 그에게 학문의 공통적 근본을 가르치면서도 그가 그 학문을 익힐 것을 요구하며, 그의 발명 능력을 촉진한다. 말하자면 그에게 천재의 이기주의, 여러 견해들의 소유권을 갖도록 부추긴다. 그리고 그의 뜻 내기 학식이 독창적, 개인적, 반란적인 형태를 취할수록, 사람들은 그의 성공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낸 것을 자축한다. 부모들과 스승들은 그들의 선불금을 잃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학생의 괴상한 관념들이 아마도 언젠가 공동체를 뒤집어엎을 것을 알고 이 학생에 대해 그가 젊을 때의 지출들의 값을 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교육이 문학적, 학문적인 것에서 작업적인 것이 된다면, 젊은이들을 주도성과 발견의 능력을 지닌 독창적인 사람들로 만들려는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서 공산주의 원칙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 형제애로 결합된 노동자들 대신에 우리는 결국 애국심과 불굴의 성격을 지닌 국민만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이 명확하다. 나는 이 끔찍한 문제에 관해 공산주의 사상가들의 사색을 호소한다.

우리가 이 급한 조사를 진행해감에 따라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 종교, 산업, 군사, 교육 기관 등에서 다양한 비율로 소유권의 원칙과 공동체의 원칙을 혼합한 것을 본다. 그리고 이 모두는 자생적으로, 때로는 필요에 의해, 때로는 이기심에 의해 행해졌고 심지어 때로는 우연에 의해, 적어도 이렇다 할 의도 없이 행해졌다고 말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임금 수령자들은 그들의 서비스를 받는 공동체에게서 임금을 받으면서 그들이 서로 결합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을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자 따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주 값비싸고 비용이 많이드는 살림살이는 비생산자들이 선호한다. 그렇지 만 이들이 고정된 보수를 가지고서 그들의 지출을 합치는 것은, 그 수입이 아주 불안정하고 아주 불균등한 산업인들보다 더 쉬울 것이다. 아마도 언젠가 국가의 임금 수령자들은 그들의 소비를 중앙 집중화하는데 동의할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들이 모든 사람들처럼 공산주의 체제를 혐오한다는 것, 그들이 가족 생활을 모든 생활 중 가장 즐거운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는 존엄성과 고귀함의 감정의

<sup>1</sup> 프랑수아 빌가르델 (François Villegardelle, 1810~1856).-역자주

리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심각한 사실이며, 유토피아의 미래를 위한 심각한 걱정을 끼치는 사실이다!

인습적인 삶은 더 심오한 공산주의의 삶이었다. 거기서는 공동 침실, 구내식당, 기도, 노동, 모든 재물, 공동 취득 재산, 취득 재산이 공유였다. 사도행전의 흔히 인용되는 구절과 공동 수도 기관들의 일반적 정신에 따르면 완성의 극치는 온전한 초연함, 절대적 소유권 포기였다. 『사막교부들의 삶 *Vies des pères du désert*』에서 그들이 이 이상에도 달하기 위해 몰두하는 훈련들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모순 때문에, 공동체의 어떤 설립자들, 성파코미우스와 성안토니우스 같은 이들은 초연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형제들을 고립시키기에, 즉 공산주의 적 포기로부터 개체성이 재탄생하게 하기 에 이르렀다. 이는 이 처럼 훈련된 형제들에게 수도자 혹은 은자라는 이름을 부여 주게 한 것이다. 공동체는 이 기주의에 닿는다!

결혼은 모든 신분 중 공동체를 위해 가장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신분이다. 그러나 개별적 경우에 따라 공동 생활을 위한 결혼의 적합성은 본질 상성의 구별에 관련되어 조적의 완벽한 동일성은 체계에 덜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확증해 주는 것은 결혼으로 형성된 종류의 공동체,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는 공동체가 본질 상 모든 낯선 사람에게 배타적이라서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아울러 부부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좀처럼 부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속담으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 이 처럼 공동체는 일정 크기에서 만 적용 가능할 것이다. 사회의 형성 원리 이기는 커녕 사회에서 부차적 역할 밖에 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러한 것이 결혼 이론과 실무의 증언이다. 입법자는 이 관념에 따라서 결혼 계약들에서 부부 재산제와 공동 재산제를 구별했고, 후자에서 공산주의의 다양한 정도를 또한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면 공산주의 원칙의 적용 수단은 무엇인가? 이야말로 아는 것이 필요 불가결 하면서도 아무도 아직 말할 줄 몰랐던 것이다.

끝으로 결혼은 공동체와 연합을 구분할 기회를 제공해, 두 배우자가 가슴과 머리에서는 완전히 결합한 상태 이면서 재산에서는 분리되고 주거와 살림에서는 공산주의이고, 이에 더해 상거래에서는 연합을 이룰 수도 록 했다. 이 모두가 다소간 정기적인가 아니면 남용적인가 하는 것은 이 순간에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 생활이 그 극단들인 소유권과 공동체 사이에서 어떻게 진자 운동을 하며 소문에 따른다면 정치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로부터 도 멀리 떨어진 제 3 항을 찾는지를 잘 아는 것이다.

양성 兩性을 위한 교육 기관들에서, 식사, 일과 시간과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공동이다. 그러나 우리가 벌써 관찰할 기회를 가졌던 모든 것보다 더 중대한 것으로서, 노동은 개인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적 이 아니라면 교육은 무효 일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수도원들에서 독서, 즉 교육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안다.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단 한 권의 책으로, 단 한 사람의 낭독자로 충분했다. 계시의 체계에서는

은 사람 처럼 이 결과에도 달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현실적 신앙 고백은 완전히 추론의 숙명성에 의존한다.

그러니 왜 당신은, 소유권에 아주 소리 높여 항의하는 내가 당신의 모범을 모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째서 계가 장결연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대인들보다 뒤떨어진, 현대 사회주의자들 중에 가장 뒤떨어진 자의 입장에 있는가? 소유권을 허무는 것, 이는 아름답고 고상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어떤 형이상학인지 내가 모르는 것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배척하는 것, 그보다 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6 년 전부터 나는 이에 대한 선언을 지속하고 있다. 당황하고 불신하는 사회주의에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하나?

친애하는 빌 가르델, 그대가 공산주의에 대한 나의 비연대를 높이 인정한 것에 감사한다. 그에 대한 내 변명은 내가 당신의 저작들에서 그 모든 요소들을 발견하는 만큼 더욱 쉬워질 것이다. 그대는 이렇게 말한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지속적 방식으로 쇠퇴하며, 그것이 유토피아, 즉 무이기 때문에 쇠퇴한다고. 사회가 와서, 자기 내면의 관념들을 단언하고 실현함에 따라, 그리고 경험 안에서 자리 잡음에 따라 사회주의는 달아난다. 입법자가 의법칙들을 발견하고 인류의 순수 본질이 발현함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와 정치 경제학이 차례로 확인했고 우리가, 그대와 내가 그중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부터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다. 친애하는 빌 가르델, 하지만 단지가 설에 따라서이고, 내가 소유권을 부정하는 한에서 그렇다. 소유권을 쳐 부수었으니, 공산주의가 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공산주의가 소유권처럼 계속적인 쇠퇴 중에 있음을, 그것이 유토피아 적임을, 즉 아무 것과도 같지 않음을, 그것이 재생하기를 시도 할 때 마다 소유권의 흉내로 해 소 된다는 것을 발견하며 나는 나 자신과의 견을 일치시키기 위해, 경험에서 처럼 이성에도 충실하기 위해 지금까지 소유권에 반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공동체에 반대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 사회주의자들 중 가장 뒤떨어진 자의 입장이라면, 이는 내가 유토피아에서 벗어나는 반면 그들은 거기 머물기 때문이다.

이 이중의 부정 은 오류에서, 혹은 억지에서 오는 것인가? 친애하는 빌 가르델, 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사회의 본성 자체라고 굳게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대가 나와 함께 사회주의적 신탁의 절정으로부터 사물의 실천적 고찰로 내려가길 원치 않는다면 이에 대해 당신을 설득하는데 절망하지 않는다. 그대는 다만 내가 그대에게 내 이유들을 설명할 때 주장하는 것이 내 견해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라. 내가 설명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고, 내가 정당화하는 것은 당신의 명분이고, 내가 당신의 신앙 고백과 화해시키는 것은 당신의 암시와 당신의 비방이다. 우리는 두 거짓 말 위에 살고 있다! ... 사람들이 모순적이라고 고발하는 것이 나라는 것은 이상하다! 내가 우리의 본성의 이 모순을 증명하는 일로 인생을 보내는데 말이다.

## I. 공동체는정치경제학에서생긴다

공산주의유토피아에대해나를지켜준첫번째것, 그러나이유토피아에대해다 소비난을받는추종자들이의심하지않는것, 이는공동체가사회주의가그와맞서 싸우는것을사명으로삼는, 그리고내가소유권자의일상관행의묘사라고정의한 정치경제학, 이자칭과학이라는것의범주들중하나라는것이다. 소유권이독점을 제공한것인것처럼, 공동체는국가的高揚, 경찰에게영광을돌리는것말고 다른것이아니다. 그리고국가독점에대한반작용으로제 5 기에등장한것처럼, 똑같이우리가달한국면에공산주의는소유권을저지하기위해나타난다.

하지만공산주의는역의구도에서정치경제학의모든모순을재생한다. 그비밀은생산, 교환, 소비, 교육, 가족의사회적기능들각각에서개인을집단적인간으로 대체하는데있다. 그리고이새로운문화가아무것도화해시키지못하고, 여전히아무것도풀지못하므로이는선행자들과마찬가지로숙명적으로사악함과빈곤에도달한다.

이처럼사회주의의운명은완전히부정적이다. 공산주의유토피아는국가의경제적여건에서나와이기주의적이고소유권자적인일상관행의반증이다! 이점에서참으로이는틀림없이일정한쓸모가있다. 아무것도아닌것의무언가에대한대립이철학에쓸모있는것처럼이는사회과학에쓸모있다. 사회주의는무의미한말의나열이다. 나는경제학자들이이를감지하지못한것에놀란다. 공동체는전쟁, 조세, 세관, 은행처럼정치경제학의분야에속한다. 공동체는노동분업, 집단적 힘, 일반적비용, 주식회사와합자회사, 저축금고와보험금고, 유통은행과신용은행등등의이론들의근본에있다. 공동체는한마디로공간처럼어디에나있다. 그리고아무것도아니다.

플라톤의아틀란티스에서부터카베의이카리아에까지모든사회적유토피아들은그들의의미에서추궁을받는데, 하나의이율배반을다른이율배반으로대체하는것으로환원된다. 모든유토피아들에서발명성에관한공적은영이다. 과장된이야기는거기서미미한부속물일뿐이다. 그리고저자들에게서당신이 지적한유토피아적능력의퇴화에관해말하자면, 퇴화는오로지경험이그들에게부과하는, 그리고그만큼그들쪽의배교에해당하는교정사항들에서나온다. 게다가이작가들은, 나는그들의의도를오해하지않으려고하는데, 그들은모두가경제학자들, 인류가고통스럽게산업을기어올라그곳에서변신해야하는반면그산을다시내려가는독창성을띠는변장한소유권자들인경제학자들의따분한표절자들이다.

그리고내가공산주의자가될것은이때문이다! 그러나이는불가능한것을피하기위해기괴한것에뛰어드는셈일것이며, 로올라를두려워한나머지칼리오스트로를꺼안은셈일것이다.

## II. 고유한것과공통인것의정의

어떤사람이공산주의에지대한공헌을했다면, 이는분명 1840 년에『소유란 무엇인가』라는제목으로출간된책의저자다. 누구보다도소유권에대한적으로 서나는공산주의조직의가능성에관해의견을표명할권리를가진다. 그러므로사실들과용어들에합의하고순서에따라진행하자.

친애하는빌가르델, 사회의가장미묘한문제들에내가형이상학의까다로운형태들을끊임없이끌어들이는것은마지못해하는것이다. 그리고몰리에르의어떤인물을상기시키는데무겁고스콜라적인발걸음은그대만큼이나내게도우스워보인다. 하지만뭐어떤가! 당신의과단성있는지성은가장빠른관념들을재빨리포착하는반면, 나는불행히도가장굵은이해력의소유자다. 직관과자생성은나에게없다. 즉흥성은내게전무하며, 내정신은추론의목발없이한걸음도내딛을수없다.

태양, 공기그리고바다는공유다. 이물건들의향유는가능한공산주의의가장 높은정도를제시한다. 아무도거기에표지석을세울수도, 분할할수도, 경계선을정할수도없다. 거리의엄청남, 꿰뚫어볼수없는깊이, 영속적인불안정성이겨우 그것들을전유의대상에서빼낼수있었다. 우리를분열과전쟁으로밀고가는이본능의힘은그와같이아주크다! 그러므로이첫번의관찰, 과학에는소중한것이관찰로부터, 소유권은규정되는모든것이공통체는규정되지않는모든것이라는결과가나온다! ... 그후에공산주의의출발점은어떤것일수있는가?

인류의거대한토목건조물들은자연의위력의이경제적성격에참여한다. 도로, 공공광장, 교회, 박물관, 도서관등은공유다. 그것들의건축비용은비록이비용의배분이동등한것과는거리가멀어각자가자기재산에정확히반비례해기여함에도불구하고공유가되었다. 이에따라특기할소중한것으로서사람들은평등과공동체가같은것이아니라는점을안다! ... 어떤경제학자들은심지어공익시설물이더활발한, 그들에따르던더부지런하고덜비싼민간산업에의해경영되어야하리라고주장한다. 그럼에도이점에서사람들이동의하지는않는다. 그런물건의사용에관해서는이는변함없이공유로있다. 이런종류의것들이전유되어야한다는생각은누구에게도들지않았다.

군인들은수프를공동으로먹는다. 그들은빵과고기를배급받으며, 무기장비를별도로받아서각자가이에관한책임을진다. 영창과내무반, 훈련과작전들역시그들에게공통이다. 그들중누군가가자기가족수당, 그것을팔아넘긴브로커의전도금을받는다면, 그는결코이를그의동료들에게알릴의무는없다. 군인생활은충분히명백한공산주의의성격을띠어서여기저기서전유의어떤면모들이섞인다. 100 명이사는식당에서손님들이서로접촉하지만그립된채로있는것은이래서이다. 이로부터나는또다른이원리를도출한다. 물질에만관련되는공동체는공동체가아니라는것이다. 공산주의를이려면나를둘러싼것으로부터정신적으로분

피에르조제프프루동  
경제적모순들의체계혹은빈곤의철학제 2 권  
1846 년

kr.theanarchistlibrary.org

더잘파악하기위해덜일반화하기를선호한뒤레에따르면, 빈곤은부부의보상이다. 빛이생겨라 fiat lux! 더숨씨좋은자들이이를설명할수있으면해보라고하라. 나로말한다면, 내확신은저자자신도자기말을이해하지못했다는것이다.

빈곤계층의원인, 이는생산물의부족, 즉빈핍이라는것. 이는슈발리에씨의견해다. 빈곤계층의원인, 이는너무많은소비, 즉역시빈핍이라는것. 이는멜서스의견해다. 나는저자들로부터이명제말고다른것을결코꺼내지않으면서분문들을무한히배증할수있을것이다. 귀란의첫구절, “신은신이다”와쌍벽을이룰만한명제다. 빈곤은빈곤이다. 악은악이다. 빈곤은종교처럼반철학적이고비합리적인무엇인가라는것, 이는허깨비이고, 신화라는것이참이아닌가?

그결론은이런전제들을지닐만하다. 생산을늘리고, 소비를억제하고, 아이를덜낳는것, 한마디로빈자가아니라부자인것, 이것이야말로빈곤과싸우기위해이를가장잘연구한자들이우리에게말할줄아는모든것이고, 이것이야말로정치경제학의헤라클레스의기둥들이다!

하지만, 숭고한경제학자들이여, 당신들은인구를증가시키지않으면서부를증대하는것은일손의수를증가시키면서입의수를감소시키고싶어하는것처럼터무니없는것임을망각한다. 생각하지않는다면우리는더이상상식도가지지못할것이니부디생각을좀해보자. 가족은사회경제학의심장, 소유권의필수적대상, 질서를구성하는요소, 노동자가자신의모든야망, 자신의모든노력을끌고가는지고의선이아닌가? 그것없이노동자가사기꾼과도둑이기를더좋아해서노동하기를중단할그런것이아닌가? 반대로그것과더불어노동자가당신들의경찰이라는명예를감수하고, 당신들의세금을납부하고, 입을봉하고, 빼앗아가도록놔두고, 독점을통해산채로겹질을벗기도록놔두고, 독점의사슬위에서체념해잠들고, 인생의 3 분의 2 의시간동안영원하기때문에인내력을가진다고사람들이말하는창조주와유사하게자기인격에서질러지는불의를더이상감지하지못하는것이다. 가족이없다면, 사회는없고, 노동도없다. 프롤레타리아트의소유권에대한이영웅적종속대신에사나운짐승들의전쟁이있는것이다. 그러한것이경제적조건에따르면우리의첫번째입장이다. 그리고당신이이순간에그필연성을발견하지못할것이라면, 내가당신을독점, 신용, 소유권의이론들로돌려보내는것을허락해달라.

지금가족의목적은자녀출산이아닌가? 이자녀출산은사람의생명발달의필연적결과가아닌가? 이는획득된, 말하자면젊음, 노동그리고후생에의해그의신체기관들에축적된힘에비례하지않는가? 그러므로인구를배증하는것은생존수단배증의불가피한결과다. 그러므로끝으로생존수단의상대적비율은, 무익한입을제거함으로써증가하기는커녕, 내가곧입증하기를희망하는것처럼, 그러한제거가지고의대상물이고노동의필수불가결조건인가족의파괴에의해서밖에행해질수없다면, 불가항력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떨것이다.

이처럼생산과인구는서로에대해결과와원인이된다. 사회는동시에, 그리고같은원리에힘입어, 부와사람들수에서발달한다. 이관계를변경할필요가있다고

말하는 것은, 피제수와 제수가 언제나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조작에서 마치 당신이 그 몫을 두 배로 하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젊은 이들이 사랑을하기를 그만두라는 것, 프롤레타리아는 50 세가 되어서야 결혼을 하든가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가족은 하나의 특권이라는 것인가? 이 경우 당신의 소유권들을 수호하기 위해 효과적 수단을 취하라. 당신의 병정들의 수를 두 배로 늘려라. 창녀들의 수를 늘려라. 성매매 보조금을 창설하라. 일부다처제, 창녀와의 결합, 게다가 심지어 남색, 편견이 비난하는, 그러나 과학은 그 불임성을 고려해 받아들여야 할 모든 종류의 사랑을 추진하라. 왜냐하면 가족이 있으면부의 진보를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빈곤의 진보를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두 항목은 해소될 수 없는 결혼의 끈으로서 연결된다. 이것들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에는 모순이 있다.

이처럼 빈곤은 신비적이고 필연적인 것, 우리가 그 존재도 부재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선처럼 약도 우주의 원리들 중 하나다. 우리는 바로 마니교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끝으로 사회 안에서 악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빈곤의 공식은 어떤 것인가?

멜서스는 공신력 있는 문서 더미에 의존해서, 첫째로 인구가 예를 들어 생존수단의 부족 같은 아무런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다면, 25 년마다, 심지어 18 년마다 두 배로 쉽게 늘어날 수 있을 것임을 증명했다.

세는 이 기간을 더 단축시킨다. 그는 인구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26 년마다 세 배로 늘어 나리라는 것을 발견했다.

로시씨는 이 우아한 공식에서 같은 생각을 표현한다. “하나가 돌을 낳고 새로 태어난 이들이 각각 먼저의 단위와 같은 생산력을 가진다면, 둘이 넷을 낳을 것이고, 넷은 여덟을 낳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그러므로, 추상적으로 말해서 멜서스는 반박이 불가능한 원리를 제시했다.”

이제부터는 의심할 것 없는 첫 번째 사실과 별개로, 멜서스는 그에 못지 않게 확실한 다른 원리를 제시한다. 인구가 기하급수에 따라 2, 4, 8, 16, 32... 등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띠는 반면에, 생존수단의 생산은 단지 산술급수에 따라 1, 2, 3, 4, 5, 6... 등으로 증가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론, 모든 나라에서 인구의 일부는 끊임없이 빵이 없어서 죽는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다.

멜서스는 이 두 번째 명제가 즉시 입증되는 것으로 나타나려면 발표되는 것으로 족하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그 증명은 생략했지만, 나는 생존수단의 1, 2, 3, 4... 의 산술급수가 어떻게 인구의 2, 4, 8, 16, 32, 64... 의 기하급수의 보조정리인지를 보여주면서 그의 침묵을 보충하려고 한다.

사람의 생식은 무엇에 관련되는가? 씨의 배출, 남자가 허락하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 그에게서 어떤 노력도 요하지 않는 배출이지만, 정반대 그의 생명의 지고의 선, 그의 노동의 목적, 그의 운명의 필요인 것이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기 생존수단을 마련할 능력이 있게 될 날까지 이 씨앗을 배태, 수유, 급양 등의 비용으로 10 년, 15 년, 20 년, 심지어는 25 년 동안 그의 부모가 소비하는 것의 12, 15, 20,

구간에서갑자기미지의광채로상승했다는것, 그리스도교처럼노동이그를재생케해야한다는것을기억해야한다. 자본가는은과금이진정한가치물들일뿐이며, 교환의진실성에의해모든산물이같은존엄성을갖도록상승해생산자마다자기집에조폐국을가질것이며, 생산적자본의허구가일꾼에대한악탈을행한것처럼조직된노동은자본을다시흡수하리라하는것에유념해야한다. 소유권자는그가사회의지대를징수하는자일뿐이며, 그가옛날에전쟁의도움으로토지에대한금지령을둘수있었다면, 프롤레타리아는이번에조합에의해수확물에대한금지령을두고소유권의시효를만료시킬수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 군왕과그의거만한수행원, 그의군사, 그의재판관들, 그의자문관들, 그의중신들과비생산자들의모든군대는노무자와산업인에게‘자비를베푸소서!’하고서둘러외칠일이다. 노동의조직은권력의종속과동의어이며, 비생산자를궁핍에방치하고권력을수치와굶주림가운데사멸하게하는것은노동자하기에달린일이기때문이다.

이모든일이이기치못한, 기대하지않은새로운사건, 인민의걱정이나어떤사람들의노련함에서나오는결과가아니라사회가순간적으로방치되었던태도의관습으로자생적으로돌아감에따라서도래할것이다. 그방치의원인은...

인류는그진자운동을하는행진에서끊임없이자기자신에게로돌아온다. 인류의진보는그전통이다시젊어지는것일뿐이다. 그체계들은외관상아주대립되지만언제나다른여러측면들에서본같은기초를제시한다. 문명의운동에서진리는언제나동일하고언제나옛것이고언제나새롭다. 종교, 철학, 과학은드러나기만한다. 그리고이는바로인간이성의섭리와무오성을구성하는것이다. 진보의품자체안에서우리존재의불변성을보장하는것이고, 사회를그본질에서변질이불가능하게만드는동시에그혁명에서저항이불가능하게만드는것이다. 그리고전망을계속확장해언제나멀리에마지막해결을보여주면서우리의신비로운예감의권위를세워주는것이다.

인류의이싸움에관해성찰할때나는본의아니게그리스도교의상징체계에서전투적교회를마지막날에승리하는교회가계승해야한다는것을떠올린다. 그리고사회적모순들의체계는나에게망각의강위에놓인마술의다리처럼나타난다.

심지어 50 퍼센트의비용이들것이다. 그런데같은부부가자녀를넷, 여섯, 열또는열둘을낳는다고한다면, 수학적명증성을가지고서, 그리고엄청난통계를작성할필요도없이, 여행자들의이야기를참조하고연대기들을찾아볼필요도없이이부부의후생은그것들을확채율이유자체에의해 12, 15, 20, 30, 50, 심지어 80 퍼센트가감소할것이다.

그리고자녀들각각은학교를졸업하고수습생으로보내지자마자그의아버지가했던것을자기생각을가지고행할입장이되므로, 그의모든욕구와그의모든희망은그들이런모방을하도록몰고가므로, 절제는그에게서노동할마음을빼앗고그가질서와절약의정신을잃게하는것말고다른결과를가지지않을것이므로, 결과적으로사람들의출산이이긴다. 여전히뒤쳐진상태로있는부의생산을끊임없이이긴다. 그리고생식에의한인류의발달의위력, 그리고노동에의한인류발달의위력은서로간에다음의급수들과같다.

2, 4, 8, 16, 32, 64, 128, 256...

2, 3, 4, 5, 6, 7, 8, 9...

내가반복해서말하는데, 맬서스는이두급수를구분했다. 적어도내게는그가그연대성과동일성을명확히이해한것으로여겨지지않으며, 이부분에대해서는그의이론을위해보충하는것이유익하다. 게다가사실들, 즉천가지끔찍한형태, 보기무서운모습들 *terribiles visu formoe* 로발현되는인간의빈곤, 기근, 전쟁, 전염병, 질병, 방탕등은매일맬서스가엄청난학식을가지고서증명한것과같이이법칙의정확성을확증해준다. 수수께끼, 허구혹은환각이그러한에너지를가지고서표현되고그렇게저항할수없는사실들의위력을가지고서입증되는것을본적이있는가?

그러므로사회의질서에서는자연의질서에서처럼빈곤이숙명적이다. 그로부터자신을지키고싶은것은로그의법칙이우리편한대로달라지기를바라는것이고, 산술이진리이기를중단하기를바라는것이다. 두급수가서로필연적관계로연결되며근본적으로동일한관념을표현하고동일한사실을드러내고처음부터자리잡은동일한영원한법칙, ‘성장하고배가하라’는것을드러내므로우리가자연이움직이도록 놔둔다면, 자녀의과잉생산에의해우리가빈곤에빠진다는것, 우리가자연에서저항하거나환상적인보충조치로써자연을속인다면, 우선우리가가장절박한운명에서빠져나오게되고, 곧가족을, 그리고이와함께노동을증오하게되며, 약폐들의역의계열로빠지게된다는것이불가피하다.

이것이야말로그가장명확하고가장보호한, 가장결정적이고가장절망하게하는표현에서정치경제학의최종산화이고소유권의왕관이고노동과가족의우화다. 인류는자신의생기를주는능력들의행사에의해소진되고멸망한다. 그의자살에끝이있을수있다면, 인류는존재하기를그치게될것이다.

그러므로경제이론이경험을멀찍이서따라가면서빈곤이라는말을발설했을때, 이는우리발달의내적법칙, 우리존재의본질, 우리생명의형태를표현한것이다. 인구의급속한증가, 생존수단의더늦은증가는같은관념, 유일무이한현상의

두측면이다. 이는천체들의운동을주관하는모든법칙들처럼확실한법칙, 따라서대수방정식처럼불굴이고무자비한법칙의신비로운공식이다. 이런관점에서불쌍한사람의불평과박애주의자의임시방편은우리에게얼마나유치하고찌찌해보이겠는가! 숙명은우리를살게하며, 우리를쓸어간다. 그것이우리에게주는즐거움에대해대가를지불받는다. 우리가외치고탄식할것이무엇인가? 그리고자신들의관념들의연결성을파악할능력이없어어떤때에는우리에게자녀를더많이낳으라고말하고어떤때에는덜낳으라고권고하는이경제학자들이우리에게원하는것은무엇인가? 마치인간생식의이두형태가서로회복할수없이엮이지않았으며, 우리의사전대비에의한빈곤때문에자연의경솔함으로부터우리에게닥치는빈곤을대체하는데에이익이있다는듯이말이다!

하지만, 의심할바없이멜서스의이중법칙에대해아무대답할것이없을것이라고사람들은내게말할것이다. 그리고인구와부에서의인간발달의이불평등이나무랄데없는확실성을지닌것이라면, 그것이참된관념에적절한것처럼완전하고최종적인관념의성격을띤다면, 이법칙이한마디로명백한모순이아니라면, 우리는어떠한불평도제기하지않을것이며, 경제적숙명의판결을침묵속에서찬양할것이다. 그런데멜서스의원리는명백히모든이율배반들의경우에속한다. 그리고당신자신의원리들에따르면, 무오류라고여겨지는, 반대되는것들의이이론에따르면, 인구와생산에서의진보의적대관계는오로지균형의원리가존재한다는것, 그리고이원리를발견하는것이과학이할일이라는것을증명한다.

뭐라고! 동물들중에오직사람이가장영광스러운특출함덕에노동자로창조되었을것이다. 섭리는인간에게땅을소유하고가족들로조직을이루라고명령했을것이다. 행복은그에게는노동과사랑의이중기능의행사에놓였을것이다. 그의기력을끊임없이증대하고, 자신의산업적다산성을발달시키고, 자신의모든동정심을도약하게하는일이그에게말겨진것은이때문이다. 그리고이웅장한약속을실현할때가찾아올때결코거짓말하지않는섭리는갑자기망측한기만으로탈바꿈할것이다! 행복을맛보기위해인류는사투르누스처럼자기자녀들을잡아먹어야할것이다! 사랑은너무빨리가며, 노동은너무느리다! 사회유기체는아주잘못규율되고아주잘못구상되어사람은자기살과피의끊임없는손실을통해서만자신을지탱할수있을것이다! 사람은재생산하기를삼가는편을선호하지않는한에서는살아가기위해멸망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는언제나파멸과빈곤인것이다! 죽음은인구와생존수단사이에서균형을재확립하고사랑의업적들을노동의업적들의크기에종속시키고합리적피조물들의수를가치들의비례성에종속시킬책임을맡은정치경제학의가장위대한벼슬일것인가? 그러므로자연이, 섭리가우리의의도대로토지의다산성을증대시키면서동시에우리종의다산성을제한하고, 우리의유익한때에행해진생식능력을제어해이무시무시한박멸을멈추는것을누가막는가?

그러나공리주의적유물론자는당신에게이렇게대답한다. 사람과짐승을사로잡는, 당신에게항거하는이죽음의법칙은창조자, 파괴자, 복구자인힌두의브라

의노예제를폐지하고, 기계들의등장의위기를예방하고, 경쟁을이득으로만들고, 독점을모두를위한안전보장의담보로만들고, 자원의원리의잠재력에의해자본에신용을요구하고국가에보호를요구하는대신노동에자본과국가를종속시키고, 교환의성실성에의해여러인민들간에진정한연대성을창조하고, 개인적창도성을금지하지않고, 가내의절약을금지않고전유가사회에서빠들린부를끊임없이다시가져다주고, 자본의일출입운동에의해시민들의정치적, 산업적평등을보장하고, 공교육의방대한체계에의해항상수준을높여가면서기능들의평등과적성들의등가성을마련해주고, 정의, 복리, 그리고덕성에의해인간양심을갱신하면서여러세대의조화와균형을보장해주는사회, 한마디로일거에조직과이행이면서임시적인것을피하고모든것을보장하며, 아무것도저당잡히지않는사회여야한다.

상호성혹은소비대차 mutuum, 즉현물교환의이론은그가장단순한형태가소비대출로서집단적존재의관점에서는소유권과공동체라는두관념의중합이다. 이는사회가여러발명들과체계의미로를가로질러그원초적관습으로돌아가는것, A는A와같다는근본명제에대한6000년의명상의결과라고다른것이아니니이를구성하는요소들만큼오래된중합이다.

모든것이오늘날이엄숙한복원을위해준비중이다. 모든것이허구의왕국이지나갔다고, 사회는그본성의진실성으로다시들어갈것이라고예고한다. 독점은세상에맛먹을정도까지부풀었다. 그런데세상을포괄하는독점은배타적인것으로남아있을수없다. 그것은공화제가되거나아니면터지는것이불가피하다. 위선, 매수가능성, 성매매, 절도가공공양심의기초를이룬다. 그런데인류가자신을죽이는것으로살아가기를배우지않으려면정의와속죄가다가온다고믿을필요가있다.

벌써사회주의는그것의유토피아들이버티지못한다는것을감지하고실물과사실에매달린다. 사회주의는파리에서자기자신에대해웃는다. 베를린, 쾰른, 라이프치히, 브레슬라우에서논쟁을벌이고영국에서생명의전율을한다. 대양저쪽에서천둥소리를낸다. 폴란드에서죽임을당하고베른과로잔에서정부진출을시도한다. 사회주의는대중에파고들어완전히다른것이되었다. 인민은여러학파의명예를별로걱정하지않는다. 노동, 과학, 행복, 평등을요구한다. 무언가가그안에있다는조건에서는체계는인민에게별로중요하지않다. 그런데인민이무언가를원할때는, 그리고인민에게그것을어떻게획득할수있을지를아는것말고중요한것이없을때는그발견은결코시간을끌지않는다. 거대한가장행렬이내려오는것을불준비를하라.

사제는마지막으로죄는빈곤이며, 진정하덕, 우리가영원한생명에합당하게해주는덕은종교와신에맞서투쟁하는것이라는정신을가져야한다. 철학자는자신의고집, 철학의눈썹 supercilium philosophicum 을내려놓고자진해서이성은사회이며, 철학을한다는것은자기손으로작품을만드는것임을배워야한다. 예술가는그가옛날에올림포스산에서그리스도의마구간으로내려왔으며, 이마

섭리가 공정성을 아는가, 아니면 숙명이 박애주의자인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결코 독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다. 독점체로 하여금 모두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남겨줄 재화들을 생산하게 하는 것은 독점의 모순이 불가피하게 만드는 종합에 의해서다. 이해결책 말고는 섭리는 우리의 눈물에도 냉담한 채로 있다. 숙명은 확고하게 제 길을 간다.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앉아서의와 불의에 관해 토론하는 반면, 우리를 생각에서 신처럼 모순되게, 우리의 언설에서도 순되고 우리의 행위에서도 모순되게 만들어 준 신은 우리에게 웃음을 터뜨림으로 대답한다.

노동으로 자신을 실현하면서, 그리고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사회에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모든 것을 그것이 있어야 할 것과는 역방향으로도 래하게 만들고 사회에 용단을 뒤집은 모습 혹은 동물의 위로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관념들의 이본질적 모순이다. 사람은 노동 분업을 통해, 그리고 기계를 통해 점차 학문과 자유로 올라가야 했다. 그리고 분업과 자유를 통해 사람은 무더지고 노예가 된다. 조세는 재산에 비례해야 한다고 이론이 말한다. 그리고 정반대로 조세는 빈곤에 비례한다. 비생산자는 복종해야 하는데, 쓰라린 능력에 의해 비생산자가 명령한다. 신용은 그 이름의 어원에 따르면, 그리고 그 이론적 정의에 따르면 노동의 제공자다. 실제로는 그것은 노동을 쥐어짜고 죽인다. 소유권은 그것의 가장 아름다운 특권의 정신에서도 지의 확장이며, 바로 이 특권의 행사에서 소유권은 토지의 금지다. 그 모든 범주들에서 정치경제학은 종교적 개념의 모순을 재생산한다. 사람의 생명은 동물성과 자연의 영속적인 해방이고 신에 대한 투쟁이라고 철학이 단언한다. 종교적 실천에서 생명은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투쟁이고, 상위의 존재에 대한 사회의 절대적 종속이다. “신을 네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영생을 위해 네 영혼을 미워하라”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한다. 이성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의 정반대다.

나는 이 요약을 더 이상 써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 길의 끝에 이르러 내 관념들이 아주 많이,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밀려들어 벌써 내가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하려 면 새책이 내게 필요할 정도이고, 언설의 예법에도 불구하고 나는 갑자기 중단하는 것 말고 다른 끝맺을 수단을 알지 못할 정도다.

내가 틀리지 않는다면 독자는 적어도 한 가지를 확신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진리가 유토피아에서도 일상 관행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정치경제학은 사회의 과학이 결코 아니며 창조 이전의 혼돈이 우주의 요소들을 담았던 것처럼 과학의 재료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구상의 우리 인류의 운명인 것으로 보이는 확정적 조직에도 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모순의 일반적 방정식을 만드는 것 말고 남은 일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정식의 공식은 어떤 것일까?

벌써 우리에게 이를 간파하는 것이 허락된다. 이는 교환법칙, 상호성 이론, 우리민사적이고 상업적인 회사들의 옛 형태들을 결정해주는 체계로서 비판이 지닌 효능, 진보, 정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보증들의 체계, 더 이상 그저 통념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재적인 사회로서, 파편적 분업을 학문의 수단으로 바꾸고, 기계를

만, 시바, 비슈누의 삼위일체에 의해 형성된 자연의 위대한 진화, 과학에 의해 공신력을 가지고서 인정되는 진화, 영구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이원론에서 직접 나와서 더 이상 바람을 가지지 않는 진화 말고 무엇인가? 당신의 희망은 그러므로 근거가 없다. 여기서 이 율배반은 해결책 없는 채로 남는다. 창조 세계는 생명에 먹이로 생명에게 던져지고, 끊임없이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광대한 전쟁터다. 식물계는 무기체 왕국 위에 심어져 이를 흡수하고 싹 틔우며 동화시키며, 순서에 따라 동물계의 생존 수단을 공급한다. 동물계의 무수한 종들은 서로에 의해, 그리고 인간에 의해 끊임없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곧 땅을 헐 벗게 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 위에 아무 것도, 천사도, 그를 잡아먹는 악마도 가지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다. 식인 풍습은 자연법칙의 강제 이행 수단이다. 그리고 섭리가 독점과 국가를 세우고, 소유권을 보장하고, 강자가 약자를 위험도 없고 후회도 없이 소비하게 허락하는 위계적 질서 예 인간들을 종속시킨 것은 그 성취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모든 것은 무한의 생존 수단에서 나와 그리로 다시 들어간다. 살아있는 존재들의 배출이 행해지는 행위는 생식이다. 조직이 끌어들이는 요소들이 공동의 저장고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는 죽음이다. 왜 이 법칙에 대해 수군대는가? 우리의 권리 주장이 확장될 수 있다면 모두를 위해 재산 있는 노년층의 장점을 확보한 후에 우리는 또한 영구적인 생명과 개화 開花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노쇠로 인해 사멸하는 것은 실제로 빈곤으로 인해 사멸하는 것과 똑같이 불쾌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불멸성은 무한히 증식할 능력과 함께 터무니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노령의 경계에까지 가는 평균적 수명 연장은 조금도 연기될 수 없는 걱정의 연기를 요구할 것이므로 우리의 체제와 양립 불가능하고, 우리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섭리가 대량 학살에 바친 불쌍한 자들의 피는 사회적 전축물의 시멘트이고 그 톱니바퀴 위로 인간 메커니즘을 굴러가게 하는 기름이다. 희생자들의 이마에 꽃과 띠로 관을 씌워 주라. 그들의 희생에, 그들의 죽음에 갈채를 보내라. 그들이 죽으면서 당신의 경탄과 당신의 찬사의 정당한 공물을 가져가도록 하라. 하지만 그들을 제단으로부터 대속하려고 하지 말라. 그들이 당신을 위해 죽기에 지쳤다면, 그들을 위해 죽어야 할 것은 당신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섭리는 당신을 살해하는 대신 기회가 닿으면 생식적 열정을 중단시키고, 고삐를 채울 수 있지 않은가? ... 경솔하다. 누가 노동자의 거세를 요구하는가! 그의 몸과 그의 영혼에서 활동과 천재성의 근원 자체를 고갈시킨 후 당신은 거기서 무슨 산물을 끌어낼 것인가? 당신은 곧 노동자의 의기소침 때문에 더 강한 생산의 이익을 상실할 것이며, 빈곤의 강도를 약화시키지 않고 당신은 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그 스승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은 강하고 일반적이다. 그리고 걱정이 약화되어 가면, 그것이 부족할 개연성이 있다. 그것이 초래하는 해악은 일반성과 이기력의 필연적 결과다. 땅을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창조주의 목적이었다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믿도록 한다. 그러나 이 목적은 인구를 생존 수단보다 더 급속히 증가하게 함으로써 만달성될 수 있는 것 같

다. 그리고우리가인식한증가법칙은사람들을지구표면에너무급속히퍼지게하지않았으니, 그법칙이그대상에어울리지않게만들어졌던것이아님은충분히명백하다. 인구가급속히, 과도하게성장하는경향이그강도를중대시키지않는다면 생존수단의필요는충분히절박하지않을것이고, 인간능력에충분한발달을제공하지않을것이다.”<sup>1</sup>

나는독자의정신에이런다양한고려사항들이어떤효과를날것인지몰른다. 나로서는정치경제학의관점에서, 그리고우리가도달한끝에서, 한편으로우리목을조르는소유권을가지고, 다른편으로우리를질식시키는공동체를가지고서, 대답할것을절대아무것도알지못한다고선언한다. 사실들은환상을가지는것이허락되기에는너무큰소리로말한다. 빈곤은존재한다. 즉생존수단은부족하다. 그리고먹여살릴입은너무많다. 이는이해할수없는것이지만결국사실이다. 우리가덧붙여온것은그주석에불과하다.

그러므로이와같이무한의존재는창조를진행하면서막다른골목에들어간처지가되었다. 그리고우리진보적이고앞날을예측하는존재가그의무능의형벌을받는다. 필연은우연없이될수없었다. 질서는무질서에의해보전된다. 유기적존재들은무기체세계처럼운동의영구성을누리지못한다. 그리고영구적행복의관념에모순이없음에도불구하고자연의설명할수없는취약성때문에이영구성은불가능하다. 우리의기쁨은눈물을먹고산다. 우리의행복의보증수단은빈곤이다. 이대비가이성을위해일치의필요성을내포한다는것을사람들은부인하지않는다. 그러나일치, 선과악이상위의사실로해소되는이조건을어디서발견할것인가? 어떻게이를상상할것인가? 그리고고생하느냐즐기느냐, 존재냐비존재냐의이이원론을넘어우리는무엇을상상할수있는가? 행복과고통은아我和비아非我和마찬가지로, 정신과물질과마찬가지로세계의두극으로서, 그것을넘어서는더이상중합이없고, 관념이없다. 그것들없이세계자체가없으니말이다. 이러하다면, 우리운명의비밀을더찾으려고해야할것이무엇인가? 노동이무슨소용이며, 우리의희망은어떤것일수있는가? 우리의운명은빈곤이다. 우리의노동은빈곤이다. 우리의희망은빈곤이다. 사회주의는그과제의반박에채우지못했다. 빈곤의원인들로서돈, 경쟁, 독점, 결혼, 가족, 소유권, 자유와정의를폐지한후이공동체의위선에서멈추는대신그것은또한노동을금지하고절망을설파해야했다. 사회주의는자살을그최종교리로삼는다. 왜냐하면산업, 학문, 예술에서언제나발전하는것이인류의법칙이라면진로중에내딛는발걸음마다자기피로도장을찍는것은사람에게필연이기도하기때문이다. 그가점점더쓰라린죽음을맞는것, 죽음이그의감정의섬세함, 그의애정의생생함, 그의작업들의다산성, 그의열심의깊이, 그의쾌락의기쁨을속죄하게하도록하는것은필연이다. 생명만큼많은형태를취해사람의심장, 감각기관들, 이성을공략하고그사람을백만번제거하는죽음말이다. 죽음! 이것이야말로우리의궁극의이유이며, 이야말로세계의신이다!

<sup>1</sup> 맬서스, p.472. édition de Guillaumin.

것이고내물레방아를돌릴것이고, 내들판에서수확할것이고, 내포도밭에서수확할것이지만 4 분의 1, 3 분의 1, 혹은절반을나누어가질것이다.

이모든사술은필연적이고풀수가없다. 저밑에뱀도악마도없다. 이는사물의법칙자체이며상식의명령 dictamen 이다. 상거래에서약취掠取는교환과동일하다. 그리고정말로놀랄일은, 약탈과같은체제가당사자들의선의에의해서용서가될뿐아니라정의에의해명령된다는것이다.

어느사람이자기이웃숫장수에게서숫한자루를사고, 식품점에서에트나산황을일정량구입한다. 그는약재상이판초석을일정비율넣어혼합물을만든다. 이모든것에서폭약이나오고그 100 파운드는성채하나를망가뜨리는데충분할것이다. 그런데, 나는묻는다. 목재를숯으로만든나무꾼, 황을모은시칠리아의목동, 운송을행한선원, 마르세유로부터재발송을한중개인, 그것을판상인, 이들은그재앙의공모자들인가? 그들간에폭약의활용에서만이아니라내가말하는것이제조에서도조금의연대성이라도존재하는가?

그런데각자자기도모르게폭약의생산에협조한다양한개인들간에조금의행위의연관성도발견하는것이불가능하다면, 같은이유로판매의이익에관해서그들간에연관성과연대성은더구나존재하지않는다는것, 그사용에서나올수있는이익은또한전적으로그발명자에게속한다는것, 범죄나과실에따라받아야하는것이될수있을것을그에게사적인것이라는점이명확하다. 소유권은책임과동일하다. 동시에소유권에동의하지않고는책임을언명할수없다.

그러나이성이사리에어긋남을찬양하라! 합당하고그기원에서흠잡을데없는바로이소유권은그행사에서명백한악을이룬다. 그리고그것도거기에이를변경시키는어떠한요소가담하지않고그원리의전개에의해서만그렇게된다.

공업과농업이시장에가져오는산물들을총체적으로고찰해보자. 폭약, 비누같은산물들은모두어느정도든일반적창고에서꺼낸재료들로조합한결과물이다. 이산물들의가격은변함없이우선여러범주의노동자들에게지불된임금, 둘째로기업가와자본가들이요구한이윤들로구성된다. 그래서사회는두계급의사람들로나누어져있다. (1) 모든소비물품에대한독점권을가지는기업가, 자본가, 그리고소유권자들, (2) 이물건들을사는데그값어치의반밖에낼수없는임금수령자들이나노동자들, 이는그들에게소비, 유통, 재생산을불가능하게하는것이다.

애덤스미스가우리에게이렇게말해도소용없다.

“단순한공정성은민족의몸전체를입히고먹이고속박시키는자들이그들자신의노동에서스스로가관창게먹고입고거주하기에충분한몫을가질것을요구한다.”

독점자들의소유를박탈하지않고이것이어떻게이루어질수있을까? 그리고독점이산업적능력의자유로운행사의필연적결과인경우어떻게이를막겠는가? 애덤스미스가수립하고자했던정의는소유권체제에서실행불가능하다. 그런데정의가실행불가능하다면, 그것이심지어불의가된다면, 그리고이모순이사물의본성에밀접하다면여전히공정성과인간성에대해말하는것이무슨소용인가.

하므로 존재한다.”나는 사회의 부정이고, 노동자의 약탈이고, 비생산자의 권리가  
고, 가장 강한 자의 이성이며 아무도 내가 그를 잡아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 무서운 수수께끼는 가장 명민한 지성들을 절망케 했다.

“토지의 전유와 자본의 축적이 전에 노동의 전체 생산물은 일꾼에게 속했다. 그  
가 같이 나누어야 할 소유권자도 주인도 없었다. 이상태가 계속되었다면 노동임  
금은 분업이 일으키는 생산적 잠재력의 모든 증가와 함께 증가했을 것이다. 극히  
적은 노동량으로 생산된 것들은 항상 더 적은 양으로 취득되었을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의 논평자는 이렇게 덧붙인다.

“나는 이자, 이윤 또는 임대료의 이름으로 다른 개인들의 산물을 차지할 권리가  
탐욕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한 가 한 사람의 필요를 더  
해주기 위해 노동의 보수를 줄이면서 산업을 성장시키거나 사회의 부의 진보를 가속  
화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다.”

스미스도, 그의 논평자도 알아채지 못한 이 공제의 이유를 우리는 인간 사회를 다  
스리는 준엄한 법칙이 새로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되도록 다시 말해 줄 것이다.

노동을 분업화하는 것, 이는 부속품들만 생산하는 것이다. 가치가 있으려면 조  
립이 필요하다. 소유권제도 이전에 각자는 대양에서 그의 음식에 넣을 소금을 채취  
하는 물을 퍼내고, 기름을 짠 올리브를 짜고, 철과 금을 함유하는 광석을 모으는 주인  
이다. 각자는 또한 그가 수확했을 것의 일부를 타인이 만든 물자의 등가량과 교환할  
자유가 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노동의 신성한 권리와 토지의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내인적 노동에 의해서든, 교환에 의해서든 자연의 모든 산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면, 그리고 이렇게 취득된 소유가 완전히 합법적이라면, 나는  
비슷하게 내가 노동과 교환을 통해 조달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새로운 산물을  
조립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내 소유권이고 나는 다른 사람 모두에 배타적으로 이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나는 예를 들어 내가 소다를 추출할 소금을 통해, 그리고 내가  
올리브와 함께에서 짜는 기름을 가지고 내의를 세탁하는 데 적합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내게는 청결과 위생의 관점에서 소중한 쓸모를 지닌다. 나는 심지어 이  
화합물의 비밀을 간직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교환을 통해 정당한 이윤을 뽑을 수 있  
다.

그런데 비누 1 온스의 제조와 100 만 킬로그램의 제조 간에 권리의 관계에서 어  
떤 차이가 있는가? 크고 작은 양이 그 일의 도덕성에 무언가를 달라지게 하는가? 그  
러므로 소유권은 상거처럼, 노동처럼 자연권으로서 세상의 아무 것도 내게서 그  
행사 권리를 빼앗지 못한다.

그러나 그 물건을 구성하는 재료들과 똑같이 내 배타적 소유권인 산물을 내가 조  
립한다는 것 자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한 작업장, 사람들의 활용이나에 의해서 조  
직되고, 나와 같이 업무 관계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손해가 되면서 이익이 내 손에 축  
적되고, 당신이 내 사업에서 나를 대체하기를 갈망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지대를 규정하게 된다. 당신은 내 비밀을 소유할 것이고, 나 대신 제작할

사람의 최후는 짐승과 같다 (Finis est hominis sicut jument). 그런데 우리가  
무에서 빼내어진 것이므로 지축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우주에게 그로부터 빠져  
나올 필요성은 어디 있었는가? 창조, 생명, 필연, 섭리, 신과 인간, 모두가 부조리  
하다.

이게 무슨 정신 착란인가!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교인 경제학자들은 다시 일어  
선다. 웬 불경한 발광인가! 그들은 말한다. 그렇다. 사람의 최후는 짐승들의 최후  
와 같으며, 맬서스의 법칙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칙은 현생애만 포  
괄한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결코 이승이 아니다. 우리를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선과 악을 불균등하게 배분하고 개인처럼 종족에게 닥치는 우리 운명의 이불완  
전성은 궁극적 생명의 실험, 준비, 전주곡 말고 다른 것이 아니며 다른 것일 수 없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으며, 우리 내장의 밑바닥에 행복의 욕구와 함께 불명성에 대  
한 예감을 놓아둔 자의 말을 보충으로 삼는다. 마지막 숨을 내쉬 후 영혼의 영속성, 더  
나은 세계에서 의부활, 이야말로 자연의 보완물이고 생명의 목적이고 섭리의 정당  
하다.

내가 그에 관해 무언가를 보도록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단지 내 이성에서  
것을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위로가 되는 유토피아를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받  
아들일 것이며, 열정을 가지고 이를 포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주 바깥에, 피조  
물계열의 바깥에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그 일부가 되는 저주의 세계가 무한과  
같다면, 당신은 내가 이 기쁨의 세계를 어디에 위치시키기를 바라는가? 시간 바깥  
의 시간, 공간 바깥의 공간, 필연 바깥의 이성을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슬픔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고 자극하지 않는 선은 어떻게 상상하는가? 자아와 비아의 절대적 분리,  
물질과 정신의 분리를 내포하는, 내 오성의 모든 원리를 질식시키는 불멸성을 어떻  
게 형상으로 떠올리는가? 영혼 불멸의 가설은 확실성의 기초를 뒤집는다. 끝으로,  
내가 그 일부가 되는 분해된 창조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저한, 신적 무능의 증거는 어  
떻게 내게 불가능한 존재에 기초를 둔 분간이 안 되는 혁신의 담보가 될 것인가?

기하급수에 따른 인구 증가, 산술급수에 따른 생존수단의 증가, 이 정리는 대수  
학의 모든 정리들과 마찬가지로 증명된다. 한마디로 정치경제학은 인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섭리에 유죄 판결을 내렸고, 필연의 오류를 입증했고, 자연에 낙인  
을 찍었다. 이야말로 내 이성이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 내 감각들이 내게 보  
고, 만지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내 고통을 누그러뜨리려고 내게 말하려  
하는 모든 것은 그 고통을 더 아프게 만드는데 소용될 뿐이다. 그리고 내 비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상된 모든 이유들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소생한다. 아니면 정치경  
제학은 중상모략을 한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를 확인하는가? 숫자의 법칙이 정  
치경제학을 정당화할 때 어디서 이를 반증할 논리들을 찾는가? 사실들이 정치경  
제의 편일 때 이를 거짓이라고 반박하는 증거들은 어디 있나? ... 아니면 자연, 필연,  
신 그리고 인간은 무의 꿈들일 뿐이다. 우주는 한편의 악몽이다. 이 밤에 얼마나 황당  
한 논리이며, 이 죽음에 웬 철학인가!

그렇지만나는최종분석을시도할것이다. 체형을선고받은죄인처럼내판결문의낭독을즐기기위해서일뿐일지라도말이다. 나는마치내가더발견할수있는듯이, 마치과학의금언들, 백세기의증언에호소하는것이가능한법정이있는듯이, 내부에서나를사로잡는, 외부에서나를짓밟개는사실을구한다. 모든희망에역행하는희망안에서 (In spem contra spem)! 불행한자여, 절망에군게맞서라. 정치경제학은나를하도많이속여서나는그것에이불신의증거를보여주어야만할의무가있다. 그말에신비가있다. 그리고내가다시시도하는데는정치경제학이이를들먹이는것으로충분하다. 정치경제학은죽음이그것을도와주러오는것아닐까? 그런데죽음이이보조자를뺀앗긴채단한걸음만후퇴한다면, 죽음이이후퇴하는행진으로정치경제학보다내가우위에서게해줄지누가아는가?

정치경제학은우리에게이렇게말한다. “나는여러분모두에게빵을줄수없소. 왜냐하면여러분은내가여러분시중을들수있는것보다더빠르게오기때문이오. 이는소집을받은자들은많지만뺨힌자들은별로없는이유요!”

너무많은그의젓먹이들에대해핑계를대기전에정치경제학은자기가의무를이행했음을증명할필요가있다. 우리는일찌감치죽음에바쳐진다. 정치경제학은우리의형집행을준비하고, 청원하고, 가속화한것아닐까? 정치경제학의실책을완화해주는데소용이되는이빈곤은부분적으로그것의작품아닐까? 범죄가쓸모있는자가범죄를저지른다 (Is fecit cui prodest)! 정치경제학은우리를사멸시키는데관심을가진다. 정치경제학은거짓말을했다.

## II. 빈곤은정치경제학의소행이다

나는아직빈곤이무엇인지전혀모른다. 하지만나는한가지는확신한다. 그것이생산보다앞시대에오며, 노동의적박성이이를허가하기전에우리를덮친다는것이다. 이사실은멜서스가이야기한사실들중어느것이나마찬가지로증명된것으로서내가작가의이론에들이대기를원하는유일한사실이다. 이는내가이이론을완전히뒤엎기에충분할것이다.

나는우선인류의존재에서두주요시기를구분한다. 야만상태는본질적으로정태적인시대로서사람이노동을몰라서토양의자연산물로, 그리고동물들의날고기로만살아가는시대다. 그리고문명은본질적으로진보적인시대로서사람은근면해지고, 재료를변형시키면서자기산물로생존한다.

앞선시기에빈곤, 즉보급품의고갈과일차필요물품의부족은그사람의게으름, 그의여러능력들의일반적무기력을직접적이고즉각적인원인으로한다. 생산적노동을통해무기력에서나온이빈곤을완전히제거하는것은아니라도적어도연기하는것이가능했으므로, 사람이자연력을취해자연력이줄수있는모든것을내놓도록하기오래전에빈곤이생겨났으므로, 그러한빈곤이너무이른시기에생겨

그러면왜스미스가변질되지않는초연함에서역겹다고공언하기를마다할수없었던이새로운악이있는가? 그렇게괘씸한불의가아직도필요했던것일까, 그리고사람들을차별하지않는다면속명은오류를저지른것이고성리는실패한것일까? 우리는독점에서인류의이편파적경찰을정당화할수단을발견할것인가?

우리가사회적감성주의위로올라가서위에서사실들, 사물의힘, 문명의내밀한법칙을고찰하기원한다면, 왜아니겠는가?

노동이란무엇인가? 특권이란무엇인가?

노동은창조적활동의유비물로서관념, 법칙이그것을깨뜨리지못하는한, 자기자신을의식하지못하면서, 불확정적이고, 열매맺지못하는것이지만가치가만들어지는도가니이고문명의위대한모태이며, 사회의피동적축은여성적원리다. 자유의지에서유래하는특권은개인화를결정하는전기스파크, 실현하는자유, 명령하는권위, 숙고하는두뇌, 지배하는자아다.

노동과특권의관계는그러므로암컷과수컷의관계, 신부와신랑의관계다. 모든민족에게서여성의간통은언제나남성의그것보다더비난받아야할것으로여겨졌다. 그것은결과적으로더엄격한형벌의처분에놓였다. 여러형태들의잔혹성에만신경쓰면서그원리를망각하고여성에대해행사되는야만행위만을보는자들은『렐리아』 의저자의이야기들에등장할만한소설의정객들이다. 일꾼들의모든규율위반은여성이지지르는간통과유사하다. 그렇다면법정측에서일꾼의불평과주인의불평을같은호의로받아들인다면, 인류가그바깥에서는살수없는위계적끈이끊어질것이며사회의모든경제가멸망할것임이명백하지않은가?

게다가사실의거해판단해보라. 일꾼들의파업모습과기업가들의담합행진을비교해보라. 거기에정당한권리의불신, 선동, 소요가있으며, 바깥으로는외침과떨림이, 안으로는공포, 복종의정신과평화의갈망이었다. 반대로여기서계산된결의, 힘의감정, 성공의확실성, 실행에서의냉혈성이었다. 그러므로당신들생각에잠재력은어디있는가? 유기적원리는어디에? 생명은어디에? 의심할바없이사회는모두에게지원과보호를해줄의무가있다. 나는여기서인류의역압자들의소원을제기하지않는다. 하늘의복수가그들을짓밟개기를바란다! 그러나프롤레타리아의교육이완수될필요가있다. 프롤레타리아는노동과덕에의해불멸에도달하는헤라클레스다. 그러나헤라클레스는에우리스테우스의학대없이무엇을할것인가?

여러민족들의의파괴자 로마앞에까지와서진을쳤을때, 교황성례오 1 세는아틸라에게물었다. “그대는누구인가?” 그야만인은이렇게대답했다. “나는신의채찍이오.” 교황은말을잇는다. “신에게서우리에게오는모든것을우리는감사함으로받아들이노라. 하지만그대는그대에게명해지지않은것은행하기를삼가라!”

소유권자들이여, 당신들은누구인가?

이상한일은소유권이자비, 정의, 사회경제의이름으로사방에서공격을받으면서도자기의정당화를위해이런말로밖에대답할줄몰랐다는것이다. “나는존재

에 2 드니에가오른다면, 직물한필의가격을단지직물을제조하는인부들의수에 그들의노동일수를곱하고 2 드니에를곱한만큼만을필필요가있을것이다. 그상품에가해질일손의다른정도를각각에서임금으로해소되는그가격의부분은단지이임금상승의산술적비율로만올것이다. 그러나이일꾼들을고용하는모든상이한주인들의이윤이 5 퍼센트상승하면이윤으로해소되는가격의부분은수공의상이한등급각각에서이이윤을상승의누진비율로, 혹은기하급수로상승할것이다. 삼빛질공의주인은그의아마를팔면서재료와그가인부들에게선지급한임금의총가액에 5 퍼센트의추가를요구할것이다. 실장은여공들의주인은여공들의임금총액에대해서처럼그가선지급한빛질된삼의가격에대해서도 5 퍼센트의추가이윤을요구할것이다. 결국직조공들의주인은그의직조공들의임금에대해서처럼삼실에대해그가선지급한값에대해서도 5 퍼센트를요구할것이다.”

이야말로주피터 — 소유권자에서시작해서노예에서끝나는경제적위계의생생한묘사다. 노동, 노동의분업, 주인과임금노동자의구별, 자본의독점에서지주, 금융가, 기업가, 부르주아, 마이스터, 작업반장의카스트가생겨나지대를소비하고, 고리대를거두고노동자를압박하고무엇보다도착취와빈곤의가장무서운형태인경찰력을행사하는일을한다. 정치와법의발명은오로지소유권의작품이다. 누마와에게리아, 타르퀴니우스와타나퀼은나폴레옹과샤를마뉴와똑같이귀족들이었다. “자기백성들에게두려움의대상인군주들, 이나라들에서다스리는것은주피터다 (Regum timendorum in proprios greges, reges in ipsos imperium est Jovis)”라고호라티우스가말했다. 가난한영혼을괴롭히러지옥의모든구석에서달려온지옥의영들의군단을사람들이말할것이다. 그영혼을사슬로끌고잡과먹을것을빼앗아라. 때려라. 불태워라. 불로달군집게로잡어라. 봐주는것없다. 동정하는것없다! 왜냐하면노동자를봐주면, 우리가노동자를정당히대우해주면, 우리에게는남은것이없을것이고우리는사멸할것이다.

오, 맙소사! 그대가그를간수들에게방치해그들이그를아주흠씬두들겨패우고, 먹을것은노랑이의손으로주게할만한무슨범죄를이불행한자가저질렀는가? 그리고당신들, 소유권자들은섭리에게선택받은막대기들로서규정된한도를넘지말라. 그대들의중의가슴에분노가치밀어오르고그의눈이붉게충혈되어있다.

노동자들의반란은무자비한주인들에게서양보를얻어낸다. 행복의날, 환희만세! 노동은자유다. 그러나무슨자유인가, 이런! 프롤레타리아에게자유는노동하거나, 죽어버앗기거나, 아니면노동하지않을, 즉굶어죽을능력이다. 자유는힘에만이의이된다. 경쟁을통해자본은어디서나노동을짓누르며산업을독점체들의방대한담합으로전환한다. 두번째로노동하는평민은귀족에게무릎을꿇는다. 자기임금에대해논할가능성도, 권리조차도없다.

신탁은이렇게말한다. “주인들은어디서나그리고언제나무언의동맹, 그러나항상적이고일률적인동맹을이루어임금을기준을이상으로올리지않는다. 이규칙을범하는것은배신행위다. 그리고역겨운입법으로이동맹은용인되는반면일꾼들의결탁은가혹하게처벌받는다.”

났다는것, 합당한시간에앞서생겨났다는것, 따라서그것이비정상이라는것이명확하다. 그리고야만상태에서사람의무기력은영원하니또한시기적으로앞섬에도, 그리고이에의해빈곤의비정상성에도영속성이있다.

이야말로우리가정치경제학을야만민족들을죽이고급감시키는빈곤의원인이라고고발하는경우에그것이자기를방어하기위해아주옳게말할내용이다. 정치경제학은이렇게대답할것이다. 조금더뒤에가서그의노력의에너지와지성에도불구하고빈곤이문명인을다시사로잡는것이가능하다고. 그러나인간이빈곤을멀리하기위해그에게달려있는모든것을행하지않은한, 그의노동으로써그가, 말하자면섭리에게독촉하지않았을한에서는그사람은학문을비난하고불평을발설할권리를지니지않는다고. 그는자기자신의소위인불행을겪으며, 이불행에대해자연과섭리는그에게항의한다. 한세기가못되어미국의유럽인들은이광대한대륙의원주민모두가수천년동안거두어둔인부와행복보다더많은것을창출했다. 그리고미국의새로운인구가 25 년마다두배로늘고또두배로늘기를계속하면서이인구는그의경이로운활동을통해홍인종들의야만상태가이전에창출한비참한자들보다더많은행복한자들을만들어냈다고말할수있다. 아메리카가숨긴부와행복의보물들은물론인간이이를취한수고의값어치가있었다. 그리고 30 세기동안인간이절제했다면이에대해책임질것은정치경제학도섭리도아니다.

그러므로인간의빈곤에는불의없이자연에미룰수없고여러세대들의신속함에도불구하고오직인간의무기력에서유래하는몹이있다.

현재문명인을사로잡는빈곤이또한야만인의빈곤과마찬가지로필연적으로, 그리고언제나때이른것이아닌지, 그것이그정당한시간에앞서생겨난것이맞지않는지, 그리고그것이노동의부재가아니라노동의조직적해악을유일한원인으로한다는것이맞는말이아닌지를아는것이중요하다. 이경우에문명인도야만인과마찬가지일것이다. 그의빈곤은오직그에게만속할것이다. 그는그자신이필요한일을하지않았고그의근면으로써그를구제할필요를독촉하지않은한에서자연을비난할수없을것이다. 왜냐하면야만인의빈곤이온전히그의능력들을통합에의존하는것처럼문명인의빈곤은질서의결여를유일한원인으로하는것이맞다면, 완벽한조직적상태에서는인간의분별력이다른어떤방식으로개입해어떠한인위적조치든지동원해서균형을재확립할필요없이, 빈곤이다시금일정시간연기될뿐아니라인구와생산사이에수준을재확립할구체적힘이존재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인류가이사설을입증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를사람들은느낀다. 그러한가설이진실이된다면빈곤은인간의무기력에서유래하는것이든, 산업조직의해악을원인으로하는것이든, 무한히피해지게될것이며, 우리운명의문제, 세계운명의문제는완전히다른면에서등장하게될것이다.

그런데, 이중요한입증을우리는그부제목‘빈곤의철학’이충분히정신을환기시키는이저작물에서행했다.

노동은부의원리이고가치들을창조하고측정하고비율을만들어주는힘이라고우리는말했다. 측정하고비율을만들어주는것, 이는또한분배하는것이다. 그러므로노동은모든혈벗음을겪을위험에대해사람을보장해주어야할것으로보이는다산성과동시에균형의잠재력을지닌다.

그러나효과를나타내려면노동은정해지고규정될, 즉조직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우리가여러번언급한것처럼관념들에는분별가능성과발현의하나의조건만있는것처럼, 사물들에는효능과지속성의하나의조건만있기때문인데, 이는규정이된다는조건이다. 노동이규정되지않는한, 그조직이마지막손길을받지못한, 이는모호하고척박한힘이며, 분간이안가는관념이다.

그러므로노동의기관器官들은어떤것들인가? 다른말로하면인간노동이가치를생산하고구성하며빈곤을추방하는형태들은어떤것들인가? 왜냐하면, 오늘날노동과빈곤은질서와무질서처럼, 정의와약탈처럼, 존재와무처럼서로반대된다는것이충분히명백하기때문이다.

그런데이런노동의형태들과범주들을우리는열거했고, 그에대해비판했다. 이는노동분업, 기계, 경쟁, 독점, 국가혹은중앙집중, 자유무역, 신용, 소유권과공동체다. 노동이자신안에부를창조할수단들을소유한다면, 이수단들은그것들에고유한적대성때문에그만큼의새로운빈곤의원인들이될가능성을가진다는것이우리의분석결과로나왔다. 그리고정치경제학이이적대성의언명말고다른것이아니므로, 바로이에의해정치경제학은극빈층의존재공정과조직이라는것이사실로드러난다. 그러므로노동이어떻게원시적빈곤을추방할것인가를아는것은더이상문제가아니다. 그것은오래전에사라졌다. 문제는우리가어떻게노동의고유한폐단에서, 혹은더저대로말해서노동의잘못된조직에서, 정치경제학에서나오는극빈층을제거할것인가다.

산업진화의첫순간에여러산업의분업혹은분리가나타난다. 토지는텅비고모호한상태를중단한다. 노동자들로부터이것은전유에의해비옥해진다. 노동은분업을통해초자연적다산성을획득한다. 그러나동시에이분업이행해지는방식으로인해노동이일꾼을무더지게만들면서노동은급속히자기자신의밀으로추락하고불충분한가치만을내놓는다. 생산물의풍부함덕에소비를유인한다음임금의미약함때문에노동은일꾼에게부족해진다. 빈곤을추방하는대신이를다시불러들인다. 노동분업은집단적존재에게유해한산업들이이를실행하는자들에게작용하는것과마찬가지로작용한다. 집단에풍부함을마련해주면서중독시키고, 생명으로초대한후에죽음에다시빠뜨린다.

그러므로여기서빈곤은노동의고유한해악이다. 부족을일으키는것은자연도섭리도아니다. 균형을결여하는것은경제적일상관행이다. 비난할필요가있는것은그것뿐이다. 파편적분업에서결과로나오는모순이더고도의조합을통해극복될수없음을아무것도증명해주지않는만큼더욱더그렇다.

정치경제학자체는이를감지했다. 그리고새로운기관인기계에게도와달라고서둘러호소하는것은이때문이다.

이쓸모없는사치품은그의무능을증언해줄뿐이었다. 재물들은넘쳐나고이를즐길수가없다. 얼마나웃음거리인가!

한양치기쳐녀가주인의탐욕때문에혈벗은채로방치되었는데, 덩불위에양털뭉치를모아놓는다. 이양털을꼬아서균등하고가는실로늘리고이를창끝에잡아매고엮어서유연하고가벼운겉옷을만들어입는다. 이는그를경멸하는여주인의몸을감싸는기움질한가죽보다천배는우아하다. 이런기적을창조한것은아라크네라는직조여공이다! 곧주인은그의어린양들, 낙타, 염소의털을깎기시작한다. 그는아내에게한무리의노예들을주어그의명령에따라실을찾고웃감을짜게한다. 신들이영감을준것은더이상비천한여종아라크네가아니다. 그것은소유권자의떨인팔라스다. 그의질투심은아라크네를끓겨죽여그에게복수를한다.

무에서모든것을창조하는노동, 그리고언제나자기가결코만들지않은것을먹어치우려고도착하는특권, 이노동과특권의끊임없는투쟁, 이는얼마나구경거리인가! 사람의운명은계속되는행진인것이다. 그는언제나노동하고, 창조하고, 배가하고, 완성할필요가있다. 노동자에게그가발견한것을누리게두라. 그는자기의관념위에서잡들것이다. 그의지성은더이상전진하지않는다. 이것이야말로애덤스미스에게충격을준, 그렇지만그차분한역사가가한마디꾸지람도하지않은이악의비밀이다. 비록그는이를고려할수없었지만신의손길이거기에있다는것, 노동이땅을채우는날까지문명은비생산적소비를동력으로한다는것, 사람들사이에우애가모르는사이에성립하는것은강탈에의해서라는것을느꼈다.

사람은노동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섭리의권고로도독질이제정되고, 조직되고성화되었다! 소유권자가움켜쥐기를게을리했다면, 프롤레타리아는곧바로생산하기를게을리했을것이며, 미개상태, 끔찍한빈곤이문앞에와있을것이다. 소유권이최소된폴리네시아사람은재물과사랑을완전한공동체안에서누리는데왜노동을하는가? 토지와아름다움은모두의것이고, 자녀는누구의것도아니다. 당신은그에게무엇때문에덕, 존엄성, 인격, 철학, 진보에관해말하는가? 그리고더멀리갈것도없이, 코르시카사람은그의밤나무밑에서 6 개월간식량과잠자리를얻는데왜그가노동하기를바라는가? 당신의징병, 철도, 법정, 언론이그에게무슨의미가있는가? 밤을까먹었으면잠을자는것말고무슨필요가있는가? 코르시카지사는이섬을문명화하려면밤나무들을벨필요가있다고말했다. 더확실한방도는밤나무들을전유하는것이다.

그러나벌써소유권자는노동자의실체를잡아먹기에더이상충분히강하지않다. 그는자기가총애하는자들, 광대들, 보좌관, 공모자들을부른다. 우리에게이무서운몸을드러내주는것역시스미스다.

“어느산물의새로운변형때마다이윤들이늘어날뿐아니라뒤에이어지는이윤이앞서의이윤보다더크다. 그것이나오게하는자본이필연적으로언제나더크기때문이다. 실제로임금의상승은채무의누적에서단순이자가그런것처럼상품가격에작용하는반면이윤의상승은복리이자처럼작용한다. 예를들어직물공장에서아마의삼빛질하는자들, 실차는여공들, 직조공들등인부들의임금이모두하루

“한나라의 토양이 사적 소유가 됨에 따라 소유권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들이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좋아하며 토지의 자연적 산물에 대해서 조차 임대료를 요구한다. 숲의 목재들에, 들판의 풀에, 그리고 땅의 모든 자연적 열매들의 추가의 값이 매겨지는데, 이는 공동 소유로 될 때는 일꾼에게 그것들을 채취하는 수고만이 드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에게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다. 그는 그것들을 수확할 허가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즉 소유권자에게 그가 수확하는 것, 혹은 그가 소유권자 없이 그의 노동으로써 생산하는 것의 일정 몫을 소유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독점이 있다. 자본이 있다. 지대가 있다! 애덤 스미스는 모든 계시 받은 자들처럼, 보기는 보아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이야기하지만 이해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는 신에게 영감을 받아 말하지만 놀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 그리고 그의 말의 의미는 그에게는 수수께끼다. 얼마나 냉혈한의 마음으로 소유권자의 명령을 말하는지! 토지가 아무것도 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 노동이 이를 개간하지도, 비옥하게 만들지도, 활용하지도, 가치있게 이용하지도 않은 한에서는 소유권은 이를 무시한다. 말벌은 꽃위에 앉지 않으며, 벌통에 달려든다. 노동자가 생산하는 것은 그에게서 곧 빼앗아진다. 일꾼은 주인의 손에 있는 사냥개 같다.

노동으로 기진맥진한 노예는 쟁기를 발명한다. 말이 끄는 단단하게 만들어진 나무이빨로 토지를 개간해 열매, 백배의 소출을 낼 수 있게 만든다. 주인은 한눈에 그 발견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그는 토지를 빼앗고, 소득을 차지하고, 그 아이디어마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 광장한 선물에 대해 인간들의 찬양을 받는다. 그는 신들의 동등자로서 행세한다. 그의 아내 는 남프이고, 케레스이고, 그는 트립틀레모스다. 빈곤은 발명하고 소유권은 거두어들인다. 왜냐하면 천재는 빈곤한 상태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풍요는 그를 질식시킬 것이다. 소유권이 세상에 해준 가장 큰 봉사는 노동과 천재의 이영속적인 불행이다.

그러나 이 날 알더미로 무엇을 할까? 주인이 그의 말들, 소들, 그리고 노예들과 나누는 부는 얼마나 초라한가! 이득이라고는 쌀과 귀리 몇 줌 더 값아 먹는 것뿐이라면 부자인 것이 오죽도 필요하겠나!

한 노파가 이가 빠진 입에 풀칠하려고 낱알을 빻은 후 반죽이 서서지고 발효하고 재밀에서 익어서 낱밀이나 구운 밀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음식을 내놓는 것을 눈치챈다. 기적이다! 매일 먹을 빵이 발견된 것이다. 다른 노파는 버려진 포도알을 향아리안애 재어 놓고서 그 즙이 불꽃 위에서처럼 끓어오르는 소리를 듣는다. 액체가 그 불순물을 토해낸다. 붉고, 향이 강하고, 불멸의 빛을 발한다. 아하! 그것을 발견한 것은 소유권자의 애지중지하는 아들, 신들의 총애를 받는 아이, 젊은 바쿠스다. 주인이 몇 주일도 못 먹었을 것인데, 마시는 데는 1 년도 족히 마실 것이다. 포도나무는 수확물, 토지처럼 전유가 된다.

매년 아주 많은 양의 공물을 가져다주는 이 무수한 양털로 무엇을 할까? 소유권자가 그의 정자 높은 곳에 침대를 올려놓을 때, 그의 화려한 천막을 서른 배로 늘릴 때

분업에 결합된 기계들의 도움으로 50 평방리외 (800 평방킬로미터) 의 면적에 거주하는 10 만 노동자는 야만인 10 억 명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이 야만인들은 땅을 굶기 위한 손톱만 가지고서, 먹잇감을 잡기 위한 손, 이를 공격하기 위한 발만가지고서 또한 생존을 위해 지구면적의 열배가 되는 토지 면적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적 발명의 한계는 획정이 불가능하므로 또한 이런 측면에서 노동은 무제한의, 따라서 미지의 정도로 가속화될 수 있는 다 산성을 누린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기계는 분업에 의해 야기된 결함을 복구하고 빈곤을 이겨 내 가는 것 같다.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계와 더불어 주인과 임금 수령자들,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별이 시작된다. 파편적 노동이 노동자에게 초래한 신경의 무더짐에서 기계역학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했던 노동자가 오히려 거기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 그는 인간적 특성과 함께 자유를 상실하고 도구의 조건에 빠진다. 수장들에게는 행복이 증대하고, 하급자들에게는 해악이 증대한다. 카스트들의 구분이 시작되고 기괴한 경향, 사람들을 배증하면서도 사람들 없이 해나가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보편적인 곤란이 심각해진다. 이미 파편적 분업에 의해 예고된 빈곤은 공식적으로 세상에 등장한다. 이 순간부터 빈곤은 사회의 영혼과 신경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빈곤을 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과잉 생산인가, 아니면 빈곤은 오히려 잘 못된 조작의 결과인가? 모든 지점에서 생존의 필요, 따라서 노동 할 필요가 느껴지니, 그리고 노동의 공급은 수요에 의해 추출되니 노동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모든 부분에서 판로가 없고, 돈을 지불한 사람들이 없고, 임금이 없어서 값이 떨어지는 산물의 공급과잉에 대해 불평을 하니 생존 수단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므로 인류는 문명적 모습의 떠돌이 야만 습성을 다시 띠고서 그의 무기력에서 나오는 빈곤을 그의 조합들에서 나오는 빈곤으로 변화시키기만 했다. 사람은 그의 힘을 열배로 키워주는 노동의 분업 때문에, 이를 백배로 키워주는 기계역학 때문에 사멸한다. 옛날에 잠과 게으름 때문에 사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해악의 첫째 원인은 언제나 그 자신에게 있다. 그런데 운명을 탓하며 외치기 전에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원인이다.

그 귀족주의적 경향에 대해 사회는 자유, 경쟁을 대립시킨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자.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수고한 자들, 이들은 빈곤의 사도들인 경제학자들이다. 노동자를 해방시키는 경쟁은 계산할 수 없는 부의 증대를 낳는다. 노동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 혁명에 이어서 다수인민에게서 한 세대 내 빈곤이 물리쳐진 것을 사람들은 보았다. 그렇다면 나는 경제학자들에게, 파편적 분업에 의해 생겨나고 일정 지점까지 기계역학에 의해 억제된 빈곤이 아무런 수명적인 것도 가지지 않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기계에 뒤따라서 자본과 임금 노동의 제도 후 찾아온 빈곤도 불가항력적 원인에 조금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 줄 것이다. 우리가 전진해 갈수록 빈곤은 우리에게 더욱 우발적이고 비정상적인 특성을 가지고서, 자연의 비인도성이 아니라 우리의 미숙함에 대해 증언해주는 간헐 증상과 악화를 일으키며 나타난다.

실제로위에서바라볼때, 대중사이의경쟁은무엇인가? 이는말하자면완전히형이상학적인힘으로서노동의산물들이끊임없이가격이낮아지고, 혹은같은것이지만계속해서양이증가하게해주는힘이다. 그리고경쟁의수단들은기계적개량과배분적조합들과마찬가지로무한하므로또한경쟁의생산적잠재력은강도와연장에서한계가없다고도말할수있다.

특히고려할한가지는, 경쟁때문에부의생산이결정적으로사람들의출산에앞선다는것이다. 이는말서스가생존수단의진보와인구의진보간에확립한관계를경제적비상식으로, 거꾸로된이론으로만들어주는것이다.

나는이점에대해독자의주의를촉구한다.

경쟁에의해각생산자는언제나더낮은가격에, 말하자면언제나소비자의수요보다더많이생산하고, 따라서매일저녁사회에그다음날의생존수단을제공하지않을수없다. 그러므로그러한체제에서생존수단의총계가인구의필요미만으로떨어지는것이어떻게가능한가?

나는고립된두사람이용구를가지지않으면서집승들처럼빈약한먹을거리를얻으려고싸우면서 2 에해당하는가치를내놓는다고가정한다. 이두불쌍한사람이체제를바꾸어분업에의해, 그로부터나오는기계역학에의해, 그리고뒤따라오는경쟁심에의해그들의노력을합친다고하자. 각자가단지자신을위해생산하는것이아니라그의동료를위해서도생산하니그들의생산물은더이상 2 와같지않을것이고, 4 와같을것이다. 노동자가두배로되어분업이이배증에비례해전보다더심화되고기계들이더위력이있게되고, 경쟁이더치열해지면그들은 16 을생산할것이다. 그들의수가네배가되면, 64 를생산할것이다. 노동분업, 기계, 경쟁등에의한산물의이런배가는경제학자들이여러번입증한것이다. 거기에그들이론의긍정적인면이있으며, 이는그들모두의의견이일치하는점이다. 그러나실무는사회가마지막개혁으로써그모순을해결하지못할동안에는이론이기대하게하듯이해줄수없을것이다.

그러므로인류의생식적재생산의잠재력이 1, 2, 4, 8, 16, 32, 64... 등의급수로표현된다면, 산업적재생산의잠재력은 1, 4, 16, 64, 256, 1024, 4096...의급수로표현되어야할것이다. 다른말로하면조직된사회에서생산은노동자수의제공으로증가한다. 우리를가르치는것은정치경제학자체다. 그모든책들은이런내용으로가득하다. 그리고고착된생각, 인구의배중이라는생각에서로잡힌말서스가그것을망각했다면그의동료들은왜이름기억하지못했는가? 왜냐하면말서스가확정한인구와생존수단사이의증가비율은산업, 즉분업, 기계역학, 경쟁, 교역등이절대로무이고집단적힘이존재하지않는무기계사회에대해서만수긍될수있고, 맞물려있으며산업들의관리와교역에기초를둔사회, 각사람이수백만소비자를위해생산하면서수백만생산자로부터공급을받는사회에대해서는결코수긍될수없기때문이다.

그래서어떤농학자들이, 그리고이들에이어어떤맹목적인사회주의자들이사중적(四重的, quadruple produit) 이라는것으로말하고자한것을이렇게이

끝쪽에서사실은끊임없이다소크고다소규칙적인호들을그리며진자운동을한다. 평등은사회의지고의법칙이다. 그러나이는고정된형태는아니다. 이는무수한방정식들의균형이다. 우리에게평등이경제적진화의제 1 기, 노동분업에서부터나타난것은이런식이다. 그리고그러한것이형상적으로섭리의입법에서부터발현되었다.

애덤스미스는사회경제의거의모든거대문제에관해일종의직관을가진자로서노동을가치의근원으로인정하고분업법칙의마법적효과를묘사한후에이분업에서생겨나는산물의증대에도불구하고노동자의임금은증가하지않는다는것, 흔히그반대로임금이감소하고집단적힘의이득이결코노동자에게가지않고주인에게로간다는것을관찰한다.

사람들은아마도이렇게말할것이다. “이윤은노동의특별한종류, 감독과지휘의노동의임금에붙는이름말고다른것이다. 아니다. 그러나이이윤은임금과는본성이다르고다른원리들에규율되고, 감독과지휘의이노동이라고하는것의수량및본성과는아무관계도가지지않는다. 이윤은완전히활용된자본의가치에따라규율되고, 이자본의크기에비례해서크기가다르다. ... 이처럼노동의산물은온전히일꾼에게속하지않는다. 일꾼은이를소유권자와나눌필요가있다.”

이것이야말로애덤스미스가일이어떻게일어나는지를냉정하게우리에게말해주는것이다. “모든것은주인을위해서이고, 일꾼을위해서는아무것도없다.” 이를볼의, 약탈, 도둑질이라불러도경제학자는동요되지않는다. 약탈자인소유권자는이모든것에서약탈당한노동자와마찬가지로그에게는꼭두각시로여겨진다. 그리고그들이질투도동정도결만한자들이못된다는증거는, 노동자들은배고파서죽을경우에만권리를주장한다는것, 자본가, 기업가혹은소유권자는일생에서죽는순간에도조금도뉘우침을느끼지못해왔다는것이다. 공공의무식하고잘못된의식을탓하라. 사람들은옳을수도있고, 틀릴수도있다. 우리에게여럿의용변보다훨씬더나은존재로서애덤스미스는사실들을고려하기만한다.

이처럼노동자들중에서한특권가진자, “너희형제들중의나자렛사람(nazaraeum inter frates tuos)” 을지정하면서사회적이성은집단적힘을의인화했다. 사회는신화와우의寓意에의해진행된다. 문명의역사는광대한상징체계다. 호메로스는영웅적그리스를요약한다. 예수그리스도는고통받으며, 노력을하는가운데길고괴로운아픔속에서자유, 정의, 덕을갈망하는인류다. 샤를마뉴는봉건적전형이다. 롤랑은기사의신분이다. 은자피에르는십자군이다. 그레고리우스 7 세는교황권, 나폴레옹은프랑스혁명이다. 마찬가지로산업기업가는노동자집단에힘입어자본을이용하는자로서집단적힘의의인화다. 기계의손잡이가힘을모으듯이그집단적힘에서그는이윤을흡수한다. 이는정말로영웅적인사람, 노동의왕이다. 정치경제학은완전히상징체계이고소유권은종교다.

애덤스미스를따라가자. 모호한잡동사니안에흩어져있는그의빛나는관념들은원초적계시의재탕으로보인다.

다. 세상의모든부는애초에금과은이아니라노동을가지고구매되었던것이다. 그리고그것들의가치는그것들을소유하고새로운생산물들과교환하려고하는자들에게는정확히그것들이그들로하여금구매하거나출자할수있는상태로해주는노동의양과같다.”

그러나가치가노동의실현이라면이는동시에산물들간의비교의원리다. 이로부터모든경제학을지배하는비례성의이론이나온다. 애덤스미스가경험의체계를논리의도움으로추구하는그시대의정신안에있었다면그이론으로올라섰을것이다.

그러나사회안에서정의가어떻게발현되는가, 다른말로하면, 가치들의비례성이어떻게성립하는가? 장바티스트세는이렇게말했다. 쓸모의가치와교환가치사이의진자운동을통해성립한다고.

여기서정치경제학에서는노동과관련해그것의주인인, 그리고너무나도흔히그것의학대자인재정裁정의원리가나타난다.

과학의출발에서노동은방법을결여하고가치의정보가없이그첫번째시도들을겨우더듬거리면서부름형성하고물건의가격을정하기위해자유의지에호소한다. 이순간부터두잡재력이싸움에들어가며, 사회조직의위대한작업이시작되었다. 왜냐하면노동과자유지, 이는나중에우리가노동과자본, 임금제도와특권, 경쟁과독점, 공동체와소유권, 평민과귀족, 국가와시민, 조합과개인주의라고부를것이기때문이다. 누구든지논리학의첫번째관념들을받아들인자에게는영구적으로되살아나는이모든대립들이영구적으로풀려야한다는것은명백하다. 그런데이는경제학자들이결코그렇게이해하기를원하지않는것이다. 이들에게가치내재하는재정의원리는모든결정에서항하는것같이보인다. 그리고이것은철학에대한두려움과함께, 사회에아주치명적인경제학의지체를유발한다.

존램지매컬럭 (John Ramsay McCulloch) 은말한다. “절대적가치를말하는것만큼터무니없는것이절대적높이와깊이를말하는것이다.”

경제학자들은모두같은것을말한다. 그리고사람들은이예를통해그들이가치의본성에관해, 그리고그들이사용하는단어들의의미에관해얼마나마음이통하는것과는거리가먼지를판단할수있다. 절대라는표현은온전성, 완성, 혹은충만, 따라서정확성그리고올바름의관념을내포한다. 절대다수는제대로된다수 (절반더하기하나) 이며, 이는제한없는다수가아니다. 마찬가지로절대적가치는산물들간의정확한비교에서도출정정확한가치다. 세상에그렇게단순한것은없다. 그러나이로부터중대한결과가나오는데, 그것은가치가서로비교측정이되어결코무작위로진자운동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이러한것이사회지의고의서원誓願이다. 이러한것이그총체로볼때그종합이틀림 ㄹ 없이참된가치를낭는모순들의그림말고다른것이아닌정치경제학자체의의미다.

이처럼사회는필연성과의성사이에서일종의균형잡기에의해점차성장하며정의는도독질에의해형성된다. 평등은사회안에서단호한수준으로서생겨나지않는다. 이는모든위대한자연의법칙들처럼추상적인사향이며, 그안쪽과그바

해할필요가있다. 인구와발달의정도가주어진어나라가지금생산하는것의두배, 세배, 네배를생산할수있다는것은참이아니다. 산출은필연적으로인구에비례하며인구는이번에는분업의정도, 기계들의힘, 유통활력등을정해준다. 그러나참인것, 과학이인식하고증명하는것, 이는인구의증가가두배면생산의증가는네배이며, 사회가경제법칙에복종할만큼오랫동안, 그리고지구의표면적이이증가분을포함할만큼멀리까지이런식으로무한히계속늘어난다는것이다.

유감스럽게도경제제도의적대성은그것들이충돌없이그효과를내도록허락하지않는다. 그로부터노동에대한실망이나오고, 그로부터빈곤의기습이나온다. 이처럼경쟁은그긍정적이고사회적인면을이용해물건의가격을무한히낮추고, 따라서가치들의총계를끊임없이늘리며, 생산을인구보다앞서게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러나그부정적이고이기적인측면때문에경쟁은그것이초래하는가격하락이한편에서는승리자에게만이득을주고, 패배자를일자리와자원이없이방치하니부에서빈곤으로방향을전환한다. 이론은경쟁이모든사람을부유하게해주어야한다고말한다. 그러나실제는, 사회적유기체의불완전성때문에경쟁이일반적이된곳에서는부유하게된자들과꼭같은만큼의불행한자들이있음을증명해준다. 이는우리가행한비판후에의심하는것이불가능한것이다.

여기서비난할필요가있는것은그러므로제도의고유한해악, 관념의부족함이다. 이제부터는빈곤의이필연성, 방금우리를망연자실함에빠지게한것이결코절대적이지않음이증명된다. 그학파가말하듯이는우발적필연성이다. 일체의개연성에상반되게사회는사회의안녕을이루어주어야할것자체로고통을받는다. 언제나빈곤은때이른것이며, 언제나극빈층은미리생긴다. 무기력때문에흥년을맞는아만인과반대로빈곤은행복때문에우리에게찾아오며, 우리의노동은끊임없이궁핍을더해준다. 경제학자들은필연을비난하기전에그들의일상관행을개혁하는것으로시작하도록하라. 의사여, 그대를치료하시오 (Medice, cura te ipsum).

이재검토를계속하고일반적결론을표명하는것으로내게는충분할이장내내저작전체를다시실필요는무엇인가? 나는사회가자기를피하는이균형을이공식, 저공식에서, 이제도, 저제도에서찾고있으며, 그런시도를할때마다같은비율로자기의호사豪奢와자기의빈곤을성장하게만드는것을보여주었다. 일단공동체에도달하면사회는그출발점에놓인다. 경제적진화는완성되었고, 탐구의장은고갈되었다. 균형은도달될수가없어서여러이론들을종합해노동에그효능을주고그기관器官각각에잠재력을주는전체적해결에만희망이남아있다. 그때까지는빈곤이나태함에묵여있는것과마찬가지로극빈층은노동에불가항력적으로뉘인채로남아있다. 그리고우리의섭리에맞선모든불평은우리의아둔함을증명할뿐이다.

혈땀이계속해서풍부함에서결과로나오고, 노동의금지가능노동필요의영속적인결과인우리의경제는진실로이상한경제다! 군주의척령에의해 50 만명의기생자들이갑자기비생산자명단에서지워져서작업장과경작지로보내지면복

리의증가대신에우리는빈곤의증가를보게될것이다. 비생산자계급에는고용도 소득도없는 50 만명이있을것이다. 기업가, 소유권자, 산업수뇌계급에는섬겨야할기생자가 50 만명줄어들것이고, 이미크게배증되어있는, 그리고임금이아주낮은노동자계급에는경쟁자가 50 만명더있을것이다. 일손의가격은낮아지고, 생산물의수량은늘어나고, 시장은축소된다.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절제와 노예상태가진전되고소유권계층에게는사치와고집이진전되는, 이런것이이성이우리에게공공안녕의조치로가르쳐주는개혁의결과들일것이다. 우리는더부유해질것이기때문에바로그이유로더가난해질것이다. 그리고자신들의마법사에서아무것도이해하지못하는경제학자들이결혼의경솔함, 사랑의시기가좋지않음, 뭐랄까, 부부의외설적행동을비난하는것을보게될것이다!

사실들이쇄도하고축적되고사방에서정치경제학에맞서외쳐도소용없다. 이를이야기하고, 전개하고, 주석을다는작가들은아무것도보지않기위해서만눈을가지고, 아무것도듣지않기위해서만귀를가지며, 진실을숨기기위해서만지성을가지는듯하다. 소유권, 고리대, 조세, 경쟁, 기계, 파편적분업은인구가넘쳐나기전에인구를억제한다. 50 만의배급말고는생존을위해가진것없는 100 만의사람들이어떻게될것인지에만매달리고있는경제학자는, 왜 50 만명이 100 만명에게죽할것을가지고살아갈수없는지를자문해보지않는다. 선량왕장 2 세때에는프랑스인구가 1200 만명이었다. 루이 14 세때에는 1600 만명이었고, 루이 16 세때에는 2500 만명, 오늘날은 3400 만명이다. 이모든시대에가난한자들, 엄청난수의가난한자들이있었던것은변함없다. 가난한이들에맞서만들어진 잔혹한법률들이이를증명해준다. 그런데이시대들중어느시대에프랑스사회가그수단들을고갈시켰다고말할수있는가? 10 세기전에프랑스는그생산을 20 배로할수있었다. 제 3 신분은게으름의혐의가없었다. 어디서극빈층이나왔는가?

경제학자들에게 26 년만에인구가두배로, 심지어세배로증가하는가장괄목할예들을제공한것은미국이다. 그런데한세기혹은한세기반전부터미국에서인구가 26 년마다두배, 세배로늘었다면, 생산은적어도같은시기에두배, 세배로늘었던것이명확하다. 그리고이경과시간중에인구는생산을쫓아가기만했다고말할수있다. 미국인구의진보를아주잘해설한멜서스가어떻게마찬가지로다른 상황들에서생존수단의병행적진보를방해하거나중단시키는원인들을연구하지않았는가?

“아! 미국의경우는예외적이다. 미국은처녀국이었다”고그경제학자는대답한다.

처녀국이라! 하지만그나라땅은이로쿼이족들과휴런족들을위해쓰였는데, 이들은아메리카대륙발견이전에벌써우리가오늘날그러듯이부보다출산에서더빠르게나아갔고, 단순한사냥꾼들로서오래전부터산업을영위하는유럽인들이아직증식을하면서도부유해지기를중단하지않은바로그곳에서불쌍한자들로있었던것이다. 처녀국이라고! 차라리산업적위계의부재덕분에, 아메리카식민자들의이평등덕분에, 이평등은당신의경제적전행절차들의작용속에벌써사라지

사회경제에서경쟁이끊임없이만들어내는데종사하는것을독점은끊임없이해체하는데종사한다. 노동이생산하는것을소비는집어삼킨다. 소유권이차지하는것을사회는빼앗는다. 이로부터계속적운동이나오며, 인류의영속적생명이나온다. 적대하는두힘중하나가속박을받아, 개인적활동이예를들어사회적권위밑에 짓눌린다면조직은공산주의로타락하고무에도달한다. 반대로개인적창도성이 견제하는힘을결여한다면집단적유기체는부패하고문명은카스트, 악과빈곤의체제에서간신히발걸음을옮긴다.

이율배반은인력과운동의원리이고, 균형의이유다. 걱정을넣는것, 모든조화와모든일치를해체하는것은이것이다.

그다음으로급수級數와계열의법칙, 존재들의멜로디, 아름다움과송고함의법칙이온다. 이율배반을없애보라. 존재들의진보는설명이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이진보를넣을힘이어디에있느냐는말이다. 계열을없애보라. 세상은목표도관념도없이불모의대립항들의혼합, 보편적인들끓음에불과하다.

우리에게순수진리인이사색들이의심스럽게여겨질지라도, 우리가그에대해행한적용은아직엄청난쓸모가있을것이다. 이를잘성찰해보기바란다. 같은사람이같은원리들과같은이론들을, 의심할바없이다소간의선의를가지고, 그러나또한언제나양심을완전히편안하게하지는못해도걱정을일으키고정신안의의심이퍼지게하기에충분한그럴듯한이유들을가지고한꺼번에긍정도하고부정도하는일은인생에서단순시간도없다. 그러므로원한다면논리를그냥두자. 그러나사물의이중적측면을해명하는것, 추론을불신하기를배운것, 어떻게사람이관념들에서올바름과가슴에서정직함을가질수록그가바보가되고영터리가될위험을더욱무릅쓰는것인지를아는것은아무것도아닌가? 우리의모든정치적, 종교적, 경제적등등의오해는사물에내재하는모순에서나온다. 그리고그러한것은또한사회에원리들의부패, 양심들의매수가능성, 신앙고백의협잡, 의견들의위선이흘러나오는원천이다.

현재경제학의대상은무엇인가?

방법이스스로그것을우리에게가르쳐준다. 이율배반은자연에서의인력과균형의원리다. 그러므로이율배반은인류에서의진보와균형의원리이며, 경제학의대상은정의다.

사회경제학이관심을가지는유일한것들인순수하게객관적인그관계들에서고찰되었을때정의가치를표현방식으로삼는다. 그런데가치란무엇인가? 실현된노동이다.

에덤스미스는말한다. “각물건의실재적가격, 각물건이이를조달하고자하는자에게실물로초래하는비용은그것을획득하기위해자신에게부과할필요가있는노동과수고다. ... 돈이나상품으로구입하는것은우리가우리의마의땀으로획득하는것과마찬가지로노동을통해구입하는것이다. 이돈, 이상품은그때노동의같은양의가치를포함한다고가정되는것으로, 우리가교환하는일정량의노동의가치를포함한다. 노동은모든물건의원초적구매를위해지불된화폐, 최초의대가였

가는중에붙잡기를계속한다고, 끝으로우리는감각적지각의도움으로갑자기외적인모델없이우리가우리지성이라고칭하는역량의이허상안에우리에게나타나는관념들이나개념들을발견한다고여겨진다. 그러한것이우리지식의진보다. 우리는감각적인것에서출발해추상으로상승한다. 우리이성의사다리는땅에발을딛고, 하늘을가로지르며정신의심오한내용들로상실된다.

이제이계열을뒤집어서, 창조를시간과공간의하등영역들안에지성이라는상위영역의관념들이추락하는것으로상상하자. 이는관념들이원래는순수한것이었다가이것들을실현하고표현하는몸혹은기체(基體, substratum)를취하게되는추락인것이다. 이관점에서창조된모든사물, 자연의현상들, 그리고인류의발현들은때로는고정되고직선적인구도인공간에서, 때로는굽어지고유동적인구도인시간에서우리에게비밀질적이고부동인정신의투사로나타날것이다.

이로부터서로동등한, 그리고정신안에서동시대적이고조율된관념들은인류와자연안에무질서하게흩어져서, 국지화되고, 종속되고, 계속적으로던져져서원초적설계와는전혀달리않은그림들과역사들을이루게된다. 그리고인간의모든과학은이혼동안에서영원한생각의추상적체계를재발견하는데있다. 생물학자들이유기체들과무기체들의체계를재발견한것은이중류의복원에의해서다. 사회가우리에게고립되고비밀관적이고무정부적인것으로보여주는사회경제의여러국면의계열을우리가재확립하고자시도한것은같은절차에의해서다. 우리가착수한주제는정말로경제학자들이수집한파편들에따른노동의자연사다. 그리고우리의분석에서나온체계는린네와쥐시외(Jussieu)가발견한식물의체계들, 그리고퀴비에의동물계와같은명목에서참이다.

노동에의해발현된인간적자아, 이는그러므로철학의구체적형태인정치경제학의탐구영역이다. 이두과학의, 혹은더제대로말해서이두회의론의동일성은이책의전체흐름에서우리에게드러났다. 이처럼관념들의형성은우리에게기초적범주들의분화에서처럼노동의분업에서나타났다. 그러고서우리는자유가자연에대한인간의작용에서태어나는것을보았고, 자유에이어서인간이사회와, 그리고자기자신과맺는모든관계들이생겨나는것을보았다. 결과적으로경제학은우리에게한꺼번에존재론, 논리학, 심리학, 신학, 정치학, 미학, 상징학, 그리고도덕이었다.

그학문의영역이인식되고그한계의확정이행해지고나서우리는그방법을인식해야했다. 그런데경제학의방법은아직철학의방법과같아, 노동의조직은우리생각에따르면상식의조직과다른것이아니다.

이조직을구성하는법칙들중우리는이울배반에주목했다.

모든참된사고는하나의시간과두계기로제시된다는것을우리는고찰했다. 이계기각각은다른것의부정이고돌다상위의관념속에서만사라져야해서결과적으로이울배반은생명과진보의법칙자체이며, 영구적운동의원리다. 실제로어떤사물이그안에있는진화의잠재력에힘입어바로그것이상실하는모든것을보상받는다면, 결과적으로이사물은파괴불가능하며, 이를지탱하는운동은영구적이다.

기시작하는숲들이만들어준간격으로보호를받아서노동자는어디서나자기소출전체를누리고, 언제나쓸모있는작업을행해 18 년마다인구가두배가됨에도 불구하고부자가될수있었고, 부자로자신을유지할수있었다고말하라. 아메리카의예는단지인류가인구문제에서할수있는것만입증해주는것이아니다. 또한사람의잠재력이생산문제에서어디까지갈수있는지도보여준다. 저곳에서는아주명백하고아주공신력있는이병행이다른곳에서는왜지탱될수없었는가? 이런질문을하는이유는여기서는병행적인진보만큼진보의신속성이중요하지않기때문이다. 처녀국이라! 확실히영국, 스위스, 독일의개혁자가살아오고인구가배증한것은이영구적인숲들에불을질러서가아니다. 이는노동에서, 내가말하건대노동에서나온것이다. 우선은적절하게문화되고, 그다음은점점자본과기계를동반해서, 유통을통해가치를늘리고, 아직기생계급과독점에의해척박하게되지않은노동에서나온것이다. 그증거는, 유럽에서수입된정치경제학이나라에서, 토지와공간이누구에게도결핍되지않고노동이자본의노예살이, 은행가의중개, 경찰의감독을거치지않고그자체로이익이되는곳인나라에서, 다소너무일찍가능하기시작해인민이정치경제학을굴러가게놔두고, 단지그톱니바퀴를돌리기만하면되었다는것이다. 신용은낮은데서흩렸고, 은행들은도약했고, 개발자인자본은집어삼켜졌고미국인은노동과평등으로자기재산을추구했다. 의문의여지없이이경이로온진보가덜민첩한걸음으로갈날이올것이다. 하지만그때와마찬가지로의문의여지없이인구는제약과빈곤없이, 정치경제학, 불안정과도독질의이론인이것이이조화를깨러오지않는다면, 자생적으로그도약의속도를늦출것이다.

뷔레(E. Buret), 그리고그의뒤에픽스(M. Fix) 씨는 50 년전부터프랑스에서국부가다섯배로늘어난반면인구는절반도늘어나지않았음을관찰한다. 이계산에서부는인구보다열배는빠르게전진했을것이다. 빈곤이비례적으로축소되는대신증가한것은어디서유래하는가?

부를생존수단과혼동하지말라고경제학자는말할것이다. 부는노동의산물로서사람에게영양분과마찬가지로쾌락에서어떤가치든지가지는모든것으로구성된다. 생존수단은이부에서생활의유지에특별히더소용이되는부분이다. 그런데멜서스의산술급수율이해할필요가있는것은부의이부분에대해서다.

우스운구분, 가치들의비례성이론에따라앞서반증된우스운구분이다. 생존수단은필연적으로부위다른부분들과관계가있으며, 50 년전부터프랑스의소득이다섯배로늘어났다면프랑스는다섯배더소비한다고말하는것은엄밀히참이다. 사회안에서모든가치들은서로측정이된다. 즉서로결제를해주며, 서로지탱을해준다. 사치품의생산은바로생존수단이충분한양이된다는것을증명해준다. 결국이사치품의값이지불된것은이생존수단이돈이나다른가치물로지불된것처럼생존수단으로지불되었으니말이다. 50 년전부터 1 차필수품의물건가격이상대적으로증가한것은감지했는가? 정반대로상대가격은오히려악화도니것같다. 그리고생존수단이포도주처럼인민에게결핍된다면그잘못은포도원이나포도재배

농부에게있지않다. 포도재배농부는판매할수없다고불평하니말이다. 그잘못은 정치경제학에있다.

게다가인간의행복은풍요와다채로움으로이루어져서우리가사치라고부르는것은근본적으로진정한저축일뿐임을누가모르는가? 날고기와몇가지끔찍스러운음료로살아가는야만인은한달새에나라의 1 평방리외 (16 평방킬로미터)의자원을거덜낼것이며, 그부양에숲의사람들이모르는백만가지물건을요하는문명인은 4 헥타르의땅위에서생존할것이다. 그의사치는야만인의나체생활에필요한것보다삼사천배좁은공간에서유지도리수있다. 사치는피부, 눈, 귀, 콧구멍, 상상, 기억에의해양식을섭취하는기술로생리학적으로정의될수있다. 빈곤은반대로유일기능, 위뿔의기능으로축소된생활이다. 무슨말인가? 심지어는우리의음식을천가지형태로배종하고우리에게더잘먹도록가르치지만, 실상은우리에게절약의원천이아닌, 세네카가그의황당한과장에서아가리의기술이라고부른요리법도없다. 우리는노동후에부족에대비한우리의가장소중환보조수단이다. 그리고프롤레타리아가너무많이먹어서대가족에게부담이되는것은바로그가충분히소비하지않기때문이다.

나는그러므로내질문을강조할권리가있다. 우리의부는다섯배로늘었고, 우리의인구는 50 퍼센트만늘었는데, 어떻게아직도우리들중에가난한자들이있는가? 후세를걱정하고지구상에서얼마의주민이살수있을지를찾기전에내게대답해주기바란다.

영국에서구빈세는다음과같았다.

연도	액수 (파운드스털링)
	주민수
	1801
	4,078,891
	244

그러나이집단적이고개인적인자아는무엇인가? 아주생소한현상들이벌어지는이관찰의장은무엇인가? 이를발견하기위해유비적인것들을보자.

우리가생각하는모든것들은존재하고, 계기하거나초월적인세력량안배열되는것으로우리에게여겨진다. 그바깥에서우리는아무것도상상하지도, 절대로의식하지도못한다. 이는공간, 시간그리고지성이다.

모든물체가우리에게필연적으로공간안에있는것으로의식되는것처럼, 또한인과관계로서로연결되는현상들이우리에게시간안에서서로이어지는것으로보이는것처럼, 순수하게추상적인우리의표상들은우리에의해우리가지성인혹은지성이라고명명하는특정한용기容器에관련된다.

지성은그나름대로공간과영원성처럼무한한역량이다. 거기서여러세계들, 무수한유기체들이복잡한법칙들에따라다양하고예기치못한효과를일키며움직인다. 그움직임과조화로는우주를가로질러창조자끼를뿌린세계들, 시간의지속중에빛을내고꺼지는유기체들과동등하다. 정치학, 정치경제학, 법률학, 철학, 신학, 시학, 언어, 도덕관념, 문학, 미술, 자아의관찰의장은자연의관찰의이중적장인공간과시간보다그것만으로도더광대하고더비옥하고더풍부하다.

그러므로시간과공간과같이자아는무한하다. 인간, 그리고인간의산물인것은공간을가로질러던져진존재들그리고시간안에서계기하는현상들과함께신의삼중발현을이룬다. 이세무한, 무한의무한한표현들은불가분리적으로환원불가능하게서로침투하고서로를지탱한다. 공간혹은연장延長은운동없이는의식되지않는것이고운동은힘의관념, 즉자생성, 자아를내포한다.

공간안에서우리에게제시되는것들의관념은우리의상상에서그림들을이룬다. 우리가시간안에그대상들을위치시키는관념들은역사안에떨쳐진다. 끝으로, 시간의범주에도공간의범주에도들어가지않는관념들이나관계들로서지성에속하는것은체계들로조율된다.

그림, 역사, 체계는그러므로유비적인, 아니상동相同의세표현으로서이에의해우리는일정수의관념들이우리의정신에완전히대칭적이고완벽한것으로제시된다는점을이해한다. 그렇기때문에이표현들은어떤경우에는혼동될수있다. 우리가그것을정치경제학의역사로서발견들의일자가아니라이론들의순서에따라서제시했을때우리가이저작의서두에서행한것과마찬가지다.

그러므로우리는하나의역량을순수사고의사물들로, 혹은칸트가말하는것처럼, 본체들로의식하며, 의식하지않을수없다. 우리가다른들을감각이가능한것들로, 혹은현상들로의식하는것과같은방식이다.

그러나공간과시간은아무런실제적인것이아니다. 이는외적지각에의해자아에각인된듯형태다. 비슷하게지성또한아무실제적인것도아니다. 이는경험이자아에게제시하는관념들이있을경우에유비에의해자아가자기자신에게부과하는형태다.

관념들, 직관이나형상들의획득순서로말한다면우리는그전형들이나실재들이공간에포함되는것들에서시작하며, 시간이신고가는관념들을말하자면날아

가있는정확한의미에관해서도사람들은동의하고있지않다. 세부적인진리들을 풍부하게가지고있는그과학은총체적으로무한히아쉬운점을남기며과학으로서 성립되기에는아직먼것으로보인다.”

로시씨는뒤누아예씨보다한술더뜨다. 그는자신의판단을그과학의현대적대 표자들을향한비난의형태로정식화한다.

“모든체계적사상은오늘날경제학에서포기된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방법 없는과학은없다”고그는외친다 (〈와틀리씨의강연에대한로시씨의보고 Comptes rendus par M. Rossi du cours de M. Whateley〉)

블랑키, 볼로프스키, 슈발리에씨는모두여러사회들의경제에다소심오한눈 길을던진자들인데같은말을한다. 그리고현대유토피아들의가치를가장 좋게평가한작가인피에르루는「르뷔소시알」의각면에이렇게쓰고있다. “프롤레타리아트문제의해결책을찾자. 우리가그것을발견할때까지끊임없이찾자. 이는우리시대가할일전부다!” 그런데프롤레타리아트의문제는사회과학의형성이다. 근시안의경제학자들과광적인사회주의자들말고는없다. 이들에게과학은운동 “만들게놔두고유통하게놔두라 (Laissez faire, laissez passer)” 아니면“사회적자원의규모에서각자에게필요에따라”라는공식으로요약되며, 이들은경제학을소유한다고자랑하는자들이다.

그러니사회적진리의이지체遲滯는이것만으로경제학자의기만을조장하고 개혁자를차처하는자들의착취에신뢰를주는것인데, 이는무엇에관련되는가? 우리생각으로는그원인은벌써아주오래된, 철학과정치경제학의분리에있다.

철학, 즉형이상학, 혹은이게더낫다면논리학은사회의대수학이다. 정치경제학은이대수학의실현이다. 장바티스트세도벤담도감지하지못한것이고, 경제학자들과공리주의자들의이름으로도덕계안에서분열을일으켰고거의동시에정치와철학에반란을일으킨모든이들이감지하지못한것이다. 그렇기는하지만, 이성의철학, 이론은노동보다, 즉이성의실천보다더확실한어떤감독을바랄수있는가? 그리고역으로, 경제학은철학의공식들보다더확실한어떤감독을바랄수있는가? 내가장소중한희망인데, 오늘날가장능숙한건설자들이모두길고힘겨운수습기간을거쳐교육을받은사람들인것처럼, 도덕및정치과학의거장들이작업장과계산대에있을때가멀지않았다.

하지만어떤조건에서하나의과학이존재할수있는가?

그관찰의장과그한계를인식하고, 그대상을정하고, 그방법을조직한다는조건에서다. 이점에서경제학자는철학자처럼자신을표현한다. 방금보고한뒤누아예씨의말은문자 그대로리드 (Reid) 책의번역서에대한주프루아의머리말에서발췌한것으로보인다.

철학에서관찰의장은자아다. 경제학에서관찰의장은사회, 즉역시자아다. 사람을알고싶은가, 사회를연구하라. 사회를알고싶은가, 사람을연구하라. 사람과사회는서로를주체와객체로이용한다. 두과학의병렬관계, 동의성은완벽하다.

8,872,950

1818

7,870,801

11,978,875

1833

8,000,000

14,000,000

이에따르면극빈층이시기상앞서는것이맞는가, 맞지않는가? 그리고이수치들이한편으로는공식적인수치들로서물론내가주는의미를지닌다는증거는 1833년이래로영국에서사람들이맬서스의이론을적용하려고시도했다는것, 즉소득도임금도소유하지못하는자들을사멸하게방치한것, 그리고이관념의첫번째결과는강제노동수용소의창설이었고, 최종적으로는국물법의개혁, 즉빵값의자의적인인하였다것이다. 사람들은독점의폭력적폐지가빈곤을완화하는데에큰효과를지닐수있다고상상했다. 미래는이화려한개혁이포함한합리적이고유익한것을말해줄것이다. 그러나경제학자들은대부분이자유무역동맹의지지자들로, 암묵적으로빈곤이자녀들의과잉생산말고다른원인들을가진다는것을그에못지않게인정했다. 그들이독점에의해실행된약탈의명세서를작성하기시작했고, 그래서이를마무리했으니말이다!

나는프랑스의범죄에관한「주르날데제코노미스트」(1846년 1월)의한 기사에서, 모든종류의범죄및경범건수가기간별로다음과같았다는것을읽는다.

기간

건수

1826~1828

88,751

1829~1831

96,083

1832~1833

106,149

1835~1837

121,221

1838~1840

246

범주들도, 사실들과관념들도자기자신안에서꺼내내는그런과학, 끝으로단순하게모든다른과학처럼실재에대한이성적인묘사인것이아니라실재와이성의창조자체인과학이우리에게나타난다!

이처럼경제적이성의저자는인간이다. 경제적소재의창조자는인간이다. 경제체제의건축가, 이역시인간이다. 이성과사회적경험을낳은후에인류는자연과학을건설한것과같은방식으로사회과학의건설을진행한다. 인류는인류스스로한경험과이성을일치시키며, 상상할수없는기적으로인류안에서모두가유토피아로부터원리와행동들을취할때인류는유토피아를배제함으로써만스스로를아는데에도달한다.

사회주의가정치경제학에항의하며이렇게말하는것은옳다. 당신자신도이해하지못하는당신은일상관행일뿐이다. 그리고정치경제학이사회주의에게이렇게말하는것도옳다. 당신은실재도, 가능한실행방도도없는유토피아일뿐이다. 그러나이것도저것도차례로, 사회주의는인류의경험을, 정치경제학은인류의이성을부정하면서둘다인간적진실의핵심조건들을위배한다.

사회과학은사회적이성과실천의일치다. 그런데이과학은우리의거장들이희미한불티만을감지한것으로서, 그지고의찬란함과조화를가진것으로이를사색하는것은금세기에할일로주어질것이다.

그러나내가무엇을말하는가? 협잡과편견이세상을나누어가지는이순간에우리의희망을일으켜세우는것은물론중요하다! 우리가맞서싸워야할것은불신이나아니라자만심이다. 그러므로사회과학이전혀만들어지지않았다는것, 그것은아직모호한예감의상태에있다는것을확인하는데서시작하자.

멜서스에대한탁월한전기작가샤를콩트씨는이렇게말한다. “멜서스는정치경제학에는일정한한계안에갇혀있는만큼만참인원리들이존재한다는심오한확신을품었다. 그는복잡한원인들의빈번한조합에서, 원인과결과들의서로에대한작용과반작용에서, 그리고한계를두거나중요한명제들다수에예외를두어야할필요성에서그과학의주된난점들을보았다.”

이것이야말로멜서스가정치경제학에대해생각한것이며, 우리가이순간출간하는저작은그의관념의증명일뿐이다. 이증언에우리는그에못지않게믿음직한다른하나의증언을결합한다. 도덕및정치과학아카데미의최근회의들중한회의에서, 파벌의이해관계에도, 무식한반대자들이불러일으키는멸시에도현혹되지않는정말로우수한사람인뒤누아예씨는멜서스와마찬가지로솔직함과고양된감정을가지고같은고백을했다.

“정치경제학은일정수의확증원리들을가지고있고, 정확한사실들과잘도출된관찰사항들의상당한양에의존하지만, 그럼에도아직은확고한과학이되려면먼것으로보인다. 정치경제학연구가펼쳐져야할장의넓이에관해서도, 그연구가대상으로삼아야할근본적대상물에관해서도완전한동의를이루어져있지않다. 정치경제학이포괄하는작업들의총체에관해서도, 그작업들의잠재성이연결되는수단들의총체에관해서도, 그어휘가형성된단어들의대부분에연결시킬필요

으로보인다. … 내가더무엇을말할것인가? 이는말하자면사실에대해파악된창조자체다!

그리고우리에게우화와같이여겨지는, 우리의판단습관을뒤집으며끊임없이 우리의이성을반증하는이세계, 우리를감싸고우리를꿰뚫고, 우리를격동하면서 도우리가영의눈으로밖에보지못하고, 기호들로밖에만지지못하는이이상한세계, 이는사회이고, 우리들이다!

그효과들, 즉그신호들에의하지않고누가독점과경쟁을보았는가? 누가신용과소유권을만져보았는가? 집단적힘, 노동의분업, 그리고가치는무엇인가? 그리고그렇기는하지만이모든것보다더강하고더확실하고더분간이잘되는것이무엇이있는가? 밭아다져진땅위에여덟마리말이끄는, 그리고옛날식겉웃을입은 남자가모는마차를멀리서보라. 이는동물의힘에의해네바퀴로움직이는물질덩어리일뿐이다. 당신은거기서외관상생리적현상에의해정해진기계역학적현상만을발견할것이다. 그너머에서는더이상아무것도감하지못한다. 더앞으로궤뚫어보라. 이남자에게그가하는것, 그가원하는것, 그가어디로가는지, 어떤생각에힘입어, 어떤명목으로그가이수레를굴리는지를물어보라. 그러면그자신이 그의행렬의섭리이므로, 곧당신에게문서를, 그의권위와그의섭리를보여줄것이다. 당신은이문서에서그가마차꾼이며, 이자격으로일정량의상품운송을중량과거리에따라행한다는것, 그는자신의서비스에대한대가를압류당하지않으려면 일정한도로와일정한시한안에길을가야한다는것, 이서비스는마차꾼쪽에서는 물건들의불가항력과고유의결함에서와는다른원인들에서유래하는손실과손상에대한책임을함축한다는것, 차량의가격에는예기치못한사고에대한보험, 그리고권리의암초이면서법률가들의골칫거리인천가지다른세부사항들이포함되거나포함되지않는다는것을읽게될것이다. 내가말하노니이사람은손만한크기의 종잇장에우리에게무한의질서, 경험과순수이성의생각할수없는혼합물로서사람의모든천재성이우주의경험의도움을받아서도사람이집단적삶에들어가기위해개인적생존을떠나지않았다면발견하기에무능력했을질서를계시해줄것이다.

실제로, 노동, 가치, 교환, 유통, 소비, 책임, 소유권, 연대성, 연합등의이관념들에대한전형은어디에있는가? 누가그표본들을제공했는가? 반은물질적이고반은분간이되는이세계, 반은필연이고반은허구인이세계는무엇인가? 노동이라고불리는이힘, 우리가더자유롭다고스스로믿는만큼더욱더확실하게우리를이끄는이힘은무엇인가? 우리를거지지않은불꽃으로, 우리의기쁨과고통의원인인불꽃으로태우는이집단적삶은무엇인가? 우리가살아가는한, 우리가있는한, 우리도감하지못한채로, 그리고우리능력들의크기와우리산업의전문분야에따라모든것이역시생각하고혼자서돌아가는엄청난기계의생각하는용수철, 생각하는바퀴, 생각하는톱니바퀴, 생각하는저울추등등인것이다. 과학은이성과경험의합치를원리로삼는다고우리가말했다. 그러나과학은경험도이성도창조하지않는다. 이와다르게우리에게아무것도경험에의해서도, 이성에의해서도 선형적으로주어지지않는과학, 인류가모든것을, 물자체도현상도, 보편개념도

145,062

1841~1843

151,624

이재미있는통계의저자는다음과같은말로결론을짓는다.

“범죄와경범의건수는그러므로급속하고가속화된방식으로증가한다. 이처럼인구의인평균증가가 1000 분의 5 도채안되고더늦어지는경향을 띠는 반면, 1000 을기준으로한연평균증가는범죄종류별로다음에달한다.”

“인구의증가가늦추어지는반면범죄및경범건수는증가하는경향을 띠는다. 그리고이증가는프랑스에만특별히해당하는것이아니다. 그것은심지어여러이웃 나라들에서보다프랑스에서덜하다.”

증가율

종류

5.7

공적사안에대한범죄및경범

7.8

도덕관념에대한범죄및경범

사람들에대한범죄및경범

소유재산에대한범죄및경범

그건수가무수한삼림관련경범외의위반

자살

범죄와경범은자살, 질병, 신경의무더짐과마찬가지로빈곤이흘러가는문물이다. 공식수치에따르면, 인구의평균증가는 1000 분의 5 인데, 범죄의증가는 총계가 31.2 여서극빈층은우리에게멜서스이론에따라우리가기다릴여지를가진것보다 6 과 4 분의 1 배빠르게도달하는결과가된다. 이불비레는무엇에관련되는가?

같은것이다른방식으로증명된다. 일반적으로여러민족이극빈층의사다리에 서부의사다리에서와같은순위를차지한다. 영국에서는다섯명에한사람이궁핍한자다. 벨기에의북데파르트망에서는여섯명에한명이그렇다. 프랑스에서는아홉명에한명이다. 에스파냐와이탈리아에서는서른명에한명이다. 터키에서는쉰명에한명이다. 러시아에서는백명에한명이다. 아일랜드와북아메리카는피차에

## 제 14 장 요약과 결론

사람들은 뉴턴이 발견한 사항들의 엄청난 힘을 표현하기 위해 그가 인간 무지의 심연을 드러냈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뉴턴은 없으며, 우주 과학에서 이 위대한 사람에게 후세가 배당하는 몫과 같은 몫을 경제학에서는 아무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뉴턴이 전혀 집착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나는 감히 말한다. 천상의 심오함은 우리 지성의 심오함만 같지 못하며, 우리 지성 안에서는 경이로운 체계들이 움직인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처럼 공간과 시간 바깥에 존재하는 새로운 미지의 영역, 그곳에 우리의 눈이 무언의 찬미로 바닥 없는 심연에서처럼 뛰어든다.

마치 땅이 어떤 힘 때문에 안쪽 깊은 데서 하품하며 지하 세계의 거주지들과 신들에게 미움 받은 창백한 왕국을 드러내려 하는 것과 똑같았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엄청난 심연이 보였고 죽은 이들의 영은 빛이 들어 가니 공포에 빠질 참이었다.

Non secus ac si qua penitus vi terra dehiscens  
Infernas reseret sedes et regna recludat  
Pallida, Dis invisae, superque immane barathrum  
Cernatur, trepidentque immisso lumine Manes.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lib.VIII.

기기가 영원한 힘들이 서로 밀치고 서로 부딪치고 서로 균형을 잡는다. 거기가 섭리의 신비들이 밝혀지고 속명의 비밀들이 드러나 보인다. 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시화되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 물적으로 되고, 관념이 실물, 지극히 환상적인 유토피아보다 천배는 더 경이롭고 더 웅장한 실물이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는 그것의 단순한 공식에서 이 방대한 기계의 일치성을 보지 못한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 장치의 종합은 여러 세대들의 행복과 빈곤을 부수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아직 우리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 우리는 사회 경제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자연에 표본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유례 없는 사실들에 대해 끊임 없이 특별한 이름들을 짓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초월적 세계로서 그 원리들은 기하학과 대수학보다 상위 원리들이고, 그 위력들은 인력도, 어떠한 물리력도 드러내지 않지만 기하학과 대수학을 하위 도구들처럼 사용하고 자연의 위력들 자체를 그 재료로 삼는다. 끝으로 이는 시간, 공간, 발생, 생명, 죽음의 범주들에서 벗어난 세계로서 거기서는 모든 것이 영원하면서 현상으로 나타나고 동시적이면서 계기적이고, 제한적이면서 무제한이고, 무게를 잴 수 있으면서 잴 수 없는 것

부, 자녀는 쓸데없는 것들이다. 사랑의 가시적 형태들은 그들 밑에 있고, 그들을 돕기보다는 괴롭히는 것은 모습들이다. 그들은 반응 없이 사랑을 즐긴다. 온 인류는 그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신랑, 신부, 아들, 딸을 대신해 준다. 모든 다른 결합은 그들에게는 타락이고 형벌이다.

내가 논지를 지나치게 가다듬는다고 사람들이 주장한다면 나는 그만 두겠다. 나는 노동의 가중화의 의무서운 법칙에 매달리며, 이항거할 수 없는 진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본과 행복을 늘리도록 승장구하는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언제나 우리의 과제에 얼마 동안 을 더해주고, 우리의 집에 약간의 알곡을 더해주는 이 진보에서도 래할 것을 내게 말해주시기를 바란다. 둘중 하나다. 인류가 노동에 의해 성인들의 사회가 되든지, 아니면 독점과 빈곤에 의해 문명이 엄청난 프리아포스 신축제일 뿐이든지 할 것이다. 사물이 흘러가는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노동과 임금의 처지들을 온통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면 노역의 일체의 증대, 따라서 부의 일체의 증대는 우리에게 곧 불가능해질 것이다. 토지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오래전에 우리의 생산은 멈출 것이다. 극빈층과 범죄는 언제나 증가할 것이다.

대부분의 문명국들에서 평균 노동 시간은 이미 열두 시간이다. 그런데 인구가 두 배로 늘어 나려면, 사회에는 네 배의 생산이, 따라서 또한 네 배의 임의 지출이 필요하다. 이 네 배 증가가 우리의 불평등한 사회에서 독점의 약탈과 소유권의 횡포를 가지고 생겨나는 것이 가능한가? 사회 경제의 현 조건에서 노동과 부의 이 증가가 불가능하다면, 노동자가 더 많은 것을 만들기를 사람들이 바란다면 노동자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자를 야만 상태가 그의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붙들어 놓는 억압에서 해방시키려면 노동자를 교육으로 훈련시키고 복리로 그를 고상하게 만들고, 덕으로써 그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덕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훈련이란 무엇인가? 노력이란 무엇인가? ... 우리는 원을 맴돈다. 그러나 이 원은 인류의 원이고, 섭리의 원이다. 인류는 쓸모, 아름다움, 의로움과 거룩함의 해 균형에도 달한다. 아카데미에서 제기한 문제, 물적 복리의 진보와 그 취향이 여러 인민의 도덕성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들과 함께 풀린다. 복리와 덕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

외적이 고상반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전자는 두 명에 한 명이 상인 놀라운 비율이고, 후자는 천 명에 한 명 그리고 그 미만도 될 수 있는 비율이다. 이처럼 정치 경제학이 규칙적으로 작동하는 밀집한 인구를 가진 모든 나라에서 빈곤은 전적으로 소유권에 의해 노동 계급에 야기된 적자 로 이루어진다.

1789 년 이전에 보호소에서 발견되고 부양되는 자녀들의 수는 40,000 명이었다.

- 1800 년에는 51,000 명으로 상승했다.
- 1815 년에는 67,966 명으로 상승했다.
- 1819 년에는 99,346 명으로 상승했다.
- 1834 년에는 129,699 명으로 상승했다.

나는 1846 년의 수치가 얼마인지 모른다. 이해의 「주르날 데 제코노미스트」는 연평균 사생아 수를 75,870 명으로 보도한다. 이로부터 위의 급수에 따라 현재 보호소에서 부양되는 사생아 수는 16 만 명보다 적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허락된다. 1789 년에서 1846 년까지 인구는 반도 늘지 않았다. 반면에 부는 다섯 배 늘었고, 도덕 관념도 개선되었다. 그리고 사생아 수는 네 배로 늘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매년 가족에 대한 권리, 혼인권 jus connubii 이 박탈된 소년, 소녀가 32 만 명 있고, 인구가 정체한 상태로 있는 가운데 소유권의 침략 행위들은 한눈에 보아도 프롤레타리아트를 키운다는 것이다.

나는 다른 데서 (제 4 장) 경제학자들이 관찰한 평균 신장의 감소를 언급했다. 의심되는 것으로 물리 칠 수 없는 사실은 노동 중단을 시키고 생존 수단을 사라지게 하는 흉작에 따라 갑자기 생겨나는 것과 같은 우발적인 빈곤이 아니라 종 전체에 닥치고 사회라는 몸의 모든 지체들을 심각하게 공격하는 체질적이고 만성적인 빈곤을 증언한다. 확실히 여기에는 호기심을 활발하게 자극하면서 맬서스의 원리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 빈곤은 수단이 없는 개인들에 닥쳐서 살아있는 사람 수에서 가난한 자들을 빼내는 데 만족하지 않고 종의 집단에 영향을 주고 연대적인 고생을 통해 그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인류가 미지의 악, 생존 수단의 부족보다 더 높은 데서 오는 악으로 죽는다는 것을 한번 더 말해주는 증거다. 우리에게 이 악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해 줄 텐가?

사람들은 이 사실에 평균 수명의 연장을 대치시킨다. 능숙한 통계학자들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인민에 관해서 이 수명 연장이 가지는 환각적인 점을 보여주었다. 나는 두 건의 관찰을 조화시키고 설명하는 한마디 말만 덧붙일 것이다. 내가 주장하듯이 우리의 소유권 조직에서 극빈층이 계속해서 노동보다 앞서 생겨나는 것이 참이라면, 이미 리 생겨남이 갑작스러운, 때 이른 죽음에 의해 발현되든 아니면 단지 때 이른, 그리고 오랫동안 겪는 고뇌에 의해 발현되든 상관 없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면, 평균 수명의 수치가 유지되고 심지어 올라가면서도 빈곤이 항상 커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죽는 자들이 병 없이 산 시간보다 그들의 나이는 덜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제학자들에게 그들의 통계를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한가?

더많은증거들을축적하는것은쓸데없는일이다. 사실은모든사람에게알려져 있다. 각자는이러질문하고거기서결과들을도출할수있다. 빈곤이시기상으로앞서는것, 이아말로야만상태를가르쳐주는모습인것처럼소유권체제를가르쳐주는모습이며, 내가멜서스에게들이대고그의이론을허무한것으로만드는중대하고보편적인사실이다.

압도적인다수의사실들에의해확증된과학의자료들에따르면, 인구는그비율이 2 인기하급수에따라증가하는경향을띠는반면에, 이인구의작업인부의생산은그비율이 4 인기하급수에따라증가하는경향을띤다. 그러나실무에서는이비율은뒤집힌다. 인구의증가잠재력은 1, 2, 4, 8, 16, 32, 64...의기하급수에의해변함없이표현되는반면, 생산의증가잠재력은 1, 2, 3, 4, 5, 6, 7...의산술적계열로만표현된다.

그러면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이여, 당신들은감히우리에게빈곤을말한다! 그리고당신들에게당신들자신의이론의도움을받아인구가두배로늘어나면생산은네배로늘어난다는것, 따라서빈곤층은사회경제의교란에서만생길수있다는것을증명해줄때, 당신들은대답대신문제로제기하는것이더무니없는것, 인구가생산을초과함을비난한다!

당신들은우리에게빈곤을말한다! 그리고당신들에따르다면인구의초과가극빈층을정해준다고하지만극빈층이인구보다훨씬더빠른급수로증가하는것, 따라서저아래에당신들이감하지못하는비밀의원인이존재한다는것을당신들의통계를손에들고서보여줄때, 당신들은모르는체하고멜서스의이론을끊임없이앞세운다!

당신들은인구증가의이잠재력을사회주의를막는방패로삼는다! 그리고옛날사람들이우리가어려운과제, 그리고당신들이방치한과제, 애덤스미스, 리카도, 장바티스트세, 심지어멜서스같은이들의과제에다시착수해약탈적인원리를당신들은앞에폭로할때, 우리가당신들에게인류는언제나빵과토지가모자라기전에습격을당한다는것을증명할때, 당신들면전에서우리가소유권자의횡령, 자본주의적허구, 상인의도둑질에메커니즘을전개할때, 당신들은아무것도보지않기위해눈을감고, 아무것도듣지않기위해귀를막고, 양심에굴복하지않기위해가슴을닫는다! 세기의악이당신들에게는가난한자의권리보다더소중하며당신들패거리의이익이과학의이익보다앞선다!

그러면좋다! 당신들이경솔함과인구를외치는한에서는우리쪽에서는위선과강도질이라고외칠것이다. 우리는당신들에게노동자들에게대한불신을지적해줄것이다. 그리고우리를살해하는착취와우리를더럽히는치욕에대해책임을져야할사람들은당신들, 오직당신들이다. 우리는어디서나천둥소리로거둬말할것이다. 정치경제학은빈곤의조직이며, 도둑질의사도들, 죽음의제공자들은경제학자들이라고.

오늘날모두에대해, 그리고모두에맞서, 논리에맞지않게, 그리고경험에맞지않게가치의불안정성, 생산물들의공측불가능성, 산업적힘들의균형상실을주

해, 그리고사랑을위한손실없이완벽한동정을지키며살수있는것은남자의특권이다. 또한우리세대를괴롭히는사랑의어리석음이일단지나가면처녀들의수, 복음서에서말하는, 천국을위하여스스로고자된 (qui se castraverunt propter regnum coelorum) 자들은매일증가해야한다. 그리고결혼할능력을가지면서독신의희생에동의할자들이누구인지묻는다면, 나는주저없이대답할것이다. 오늘날방증가운데사는자들자신들이라고. 그동기와대의大義에서무효가되어버린독신은다시명예롭고순수하게될것이다. 그러한것이반대항들의법칙이며, 우리에게는운명의말자체인법칙이다.

그리스도교는처녀성을모든덕목위로높여그것을사제들을위한의무로만들었을때이런미래를예감한것이다. 거기서는다른많은것들에서처럼그리스도교는예언적이었다. 이는성찰이스스로철학자들의글에서말하기를기다리며인민을선동하도록교황들의입에서표명된사회적자생성이었다. 그리스도교는순결한사랑, 진정한사랑의관념을낳았다. 그것은여성을남자의조합결성자라도, 동등자라도생각하지않았으며, 인간의분할되지않은부분으로생각했다. 내뺨중의뺨요, 내살중의살이다 (os ex ossibus meis, et caro ex carne mea). 인도인이부부의사랑을형제의사랑과혼동하고, 아랍인이이를내연관계밀으로일부다처제, 노예제에의해깎아내리고, 로마인은어머니를그자녀들각자의몹과같은몹으로상속에들어가게하는법안에서아버지의사랑에부부의사랑을동화시킨때에그리스도교는부부의사랑을다른사랑들과구분했다. 그리스도교는끝으로자발적동정童貞에서가장순화된형태를세상에게시했다. 이는교회의가르침에따르면영혼과그리스도와의신비로운결합, 즉지속적인약혼말고다른것이아니다.

실제로남자가자기어머니안에서, 자기누이안에서, 자기여성선님안에서, 자기신부안에서, 자기딸안에서찬양하는것은무엇인가? 이는자기자신, 인류의이상이므로그에게는가장매혹적이고가장부드러운형태로나타나는것이다. 신화와언어가우리에게이를드러내준다. 남자는자신의모든미덕을여성화했다. 그는그미덕들을예배했는데, 이는신들에게하는예배로서가아니라여성들에게하는예배로서한것이다. 테미스, 비너스, 히기에이아, 팔라스, 미네르바, 헤베, 케레스, 유노, 키벨레, 뮤즈, 곧정의, 아름다움, 건강, 지혜, 웅변, 젊음, 농업 (고대인들의정치경제학), 부부의신의, 모성, 학문과예술이다! 이런이름들과이런신성들의여성은어떠한분석보다, 어떠한증언보다모든시대에여성이나남성에게의미한것을더잘보여준다.

그러는데어떤이들이있는데, 이들은미적감각과그것이낳는사랑이나주생기있고아주순수해서, 말하자면이들이찬양하는인간적이상을파악하기위해어떠한형상이나실재도필요하지않은이들이다. 아니, 차라리이상은어디서나마찬가지로그들의눈에드러난다. 유명한다윗이스스로에대해말했듯이그영혼들에게는추함이존재하지않는다. 그들의영혼은너무고상하고, 그들의지성은너무순수해서이를감하지못하는것이다. 페들롱, 빈첸시오드폴, 성녀테레사, 수많은동정녀들과수많은성인들이그들이다! 이런선택받은가슴의소유자들에게신랑, 신

깨자는 것을 호메로스가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들은 간통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 불의의 죄인들인 젊음, 우아함, 정신은 여전히 그들을 진심의 베일로 덮어주는 것 같다. 그러나 사투르누스와 레아, 데우칼리온과 피라, 다윗과 아비삭은 나를 화나게 한다. 부부의 명목은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은 외설적이다.

남자는 사랑이 그에게 모순이 되면서부터 남편의 권리를 상실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기록해지면서부터! 그들이 서로를 순수정신으로 간주하면서부터. 왜냐하면 진실로 그들은 더 이상 몸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남자는 그의 감각의 퇴화가 그에게 금지하는 즐거움을 계속 맛본다면, 망측한 불꽃으로 그의 나머지 날들을 태울 것이다. 그의 사후의 연인들은 그를 그의 아내에게 역겹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의 자녀들을 화나게 할 것이고 그에게 대모두의 멸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의 방탕한 노년은 불명예를 당할 것이다. 그의 아내는 그의 부끄러운 요구들 때문에 도도해져서 그를 노예로 취급할 것이다. 그의 이성 은치육중에 소멸할 것이다.

정의, 수치심, 존엄성 모두가 여기서가 부장에게 절제의 법이 된다. 그런데 이 성이 마련해 둔 것인 노동이 자연의 고갈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달성한다. 오랜 노동으로 덕을 개발한 남자, 사랑이 격정의 횡포에서 벗어나 아름다움과 동일시하는 남자는 스스로 애쓰지도 후회하지도 않고 옛날 그것들을 그에게 소중하게 해주었던 것과 같은 매력을 가지고 그의 섬세한 마음을 해치는 쾌락, 그의 자녀들에게 남겨진 재물로서 말고는 그에게 관심사가 아닌 쾌락을 포기한다.

이 원리에 따라, 결혼이 남자에게만 28 세에, 여자에게 21 세에 성립하고 평등 가운데 유묘의 활용은 사라지고, 수유 기간은 15 개월이나 18 개월로 줄어 들고 가 임기는 10 년에서 15 년으로 갈 수 있게 되면서 동일한 결혼에서 나오는 자녀의 수는 다섯 명 이상으로 많아지기 어려워질 것이다.

- 이 숫자로부터 다음을 공제한다면,
- 불임, 과부, 결혼의 지체, 사고, 임신 중절 1.5
- 결혼적령기 이전 사망 (오늘날 그 수치는 50% 를 크게 초과한다) 2.5
- 독신 0.5
- 합계 4.5

약 30 년 전의 각 기간당 인구는 이렇게 10 분의 1 밖에 늘지 않아서<sup>7</sup> 두 배가 되는 것은 세 세기 만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출생수는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띠며, 두 배가 되는 기간은 두 가지 이유로 연장되는 경향을 띤다. (1) 노동의 끊임없는 증가와 새로운 도덕 개념의 발달에 따른 가임 기간 단축, (2) 독신자 증가.

사회의 질서에서 비록 모두가 사랑을 할 운명 이에 정되었을 지라도 모든 남자가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될 운명 이에 정된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단지 덕의 개발에 의

<sup>7</sup> 가임 기간 15 년을 수유 기간 18 개월과 임신 기간 9 개월의 합인 27 로 나누면 6.7 이 되고 여기서 4.5 를 빼면 2.2 가 되어, 한 세대에 10 분의 1 의 인구가 증가한다. 여기서 저자 의 계산 방식은 불명확한 점 이 있다. -역자 주

장하는 자는 누구인가? 경제학자들이다. 분배의 불평등, 교환의 자의성, 경쟁의 함정, 파편적 노동의 압제, 기계들의 갑작스러운 이행을 옹호하는 자는 누구인가? 경제학자들이다. 비생산적 질서의 우세, 자유 무역의 거짓말, 신용의 신비화, 소유권의 남용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는 누구인가? 경제학자들이다. 영국의 사주를 받아 아무 정부, 사기와 강탈의 체제를 우주에 적용하려고 자유 무역 연맹을 결성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전히 경제학자들이다.

그리고 완화와 평화의 언어를 구사해 감히 다음과 같이 쓰는 것은 당신들이다. “가장 반대되는 학파들이 노동자들을 미혹하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빼앗아 아이들을 화나게 하고, 다른 이들은 이들을 유혹하는 믿을 수 없는 이론들을 이용해 무질서로 가도록 자극한다. 끝으로 더 인간적이기도 하고 더 현명하기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괴상한 권리에 대해서도, 숙명적 필연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온전한 진실을 감히 말하지 않거나 말할 줄을 모른다!”

그러므로 일단 이 진실을 말하라. 그것이 순전히 당신들 입에서 나온다고. “그렇다. 임금은 최소한의 필요를 초과할 수 있다. 그렇다. 노동자에게 절약이 가능하다. 노동자가 어떤 제조업 지구에서 고생한다면, 노동자가 명예로운 안락가운데 살아가는 다른 제조업 지구들도 있다. ...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가? 핵심적이고 주된 원인이 둘 있는데, 이는 신경제학자들과 자칭 박애주의자들의 모든 불평보다 강한 원인들이다. 그 차이는 노동자들의 행실에서, 그리고 인구와 유동자본의 비율에서 나온다.”

로시씨, 내가 선생에게 정말로 이 말을 하겠소. 선생에게는 심장이 없소. 선생은 다른 이들보다 사려 깊지도 못하고 용감하지도 못하오. 선생은 진정한 원인들에는 입을 다무는 군요.

노동자들을 미혹한다고! 이는 기조씨의 과격파들을 닮았다. 과학자들이여, 우리를 가르치라. 그러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참된 것 말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도록 하라. 당신들의 얼버무림은 당신들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꾼의 행실은 악하다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사람들이 그를 정당하게 대우 해주지 않은 데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가 받는 임금의 크기가 문제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그의 행실을 말하라. 그러므로 선생, 하루 열네 시간의 노동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는지를 말해 달라. 그리고 선생이 일꾼의 노동에 관해 오류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선생은 선생의 노동을 얼마로 산정하는지 말해 달라. 우리는 선생의 수치를 척도로 삼을 것이다.

유동자본은 인구와 무관하다! 소유권은 자본이 유통하는 것을 막는다. 실제로 소비자가 스스로 4 에 제공하던 것을 구입하는데 5 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유통될 것인가?

“질서, 절약, 도덕성이 결여된 일꾼은 빈곤의 늪더기를 결코 떠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인구가 ... 라고 덧붙여 말하라.” 결혼의 사려 분별에 대한 권고 가 이어진다.

늘꾸지람이고, 늘이가난한일꾼의행실탓이다! 그러니위선자는아직죽지않았다! 우리의후견인이우리의재물을취하는것은우리가무능하고형편없는강도들이기때문이다. 한량이노동자의육체노동의수고를먹어치우는것은그가살아가는법을가르쳐주기위한것이다! 그렇다면자비와절제의선교사들이여, 술선수범하는것으로시작하라. 가자. 아들들은여집사를떠나고, 아버지들은하녀들과헤어지고, 결혼과성매매의연령은모든사람에게늦추어지도록엄격한형벌을만들라. 왕에서부터군속에까지모든종류의서비스에가격표를만들고, 돈의이자는정당한율로되돌리고토지의지대는모두에게배분되게하라! 그러면우리는경제학자들의천재성과선의를믿을것이다!

월리스 (Wallace), 콩도르세, 고드윈, 오언의공산주의적가설들에대담하면서, 그리고빈곤의직접적원인에관해그에게해명해줄수있는아무것도거기서찾아내지못해끊임없이자기의기회급수로되돌아와서정직한초조함에서다음과같이외쳤을때, 맬서는진심이었다. “하지만어떻게공동체에서생산이인구수준을불잡을것인가? 태어나는것을막는장애물없이어떻게인류가굶주림으로죽지않을것인가?”

우리가입증한것은오늘날완전히다른것이다. 이는바로맬서가생각지도못한것, 즉조직된사회안에서부와생존수단의생산은인구자체보다더급속한진전을이룬다는것이다. 빈곤을설명할필요가있는데, 맬서스처럼분간할수없는공식, 신화에만다다른동어반복으로써가아니라우리견해로는극빈층의직접적이고체계적인원인인소유권자의일상관행을정당화함으로써설명할필요가있다. 우리의모든경제학자들, 영국, 프랑스, 그리스도교, 유물론, 절충론경제학자들이 50 년전부터그찬양자요향상이되기를기뻐했으므로사람들은산술급수의맬서스식어리석음을가지고우리를침묵시킨다고믿는가?

하지만우리는아직우리적대자들의마지막논리를듣지못했다. 승리의개가를너무서둘러부르지말자.

로시씨는다시일어나면서말한다. “우리제도들의해악, 조건들의과도한불평등, 토양의고갈될수없는비옥성, 지구표면에남아있는, 그리고해외이주로채울수있는엄청난빈공간에관해사람들은우리에게무엇을말하고있는가? 이모든것은문제의밑바닥에닿지못함이명백하다. 왜냐하면우리가이모든점들에관해가장큰양보를한후어떤결과가나올까? 이는단지하나이상의나라에서고통과불행의다른원인들이가부장들의유죄가되는경솔함에더해지게된다는것, 그리고과도한인구들이흔히더나은정부아래서, 더공평한사회조직안에서, 더활발하고더자유로운상거래안에서, 혹은더큰해외이주체제속에서일시적인완화를발견할수있으리라는것이다. 그렇다고해서재생산의본능이사려분별과높고어려운도덕성에의해결코고빠가채워지지않는다면이모든수단들은결국고갈되리라는것, 그러면해악을완화시킬일시적치료수단도, 이를누그러뜨릴진통제도더이상없는만큼해악이더욱현저하게되리라는것이덜진실인가?”

모든경제학자들은로시씨의이생각으로몰려든다.

입법자는신체적역량에만관심을두었다. 주권자로서가아니라생물학자로서말한것이다. 그리고또한뒤떨어지는것을두려워하는듯이제 145 조에서이렇게덧붙인다.

“왕이그비용을대는것은허락된다.”

다행히도공공의이성과사물의힘이이점에서법령의착오를교정한다. 누구나남자이고먹고살수단을벌때는결혼한다. 교육을마치는데필요한, 그리고매력으로충만한연구로, 즉내핍으로채워져야할연기延期만이사람의머릿속에들어온다.

그런데결혼시기와관련해서, 자연에서주어진자유가질서라고상식적으로믿지않았다면, 반대방향으로취해진같은자유가범이라고, 그리고남자에게는일단결혼하면생명의온기가다할때까지번식능력을행사할의무가있다고말할수있는가?

인구의가능한증가는그것의자연적증가와같은것이아니라고루동박사는아주잘말한다. 그렇지만생식잠재력의지속은반드시그활동성을보여주는척도는아니다. 동물들사이에서암컷들은임신과수유동안에는몸을피한다. 남자는자기에게고유한법칙을가진다. 그의존엄성과더관계깊은법, 이는그의자녀들의청소년기다. 나는방금자녀들에대한중중은부모에게금욕의의무를만들어준다고말했다. 더심각하고려사항들도이법을확증해준다.

그러면우선자녀들에대해서는정의正義가있다.

사람은사춘기전부터자신을쓸모있게만들수있다. 교육은제대로말한다면스승의수업들을수습생의서비스로교환하는것일뿐이다. 이는점점더커져서스승의배려를보상해주면서동시에부모의선지급을충당하는데소용되는서비스다. 이와같이수습계약에서우리에게가르침의참된원리를드려내주는대중적이성이이를원한다. 아이가아무것도생산하지않는한, 그의생존수단전체가그의아버지의부담인한, 그는아버지에대해아무런권리가없다. 그는사람들이그에게공동상속인을생기게하는것에불평할수없다. 그러나그가노동할능력이있게되면서부터, 그가부양하는데힘을보탬동생들이주어지는것은그가받은것보다더많은것을그에게요구하는것이며, 그를그가남지않은자들의아버지로만드는것이며, 그를가족에서내쫓는것이다. 그러므로정의에의해지시된자연적한계가자녀의출산에는있다. 수습의이론에서도출된이동기는최고의동기다.

부부쪽에서는순결은겸손과정직의절박한의무가된다. 통념적정당성을이성적정당성과구분할필요가있는것은특히이지점이다. 마흔살무렵남자는감정의시적정취와활력, 섬세함, 형태의우아함과순수함등의의젊음을구별해주던것들을잃기시작하고그의존재전체에닥친변화는그에게사랑을포기하라고명령한다. 그를아주순결하게해주던아름다움이흐려져가면서즐거움이변질해파렴치로된다. 노인들의사랑은왜우습고역겨운가? 이는그것이그사랑을미학적으로정당하게해주는조건들을결여하는것이기때문이다. 시든감각에서실현되어어는더이상사랑이아니고, 사랑의짐이다. 매달려있는침대위에서파리스와헬레네가함

그의푸르른청년기에처녀의보호자, 동료, 순결의동참자였던것이얼마나기억할 일인가! 세기는이참된즐거움을불쌍히여겼다. 사회주의와낭만문학은우리의세대를발정한상태로해놓았다. 철학은예를제시하며재주있는여성들은산파역할을한다. 그러나방탕의과잉은그자체가이이상理想의필요성에대한증거다. 이것바깥에서는사람에게행복도존엄도없다. 사회는성애적묘사들, 어떤것들은순수성을빼앗고, 다른것들은격정처럼끌려가며그러나언제나경이로운, 따라서덜거칠고덜물질적인세련미가박힌묘사들의무더기속에서변신을꿈꾼다. 그가짓밟은수치심의나름대로의순교자인조르주상드를보라. 아스파시아와같은유녀이고루크레티우스같은송사작성자인조르주상드는잔 (Jeanne) 을써서천재성의이반격으로써그의불순한천미자들의저속한격정에항의한다.

그러나신부가신랑에게주어질시각의종이울린다. ... 시작되는것은노동의위대한시기다. 이는사람이자기능력들의충만함을즐기고사랑이그의영혼의모든현을진동하게하며, 기억들의현존이그의가슴의모든즐거움을느껴지게만들어주는순간이다. 아들, 형제, 연인, 신랑, 이제곧아버지로서그는어디서나사랑하고, 포화상태가되도록사랑한다. 그의삶은충만하다. 그는천재성과아름다움이한창인상태에있다. 줄어드는것밖에할수없다. 그의소원의절정에달하자마자사랑은그에게그런신성과순수성을잃는것으로보이며, 그의모든노력은이제부터는벌써그를피해가는이이상을붙잡아두는것을지향할것이다!

다산성의시기는 10 년에서 15 년떨쳐진다. 10 년간의결혼경험은그의지성이시들거나그의가슴이타락하는것이아니라면사람을싫증나게하기에충분하다. 이경우에격정은약해지는대신만족감에서다시태어나며새로이대상들을구한다. 성적인폭발이불타오르는것으로다시나타난다. 그리고가족들안에번외와부끄러움을가져오는이폭풍이터지는것은이런식이다. 더많은사랑, 예술을위한예술과같이쾌락을위한쾌락이다. 남편은아내를향락의기계로만든다. 키르케는오디세우스에게활력을주면서동시에그를짐승으로바꿔주는일격을가한다. 즐기고, 또즐기고, 끝없이즐기며, 공격, 공격. 이런것이더이상사랑하지않는이들의비참한처지다.

끝으로쇠퇴의시대가온다. 이는감정이역방향으로정해지는시대다. 가부장지가슴속에서부부의사랑을계승하는것은장성하는딸에대한형언할수없는따뜻함의감정으로, 이는이아버지가슴에서쾌락의마지막흥분을내쫓는다. 온전하게가족에헌신하는어머니는그의신랑에대해친구의자격이상을바라지않는다. 새로운배반을한그어머니는예전여자형제, 아버지, 인자한어머니보다선호했던자리를이번에는자기의청소년아들을위해돌보지않는다. 우리는자식에게가장큰존경을보여야한다 (Maxima debetur puero reverentia)! 선생가족면전에서한비밀스러운음성이부부에게금욕을권유한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수치심이그대들에게명한다. 서로떨어져라!

“만 18 세가안된남자, 만 15 세가안된여자는혼약을맺을수없다.”(민법, 제 144 조)

멜서스의마지막편집자는이렇게말한다. “우리는이관찰을중대한것으로간주한다. 모든어조의사회주의자들에게충고한다. 사회상태를완벽하게할수록멜서스의주장을뒤집지않는다면인구의과잉은더욱두려워야할것이된다.”

그러나당신, 현명하게군다는조건에서우리에게하늘의도움을약속하는당신은그렇다면당신의격률을실천하는것으로시작하라. 사회는부조화를이룬다. 당신이해은양보가이를가정한다. 우선사회에균형을만들어주어라. 그리고쓸데없는일을하게될것을두려워말고어떤일이일어날지기다려라. 당신은완전히가설적인동향예측에만매달리며, 이에대해서는아무도인구가지구상에넘쳐나리라는동향예측이제시된다고단언할수없다. 그리고당신은꿈임없이당신을급감시키는실질적인악에서눈을돌린다. 나는당신에게이렇게말한다. “현재를치료하는것에서시작하라. 그리고섭리에대한당신의신앙이결코조롱이아니라면미래를좀덜염려하라.”당신은말한다. “인류는이로써일시적위안밖에얻지못할것”이라고. 누가이를당신에게확언하는가? 노동에서균형이성립되어도인구와부에서의인류발전의조건은달라지지않을것이라는점을당신은어떻게아는가?

벌써사람들은당신에게섭리적제도안에서생산이인구보다더빠르게행진하는것을보여주었다. 기근에는물짓은대신당신이당신의논제를위해이법칙을이용하는데조금도유념하지않은것은놀랍다. 실제로평등의체제에서노동은사랑보다더빠르게가서당신은약간의일반화뒤에어떻게토지가산출물을받아들이고모든사람을거주하게하기에충분할것인지를질문할수있었다. 아마도그럴때우리는이렇게대답하는것으로만족했을것이다. “신은위대하고섭리는여러조합을만드는데능하다. 의심할바없이이순간에우리가놓치고있는무언가가있다. 우리의활동영역이우리의능력과비례가맞지않는다는것은이상할것이다! ... 그러므로당신의통계를교정한후에우리가또한당신의논리들을다시세울필요가있는가?”

이와같이방금인구를위한빵이결핍될것을두려워한경제학자가이 측면에서는안심하고서속박장소때문에염려하려고한다. 그는우리에게이렇게말할것이다. “그렇지만우주에한계가있으니인구에도한계를둘필요가있다. 25 년마다두배가된다면다섯세기가못되어지구상에는 1000 억명이있게될것이다. 죽일어서서모두가서로몸이땅게땅을채우게되는데필요한사람수보다더많은것이다! 이는빈곤이아닐것인가? 아마혈벗음과기근보다더견딜수없는빈곤말이다. ...”

경제학자여, 그대의말을제지한다. 그대가제기해온문제는확실히철학자의명상거리로훌륭하지만방금처럼더이상인구와생산사이의문제가아니라, 인구와세상사이의문제다. 나는그대의취하를법적으로인정한다. 그러므로더멀리나가기전에다음을인정하자.

노동은그모든기관官들중합하고규율한것으로우리의생존수단을언제나우리의필요보다많은양으로배증할능력, 따라서인구의증가가얼마가되든우리의행복을꿈임없이증가시킬능력을보유한다는것.

빈곤은옛날야만시대에는게으름에서나오던것과마찬가지로문명시에는오로지, 경제적대관계에서나온다는것.

이처럼극빈층은정규적인사회에서는더이상두려워할것이아니어서풀어와할유일한문제는‘인구와지구사이의균형법칙은무엇인가?’라는것.

이결론들, 그리고이결론들을끝맺는문제는정치경제학의추락의소위所爲다.

### III. 인구균형의원리

I

인구문제는그것만으로책두권이필요할것이다. 공간이부족하며독자를속이지않고서는해결을더미룰수없다. 그러므로책대신에여기서하나의강령만제시해야한다면, 그리고이빈약한시론試論이더욱변적인것에영감을줄수있다면, 나를용서해주시바란다! 진실한개혁자인나는내가진리를차지하는것에개의치않는다. 나는제자들이아니라조력자들을구한다.

인구문제는경제학자들에게사람들과생존수단사이에제기된것으로서그해결은의심스러울것일수없었다. 이는죽음이었다. 온갖수단을동원해(per fas et nefas) 죽이거나태어나지못하게막는다. 이것이야말로좋은삶든멜서시론이도달해야할곳이다. 야말로여러민족들의실천이어야할것으로서, 빈곤에맞서일반적으로채택되고권고되는해독제다. 소유권과독단의원칙에충실하게정치경제학은소유권과권위에기초를둔모든입법처럼끝나야했다. 헌장을내놓고, 법전, 전례법규, 공식들을펼쳐보여주고난후에남은일은그강제이행수단을찾아내는것이었으며, 이강제이행수단을정치경제학은힘에서구했다. 멜서스의이론은정치경제학의형법전이다.

반대로진정한경제학인사회경제학은무엇을말하는가? 이는모든유기체는자신안에서균형을찾아내야하며, 그요소들의무정부상태에맞서예방책이나억압을쓸필요가없다는것이다. 그것은우리에게이렇게외친다. “당신의모순들을풀어라. 가치들의비율을확립하라. 교환법칙, 정의자체인이법칙을찾아라. 그러면우선당신은복리를, 그리고이복리에이어서상위의법칙, 지구와인류의조화를발견하게될것이다.”

우선경제적자의성으로부터인구문제에관해어떻게도덕의타락이나오는지를보여주자.

가치들사이에서비례의법칙이존재하지않고, 노동의조직도, 분배의원칙도존재하지않는다는가설로부터정의는하나의말이고, 평등은괴물이며, 모든사람을위한행복은그실재가결코이승에서는존재하지않는낙원의꿈이라고말할수밖에없으며, 결국이잘못된자료에의해부에서의진보는언제나인구의진보에뒤쳐진

노장이다. 이이중적진화는남자에게서와똑같이여자에게서도펼쳐진다고덧붙일필요도없다.

사랑의형태들은산업에서의등급들처럼배타적이고양립불가능하다. 즉동일한개인에게서동시에존재할수도, 같은것에, 같은사람에변함없이적용될수도없다. 산업인인노동의모든요소들, 그를끌어들이는전문분야의모든부분들을차례로통과해가는것처럼그는한꺼번에특정적사랑으로그의엄마, 그의누이, 그의여선생님, 그의아내나그의딸밖에사랑할수없다. 그가이자격들중하나의자격으로사랑하는사람을그는결코다른자격으로는사랑하지않을것이다. 우리에게중복된사랑에대해일정한혐오감을불어넣어그것에근친상간, 즉부정不貞, 잘못된사랑의결정이라는이름을붙이면서이법을제정한것은자연자체다.

다른사랑에의해제거된모든사랑은우정이라는일반적범주에들어가며이는애정의격류에서상실된다.

자기여선생님과결혼하는남자(가장일상적인경우)는일정수준까지규칙에예외가된다. 같은사람을성격이다른사랑으로두번연이어사랑한다는의미에서그렇다. 하지만, 자신의신부와사는것처럼여선생님과살수있다는의미에서그런것은아니다. 이는내연관계혹은단순한간음이라불리는일종의근친상간을이루며, 여성에대한다장큰도덕인것이다. 서로다른두장소에서사랑하는것을그가선택할수있다는의미에서도아니다. 이는간통이되는것이다. 게다가자유로운사랑, 자연적으로결합에선행하는이사랑은결혼을그필연적결과로삼지않는다. 서로결혼하는자들이여러사람에대해사랑을느꼈던것이사회에, 그리고사람들에게는심지어더났다. 그리고이는자유로운사랑을부부의사랑과구분하고이것들을서로양립불가능한것으로간주하는데충분하다.

사랑하는이한사람이다른모든사랑을대신할수있으며, 자연에의해정해진기한을넘어연장될수있다. 그러한것은자신의호심을늬울때까지보전하는독신자다. 그러한것은또한때가되기전에홀아비가되어자식의머리위로온갖애정을집중시키는아버지다.

사랑의이러한형태들을모르는사람, 이러한취향스들을전혀구별하지못하고미묘한점들을파악하지못하는사람, 이런사람은사랑에대해아무것도모르는것이다. 그는사랑의객설만아는것이고사랑에대해소설가처럼생각하는것이다.

이처럼노동과사랑은인생에서병행하는시기들에진행된다. 초년기에사람은감각과본능에온통매여있어결코노동자로서아직들어가고있는것이아니다. 그는받기만하고주지는않으며, 소비만하고아무것도생산하지는않는다. 자기엄마의사랑에만민감해서그는다른어떤감정도모른다. 우정자체를그는모른다.

곧그는그의애정들을생각하기시작한다. 그는예의범절의형태들, 알고행하는것의요소들을배운다. 그는학생이면서수습생이되었다. 그는동무들을가진다. 그리고부화된그의서늘한영혼에서형제적사랑의부드러운향기를내신다.

이매력적인초년기를잇는것은청년기로서순수하고수줍어하는사랑의시대인것처럼경쟁심과체육경기의시적인시대다. 가을에도달한인간의가슴에는

언어는이관계를성별한다. 덕, 라틴어 vir-tus 는 vir, 남자에게서나온다. 그리스어로는 arête 혹은 andrēia 인데, 이는 arês 또는 anêr, 남자에게서나온것이다. 반의어는라틴어 fortitudo 인데이는 fero, 휴대하다, fortis, 집꾼, robus, 딱갈나무와힘에서나온다. 그리스어에서는 rômê 인데, 이는맹렬한힘, 자연적활력이다. 히브리어는 geborrah 라고하는데, 이는 gebar, 남자에서나온다. 그리고반대로 éial 은생명력, éil 은반추동물들의수컷인데, 이로부터 élohim, 신이나온다.

신적인힘과상반되게남자의덕은그러므로이상에의한자언으로부터의해방이다. 이는활동과지식의모든영역에서자유이고, 사랑이다. 덕의반대는추함, 불순, 불화, 무례함, 비굴, 제약이다.

남자가속명에서벗어나점차자기자신에대한완벽한소유에도달하는것은덕(이날말에서이제부터우리는하나의관념을가진다) 에의해서다. 그리고노동에서매력이자연스럽게힘을계승하는것처럼사랑에서는순결이자생적으로음란을대체한다. 이순간부터사람은그모든잠재력에서성화되고, 노동에의해갈들여지고, 예술에의해고상하게되고, 사랑에의해영적으로되어그의존재안에서자연의산물인모든것에, 이성과자유지에서나오는모든것에명령하듯이명령한다. 사람은점점더신을이긴다. 이성이격정의한가운데서지배하며이성에이어서균형, 즉평온, 기쁨이발현된다.

사람은이때더이상여성을바라보고격정의눈물을흘리는불명예스러운노예가아니다. 그는천사로서그에게서순결, 물질에대한열시가남성성과동시에발달한다. 노예적노동이사람에게서침통하고저주받은무기력만을남는것처럼자유로운노동은과학, 예술, 정의에의해매력을띠게되어매력적인순결, 사랑을낳는다. 그리고곧이이상의도움을받아정신이언제나육신을이겨서사랑의완성이여성에대한힘을낳는다.

그러므로생식작업에대해말한다면사랑은그고유한한계를가진다. 부부의색욕은출산과수유처럼인생에서그시기가있다. 그리고이새로운진화에서다른모든진화들에서처럼자연의사자使者이며운명들의찬양자인사람은법칙을만들지않는다. 그것을발견하고실행하는것이다.

그러므로나는보편적감정을가지고사람의인생을주요한다섯시기로나눈다.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욕혹은생식기, 그리고성숙혹은노년기가그것이다.

남자는첫시기동안여성을엄마로서사랑한다. 둘째시기에는누이로서사랑하고, 셋째시기에는여선생님으로서사랑하고, 넷째시기에는신부로서사랑하고, 다섯이자마지막시기에는딸로서사랑한다.

사랑의이시기들은경제생활의비슷한시기들에상응한다. 유아기에는남자는말하자면꿇적이가지의상태로만, 혹은기계들의제작과유지를위해오래전부터준비된재료들로만존재한다. 그는사회의희망, 담보, 저당물이다. 청소년기에그는수습생이다. 청년기에는직인職人이다. 성욕기에는마이스터다. 성숙기에는

채로있다고주장하도록유도된정치경제학은사랑에서의사려분별, 결혼의연기, 그리고보조적인모든예방수단이라는말로결론을내리지않을수없다. 자연자체가무서운탄압으로인간의무분별을보충해주는것을보고싶지않으면그렇다고덧붙여말했다.

그런데정치경제학의말로자연이우리를위협한이탄압수단들은무엇이있는가?

1 순위로는소유권자의사회에서, 그리고그해석자인멜서스에게서기근, 페스트, 전쟁이소유권의고귀한작업의집행자들로등장한다. 그리스도교인과무신론자, 경제학자와박애주의자들얼마나많은사람들이오늘날에도그런것이실제로인구의자연적배출구라는것을확신하는가! 그들은체념하면서운명의요약적정의를받아들이며, 그들을치는손을침묵으로찬양한다. 이는이기심의논리들을그무기력함으로지지는이성의정적주의다.

그렇기는해도그러한원인들때문에창출된균형은심각한비정상상태를사회안에드러낸다는것이명백하다. 그러나이는바로우리의관심을끄는지점이다. 기근, 전쟁, 페스트는정상적, 자연적이고섭리적인균형의원인들로서어떤점에서, 왜, 어떻게이성에받아들여질수없는가? 우리와함께외관상아주명확한것들에관해잠시성찰해보아야한다. 우리가우리차례에서만들어내야할이론의확실성이이에달라있다.

사회가조직된존재라는것이참이라면, 그안에서생명이어떠한추진력이나외적반발력의도움없이여러기관器官들의자유롭고조화로운작업에서나오는것이맞다면, 결과적으로식량부족, 전염병, 학살등인구를가끔씩급감시키는것들은균형의수단이기는커녕반대로내적부조화, 경제의교란의징후들인것이다. 기근과막힘은소비와다혈증이인체에대해서의미하는것을사회에대해서의미하며멜서스가이현상들을특징짓기위해서사용한장애물들이라는용어는그가유기체, 경제그리고체계인것에대해가지는관념이얼마나잘못된것인지를보여준다.

그런데, 기근과다른자연의탄압수단이라고하는것들에관해우리가말하는것은인간이이파괴작업에서섭리를도우려고노력하는모든유사한수단들에적용되어야한다. 고대의모든인민들이활용하고여러철학자들이권장한영아유기, 옛날종교와도덕관념에의해성별되고아직도동방에서, 그리고모든야만인들에게서지배적인낙태와거세같은것들이다. 이런관습들은그들에게모범으로소용된듯한재앙과폭같이경제적무정부상태의증거들일뿐이다. 상식과논리는거기서영원한경찰의수단들, 균형수단들을보기를싫어한다.

이런원리들이확인되었으니최근시대에인구의과잉과식량의부족에맞서상상된다양한보험체제들의장점을알아보고, 이에따라더정확한방식으로우리가찾는법칙의특정성격을정하는것은쉬운일이다.

나는멜서스부터시작한다.

멜서스는그에따르면인구의과잉을예방하고억제하는자연적원인들을분석하고, 이모든수단들, 어떤것들은잔혹하고어떤것들은부도덕한이수단들중에어

뎐것도 섭리의 탓으로 돌려질 수 없고, 이성으로 써 받아들여질 수도 없음을 발견하고서 자연의 이 무능함 혹은 이상상할 수 없는 폭력에 불복해 인간의 자유의지에 항소했다. 그는 인류가 스스로에게 섭리로 쓰이는 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인 것처럼 존엄이라고, 자신의 출산을 정당한 한계 내로 제한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혼을 서른살이나 마흔살까지 연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맹서스가 그의 순진한 영혼으로 인구와 그 범람에 대해 더 유익하고 더 철학적이고 더 도덕적인 것으로 상상한 것이다. 사랑의 억제, 가슴의 기근이 그에 의해 위뿔의 기근에 대치되었다. 이는 그의 순결한 언어로 그가 물리친 살인이나 외설 등 신체적 억제의 모든 형태들에 대립해 도덕적 억제라고 부른 것이다.

맹서스의 관념들은 장바티스트 세, 로시, 드로즈 등 경제학자들 중 가장 저명한 이들에게, 그리고 난점에 대한 출구를 발견하지는 못하면서도 쾌락의 황홀감보다 금욕의 영웅적 행위를 더 높은 곳에 위치시킨 모든 이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보아 줄 것처럼, 맹서스의 이론이 그 이론을 사람들이 그 이래로 제안한 모든 것보다 우월하게 해주는 위대하고 고상한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리는 특히 이론이 어디에 결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그의 거대하고 중대한 결합은 억제 수단 *contrainte* 이다. 이름만으로도 벌써 모순이 튀어나온다. 자연은 사람에게 하나를 하도록 자극한다. 사회는 그에게 다른 것을 명령한다. 내가 사랑에 굴복하면 나는 빈곤으로 위협을 받고, 내가 사랑에 저항하면 나는 그에 못지 않게 비참하다. 차이라고는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차이이다. 내가 어느 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침통함과 고뇌만 발견하게 된다. 이런 것이 균형인가?

다른 한편, 맹서스가 제안하는 치유책은 모름지기 섭리에 대한 고발, 자연에 대한 불신의 행위인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교 경제학자들이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은 것에 놀란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종교와 사회가 배척하는 비합법적 쾌락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허락된 결합도 문제가 된다. 무슨 말인가? 모든 도덕자들이 좋은 도덕관념의 가장 확실한 보장책으로 간주하는 것, 젊은 이들의 결혼에 관한 문제다. 이제부터 맹서스의 이론을 가지고서는 결혼은 과년한 처녀들과 늙은 호색한들을 위해서만 행해질 뿐이다. 이런 따분한 결혼식으로 그것이 거의 꺼져 갈 때에만 그 연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 허락된다면 사랑의 부드러운 화살을 스무살에 느끼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리고 그렇게 슬픈 결과를 위해 인간의 사려분별로신의 작품들을 교정할 필요성을 원리로 제시하는 이론이 무슨 이론인가?

끝으로 맹서스의 치유책은 실행 불가능하고 무력하다. 한편으로 인생의 시기를 움켜질 수 있다는 희망, 젊은이가 활기를 잃고 노인이 회춘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진지하게 가질 수 없으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 체제에서 맹서스의 이론은 직접 결혼을 재산 소유자의 특권으로만 만들게 유도하니 사실상, 권리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 ... 빈곤이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인구의 과잉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지 않고 독점의 징수 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체제와 같은 체제에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자기 일을 사랑하듯이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아내를 만드는 것, 꾸미는 것, 장식하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필요, 그에게서 그의 근면의 진보, 그의 관념의 발달, 그의 감각의 세련화, 그의 애착의 섬세함으로부터 자생적으로 태어나는 필요하다. 그가 아내를 사랑할수록 아내가 더 빛나고 고결하고 눈치 빠르기를 원하고, 아내를 결합, 여신으로 만들기를 갈망한다. 아내 곁에서 그는 자기 감각을 잊으며, 자기 상상력이 상을 따르지 않는다. 그의 의식하고 그가 만진다 고 생각하는 이 이상을 그의 손이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는 옛날에 그의 욕구의 열정 가운데 그에게 전부인 것처럼 보였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인민은 살과 피를 환기시키는 모든 것에 대해 분능적인, 세련된 공포를 느낀다. 바쿠스적이고 성욕을 유발하는 흥분제의 사용은 성욕의 날을 세우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동방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흔하지만, 문명화된 종족들을 격분하게 한다. 이는 아름다움에 대한 모욕이고, 예술의 부조리다. 그러한 도덕관념은 독재의 그늘에서만, 카스트의 구별에 의해서만, 그리고 불평등의 도움으로만 생겨난다. 그런 것은 정의와 양립 불가능하다.

예술을 이루는 것은 선들의 순수함, 운동들의 멋, 음색들의 조화, 배색의 화려함, 형태들의 어울림이다. 이 모든 예술의 질은 또한 사랑의 속성들로서, 사랑 안에서 그 속성들은 순결, 수줍음, 겸손 등의 신비로운 명칭을 취한다. 순결은 사랑의 이상이다. 이 명제가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이제부터 공언되기만 하면 된다.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예술은 언제나 직업에서 벗어나므로 노동은 그것이 가졌던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점을 상실한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그것이 강화됨에 따라 그 파렴치하고 외설적인 형태를 상실한다. 야만인이 짐승처럼 즐기고, 무지와 잠속에서 즐기면서 살 때, 문명인은 점점 활동, 부, 아름다움을 구한다. 그는 근면하면서 예술가이고 순결하다. 게으름과 사치는 완전히 동일한 악이 아니라면 병렬된 악이다.

그러나 예술은 노동에서 태어나 필연적으로 슬로모에 의존하고 필요에 상응한다. 그 자체로 보면 예술은 이 필요를 충족하는 다소 우아한 방식일 뿐이다. 예술의 도덕성을 이루는 것, 노동에 그 매력을 보전해주는 것, 그것의 경쟁심을 일깨우고, 열정을 자극하고, 영광을 보장해주는 것은 그러므로 가치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도덕성을 이루고 그 색정을 끝내는 것은 자녀들이다. 부모됨은 사랑의 유지이고, 그 강제 이행 수단이고, 그 목적이다. 그것이 획득되면 사랑은 그 경로를 다 밟은 것이다. 사랑은 사라진다. 아니, 더 제대로 말해 형태 변화를 일으킨다.

모든 노동자는 그가 선택한 전문 분야에서, 그리고 이 전문 분야의 척도에 따라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비슷하게 여성에게서 태어나 그 여성의 무릎 위에서 먹여지고 키워진 모든 존재, 아들, 연인, 남편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에게서 사랑의 이상을 실현하고 모든 형태들을 차례로 표현해야 한다.

노동의 이상화에서, 그리고 사랑의 거룩함에서 보편적 동의로 덕이라 칭한 것이, 혹은 누군가 말한 사랑의 고유한 힘 (가치) 이 숙명적 존재, 신적 존재의 힘인 격정과 대립해서 생겨난다.

운것의극치, 추한모습의이상도알아냈다. 끝으로그는서로인사하고, 서로존경을표시하고자신의인격을세심하게송배하며, 자기자신을신성으로서찬미한다!

사람의모든활동들, 운동들, 언설들, 사고들, 산물들, 애착들은이런예술가적특성을지닌다. 그러나이예술자체, 그것을계시하는것은사물의관습이며, 그것을발달시키는것은노동이다. 그래서사람의근면이이상에접근할수록그자신도감각위로더욱상승한다. 노동의매력과존엄성을이루는것은사고를통해창조한다는것, 모든메커니즘에서해방된다는것, 자신으로부터소재를제거한다는것이다. 이지향은감각적삶에완전히잠긴어린이에게서는아직약하고, 자신의힘과유연성을자부하는, 그러나이미정신의장점에민감한젊은이에게서는좀더두드러지지만, 성숙한사람에게서는점점더발현된다. 이일꾼들에게서작품에대한오랜열중이자생적으로예술가, 그에게노동의완성은생존수단만큼이나절대적인, 예술가그리고외관상인색한전문분야에서갑자기찬란한전망들을발견하는예술가를만들었다는것을누가알게되지않겠는가?

그런데사람이그의예술가적본성에의해자신의노동을이상화하는경향을띠는것처럼, 또한그의사랑을이상화하는것은그에게는하나의필요사항이다. 그의존재의가능성을그는그의상상력이가지는더섬세하고더강력하고더매혹적이고더시적인모든것으로궤똥는다. 사랑을하는기술은, 모든사람에게알려진기술이고모든기술중에서가장많이개발되고가장잘느껴지는기술로서그형태에서풍부한만큼그표현에서다채로운것인데, 로마가톨릭의위력의시대무렵가장크게도약했다. 그것이중세전체를채웠다. 그것은현대사회를단지극장, 소설, 사치예술로사로잡는데, 이모두는그것에보조수단으로소용되기위해존재할뿐인것들이다. 끝으로사랑은예술의소재로서인류의위대하고, 진지하고거의유일한일이라고나는말했다.

그러므로사랑은결혼에의해확정되고고정되자곧바로신체기관들의황포에서해방되기를지향한다. 결혼은사랑의무덤, 즉해방이라는속담이표현하고자한것은사람이그에대해첫날부터그의감각의냉랭함에의해기별을받는, 그리고그에관해수많은사람들이아주불쌍하게환상을가지는이절박한경향이다. 그언어가언제나구체적인인민은여기서사랑을억누를수없는욕망의폭력, 피에불은불로이해했다. 속담에따를때결혼에서꺼지는것은완전히신체적인이사랑이다. 인민은그의타고난순결에서, 그리고무한한섬세함에서부부의잠자리의비밀을드러내기를원하지않았다. 인민은그신비를간파하고그경고를유익하게사용하는수고를각자의지혜에맡겼다.

그렇지만진정한사랑은사람의죽음에서시작된다는것, 정중함이송배로바뀌는것은결혼의필연적효과라는것, 모든남편은어떤표정을짓더라도영혼깊숙이에서는우상송배자라는것, 여성의명을벗어나기위해남자들간에공공연한공모가있다면여성을찬양하기위해서는암묵적인협정이있다는것, 여성의연약함만이이따금남자에게제국을다시장악하지않을수없게한다는것, 그리고거기에부부의부드러움과조화의원리가있다는것을인민은알았다.

는인구가증가하든감소하든틀림없이생겨날것이니무능하다. 이언명에대한증명은이책의면마다발견된다. 이를재론하는것은쓸데없는일이다.

햇갈리게감지되지만생생하게느껴지는멜서스이론의모순들은총체적흥분을야기했다. 반대자들의동기는언제나현명하지않았으며, 우리가보게될것처럼 훨씬덜수선했다. 그러나정치경제학은인구원리가폐지해야했던파멸치한일들, 그리고그반대로그재발을촉발했던것들의연대성을결국받아들이는만큼더욱이이론에대해서밖에불평할것이없었다.

멜서스말고모든사람에게견할불가피한이행에의해, 도덕적억제수단은가장결연한멜서스주의자들의펜끝과의도에서지체없이쾌락에별로무겁지않은, 기껏해야수치심에만걱정을끼칠수있을순수하게신체적인억제수단이되었다. 이와관련해서멜서스의마지막편집자는이렇게말한다. “빈곤 (인구라고읽어라)을예방하는절제의이다양성은생리 (쾌락이라고읽어라) 의법칙들을무시하지않을경우에부도덕하다는것이증명되지않는다.” 그영예로운작가가그의학설의이런해석에언제나항의했음에도, 사랑의문제에서는꾸밈이없는공중이멜서스의이론을이해한것은이런의미에서다.

실제로도덕이무엇이냐고, 부도덕이무엇이냐고, 혼자있을때는도덕적인것이입맞춤에서는어떻게부도덕한것이냐고그에게말할수있겠다. 철학자들의언어는사람을몸과영혼의이중적인추상으로만들었지만사람은하나다. 그러니그가정신적으로출산을삼가든지아니면신체적으로출산을삼가든지, 삼감이있다는조건에서는, 특히삼감이제때에일어난다는조건에서는무슨상관인가? 당신이무엇을하든정신은언제나신체에있고, 신체는언제나정신에있다. 이모든것에있는유일한것이핵심이다. 이는자녀를안만드는것이다. “너는많은일을염려하고걱정하는구나. 그러나필요한것은한가지뿐이다.(Turbaris erga plurima, porro unum est necessarium!)”

도덕적억제, 신체적억제. 그러므로이것이야말로로빈슨의원인들에관해, 그리고그치유책에관해 19 세기에경제학자들의과학이, 절충론자들의도덕이, 그리고이신중한대학인들의철학이우리에게말할줄알았던것전부다. 그중로올라 (Loyola) 라는하나의이름이종교계를웅성거리게하고, 덕있는사람들의낫을뿜는다! 사제들의독신, 그리스도교적처녀성을조롱하고이것들을자연과도덕에대한모욕이라고비난한후더이상감히결혼을권장하지도, 금욕을권고하지도못하는이위선자들은연인과부부에게도덕적억제를설파한다! 그리고그들은예수회원들을맹렬히비난한다! 산체스 (Sanchez), 레모스 (Lémos), 에스코바르 (Escobar), 부젠바움 (Busenbaum) 그리고그대, 축복받은리구오리 (Liguori) 여, 탄압하고별하기위해서만악을아는자들이여, 물러가라. 정치경제학은너희모두를지워버린다. 옛날에우리의그리스도교교부들은그들의거처에서축복받은나뭇가지를써서성상앞에서화재, 우박, 흉작, 집단사망을경계해지극히높은자의자비를구했다. 나는어린시절이가족기도문을외웠다. 나는어디서나농민들부부의침대위에그리스도상이걸려있는것을보았다. 이는하늘의화

와 땅의 재앙을 막기 위한 무식하고 광신적인 인민의 의존수단이였다. 시대가 전진했다. 이성은 해방되었다. 우리는 빈곤의 원인이 자녀의 과잉생산이라는 것을 배웠다. 대낮에 젊은 신부를 둘러싸고 그의 눈에 들이닥치고 그의 가슴을 여생동안 채울 미신의 딸랑이 대신에 이제부터는 경찰관이 그에게 가정의 의무의 상징으로 정치경제학에서, 그리고 공창公娼의 은어에서 만 이름을 가지는 피임도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치욕이다!

그렇지만 추론해가자. 더 추론해가자. 부도덕은 우리 머리카락에까지 올라왔다. 저명한 라부아지에 (Lavoisier) 는 대도시의 구덩이들에서 가난한 오물수거인을 덮치는 질식사에 대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극도로 혐오스러운 것들을 마다하지 않았다.

도덕적 억제책은 갑자기 신체적 억제책이 되었으며 자기 식대로 인구문제를 해결해 결혼한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실무에 속하는 것이었다면, 이 쓸모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도 덜하지 않다. 그런데 (이는 여기서 경제학자들이 예견하지 못한 사물의 부도덕한 측면이다) 쾌락이 출산이라는 결과없이 그 자체로 원해지고 추구되면 결혼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된다. 젊은 이들의 삶은 불임의 육체관계 안에서 영위된다. 가족은 소멸하고 가족과 함께 소유권도 소멸한다. 경제적인 동은 해결책 없는 상태로 남고, 사회는 야만시대로 돌아간다. 맬서스와 도덕적 경제학자들은 결혼을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의사 醫師 경제학자들은 결혼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빵의 결여에 애정의 결여를 더하며, 사회적 끈의 해체를 촉발한다. 그리고 이야말로 극빈층을 예방하는 것이라 부르는 것, 빈곤의 억제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다. 심오한 도덕가들이다! 심오한 정치인들이다! 심오한 박애주의자들이다!

예기치 않은 이계시에, 맬서스 이론에 대한 이 이상한 주석에 대해 여론이 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일어났다. 도덕가들은 그들의 선의에 놓아진 덫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사회주의자들은 맬서스의 원리에 제안된 타협이 환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전부냐 아니면 전무냐, 그들은 외쳤다. 신체적 억제책은 한심한 기만, 안전 확보 없는 타협, 생리에 대한 위반, 사랑에 대한 모욕이다. 그리고 경제적 중용과 반대로 사회주의는 그 유토피아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① 푸리에의 체계. 인위적 혹은 비만에 의한 불임.

과학이 감히 눈을 보내는 영예를 받지 못한 이 체계는 우선은 아주 충격적인 선결문제요구의 오류를 내보여서 이 저자가 그의 농담을 얼마나 진지하게 취급하는지를 모른다면 저자 쪽에서 익살을 부린다고 믿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점에서 맬서스의 제자인 푸리에에 따르면 생존수단의 상대적 부족이 빈곤을 낳으므로 그것을 늘리라는 것이다. 소비를 두배로, 네배로 하라고 푸리에에는 대답한다. 이는 과잉의 다산성을 면하고 굶어 죽지 않는 틀림 없는 수단이다. 이 위대한 사람은 우리에게 용감하게 말한다. 당신들은 두끼 식사로 살 수 없다. 일곱끼니를 먹어라. 그러면 만족을 얻을 것이다.

스트들의 복권에 노력하는 수단이 되는 원리를 채택하는 것이다. 전문성을 말하는 자는 끝이나 상단을 말한다. 어원이 이를 증명해 준다. spiculum(창), spica(못), speculum(거울), species(겉모습), aspicio(나는 본다) 등등. 같은 어근이 지적하는 행위, 바라보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노동에서 모든 전문성은 각 노동자가 사회경제의 총체를 지배하고 고찰하고 그 중심이면서 감독자가 되는 높은 곳의 정상이다. 그러므로 노동에서 모든 전문성은 관계들의 다양성과 대체로 옳기 때문에 무한이다. 이로부터 결과적으로 각 노동자가 노동의 실증과 혐오감을 극복하기를 배우는 것은 산업, 과학과 예술에서의 중앙집중화되고 조율된 이행 체계에 의해서이지 결코 규율 없고, 전망 없는 동작들의 다양성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결혼에 의해서 사랑은 확정되고 개인화된다. 그리고 사람이 사랑의 물질주의와 단조로움을 이길 것은 역시 전부 도덕적인 이행들의 체계에 의해서, 감정들의 정화에 의해서, 사람이 자기 존재를 바친 대상의 숭배에 의해서다.

예술, 즉 사람에게서, 자기 아내와 자녀에게서, 자기 관념들에서, 자기 언설에서, 자기 행동에서, 자기 산물에서 아름다움의 추구, 진리의 완성, 이런 것이 노동자의 마지막 진화이고, 자연의 원을 영광스럽게 단로록 점지된 국면이다. 미학, 그리고 고미학 위에도덕, 이것이야말로 경제적인 건축물의 핵심이다.

인간적 관습의 총체, 문명의 진보, 사회의 여러 지향들이 이 법칙에 대해 증언한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 그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든 것,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의 관심을 끄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예술의 소재가 된다. 그는 노동의 마력에 의해, 말하자면 소재를 사라지게 하기까지 이를 구성하고 운내고이에 조화를 준다.

사람은 자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가 감히 그런 식으로 내생각을 표명한다면, 사람은 만드는 동물이다. 그가 손질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을 그는 배열하고 교정하고 정화하고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자기 눈의 즐거움을 위해 그는 그림, 조각, 조형예술, 장식, 모든 부속물들의 세계를 발명하고 그에게 대해 그는 그것이 그에게 상상의 필요물이고 그것이 그에게 마음에서 나는 것 말고는 그 이유와 쓸모를 말할 줄 모를 것이다. 자신의 귀를 위해 그는 자신의 언어를 다듬고, 음절을 세고, 발성 시간을 쟁다. 그리고 그는 멜로디와 화음을 발명한다. 그는 강력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교향악들을 만들며, 그가 이를 연주하게 하는 음악회에서 천상의 음악과 보이지 않는 정신들의 노랫소리를 듣는다고 믿는다. 단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변장과 환상에 대한 그의 민감함에는 종류가 필요하다. 그는 먹고 사는 것을 거의 불쾌한 것으로 본다. 그는 배고픔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며 위와 타협을 한다. 자기 음식물을 풀 뜯어 먹듯 먹는 대신 스스로 굶어 죽을 것이다. 바위의 맑은 물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신들의 음식과 신의 술을 발명한다. 그가 통제에도 달하지 못하는 자기 생활의 기능들을 그는 수치스럽고 정직하지 못하고 무식하다고 부른다. 그는 걷고 뛰기를 습득한다. 그는 잠을 자고 일어나고, 앉고, 웃을 입고, 싸우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정당한 대접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는 심지어 끔찍한 것의 완성, 우스

지하고는, 생리학을 들먹인다! … 아니, 사람이 그리로 끌려가는 꼴을 겪을 것은 황소나 수탉처럼 코뚜레를 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는 이성과 자유에 의한 것이다. 노동으로 가진 맥진해진 그는 사랑할 능력을 상실해서 빈곤을 바꾸기만 할 것이다. 그에 대해 섭리는 언제나 유죄일 것이다. 자연은 언제나 계모일 것이다. 그건 그렇고 처방의 효능을 누가 당신에게 보장하는가? 인구를 배증하는 것은 사랑에서의 사치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절욕일 것이다. 몇 시간의 휴식이 자연에 그 모든 잠재력을 준다. 너무 오랫동안 억압된 걱정은 더 맹렬한 기세로 터진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에는 불티만 있으면 된다. 베르나르 (Bernard), 예로니모 (Jérôme), 오리게네스 (Origène)<sup>6</sup>에게 노동, 단식, 철야, 고독으로써 육신을 복종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이 잘못된 규율은 휴식, 미식 美食, 여성과의 대화보다 더 많은 부정 不貞을 만들어냈다. 선택된 그릇인 성바울로는 엄청난 피로 중에도 “나는 나를 괴롭히는 악마를 달고 다닙니다”라고 쓰지 않았는가?

이 열면 불평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사막의 빈궁 가운데 투덜대는 것을 듣는 것 같다. “우리에게 이집트의 고기와 생선, 오이와 멜론을 달라! 우리 영혼은 말라붙었고 우리는 이 만나를 원하지 않는다!”

관능적인 영혼들이여, 마음을 가라앉히라. 섭리는 그대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대들은 고기를 원한다고! 싫어질 때까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독자는 우리에게 의심할 바 없이 경고했다. 노동이 사랑에 작용을 가할 것은 생리적이고 속명적인 영향에 의해서 결코 아니고 덕과 자유의 인상에 의해서라고. 잠시만 기다려 주면 우리의 논제는 완성될 것이다.

노동에서는 사랑에서처럼 가슴은 소유에 의해 매달린다. 반대로 감각들은 싫증을 낸다. 그 산업적 능력과 번식 능력의 행사에서 사람의 신체와 정신의 지적 대성은 사회적 기계의 추 錘다. 사람은 그 발달에서 끊임없이 숙명에서 자유로, 본능에서 이성으로, 물질에서 정신으로 간다. 사람이 점점 괴로운, 그리고 혐오스러운 노동의 억압에서처럼 감각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진보 덕분이다. 사람을 하늘을 향해 올리는 대신 언제나 진흙을 향해 숙이는 사회주의는 육신에 대해 쟁취한 승리에 빈곤의 새로운 원인을 보았다. 마치 기분 전환과 곡예에 의해 노동의 지겨움을 극복한다고 자랑하는 듯이 사회주의는 결혼의 단조로움을 애정의 숭배가 아니라 밀통과 배우자 변경으로 싸워서 이겨내려 했다. 이 더러움을 휘젓는데 내가 아무리 혐오감을 느끼더라도 독자는 체념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인 몇 가지 진리를 확립하기 위해 내가 모든 논리의 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이 사람들을 돌볼 임무를 맡지 않은 내 잘못인가?

노동이 분화된 것처럼 인하여 노동자 각자에게 노동은 전문화되고 확정된다. 그러나 이 전문성이나 확정성은 집단적 노동에 비해 분수의 표현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노예살이의 관점에 위치하는 것, 유토피아가 온 힘을 다해

주지하듯이 이는 바로 경제학자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를 두 배로, 네 배로 늘리는 수단, 필수품이 부족할 때 사치를 제공할 수단은? 여기서 푸리에에 일련의 대조되는 집단들을 제시한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들은 즉각 생산물을 네 배로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정되는 것은, 푸리에가 쓰거나 선 것들의 첫마디 말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는 가치의 관념을 가지지 않는다. 그는 분배 이론도 교환법칙도 보유하지 않는다. 그는 정치경제학의 어떠한 모순도 품지 않았다. 그는 이 모순들의 의미를 짐작하지도 못했다. 그는 빈곤의 원인들이 모두 자본의 우세와 노동의 종속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기는 커녕 자본, 노동, 재능이라는 그의 공식 안에 이 우세와 이 종속을 성별한다. 그와 그의 학파는 이 율배반들의 종합에서 자본과 소유권보다 높은 원리에서 노동자 해방을 구하는 대신 자본의 원조와 권력의 호의를 간청하기를 그치지 않았을 때, 언제나 이 모순적 여건에 따라 움직였다. 푸리에에 끝으로 맹서처럼 그가 풀어야 했던 문제를 인류와 지구 사이에 위치하게 하는 대신 이를 인구와 생존 수단 사이에 두었을 때 문제의 본성을 오해했다. 사중적 四重積에 관해 나는 위에서, 이것이 부의 진보의 이론에 의해 팔랑스테르 주의 학파의 글들에서 넘쳐나는 이 수천의 물상식 중 하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 반증이 비판을 부끄럽게 해 줄 허튼 소리인 것이다.

그러나 인구 문제에 대한 푸리에 주의 해 결책에는 해야 할 더 심각한 비난이 있다. 이는 그 부도덕성이 인정된 정신, 고도로 조직해 체적이고 반사회적인 지향이다. 나는 내 생각에 병적인 경우의 일반화 말고 다른 것이 아닌 비만의 방식이 사람들이 가정하는 효과를 가질지를 검토하지 않는다. 생리학은 내 분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설을 받아들인다.

제 11 장에서 소유권의 역할과 지향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우리는 그 독특하고 신호가 되는 모습으로 가족의 형성을 발견했다. 푸리에 주의는 소유권의 수호자로 나선다. 그런데 푸리에 주의는 소유권의 원인도 대상으로도 뿐 아니라, 이원인들을 부정하고 이것들을 폐지하기를 원한다. 푸리에 주의는 소유권의 유기적 요소인 살림살이의 부정이고 소유권의 영혼인 가족의 부정이고 변형된 소유권의 형상인 결혼의 부정이다. 그리고 푸리에 주의는 왜 모든 것을 폐지하는가? 푸리에 주의가 소유권의 부정적 측면만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결혼과 가족에 의해 발현되는 정상적이고 거룩한 소유 대신 푸리에 주의는 완전한 성매매를 열렬히, 온 노력을 다해 추구한다. 이는 인구 문제에 대한 푸리에 주의적 해 결책의 모든 비밀이다. 푸리에에 말한다. 창녀들은 백만 명에 한 명도 어머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반대로 살림살이, 가사의 돌봄, 혼인의 수결성은 출산을 현저하게 조장한다. 그러므로 인구의 균형은 우리가 부부로 결합하고 배타적으로 다산을 촉진하는 대신 모두가 성매매자가 된다면 발견된다. 자유 사랑, 불임의 사랑, 이는 모두 … 그 때 이후로 살림, 일부일처, 가족은 무슨 소용인가? 노동을 주술로 만들고 사랑을 체조로 만드는 것, 이는 웬 꿈인가! 이는 팔랑스테르의 꿈이다!

사회주의는 정치경제학이나 마찬가지로 인구 문제에 관해 죽음과 치욕을 발견했다. 노동과 수치는 유토피아의 위선자들의 입술을 태우는 말들이고 단순한자들

<sup>6</sup> 그리스도 교의 교부들.-역자주

의논에서그학설들의비천함을숨기는데만소용되는말들이다. 나는이종파들의 사도들이어느정도까지그들의파렴치함을의식하는지모른다. 그러나나는사람에게서자기말에대한책임을면제해주는데동의하지않을것이고, 자기행동에대한책임도마찬가지일것이다.

② G... 박사의체계. 태아의적출혹은배아의제거.

이절차는자궁에서특별히마련된수단으로거기착상되었을배아와태아를부모의의사에반해끄집어내는것이다. 내가그원고를읽은, 그리고그저자가공중에게누리드록하는데지체할수없는상세한논문에서 G... 박사는정치경제학만큼이나철학에서도출된추론에의해사람은자기의출산을제한할권리와무를가진다는것, 이주제에아직어떤의문이남아있을수있다면이는원리에대한것이아니라양태에대한것임을증명한다.

G... 박사는말한다. 내가수입부족때문에, 맬서스가그렇게주장하듯이내독신자신세를견딜권리가있다면나는동일한이유로내가결혼한사람이라면독신으로돌아가고교회가승인하고맬서스후에도모든경제학자들이인정하는것처럼내아내와의일체의관계도삼갈권리가있다.

이절제가생식과빈곤을예방하는것에서만그자체로장점을가진다면, 내가배우자에게의무를이행하는것을그만두지않고신체적억제책의추종자들이인정하는것처럼, 게다가논리가증명해주는것처럼임신을예방하는체외사정 *retraite* 으로충분할수있다.

그러나임신이란그자체로무엇인가? 정충의극미동물이형성된수컷기관에서암컷기관으로넘어가서단지그곳에서발달하는것이다. 극미동물이자궁에들어간후나들어가기전에내가그발달을멈추게하는것, 이는독신이범죄라면여전히동일한범죄다. 독신이무죄라면동일한행위는상관이없고무죄다. 그러므로나는임신이내게해롭다면임신을예방하는것처럼억제할권리와무를가진다.

그렇다면, 임신의순간에내게주어진내출산에대한권능을나는그에뒤이은순간에보전하며, 그다음날, 그다음주, 다음달에도보전한다. 왜냐하면내가그현상이완수된순간, 더구나그것을막으려는내의사에반해서완수된순간에그사실에대한아무지식도가질수없었기때문이다. 그런데억제에서일어난지체遲滯는태아를위해내권리에서효를정할수없다.

나는이추론을밀고나갈수고독자에게말킨다.

결국아주정직한사람이고속세의사람인것처럼훌륭한논리학자인 G... 박사의체계는파리에서그것을전문분야로삼아거기서급속히재산을모으는외과의사들에의해비밀리에추종된다. 이살인자들의단도는자궁의밑바닥에까지태아를찾아간다. 아기가살해되거나그꼭지에서떨어지면자연은저절로죽은열매를내버리며, 이는경제적언어로‘인구의과잉을예방한다’고불리며, 신문의문체로는‘잘못을감춘다’고불린다. 지방도시들에서의사들, 산파들이이산업을모방해불행한자들을세상에내보내는것은범죄이며, 자녀의수를제한하는것은양심의무라는고급경제원리에따라배설촉진제장사를한다. 그리고맬서스보다더맬서

는다른하나가흘러나올때달린다. 여기서경험은본능의계시를확증해준다. 산업적능력은번식능력을희생시킨대가로행사된다. 이는도덕과마찬가지로생리학의금언으로통할수있다. 노동은사랑에게는냉각의적극적원인이다. 이는모든성욕억제물중가장강력한것인데, 특히그것은정신과몸에동시에영향을주는만큼더욱더강력하다.

나는사람들이세상의경제에서그중요성을볼줄몰랐기때문에별로주목하지않은만큼속속적인진리성을가진사실에대해길게내이야기를펼칠필요가없다. 이처럼맬서스는아메리카의야만인들이고난과불안으로가득찬삶을영위하면서사랑에는미미하게움직인다는것을관찰했다. 그러나그는이불감증이필요와휴식과함께빠르게감소한다고덧붙인다. 그렇지만도덕적억제책의발명자인맬서스는인구문제를연구하는데 40년의힘든삶을바친사람으로서진정한해결책으로그들이끌어줄사실을일반화하는데조금도신경쓰지않는다. 게다가맬서스는노동증가의법칙을인식할줄몰랐고, 이법칙을넘어서부의진보의법칙, 그리고이것과인구진보의밀접한연대관계를인식할줄몰랐던때부터이사실로부터거기담겨있는모든결과들을어떻게풀어낼줄알았겠는가?

또한이처럼경제학자들은궁핍한계급의이상한다산성을찾아냈다. 방대한지식을가진오귀스트쿵트씨는심지어이현상을정치경제학의가장주목할만한법칙들중하나로지적했다. 사람들은궁핍이별로일하기좋아하지않는그본성에서나오고, 가난한자는어떠한지적인지출도없이기계적노역에종속되어언제나아무리그의생존수단이빈약해도자기의한심한후세를보장하는데필요한것보다더많은힘을보전한다는것을동시에언급하지않으려고한다.

순결은노동의동료다. 나태함은무기력의속성이다. 명상하는사람들, 열렬한사상가들, 이모든위대한노동자들은사랑의서비스에는미미한역량을지닌다. 파스칼, 뉴턴, 라이프니츠, 칸트, 그리고수많은다른사람들이그들의심오한사색중에자신이남자임을잊었다. 여성은그들을간파한다. 이강인함의천재들은여성에게별매력을주지못한다. 사랑스러운베네치아여인<sup>5</sup>이장자크에게말한다. “여자들은그냥두고수학이나공부해.” 격투기선수가연습과절제로원형경기를준비한것처럼노동하는사람은쾌락에서도망친다. 포도주와사랑의약하게만드는즐거움을끊는다 (*abstinuit venere et baccho*). 미라보는그의체질의강인함에도불구하고침실의만용을법정의승리에결합시키기를원해서사멸했다.

그러는데우리가노동에서언제나우리의조상들보다낫게되는것이필연적법칙이라면, 사랑의놀이에서우리가언제나용기를덜가지는것도마찬가지필연에서나온다. 인구는장기적으로이불가피한냉각에서어떻게영향을받지않겠는가?

그러나이는여전히억제책이고, 여전히억압이고, 여전히절단이라고사람들은틀림없이말할것이다. 뭐라고! 당신들은자연을마르게하고이를인류안에균형을창조하는것이라고부른다! 당신들은다른사람들에게서생리적수단들을금

<sup>5</sup> 루소의 『고백 Les Confessions』 에나오는줄리에타 (Zuliett) 를말한다.

입증하는것이아니라무더지게만드는것과빈곤에맞서관성적힘으로항거하기만 하는일꾼에게는용서가되는일이다. 그러나노동의필요성을설파하면서도그들의바보스러운애도에의해노동에대한혐오감을품는, 그리고앞으로나아가도록 밀어주어야일꾼에게“그만하라”고말하는것같은박애주의경제학자들에게는한심한일이다.

그러면, 우리가더많이생산할수없다면어떻게빈곤을치유할것인가? 부의증대없이, 즉신체적이건지적이건노역의끊임없는증대없이문명의지나한작업을 어떻게추구해나갈것인가? 생산을줄이고물가를높이면서어떻게빈곤층을물러가게할것인가? 그무식이인기를얻는또하나의자격으로보이는지도자들에게의해 부추겨진프롤레타리아가실업때문에품귀品貴를일으켰을때그를위해누가지불해줄것인가? ... 우리가처한극단적상황에서임금의모든상승, 그리고따라서물가의모든인하가불가능하게된다면, 이는혁명이가깝다는, 퇴로가우리에게막혔다는신호가아닌가?

나는노동의끊임없는가중화라는웅장하고정말로예언적인이사실에관해내 생각을더펼치기를원했지만, 시간이없다. 그리고내가틀리지않다면독자는내게서형식상의증명보다는해결책을더기다린다. 증명은독자가말아서할것이다. ... 그러므로노동이그분업이라는사실자체와그것이기계들에게서받는지원에의해 인간에게줄어드는대신항상가중화된다는것이사회경제의법칙이라면, 우리의 생명은한정성이있고우리의연수와날수는헤아려질때, 동일한가치증대를위해언제나더많은시간이우리에게요구되는결과, 부의배증가에, 그리고인구의두배 증가에필요한시기는무한히연장되는결과, 사회가항상행진해가면서정체상태로있게되는시간이온다는결과가된다.

그러나노동의증대에의한생산의감소는어떻게인구에 옮겨지는가? 이는우리에게고찰할것으로남는다.

첫번째사실이성립되는것으로나타난다. 가치들의창조를주관하는같은 힘, 같은생명원리가또한중의재생산도주관한다. 원시언어는이점에서인류의직관을증언한다. 성서에서하늘과땅의사실들은다음과같다 (Istae sunt generationes coeli et terra), 야곱의생의행적들은다음과같다 (Hoe sunt generationes Jacob) 등의단어가노동과생식의산물들을표현하는데쓰인다. 프랑스어는복수의명칭일 *oeuvres* 의이중적의미, 라틴어의 *generatio* 와히브리어의 *ialad* 처럼, 노동과사람을말하는의미에서이비유를보전했다. 외설적의미에서취해진일을보다 *besogner* 라는옛단어는같은관념에서도출된다. 노동과사랑의친척관계는얼빠진, 어리석은멋과활기를잃은존재에대해서말해지는데이인기있는문장에서더심오하게보인다. “그는사랑없이노동한다.” 그리고이비유는노동의기계적도구에까지넘어왔다. 사람들은살아있는모서리, 살아있는칼날이라고말한다. 자르는톱, 조이는줄에대해서사랑을가진다고말한다.

모두직관과감정에서나온이관념의결과는노동과사랑의자연적대관계다. 인민의자생적판단에따르면, 사람의생명은두출구중하나에서나온다. 그중하나

스주의적인경찰은임금문제를토론하는스무명의일꾼집회를적발할줄은알아도 이런영아살해에는눈을감는데, 이문제에인구원리에관해경찰못지않게눈을뜬 배심원단은수많은정상참작거리를발견한다.

G... 박사의체계는팔랑스테르의에로스-바쿠스적불임의보완물인것처럼경제학자들의도덕적이고신체적인억제책의불가피한보완물이다. 이모든학설들은절망적인관능주의의마지막노력으로서관련이되고연대성을뒀다. 그것들은인구의증가가정규적사회안에서생존수단의증가보다더빠르다는, 같은편견에서출발한다. 그결과들을본다면, 이는변함없이같은결과들이다. 빈곤, 약, 범죄의증가, 가족유대의해체, 경제운동의퇴보, 가난한자들, 고아들, 노인들, 모든 쓸데없는입의강제적인금지, 살인의정당화, 우애와정의에대한파문.

③ 낱파피임체계 *Système des interruptions*. 이것을나는아주단순한방법으로이해하지만, 그성공에관해서는사람들이전혀의견치를보이지 않으며, 이는월경이전과이후여드레에서열나홀동안성교를삼가는것이다. 여성은규정된시기외에는자연적불임이라고들말한다.

이런종류의절제는완전히신체적억제책의취향에들어간다. 나는어느수준까지생리학과경험이이방법의유용성을확증해주는지모른다. 게다가나는이에대해경제적관점에서만관심을둔다.

그러므로나는그러한실무의효과가사회와관련해서똑같이치명적일것이라고, 빈곤과관련해서앞의것들의효과와똑같이비효과적일것이라고말한다. 이런값을지불하지않고즐기는, 그리고적발되지않고죄를짓는손쉬운수단을가지고서는수치심은어리석고불편한편견에불과하며, 결혼은방해가되고무익한관습에불과하다. 가족에대한존중은짓밟힐것이다. 소년, 소녀들은유년기부터달콤한신비에입문해공영혼의힘과인격의존엄성을상실할것이다. 미지의도덕관념으로타히티사람들의도덕관념보다더나쁜것이문명사회에성립할것이다. 노동은투기앞에서낮아질것이다. 그리고빈곤에대해서각자는색정적인독신자에게서피난처를찾아낸다고믿을것이지만, 빈곤은독점, 고리대, 파편적분업, 기능들과적성들의불평등에의해유지되어새로이토양의인구소멸, 자본의불임성그리고종족의식퇴로자연의원수를값아줄것이다. 사회적진리는거기서발견될수없다. 우리는무엇을더깊이파고들필요가있는가?

④ 3년수유체계.<sup>2</sup>

이체계의저자는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동성애, 낙태등등, 우리가부분적으로열거한바있는터무니없고부도덕하고야만적인이론들을버리는것으로시작한다. 그는‘자신의열매를잉태하고보전하는것이여성의주된임무 (Accipere aut tueri conceptum est maximum ac proecipuum munus

<sup>2</sup> 『인구와생존수단문제해결 Solution du problème de la population et des subsistences』, par Ch. Loudon, Paris, 1842.

foeminarum)’라는 로마법을 가지고 임신과 분만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비난하고, 창세기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을 유보 조건 없이 찬양한다.

그리고 인구의 가능한 증가는 자연적 증가가 아니라 것을 원리로 제시하면서 계다가 신은 한 여자에게 한 남자만 점지했으며, 반대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점지했다는 것, 그의 논에는 이미 첫째가 위대한 제약을 이루는 이것을 고려하면서 그는 다수의 권위와 사실들에 의거해 다음을 증명하는데 매달린다.

(1) 인생은 일정수의 정해진 시기들, 임신기, 수유기, 성장기, 번식기, 노화로 나뉘어 진다는 것, (2) 이 시기들 중에 젖의 분비는 3년간이 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젖을 먹이는 여성에게서 유방과 자궁간의 적대관계에 의해서 자연적 불임이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각각의 여성이 만스물 한 살에 결혼하고 자녀 각각에게 3년간 젖을 준다면, 인구는 증가하는 대신 오히려 줄어들고 소멸하는 경향을 띠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단언한다.

이 저작은 아주 큰 학식에서 나온 것이고, 르루의 『사회평론 Revue sociale』에서 정당한 찬사와 함께 인용된 것으로서 순수한 도덕성, 고상한 철학, 인민에 대한 심오한 사랑을 확연히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따르면 단명 장점을 이루는 것은 저자가 가진 관념이다. 이는 그 법칙에 따라, 그리고 그 자연적 시기에 이루어지는 출산 자체에서 출산의 한계들을 구한다는 관념인 것이다.

실제로 결혼의 정신적 나이를 앞당기든지 수유의 피로를 단축시켜서 사람들의 재생산을 가속화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도 없다. 살인, 영아 살해 혹은 낙태에 의해서 든 거세와 방탕함에 의해서 든 이를 억제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도 없었던 것과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기서서는 다산성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도, 억제하는 것도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는 자연이 우리의 오류에 의해서 이상반대를 받지 않으면서 우리 인류의 행복을 마련해주었으며 자기 자신과 합치를 이루었는지를 탐구한다. 그런데 루돈(Loudon) 박사에 따르면, 한편으로 수유의 자연적 시기가 3년이고, 다른 한편, 유방의 기능과 자궁의 기능간에 비양립성이 있어서 같은 여성이 평생 동안 자연의 규정에 따르면 세 명이나 낳아 버려야 네 명의 자녀만 낳을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인구는 결혼 전에, 그리고 번식기 동안 죽는 자들을 빼면 인구는 정태적이 될 것이며, 심지어 자발적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루돈 박사의 견해다.

그러므로 여기서서는 예방도 없고, 억제도 없고, 장애물도 없다. 균형이 사회의 도덕관념과 경제에 아무런 폐단도 없이 사물의 본성에서 나온다.

유감스럽게도 이 이론은 그 원리상으로는 아주 합리적이지만 만로지생리학적이고 완전히 사회경제학 바깥에 있다는 회복할 수 없는 결함을 가진다. 이로부터 루돈 박사에게 대의 료계의 동료들이 할 필요가 있을 비난, 우리의 자격에 속하는 것은 아닌 비난과는 상관없이, 이로부터 우리가 그의 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려고 하는 악들이 나온다고 나는 말한다.

우선 이 체계는 수유의 법칙이 결코 관찰되지 않았다면 저자 자신의 결론에 따를 때 어떻게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는지를 짐작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보수주의와 심지어 자의성이 뚜렷한 특성을 제시한다. 인구가 첫 번에 균형을 찾았다면 더 이상 증

노동의 이 계속적 증대를 증언해 줄 사실들은 풍부하며,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보지 않고도 외시하는 부주의는 언제나 나에게 가장 큰 놀라움으로 다친다.

파리, 리옹, 릴, 루앙 같은 산업 중심지들에서 평균 노동은, 지속 시간만 보면 열 세 시간에서 열 네 시간이다. 종업원들, 하인들과 똑같이 주인들도 이 노역의 노역에 참여한다. 어디에서나 상업에서는 일과 시간이 열여덟 시간에서 달달하는 것이 드물지 않다. 아이들과 여성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입법자는 최근 몇 년간 산업이 어린이들과 여성들에게 지우는 끔찍한 노역에 분개했다. 언론은 법정에서 고발된 남용들에서 착취자들의 탐욕과 야만성밖에 볼 줄을 몰랐다. 아무도 착취자들이 결국 그 대리인 일뿐인 경제적 속명을 고려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토피바퀴들 로 맞물린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자본과 마찬가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 자본이 복리이자에 의해 증가하는 것처럼 노동은 분업과 기계에 의해 무한히 증가되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노동과 자본은 창조와 시간처럼 언제나 도달할 수 없으면서 추구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생산이 너무 느려서 이것이 자의적 진척감소의 제 1 원인이므로 자본이 고리대에 의해 증대할 수 없고, 노동도 자연의 계속 증가하는 관성의 힘 때문에 분업에 의해서 더 이상 생산적이 될 수 없는 시간이 온다. 이는 인류 안에서 미성년기가 성년기에 자리를 내주고, 숨을 헐떡이는 사회가 독점과 경쟁이 옛날에 그 사회에 그리도 록했던 엄청난 잔잔자 운동 대신 미미한 잔잔자 운동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 평등이 불평등 자체 안에서 진전되며 생명에게 “너는 더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 같은 시간이다.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Usque huc venies, et non procedes amplius, et hic confringes tumentes fluctus tuos).

노동의 악화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 심지어 다른 관점에서 이를 재생산하기만 하는 것은 교육의 증대된 요구들이다. 생산과 소비가 동일하고 맞물리는 두 항목인 것처럼 교육은 노동의 연습이자 행복의 연습으로 간주될 수 있다. 향유할 능력은, 생산할 능력처럼 과학과 연습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심지어 잘 판단해 보자면 생산할 능력일 뿐이다. 그리고 사람의 재능과 그의 지식의 다양성에 대해 그의 필요와 수요와 본성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생명의 높이에 이르려면 과학적, 심미적, 산업적으로 엄청난 발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즐기기 위해서 비생산자는 생산자가 생산하기 위해 하는 거의 그만큼 노동할 필요를 지닌다. 특권층의 교육에는 25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 이 특권층이 다시 노동자가 될 때는 언제일까?

모든 생산자 계급 중에 오늘날 가장 힘을 덜들이는 것은 농업 계급이다. 마지막으로 평등에도 달할 것도 이 계급이다. 다른 데서는 어디에서나 상업과 공업 노동은 극히 작은 비중도 견딜 수 없는 수준에도 달해 있다. 그러나 여기서서는 반대로 나는 감히 평등이 임박해 있다고 말한다. 평등이 노동자들 간에 아주 긴밀하게 존재하며 이를 이루는 개인들, 주인들, 자본가들, 기업가들, 한마디로 귀족 부분은 5 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이 높은 머리들을 낳는 것은 누구에게도 어려운 일일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나게 비통한 불평이 노동의 과도함에 대해 치솟는다. 모든 부분에서 일군은 임금 상승과 일과 시간 단축을 위해 파업한다. 이는 명제를 내세우고

그런데, 갱을굴착하는데, 도구를만드는데, 채굴에서사용되는자재를운반하고채취된석탄을운반하는데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들을추가하라. 연료의부족때문에필요하게된이모든세계를유지하기위해, 이모든지출들에직면하고앞서획득된보리를보전하기위해, 같은규모로농업, 공업및상업수익을증대시키고어디에서나더큰노력, 새로운지출을촉발할필요가있었다. 그리고가능하다면, 말해보라. 원초적노동은얼마나엄청난양으로증대되어야했는가?

모든산업상의기업, 그리고이를대표하는기계들은땅과마찬가지다. 이를번영하게하려면항상증가하는자본이필요하다. 이는부가소멸하고복리가사라지는것을보지않으려면노동자의업무를끊임없이더해줄필요가있다는말이다. 기계의도움으로우리가부유해져서우리의노동을제거하거나줄일수있다고상상하는것, 이는운동의영속성이존재할수없는곳에서그것을찾는것, 끊임없는퇴화에종속되고구기력한존재들에서운동의영속성을찾는것이다. 이는그원인들보다더큰결과들을가정하는것이다. 자연에서아무것도무에서창조되지않는것처럼경제질서에서사람은그자신의품에서풀어내는것말고아무것도생산하지않는다. 그의생명의한계들이그의다산성의한계들이기도하다.<sup>4</sup>

이를더손에잡히는방식으로제시하자. 프랑스의연간생산이 100 억프랑으로평가된다고하자. 프랑을가치들의비교의계측단위로채택한다면, 인당노동총계는 394 다. 그런데프랑스에서인구가겨우절반만큼도증가하지못한반면생산이 50 년전부터두배이상되어서, 결과적으로프랑스는네배가더부유해지면서 50 년전에하던것보다네배의노동을하는것이된다. 노역의이네배는노동일수의네배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산업과기계역학의진보를고려할필요가있으니말이다. 나는노동이지속시간에서만큼강도에서네배가되었다는것, 증대는영혼과몸에한꺼번에자극을가했다는것을말한다. 이는총계에는아무변동도주지못하는것이다. 기계들은우리에게일정한수작업을줄여주고보충해주기만한다. 기계들이노동을감축시키는것이아니라노동을웁기는것이다. 우리가이제까지우리의근육에요구하는것이두뇌로 옮겨졌다. 신체에서지성으로 옮겨지는것이행위의양식이아니라면노동에서는아무것도달라지지않는다. 그러므로사람이끊임없이그에게고유한힘 덕분에자원의증가하는관성과그의필요의증대에승리한다는것이증명된다면, 동시에증명되는것은그의노역의총계가항상증가한다는것이다.

<sup>4</sup> 사람들은과학계에한영국농학자의경험들을알려왔다. 그로부터나오는결과는현저하게더많은수확을얻지않고토지에비료의양을두배로늘릴수있다는것이다. 비슷한증명을하려면 19 세기에살필요가있었다. 죽으로사람을만들어내지않는다. 죽을먹고소화하는것도일정정도로한사람의실험대상, 여린이가필요하다. 마찬가지로어떤사람이자기생존수단을재생산하기위해충분한분뇨를내놓는다는것을증명할때, 사람들이더앞선것은아닐것이다. 땅이필요하다. 밀씨를퇴비더미에뿌려라. 그대는이를준비된토지에뿌릴경우보다수확을덜하게될것이다. 또한그것은값도덜나갈것이다. 그러므로산물을늘리려면경작가능면적으로늘리고, 노동을늘려야한다. 천연비료나인공비료는결코부족하지않을것이다.

가할여지는없었다. 그러니인구에게증가할여지가없었다면생산에도증가할여지가없었다. 그리고이야말로산업, 과학, 예술, 도덕관념이, 인류가간힌것이다. 인류가그진로에서제지당하면더이상진보적이고섭리적인존재가아니다. 인류는변함없이신으로있으며, 짐승이다. 루동박사의실무를당신마음에드는인류의시기에적용한다면문명은 3 년수유덕분에곧멈추고우리는경계석들이된다. 더일찍결혼하고수유기간을 18 개월로줄여서이를치유하기가쉽다고말할것인가? 나는이것은조롱하는것이라고대답한다. 사회의진보는이처럼인간의자의에맡겨질수없다. 우리의자유는숙명의한계안에포함되어야하며, 우리의본성은늘어놓는것이지, 초월하는것도다시만드는것도아니다. 게다가 3 년의수유기가젖먹이에게필요불가결하다면, 당신은그에게잘못을하지않으면서젖을떨수없다. 반대로이 3 년이필요불가결하지않다면, 이론은무엇이되는가?

이처럼우리는이미더이상처음볼때루동박사의체계가우리에게기대하게한이자연법칙, 홀로, 그리고사람의도움없이사회와개인생활의모든순간에중단도, 불규칙한운동도없이작용할법칙을발견하지못한다. 이체계에서는모든다른체계들에서처럼자연은아무것도계획하지않았다. 그리고사람이갑자기절제에의해서든, 적출에의해서든, 작업중단에의해서든, 성매매에의해서든, 끝으로생식기관을희생시키는수유기관의서비스연장에의해서든그생식의진보에개입하지않는다면, 인구는그순간범람하고, 식량은부족하고사회는교란되고죽는다! 이는여전히동일한계변이아닌가?

그리고어떻게그사회적역할이점점커지는여성들에게, 네자녀의어머니에게는 16 년의노예살이가될날잘몰르는이수유노동, 상당부분자녀들의생명력에무익한노예살이의노동을부과할것인가? 사람이동물성의역업에서해방되도록그에게지성이주어졌다면, 그가자기유기체의법칙들을해석하고사회의더높은법칙들에따라이를변경할자리가여기가아닌가? 나는가난하고혈벗은유목민안에수유기의연장이있다고생각한다. 거기서아기는너무거친음식을섭취할수없어서자기한테젖을먹이는여자의품말고다른수단을가지지않는다. 그러나노동이우리에게주는행복과함께, 사람이동물들에게행사하는지배력과함께, 동물들의암컷이사람에게아주소중한젖먹이는여자가되어여성의처지는달라진다. 그러니여성에게 60 세기의문명에의해폐지된법칙들을다시지키게하는것은정말로여성을짐승으로되보시키는것이다. 3 년수유는여전히하나의빈곤으로다른빈곤을대체하는것이다. 이와관련해서루동박사의이론은또한부도덕성을지닌다.

다시금다른모든이론들처럼멜서스의잘못된가설에서태어난이론도해결하겠다고나서는난점을더잘공략하지못한다는것을언급하자. 3 년수유의관습이어디서나자리잡았다고잠시가정하자. 인구는정체된상태로있으며이는경이롭다. 하지만빈곤은인구가아니라독점층근원으로하고끊임없이생산과노동보다앞서니빈곤은여전히제갈길을간다. 이처럼빈곤이계속해서세상에서사람들을없어지게해서, 곧어쩔수없이노동계급의손실을복구하기위해조혼과수유

의단축으로인구를축진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이는우리를여전히뒤죽박죽으로만들어놓는것이다.

끝으로 3년수유체계는또한인구와지구의관계에서의인구문제를더매한상태로둔다는것을볼수있다. 왜냐하면둘중하나이기때문이다. 3년수유에도 불구하고여성들이여전히인구가증가하도록충분한자녀를낳을거시다. 그리고이경우에이증가의한계는어디일것인가? 아니면, 인구가정체상태로있거나심지어퇴보할것이다. 그러면인류안의모든것이정체하고퇴보하게되며, 이정체에의해, 이퇴보에의해인류와인류가거주하는행성의관계는무가되고사람은땅에서이방인으로남는다. 이는터무니없는것이다.

요컨대, 경제학자들만큼이나사회주의자들이제안한인구문제를위한해결책은, 이들이모두잘못된가설의당파들이고자연에밀접하고경제질서에본질적인아무것도도의존하지않는당파들이어서모두잘못되고, 모순적이고, 실행불가능하고, 무능력하고, 부도덕하다. 사람이자신의산업활동영역에서발견했다고상상하는것처럼자신의애정활동영역에서생산하지않으면서즐기는비밀을발견하도록하라. 그러면우리는우리가노동에서관찰한것, 경쟁, 신용과소유권을사랑, 결혼, 그리고가족에서보게될것이다. 우리는사랑이발작적이고신경질적인흥분으로바뀌는것, 당황스러운투기거래가교환을계승하는것처럼혼거混居가부부의신실함을계승하는것, 사회가독점때문에부패한것처럼여성들때문에부패하는것, 정치단체가결국부패에빠지는것을보게될것이다. 이는인류의소행일것이다.

## II

그러므로문제는온전히남아있다. 이제우리가할일은새로운탐구를시도하는것이다.

인류의인구는 1, 2, 4, 8, 16, 32, 64...의무한한기하급수에따라증가하는경향을띤다는것이증명된다.

다른한편, 바로이인류의자본과부의발달은 1, 4, 16, 64, 256, 1024, 4096...으로무한히나가는더빠른급수를따르며, 그각항은앞의급수의상응하는항의수의제곱으로간주될수있다는것이증명된다.

이두급수는평행을이루고연대관계로서풀수없는연계로서연결되는데, 서로를원인과결과로활용하며, 계다가엄밀한진리를표현하는것보다는경향을서술하는데소용되는것들로서그항들각각에서동일한시기에종속된다.

이첫번째사항이확인되었으니, 남은것은사람들과생산물들로지구전체표면을넘치게하는데서두세세기로충분할때증가가세상의전체지속기간동안동일한강도로유지되기는기하학적으로불가능하니생산물에서만큼인구에서인류의증가하는이경향이어떻게스스로제한하는가하는것이다. 그런데신이우리에게생육하고번성하라고, 그리고땅에충만하라고명령했다면, 그는우리에게경계를넘어가라고말하지않았다. 그계명의내용이홀로이를가르쳐준다.

그것은하위관련을맺고있다. 이처럼기계는이익의원천인동시에지출의구심점, 노예신분의근원이다. 왜냐하면산업이어떤기계를가동하든지원동자는여전히사람이기때문이다. 사람이만드는기구들은사람이그것에전달해주는, 그리고그가계속해서갱신해주지않을수없는잠재력말고는잠재력을가지지않는다. 사람이기계에더많이둘러싸일수록그는더많은감독과수고를자초하는것이다. 조종사, 운전사가순간기관차를방치하면, 예언자가말하듯이 (바퀴들안에영이있었다 spiritus erat in rotis) 그정신이바퀴에생명을불어넣는것같은경이로운차량은그순간멈춘다. 기사가단하루방들을방문하기를그치면그차량은여섯주를계속가지못할것이다. 광부가그것에연료를공급하기를중단하면결코움직이지않을것이다.

그런데결국이들어보지못한노력은무엇을지향하는가? 이천재성의발휘, 이거인의작업은왜하는가? 땅에서우리에게거절하는부를획득하기위해서, 이전까지는불모였던지역을비옥하게하기위해서, 그리고 36 등급, 72 등급의토지를활용하기위해서다. 산업시설은사막의개발이용을위한가축임대차다.

그러므로우리가새로운발명마다, 개간때마다매번앞서획득된복리의수준으로유지해가기를원한다면, 우리가이복리를심지어증대시키겠다고한다면, 우리각자가마지막토지의개발이용이요하는지출에서자기몫을하는것이절대로필요하다. 이것없이논어처음에가장부유한형편에서처한자, 예를들어토지 A 의지주는곧가장가난한자가될것이다. 그러므로결국우리가인구와부에서진보를더많이이룬다면우리의노역또한더욱가중될것이다. 그토록참된명제에더우아한공식을제시하지못하는것을아쉽게생각한다.

나는 (제 4 장에서) 노동증대의증거로서철도의예를인용했다. 거기서노예노동이무섭게증대하는것을보게된다. 나는광산에서일어나는일에대해한마디할것이다.

자연이우리에게식물연료와과학이아직파악할수없었던, 그러나미래가우리앞에서달리는것을우리가보고싶지않다면곧우리가의존하는것이필요할열과빛의보편적매체사이의이행단계로마련해준듯한이광대한저장고안의석탄을퍼내는것보다겉모양으로보기에더간단하고그보다비용이덜드는것이무엇인가? ... 그런데노동이첫번째노출을공략하고나자, 곧바로하나의산업, 하나의과학이엄청난규모로조직되어갑자기거기서솟아난다. 나는광물개발이포함하는엄청나고복잡한작업의세부내용에는들어갈수없다. 간단한전문용어가내목적에는충분하다.

광산인원에는소장, 엔지니어, 사무원, 총감독, 채탄광부, 수레꾼, 수레미는사람, 소모는사람, 하역인부, 갱목공사인부, 수리공, 도로작업자, 성토인부, 석탄운반차적재인부, 마부, 광부, 선광인부, 석탄검수인, 물검수인, 기계운전자, 운전사, 석고작업인부, 돌고르는사람, 수공노동자, 석고작업자, 짐수레꾼, 대장장이, 석탄운반차작업자, 화물차적재인, 석수와하인이었다. 물론나는잊어버린다. 루아르광산의외출명세서상의목록을취했을뿐이다.

그러나인구와생산의이중적운동과는별도로현재까지경제학자들이무시한, 그리고사회주의는더구나보지않으려고한또다른운동이발현한다. 이는내가말해온것처럼노동의가중화다.

조직된사회에서노동의총계는분업, 기계등에의해항상감소하는것으로보임에도반대로집단적노동자에게, 그리고각개인에게계속해서증가하며, 이는경제발전의사실자체에의해이에비례한다. 그래서과학, 예술, 그리고조직에힘입어산업이완성될수록노동은모든사람에게강도와지속성(질과양)이증가하며, 따라서상대적생산은감소한다. 그리고이런결과에도달한다. 사회에서생산물의다양성은노동의배증과동의어다.

이는내가이해시키려고노력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리카도의이론으로돌아가보자. 품질이다른네토지 A, B, C, D가동일한비용과같은면적에대해서 A는 120, B는 100, C는 80, D는 60을생산하고있다고하자. 이네토지의지주들을서로비교해본다면첫번째지주는부자이고, 두번째지주는안락하고, 세번째지주는수입과지출을맞추고, 네번째지주는가난하다는것이명확하다. 그러나집단적인간에대해서이재산의불평등은무엇을의미하는가? 이는한편으로사회가제 1급의토지경작으로부터하급토지의경작으로넘어갈수록실제로가난해졌다는것이다. 이는둘째로, 그사회가첫째종류의토지를개발이용하면서만났던복리를보전하기위해서는그사회는같은토지표면적에대해토질이어떠하든지생산물을증가하게해주는작용수단을발명해야했다는것이다. 그런데사회는불균등한토질이아기한빈곤을극복했을뿐아니라그자본과원시적인복리를증대시켰다. 사회는이복리를처음개간한노동자들을위해서만아니라그에뒤이어나온모든이들을위해증대시켰다. 그러므로인간은점차토양의무기력을보충하고자실체의항상더큰양을재료에들어가게하는것이필요하다. 한마디로말하면언제나더많은노동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사물을어떤식으로바라보든지, 복리는토지의증가하는불모성과소비자대수의배증에도불구하고증대되어제거할것으로남아있을특권과교란인들을제외한다면노동의총계역시사회와각개인에게필연적으로증대했다.

이점에서우리에게환상을갖게하는것은기계의도입으로야기된가치의진자운동이다. 순간적인교란후에는언제나우리에게복리의증대를가져다주어실제로는우리의업무의축적만을나타내는반면에휴식을향해내딛는그만큼의발걸음으로우리에게여겨지는진자운동이다.

실제로기계는무엇인가? 노동의요약된방식이다. 그러므로기계가발명될때마다과잉의필요, 빈곤의압박이있는것이다. 노동은더이상제공하지않았다. 기계가나타나균형을재확립한다. 흔히심지어휴식시간을마련해준다. 이관점에서별써기계는노동의악화를증명해준다.

그러나다시한번물노니기계는무엇인가? (나는여기서독자의모든주의를촉구한다) 자신의경찰, 예산, 인원, 비용등을가지고직간접적으로다른모든생산중심들이그에종속하는특정한행위중심으로서모든다른생산중심들각각에대해

그러면인구와부에서인류의증가의자연적한계는무엇인가?

우선인구의두배증가와부의상응하는네배증가가이루어지는시기는본질적으로가변적이라는것, 그합법칙성이나비정상성을우리가아직전혀탐색할필요가없는다양한원인들의작용속에서그시기는차례로 14년, 18년, 20년, 25년, 50년, 100년, 500년, 1000년, 그리고그이상인되는것으로밝혀졌다는것을관찰하자.

그런데별써이배증시기의유동성이문제의해결책을포함한다는것이명백하다. 이시기가무한히연장될수있다면인구와생산이언제나증가하면서정체하는상태로있게될순간이올것이니말이다. 유일하게중요한것은그시기의연장을결정하는원인, 그리고따라서인류의수치적부동성을결정하는원인이일체의억제, 억압과자에서해방된사회조직에밀접하다는것, 그것은우리의여러능력들의충분하고자유로운행사에서나온다는것이다. 중요한것은그로부터결과로나오게될균형이인류전체에서느껴질뿐아니라인류의부분들각각, 민족, 도시, 가족, 개인에게서도느껴지는것, 다소먼미래시기에만아니라역사의모든시기에, 사회생활과개인생활의세기마다, 날마다, 매분느껴지는것이다.

그런데아직미지인이원인, 모든외관상으로는인류에게더현존하고, 사회와인간에게더밀접한것으로존재할이원인, 노동의총합이감소하는대신끊임없이증가하며, 노동자들의수에비례해서만아니라산업, 과학, 예술에서성취되는진보에도비례해서증가한다는것, 그래서행복의증가는진정으로인간에게는그의과제의증가를표현할뿐이라는것이증명된다면우리는틀림없이파악할것이다. 실제로노동의증가로부터우선생산물배증의시기는끊임없이연장되어인류가여전히노동은하면서도아무런축적을하지않고더이상자본화를하지않는순간이온다는결과가될것이다. ... 인간의생산은그때그최대에도달했을것이다. 인구가같은발걸음으로따라가면서이최대치에서어떻게멈출것인지를아는일이남을것이다. 인구와생산의이두항목은필연적으로연결되며연대적관계에있으니말이다.

우선은노동에전념하자.

노동은사람의첫번째속성, 핵심적성격이다.

사람은노동자, 즉창조자요시인이다. 그는관념들과기호들을내놓는다. 자연을개조하면서도자신의밀천으로생산하고, 자신의실체로살아간다. 이는대중적인문구인, 자기노동으로살아간다는것의의미하는것이다.

사람은그러므로동물들중에유일하게노동하며, 자연이결코만들지않은것들을, 신에게그능력들이결여되므로창조할능력이없는것들을존재하게한다. 이는인간이그의능력들의특수성때문에신적권능이성추하는것은아무것도하지못하는것과마찬가지다. 신의경쟁자인인간은신과똑같이, 그러나신과는다르게노동한다. 말하고, 노래부르고, 글을쓰고, 이야기하고, 계산하고, 계획을세우고이를실행하고, 여러이미지들을만들어내서그것들로서신을그리고, 자기존재의기억할만한행위를기념하고, 기념일들을제정하고, 전쟁때문에화를내고, 종교, 철

학, 예술로써 자신의 사고를 부추긴다. 존속하기 위해 자연 전체를 사용한다. 이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든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는 밑그림을 그리고, 의식과 취향을 둔다. 그러나 더욱 경이로운 것은 노동 분업에 의해, 그리고 교환에 의한 인류 전체가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것, 그렇지만 각 개인은 이행위 공동체에서 자유롭고 독립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의무의 호혜성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사회성 본능을 정의로 전환하고, 자기 말에 대한 담보로 자신에게 형벌을 자초한다. 오로지 사람을 구분해주는 이 모든 것들은 노동의 형태, 속성, 법칙들이며, 우리의 생명의 방출, 우리 영혼의 유출로 간주될 수 있다.

동물들은 그들의 의식을 초월하는 이성의 지배 아래 움직인다. 인간만이 자기 노동의 의식하고, 자기의 의식도 도움으로 자기 이성을 형성하므로 노동한다. 우리가 비유로 노동자라고 이름 붙이는 동물들은 두적대적 창조자들인 신과 인간 중 하나의 손안에 있는 기계들일 뿐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생산하지 않는다. 때로 그들을 우리에게 접근시켜주는 것 같은 외적 행위들, 동우리에서 살고 먹은 것을 비축하고, 옷을 해입는 여러 동물들의 내재적 재능은 도덕성 면에서는 유기 생명체의 운동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선 완벽하며, 가능한 완성의 여지가 없다. 의식의 관점에서 누에의 소화와 그것의 천짜기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발견할 수 있는가? 알을 품는 제비는 어떤 점에서 집을 짓는 제비보다 열등한가?

그러므로 노동은 무엇인가? 아무도 아직 그것을 정의하지 않았다. 노동은 정신의 배출이다. 노동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지출하는 것이다. 노동하는 것은 한마디로 헌신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유토피아 주의자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헌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헌신은 노동이며 그 업적에 의해 표현되고, 측정되는 노동이다.

사람은 마라톤의 병사처럼 열심의 노력에서 자기 영혼을 소진하든, 우리 공장들의 인부처럼, 우리 들판의 농민처럼 50년, 60년의 노동으로 자기 생명을 소진하든 노동과 헌신으로 죽는다. 그는 노동하므로 죽는다. 아니, 더 제대로 말해 그는 노동자로 태어나므로 죽기 마련이다. 사람의 지상 운명은 불멸성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동물들은 그들의 생명을 지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그들에게는 인간과 공통인 것밖에 말할 것이 없다. 이는 생식이다. 어떤 종들에게서는 생명은 재생산의 순간까지 지속한다. 이 지고의 행위가 완수되면 개체는 죽는다. 그는 자기 생명을 소진했으며, 더 이상 생존이 유를 가지지 않는다. 꿀벌과 개미처럼 노동을 한다고 하는 종들에서는 성은 조금도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개체들에게 남겨진다. 일하는 것들은 성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 사람이 종속시키는 동물들 중에 그가 자신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들은 곤활력을 상실한다. 그것들은 여리고 물러진다. 노동은 그것들에게는 조속한 늙음과도 같다.

결과적으로 노동은 짐승들의 처지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제거된다면 자연에는 절단, 쇠퇴, 그리고 이어서 죽음으로 의지향이라는 연속적 해결책이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자연에서는 균형이 파괴에 의해 성립한다. 초식동물, 설치류 등은 식물의 왕국에서 살며, 육식동물에게 먹이로 소용되지 않는다면 이를 곧 소진시킬 것이다. 육식동물들은 모든 것을 잡아먹은 후 서로를 잡아먹으며 결국 사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멸종은 자연에서의 순환과 생명의 법칙으로 나타난다. 사람은 동물로서 같은 숙명에 종속된다. 그는 자기 생존 수단을 두고 고래, 상어, 늑대, 호랑이, 사자, 쥐, 독수리, 곤충들과 다투어 이모든 것을 쫓고 죽인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에게 전쟁을 걸고, 자신을 잡아먹는다.

그러나 보편적 생명의 원인이란 단히는 결코 이런 식이 아니며, 현대 화학이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계시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인간은 피와 살의 형태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빵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며, 이는 그의 노동의 산물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Hoc est corpus meum). 노동은 빈곤의 예상을 멈추고 식인 풍습을 끝맺는다. 사납고 신적인 신화를 인간적이고 섭리적인 진리가 계승한다. 노동에 의해 사람과 자연 사이의 동맹이 형성된다. 그리고 자연의 영속성은 인간의 자발적 희생에 의해 보장된다. 주님이 맺은 언약의 피다 (Sanguis foederis quod pepigit Dominus). 이처럼 종교적 전통은 경제적 진리에서 기한이 끝났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태기 세례의 성찬 회생을 예고했으며, 이는 예전에는 아론과 노아의 희생이 표현한 것이고, 더 옛날에는 또한 토리드 Tauride<sup>3</sup>의 인신 희생도 이를 가리켰다. 현대의 노동 제도는 이를 새로이 예고하고 선포한다. 우주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 원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인류는 스스로를 먹고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자기 노동으로 먹고 산다면,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먹고 산다면, 인류의 실체, 따라서 자신의 생명력은 필연적으로 그의 산업적 방출에 비례한다. 그런데 방출의 위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치 경제학의 가장 중대한 사실로 철학자의 명상을 가장 자극할 만한 사실에 닿는다. 이는 노동의 증가, 혹은 더 제대로 말하자면, 가중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업이 아무것도 아니고 각자가 모두 자신만을 위해 생산하는 때인 미분할의 시대에는 노동은 그다 산성이 최소에 있다. 부는 개인들의 수와 같이 증가한다. 그때에는 땅은 소수의 주민들만 부양할 수 있다. 야만인 앞에서는 땅이 줄어드는 것 같다. 인구는 끊임없이 맬서스 가지적 한 비율에 따라 생산을 앞서는 경향을 띤다. 그리고 곧 모든 방면에서 그 한계를 밀어붙여 절정에 달하고 죽는다.

노동의 분업, 기계, 상업, 신용, 그리고 모든 경제적 장치와 함께 땅은 사람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한다. 이때 땅은 그것을 개발하는 자 앞에서 확장된다. 복리는 인구를 앞질러 간다. 부는 노동자 수의 제곱으로 성장한다.

<sup>3</sup> 고대의 크림 반도를 일컬음. -역자주